

발간등록번호

11-1192000-001172-01

2023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2022년 기준)



2023. 12



제 출 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23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 종 덕

연구책임자

김수현 부연구위원

참여 연구진

김대영, 이정삼, 이남수, 백은영 연구위원

하혜수, 이상규 전문연구원

김우술, 김남호, 오예진, 홍승표, 최연지 연구원

목 차

■ 제1장 ■ 조사개요	1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3
1. 배경	3
2. 목적	4
제2절 조사 범위와 내용	5
1. 범위	5
2. 내용	5
제3절 조사 방법 및 추진체계	6
1. 방법	6
2. 추진체계	7
■ 제2장 ■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 분석	9
제1절 수산물 공급구조 변화	11
1. 어업별 생산	11
2. 어업별·부류별 생산	12
제2절 수산물 소비구조 변화	26
1. 1인당 수산물 소비량	26
2. 수산물 소비 변화 현황	27
3. 수산물 소비 동향 변화 조사	32
제3절 글로벌 수산물 시장의 변화	41
1. 세계 수산물 수급 및 가격, 교역 현황	41
2.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	45
제4절 수산 정책 환경 변화	52
1. 2022년 해양수산부 핵심정책 및 수급관련 정책	52
2. 수산물 비축사업	54
3. 수산물 자조금지원 사업	56
4. 수산물 구매지원사업	57

■ 제3장 ■ 수산물 수급현황 및 유통산업 구조	59
제1절 수산물 수급현황	61
1. 수산물 수급의 이론적 배경	61
2. 수산물 생산 현황	62
3. 수산물 수출입 현황	67
4. 수산물 재고 현황	70
5. 수산물 감모·폐기 현황	72
6. 수산물 수급 현황	72
제2절 수산물 유통산업 구조	79
1. 주요 수산물 유통경로 현황	79
2. 수산물 도소매업 현황	93
3. 수산물 유통종사자 현황	97
■ 제4장 ■ 품목별 유통실태 조사	103
제1절 수산물 유통실태 조사개요	105
1. 필요성 및 목적	105
2. 수산물 품목별 유통 실태 조사 체계(안)	106
제2절 고등어 유통실태조사	108
1. 고등어 생산 및 유통현황	108
2. 고등어 유통구조	123
3. 고등어 유통비용	127
제3절 명태 유통실태조사	139
1. 명태 생산 및 유통현황	139
2. 명태 유통구조	149
3. 명태 유통비용	156
제4절 오징어 유통실태조사	160
1. 오징어 생산 및 유통현황	160
2. 오징어 유통구조	179
3. 오징어 유통비용	186
제5절 갈치 유통실태조사	195
1. 갈치 생산 및 유통현황	195

2. 갈치 유통구조	211
3. 갈치 유통비용	218
제6절 참조기 유통실태조사	225
1. 참조기 생산 및 유통현황	225
2. 참조기 유통구조	239
3. 참조기 유통비용	242
제7절 마른멸치 유통실태조사	247
1. 마른멸치 생산 및 유통현황	247
2. 마른멸치 유통구조	258
3. 마른멸치 유통비용	262
제8절 양식전복 유통실태조사	265
1. 양식전복 생산 및 유통현황	265
2. 양식전복 유통구조	279
3. 양식전복 유통비용	282
제9절 양식넙치 유통실태조사	285
1. 양식넙치 생산 및 유통현황	285
2. 양식넙치 유통경로	297
3. 양식넙치 유통비용(제주 기준)	299
제10절 양식굴 유통실태조사	305
1. 양식굴 생산 및 유통현황	305
2. 양식굴 유통구조	320
3. 양식굴 유통비용(통영 기준)	322
제11절 양식김 유통실태조사	327
1. 양식김 생산 및 유통현황	327
2. 양식김 유통구조	343
3. 양식김 유통비용	346
■ 제5장 ■ 수산물 유통지도	351
제1절 수산물 유통지도의 개념과 구조	353
제2절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지도	355
1. 데이터 분석	355
2. 유통지도 작성	357

■ 제6장 ■ 결론 및 시사점	361
제1절 결론 및 요약	363
1. 품목별 유통비용 조사결과 요약	363
2. 품목별 유통비용 구조	368
제2절 실태조사 시사점	378
참고문헌	381

표 목차

<표 1-1> 주요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현장조사	7
<표 2-1> 수산물 부류별·연도별 생산량 현황	3
<표 2-2>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5 1
<표 2-3> 우리나라 해면양식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0 2
<표 2-4>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2 2
<표 2-5>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4 2
<표 2-6>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추이	6 2
<표 2-7> 주요 식품군의 1인당 순식용 공급량(소비량) 현황	7· 2
<표 2-8> 한국의 가구원 수 추계	8 2
<표 2-9>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추이	0 3
<표 2-10> 온라인 쇼핑 매체·품목별 매출액 추이	0
<표 2-11> 가계의 외식 비중 및 가정 내 수산물 구입 추이	2 3
<표 2-12> 부류별 수산물 구입 빈도(2022년)	4· 3
<표 2-13> 가구원 수별 어류 구입 빈도	5 3
<표 2-14> 가구주 연령별 어류 구입 빈도	6 3
<표 2-15> 가구원 수별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	8 3
<표 2-16> 가구주 연령별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	9 3
<표 2-17> 수산가공품(조미, 건조) 구입 시 우선 확인 사항	0· 4
<표 2-18> 수산가공품(조미, 염건) 소비자 선호도(소비 트렌드 동조성)	0· 4
<표 2-19> 세계 주요 식품군별 수급 현황	2 4
<표 2-20> 식품군별 물가 지수 현황(FAO 기준)	3· 4
<표 2-21>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 추이	6 4
<표 2-22> 2022년 수산물 수출입 국가별 현황(금액 기준)	7· 4
<표 2-23> 부류별 수산물 수출금액 현황	7 4
<표 2-24> 부류별 수산물 수입금액 현황	8 4
<표 2-25> 수산물 상위 15개 수출품목 실적(금액 기준)	9· 4
<표 2-26> 수산물 상위 15개 수입품목 실적(금액 기준)	1· 5
<표 2-27> 2022년도 수산물 비축사업 수매실적	5· 5
<표 2-28> 수산물 비축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6 5
<표 2-29> 수산물자조금지원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6 5
<표 2-30> 수산물수매지원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7 5

<표 3-1> 어업별 수산물 생산 추이	36
<표 3-2> 일반해면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46
<표 3-3> 천해양식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56
<표 3-4> 원양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66
<표 3-5> 내수면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76
<표 3-6> 식품류 수출입 추이	86
<표 3-7> 국가별 수산물 수출금액 현황	96
<표 3-8> 국가별 수산물 수입금액 현황	07
<표 3-9> 수산물 재고 현황	17
<표 3-10> 식품별 감모율표	27
<표 3-11> 연도별 수산물 수급현황 추이	37
<표 3-12> 연간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및 자급률 동향	47
<표 3-13> 최근 5개년 조사대상 9개 품종의 수급 현황	67
<표 3-14> 수산물 계통 출하율 추이	38
<표 3-15> 지역별 위·공판장 현황(2022년 기준)	5·8
<표 3-16> 수협계통판매 지역별 현황(2022년 기준)	6·8
<표 3-17>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위판실적 규모(2022년 기준)	6·8
<표 3-18> 전국 도매시장 현황(2021년 기준)	7·8
<표 3-19> 전국 도매시장 법인 및 시장도매인 현황(2021년 기준)	8·8
<표 3-20> 수산물 취급 도매시장 현황(2021년 기준)	9·8
<표 3-21> 도매시장 전체 및 수산부류 거래실적	09
<표 3-22> 도매시장 수입수산물 거래 실적	19
<표 3-23> 도매시장 출하선별 출하물량	29
<표 3-24> 최근 10년간 도매시장의 거래금액 규모별 중도매인 현황	3·9
<표 3-25> 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체수 현황	39
<표 3-26> 수산물 도소매업 종사자수 현황	49
<표 3-27> 수산물 도소매업 매출액 현황	59
<표 3-28> 수산물 도소매업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현황(2021년 기준)	5·9
<표 3-29> 수산물 도소매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2021년 기준)	6·9
<표 3-30> 주요 식품군별 도소매업 규모 비교(2021년 기준)	6·9
<표 3-31>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상의 수산물 유통업 분류체계	89
<표 3-32> 수산물 도소매업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 현황(전국사업체조사)	9·9
<표 3-33> 산지 수산물시장의 유통종사자 현황(2022년 기준)	9·9
<표 3-34> 수산물 유통업 단순 노무인력 현황(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001
<표 3-35> 도매시장 수산부류 유통종사자 현황	11
<표 3-36> 수산물 유통종사자수 추정결과 비교(2021년 기준)	101

<표 4-1> 수산물 유통실태 조사의 단계별 내용	0
<표 4-2> 연도별 어업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8
<표 4-3> 연도별 어업별 고등어류 생산금액 동향	9
<표 4-4> 연도별·월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11
<표 4-5> 연도별 부류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11
<표 4-6> 연도별 부류별 고등어류 계통출하 동향	11
<표 4-7> 연도별 지역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21
<표 4-8> 연도별 어법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21
<표 4-9> 연도별 고등어 수출입 동향	31
<표 4-10> 제품형태별 고등어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411
<표 4-11> 연도별 고등어 수급구조	51
<표 4-12> 연도별·월별 고등어(선어) 산지가격 동향(대형선망수협)	611
<표 4-13> 연도별·월별 고등어 생산단가 동향	81
<표 4-14> 연도별·월별 고등어(선어) 도매가격 동향	911
<표 4-15> 연도별·월별 고등어(냉동) 도매가격 동향	1021
<표 4-16> 연도별·월별 고등어(선어) 소비자가격 동향	121
<표 4-17> 연도별·월별 고등어(냉동) 소비자가격 동향	221
<표 4-18> 고등어(선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	521
<표 4-19> 고등어(선어)의 유통비용(부산 공동어시장→소비지 도매시장)	1031
<표 4-20> 고등어(선어)의 유통비용(부산 공동어시장 → 서울 대형소매업체)	231
<표 4-21> 고등어(선어→동결)의 유통비(부산 공동어시장→소비지 도매시장)	431
<표 4-22> 수입고등어(노르웨이산 냉동)의 유통비용(감천항 → 소비지 도매시장)	831
<표 4-23> 연도별 어업별 명태 생산량 동향	111
<표 4-24> 연도별 어업별 명태 생산금액 동향	111
<표 4-25> 연도별·월별 명태 생산량 동향	111
<표 4-26> 연도별 부류별 명태 생산량 동향	211
<표 4-27> 연도별 명태 수출입 동향	311
<표 4-28> 제품유형별 명태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441
<표 4-29> 연도별 명태 수급구조	511
<표 4-30> 연도별·월별 명태 산지가격 동향(냉동 기준)	641
<표 4-31> 연도별·월별 명태 도매가격 동향(냉동 기준)	741
<표 4-32> 연도별·월별 명태 소비자가격 동향(냉동 기준)	841
<표 4-33> 북양 명태 통수별 사용 용도	111
<표 4-34> 냉동명태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17-2021년)	351
<표 4-35> 명태(냉동)의 유통비용(부산 → 노량진수산시장)	851
<표 4-36> 명태(냉동)의 유통비용 변화(부산 → 노량진수산시장)	951
<표 4-37> 연도별 어업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111

<표 4-38> 연도별 어업별 오징어 생산금액 동향	21
<표 4-39> 연도별·월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31
<표 4-40> 연도별 부류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51
<표 4-41> 연도별 부류별 오징어 계통출하 동향	51
<표 4-42> 연도별 지역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61
<표 4-43> 연도별 어법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일반해면어업)	71
<표 4-44> 연도별 오징어 수출입 동향	81
<표 4-45> 제품유형별 오징어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961
<표 4-46> 연도별 오징어 수급구조	1
<표 4-47> 연도별·월별 오징어 생산단가 동향(선어 기준)	271
<표 4-48> 연도별·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동향(선어 기준)	471
<표 4-49> 연도별·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동향(냉동 기준)	571
<표 4-50> 연도별·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동향(선어 기준)	671
<표 4-51> 연도별·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동향(냉동 기준)	871
<표 4-52> 오징어(활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	481
<표 4-53> 오징어(선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	581
<표 4-54> 오징어(냉동)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	581
<표 4-55> 활오징어의 유통비용 변화(경북 울진 후포 → 소매상(횃집))	781
<표 4-56>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 변화(경북 구룡포 → 가락시장)	1091
<표 4-57>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 변화(경북 구룡포 → 대형소매업체)	291
<표 4-58> 수입오징어(냉동)의 유통비용 변화(부산 → 가락시장)	491
<표 4-59> 연도별 어업별 갈치 생산량 동향	51
<표 4-60> 연도별 어업별 갈치 생산금액 동향	61
<표 4-61> 연도별·월별 갈치 생산량 동향	71
<표 4-62> 연도별 부류별 갈치 생산량 동향	81
<표 4-63> 연도별 부류별 갈치 계통출하 동향	91
<표 4-64> 연도별 지역별 갈치 산지판매량 동향	102
<표 4-65> 연도별 어법별 갈치 생산량 동향	112
<표 4-66> 연도별 갈치 수출입 동향	122
<표 4-67> 제품유형별 갈치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202
<표 4-68> 연도별 갈치 수급구조	32
<표 4-69> 연도별·월별 선어 갈치 생산단가 동향	52
<표 4-70> 연도별·월별 선어 갈치 산지가격 동향	62
<표 4-71> 연도별·월별 냉동 갈치 산지가격 동향	72
<표 4-72> 연도별·월별 냉장 갈치 도매가격 동향	82
<표 4-73> 연도별·월별 냉동 갈치 도매가격 동향	102
<표 4-74> 연도별·월별 냉장 갈치 소비자가격 동향	112

<표 4-75> 연도별·월별 냉동 갈치 소비자가격 동향	12
<표 4-76> 갈치 선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18-2022년)	5·12
<표 4-77> 갈치 냉동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18-2022년)	7·12
<표 4-78> 갈치(선어)의 유통비용(제주 서귀포 → 서울 대형소매업체)	912
<표 4-79> 갈치(선어)의 유통비용 변화(제주 서귀포 → 서울 대형소매업체)	022
<표 4-80> 갈치(선어)의 유통비용(제주 서귀포 → 노량진수산물시장)	322
<표 4-81> 갈치(선어)의 유통비용 변화(제주 서귀포 → 노량진수산물시장)	422
<표 4-82> 연도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2
<표 4-83> 연도별·월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2
<표 4-84> 연도별 부류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2
<표 4-85> 연도별 참조기 계통출하 동향	2
<표 4-86> 연도별 지역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2
<표 4-87> 연도별 어법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2
<표 4-88> 연도별 참조기 수출입 동향	12
<표 4-89> 제품유형별 참조기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232
<표 4-90> 연도별 참조기 수급구조	3
<표 4-91> 연도별·월별 참조기 선어 생산단가 동향	3
<표 4-92> 연도별·월별 참조기 선어 산지가격 동향(한림수협 기준)	632
<표 4-93> 연도별·월별 참조기 선어 도매가격 동향	72
<표 4-94> 월별 냉동 참조기 소비자가격 추이 기준	2
<표 4-95> 참조기(선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	242
<표 4-96> 참조기 선어의 유통비용 변화(목포 → 노량진수산물시장)	442
<표 4-97> 참조기(선어→동결)의 유통비용 변화(제주 → 대형소매업체)	642
<표 4-98> 연도별·월별 마른멸치 생산량 동향	72
<표 4-99> 연도별 어업별 멸치 생산량·생산금액 동향	28
<표 4-100> 연도별·월별 멸치 생산량 동향	92
<표 4-101> 연도별 부류별 멸치 생산량 동향	2
<표 4-102> 연도별 부류별 멸치 계통출하 동향	12
<표 4-103> 연도별 지역별 멸치 생산량 동향	12
<표 4-104> 연도별 어법별 멸치 생산량 동향	22
<표 4-105> 연도별 멸치 수출입 동향	32
<표 4-106> 연도별 마른멸치 수급구조	42
<표 4-107> 연도별·월별 마른멸치(중멸) 산지가격 동향	552
<표 4-108> 연도별·월별 마른멸치(중멸) 도매가격 동향	652
<표 4-109> 연도별·월별 마른멸치 소비자가격 동향	72
<표 4-110> 마른멸치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2년 기준)	062
<표 4-111> 마른멸치의 유통비용(산지 위판장→소비지 도매시장)	462

<표 4-112>	연도별 양식전복 생산량 동향	62
<표 4-113>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생산량 동향	62
<표 4-114>	연도별 양식전복 계통출하 동향	62
<표 4-115>	연도별 지역별 양식전복 생산량 동향	62
<표 4-116>	연도별 양식전복 수출입 동향	62
<표 4-117>	제품유형별 전복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272
<표 4-118>	연도별 전복 수급 구조	32
<표 4-119>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생산단가 동향	42
<표 4-120>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산지가격 동향(kg당 15마리 기준)	572
<표 4-121>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도매가격 동향(kg당 14~15마리 기준)	7·72
<표 4-122>	월별 양식전복 소비자가격 동향(kg당 14~15마리 기준)	8·72
<표 4-123>	양식전복 주요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2년 기준)	182
<표 4-124>	양식전복(활어)의 유통비용(완도 → 서울 대형소매업체)	382
<표 4-125>	양식전복(활어)의 유통비용 변화(완도 → 서울 대형소매업체)	482
<표 4-126>	연도별 양식넙치 생산량 및 생산금액 현황	62
<표 4-127>	연도별·월별 양식넙치 생산량 동향	62
<표 4-128>	연도별 부류별 양식넙치 생산량 동향	62
<표 4-129>	연도별 부류별 양식넙치 계통출하 동향	62
<표 4-130>	연도별 지역별 양식넙치 생산량 동향	62
<표 4-131>	연도별 수협별 양식넙치 계통출하 동향	62
<표 4-132>	연도별 양식넙치 수출입 동향	62
<표 4-133>	연도별 양식넙치 수급구조	32
<표 4-134>	연도별·월별 양식넙치 산지가격 동향	52
<표 4-135>	연도별·월별 양식넙치 도매가격 동향	62
<표 4-136>	양식넙치의 유통비용(제주 → 횡집 기준)	103
<표 4-137>	양식넙치의 유통비용(제주 → 대형소매점 기준)	403
<표 4-138>	연도별 양식산 굴 생산량 및 생산금액 동향	62
<표 4-139>	연도별·월별 양식굴 생산량 동향	62
<표 4-140>	연도별 양식 굴 계통출하 동향	62
<표 4-141>	연도별 지역별 양식 굴 생산량 동향	62
<표 4-142>	연도별 굴 수출입 동향	12
<표 4-143>	제품유형별 굴 수출 실적	22
<표 4-144>	연도별 굴 수급구조	32
<표 4-145>	연도별 월별 각굴 생산단가 동향	52
<표 4-146>	연도별 월별 알굴 산지가격 동향	62
<표 4-147>	연도별 월별 알굴 도매가격 동향	82
<표 4-148>	연도별 월별 알굴 소비자가격 동향	92

<표 4-149> 양식굴 주요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 결과	12
<표 4-150> 양식굴(봉지굴 150g)의 유통비용(통영 → 서울 대형소매점)	523
<표 4-151> 양식굴(봉지굴 150g)의 유통비용 변화(통영 → 서울 대형소매점)	623
<표 4-152> 연도별 지역별 양식김 어업권 동향	8
<표 4-153> 연도별 양식김 생산량 동향	9
<표 4-154> 연도별·월별 양식김 생산량 동향	13
<표 4-155> 연도별 양식김 계통출하 동향	23
<표 4-156> 연도별·지역별 양식김 생산량 동향	3
<표 4-157> 연도별 양식김 수출입 동향	4
<표 4-158> 제품유형별 김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533
<표 4-159> 연도별 김 수급구조	6
<표 4-160> 연도별·월별 양식김 생산단가 동향	7
<표 4-161> 연도별·월별 양식김 산지가격 동향(물김 기준)	93
<표 4-162> 연도별·월별 양식김 도매가격 동향(마른김-중품-중도매인 구매 기준)	043
<표 4-163> 연도별·월별 양식김 도매가격 동향(마른김-중품-중도매인 판매 기준)	043
<표 4-164> 연도별·월별 양식김 소매가격 동향(마른김)	143
<표 4-165> 연도별·월별 양식김 소매가격 동향(얼구운김)	243
<표 4-166> 양식김 주요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 결과(2022년 기준)	543
<표 4-167> 마른김의 유통비용(물김 산지 위판 → 소매업체)	843
<표 4-168> 얼구운김의 유통비용(물김 산지 위판 → 소매업체)	053
<표 5-1> 2022년 수산물 수급	53
<표 5-2> 수산물 공급단계 세부자료	5
<표 5-3> 수산물 수요단계 세부자료	5
<표 6-1> 조사대상 수산물의 유통비용률 비교	6
<표 6-2> 조사대상 수입 수산물의 유통비용률 비교	5
<표 6-3> 9개 품목 수산물 적용 가중치	7
<표 6-4> 조사대상 9개 품목의 유통비용 구조와 가격	7

그림 목 차

<그림 1-1> 유통산업 실태 조사 품목 도입 현황	4
<그림 1-2> 사업 체계도	8
<그림 2-1> 수산물 생산 동향	11
<그림 2-2> 수산물 부류별 생산량 추이	21
<그림 2-3>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및 전망	82
<그림 2-4> 온라인 식품 구입 실태	13
<그림 2-5> 지출액 기준 구입 많은 가공식품 품목군	33
<그림 2-6> 부류별 수산물 구입 빈도 추이	43
<그림 2-7>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	73
<그림 2-8> 수산물 구입 시 우선 확인 정보	93
<그림 2-9> 식품군별 물가 지수 변화 추이	34
<그림 2-10> 세계 수산물 수출국 비중(2022년 금액 기준)	44
<그림 2-11> 세계 수산물 수입국 비중(2022년 금액 기준)	54
<그림 2-12> 수산물 부류별 교역액 추이	84
<그림 2-13> 수산물 비축사업 추진절차	55
<그림 3-1> 식품수급의 구조 및 자급률 도출 과정	26
<그림 3-2> 수산물 수급(생산-소비-수출입) 추이	47
<그림 3-3> 조사대상 9개 품종의 수급 및 자급률 추이	87
<그림 3-4> 연근해산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2022년 기준)	08
<그림 3-5> 양식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활어 중심)	18
<그림 3-6> 원양산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	28
<그림 3-7> 연근해산 수산물 생산 및 계통출하율	48
<그림 3-8> 양식산 수산물 생산 및 계통출하율	48
<그림 4-1> 월별 고등어류 생산량 추이	1
<그림 4-2> 국가별 고등어 수출입 비중(2022년 기준)	411
<그림 4-3> 월별 고등어(선어) 산지가격 추이(대형선망수협)	711
<그림 4-4> 월별 고등어 생산단가 추이	8
<그림 4-5> 월별 고등어(선어) 도매가격 추이	911
<그림 4-6> 월별 고등어(냉동) 도매가격 추이	921

<그림 4-7> 월별 고등어(선어) 소비자가격 추이	21
<그림 4-8> 월별 고등어(냉동) 소비자가격 추이	31
<그림 4-9> 고등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비중	4
<그림 4-10> 연도별 명태 생산량 추이	9
<그림 4-11> 월별 명태 생산량 추이(최근 5년 평균)	141
<그림 4-12> 월별 명태 생산량 추이	21
<그림 4-13> 국가별 명태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441
<그림 4-14> 월별 명태 도매가격 추이(냉동 기준)	741
<그림 4-15> 월별 명태 소비자가격 추이(냉동)	841
<그림 4-16> 냉동명태의 유통경로 및 배분 비중	3
<그림 4-17> 연도별 오징어 생산량 추이	61
<그림 4-18> 월별 오징어 생산량 추이(최근 5년 평균)	951
<그림 4-19> 월별 오징어 생산량 추이(전체)	61
<그림 4-20> 국가별 오징어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661
<그림 4-21> 연도별 부류별 오징어 생산단가 추이	71
<그림 4-22> 월별 오징어 생산단가 추이(선어 기준)	961
<그림 4-23> 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추이(선어 기준)	671
<그림 4-24> 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추이(냉동 기준)	271
<그림 4-25> 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추이(선어 기준)	371
<그림 4-26> 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추이(냉동 기준)	471
<그림 4-27> 활어 오징어의 유통 현황	51
<그림 4-28>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및 대형트롤에서 조업된 선어 오징어 유통 현황 71	
<그림 4-29> 냉동오징어 유통 형태	81
<그림 4-30> 오징어(선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비중	971
<그림 4-31> 최근 5년간 월별 갈치 생산량 추이	11
<그림 4-32> 2022년 월별 갈치 생산량 추이	311
<그림 4-33> 국가별 갈치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891
<그림 4-34> 연도별 부류별 갈치 생산단가 추이	91
<그림 4-35> 월별 선어 갈치 산지가격 추이	102
<그림 4-36> 월별 냉동 갈치 산지가격 추이	112
<그림 4-37> 월별 냉장 갈치 도매가격 추이	122
<그림 4-38> 월별 냉동 갈치 도매가격 추이	132
<그림 4-39> 월별 냉장 갈치 소비자가격 추이	142
<그림 4-40> 월별 냉동 갈치 소비자가격 추이	152
<그림 4-41> 갈치 선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162
<그림 4-42> 냉동 갈치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172
<그림 4-43> 연도별 참조기 생산량 추이	182

<그림 4-44> 최근 5년간 월별 참조기 생산량 추이	82
<그림 4-45> 2021년 월별 참조기 생산량 추이	912
<그림 4-46> 국가별 참조기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322
<그림 4-47> 연도별 부류별 참조기 생산단가 추이	82
<그림 4-48> 참조기 산지가격 추이(선어 기준)	722
<그림 4-49> 월별 참조기(선어) 도매가격 추이	822
<그림 4-50> 월별 참조기(냉동) 소비자가격 추이 기준	922
<그림 4-51> 참조기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12
<그림 4-52> 월별 마른멸치 생산량 추이	92
<그림 4-53> 월별 멸치 생산량 추이	12
<그림 4-54> 국가별 멸치 수출입 비중(2022년 기준)	442
<그림 4-55> 월별 마른멸치(중멸) 산지가격 추이	742
<그림 4-56> 월별 마른멸치(중멸) 도매가격 추이	842
<그림 4-57> 월별 마른멸치 소비자가격 추이	92
<그림 4-58> 마른멸치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비중	22
<그림 4-59> 연도별 양식전복 생산량 추이	52
<그림 4-60> 최근 5년간 월별 양식전복 생산량 추이	72
<그림 4-61> 2022년 월별 양식전복 생산량 추이	82
<그림 4-62> 국가별 전복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162
<그림 4-63> 연도별 양식전복 생산단가 추이	42
<그림 4-64> 월별 양식전복 산지가격 추이(kg당 15마리 기준)	662
<그림 4-65> 월별 양식전복 도매가격 추이(kg당 14~15마리 기준)	762
<그림 4-66> 월별 양식전복 소비자가격 추이(kg당 14~15마리 기준)	862
<그림 4-67> 양식전복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12
<그림 4-68> 연도별 넙치 생산량 추이	42
<그림 4-69> 최근 5년 평균 양식넙치 월별 생산량 추이	62
<그림 4-70> 월별 양식넙치 출하량 추이	62
<그림 4-71> 국가별 양식넙치 수출 실적(2022년 기준)	182
<그림 4-72> 월별 양식넙치 산지가격 추이	82
<그림 4-73> 월별 양식넙치 도매가격 추이	82
<그림 4-74> 활양식넙치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 비중	72
<그림 4-75> 연도별 양식산 굴 생산량 추이	42
<그림 4-76> 최근 5년간 월별 양식 굴 생산량 추이	92
<그림 4-77> 월별 양식 굴 생산량 추이	72
<그림 4-78> 국가별 굴 수출입 비중	23
<그림 4-79> 연도별 각굴 생산단가 추이	33
<그림 4-80> 월별 알굴 산지가격 추이	63

<그림 4-81> 월별 양식 굴 도매가격 추이	73
<그림 4-82> 월별 알굴 소비자가격 추이	83
<그림 4-83> 경남지역 양식굴 박신작업 및 알굴 생산과정	88
<그림 4-84> 양식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93
<그림 4-85> 통영 굴 수하식 수협외 알굴 위판 현황	23
<그림 4-86> 연도별 양식김 어업권 추이	33
<그림 4-87> 연도별 양식김 생산량 추이	73
<그림 4-88> 최근 5년간 월별 양식김 출하량 추이	83
<그림 4-89> 2022년 월별 양식김 출하량 추이	93
<그림 4-90> 2022년 연도별 계통 출하 비중 추이	93
<그림 4-91> 국가별 김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323
<그림 4-92> 연도별 양식김 생산단가 추이	33
<그림 4-93> 2022년 월별 양식김 산지가격 추이(물김 기준)	623
<그림 4-94> 2022년 월별 양식김 도매가격 추이(마른김-중품 기준)	723
<그림 4-95> 월별 양식김 소매가격 추이	33
<그림 4-96> 양식김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33
<그림 5-1> 수산물 유통지도 자료 구조	43
<그림 5-2> 2022년 대한민국 수산물 유통지도	73
<그림 5-3> 2022년 대한민국 수산물 유통지도(수급표)	853
<그림 5-4> 2022년 대한민국 수산물 유통지도(생산)	853
<그림 5-5> 2022년 대한민국 수산물 유통지도(소비)	953
<그림 5-6> 2022년 대한민국 수산물 유통지도(수출입)	953
<그림 6-1> 고등어의 유통비용 구조(선어, 부산→가락)	83
<그림 6-2> 명태의 유통비용 구조(냉동, 부산→노량진)	93
<그림 6-3> 오징어의 유통비용 구조(선어, 구룡포→가락)	93
<그림 6-4> 갈치의 유통비용 구조(선어, 제주→노량진)	173
<그림 6-5> 참조기의 유통비용 구조(선어, 목포→노량진)	273
<그림 6-6> 마른멸치의 유통비용 구조(건어, 부산→가락)	373
<그림 6-7> 양식전복의 유통비용 구조(활어, 완도→대형소매점)	473
<그림 6-8> 양식넙치의 유통비용 구조(활어, 제주→대형소매점)	573
<그림 6-9> 양식굴의 유통비용 구조(신선, 통영→대형소매점)	673
<그림 6-10> 양식김의 유통비용 구조(건어, 고흥→소매업체)	773

Ⅰ제1장Ⅰ

조사개요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사 범위와 내용

제3절 조사 방법 및 추진체계

제1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1. 배경

- 동 조사는 2016년 3월 시행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 제8조에 의한 법정 조사임
 - 동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¹⁾
 - 동 법에서는 5년마다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²⁾
 - 동법 제8조에서는 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³⁾하고 있음
-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수산물 유통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통산업에 관련된 자료나 통계를 활용한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해야함
 - 그러나 이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2017년부터 주요 수산물을 대상으로 생산 및 유통실태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은 7차년도에 해당함

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2. 목적

- 2023년 사업의 목적은 ‘수산물 유통법’에서 규정한 실태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분석을 실시하는 것임
- 국내외 유통관련 현황 및 종사자 현황, 수산물 수급현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실시
- 품목별 대표 유통경로를 설정하고 유통비용 조사 실시
 - 2022년을 기준으로 기존에 설정된 품목별 대표유통 경로에 대한 유통비용 조사 및 변화 파악
 - 조사 대상 품목 : 연근해 수산물 6종(고등어, 오징어, 갈치, 명태, 참조기, 마른멸치)과 양식 수산물 4종(넙치, 전복, 굴, 김)

<그림 1-1> 유통산업 실태 조사 품목 도입 현황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6차년도 (2022년)	7차년도 (2023년)
고등어	[도입]						
오징어	[도입]						
갈치	[도입]						
명태	[도입]						
참조기		[도입]					
넙치			[도입]				
전복			[도입]				
마른멸치				[도입]			
굴				[도입]			
김					[도입]		

-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에 대한 유통지도를 작성
 - 수산물의 공급과 소비 구조를 하나의 그림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유통지도 제작

제2절 조사 범위와 내용

1. 범위

-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
 - 2022년 기준 국내외 수산물 유통현황 및 유통종사자 현황
 - 수산물 수급 현황 : 생산, 소비, 재고, 감모, 폐기 등
- 유통실태 조사 대상 품목 : 10개(연근해 수산물 6, 양식수산물 4개)
 - 연근해 수산물(6종) :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마른멸치
 - 양식 수산물(4종) : 넙치, 전복, 굴, 김
- 수산물 유통지도
 -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의 생산, 소비, 수출, 수입

2. 내용

-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
 -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일반 현황 : 수산물 생산, 수출입, 재고, 감모 및 폐기, 수급 등
 - 수산물 유통산업 및 종사자 현황 : 업체 수(수산물 관련 도소매업 등), 매출액, 종사자 현황
- 10개 수산물 대표 유통경로별 유통비용 조사
 - 연근해 수산물 :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마른멸치
 - 양식 수산물 : 넙치, 전복, 굴, 김
 - 유통비용(직접비, 간접비, 이윤), 유통단계별(산지, 도매, 소매단계) 등으로 세분화
 - 비용항목 : 출하단계(양륙·배열비, 위판수수료, 선별비, 포장비, 상차비, 운반비, 중도매인 수수료 등), 도소매단계(하차비, 상차비, 운반비, 인건비, 수수료, 기타)
 - 품목별 유통마진율, 유통비용율, 유통이윤율

- 수산물 유통지도 제작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총량)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지도 제작
 - 수산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반입 포함)→가공, 생산→소비와 관련한 유통지도 제작
 - 전국을 주요 권역으로 구분(중부(서울·경기·강원), 충청, 경상, 전라·제주)하여 생산과 소비 규모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통 지도 제작

제3절 조사 방법 및 추진체계

1. 방법

- 동 조사는 기존에 수행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의 방법 등을 활용함
- (문헌조사) 수산물 유통경로 및 유통비용 변화 분석 및 비교를 위한 수산물 생산 및 유통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활용
- (통계조사) 수산물 유통산업 및 실태조사를 위해 이용한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음
 - 수산물 수급(생산, 수출입, 재고, 감모·폐기 등) : 어업생산동향조사(통계청), 식품수급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 수산물 유통산업 구조 : 수산물의 계통·비계통 출하현황(통계청) 도매시장 반입량(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유통단계별 조사가격(aT KAMIS)
- (현장조사) 수산물 유통단계별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조사 및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련단체 조사 병행
 - 산지조사 : 산지수협 관계자, 산지 중도매인, 생산자, 산지수집상, 관련 협회 등
 - ※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근해어업 5품목(갈치,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의 산지 중도매인과 소비지도매시장(갈치) 추가 조사(전국수산물중도매인 협회 수행)
 - 소비지 조사: 소비지 소재 법정도매시장 관계자 및 중도매인, 유사도매시장(인천, 하남) 관계자, 관련 협회 등
 - 소매 조사: 대량구매처인 대형소매점의 수산물 담당 바이어 등

<표 1-1> 주요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현장조사

		조사 내용
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10개 품종 유통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 산지: 산지수협, 산지중도매인 및 매찰인, 산지가공업체, 냉동창고 등의 관계자 • 갈치(선어): 서귀포수협 • 고등어(선어): 부산공동어시장 • 명태(냉동):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 오징어(선어): 구룡포수협 • 참조기: 제주한림수협, 목포수협 • 마른멸치 : 기선권현망수협 • 양식넙치: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 제주 양식어가 등 • 양식전복: 전북협회, 완도 양식어가, 산지수집상 등 • 양식굴: 굴수하식수협 등 • 양식김: 고흥수협, 김가공업체 관계자 등
소비지	도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의 도매법인, 도매시장 중도매인 양식수산물의 경우에는 하남, 인천 등 유사도매시장
	소매	대형소매업체의 수산물 담당 바이어, 전통시장 수산물 소매상 면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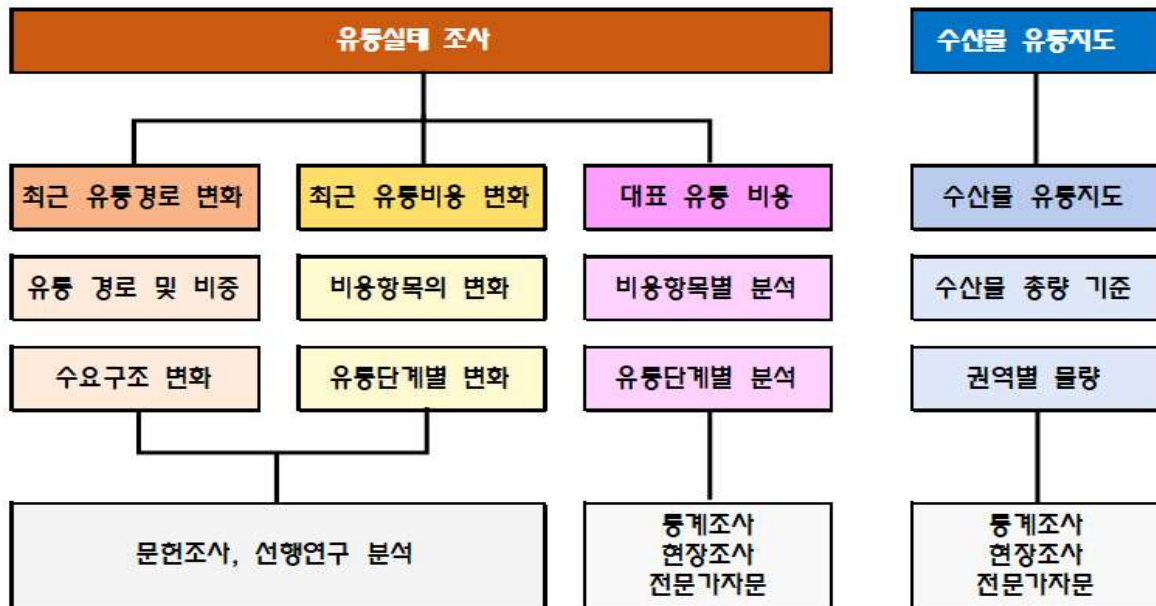
- (전문가 자문) 수산물 유통단계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실시
 - 산지: 조사 대상인 10개 품목의 취급량이 많은 산지 및 소비지 중도매인, 산지수협 위판장 실무자(판매과장 등) 대상 품목별 면담조사
 - 소비지: 대형소매업의 수산물 담당 바이어 면담조사
- (조사체계 고도화)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를 통해 대중성어종 5개 품목(갈치,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에 대하여 유통현황 및 비용 조사를 실시하였음
 - 산지 : 갈치(서귀포수협), 고등어(부산공동어시장), 오징어(부산 감천공판장, 경북 후포수협, 경북 죽변수협), 참조기(목포수협, 한림수협), 마른멸치(멸치권현망수협)
 - 소비지 : 갈치(노량진수산시장)

2. 추진체계

- 2022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는 크게 유통실태조사, 수산물 유통지도 제작 등의 2개 분야로 진행하였음

- 수산물 유통실태 조사 사업으로 과거 유통실태 조사를 분석하고, 품목별 대표 유통경로에 대한 비용 조사를 실시함
 - 과거 조사된 유통경로와 유통비용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였음
 - 또한 2022년 기준 품목별 대표 유통경로를 대상으로 유통비용 조사를 실시하였음
- 수산물 유통지도는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전체 수산물을 대상으로 함
 - 동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통계조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을 수행하였으며, 식품수급표 작성을 기준으로 공급과 수요측면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물량 분석을 실시하고 지도에 구현하였음

<그림 1-2> 사업 체계도



자료 : 저자 작성

Ⅰ 제2장 Ⅰ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 분석

- 제1절 수산물 공급구조 변화
- 제2절 수산물 소비구조 변화
- 제3절 글로벌 수산물 시장의 변화
- 제4절 수산 정책 환경 변화

제2장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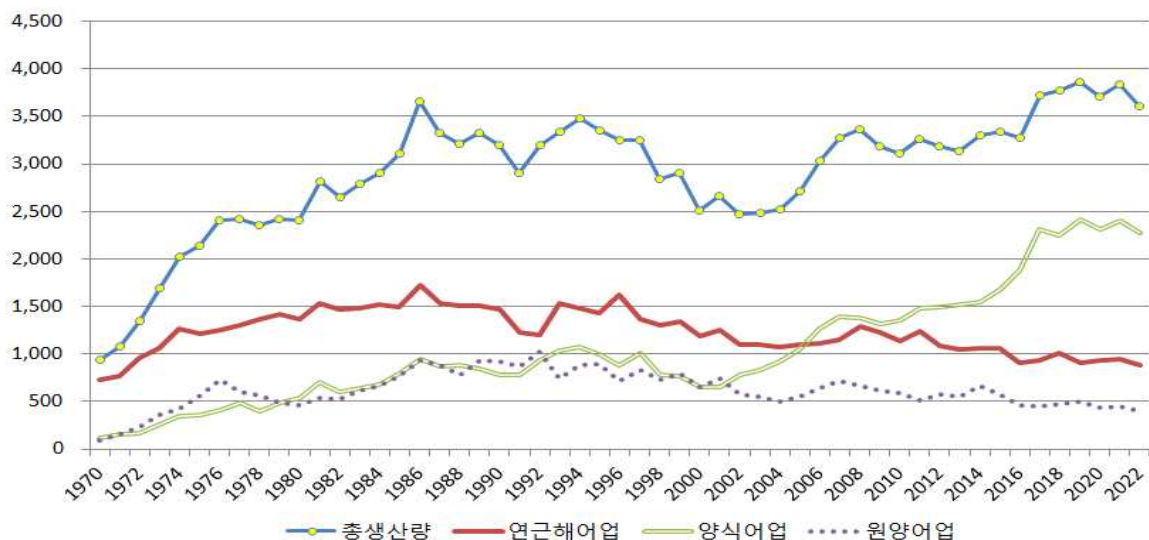
제1절 수산물 공급구조 변화

1. 어업별 생산

- 우리나라 어업은 연근해어업(일반해면), 해면양식업(천해양식), 원양어업, 내수면어업으로 구분됨. 2022년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은 2021년 대비 6.0% 감소한 360만 톤⁴⁾이었는데, 내수면어업을 제외한 모든 어업의 생산량이 줄었음
 - 연근해어업: 2022년 생산량은 2021년 대비 5.9% 감소한 88.7만 톤
 - 해면양식업: 2022년 생산량은 2021년 대비 5.6% 감소한 226.8만 톤
 - 원양어업: 2022년 생산량은 2021년 대비 10.3% 감소한 40.0만 톤
 - 내수면어업⁵⁾: 2022년 생산량은 2021년 대비 14.3% 증가한 4.9만 톤

<그림 2-1> 수산물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검색일 : 2023.05.23.)

4) 2022년 생산량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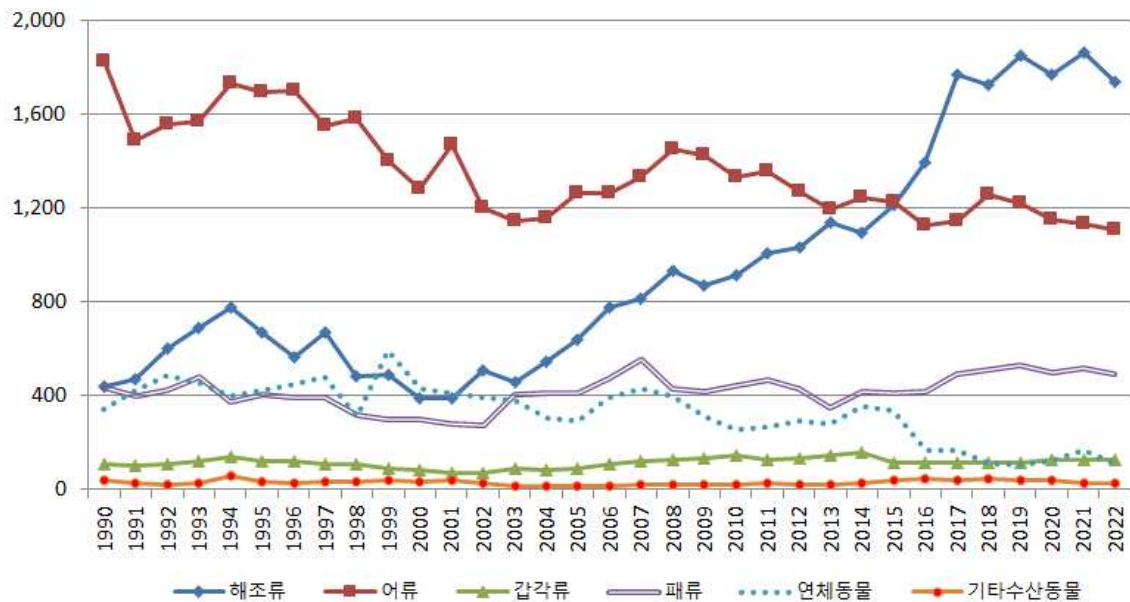
5)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다른 어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그래프로 표시하지 않았음

2. 어업별·부류별 생산

- 지난 10년간 수산물 부류별 생산량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해조류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어류와 연체동물은 감소했으며, 그 외 패류, 갑각류, 기타수산동물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추세를 보였음
 - 해조류: 2022년 생산량은 2021년 대비 6.5% 감소한 173.7만 톤
 - 어류: 2022년 생산량은 2021년 대비 2.7% 감소한 110.4만 톤
 - 패류: 2022년 생산량은 2021년 대비 4.5% 감소한 49.2만 톤
 - 연체동물: 2022년 생산량은 2021년 대비 31.1% 감소한 11.4만 톤
 - 갑각류: 2022년 생산량은 2021년 대비 1.2% 감소한 12.9만 톤
 - 기타수생동물: 2022년 생산량은 2021년 대비 0.3% 감소한 2.9만 톤

<그림 2-2> 수산물 부류별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검색일 : 2023.05.23.)

<표 2-1> 수산물 부류별·연도별 생산량 현황

단위: 천 톤, %

구분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	해조류	합계
2012년(A)	1,268	135	433	293	23	1,032	3,183
비중	(39.8)	(4.2)	(13.6)	(9.2)	(0.7)	(32.4)	(100.0)
2013년	1,195	149	346	282	23	1,140	3,135
비중	(38.1)	(4.8)	(11.0)	(9.0)	(0.7)	(36.4)	(100.0)
2014년	1,246	160	419	357	27	1,097	3,304
비중	(37.7)	(4.8)	(12.7)	(10.8)	(0.8)	(33.2)	(100.0)
2015년	1,226	117	409	335	37	1,213	3,337
비중	(36.7)	(3.5)	(12.2)	(10.0)	(1.1)	(36.3)	(100.0)
2016년	1,125	113	421	170	45	1,395	3,269
비중	(34.4)	(3.5)	(12.9)	(5.2)	(1.4)	(42.7)	(100.0)
2017년	1,143	116	490	165	41	1,770	3,725
비중	(30.7)	(3.1)	(13.2)	(4.4)	(1.1)	(47.5)	(100.0)
2018년	1,259	116	512	112	49	1,722	3,770
비중	(33.4)	(3.1)	(13.6)	(3.0)	(1.3)	(45.7)	(100.0)
2019년	1,219	115	533	105	37	1,851	3,861
비중	(31.6)	(3.0)	(13.8)	(2.7)	(1.0)	(47.9)	(100.0)
2020년	1,153	125	501	124	41	1,769	3,713
비중	(31.0)	(3.4)	(13.5)	(3.3)	(1.1)	(47.7)	(100.0)
2021년	1,134	130	515	166	29	1,858	3,832
비중	(29.6)	(3.4)	(13.4)	(4.3)	(0.8)	(48.5)	(100.0)
2022년(B)	1,104	129	492	114	29	1,737	3,604
비중	(30.6)	(3.6)	(13.6)	(3.2)	(0.8)	(48.2)	(100.0)
전년 대비 증감	-2.7	-1.2	-4.5	-31.1	-0.3	-6.5	-6.0
평년 대비 증감	-6.6	6.8	-3.6	-14.9	-27.2	-3.2	-4.7
연평균 증감(B/A)	-1.4	-0.4	1.3	-9.0	2.0	5.3	1.2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검색일 : 2023.05.23.)

가. 연근해어업 품목별 생산량 증감 6)

- 2022년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은 수산물 전체 생산량의 24.6%인 88만 7천 톤이었으며, 전년 대비 5.9% 감소했음
 - 생산량 감소는 고유가가 지속되고, 조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 9~10월 경 연이은 태풍(힌남노, 무이파)의 영향과 이후 계속된 해황 악화로 출어 또한 여의치 않았기 때문임
 - 또한 오징어, 참조기 등 특정 어종에서 낮은 수준의 자원량이 연중 지속된 것도 원인으로 추정됨

6) 품목별 생산량 증감 요인은 통계청, 2022년 어업생산동향조사, 2023.02와 국립수산물과학원, 보도자료 "2022년 우리나라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6.0%, 어업생산금액은 0.4% 감소", 2023.02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부류별로 살펴보면, 어류 생산량은 65만 7천 톤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으며, 연근해어업 생산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 전년 대비 주요 증가 품종 : 망치고등어(44.4%), 삼치류(15.2%), 청어(98.3%)
 - 청어는 2021년 포획금지체장 신설 이후 어린 청어의 어획강도가 대폭 낮아지면서 경북 연안의 자원밀도가 상승하여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 전년 대비 주요 감소 품종 : 멸치(-7.9%), 고등어(-9.3%), 갈치(-14.4%), 전갱이류(-24.1%)
 - 참조기는 주요어획시기에 전년 및 최근 5년 평균 대비 절반 수준의 낮은 자원밀도가 지속되면서 생산량이 감소했음
- 연체동물류는 6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30.9% 감소하였음
 - 전년 대비 주요 증가 품종 : 갑오징어류(8.5%)
 - 전년 대비 주요 감소 품종 : 살오징어(-40.0%), 문어류(-16.3%), 낙지류(-16.8%)
 - 살오징어는 연중 낮은 수준의 자원량이 지속된 가운데, 고유가로 인해 조업척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10~12월 주어기에 동해 북측수역의 고수온 영향으로 오징어 남하회유가 지연되었고, 회유경로 또한 외해로 이동하면서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갑각류는 8만 8천 톤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음
 - 전년 대비 주요 증가 품종 : 붉은대게(17.3%), 젓새우류(23.2%), 꽃게(10.6%), 중하(32.9%)
 - 전년 대비 주요 감소 품종 : 기타새우류(-45.9%), 민꽃게(-24.1%)
- 패류는 6만 4천 톤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하였음
 - 전년 대비 주요 증가 품종: 고동류(1.2%), 새조개(180.8%), 새꼬막(54.5%)
 - 전년 대비 주요 감소 품종: 굴류(-4.2%), 바지락(-31.9%), 키조개(-16.6%)
- 해조류는 6,740톤으로 전년 대비 23.2% 감소했음
 - 전년 대비 주요 감소 품목 : 미역류(-8.4%), 톳(-40.0%), 우뚝가사리(-42.4%)
- 기타 수산동물은 7,093톤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하였음
 - 전년 대비 주요 증가 품종 : 성게류(72.4%), 해삼(2.9%), 우렁쉥이(5.5%)

<표 2-2>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단위: 톤, %

부류별·품종별	2021년 생산량	2022년		전년 대비 증감률
		생산량	비중	
총생산량	3,832,171	3,603,580	100.0	-6.0
연근해어업	942,875	887,239	24.6	-5.9
어류	678,921	657,693	18.3	-3.1
가오리류	974	1,177	0.0	20.8
가자미류	17,683	14,169	0.4	-19.9
기름가자미	5,010	5,155	0.1	2.9
갈치	63,056	54,000	1.5	-14.4
강달이류	2,634	3,546	0.1	34.6
고등어	122,170	110,795	3.1	-9.3
망치고등어	28,859	41,678	1.2	44.4
꽁치	986	283	0.0	-71.3
학공치	545	382	0.0	-29.9
넙치류	2,923	3,208	0.1	9.8
농어류	1,856	2,306	0.1	24.2
눈볼대	3,067	2,570	0.1	-16.2
능성어	69	61	0.0	-11.6
참다랑어	506	916	0.0	81.0
기타다랑어류	1,624	1,014	0.0	-37.6
도루묵	2,760	1,408	0.0	-49.0
대구	5,629	5,678	0.2	0.9
감성돔	1,062	1,064	0.0	0.2
옥돔	1,144	1,369	0.0	19.7
자리돔	389	397	0.0	2.1
참돔	2,394	2,341	0.1	-2.2
돌돔	181	191	0.0	5.5
기타돔류	2,130	1,919	0.1	-9.9
망둑어류	267	301	0.0	12.7
멸치	143,414	132,151	3.7	-7.9
반지	1,174	1,133	0.0	-3.5
명태	-	0	0.0	-
민어	4,824	6,325	0.2	31.1
방어류	15,046	21,230	0.6	41.1
밴댕이	2,828	1,821	0.1	-35.6
병어류	8,194	7,750	0.2	-5.4
보구치	3,011	4,084	0.1	35.6
복어류	3,716	4,087	0.1	10.0
조피볼락	1,617	1,725	0.0	6.7
기타볼락류	1,673	1,534	0.0	-8.3

부류별·품종별	2021년 생산량	2022년		전년 대비 증감률
		생산량	비중	
노래미류	984	776	0.0	-21.1
부세	208	185	0.0	-11.1
삼치류	30,950	35,654	1.0	15.2
상어류	233	208	0.0	-10.7
서대류	2,016	1,493	0.0	-25.9
성대류	1,801	1,642	0.0	-8.8
송어류	0	1	0.0	-
삼세기	278	264	0.0	-5.0
송어류	4,484	4,887	0.1	9.0
아귀류	16,854	12,823	0.4	-23.9
까나리	17,776	21,049	0.6	18.4
양태류	1,516	1,528	0.0	0.8
연어	158	113	0.0	-28.5
임연수어	3,415	2,250	0.1	-34.1
갯장어	1,226	1,360	0.0	10.9
먹장어	83	77	0.0	-7.2
붕장어	12,692	12,733	0.4	0.3
전갱이류	49,692	37,732	1.0	-24.1
전어	11,204	6,649	0.2	-40.7
정어리	90	12,030	0.3	13266.7
참조기	31,562	16,400	0.5	-48.0
기타조기류	319	556	0.0	74.3
준치	125	472	0.0	277.6
쥐치류	1,913	1,313	0.0	-31.4
청어	14,025	27,806	0.8	98.3
참홍어	3,121	3,182	0.1	2.0
홍어류	2,428	2,639	0.1	8.7
꼼치류	4,412	3,842	0.1	-12.9
기타어류	11,939	10,266	0.3	-14.0
갑각류	82,488	88,052	2.4	6.7
꽃게	19,715	21,809	0.6	10.6
대게	1,971	1,940	0.1	-1.6
붉은대게	21,050	24,694	0.7	17.3
민꽃게	2,973	2,257	0.1	-24.1
기타게류	2,329	1,505	0.0	-35.4
꽃새우	3,204	1,298	0.0	-59.5
닭새우류	5	5	0.0	0.0
대하	144	674	0.0	368.1
보리새우	92	138	0.0	50.0
젓새우류	19,946	24,566	0.7	23.2

부류별·품종별	2021년 생산량	2022년		전년 대비 증감률
		생산량	비중	
중하	1,259	1,673	0.0	32.9
가시발새우	-	1,834	0.1	-
기타새우류	9,226	4,987	0.1	-45.9
기타갑각류	574	672	0.0	17.1
패류	75,759	64,740	1.8	-14.5
굴류	24,006	22,994	0.6	-4.2
소라	2,672	2,426	0.1	-9.2
고등류	8,954	9,062	0.3	1.2
오분자기	3	3	0.0	0.0
전복류	99	89	0.0	-10.1
가리비류	119	72	0.0	-39.5
가무락	385	345	0.0	-10.4
개량조개류	116	4	0.0	-96.6
꼬막	55	34	0.0	-38.2
새꼬막	789	1,219	0.0	54.5
동죽	3,991	2,488	0.1	-37.7
맛류	892	639	0.0	-28.4
바지락	22,018	14,996	0.4	-31.9
백합류	84	250	0.0	197.6
새조개	447	1,255	0.0	180.8
키조개	6,130	5,112	0.1	-16.6
피조개	331	1,053	0.0	218.1
홍합류	393	409	0.0	4.1
개조개	1,116	941	0.0	-15.7
기타패류	3,158	1,349	0.0	-57.3
연체동물류	90,993	62,921	1.7	-30.9
갑오징어류	6,693	7,263	0.2	8.5
플뽀기류	1,344	1,150	0.0	-14.4
낙지류	6,472	5,383	0.1	-16.8
문어류	9,239	7,729	0.2	-16.3
주꾸미	3,338	2,957	0.1	-11.4
살오징어(오징어)	60,880	36,549	1.0	-40.0
한치류	2,655	1,492	0.0	-43.8
기타연체동물류	372	398	0.0	7.0
기타수산동물	5,934	7,093	0.2	19.5
미더덕	1	1	0.0	0.0
성게류	1,911	3,294	0.1	72.4
우렁쉥이	926	977	0.0	5.5
해삼	1,656	1,704	0.0	2.9
오만둥이	5	14	0.0	180.0

부류별·품종별	2021년 생산량	2022년		전년 대비 증감률
		생산량	비중	
기타수산동물류	1,435	1,103	0.0	-23.1
해조류	8,780	6,740	0.2	-23.2
김류	366	10	0.0	-97.3
꼬시래기류	4	3	0.0	-25.0
개꼬시래기	-	-	-	-
다시마류	0	15	0.0	#DIV/0!
도박류	11	29	0.0	163.6
모자반(말)류	36	-	-	-
모자반(물)	10	32	0.0	220.0
미역류	6,374	5,837	0.2	-8.4
우뫄가사리	413	238	0.0	-42.4
칭각	46	62	0.0	34.8
툇	443	266	0.0	-40.0
파래류	912	170	0.0	-81.4
매생이	1	-	-	-
기타해조류	0	-	-	-

주: 비중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전체 생산량 대비
 자료: 통계청 KOSIS(<http://kosis.kr>) 어업별·품종별 통계(검색일 : 2023.05.23.)

나. 해면양식업 품목별 생산량 증감⁷⁾

- 2022년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6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해면양식업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5.6% 감소한 227만 톤이었음. 2022년 해면양식업 생산량 감소분 대부분은 다시마 생산이 줄어든 영향임
- 부류별로 살펴보면, 해조류 생산량은 172만 9천 톤으로 전년 대비 6.5% 줄었음. 해조류는 전체 수산물 생산량에서 48.0%를 차지했으며, 해면양식업 생산량 중에서도 가장 많았음
 - 전년 대비 주요 증가 품종 : 미역류(2.0%), 김류(0.5%), 매생이(43.3%)
 - 미역은 어기 초 작황이 양호하면서 식용 및 전복 먹이용 모두 전년보다 많은 생산량을 보였음
 - 전년 대비 주요 감소 품종 : 다시마류(-18.2%), 툇(-18.5%)
 - 다시마는 2022년 초 이상조류(영양염류 부족)와 강풍 등 어업재해 피해가 발

7) 품목별 생산량 증감 요인은 수산업관측센터의 품목별 수산관측, 국립수산과학원, 보도자료 “2022년 우리나라 어업생산량 전년보다 6.0%, 어업생산금액은 0.4% 감소”, 2023.02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생하면서 전년 및 평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했음

- 패류 생산량은 41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음
 - 전년 대비 주요 증가 품목 : 가리비류(39.6%), 새꼬막(27.9%), 피조개(70.7%)
 - 가리비류는 2022년 7,129톤이 생산되어 역대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다. 고성 을 중심으로 경남지역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년 대비 주요 감소 품목 : 굴류(-1.7%), 바지락(-4.7%), 전복류(-4.8%)
 - 굴은 2021년 9~10월 경 어기 초 경남지역에서 대량폐사가 발생했고, 양성상 태도 좋지 못해 2022년 상반기까지 생산량이 적은 수준을 보였음
 - 전복도 전년 대비 4.8% 감소한 2만 2천 톤이 생산되었는데, 큰 크기를 중심 으로 산지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이 위축되었고 수요 또한 줄었기 때문임
- 어류 생산량은 9만 1천 톤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음
 - 전년 대비 주요 증가 품목 : 넙치류(9.8%), 가자미류((24.3%)
 - 넙치는 전년과 달리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연휴와 지역 축제 등으로 수요가 늘고 공급이 원활하면서 전년보다 9.8% 많은 4만 5천 톤이 생산되었으며, 해면양식업 어류 중 가장 생산 비중이 높았음
 - 전년 대비 주요 감소 품목 : 조피볼락(-7.3%), 참돔(-2.8%), 송어류(-23.4%)
 - 조피볼락은 전년보다 7.3% 적은 1만 6천 톤이 생산되었는데, 이는 2022년 초 (1~3월)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출하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임
- 기타 수산동물의 생산량은 2만 1천 톤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음
 - 전년 대비 주요 증가 품목 : 우렁쟁이(11.1%)
 - 전년 대비 주요 감소 품목 : 오만둥이(-33.6%), 미더덕(-79.0%)
 - 우렁쟁이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미더덕 생산량이 전년 대비 크게 줄면서 2022년 기타 수산동물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했음. 미더덕 생산량은 전년 대비 79.0% 감소한 624톤에 그쳤는데, 이는 고수온 영향으로 미더덕 폐사가 많았기 때문임
- 갑각류 생산량은 9,504톤으로 전년 대비 0.4% 줄었음
 - 전년 대비 주요 감소 품목 : 흰다리새우(-0.4%)

<표 2-3> 우리나라 해면양식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단위: 톤, %

부류별·품종별	2021년 생산량	2022년		전년 대비 증감률
		생산량	비중	
총생산량	3,832,171	3,603,580	100.0	-6.0
해면양식업	2,401,120	2,267,830	62.9	-5.6
어류	89,423	91,368	2.5	2.2
가자미류	6,214	7,723	0.2	24.3
고등어	231	386	0.0	67.1
넙치류	41,776	45,884	1.3	9.8
농어류	1,212	920	0.0	-24.1
능성어	86	220	0.0	155.8
참다랑어	28	49	0.0	75.0
감성돔	1,009	1,334	0.0	32.2
참돔	8,313	8,078	0.2	-2.8
돌돔	829	613	0.0	-26.1
기타돔류	92	173	0.0	88.0
민어	93	-	-	-
방어류	444	677	0.0	52.5
복어류	6	68	0.0	1033.3
조피볼락	17,473	16,189	0.4	-7.3
기타볼락류	226	117	0.0	-48.2
노래미류	-	-	-	-
부세	3	40	0.0	1233.3
송어류	91	24	0.0	-73.6
송어류	10,352	7,928	0.2	-23.4
연어	42	12	0.0	-71.4
붕장어	23	44	0.0	91.3
전갱이류	-	-	-	-
전어	145	113	0.0	-22.1
참조기	12	20	0.0	66.7
쥐치류	725	757	0.0	4.4
갑각류	9,545	9,504	0.3	-0.4
대하	-	-	-	-
흰다리새우	9,545	9,504	0.3	-0.4
패류	429,920	415,496	11.5	-3.4
굴류	305,914	300,692	8.3	-1.7
고동류	-	-	-	-
전복류	23,199	22,078	0.6	-4.8
가리비류	5,107	7,129	0.2	39.6
가무락	-	-	-	-
꼬막	143	46	0.0	-67.8

부류별·품종별	2021년 생산량	2022년		전년 대비 증감률
		생산량	비중	
새꼬막	4,506	5,763	0.2	27.9
동죽	-	-	-	-
바지락	23,818	22,704	0.6	-4.7
백합류	3	-	-	-
새조개	-	-	-	-
키조개	2,147	1,615	0.0	-24.8
피조개	1,409	2,405	0.1	70.7
홍합류	63,672	53,064	1.5	-16.7
개조개	-	-	-	-
기타패류	0	-	-	-
기타수산동물	22,846	21,591	0.6	-5.5
미더덕	2,965	624	0.0	-79.0
우렁쉥이	17,400	19,330	0.5	11.1
해삼	16	2	0.0	-87.5
오만둥이	2,464	1,635	0.0	-33.6
기타수산동물류	0	-	-	-
해조류	1,849,385	1,729,871	48.0	-6.5
김류	547,413	550,221	15.3	0.5
꼬시래기류	-	-	-	-
개꼬시래기	932	2,356	0.1	152.8
다시마류	685,239	560,848	15.6	-18.2
모자반(말)류	-	-	-	-
모자반(물)	342	320	0.0	-6.4
미역류	574,504	585,955	16.3	2.0
청각	11,317	2,462	0.1	-78.2
툇	16,497	13,443	0.4	-18.5
파래류	7,898	6,283	0.2	-20.4
매생이	2,981	4,273	0.1	43.3
곰피	2,262	3,708	0.1	63.9
기타해조류	0	-	-	-

주: 비중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전체 생산량 대비
 자료: 통계청 KOSIS(<http://kosis.kr>) 어업별·품종별 통계(검색일 : 2023.05.23.)

다. 원양어업 부류별 생산량 증감

- 2022년 원양어업 생산량은 2021년 대비 10.3% 감소한 39만 9,759톤이었음
 - 주요 감소 품종 : 황다랑어(-14.6%), 오징어류(-34.8%), 눈다랑어(-10.3%)
 - 태평양 표층 수온 상승으로 서식수심이 낮아지면서 황, 눈다랑어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증가 품종 : 가다랑어(6.8%), 한치류(193.2%)가 전년 대비 증가했음

<표 2-4>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단위: 톤, %

부류별·품종별	2020년 생산량	2021년		전년 대비 증감률
		생산량	비중	
총생산량	3,832,171	3,603,580	100.0	-6.0
원양어업	445,505	399,759	11.1	-10.3
어류	332,496	317,382	8.8	-4.5
가오리류	1,050	837	0.0	-20.3
가자미류	-	-	-	-
갈치류	0	-	-	-
고등어류	-	-	-	-
공치	4,788	3,438	0.1	-28.2
능성어류	-	-	-	-
가다랑어	189,457	202,304	5.6	6.8
날개다랑어	1,746	2,307	0.1	32.1
남방참다랑어	1,087	1,028	0.0	-5.4
눈다랑어	23,415	21,010	0.6	-10.3
북방참다랑어	209	217	0.0	3.8
황다랑어	60,472	51,667	1.4	-14.6
기타다랑어류	0	-	-	-
달고기류	2	1	0.0	-50.0
대구	3,474	1,627	0.0	-53.2
민대구류	9,382	4,063	0.1	-56.7
붉은대구	3	1	0.0	-66.7
은민대구	-	-	-	-
기타대구류	66	41	0.0	-37.9
갈돔류	-	-	-	-
금눈돔류	-	-	-	-
셋돔류	-	-	-	-
통돔류	-	-	-	-
하스돔류	-	-	-	-
기타돔류	0	1	0.0	#DIV/0!
명태	27,779	21,591	0.6	-22.3
메로(이빨고기)류	4,393	3,541	0.1	-19.4
물치다래	-	-	-	-
민어류	172	-	-	-
꼬리민태류	174	84	0.0	-51.7
새꼬리민태	-	-	-	-
붉은메기	625	9	0.0	-98.6
방어류	-	-	-	-

부류별·품종별	2020년 생산량	2021년		전년 대비 증감률
		생산량	비중	
복어류	1	-	-	-
볼락류	-	-	-	-
붕장어류	-	-	-	-
삼치류	44	19	0.0	-56.8
통치(은삼치)	-	-	-	-
상어류	28	3	0.0	-89.3
녹새치	1,101	836	0.0	-24.1
돛새치	25	18	0.0	-28.0
백새치	1	0	0.0	-100.0
청새치	159	107	0.0	-32.7
황새치	960	1,130	0.0	17.7
흑새치	13	8	0.0	-38.5
기타새치류	64	64	0.0	0.0
서대류	37	-	-	-
성대류	-	-	-	-
적어류	-	-	-	-
정어리	-	-	-	-
전갱이류	-	1	0.0	-
조기류	0	-	-	-
청어	64	25	0.0	-60.9
홍어류	631	235	0.0	-62.8
기타장어류	-	-	-	-
기타어류	1,072	1,167	0.0	8.9
갑각류	38,007	30,896	0.9	-18.7
계류	-	-	-	-
남빙양크릴	37,984	30,896	0.9	-18.7
기타새우류	23	-	-	-
연체동물	75,002	51,481	1.4	-31.4
갑오징어류	1	0	0.0	-100.0
문어류	-	-	-	-
오징어류	73,867	48,157	1.3	-34.8
한치류	1,134	3,325	0.1	193.2
기타연체동물류	-	-	-	-

주: 비중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전체 생산량 대비
 자료: 통계청 KOSIS(<http://kosis.kr>) 어업별·품종별 통계(검색일 : 2023.05.23.)

라. 내수면어업 부류별 생산량 증감

- 내수면어업의 2022년 생산량은 4만 8,753톤으로 2021년 대비 14.3% 증가했음. 부류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어류는 3만 7,158톤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으며, 패류도 27.6% 증가한 1만 1,311톤이었음. 그러나 갑각류는 전년 대비 12.8% 감소한 218톤이 생산되었음
- 주요 증가 품종 : 뱀장어(15.0%), 왕우렁이(27.9%), 메기(3.3%), 붕어(17.8%), 송어(22.6%)
- 내수면 품종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뱀장어는 자연산 실뱀장어 어획 증가에 따른 양식 입식량 증가로 생산량이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가했음
- 주요 감소 품종 : 향어(-8.9%), 기타어류(-5.4%), 다슬기류(-5.4%)

<표 2-5>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의 부류별·품종별 생산량 추이

단위: 톤, %

품종별	2021년 생산량	2022년		전년 대비 증감률
		생산량	비중	
총생산량	3,832,171	3,603,580	100.0	-6.0
내수면어업	42,672	48,753	1.4	14.3
어류	33,505	37,158	1.0	10.9
가물치	168	156	0.0	-7.1
농어류	241	136	0.0	-43.6
동자개류	417	407	0.0	-2.4
메기	3,783	3,909	0.1	3.3
미꾸라지류	678	690	0.0	1.8
틸라피아(민물돔)	184	197	0.0	7.1
뱀장어	15,772	18,131	0.5	15.0
블루길	584	633	0.0	8.4
큰입우럭(베스)	70	174	0.0	148.6
금붕어	30	22	0.0	-26.7
붕어	2,907	3,425	0.1	17.8
떡붕어	70	39	0.0	-44.3
빙어	372	407	0.0	9.4
산천어	178	67	0.0	-62.4
송어류	2,483	3,043	0.1	22.6
송어류	626	741	0.0	18.4
쏘가리	131	86	0.0	-34.4
연어류	91	90	0.0	-1.1
웅어	13	5	0.0	-61.5
은어	23	20	0.0	-13.0

품종별	2021년 생산량	2022년		전년 대비 증감률
		생산량	비중	
비단잉어	29	25	0.0	-13.8
잉어	1,477	1,798	0.0	21.7
향어	2,028	1,847	0.1	-8.9
피라미	114	119	0.0	4.4
황복	9	10	0.0	11.1
철갑상어류	66	68	0.0	3.0
기타어류	963	911	0.0	-5.4
갑각류	250	218	0.0	-12.8
계류	158	118	0.0	-25.3
새우류	90	97	0.0	7.8
기타갑각류	2	4	0.0	100.0
패류	8,866	11,311	0.3	27.6
논우렁이	44	33	0.0	-25.0
왕우렁이	8,011	10,249	0.3	27.9
재첩	258	506	0.0	96.1
다슬기류	553	523	0.0	-5.4
기타패류	-	-	-	-
기타수산동물	50	66	0.0	32.0
자라	50	66	0.0	32.0

주: 비중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전체 생산량 대비
 자료: 통계청 KOSIS(<http://kosis.kr>) 어업별·품종별 통계(검색일 : 2023.05.23.)

제2절 수산물 소비구조 변화

1. 1인당 수산물 소비량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년 발표되고 있는 식품수급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68.4kg였음⁸⁾
- 한편, 2022년 기준으로 추정된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63.2kg으로⁹⁾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나타났음
 -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중 해조류의 비중이 40.7%(25.7kg)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어류 32.6%(20.6kg), 패류 26.9%(17.0kg) 순이었음
 - 최근 10년 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증가한 원인을 살펴보면, 해조류 소비량이 2012년 15.9kg에서 2022년 25.7kg으로 연평균 4.9% 증가했기 때문임(어류 21.6kg에서 20.6kg으로 0.7% 감소, 패류 16.2kg에서 17.0kg으로 0.5% 증가)

<표 2-6>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추이

단위 : kg, %, %p

구분	어류		패류		해조류		수산물 소비량
		비중		비중		비중	
2000년	20.2	55.0	10.5	28.6	6.1	16.6	36.7
2005년	27.0	54.5	12.9	26.1	9.6	19.4	49.5
2010년	22.7	44.3	13.9	27.1	14.7	28.7	51.2
2012년(A)	21.6	40.1	16.2	30.1	15.9	29.6	53.8
2015년	23.8	41.7	14.7	25.7	18.6	32.6	57.1
2016년	20.9	36.4	15.5	27.0	21.1	36.8	57.4
2017년	23.1	35.1	15.1	22.9	27.7	42.0	65.9
2018년	25.1	36.7	16.8	24.6	26.6	38.9	68.4
2019년	26.1	37.2	16.0	22.8	28.1	40.0	70.2
2020년	24.6	36.3	16.1	23.7	27.1	40.0	67.8
2021년	23.3	34.1	17.1	25.0	28.0	40.9	68.4
2022년(B)	20.6	32.6	17.0	26.9	25.7	40.7	63.2
전년 대비 증감	-11.6	-4.4	-0.6	7.6	-8.2	-0.5	-7.6
평년 대비 증감	-15.7	-9.1	4.8	13.0	-6.5	0.8	-7.2
연평균 증감(B/A)	-0.7	-2.2	0.5	-1.1	4.9	3.3	1.6

주: 1) '패류 등'에는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이 모두 포함
 2)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3) 기존 2019년 식품수급표 잠정치, 2020~2021년 KMI 추정치 중 2019~2020년은 식품수급표 확정치, 2021년은 식품수급표 잠정치로 수정했음
 자료: 1) 2000~2021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2) 2022년은 KMI 자체 추정치

8) 현재 수산물 소비량에 대한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다만, 「식품수급표」의 식용공급량에서 뼈, 내장 등 비가식 부위를 제외한 '순 식용공급량'을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나눈 '1인당 연간 순식용공급량'을 소비량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함
 9) 식품수급표의 공표 주기의 한계로 2022년은 KMI가 자체 추정한 결과를 사용함

- 주요 식품군의 1인당 순식용 공급량 추이를 살펴보면, 수산물은 연평균 4% 이상 증가했음. 또한 견과류, 육류, 유지류도 연평균 4% 이상 증가율을 보였음
- 단백질 공급원인 육류와 수산물을 2021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수산물 소비량이 68.4kg으로 육류(66.2kg)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수산물에 포함된 해조류를 제외한 어패류 소비량은 40.4kg으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육류보다 낮았음

<표 2-7> 주요 식품군의 1인당 순식용 공급량(소비량) 현황

단위 : kg, %

구분	국민 1인당 연간 순식용 공급량(소비량)								
	1990년	2000년	2010년 (A)	2015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B)	연평균 증감률 (B/A)
곡류	175.4	166.8	145.1	133.1	136.9	130.0	132.8	136.0	-0.7
서류	11	11.8	13.8	12.5	11.7	11.6	11.4	12.3	-1.3
설탕류	15.3	17.9	22.7	22.4	22.7	23.4	21.9	23.0	0.1
두류	10.3	10.7	10.4	10.1	8.3	8.2	8.4	8.5	-2.2
견과류	0.5	1.5	1.5	1.8	1.6	1.6	1.6	2.2	4.3
종실류	0.7	0.7	0.7	0.8	0.8	0.8	0.8	0.7	0.0
채소류	132.6	165.9	132.2	142.8	151.2	144.9	141.2	144.5	1.0
과실류	29	40.7	44.2	48.5	40.0	39.9	36.1	38.3	-1.6
육류	23.6	37.5	43.5	53.5	63.4	67.8	65.1	66.2	4.8
계란류	7.9	8.6	9.9	10.9	10.6	10.8	11.8	11.8	2.0
우유류	31.8	49.3	57	63.6	69.0	69.8	74.6	77.3	3.4
유지류	14.3	15.9	20.1	20.8	24.4	27.5	26.4	28.7	4.0
수산물	36.2	36.7	51.2	57.1	68.4	70.1	67.8	68.4	3.3

주: 1) 수산물은 어패류와 해조류의 합계임
 2) 기존 2019년 식품수급표 잠정치로 식품수급표 확정치로 수정했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년 식품수급표」, 2022.12

2. 수산물 소비 변화 현황

가. 인구구조의 변화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의 33.3%이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중은 24.1%로 나타났음
- 2000년 기준 1인 가구 및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은 전체의 각각 15.5%, 11.9%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 두 배 이상 늘어났음

-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0%,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50%에 이를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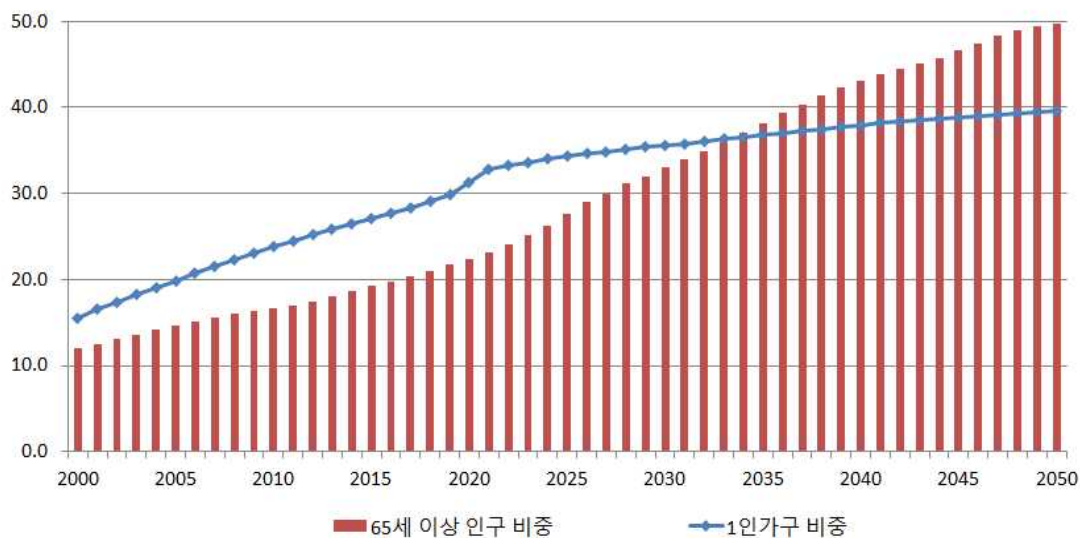
<표 2-8> 한국의 가구원 수 추계

연도	총 가구 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2000년(A)	14,507,010	2,255,298	2,763,836	3,033,749	6,454,127
2005년	16,038,858	3,185,621	3,523,633	3,365,447	5,964,157
2010년	17,494,884	4,174,073	4,183,385	3,739,037	5,398,389
2015년	19,012,895	5,137,971	4,939,845	4,078,388	4,856,691
2016년	19,281,443	5,332,365	5,042,516	4,134,655	4,771,907
2017년	19,570,670	5,544,152	5,195,244	4,169,561	4,661,713
2018년	19,876,352	5,771,150	5,383,228	4,195,322	4,526,652
2019년	20,220,447	6,046,695	5,589,994	4,213,039	4,370,719
2020년	20,730,614	6,476,735	5,796,910	4,206,379	4,250,590
2021년	21,278,321	6,984,891	6,010,929	4,177,685	4,104,816
2022년(A)	21,579,415	7,176,225	6,177,964	4,214,033	4,011,193
연평균 증감률 (B/A)	1.9	5.7	3.9	1.6	-2.2
2025년	22,308,987	7,653,333	6,668,970	4,289,917	3,696,767
2030년	23,180,129	8,255,041	7,370,459	4,345,471	3,209,158
2035년	23,709,485	8,718,949	7,891,854	4,309,007	2,789,675
2040년	23,866,166	9,054,787	8,231,173	4,171,425	2,408,781
2045년	23,572,163	9,156,041	8,371,733	3,997,365	2,047,024
2050년	22,849,142	9,053,860	8,272,359	3,797,340	1,725,583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index/index.jsp>, (검색일 : 2023.05.23.))

<그림 2-3>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및 전망

단위 : %



자료: 통계청, 추계인구 및 추계가구(검색일 : 2023.05.23.)

- 최근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식품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수산물 뿐 만 아니라 식품시장 전체가 소용량·간편식 등 1인 가구 수요 확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음
 - 수산 식품의 경우 원물 중심의 소비에서 벗어나 훈제품, 통조림 등 반조리 형태의 가공 수산물 뿐만 아니라 가정간편식(HMR), 밀키트 등의 다양한 형태로의 소비로 변화하고 있음

나. 소매업태 판매 변화

- 2022년 전체 소매업 판매액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626조 원 규모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음
- 주요 소매업태별 판매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문소매점(가전, 의복, 의약품 등 소매점)이 184조 원 규모로 가장 컸으며, 이어 무점포 소매업(인터넷쇼핑, 홈쇼핑, 배달 소매점 등)이 124조 원, 슈퍼마켓 65조 원, 백화점 38조 원, 대형마트 35조 원, 편의점 31조 원 순이었음
 - 전년 대비 모든 업태에서 판매액이 증가했음. 백화점이 전년 대비 12.1%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편의점 9.7%, 무점포 소매업 4.6%, 전문소매점 2.5%, 슈퍼마켓 1.2%, 대형마트 0.6% 순이었음
- 2020년을 100.0으로 기준한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변화를 통해 2015년 이후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무점포 소매업(20.0%)과 편의점(13.6%)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인터넷쇼핑, 홈쇼핑, 배달 소매점 등을 포함하는 무점포 소매업의 판매액지수는 연평균 20.2% 상승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의 영향이 최근 계속되었기 때문임
 - 편의점 판매액지수 또한 연평균 13.6%로 증가세를 보였음. 이는 소포장 수요 증가, 가정간편식의 다양화, 근거리 소비 선호 등이 영향을 미쳤음

<표 2-9>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추이

단위 : %

구분	2015년 (A)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B)	전년 대비	연평균 증감률
백화점	105.9	109.1	107.0	109.3	110.8	100.0	122.9	137.8	12.1	5.4
대형마트	97.0	98.4	100.1	99.0	96.0	100.0	102.4	103.0	0.6	1.2
슈퍼마켓	93.6	95.5	98.1	100.0	95.1	100.0	97.3	97.5	0.2	0.8
편의점	62.1	73.4	83.8	92.0	96.9	100.0	107.2	117.6	9.7	13.6
전문소매점	114.1	115.5	114.0	114.7	111.0	100.0	105.4	108.1	2.6	-1.1
무점포 소매	47.3	54.7	62.0	71.2	80.5	100.0	113.6	118.7	4.5	20.2

주: 증감률은 연평균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각 연도(검색일 : 2023.05.23.)

- 통계청의 온라인쇼핑 동향조사를 통해 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에 한정하여 구체적인 온라인 식품시장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았음
 - 2022년 온라인 식품시장(음식료품과 농축수산물) 전체의 규모는 209조 원 규모로 2017년 이후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온라인을 통한 음·식료품 및 농축수산물 판매액은 인터넷쇼핑과 모바일쇼핑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감률 또한 모두 상승했음
 -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모바일 쇼핑보다 인터넷 쇼핑에서 더욱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농축수산물 판매액은 인터넷 쇼핑에서 전년 대비 20.0%, 모바일 쇼핑에서 11.6% 증가했음
 - 온라인 식품시장의 연평균 증가율은 29.3% 수준으로 전품목 증가율(17.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2-10> 온라인 쇼핑 매체·품목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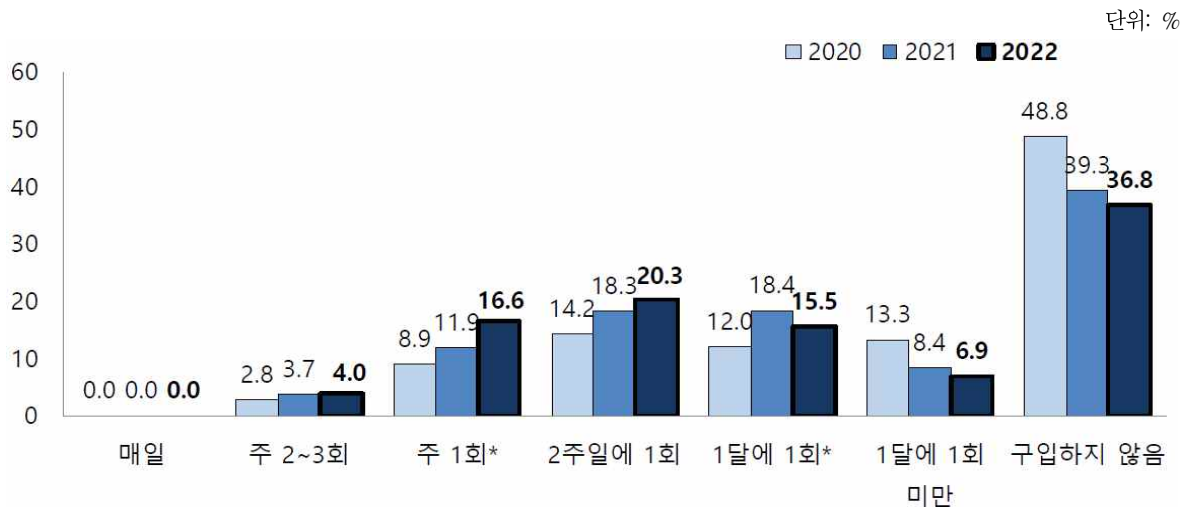
단위 : 백억 원, %

구분	합계(온라인 쇼핑)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		
	전품목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전품목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전품목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2017년(A)	9,419	800	242	4,128	304	93	5,291	496	150
2018년	11,331	1,049	294	4,411	360	101	6,921	689	193
2019년	13,660	1,345	372	4,924	433	115	8,736	912	257
2020년	15,828	1,856	656	4,890	483	180	10,939	1,373	476
2021년	19,022	2,291	833	5,151	574	195	13,871	1,717	639
2022년(B)	20,988	2,664	946	5,298	658	234	15,690	2,007	712
전년 대비	10.3	16.3	13.5	2.8	14.5	20.0	13.1	16.9	11.6
연평균 증감률	17.4	27.2	31.3	5.1	16.7	20.3	24.3	32.2	36.6

자료: 통계청, 온라인 쇼핑동향조사, 각 연도(검색일 : 2023.05.2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식품 소비 행태 조사 기초분석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입 가구는 전체의 63.2%로 전년에 비해 비중이 증가했으며, 구입하는 빈도 수 또한 더욱 잦아진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구입하지 않는 비중은 36.8%로 전년 대비 0.5%p 감소했으며,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했음
 - ‘주 2~3회’, ‘주 1회’, ‘2주 1회’등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잦은 구입 응답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한편 ‘1달 1회’, ‘1달 1회 미만’과 같이 구매 빈도가 낮은 응답자는 감소했음

<그림 2-4> 온라인 식품 구입 실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22.12

- 비대면 소비 증가, 1인 가구 증가 및 유통과 물류여건이 개선되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식품 구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산물 소비 패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음
 - 기존의 수산물은 원물 및 단순 가공품 형태로 주로 거래되었으나, 최근 신선(회), 밀키트, 간편식, 조리식품 등의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고 있음
 - 1인 가구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구입하는 가구 비중이 28.4%로 5인 이상인 경우 16.2%보다 높게 나타났음. 1인 가구의 온라인 식품 구입 선호도가 높은 가장 큰 이유로는 시간에 따른 제약이 없고 구매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3. 수산물 소비 동향 변화 조사

가. 가계의 수산식품 소비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가구당 식품 관련 지출 중 외식비 지출 비중은 49.3%였음
 - 가계 식품관련 지출 중 외식비 비중은 1990년 23.0%였으나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0년에는 42.6%를 기록했고, 2010년에는 47.4%로 늘어났음. 2019년 50.1%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영향으로 최근 감소세를 보인다 2022년에는 49.3%를 기록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음
 - 1990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소비가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연평균 2.5%의 증가율을 보였음
- 한편, 수산식품의 비중을 가계 식료품 구입 지출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1990년 15.1%였으나, 2022년까지 연평균 1.3%의 감소세를 보여 2022년에는 10.2%로 하락했음
 - 가계 식료품 구입 지출 내 외식비 비중은 증가했으나, 수산식품 비중은 감소했음. 이는 수산식품의 가정 외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2-11> 가계의 외식 비중 및 가정 내 수산물 구입 추이

단위 : %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계 식품 관련 지출 중 외식비 비중 ¹⁾	23.0	42.6	47.4	48.2	50.1	44.8	45.0	49.3
가계 식료품 구입 지출 중 수산식품 비중 ²⁾	15.1	14.4	12.3	11.2	10.7	10.8	10.6	10.2

주: 1) 가계의 식품 관련 지출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과 식사비 지출의 합계임

2) 수산식품에는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기타수산물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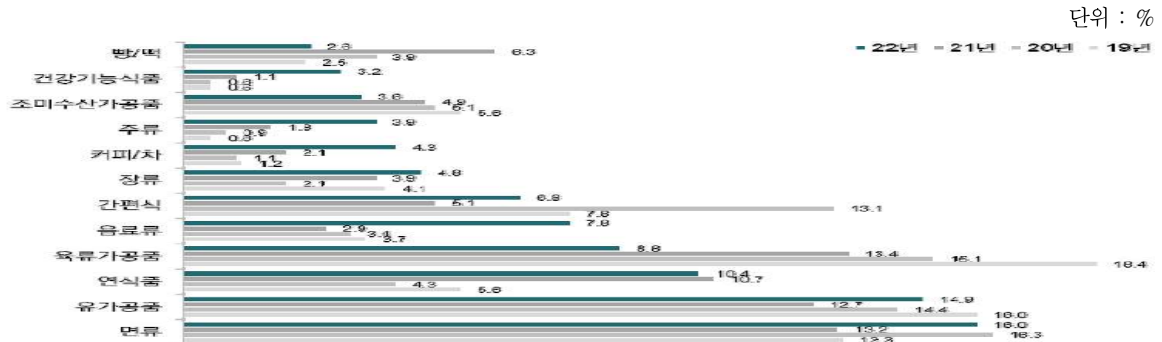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가계 지출, 각 연도.

- 2022년 가공식품 소비자태도 조사에 따르면, 가장 구입을 많은 품목은 면류 (16.0%), 유가공품(14.9%), 연식품(10.4%), 육류가공품(8.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¹⁰⁾
 - 수산물 가공품은 조미수산가공품이 15위(1.9%), 염건수산가공품은 16위(1.7%)를

1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2022.12.

차지했으며¹¹⁾, 수산물 가공품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 지출액 기준 구입 많은 가공식품 품목군



주: 상위 12개만 제시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2022.12.

나. 부류별 수산물 구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를 통하여 수산물의 소비행태를 살펴 보았음
- 소비자의 수산물 구입 빈도를 어류, 해조류, 패류, 연체류, 갑각류, 건어물과 같은 부류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어류를 가장 자주 구입하고(‘주 1회 이상’ 23.6%), 갑각류를 가장 드물게 구입하는 것(‘주 1회 이상’ 2.5%)으로 나타남
 - 부류별로 살펴보면, ‘매일’ 구입한다는 응답은 해조류 0.2%가 유일했으며, ‘주 2~3회’는 건어물 4.7%로 가장 많았고, 해조류 3.7%, 어류 1.8%, 연체류 1.0%, 패류 0.4%, 갑각류 0.4% 순으로 나타났음
 - 어류의 구입빈도는 ‘2주 1회’가 34.4%로 가장 높았고, ‘월 1회’ 25.4%, ‘주 1회’ 21.8%, ‘월 1회보다 드물게’ 11.5%이었음.
 - 해조류의 구입빈도는 ‘월 1회’ 34.1%, ‘2주 1회’ 23.6%, ‘월 1회보다 드물게’ 23.1% 순이었음
 - 갑각류, 패류, 건어물, 연체류의 구입 빈도 비중은 ‘월 1회보다 드물게’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월 1회’, ‘2주 1회’ 순이었음
- ‘주 1회 이상’ 구입한다는 응답 비율의 경우, 패류는 5.2%에서 4.0%로 감소했으나, 나머지 어류, 해조류, 연체류, 갑각류, 건어물은 전년보다 증가했음

11) 조미수산가공품의 경우 어육가공품, 수산물통조림이 포함되며, 염건수산가공품은 젓갈류, 해조가공품, 염·건수산물물이 포함됨

<표 2-12> 부류별 수산물 구입 빈도(2022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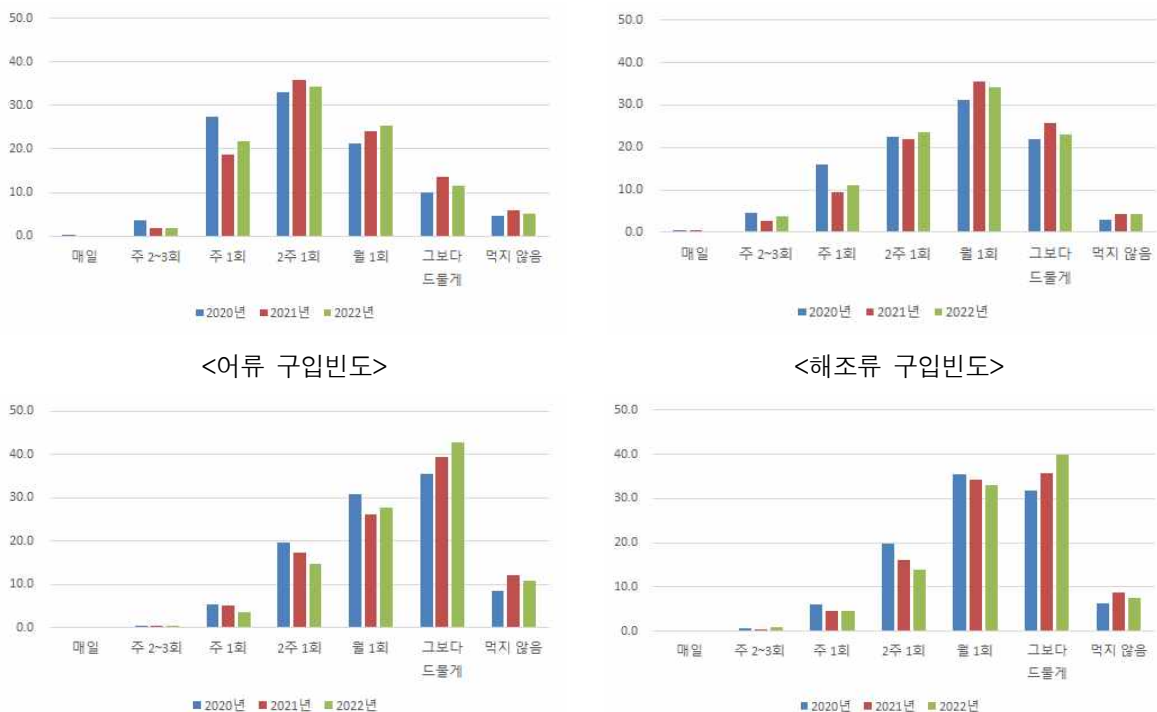
구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그보다 드물게	먹지 않음
어류	0.0	1.8	21.8	34.4	25.4	11.5	5.1
해조류	0.2	3.7	11.1	23.6	34.1	23.1	4.3
패류	0.0	0.4	3.6	14.7	27.7	42.7	10.9
연체류	0.0	1.0	4.6	13.9	33.0	40.0	7.5
갑각류	0.0	0.4	2.1	7.1	18.4	56.9	15.2
건어물	0.0	4.7	9.9	14.2	21.4	41.9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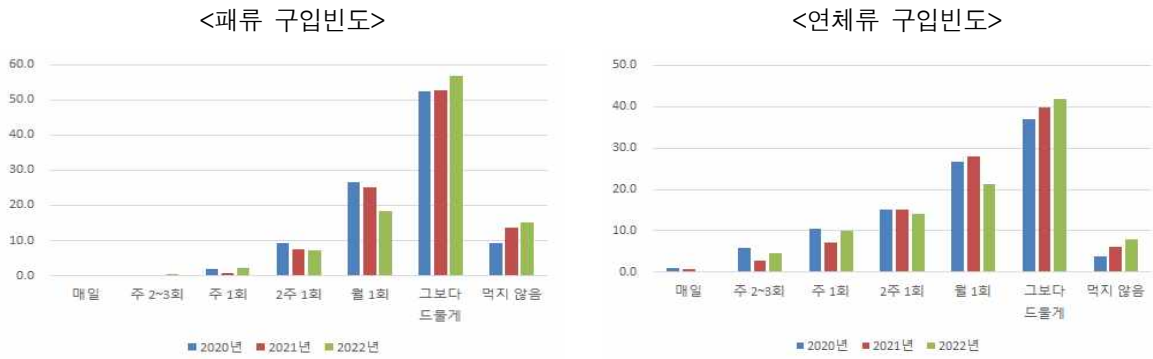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2022.12

- 주 2~3회 이상 구매하는 경우는 모든 부류에서 5% 미만이었으며, 건어물이 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해조류 3.9%, 어류 1.8% 순이었음
- 살아있거나 손질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조리 및 처리의 번거로움, 비린내 등으로 인해 수산물 구입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조미김, 국물용 멸치 등 부식의 형태로 섭취되는 식재료의 경우 수산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응답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임

<그림 2-6> 부류별 수산물 구입 빈도 추이

단위 :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다. 가구원수별 연령별 수산물 구입(어류 기준)

- 2022년 기준 어류의 구입 빈도는 ‘2주에 1회’의 구매 비율이 평균 33.2%로 5인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 가구원 수의 응답자가 선택했음
 - 4인 이하의 가구는 ‘2주에 1회’, ‘월 1회’순의 구입 빈도를 보였음
 - 5인 이상 기구의 어류 구입 빈도는 작년과는 달리 ‘월 1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 1회’순이었음

<표 2-13> 가구원 수별 어류 구입 빈도

단위 : %

구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에 1회	1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먹지 않음
1인	2020년	0.2	2.4	20.0	25.5	20.0	18.0	13.7
	2021년	0.0	1.2	13.1	25.5	23.0	22.5	14.7
	2022년	0.0	1.3	18.8	25.9	22.9	17.3	13.7
2인	2020년	0.0	4.0	28.5	38.4	20.8	7.0	1.2
	2021년	0.1	2.5	19.3	37.5	28.2	9.6	2.8
	2022년	0.0	1.5	24.2	39.0	25.9	8.3	1.1
3인	2020년	0.1	4.1	29.8	39.2	21.1	4.6	1.0
	2021년	0.1	1.5	20.9	46.5	23.8	6.1	1.1
	2022년	0.1	2.2	22.0	41.1	25.7	7.2	1.7
4인	2020년	0.0	3.4	34.0	31.5	22.6	7.7	0.8
	2021년	0.0	1.6	23.2	38.5	20.2	14.9	1.5
	2022년	0.0	2.5	22.7	35.8	27.4	11.3	0.3
5인 이상	2020년	0.0	8.2	27.1	23.0	31.6	9.5	0.6
	2021년	0.0	1.0	30.1	36.4	28.0	3.6	0.8
	2022년	0.0	0.8	26.9	24.4	41.2	6.8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 가구주 연령별 어류 구입 빈도를 살펴보면, 39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층에서 ‘1달에 1회보다 드물게’ 구입하는 비율이 전년보다 줄어들었음
 - 그러나 여전히 젊은 세대일수록 수산물 소비를 꺼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산물의 안정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조리 및 처리의 편의성 향상, 가공 식품 다양화, 비린내, 가시 등 불편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하고 뛰어난 맛을 가진 상품을 개발해 젊은 세대들의 수산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임

<표 2-14> 가구주 연령별 어류 구입 빈도

단위 : %

구분		매일	주 2~3회	주 1회	2주에 1회	1달에 1회	그보다 드물게	먹지 않음
39세 이하	2020년	0.0	1.6	21.2	24.4	22.9	15.8	14.1
	2021년	0.0	0.2	12.0	26.5	25.0	21.2	15.1
	2022년	0.0	0.9	14.7	29.7	24.7	14.5	15.3
40대	2020년	0.0	2.3	30.4	34.8	19.9	10.5	2.1
	2021년	0.0	0.6	19.4	37.7	23.9	13.6	4.6
	2022년	0.1	1.2	23.6	35.4	25.7	11.3	2.7
50대	2020년	0.1	5.6	29.3	34.1	22.1	7.4	1.4
	2021년	0.2	2.3	22.0	41.3	21.6	10.5	2.1
	2022년	0.0	2.5	23.5	35.7	25.8	12.2	0.3
60세 이상	2020년	0.2	4.6	29.0	39.0	20.1	6.1	1.1
	2021년	0.0	3.3	21.0	38.1	25.7	10.0	1.8
	2022년	0.0	2.3	25.0	36.6	25.5	8.2	2.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라. 수산물 구입 형태 및 요인

1) 구입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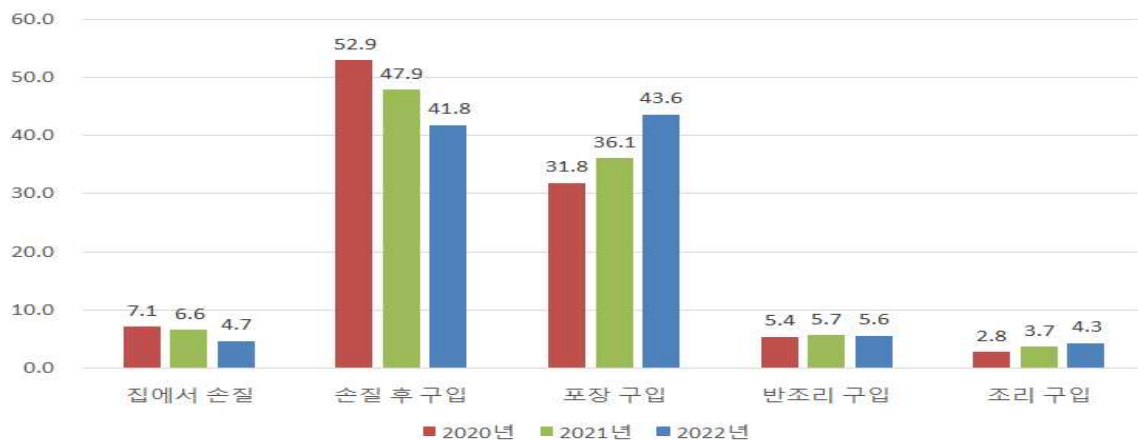
-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물 구입 형태를 살펴보면, ‘포장한 형태’로 구매하는 가구의 비중이 4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손질 후 구입’하는 가구의 비중이 41.8%로 높게 나타났음
 - 수산물 구입 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집에서 손질’하는 가구와 ‘손질 후 구입’하는 가구의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포장한 형태’로 구입

하는 가구의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했음

- ‘집에서 손질’하는 가구의 비중은 2020년 7.1%에서 2022년 4.7%로 감소했으며, ‘손질 후 구입’하는 가구의 비중도 2020년 52.9%에서 2022년 41.8%로 감소했으며, 두 구입 형태 모두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였음
- 반면, ‘포장 구입’, ‘반조리 구입’, ‘조리 구입’ 구매 형태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가정에서 손질, 조리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포장되어 있거나, 반조리 및 조리되어 있는 형태의 구입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2-7>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

단위 :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 가구원 수별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을 살펴보면, 모든 가구원 수에서 ‘손질 후 구입’과 ‘포장 구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가지 구입 형태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했음
 - 2022년 기준 1인, 3인, 4인 가구의 경우 ‘포장 구입’ 비중이 ‘손질 후 구입’보다 높았고, 2인, 5인 이상 가구는 ‘손질 후 구입’ 비중이 더 높았음
- 한편,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최근 3년 간 변화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구입 형태 중 ‘반조리 구입’은 2020년 7.9%에서 2022년 10.7%로, ‘조리 구입’도 2020년 7.1%에서 2022년 9.5%로 증가세를 보였음

<표 2-15> 가구원 수별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

단위 : %

구분		집에서 손질	손질 후 구입	포장 구입	반조리 구입	조리 구입
1인	2020년	4.5	44.7	35.8	7.9	7.1
	2021년	5.8	41.0	36.7	8.7	7.8
	2022년	4.6	34.1	41.0	10.7	9.5
2인	2020년	11.2	53.1	27.5	6.2	2.1
	2021년	7.4	53.0	32.1	4.2	3.2
	2022년	4.8	47.1	40.3	5.2	2.7
3인	2020년	7.1	53.5	33.6	4.9	1.0
	2021년	8.0	46.3	38.5	6.0	1.3
	2022년	5.5	45.4	46.0	1.6	1.5
4인	2020년	5.6	61.6	30.8	1.8	0.2
	2021년	5.7	50.9	39.2	3.4	0.9
	2022년	3.9	41.7	49.9	2.7	1.8
5인 이상	2020년	4.6	67.9	24.8	2.7	0.0
	2021년	2.8	73.7	21.4	0.0	2.1
	2022년	2.0	51.8	46.2	0.0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 가구주 연령별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을 살펴보면, 가구원 수별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과 마찬가지로 전 연령에서 ‘손질 후 구입’과 ‘포장 구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 기준 39세 이하, 40대, 50대 가구주에서 ‘포장 구입’ 비중이 ‘손질 후 구입’보다 높았으나, 60세 이상 가구주에서는 ‘포장 구입’보다 ‘손질 후 구입’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음
-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포장 구입’, ‘반조리 구입’, ‘조리 구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집에서 손질’, ‘손질 후 구입’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음
-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 수산물 구입 시 ‘손질한 형태’로 구입하는 가구의 비중은 32.7%, 70대인 경우 63.5%로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손질한 형태’구입 비중이 높았음

<표 2-16> 가구주 연령별 수산물 구입 형태 비중

단위 : %

구분	집에서 손질	손질 후 구입	포장 구입	반조리 구입	조리 구입	
39세 이하	2020년	2.7	38.0	38.3	12.0	9.0
	2021년	3.6	33.0	43.3	10.6	9.5
	2022년	2.0	32.7	43.9	11.4	10.0
40대	2020년	7.7	49.9	36.5	4.8	1.0
	2021년	7.5	45.4	36.4	6.3	4.3
	2022년	4.3	39.4	47.9	5.9	2.5
50대	2020년	6.0	57.6	31.7	3.6	1.1
	2021년	7.1	50.7	37.5	3.4	1.3
	2022년	4.5	42.5	46.5	3.7	2.8
60세 이상	2020년	11.9	64.4	21.7	1.7	0.3
	2021년	8.1	60.3	28.3	3.0	0.4
	2022년	7.3	50.5	37.4	2.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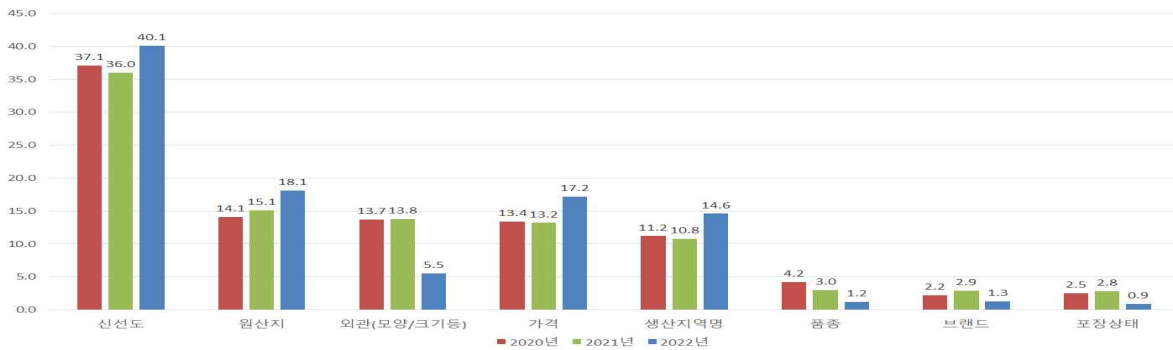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2) 구입 요인

- 2022년 기준, 수산물을 구입할 시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정보를 설문한 결과, ‘신선도’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는 가구 비중이 40.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다음으로 ‘원산지’, ‘가격’, ‘생산지역명’, ‘외관(모양/크기 등)’, ‘브랜드’, ‘품종’ 등의 순이었음¹²⁾

<그림 2-8> 수산물 구입 시 우선 확인 정보

단위 : %



주: 우선순위(1순위)만 응답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 응답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1순위×3+2순위×2+3순위×1)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수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년도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년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2022.12

- 가구원 수 및 가구주 연령을 구분하여 수산물 구입 시 우선 확인 정보를 살펴 보면, 모든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에서 ‘브랜드/상표’, ‘가격’, ‘제조일/유통기한’, ‘용량’ 정보 순으로 우선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을 가장 중시했던 전년과 달리 2022년에는 ‘브랜드/상표’의 비중이 가장 컸음
- 다음으로 ‘원산지’, ‘품질인증’, ‘영양성분’, ‘원재료’, ‘식품 첨가물’ 등의 순이었으나, 상위 4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항목의 비중은 20% 내외로 비중이 크지 않았음

<표 2-17> 수산가공품(조미, 건조) 구입 시 우선 확인 사항

단위: %

구분	가격	용량	브랜드/상표	제조일/유통기한	품질인증	원산지	영양성분	식품첨가물	원재료/함량	포장/디자인	
전체	22.0	12.8	27.1	17.6	3.4	8.8	2.6	1.3	1.9	1.0	
가구원 수	1인	25.1	13.9	25.4	20.2	1.2	6.4	1.5	0.8	2.5	1.3
	2~3인	21.2	13.0	26.8	16.8	4.0	9.2	3.2	1.2	1.8	1.0
	4인 이상	21.1	11.0	30.0	17.3	3.6	10.3	1.8	2.4	1.4	0.6
가구주 연령	20~30대	22.8	12.1	25.7	20.0	3.1	9.6	2.3	0.6	1.6	1.0
	40~50대	20.6	12.4	27.4	17.7	3.9	8.6	2.4	2.1	2.0	1.3
	60대이상	23.5	14.2	28.0	15.2	2.7	8.6	3.1	2.1	2.0	1.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가공식품 소비자태도 조사 통계보고서」, 2022.12.

- 수산가공품의 소비자 선호도를 살펴보면, 조미수산가공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의 응답 비중이 32.3%로 가장 높았고, 염건수산가공품은 ‘다양하고 새로운 맛의 제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2%)
- 다음으로 ‘소포장 및 조리간편화된 제품’, ‘건강에 좋은 프리미엄 제품’, ‘가격’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수산가공품(조미, 염건) 소비자 선호도(소비 트렌드 동조성)

단위: %

구분	가격이 비싸도 아래의 조건에 구입				저렴한 가격만 구입
	건강에 좋은 프리미엄 제품	다양하고 새로운 맛의 제품	안전성 확보된 제품	소포장 및 조리간편화된 제품	
조미수산가공품	8.0	30.5	32.3	24.2	5.1
염건수산가공품	8.3	33.2	28.6	24.6	5.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가공식품 소비자태도 조사 통계보고서」, 2022.12.

제3절 글로벌 수산물 시장의 변화

1. 세계 수산물 수급 및 가격, 교역 현황

가. 세계 수산물 수급 현황

- 최근 '코로나19' 완화 등으로 시장이 회복세에 있긴 하나, 기후 변화, 러·우 전쟁의 진행, 저성장 전망,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상승, 수출 제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난제들이 산재함
 - 이에 따라 전 세계 식품수급 또한, 생산, 수출입, 소비, 재고 비축 등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안정을 위한 세계 식량의 도전적 과제가 지속되고 있음
- 2022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84백만 톤이었으며,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4%였음
 - 어획어업과 양식어업의 생산량 비중은 전년과 달리 각각 50%씩으로 동일했음. 특히 양식어업 생산량은 동기간 내 연평균 2.9%씩 늘었지만, 어획어업은 0.2%에 그쳐 양식어업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음. 곡물 및 육류의 생산량 증감률(각각 0.8%, 1.6%)과 비교했을 때도 증가폭이 훨씬 큼
- 2022년 세계 수산물 교역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69백만 톤이었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세는 1.3%를 보였음
 - 곡물 및 육류 교역량의 경우 동기간 내 연평균 각각 4.4%, 3.2% 증가했으나, 수산물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음
- 2022년 세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20.5kg였음. 2012년에는 19.2kg였으며, 2015년 이후 20kg대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 곡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0.2% 감소세를 보인 반면, 육류는 0.5%씩 증가함. 수산물의 경우 동기간 내 연평균 0.6%씩 증가했으며, 수산물 소비량 증가율이 육류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 특히, 양식수산물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12년 9.7kg이었으나, 2022년에는 11.5kg까지 늘었으며, 이 기간 내 연평균 1.8% 증가세를 보였음

<표 2-19> 세계 주요 식품군별 수급 현황

단위 : 백만 톤, kg/년

구분		2012년 (A)	2016년	2020년	2021년	2022년 (B)	전년 대비	연평균 증감률 (B/A)
곡물	세계 생산량	2,284.0	2,613.2	2,776.7	2,814.3	2,763.6	-1.8	1.7
	식용 소비량	1,082.3	1,103.5	1,164.0	1,174.7	1,186.5	1.0	0.8
	세계 교역량	293.5	405.4	479.9	479.5	468.9	-2.2	4.4
	1인당 소비량	152.9	147.9	148.4	148.9	148.8	-0.1	-0.2
육류	세계 생산량	301.8	326.8	340.3	355.7	360.1	1.2	1.6
	세계 교역량	29.4	31.9	41.7	42.0	41.6	-1.0	3.2
	1인당 소비량	42.5	43.7	43.1	44.7	44.9	0.4	0.5
수산물	세계 생산량	157.5	170.9	177.8	182.0	184.1	1.2	1.4
	-어획어업	90.2	90.9	90.3	92.3	92.1	-0.2	0.2
	-양식어업	67.3	80.0	87.5	89.7	92.0	2.6	2.9
	식용 소비량	135.4	151.2	157.4	161.1	163.7	1.6	1.7
	세계 교역량	59.9	59.5	64.3	68.3	68.9	0.9	1.3
	1인당 소비량	19.2	20.3	20.1	20.4	20.5	0.5	0.6
	-어획수산물	9.7	9.5	8.9	9.0	9.0	0.0	-0.7
	-양식수산물	9.5	10.7	11.2	11.3	11.5	1.8	1.8

주: 1) 2022년은 추정치임
 2) 곡물은 밀, 쌀 등을 포함하며, 교역량은 수출량을 기준으로 함
 자료: FAO, Food Outlook, 각 연도

나. 세계 수산물 가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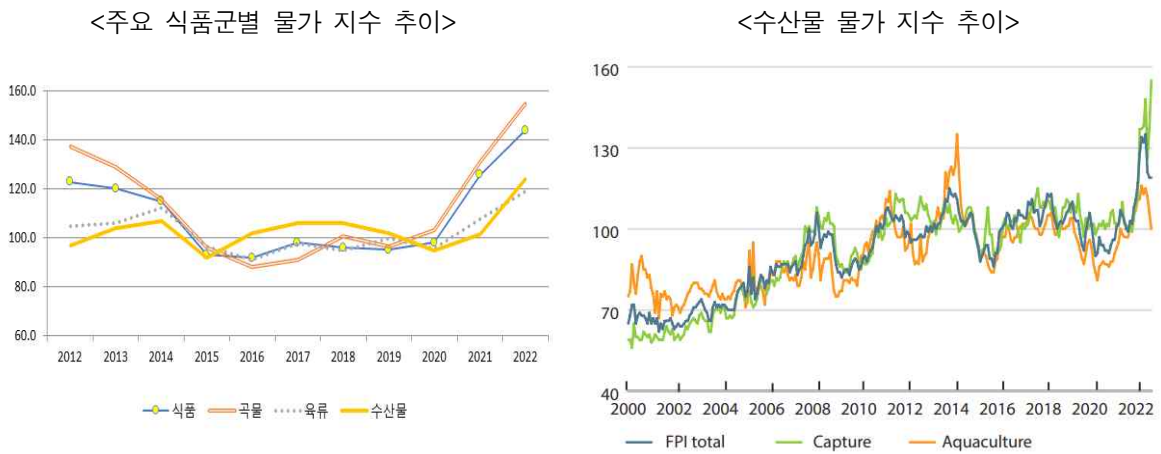
- FAO의 식품 물가 지수(Food price index)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1.6% 상승세를 보였음
- 2022년 식품 물가 지수는 143.7로 전년 대비 14.3% 상승했으며, 모든 식품군의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상승했음
 - 특히, 수산물 물가 지수는 124.0으로 전년과 달리 21.9% 상승하여 타 식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폭이 컸음
 - 다음으로 유제품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19.6% 올랐으며, 곡물 17.9%, 식용유 13.9%, 육류 10.3% 순이었음
- 최근 10년간 식품군별 연평균 등락률을 보면, 전년에 이어 당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군이 1~3% 내외에서 변동했음
 -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물가 변동폭을 보였던 수산물의 경우 전년과 달리 최근 10년간 연평균 2.5% 증가세를 보였음

<표 2-20> 식품군별 물가 지수 현황(FAO 기준)

연도	식품	식품					수산물
		육류	유제품	곡물	식물유	당류	
2012년(A)	122.8	105.0	111.7	137.4	138.3	133.3	97.0
2013년	120.1	106.2	140.9	129.1	119.5	109.5	104.0
2014년	115.0	112.2	130.2	115.8	110.6	105.2	107.0
2015년	93.1	96.7	87.1	95.9	89.9	83.2	92.0
2016년	91.9	91.0	82.6	88.3	99.4	111.6	102.0
2017년	98.0	97.7	108	91.0	101.9	99.1	106.0
2018년	95.9	94.9	107.3	100.8	87.8	77.4	106.0
2019년	95.1	100.0	102.8	96.6	83.2	78.6	102.0
2020년	98.1	95.5	101.8	103.1	99.4	79.5	94.9
2021년	125.7	107.7	119.1	131.2	164.9	109.3	101.7
2022년(B)	143.7	118.8	142.4	154.7	187.8	114.5	124.0
전년 대비	14.3	10.3	19.6	17.9	13.9	4.8	21.9
연평균 등락률 (B/A, %)	1.6	1.2	2.5	1.2	3.1	-1.5	2.5
표준편차	17.3	8.4	19.6	22.0	33.7	18.2	8.4

주: 1) 식품 물가지수(Food Price Index)는 육류, 유제품, 곡물, 식물유, 당류 물가 지수의 평균임
 2) 2014~2016년 평균=100 기준임
 3)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FAO 홈페이지

<그림 2-9> 식품군별 물가 지수 변화 추이



주: 2014~2016년 평균=100 기준임
 자료: FAO, Food Outlook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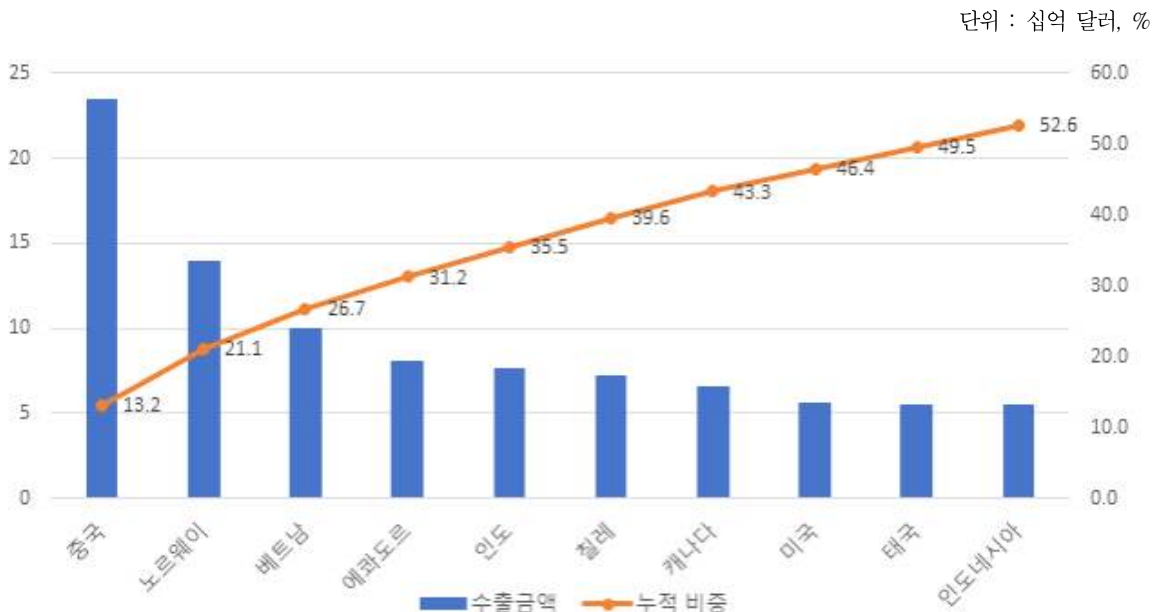
다. 세계 수산물 교역 현황

- 2022년 국제 수산물 무역 거래금액을 살펴보면 수출은 1,781억 달러였으며, 수입은 1,757억 달러 규모로 추정됨
- 2019년 중·미간 무역 긴장 고조 및 2020년‘코로나19’등으로 인해 국제 수산물 무역이 저조했으나, 2022년에도 전년도에 이어 거래 물량 증가 및 가

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음

- <그림 2-12>은 2022년 수출금액 기준, 세계 수산물 교역 상위 10개국(EU제외)의 수출금액과 각각의 누적 비중을 나타냄
 - 중국(13.2%), 노르웨이(7.9%), 베트남(5.6%), 에콰도르(4.5%), 인도(4.3%), 칠레(4.0%), 캐나다(3.7%), 미국(3.1%), 태국(3.1%), 인도네시아(3.1%) 순으로 상위 10개국의 누적 금액 비중은 52.6%를 차지함
 - EU는 단일국가 순위에서 제외했으며, 수산물 수출금액은 372억 달러 규모로 전체의 20.2%를 차지했음

<그림 2-10> 세계 수산물 수출국 비중(2022년 금액 기준)



주 : EU 제외
 자료: FAO, Food Outlook, 2022.11

- <그림 2-14>는 2022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세계 수산물 교역 상위 10개국 수입 금액과 누적 비중을 나타냄
 - 미국(16.8%), 중국(13.9%), 일본(8.3%), 한국(3.6%), 태국(2.2%), 캐나다(2.2%), 베트남(1.3%), 러시아(1.5%), 호주(0.9%), 노르웨이(0.8%) 순이었으며, 상위 10개국의 누적 금액 비중은 전체의 51.3%였음
 - 전년과 달리 미국이 중국보다 수입량이 많았지만, 중국은 자국 내 생산되지 않는 수산물 수입을 통해 자국 소비 및 가공 후 재수출함으로써 수입량이 수

출량보다 다소 많은 244억 달러였음

- EU는 569억 달러를 수입하여 가장 큰 규모였으나 단일국가 순위에서 제외했음. 전체 수입금액의 32.4%를 차지했으며 수출 비중보다도 훨씬 높았음

<그림 2-11> 세계 수산물 수입국 비중(2022년 금액 기준)



주 : EU 제외
자료: FAO, Food Outlook, 2022.07

2.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

가. 수산물 수출입 총괄

- 국내 수산물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수출량은 92만 6천 톤이었으며, 수출금액은 31억 달러였음
 - 전년 대비 각각 32.3%, 22.2% 증가했으며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음
- 소금을 제외한 수입량의 경우 171만 톤이었으며, 수입금액은 67억 달러로 수출의 두 배 이상 규모임
 - 수입량 및 수입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각각 0.9%, 3.7% 증가했으며, 특히 수입금액의 경우 2012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5.7%로 동기간 수출금액 연평균 증가률(2.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2-21>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 추이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소금포함	소금제외	소금포함	소금제외
2012년(A)	708	2,364	4,832	1,296	3,984	3,789
2013년	687	2,155	5,387	1,212	3,902	3,693
2014년	702	2,067	5,233	1,360	4,506	4,323
2015년	651	1,929	5,504	1,408	4,564	4,406
2016년	612	2,131	5,374	1,444	4,799	4,658
2017년	540	2,329	5,492	1,478	5,268	5,136
2018년	632	2,377	6,419	1,555	6,125	5,963
2019년	688	2,505	5,606	1,528	5,794	5,627
2020년	614	2,306	5,518	1,533	5,621	5,456
2021년	813	2,817	6,375	1,648	6,182	5,967
2022년(B)	926	3,140	6,433	1,710	6,958	6,726
5개년 평균	657	2,467	5,882	1,548	5,798	5,630
전년 대비	13.9	11.4	0.9	3.7	12.5	12.7
평년대비 증감률	40.9	27.3	9.4	10.4	20.0	19.5
연평균증감률(B/A)	2.7	2.9	2.9	2.8	5.7	5.9

주: 1) 수출은 소금을 포함한 값으로 2008년부터 소금이 수출입 통계에서 집계됨. 수입의 경우 소금이 차지하는 중량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구분하여 제시함
 2) 5개년 평균은 2018~2022년 평균, 평년은 2017~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p/Main/>)

나. 국가별 수산물 수출입

- 2022년 금액 기준 수산물 수출 상위 5개국 순위를 살펴보면,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태국 순이었으며 전체의 74.7%를 차지했음
 - 상위 5개국으로 수출국 순위는 전년과 동일했으나, 중국의 수출 점유율은 전년 대비 2.9%포인트 높았던 반면, 일본과 미국으로는 각각 2.5%포인트, 0.5%포인트 낮아졌음
- 수산물 수입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중국,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 순이었으며 전체의 65.8%를 차지했음
 - 전년과 달리 1위 수입국 순위가 중국에서 러시아로 바뀌었으며, 수입국 점유율은 전년에 비해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줄었음

<표 2-22> 2022년 수산물 수출입 국가별 현황(금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위	중국	902	28.6	1위	러시아	1,301	20.4
2위	일본	632	20.1	2위	중국	1,220	19.2
3위	미국	425	13.5	3위	베트남	808	13.5
4위	베트남	215	6.8	4위	노르웨이	576	8.8
5위	태국	179	5.7	5위	미국	252	3.8
1~5위 소계		2,354	74.7	1~5위 소계		4,157	65.8
전체 수출 합계		3,150	100.0	전체 수입 합계		6,959	100.0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p/Main/>)

다. 부류별 수산물 수출입

- 2022년 수산물 부류별 수출 금액을 살펴보면, 어류가 17억 달러로 전체의 54.2%를 차지해 여전히 많았으며, 해조류 7억 3천만 달러(23.4%), 패류 5억 7천만 달러(18.2%), 기타 1억 3천만 달러(4.2%) 순이었음
- 수산물 부류 수출금액은 해조류를 제외하고 전년에 비해 대부분 증가했음
- 어류는 수출금액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음. 수출 비중 또한 전년 대비 7.6%포인트 늘었음
- 반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김 수출은 일부 국가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출이 다소 주춤하면서 전년보다 6.0% 감소했음

<표 2-23> 부류별 수산물 수출금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5개년 평균
어류	1,183	1,224	1,213	1,077	1,404	1,703	54.2	1,220
패류	458	439	489	431	502	570	18.2	464
해조류	601	615	676	688	782	735	23.4	672
기타	88	99	127	110	129	132	4.2	111
계	2,329	2,377	2,505	2,306	2,817	3,141	100.0	2,467

주: 패류 등에는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동물이 포함, 기타에는 소금, 수산부산물, 비식용수산물도 포함됨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p/Main/>)

- 2022년 수산물 부류별 수입금액은 어류의 경우 30억 6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46.6%를 차지함. 이어 패류는 30억 6천만 달러(44.0%), 기타 6억 1천만 달러(8.8%), 해조류 5천만 달러(0.7%)였음
- 모든 부류의 수산물 수입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음
- 패류 수입금액은 2017년까지 어류보다 적었지만, 2018년 이후 이를 넘어 가장 많이 수입되었음. 그러나 2022년에는 다시 어류 수입금액이 패류보다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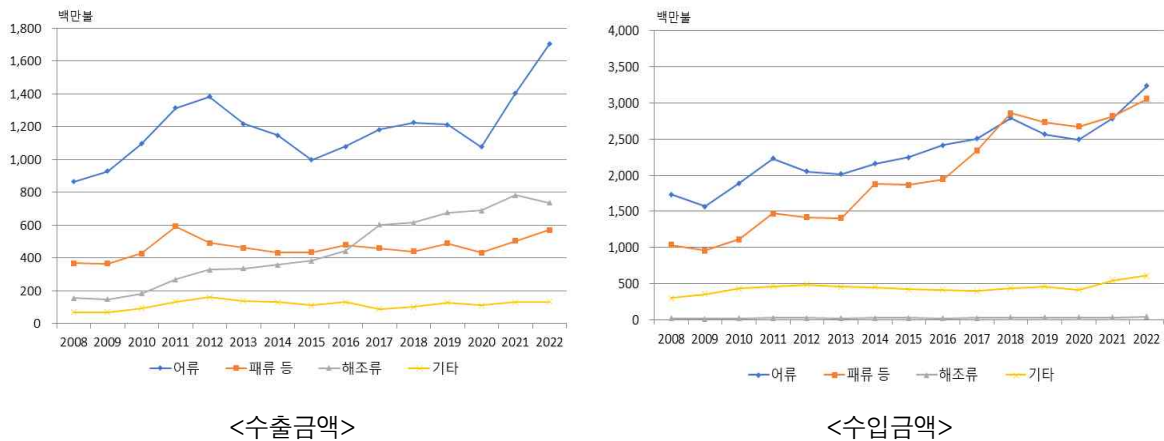
<표 2-24> 부류별 수산물 수입금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2022년	5개년 평균
어류	2,506	2,795	2,567	2,493	2,789	3,237	46.6	2,630
패류	2,342	2,859	2,732	2,676	2,814	3,057	44.0	2,685
해조류	25	35	35	35	31	46	0.7	32
기타	394	436	460	415	544	613	8.8	450
계	5,267	6,124	5,793	5,619	6,178	6,954	100.0	5,796

주: 패류 등에는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동물이 포함, 기타에는 소금, 수산부산물, 비식용수산물이 포함됨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p/Main/>)

<그림 2-12> 수산물 부류별 교역액 추이



주: 패류 등에는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동물이 포함, 기타에는 소금, 수산부산물, 비식용수산물이 포함됨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p/Main/>)

라. 품종별 수산물 수출입

1) 상위 15개 수출 수산물

- (상위 15개 수출품종의 금액 누적 비중) 2022년 금액을 기준으로 수출 수산물 상위 15개 품종의 누적 비중은 79.2%로 2021년보다 0.1%포인트 늘었음

<표 2-25> 수산물 상위 15개 수출품목 실적(금액 기준)

단위: 톤, 천 달러, %

순위	품종	2021년				품종	2022년			
		중량	금액	비중	누적 비중		중량	금액	비중	누적 비중
1	김	29,545	692,915	24.6	24.6	김	30,471	655,696	20.8	20.8
2	참치	177,225	579,214	20.6	45.2	참치	172,657	602,481	19.1	39.9
3	명태	139,952	151,945	5.4	50.5	명태	208,014	259,747	8.2	48.2
4	어류가공품	22,110	106,557	3.8	54.3	대구	28,184	125,886	4.0	52.2
5	대구	30,484	98,232	3.5	57.8	기타어류	38,954	110,273	3.5	55.7
6	기타어류	26,328	88,640	3.1	61.0	어류가공품	20,881	98,139	3.1	58.8
7	굴	10,127	80,074	2.8	63.8	기타계	2,069	91,224	2.9	61.7
8	오징어	21,727	74,297	2.6	66.4	이빨고기	2,945	90,818	2.9	64.6
9	기타계	1,288	65,925	2.3	68.8	연어	36,853	82,766	2.6	67.2
10	넙치	4,537	54,982	2.0	70.7	굴	9,859	79,601	2.5	69.7
11	전복	2,136	54,431	1.9	72.7	고등어	75,758	68,659	2.2	71.9
12	삼치	20,162	48,632	1.7	74.4	전복	2,580	65,190	2.1	74.0
13	기타수산물	54,884	47,530	1.7	76.1	삼치	17,785	58,501	1.9	75.9
14	이빨고기	2,191	45,161	1.6	77.7	오징어	15,797	53,809	1.7	77.6
15	연어	19,021	41,115	1.5	79.1	넙치	3,571	50,105	1.6	79.2

주: 수산물 상위 15개 품종, 순위는 금액 기준, 소금 포함, 비중과 누적비중은 총 수출금액 대비임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s://www.fips.go.kr>)

- (상위 15개 수출품종의 순위 변화) 2022년 수산물 상위 15개 품종을 2021년에 이어 여전히 김이 차지했음
 - 2021년 대비 순위 상승 품목: 대구(5위→4위), 이빨고기(14위→8위), 삼치(12순위→13위), 이빨고기(순위 외→14위) 연어(15위→9위), 기타어류(6위→5위), 기타계(9위→7위), 고등어(순위 외→11위)
 - 2021년 대비 순위 하락 품목: 어류가공품(4위→6위), 굴(7위→9위), 전복(11위→12위), 기타수산물(13위→순위 외), 오징어(8순위→14순위), 넙치(10순위→15순위)
- (상위 15개 수출품종 수출금액 변화) 2022년 상위 15개 수출 수산물의 수출액은 24.9억 달러로 2021년의 22.2억 달러에 비해 12.3% 증가함

- 상위 15개 품목 중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품목은 김, 어류가공품, 오징어, 넙치 등이었으며, 그 외 모든 품목의 수출액은 증가했음
 - 김은 안전성 문제 등으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2010년 1억 달러 달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음
 - 명태와 연어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중국의 검역 조치가 강화되어 전년에 이어 러시아산 명태가 한국을 경유했음. 이에 따라 중국으로 재수출되면서 수출 물량 및 금액이 크게 증가했음¹³⁾

2) 상위 15개 수입 수산물

- (상위 15개 수입품종의 누적 비중) 2022년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 수산물 상위 15개 품종의 누적 비중은 67.6%로 2021년의 67.8%에 비해 0.2%포인트 줄었음
- (상위 15개 수입품종의 순위 변화) 2022년 수산물 수입 상위 1위는 전년에 이어 명태였으며, 연어가 2위를 차지했음
 - 2021년 대비 순위 상승 품목: 새우살(6위→3위), 오징어(5위→4위), 참치(8위→7위), 소금(11위→9위), 고등어(순위 외→13위), 대구(순위 외→15위)
 - 2021년 대비 순위하락 품목: 새우(3위→5위), 낙지(7위→8위), 대게(9위→10위), 기타어류(4위→6위), 바다가재(15위→순위 외)
- (상위 15개 수입품종 수입액 변화) 2022년 상위 15개 수입 수산물의 수출액은 47억 달러였으며, 2021년 대비(41.2억 달러) 12.3% 증가함
- 상위 15개 품목 중 수입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품목은 새우, 대게, 기타 게, 주꾸미 등이었으며, 이외 품목은 모두 수입액이 증가함
 - 연근해산 및 원양산 오징어 생산량 감소에 따라 2022년에는 수입량이 늘었음
 - 명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으로 재수출을 위한 원물 수입이 크게 늘었음
 - 연어는 주요 수입국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국내 수요 증가에 따라 물량이 증가함¹⁴⁾

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월간 수산관측 & 이슈, Vol. 58, 2022. 01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 체결국 수산물 수입 동향, 2021. 4분기호

<표 2-26> 수산물 상위 15개 수입품목 실적(금액 기준)

단위: 톤, 천 달러, %

순위	품종	2021년				품종	2022년			
		중량	금액	비중	누적 비중		중량	금액	비중	누적 비중
1	명태	321,586	500,917	8.1	8.1	명태	377,282	601,253	8.6	8.6
2	연어	62,730	476,210	7.7	15.8	연어	76,566	585,974	8.4	17.1
3	새우	65,502	414,042	6.7	22.5	새우살	49,944	465,974	6.7	23.8
4	기타어류	184,131	367,561	5.9	28.4	오징어	136,993	391,450	5.6	29.4
5	오징어	134,225	350,401	5.7	34.1	새우	55,536	389,757	5.6	35.0
6	새우살	36,962	330,915	5.4	39.5	기타어류	185,180	388,403	5.6	40.6
7	낙지	32,065	282,731	4.6	44.0	참치	24,421	316,201	4.5	45.1
8	참치	21,985	236,835	3.8	47.9	낙지	31,350	290,606	4.2	49.3
9	대게	7,768	231,239	3.7	51.6	소금	4,733,722	232,642	3.3	52.6
10	기타게	9,153	225,809	3.7	55.3	대게	9,587	220,667	3.2	55.8
11	소금	4,726,315	215,743	3.5	58.8	기타게	9,228	204,685	2.9	58.7
12	주꾸미	31,395	209,767	3.4	62.1	주꾸미	29,837	204,183	2.9	61.7
13	기타수산물분	69,587	124,033	2.0	64.2	고등어	56,158	146,274	2.1	63.8
14	어란	26,988	113,236	1.8	66.0	어란	25,698	134,512	1.9	65.7
15	바다가재	4,448	110,907	1.8	67.8	대구	34,793	32,756	1.9	67.6

주: 수산물 상위 15개 품종, 순위는 금액 기준, 소금 포함, 비중과 누적비중은 총 수입금액 대비임
 자료: 수산정보포털(<https://www.fips.go.kr>)

제4절 수산 정책 환경 변화

1. 2022년 해양수산부 핵심정책 및 수급관련 정책

가. 핵심정책

- 2022년 해양수산부의 핵심 추진과제는 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국가를 실현하는 것임. 이를 위해 어촌공간의 혁신과 지원 강화를 통해 어촌 소멸 방지, 수산업의 지속적인 혁신 성장 지원 등을 통해 어촌·연안 지역과 수산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대표적임
- 또한, 탄소배출이 없고 재해에서 안전한 해양수산을 실현하기 위해 해양수산 전분야의 탄소배출 저감과 탄소흡수원 발굴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하고, 해양플라스틱의 전주기 관리 강화, 해양수산 전분야의 안전관리 강화가 추진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어촌뉴딜300 확산과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 시행 등으로 어촌지역 활성화 추진
 - 어촌유입 및 정착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및 「어촌어항법」 개정 추진
 -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해양폐기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나. 수산물 수급관련 정책

- 2022년의 핵심 수산정책은 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① 비대면 소비 중심의 수산식품산업 육성, ② 합리적인 어업규제를 통한 효율적인 어선 어업 실현, ③ 스마트·친환경 양식산업 고도화의 방안을 수립함
- 또한 탄소배출과 해양폐기물 감축을 위한 ④ 수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 ⑤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추진과 같은 정책을 다루었음

① 비대면 소비 중심의 수산식품산업 육성

- 신선유통 확대를 고려해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성을 본격화 하며, 중소 식품단지 조성 확대(15→19곳)

- 위판장의 현대화-물류일괄대행 서비스 투자 모델(시범 2개소) 운영, 수산물 콜드체인 기본계획 마련, 스마트 신선유통·가공 R&D(~ '25) 추진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수산물 상생활인 진행, 「수산물유통법」 개정을 통해 직거래 활성화
 - K-씨푸드관 확대(5→7개), 현지 시장조사 및 판로 다변화 지원으로 수산물 수출 촉진
- ② 합리적인 어업규제를 통한 효율적인 어선어업 실현
- TAC 확대 및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추진 지속, 업계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수용성 제고('21.3)으로 수산직불제도 확대·개편
 - ('21) 12개 어종, 14개 업종 → ('22) 15개 어종(+갈치, 참조기, 삼치), 18개 업종(+근해연승 등)
 - 근해어선 위주로 진행 중인 감척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폐업지원금 확대 및 사업효율화 방안 마련
 - 폐업지원금 산정기준(평년수익액 대비) : ('20) 70% → ('21) 90% → ('22) 100%
 - 금어기 및 금지체장 제도의 자원회복 효과와 함께 어가소득 영향 분석을 실시해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운영방안 마련
- ③ 스마트·친환경 양식산업 고도화의 방안을 수립
-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5개소, 내수면 스마트 양식 2개소 조성을 진행해 조속한 정착기반 확립
 - 우수식 디지털양식 혁신기술, 수산종자산업 혁신 기술 등으로 양식 기술 첨단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연간 3만 톤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신축, 어분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 구축
- ④ 수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
- 노후어선 설비 교환 및 친환경 어선 개발, 어선 감척, 친환경 설비 고급 및 스마트 양식장 등을 통한 저탄소 어업활동

- 수산물 유통·가공 시설의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장비 보급, 친환경 냉매의 사용 독려와 스마트 기술개발 및 지원 병행
 - 국가어항 및 양식장 유희부지와 유희수역을 이용한 친환경 재생에너지(태양광·소수력) 생산시설 설립 방안 추진
- ⑤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추진
- 해양폐기물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해 친환경 부표 신규 보급, 스티로폼 부표 사용 금지 제도의 단계적 시행
 - 보급목표(누적) : ('21) 2,130만 개(39%) → ('22) 3,272만 개(59%) → ('24) 5,500만 개(100%)
 - 쓰레기 정화운반선 준공 후 현장 투입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해양폐기물 모니터링·수거지원 기술 개발, 해양 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수거장비 개발과 실증 추진

2. 수산물 비축사업

- 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와 비축을 주생산시기에 수행하여 비생산성수기에 방출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 근거 법령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비축사업 등)
- 집행주체는 수협중앙회, 수매품 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
 - 해양수산부는 비축사업 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자금의 배정·송금, 판매지침 등을 시달
 - 수협중앙회는 수매를 실시하고, 수매품의 입고 및 보관, 비축 수산물의 판매 업무를 수행
 - 수매품 검사는 수매중도매인 또는 수매기관의 전담 직원을 입회시킨 가운데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관이 실시

<그림 2-13> 수산물 비축사업 추진절차



자료: 해양수산부, 「2023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2022.12.

- 2022년은 비축 예산을 모두 소진하며 대중성 수산물 수급조절에 기여
 - 수산물 수매비축은 주 생산시기의 산지 가격 하락을 방지하며 설·추석 등의 성수기 수급조절을 실시하여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함
 - 2022년 수매실적은 25,922톤, 수매금액은 1,080억 7,000만 원으로 정부비축 배정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음
 - 명태는 러시아의 입어 불확실성에 대비 했으며 연근해 생산량 급감한 오징어는 원양산 대체 확보 실시, 생산량이 늘어난 갈치도 대상이었음
 - 반면 생산량이 감소한 고등어, 조기, 멸치는 계획에 비해 하회했음

<표 2-27> 2022년도 수산물 비축사업 수매실적

단위: 톤, 백만 원

품 목	계획		조정		실적		재고현황 (‘22.12.31)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25,160	108,070	25,922	108,070	25,922	108,070	32,750
명 태	15,053	27,894	17,901	34,963	17,901	34,963	22,079
고등어	1,596	7,726	771	4,068	771	4,068	1,056
오징어	4,813	25,233	4,649	34,654	4,649	34,654	5,759
갈 치	1,540	20,199	1,886	21,868	1,886	21,868	2,403
조 기	1,839	21,113	519	8,885	519	8,885	1,328
마른멸치	319	3,805	181	2,387	181	2,387	109
천일염	-	-	14	1,140	14	1,140	16
마른오징어	-	100	-	105	-	105	-
유보금	-	2,000	-	-	-	-	-

주: 천일염은 기존 재고에 대한 부대비용 예산만 편성
 자료: 수협중앙회 내부자료(2022년 3월 제공)

- 2023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의 비축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28> 수산물 비축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사업비	175,000	100,515	100,515	100,515
국 고	175,000	100,515	100,515	100,515
지방비	-	-	-	-
자부담	-	-	-	-

자료: 해양수산부, 「2023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2022.12.

3. 수산물 자조금지원 사업

- 정부는 자조금단체가 자발적으로 수산물의 판로확대, 가격안정,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수산업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자조금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
- 자조금단체는 매년 1월 15일까지 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계획 수립 시 특정 항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함. 단 수급안정 예산은 40% 이상 초과가 가능함
- 자조금단체는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수산분야 농수산물자조금의 관리 및 운용요령(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사업을 추진해야함
- 2023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의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29> 수산물자조금지원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사업비	6,230	6,230	6,230	6,230
국 고	3,165	3,165	3,165	3,165
자부담	3,065	3,065	3,065	3,065

자료: 해양수산부, 「2023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2022.12.

4. 수산물 구매지원사업

- 수산물에 대한 적기의 구매를 지원하여 산지 가격 안정화 도모 및 경영 안정 지원
 - 구매지원 사업은 생산자 단체,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등에게 수산물 원료구매 자금을 지원(융자)하여 주 생산 시기에 대량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적기 구매를 지원하여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여 중소 유통·가공 업체 경영의 안정을 지원해주기 위함임. 또한 가격 급등 등의 필요한 시기에 정부 방출 명령을 통해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도모함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산물 민간구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에 근거함
 - 산지 가격 안정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자 단체, 유통·가공업체 등 민간의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2023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의 수산물자조금지원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30> 수산물구매지원 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사업비	187,543	125,043	125,043	125,043
국 고	163,583	113,583	113,583	113,583
지방비	-	-	-	-
자부담	23,960	11,460	11,460	11,460

주: 2023년 총사업비 187,543백만 원 중 67,743백만 원은 수산금융이차보전으로 집행
 자료: 해양수산부,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2022.12.

Ⅲ 제3장 Ⅲ
수산물 수급현황 및
유통산업 구조

제1절 수산물 수급현황

제2절 수산물 유통산업 구조

제3장 수산물 수급현황 및 유통산업 구조

제1절 수산물 수급현황

1. 수산물 수급의 이론적 배경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의 항목 구성과 총공급, 총수요, 자급률 도출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3-1>과 같음
 - 국내소비는 ‘수요=공급’이라는 항등식 관계를 통해 추정되며, 생산·수입·수출·재고(이입 및 이월)는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집계됨
 - 총공급량인 국내 생산과 수입, 이입(재고)을 합한 수치에서 이월(재고), 수출, 사료, 종자, 감모, 가공용(비식용)으로 이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것이 식용공급량임
 - 그러나 현재 발표되고 있는 식품수급표에는 식용공급량 산출 과정에서 사료·종자·가공용 유통 물량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0으로 처리하고 있음
 - 식용공급량에서 통상 비가식 부위¹⁵⁾로 폐기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사람이 섭취하는 ‘순식용 공급량’이 도출됨
 - 한편 ‘순식용 공급량’이라는 용어의 직관성이 낮아 편의상 ‘수산물 소비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산물 소비량’을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이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임
 - 총공급 = 총수요의 항등식 관계에 따라 ‘국내소비량¹⁶⁾ = 총공급량 - 수출 - 이월’로 계산됨

15) 비가식 부위는 통상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원료의 특정 부위(머리, 뼈, 내장 등)를 의미하며, 가식부분 중에 손상되거나 병충해를 입은 부분 등 고유의 품질이 변질되었거나 제조 공정 중 부적절한 가공처리로 손상된 부분을 포함을 의미함

16) 국내소비량은 영어로 Domestic Supply로 표기되는데, 정확한 의미는 “국내로 공급된 양”을 의미하며, 이 국내공급량이 모두 소비되었다는 가정 하에 국내소비량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독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국내 소비용 공급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앞서 유도된 식에 따라 ‘총공급량 = 식용공급량+이월+수출+사료+종자 +감모+가공용’이므로 이를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국내소비량 = 식용공급량+사료+종자+감모+가공용’이 유도됨
- 따라서 국내 수산물 소비량은 사람이 섭취하는 식용 수산물뿐만 아니라 비식용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음
- 총공급과 총수요의 세부 항목이 유도되면, 이를 토대로 해당 식품의 자급률(= 국내생산량/국내소비량×100)이 도출됨

<그림 3-1> 식품수급의 구조 및 자급률 도출 과정

공급 측면				수요 측면									
생산	수입	이입	총공급량	이월	수출	사료	종자	감모	가공용		식용공급량	폐기율	순식용공급량
									식용	비식용			
↓				↓									
총공급 = 생산 + 수입 + 이입				식용공급량 = 총공급량 - (이월+수출+사료+종자+감모+가공용) 순식용공급량 = 식용공급량에 폐기율 적용하여 산출 국내소비량 = 식용공급량+가공용+사료용+종자용+감모용 총수요 = 국내소비량+수출+이월 ※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 순식용공급량 / 우리나라 전체 인구									
↓				↓									
$\text{자급률(\%)} = \frac{\text{국내생산량}}{\text{국내소비량}} \times 1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를 바탕으로 작성

2. 수산물 생산 현황

- 1970~2020년의 약 50년간 일반해면어업, 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등 우리나라 어업별 수산물 생산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1970년대: 일반해면어업 중심의 수산물 생산(70% 이상)
 - 1980년대: 일반해면어업 중심으로 양식어업과 원양어업 생산량도 증가하여 일반해면

어업 비중 감소

- 1990년대: 일반해면어업은 정체기인 반면, 양식어업과 원양어업 급성장
- 2000년대: 일반해면어업과 원양어업 생산량 감소한 반면, 양식어업 생산량 증가세 지속
- 2010년대: 일반해면어업과 원양어업은 보합세, 양식어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2015년부터는 전체 수산물 생산량 중 양식수산물이 50% 이상 차지

<표 3-1> 어업별 수산물 생산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총 생산량		일반해면어업		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1970년	934	100.0	724	77.6	119	12.8	90	9.6	0	0.0
1980년	2,408	100.0	1,370	56.9	541	22.4	458	19.0	39	1.6
1990년	3,198	100.0	1,472	46.0	773	24.2	919	28.7	34	1.1
2000년	2,514	100.0	1,189	47.3	653	26.0	651	25.9	21	0.8
2010년	3,111	100.0	1,133	36.4	1,355	43.6	592	19.0	31	1.0
2011년	3,256	100.0	1,235	37.9	1,478	45.4	511	15.7	32	1.0
2012년	3,183	100.0	1,091	34.3	1,489	46.8	575	18.1	28	0.9
2013년	3,135	100.0	1,045	33.3	1,515	48.3	550	17.5	25	0.8
2014년	3,304	100.0	1,059	32.0	1,547	46.8	669	20.3	30	0.9
2015년	3,337	100.0	1,058	31.7	1,668	50.0	578	17.3	33	1.0
2016년	3,269	100.0	908	27.8	1,872	57.3	454	13.9	35	1.1
2017년	3,725	100.0	927	24.9	2,316	62.2	446	12.0	36	1.0
2018년	3,770	100.0	1,012	26.8	2,250	59.7	474	12.6	35	0.9
2019년	3,861	100.0	912	23.6	2,410	62.4	504	13.0	35	0.9
2020년	3,713	100.0	934	25.2	2,308	62.2	437	11.8	34	0.9
2021년	3,832	100.0	943	24.6	2,401	62.7	446	11.6	43	1.1
2022년	3,604	100.0	887	24.6	2,268	62.9	400	11.1	49	1.4
5개년 평균	3,756	-	938	-	2,327	-	452	-	39	-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2022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5.9%(약 23만 톤) 감소한 360만 톤
 - (일반해면어업)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88.7만 톤으로 2021년에 비해 5.6만 톤 감소했음. 다만 수산물 생산 비중은 전년과 같았음
 - (양식어업) 양식수산물은 해면어업과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생산량과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2년 생산량은 226.8만 톤으로 작년 대비

13.3톤 감소했으나 생산비중은 소폭 증가한 62.9% 였음

- (원양어업) 2010년 기준 19.0% 비중을 가졌던 원양어업 생산량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22년에는 400만 톤의 생산량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약 10% 감소했음
- (내수면어업) 2010년부터 10년 간 3만 톤의 생산량을 보였던 내수면어업은 2021년 4.3만 톤을 기록하였고, 올해도 4.9만 톤을 기록해 생산량 증가폭이 컸음
- 평년의 일반해면어업의 품종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멸치가 가장 많았으며 고등어, 살오징어, 갈치, 전갱이류 등의 순이었음
 - 2022년 일반해면어업의 상위 10대 품종 중 망치고등어, 삼치류, 청어, 붉은대게와 젓새우류는 작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했음
 - 그러나 멸치, 고등어, 갈치, 전갱이류 등의 품종은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특히 살오징어는 40%의 하락률을 보였음

<표 3-2> 일반해면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단위: 톤, %

순위	품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	멸치	188,684	171,677	216,748	143,414	132,151	186,293	-7.9	-29.1
2	고등어	141,530	101,121	77,603	122,170	110,795	109,259	-9.3	1.4
3	갈치	49,450	43,479	65,719	63,056	54,000	55,237	-14.4	-2.2
4	망치고등어	74,403	20,252	5,236	28,859	41,678	28,028	44.4	48.7
5	전갱이류	27,050	43,053	46,207	49,692	37,732	37,459	-24.1	0.7
6	살오징어	46,274	51,817	56,989	60,880	36,549	60,597	-40.0	-39.7
7	삼치류	32,089	37,841	32,949	30,950	35,654	34,427	15.2	3.6
8	청어	24,035	25,771	21,035	14,025	27,806	23,477	98.3	18.4
9	붉은대게	20,344	15,874	15,548	21,050	24,694	20,500	17.3	20.5
10	젓새우류	13,478	12,844	19,422	19,946	24,566	15,700	23.2	56.5
1~10위 소계(A)		617,337	523,729	557,456	554,042	525,625	570,978	-5.1	-7.9
일반해면어업 생산량(B)		1,011,536	911,852	933,880	942,875	887,239	945,417	-5.9	-6.2
비중(A/B)		61.0	57.4	59.7	58.8	59.2	60.4	-	-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평년의 천해양식어업 품종별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다시마류의 생산량이 가장 많았으며, 김류, 미역류의 해조류가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 2022년에는 다시마류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18.2% 감소한 56만 톤을 기록하면서 미역류 생산량이 1위(59만 톤)를 차지했음
 - 천해양식어업의 상위 10대 품종 중 미역류, 김류, 넙치류, 우렁쟁이의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다시마류, 굴류, 홍합류, 바지락, 전복류, 조피볼락은 감소했음
 - 평년에 비해서는 바지락, 전복류와 넙치류의 생산량이 10% 이상 증가했으며, 우렁쟁이, 조피볼락은 감소폭이 다소 컸음
 - 한편, 2022년도 상위 10대 품목의 생산량 소계는 전년에 비해 5.4% 감소했으며,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96.0%였음

<표 3-3> 천해양식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단위: 톤, %

순위	품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	미역류	515,666	520,267	501,501	574,504	585,955	546,910	2.0	7.1
2	다시마류	572,600	662,558	675,074	685,239	560,848	627,551	-18.2	-10.6
3	김류	567,162	605,767	536,127	547,413	550,221	556,023	0.5	-1.0
4	굴류	303,183	326,190	300,084	305,914	300,692	310,125	-1.7	-3.0
5	홍합류	49,485	59,759	61,968	63,672	53,064	62,209	-16.7	-14.7
6	넙치류	37,241	43,360	43,813	41,776	45,884	41,479	9.8	10.6
7	바지락	19,853	22,254	18,054	23,818	22,704	18,883	-4.7	20.2
8	전복류	20,053	18,436	20,059	23,199	22,078	19,555	-4.8	12.9
9	우렁쟁이	37,312	26,040	30,613	17,400	19,330	27,528	11.1	-29.8
10	조피볼락	22,702	20,348	21,568	17,473	16,189	20,887	-7.3	-22.5
1~10위 소계(A)		2,145,257	2,304,979	2,208,861	2,300,408	2,176,965	2,231,151	-5.4	-2.4
천해양식어업 생산량(B)		2,249,605	2,410,040	2,308,407	2,401,120	2,267,830	2,336,989	-5.6	-3.0
비중(A/B)		95.4	95.6	95.7	95.8	96.0	96.2	-	-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원양어업 수산물의 평년 생산량은 가다랑어가 여전히 많았으며, 황다랑어, 오징어류, 남빙양크릴 등이 뒤를 이었음
 - 가다랑어의 2022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20톤이었으나, 평년보다는 10.8% 적었음

- 2022년 원양어업 상위 10대 품목 가운데 황다랑어, 오징어류, 남빙양크릴, 명태 등 대부분의 품종 생산량이 감소했음
- 다만 한치의 생산량은 평년 및 전년 대비 각각 193.2%, 82.1% 증가했음

<표 3-4> 원양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단위: 톤, %

순위	품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	가다랑어	246,719	279,032	214,685	189,457	202,304	226,803	6.8	-10.8
2	황다랑어	43,510	56,881	59,315	60,472	51,667	57,273	-14.6	-9.8
3	오징어류	35,074	20,540	36,540	73,867	48,157	42,610	-34.8	13.0
4	남빙양크릴	36,005	42,939	44,567	37,984	30,896	39,200	-18.7	-21.2
5	명태	23,993	23,915	27,196	27,779	21,591	25,276	-22.3	-14.6
6	눈다랑어	23,571	23,592	22,952	23,415	21,010	22,874	-10.3	-8.2
7	민대구류	8,312	12,623	5,574	9,382	4,063	8,203	-56.7	-50.5
8	메로(아빨고)류	3,252	3,114	3,098	4,393	3,541	3,437	-19.4	3.0
9	꽁치	23,701	10,465	5,993	4,788	3,438	11,950	-28.2	-71.2
10	한치	1,461	1,680	2,237	1,134	3,325	1,826	193.2	82.1
1~10위 소계(A)		445,598	474,781	422,157	432,671	389,992	439,453	-9.9	-11.3
원양어업 생산량(B)		473,589	503,795	436,617	445,505	399,759	461,046	-10.3	-13.3
비중(A/B)		94.1	94.2	96.7	97.1	97.6	96.2	-	-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내수면어업의 평년 수산물 품종별 생산현황 가운데, 뱀장어 생산량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왕우렁이, 메기, 송어류, 붕어 등이 있었음
 - 내수면 품종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뱀장어는 전년보다 15.0% 증가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55.7% 많았음
 - 전년에 비해서는 왕우렁이, 송어류, 잉어, 붕어 등 대다수의 품종 생산량이 증가했으나, 향어는 감소했음
 - 2022년 상위 10대 내수면 품종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4.3% 증가했고, 생산 비중은 91.2%를 나타냈음

<표 3-5> 내수면어업의 생산실적 상위 10개 품종 현황

단위: 톤, %

순위	품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	뱀장어	10,589	10,942	9,788	15,772	18,131	11,647	15.0	55.7
2	왕우렁이	5,823	5,406	6,035	8,011	10,249	5,958	27.9	72.0
3	메기	4,846	4,269	3,951	3,783	3,909	4,436	3.3	-11.9
4	붕어	1,946	2,058	2,489	2,907	3,425	2,211	17.8	54.9
5	송어류	3,179	3,285	2,414	2,483	3,043	2,944	22.6	3.4
6	향어	1,579	1,523	1,678	2,028	1,847	1,693	-8.9	9.1
7	잉어	905	1,125	1,278	1,477	1,798	1,155	21.7	55.6
8	송어류	539	455	295	626	741	479	18.4	54.6
9	미꾸라지류	668	645	690	678	690	701	1.8	-1.6
10	블루길	734	643	789	584	633	602	8.4	5.2
1~10위 소계(A)		30,808	30,351	29,407	38,349	44,466	31,827	16.0	39.7
내수면어업 생산량(B)		35,326	35,282	33,968	42,672	48,753	36,704	14.3	32.8
비중(A/B)		87.2	86.0	86.6	89.9	91.2	96.2	-	-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3. 수산물 수출입 현황

- 2022년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액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9%, 25.4% 증가한 99억 달러로 나타났음. 축산물의 경우 전년 대비 15.6% 늘었으며, 수산물은 전년보다 11.7% 상승하였음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총수출액 중 농림수산물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로 작년과 비슷했으며, 수산물은 0.4%의 비중을 차지했음
 - 2022년 수산물 수출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금액 가운데 전년 및 평년 대비 30% 이상의 비중을 기록했음

<표 3-6> 식품류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수출	우리나라 전체	604,860	542,233	512,498	644,400	683,585	575,537	6.1	18.8
	농림수산물(A)	7,403	7,673	7,979	9,456	9,918	7,906	4.9	25.4
	농산물	4,771	4,924	5,366	6,289	6,371	5,169	1.3	23.2
	축산물	273	289	346	387	447	300	15.6	49.3
	임산물	34	29	26	31	28	31	-10.7	-10.9
	수산물(B)	2,325	2,432	2,241	2,750	3,072	2,407	11.7	27.6
	비중(B/A)	31.4	31.7	28.1	29.1	31.0	30.4	-	-
수입	우리나라 전체	535,202	503,343	467,633	615,093	731,370	519,950	18.9	40.7
	농림수산물(C)	26,251	26,483	26,818	31,617	36,286	27,050	14.8	34.1
	농산물	13,083	13,319	14,033	16,756	19,059	13,959	13.7	36.5
	축산물	6,868	7,154	7,015	8,463	10,179	7,096	20.3	43.4
	임산물	451	438	416	487	446	448	-8.3	-0.3
	수산물(D)	5,850	5,571	5,354	5,911	6,602	5,548	11.7	19.0
	비중(D/C)	22.3	21.0	20.0	18.7	18.2	20.5	-	-

주: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KATI(www.kati.net),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 2022년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입액은 3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하였으며, 임산물을 제외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수입액은 늘었음
 - 우리나라의 수입액 가운데 농림수산물(수출)은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66억 달러였음. 이는 평년에 비해서도 19.0% 늘어난 수치임
 - 농림수산물류 수입에서 수산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2%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7> 국가별 수산물 수출금액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 중국	387,891	508,255	439,466	724,612	898,885	486,306	24.1	84.8
2 일본	746,872	717,969	645,372	619,806	611,282	697,719	-1.4	-12.4
3 미국	277,829	296,788	313,251	392,761	424,008	312,029	8.0	35.9
4 베트남	120,490	137,177	128,847	152,845	190,438	127,117	24.6	49.8
5 태국	223,083	194,098	164,773	135,924	172,216	191,260	26.7	-10.0
6 프랑스	52,376	45,926	36,669	66,187	71,220	52,754	7.6	35.0
7 홍콩	52,533	60,159	59,046	53,959	67,994	55,559	26.0	22.4
8 대만	56,055	55,755	54,510	56,062	66,609	54,482	18.8	22.3
9 인도네시아	13,440	17,055	17,983	30,311	59,698	17,554	96.9	240.1
10 이탈리아	39,744	36,967	34,568	52,952	48,037	42,058	-9.3	14.2
소계(A)	1,970,313	2,070,151	1,894,484	2,285,420	2,610,389	2,036,839	14.2	28.2
수산물 수출(B)	2,325,253	2,431,696	2,240,559	2,749,583	3,072,239	2,406,940	11.7	27.6
비중(A/B)	84.7	85.1	84.6	83.1	85.0	96.2	-	-

주: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KATI(www.kati.net)

- 2022년 수산물 수출금액은 24억을 기록했으며 중국으로 수출이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일본, 미국, 베트남, 태국 등이었음
 - 2022년 수산물 수출 상위 10개국으로의 수출액 비중은 전체의 85.0%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1.9%p 많았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중국 수출액이 약 9억을 기록하면서 이전까지 최대 수출 국가였던 일본을 넘어섰음. 이는 전년 대비 24.1% 증가한 금액이며 평년에 비해서는 84.8% 늘어난 것임
 - 해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년 대비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일본과 이탈리아의 수출액이 각각 1.4%, 9.3% 줄었음

<표 3-8> 국가별 수산물 수입금액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 러시아	910	922	924	1,217	1,418	966	16.5	46.8
2 중국	1,500	1,312	1,230	1,264	1,308	1,306	3.5	0.1
3 베트남	854	794	747	799	918	787	14.9	16.7
4 노르웨이	408	418	429	572	610	433	6.7	41.0
5 미국	264	235	218	222	235	235	6.0	0.2
6 페루	161	201	194	151	212	161	40.3	31.2
7 일본	145	134	128	164	187	143	14.0	30.6
8 태국	179	141	151	192	169	166	-11.9	1.8
9 캐나다	118	120	94	113	132	109	16.8	21.4
10 인도	77	100	103	107	124	89	16.5	39.7
소계(A)	4,615	4,378	4,218	4,800	5,314	4,395	10.7	20.9
수산물 수입(B)	5,850	5,571	5,354	5,911	6,602	5,548	11.7	19.0
비중(A/B)	78.9	78.6	78.8	81.2	80.5	79.2	-	-

주: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KATI(www.kati.net)

- 2022년 국가별 수산물 수입액은 이전과 달리 러시아가 14억 2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의 순이었음
 - 상위 10개국 수입 비중이 전체 수산물의 80.5%를 차지하는 가운데, 전년보다는 1.3%p 하락했음
 - 국가별로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금액이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6.5%, 46.8% 많았으며 중국은 작년보다 3.5% 증가에 그쳤음
 - 상위 10개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액이 증가했으나 태국의 전년보다 11.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평년에 비해서는 모든 국가에서의 수입액이 증가했음

4. 수산물 재고 현황

- 수산물 재고 현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집계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품목은 11개 품종임

- 고등어(식용), 명태, 조기, 갈치(국내산, 수입산), 오징어(연안산, 원양산), 꽁치, 전갱이, 삼치, 꽃게, 마른멸치, 병어의 재고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품종은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 현재 전국 240개의 수산물 냉동보관창고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씩 전화나 팩스 조사를 수행 중임

<표 3-9> 수산물 재고 현황

단위: 톤,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고등어 식용	68,722	49,656	36,107	70,080	61,842	54,975	-11.8	12.5	
명태	104,343	67,946	87,243	106,217	81,488	93,030	-23.3	-12.4	
조기	15,014	18,798	17,242	15,542	14,298	16,184	-8.0	-11.6	
갈치	국내산	6,956	4,174	6,364	8,205	8,899	6,580	8.5	35.2
	수입산	10,374	6,304	7,798	8,329	7,874	9,059	-5.5	-13.1
오징어	연안산	15,972	16,747	24,352	24,947	20,171	19,418	-19.1	3.9
	원양산	27,809	23,558	51,838	50,220	40,021	35,123	-20.3	13.9
꽁치	45,630	26,302	10,519	13,286	11,523	27,608	-13.3	-58.3	
전갱이	2,309	1,380	3,101	3,186	3,060	2,126	-3.9	44.0	
삼치	10,444	12,528	12,798	7,208	6,313	10,281	-12.4	-38.6	
꽃게	14,973	14,362	16,092	20,492	15,648	15,832	-23.6	-1.2	
마른멸치	2,320	2,023	2,967	1,662	1,982	2,080	19.2	-4.7	
기타	279,935	296,080	360,068	309,957	310,035	302,423	0.0	2.5	
병어	-	164	61	125	-	-	-	-	
합계	604,802	540,021	636,549	639,456	583,154	594,789	-8.8	-2.0	

주: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수산물수출입동향, 2021년 12월 31일 기준

- 수산물 재고는 전년 대비 8.8%, 평년 대비 2.0% 감소한 58만 톤이었음
 - 2022년 4분기의 수산물 재고 현황은 58.3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8.8% 감소했음
 - 고등어, 명태, 조기, 갈치(수입산), 오징어 등 대부분의 수산물 재고가 감소했음. 다만 갈치(국내산)와 마른멸치의 재고량은 각각 8.5%, 19.2% 증가했음
 - 한편, 평년에 비해서 전갱이, 갈치(국내산)의 재고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꽁치와 삼치의 재고 감소폭이 컸음

5. 수산물 감모·폐기 현황

- 감모란 “총공급량 가운데 생산에서 조리과정에 이르기까지 유통과정에서 손실된 양”을 의미하며, 식품수급표에서는 어패류, 해조류 모두 일괄적으로 5%로 적용되고 있음¹⁷⁾
- 폐기율은 “식용 공급량 중 통상 비가식 부분으로 폐기하는 양의 비율”을 의미하며, 현재 2018년 식품수급표 상에는 국립농업과학원의 식품성분표를 참조하여 어류, 패류, 해조류 품종별로 폐기율을 제시하고 있음¹⁸⁾

<표 3-10> 식품별 감모율표

단위: %

식품별	2018년 식품수급표 명시 식품별 감모율		
	식용공급량에 대한 감모율	생산량에 대한 감모율	이입·수입량에 대한 감모율
설탕류	1	-	-
견과류	2.6	-	-
종실류	2.8	-	-
육류	2	-	-
계란류	2	-	-
우유류	1	-	-
어패류	5	-	-
해조류	5	-	-
식물성 유지류	1	-	-
동물성 유지류	1	-	-

주: 식용공급량=총공급량-(이월+수출+사료+종자+가공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년 식품수급표」, 2021. 3

6. 수산물 수급 현황¹⁹⁾

- 2000년대 양식업의 성장으로 국내 수산물 생산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소비 또한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2022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감소했음
 - 2022년 생산량은 3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했음
 - 증가세를 보이던 소비는 2018년부터 500만 톤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은 전년 대비 8.9% 줄어든 492만 톤이었음

17) 식품수급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폐기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18) 식품성분표 자료가 과거 1970~80년대 조사치가 많고, 해외 자료를 인용한 수치가 많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함

19) 본 연구에서는 2019년까지의 자료는 식품수급표를 활용하였으며, 2019년 이후의 자료는 “2022 KMI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제2부 수산(자료집)” 및 KMI 자체 집계 추정치임

- 2018년 이후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던 수출은 2021년부터 상승하면서, 2022년은 전년보다 5.7% 증가한 135만 톤이었음
- 2022년 수산물 수입은 전년보다 8.0% 하락한 266만 톤이었음

<표 3-11> 연도별 수산물 수급현황 추이

단위: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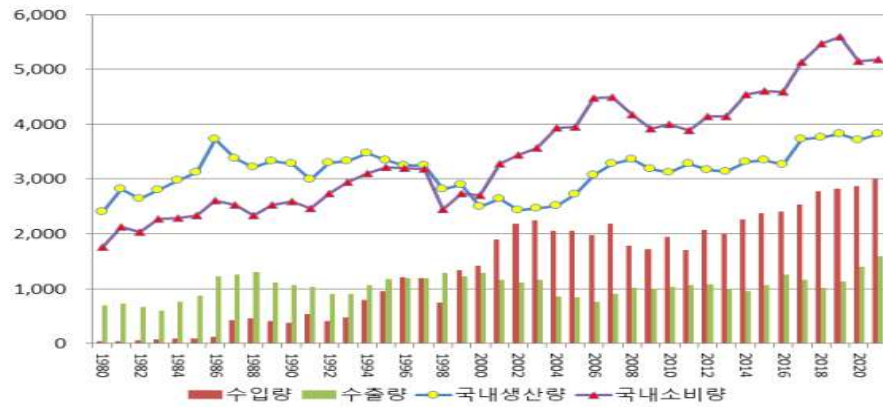
구분	공급			총 공급량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1990년	3,275	380	276	3,931	2,583	1,058	290	126.8
1995년	3,348	949	463	4,759	3,216	1,172	372	104.1
2000년	2,503	1,419	586	4,508	2,705	1,292	510	92.5
2005년	2,714	2,062	531	5,307	3,947	848	512	68.8
2010년	3,111	1,938	330	5,379	3,990	1,035	354	78.0
2015년	3,337	2,379	468	6,184	4,605	1,071	508	72.5
2016년	3,270	2,413	481	6,163	4,582	1,250	331	71.4
2017년	3,728	2,528	331	6,587	5,140	1,161	286	72.5
2018년(A)	3,760	2,781	265	6,806	5,461	1,023	323	68.9
2019년	3,861	2,831	323	7,014	5,640	1,132	242	68.5
2020년	3,713	2,761	242	6,716	5,383	1,059	274	69.0
2021년(B)	3,832	2,894	274	7,000	5,397	1,276	328	71.0
2022년(C)	3,604	2,663	328	6,540	4,918	1,349	273	73.3
전년대비 증감률(C/B)	-5.9	-8.0	19.7	-6.6	-8.9	5.7	-16.8	-
2018년 대비 증감률(C/A)	-4.1	-4.2	23.8	-3.9	-9.9	31.9	-15.5	-

주: 1) 수출입은 원어 환산량이며, 소금은 제외하고 집계함
 2) 자급률은 국내생산량 / 국내소비량 × 100(%)으로 계산함
 3) 2022년 수급은 KMI가 자체 집계한 추정치로, 향후 확정치 공표 시 수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1) 1990~2021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2) 2022년은 KMI 자체 추정치(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 (www.kati.net);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재고동향.)

- 2022년 수산물 총 공급량은 전년 대비 6.6% 감소한 654만 톤이었으며, 자급률은 전년 대비 2.3%p 증가한 73.3%였음
- 2018~2022년 수산물 공급량은 3.9% 감소하였으며, 수산물의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은 각각 4.1%, 4.2% 감소하였음

<그림 3-2> 수산물 수급(생산-소비-수출입) 추이

단위: 천 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및 연구진 추정치

- 2022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 추정량은 2021년 68.4kg에서 감소한 63.2kg으로 추정됨
- 2022년 수산물 자급률은 전년보다 1.5%p 증가한 72.5%로 추정됨²⁰⁾
 - 수산물 자급률은 2000대 초 90% 이상이었으나 2010년에 78.0% 기록한 이후 한 동안 70%대를 유지했음. 그러나 2018년~2020년 60% 후반대로 하락했으며 2021년 다시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표 3-12> 연간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및 자급률 동향

단위: kg, %

연도	수산물 소비량	수산물 자급률	연도	수산물 소비량	수산물 자급률
2000년	36.7	92.5	2018년	68.4	68.9
2005년	49.5	68.8	2019년	70.2	68.5
2010년	51.2	78.0	2020년	67.8	69.0
2015년	57.1	72.5	2021년	68.4	71.0
2016년	57.4	71.4	2022년(p)	63.2	72.5
2017년	65.9	72.5			

주: 수산물 소비량은 수산물 순식용공급량임
 자료: 1) 2000~2021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2) 2022년은 KMI 자체 추정치임

20) 2020, 2021년 수급은 KMI가 자체 집계한 추정치로, 향후 확정치 공표 시 수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022년 주요 품종별(10개)²¹⁾의 수급 현황은 <표 3-13>와 같음
 - 갈치: 2022년 갈치 자급률은 88.1%로, 국내 생산은 2021년 대비 14.4% 감소했으며, 소비도 2021년 대비 16.3% 감소함
 - 고등어: 2022년 국내소비량은 2021년 대비 생산과 수입이 각각 9.2%, 5.0% 감소했으며, 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2.8% 감소했음. 2022년 자급률은 116.8%를 기록, 2021년 대비 상승함²²⁾
 - 명태: 원양산 생산과 수입이 대부분인 명태의 자급률은 6.1%로 국내 소비는 2021년과 거의 비슷했으나, 원양 명태 생산은 2021년 대비 26.5% 감소했음
 - 오징어: 오징어 생산량은 최근 5년간 실적은 2021년을 제외하고는 연간 10만 톤 이하로 생산이 저조했으나 수입량은 연간 25만 톤 전후를 기록하고 있음. 2022년에는 생산 8만 4,706톤, 수입 253,053톤 등으로 자급률은 25.4%를 기록했음
 - 조기: 최근 생산 증가세를 보이던 조기는 2022년 4만 1,039톤으로 정점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3만 1,562톤, 2022년에는 16,400톤까지 감소했음. 수입량은 2018년 2만 7,798톤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에는 1만 9,125톤까지 하락했음. 2022년 기준 조기류 자급률은 45.5%로 전년 대비 감소했음
 - 마른멸치: 2022년 생산이 전년 대비 18.0% 감소했으며, 소비도 비슷한 비율로 감소했음. 자급률은 2018년 이후 100%를 상회하고 있음
 - 넙치: 매년 100% 이상의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생산과 소비는 2021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음
 - 전복: 국내 생산은 다소 감소했으나 수입이 증가하면서 총공급량은 작년대비 소폭 감소했음. 다만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급률은 작년과 비슷한 101.9%였음
 - 굴: 생산이 소폭 감소했으나, 수출 또한 줄면서 총공급량은 전년과 비슷했음. 자급률 또한 전년과 비슷한 171.5%를 기록했으며 굴 자급률은 매년 100%를 상회하고 있음
 - 김 : 국외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증가로 국내 소비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자급률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200% 이상을 기록했음

21) 주요 품종은 대중성품종 6개종과 넙치, 전복, 굴, 김을 포함

22) 고등어 수치는 망치고등어를 제외한 값임

<표 3-13> 최근 5개년 조사대상 9개 품종의 수급 현황

단위: 톤, %

구분	연도	공급			총공급량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갈치	2018년	49,451	17,722	19,692	86,865	67,816	1,758	17,291	73.0
	2019년	43,478	15,659	17,291	76,428	62,207	3,743	10,478	69.8
	2020년	65,719	19,303	10,478	95,500	78,542	2,797	14,161	83.7
	2021년	63,055	15,523	14,161	92,739	73,198	3,007	16,534	86.1
	2022년	53,999	13,095	16,534	83,628	61,282	5,573	16,773	88.1
고등어	2018년	142,205	42,188	50,309	234,702	94,099	71,881	68,722	151.1
	2019년	101,372	43,092	68,722	213,186	118,350	45,180	49,656	85.7
	2020년	77,850	47,095	49,656	174,601	101,494	37,004	36,103	76.7
	2021년	122,401	54,700	36,100	213,201	109,165	34,592	69,444	112.1
	2022년	111,181	51,962	69,880	233,023	95,160	76,020	61,842	116.8
명태	2018년	23,773	414,650	99,399	537,822	419,844	13,635	104,343	5.9
	2019년	24,511	326,173	104,343	455,027	371,932	15,149	67,946	6.6
	2020년	24,206	353,487	67,946	445,639	350,685	7,711	87,243	6.9
	2021년	28,314	491,045	87,243	606,602	344,035	156,350	106,217	8.2
	2022년	20,821	530,517	106,217	657,555	343,873	224,281	89,401	6.1
오징어	2018년	81,348	243,944	37,566	362,858	309,729	9,358	43,771	26.3
	2019년	72,357	239,706	43,771	355,834	305,338	10,191	40,305	23.7
	2020년	93,529	275,836	40,305	409,670	323,758	9,722	76,190	28.9
	2021년	134,747	251,909	76,190	462,846	362,264	25,415	75,167	37.2
	2022년	84,706	253,053	75,167	412,926	333,704	19,030	60,192	25.4
조기	2018년	23,274	27,798	15,739	66,811	51,709	89	15,013	45.0
	2019년	25,741	27,459	15,013	68,213	49,287	128	18,798	52.2
	2020년	41,039	21,173	18,798	81,010	63,570	198	17,242	64.6
	2021년	31,562	23,168	17,242	71,972	56,194	236	15,542	56.2
	2022년	16,400	19,125	15,542	51,067	36,010	759	14,298	45.5
마른멸치	2018년	48,589	178	1,428	50,195	46,533	1,342	2,320	104.4
	2019년	34,382	160	2,320	36,862	33,958	881	2,023	101.2
	2020년	42,619	51	2,023	44,693	40,940	786	2,967	104.1
	2021년	32,006	41	2,547	34,594	32,376	778	1,440	98.9
	2022년	26,251	16	1,440	27,707	24,798	927	1,982	105.9

구분		공급			총공급량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넙치	2018년	37,241	362	-	37,603	35,128	2,475	-	106.0
	2019년	43,360	554	-	43,914	41,213	2,701	-	105.2
	2020년	43,813	529	-	44,342	42,109	2,233	-	104.0
	2021년	41,776	614	-	42,390	40,533	1,857	-	103.1
	2022년	45,884	449	-	46,333	44,094	2,239	-	104.1
전복	2018년	20,053	1,462	-	21,515	18,916	2,599	-	106.0
	2019년	18,436	1,976	-	20,412	18,034	2,378	-	102.2
	2020년	20,059	2,304	-	22,363	20,331	2,032	-	98.7
	2021년	23,199	1,793	-	24,992	22,761	2,231	-	101.9
	2022년	22,078	2,267	-	24,345	21,670	2,675	-	101.9
굴	2018년	303,183	719	-	303,902	178,274	125,629	-	170.1
	2019년	326,190	754	-	326,944	193,434	133,510	-	168.6
	2020년	300,084	494	-	300,578	183,061	117,517	-	163.9
	2021년	305,914	115	-	306,029	178,144	127,885	-	171.7
	2022년	300,692	515	-	301,207	175,376	125,831	-	171.5
김	2018년	567,162	396	-	567,558	346,584	220,974	-	163.6
	2019년	605,767	321	-	606,088	336,604	269,484	-	180.0
	2020년	536,127	375	-	536,502	286,940	249,562	-	186.8
	2021년	547,413	855	-	548,268	252,828	295,440	-	216.5
	2022년	550,221	970	-	551,191	246,507	304,684	-	2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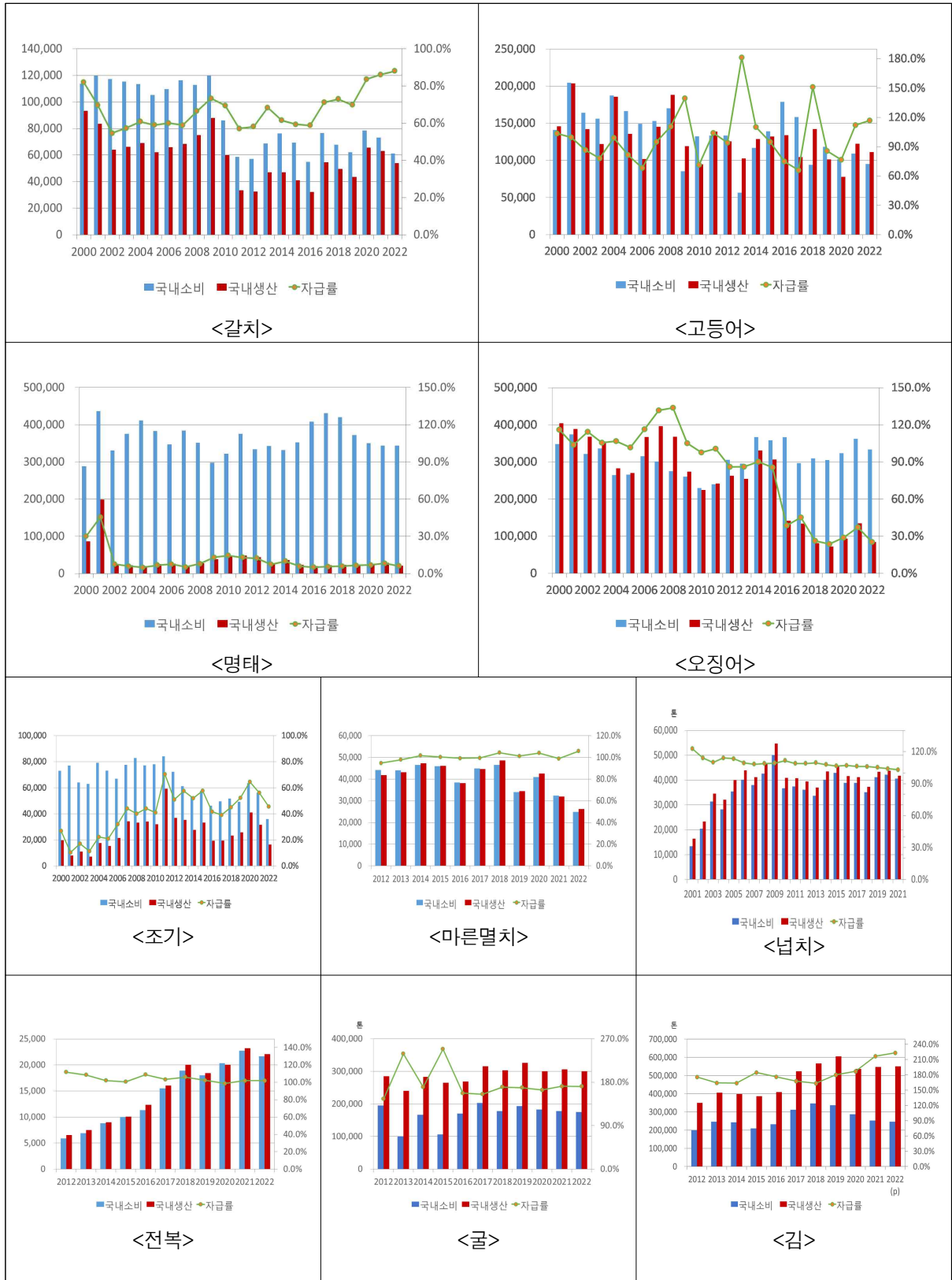
주1 : 넙치·전복·굴·김 생산량은 해면양식업 한정임

주2 : 수입·수출은 식품수급표 기준임. 단, 넙치의 경우 활어에 한정함

주3 : 넙치·전복·굴·김은 양성물량 및 활어의 재고 판단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수급에서 이입과 이월을 제외함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그림 3-3> 조사대상 9개 품종의 수급 및 자급률 추이



주: 마른멸치, 전복, 굴의 수출입 통계는 HS Code 범위가 세분화된 2012년부터 집계함
 자료: 품종별 생산, 수출입, 재고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제2절 수산물 유통산업 구조

1. 주요 수산물 유통경로 현황

가. 어업별 수산물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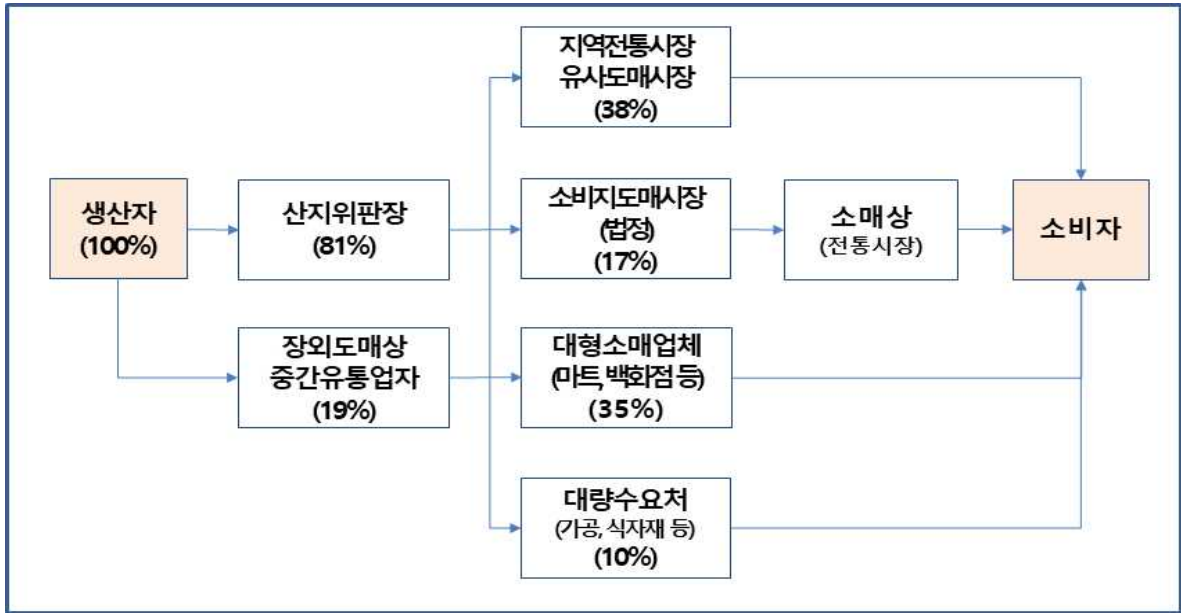
- 2022년에는 ‘코로나19’의 마스크 의무 해제 등으로 완화되면서 비대면에서 대면 거래로 전환되어 소비가 점차 회복세를 보였음
 - 2022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등에 따라 수산물 소비패턴은 전년보다 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였음
 - ‘코로나19’가 지속된 가운데 대면 거래로 급전환되지 않았지만, 전년보다는 대면 거래가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2022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전통시장보다 대형소매점 및 대량 수요처에서 유통 비중이 다소 증가했음
 - 이에 대형소매점, 슈퍼마켓 등을 비롯한 대량 수요처 등의 소비가 늘면서 전년도에 비해 유통 비중이 다소 증가했음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비대면 소비는 소폭 줄어든 반면 전통시장 등 대면 거래가 전년도에 비해 늘었음
 -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2022년에는 대면 위주 소비로 바뀌면서 이들 소비처에서의 유통 비중에 변화가 있었음

1) 일반해면어업 수산물 유통경로

- (산지 유통) 2022년 일반해면어업 수산물 중 산지수협 위판장을 경유하여 소비지법정(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도매시장,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냉동냉장창고, 식자재업체 등 대량수요처로 유통되는 비중은 약 81%로 전년 대비 2%포인트 감소했음. 그리고 장외도매상(벤더, 중간유통업자 등)을 통해 유통되는 비중은 19%로 전년보다 증가했음
 - 산지수협 위판장을 통해 유통된 비중(계통출하 비중)은 '21년 83%에 비해 2%포인트 감소했음

- 산지수협 위판장에서 거래된 수산물 중 가장 많이 유통된 경로는 지역전통시장, 유사도매시장 등임
-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었던 오프라인 방식의 소비 심리가 다소 완화되면서 해당 경로 이외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경로의 유통 비중은 오히려 '21년 43%에서 줄어 '22년 약 38%로 추정됨
- 산지위판장을 경유한 수산물(수입산 제외) 중 법정(공영)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비중은 19% 수준으로 '21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3-4> 연근해산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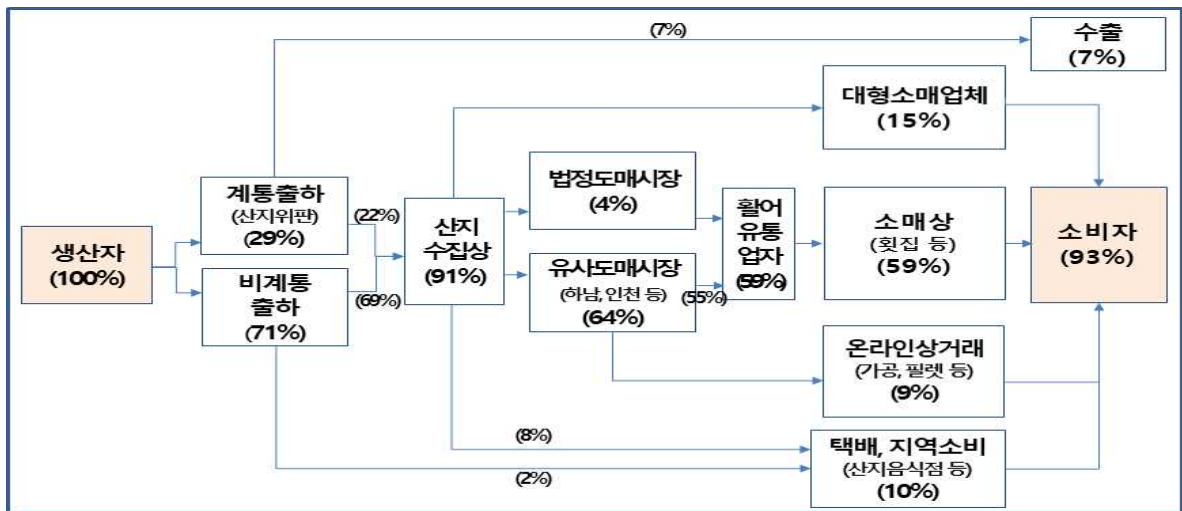
주: 산지 계통출하 및 소비지 도매시장 취급 비중은 공식통계(어업생산동향조사, 도매시장 통계연보)를 참조하였으며, 기타 유통경로상의 비중은 유통업계 면담조사 결과를 참조한 추정치임

- 2000년대 이후 대형유통업체 거래 증가로 대부분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 2021년에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거래량이 많았으나, 전통시장 거래가 다소 회복되면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음. 그러나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다시 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전년보다 증가한 35%로 추정됨
- 대량수요처(가공, 식자재 등)에서는 급식 수요 등이 전년보다 회복되면서 높은 수준을 보였음. 대면 수업 등이 전면 재개되면서 유통 비중은 '21년(6%) 대비 증가한 약 10%로 추정됨

2) 양식산 수산물 유통경로

- 양식수산물은 전통적으로 유통경로 다양화 및 재고관리 등의 문제로 계통출하 비중이 낮고 대부분 활어 중심으로 거래됨에 따라 계통출하 비중이 낮은 편임. 22년 계통출하 비중은 29%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음
 - 양식 활어: 계통 비중 약 29%²³⁾ 정도임(양식어류만 적용)
 - 양식 해조류: 김을 제외한 다시마, 미역의 경우 전복 먹이용의 비중이 높아 계통출하 비중 매우 낮음
 - 양식 패류: 굴, 홍합, 바지락, 전복 등이 대표적이거나 비계통 출하 비중이 높음
- 양식수산물은 품종에 따라 유통경로가 다양하여 비계통 출하 이후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함. 이에 국내 대표 양식품목인 넙치, 전복을 대상으로 생산자, 수집상 등의 면접조사를 통해 유통경로를 파악함

<그림 3-5> 양식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활어 중심)



주: 산지 계통출하 및 소비자 도매시장 취급 비중은 공식통계(어업생산동향조사, 도매시장 통계연보)를 참조하였으며, 기타 유통경로상의 비중은 유통업계 면담조사 결과를 참조한 추정치임

- 산지수집상을 거친 물량 중 법정(공영) 소비지도매시장으로의 유통 비중은 4%로 전년과 비슷했으며, 그 외 64% 정도는 인천, 하남, 부산(민락동) 등과 같은 비제도권(유사) 도매시장으로 유통됨²⁴⁾

23) 이 계통비중도 산지수협 위판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거래보고만을 하는 것으로 제주해수어류양식의 넙치가 대표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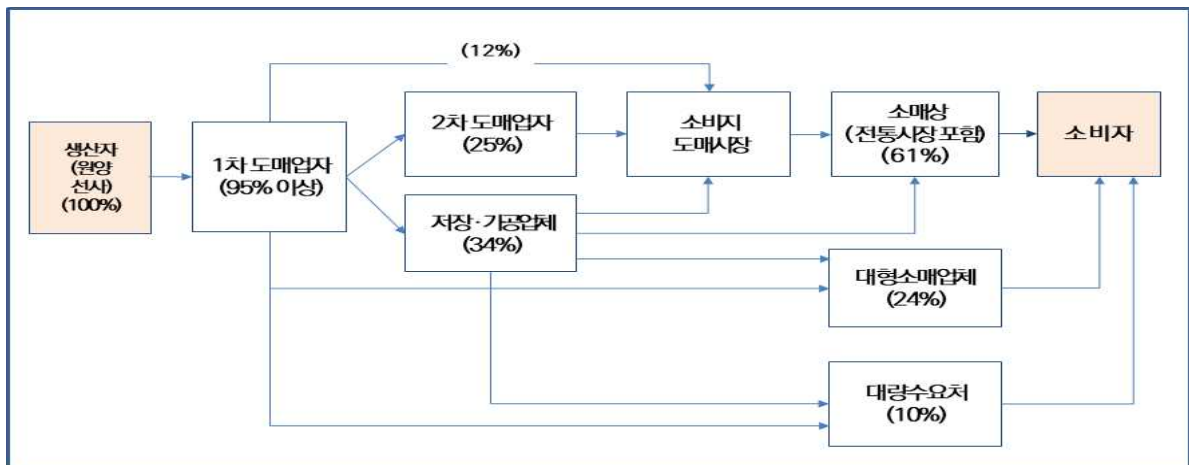
24) 수산업관측센터, 활어양식업자 의견 조취

- '코로나19' 이후 유통수산물도 비대면 거래방식, 특히 온라인을 통한 택배, 배달 거래가 증가했으나, 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비대면 소비는 다소 줄어든 반면 대면 소비처 비중은 늘었음
- 유통집 등 소매상을 통한 양식수산물 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3%포인트 증가한 59%였으며, 대형소매업체도 전년 대비 2%포인트 증가한 15%로 조사되었음
- 반면, 가공제품 및 필렛 등 온라인 상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약 3%포인트 감소한 9%였으며, 택배(지역소비 포함) 거래 비중도 10%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음

3) 원양산 수산물 유통경로

- 원양산 수산물의 유통경로별 비중은 대체로 전년과 유사했으나, 대형소매점 및 대량 수요처 등의 거래가 소폭 증가했음
- 1차 도매업자 거래물량 비중은 전년 수준으로 95% 이상을 차지함
- 1차 도매업자 이후 소비지도매시장(법정)으로 가는 물량은 12% 정도임. 1차 도매업자를 거쳐 2차 도매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물량이 전체의 25% 정도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음
- 저장·가공업체로 유통되는 비중은 34% 정도로 가장 컸지만, 전년보다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대형소매업체로 공급되는 물량은 전체 유통량의 24%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3-6> 원양산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



주: 원양산 수산물 유통경로상의 비중은 원양선사, 유통업계 면담조사 결과를 반영한 추정치임

나. 유통단계별 수산물 거래동향

1) 산지시장(산지 수협 중심)

- 2022년 전체 수산물 생산량 중 계통출하 비중은 41.0%였으며, 어업별 계통출하(수협 위판장) 비중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표 3-14> 수산물 계통 출하율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일반해면어업(A)		양식어업(B)		일반해면·양식어업(A+B)		수산업 전체	
	생산량	계통출하율	생산량	계통출하율	생산량	계통출하율	생산량	계통출하율
2000년	1,189	86.8	653	46.8	1,842	72.6	2,514	53.2
2005년	1,097	82.8	1,041	26.2	2,138	55.3	2,714	43.5
2010년	1,133	81.2	1,355	27.1	2,488	51.7	3,111	41.4
2011년(A)	1,235	83.8	1,478	30.7	2,713	54.9	3,256	45.7
2012년	1,091	85.7	1,489	35.9	2,580	57.0	3,183	46.2
2013년	1,045	87.9	1,515	35.0	2,560	56.6	3,135	46.2
2014년	1,059	86.1	1,547	39.0	2,605	58.1	3,304	45.8
2015년	1,058	87.0	1,668	35.7	2,726	55.6	3,337	45.4
2016년	908	87.3	1,872	33.7	2,780	51.2	3,269	43.5
2017년	927	87.3	2,316	28.8	3,243	45.5	3,725	39.6
2018년	1,012	81.9	2,250	34.7	3,261	49.3	3,770	42.7
2019년	912	80.2	2,410	33.4	3,322	46.2	3,861	39.8
2020년	934	82.5	2,308	31.2	3,242	45.9	3,713	40.1
2021년	943	82.4	2,401	32.0	3,344	46.2	3,832	40.3
2022년(B)	887	81.0	2,268	33.4	3,155	46.8	3,604	41.0
5개년 평균	937	81.6	2,327	32.9	3,265	46.9	3,756	40.8
전년대비 증감률	-5.9	-1.7	-5.6	4.3	-5.6	1.2	-6.0	1.5
평년대비 증감률	-6.2	-1.8	7.6	-0.9	5.5	-3.0	4.5	-1.9
연평균증감률(B/A)	-3.0	0.1	5.3	1.5	2.7	-1.0	1.9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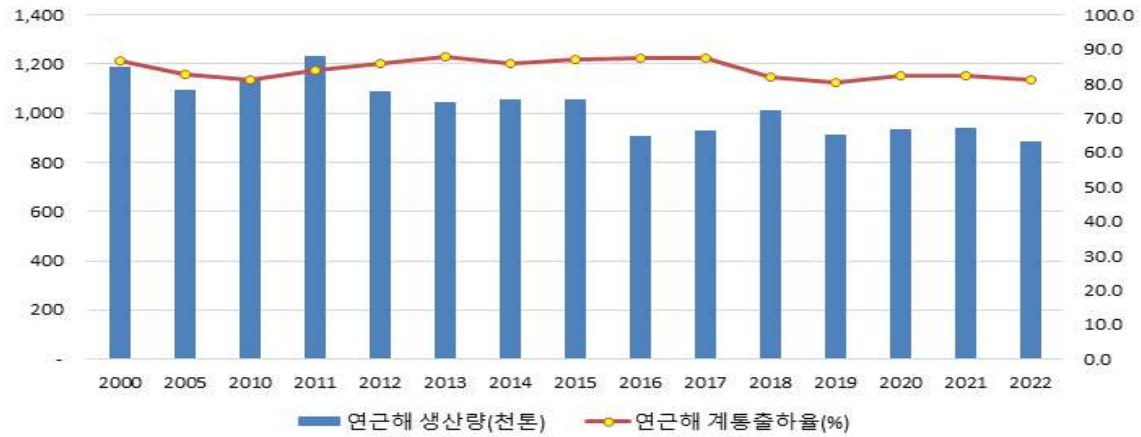
주: 1) 5개년 평균은 2018~2022년 평균, 평년은 2017~2021년 평균을 의미함

2) 수산물 전체는 일반해면어업, 양식어업과 더불어 비계통출하 비중이 높은 원양어업 및 내수면어업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국내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2021년 소폭 증가했음. 그러나, 2022년에는 다시 감소해 계통 출하율 역시 전년보다 줄었음
 - 2022년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88만 7천 톤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6.2% 적었음

- 연근해 수산물의 계통 출하율은 81.0%로 전년에 비해 1.7% 감소했으며, 평년보다 1.8%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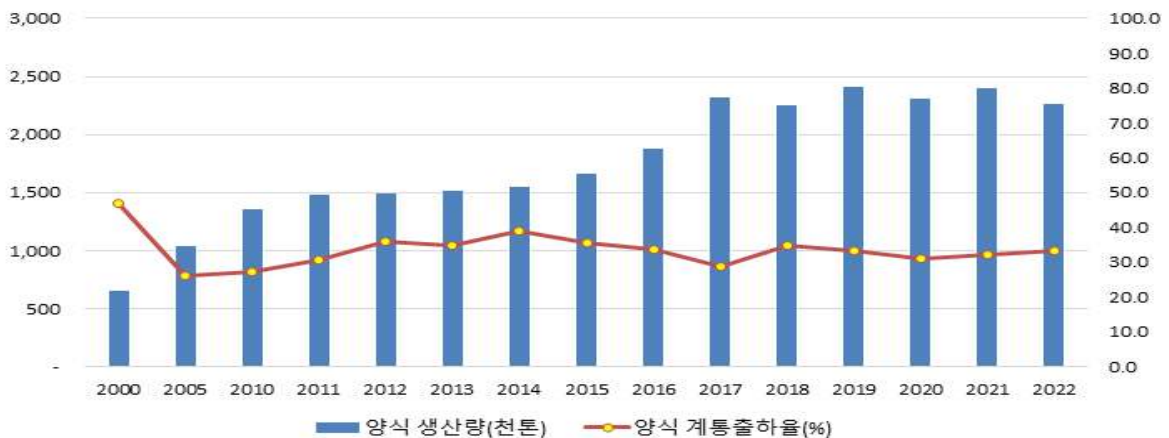
<그림 3-7> 연근해 수산물 생산 및 계통출하율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양식수산물 생산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2년에는 감소했음. 대부분 품종이 비계통 출하로 거래되며, 2021년 계통 출하율은 33.4% 수준임
 - 양식수산물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전년대비 5.6% 감소한 226만 8천 톤을 기록했음
 - 김, 굴 등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비계통 출하가 이루어지는 양식수산물의 계통 출하율은 2021년 33.4%에서 2022년에는 32.0%로 낮아졌음

<그림 3-8> 양식산 수산물 생산 및 계통출하율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기준으로 수산물을 취급하는 전국 위판장 및 공판장 수는 총 227개소로 파악됨. 지역별로는 경남이 54개소로 가장 많고, 전남 52개소, 강원 28개소, 충남 25개소, 경북 21개소 순임

<표 3-15> 지역별 위·공판장 현황(2022년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합계	위판장				공판장수	
		소계 (비중)	중앙회	조합	기타	중앙회	조합
합계	227	215 (100)	1	212	2	9	5
경인	10	8 (3.7)	1	7	0	2	1
서울	2	0 (0.0)	0	0	0	2	2
부산	14	10 (4.7)	0	9	1	2	0
대구	-	-	-	-	-	-	-
광주	-	-	-	-	-	-	-
울산	4	2 (0.9)	0	2	0	1	0
강원	28	28 (13.0)	0	28	0	0	0
충남	25	25 (11.6)	0	24	1	0	0
전북	7	6 (2.8)	0	6	0	1	1
전남	52	51 (23.7)	0	51	0	1	1
경북	21	21 (9.8)	0	21	0	0	0
경남	54	54 (25.1)	0	54	0	0	0
제주	10	10 (4.7)	0	10	0	0	0

자료: 수협중앙회 내부자료(2023년 8월 제공)

- 2022년 지역별 수협 계통판매 통계를 보면, 위판물량 비중은 전남이 전년에 이어 여전히 46.9%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는 부산(13.9%), 경남(12.1%), 경북(6.2%), 충남(5.8%), 제주(5.7%) 등의 순이었으며, 위판금액은 전남(34.1%), 제주(16.3%), 경남(15.3%), 경북(7.7%), 부산(6.3%) 등의 순이었음

<표 3-16> 수협계통판매 지역별 현황(2022년 기준)

구분	지역	위판물량(톤)		위판금액(백만 원)	
			비중		비중
1	전남	573,903	46.9	1,562,738	34.1
2	제주	69,903	5.7	746,463	16.3
3	경남	148,624	12.1	698,596	15.3
4	경북	76,101	6.2	353,837	7.7
5	충남	70,634	5.8	335,840	7.3
6	부산	169,673	13.9	286,961	6.3
7	강원	37,985	3.1	213,279	4.7
8	전북	43,257	3.5	203,027	4.4
9	경인	34,290	2.8	180,661	3.9
총계		1,224,370	100.0	4,581,402	100.0

주: 수산정보포털의 계통판매통계정보에는 지역별 수산물 계통 판매고 정보를 제공함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www.fips.go.kr/p/Main/>)

- 2022년 수협 회원조합별 위판실적을 보면, 2,000억 원에 해당하는 회원조합은 전년에 이어 민물장어양식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이 차지했음. 다음으로 1,500~1,999억 원에 해당하는 조합은 전년보다 2개소 감소한 여수, 목포, 고흥, 부산 등 4개소임
- 2021년에는 500~999억 원 미만 위판실적을 기록한 조합은 삼천포를 포함해 16개소였으나, 2022년에는 성산포, 한림 수협 등의 위판실적 감소로 19개소로 늘었음

<표 3-17>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위판실적 규모(2022년 기준)

구분	회원조합명
2,000억 원 이상	제주어류양식, 민물장어양식
1,500~1,999억 원	여수, 목포, 고흥군, 부산시
1,000~1,499억 원	한림, 신안군, 진도군, 통영, 고창군, 서귀포, 굴수하식
500~999억 원	성산포, 삼천포, 완도금일, 멸치권현망, 보령, 서산, 군산시, 구룡포, 서남해수어류양식, 후포, 인천, 웅진, 포항, 제주시, 해남군, 영광군, 울산, 죽변, 서천서부
200~499억 원	서천군, 강원고성군, 남해군, 모슬포, 마산, 하동군, 장흥군, 강릉시, 제1-2구잡수기, 경기남부, 거제, 속초시, 경주시, 완도소안, 강구, 대천서부, 안면도, 나로도, 삼척, 동해시, 옥지, 전남서부어류양식
100~199억 원	죽왕, 부경신항, 거문도, 영덕북부, 강진군, 양양군, 근해통발, 영흥, 울릉군
100억 원 미만	경남고성군, 기장, 진해, 원덕, 대포, 멩계수하식, 태안남부, 경남정치망, 제3-4구잡수기, 추자도, 부안, 경인북부, 사천, 패류살포양식

자료: 수협중앙회 내부자료(2023년 5월 제공)

2) 소비지시장(소비지 공영도매시장)

- 2021년에도 전년과 동일한 총 49개소의 도매시장이 전국에서 운영 중이며, 세부적으로는 공영도매시장 33개소, 일반법정도매시장 13개소, 민영도매시장 3개소로 구성됨²⁵⁾

<표 3-18> 전국 도매시장 현황(2021년 기준)

구분	시장명	
공영 (33개소)	중앙(10개소)	서울가락농수산물, 부산염공농산물, 부산국제수산물, 대구북부농수산물, 인천남촌농산물, 인천삼산농산물, 광주각화농산물, 대전오정농수산물, 대전노은농수산물, 울산농수산물
	지방(23개소)	서울강서농산물, 부산반여농산물, 광주서부농수산물, 수원농수산물, 안양농수산물, 안산농수산물, 구리농수산물, 춘천농수산물, 원주농수산물, 강릉농산물, 청주농수산물, 충주농수산물, 천안농수산물, 전주농수산물, 익산농수산물, 정읍농산물, 순천농산물, 포항농산물, 안동농수산물, 구미농산물, 창원팔용농산물, 창원내서농산물, 진주농산물
일반법정 (13개소)	중앙(1개소)	서울노량진수산물
	지방(12개소)	서울양재양곡, 대구축산, 대구한약재, 인천가좌축산물, 광주축산, 목포농산물, 여수농산물, 포항수산물, 경주농산물, 김천농산물, 영천농산물, 영천약초
민영(3개소)	상주민영농산물, 안양민영축산물, 영주민영농산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1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22. 10

- 2021년 기준 전국의 도매시장의 법인은 총 119개소로, 도매시장 법인 121개소, 시장도매인 70개소로 집계됨
 - 이 중 수산물 취급 도매시장 법인은 전년과 동일한 27개소로, 공영 도매시장 법인 25개소, 일반법정도매시장 법인 2개소였음
 - 그리고 수산물 취급 시장도매인은 3개소로 모두 공영도매시장이었음

25) 공영도매시장은 농수산물 도매거래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공투자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시장임. 일반법정도매시장은 민간 투자로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시장이며, 민영도매시장은 민간인 등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시장을 말함

<표 3-19> 전국 도매시장 법인 및 시장도매인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구분	법인 소계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청과	수산	축산	양곡	약용	소계	청과	수산	약용	소계
계	191	89	27	4	-	1	121	60	9	1	70
공영도매시장	176	82	25	-	-	-	107	60	9	-	69
일반법정도매시장	11	5	2	3	-	1	11	-	-	1	1
민영도매시장	3	2	-	1	-	-	3	-	-	-	-

주: 공영도매시장 법인 수는 법인과 공판장 수의 합계임. 청과82개소(법인49, 공판장33), 수산25개소(법인17, 공판장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1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22. 10

- 2021년 기준 전국 도매시장 중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매시장은 총 19개소로, 2020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2021년 기준, 수산물 취급 도매시장의 거래물량 순위를 살펴보면,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전체의 3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26.6%, 서울 노량진수산물시장 17.3%,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7.6% 등의 순이었음
 - 거래금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가락시장은 3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노량진수산물시장 21.6%,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16.8% 순이었음
 - 전년에 비해 서울 가락시장 거래물량은 줄어든 반면 금액 비중은 늘었음.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비중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음

<표 3-20> 수산물 취급 도매시장 현황(2021년 기준)

단위: 톤, 백만 원, %

도매시장	거래 물량	거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비중	금액	비중		
공영	서울 가락	89,910	26.6	528,175	35.1	강동수산, 서울건해산물, 수협가락(공)
	부산 국제	115,434	34.1	253,616	16.8	부산감천항수산, 삼성아이에프엠, 부산수산물(공), 부산수협 감천(공)
	구리시	13,519	4.0	114,890	7.6	강북수산, 수협구리(공)
	대구 북부	3,400	1.0	34,826	2.3	대구수산, 대구종합수산, 대구신화수산, 매천수산
	안양시	3,889	1.1	30,000	2.0	안양평촌수산
	광주 서부	2,153	0.6	23,855	1.6	수협광주(공)
	울산시	7,963	2.4	28,683	1.9	울산중앙수산, 울산건해산물, 울산수협(공)
	대전 오정	4,094	1.2	25,330	1.7	한밭수산
	대전 노은	6,131	1.8	45,313	3.0	대전노은진영수산
	수원시	3,211	0.9	18,248	1.2	수원수산시장, 남부수협(공)
	안산시	25,682	7.6	126,580	8.4	안산수산
	안동시	1,048	0.3	6,477	0.4	안동수산시장
	전주시	362	0.1	2,035	0.1	전주수산시장, 수협전주(공)
	익산시	833	0.2	7,650	0.5	이리수산시장
	일반 법정	서울 노량진	58,655	17.3	325,232	21.6
포항시		4,813	1.4	10,138	0.7	신포항수산
합계		345,175	100	1,608,737	1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1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22. 10

- 도매시장 거래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거래물량 규모는 감소세이며, 수산부류 역시 2016년 이후 감소세에 있음
 - 최근 5년간 평균 도매시장의 농축수산물 거래물량은 732만 톤, 거래금액은 14조 3,071억 원이었으며,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 증가함
 - 2021년 수산부류 거래물량은 34만 톤, 거래금액은 1조 6,087억 원임. 도매시장 전체 거래 실적에서 수산부류의 비중은 물량 기준으로는 4.8%, 금액 기준으로는 10.3%를 차지함
 - 수산부류 거래물량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7.3% 증가했음. 그러나 평년 대비 여전히 8.2% 적었음. 반면, 거래금액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1%, 4.7% 많았음

- 도매시장 거래물량의 감소 원인으로서는 택배 거래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통경로 등이 다양화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수산물의 경우에는 일부 수입 수산물 거래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표 3-21> 도매시장 전체 및 수산부류 거래실적

단위: 천 톤, 억 원, %

구분	도매시장 총괄		수산부류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비중
				비중	비중	
2000년	6,130	61,549	409	6.7	9,019	14.7
2005년	6,628	85,203	357	5.4	10,187	12.0
2010년	6,873	123,196	395	5.7	13,657	11.1
2011년	7,095	116,224	422	5.9	14,504	12.5
2012년	7,124	125,386	429	6.0	13,935	11.1
2013년	7,467	129,456	393	5.3	13,261	10.2
2014년	7,813	122,940	398	5.1	14,269	11.6
2015년	7,716	131,686	410	5.3	14,058	10.7
2016년	7,630	139,362	414	5.4	14,731	10.6
2017년	7,587	137,402	400	5.3	16,007	11.6
2018년	7,393	138,786	384	5.2	15,414	11.1
2019년	7,454	134,259	338	4.5	15,054	11.2
2020년	7,135	148,682	317	4.4	15,604	10.5
2021년	7,042	156,224	340	4.8	16,087	10.3
5개년 평균	7,322	143,071	356	4.9	15,633	11.0
전년 대비 증감	-1.3	5.1	7.3	8.7	3.1	-1.9
평년 대비 증감	-5.3	11.8	-8.2	-2.9	4.7	-6.4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각 연도.

- 2021년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수입수산물 거래량은 15만 9,849톤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으며, 거래금액 역시 4.1% 증가한 5,895억 원이었음
 - 수입 수산물 거래량 및 거래금액 증가는 국내 수산물 생산량 감소 및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외식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최근 5년 평균 거래량은 16만 8,402톤이었으며 거래금액은 5,804억 원이었음

<표 3-22> 도매시장 수입수산물 거래 실적

단위: 톤, 백만 원, %

구분	계(A+B)		공영도매시장(A)		일반법정도매시장(B)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00년	70,168	167,205	55,269	118,702	14,899	48,503
2005년	103,983	301,957	67,663	177,825	36,320	124,132
2010년	145,543	466,563	118,533	358,829	27,010	107,734
2011년	171,905	479,473	147,749	376,315	24,156	103,158
2012년	201,703	520,804	175,622	424,523	26,081	96,281
2013년	154,002	438,597	128,830	336,797	25,172	101,800
2014년	146,176	453,015	118,838	340,795	27,338	112,220
2015년	169,615	516,919	141,293	395,488	28,322	121,431
2016년	206,206	575,333	184,820	470,196	21,386	105,137
2017년	198,119	575,580	180,705	471,110	17,414	104,470
2018년	191,057	594,031	174,646	484,550	16,411	109,481
2019년	150,788	576,552	134,250	457,903	16,538	118,649
2020년	142,195	566,507	127,163	448,769	15,032	117,738
2021년	159,849	589,464	145,239	480,765	14,610	117,699
5개년 평균	168,402	580,427	152,401	468,619	16,001	113,607
전년 대비 증감	12.4	4.1	14.2	7.1	-2.8	0.0
평년 대비 증감	-10.0	2.1	-9.4	3.1	-15.8	5.9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각 연도.

- 도매시장의 출하선별 수산물 유통 실적은 전년과 동일한 패턴의 생산자 개인출하가 가장 많고, 생산자 공동출하가 가장 적었음
 - 2021년 기준 도매시장 출하선은 생산자 개인출하의 경우 5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산지 유통인출하가 35.7%, 수협 계통출하 8.7% 순이었음
 - 생산자 개인출하 물량은 전년 대비 14.7% 증가하였으며, 산지유통인 출하는 9.1% 감소함

<표 3-23> 도매시장 출하선별 출하물량

단위: 톤, %

구분	합계	생산자 개인출하	생산자 공동출하	수협 계통출하	산지 유통인출하	기타 출하
2010년	394,568	258,505	4,398	2,088	123,616	5,961
(비중)	(100.0)	(65.5)	(1.1)	(0.5)	(31.3)	(1.5)
2011년	422,523	199,896	754	41,388	176,615	3,870
2012년	429,515	253,883	5,152	3,433	163,689	3,358
2013년	392,617	234,309	1,178	3,888	147,398	5,844
2014년	381,848	185,830	1,599	49,617	136,382	8,420
2015년	391,792	161,073	1,520	52,565	165,857	10,777
2016년	396,962	201,593	10,603	57,522	114,778	12,466
2017년	382,857	210,744	3,373	27,745	136,315	4,680
2018년	362,207	195,736	924	26,376	137,058	2,113
2019년	325,924	135,264	936	26,721	158,001	5,002
2020년	307,005	153,876	902	19,208	128,060	4,959
2021년	326,034	176,460	790	28,426	116,376	3,981
(비중)	(100.0)	(54.1)	(0.2)	(8.7)	(35.7)	(1.2)
5개년 평균	340,805	174,416	1,385	25,695	135,162	4,147
전년대비 증감	6.2	14.7	-12.4	48.0	-9.1	-19.7
평년대비 증감	-8.2	-1.7	-76.4	-9.8	-13.7	-31.9

주: 1)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2) 수협 계통출하는 산지위판장에서 경매를 거친 후 중도매인들이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경로이며, 산지 유통인 출하는 장외(비계통)시장의 산지유통인들이 출하하는 경로를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각 연도.

- 전국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실태를 거래금액 규모별로 보면, 취급 규모 ‘10억 원 이상’의 중도매인 비중은 2012년에 41.4%였으나, 2021년에는 45.0%로 증가했음
 - 그러나 수산부류의 경우 취급 규모 ‘10억 원 이상’의 중도매인은 2012년 23.5%였으나, 2021년에는 22.9%로 다소 감소했음
 - 2021년 기준 거래금액 규모별 수산부류 취급 규모는 ‘5~10억 원’의 중도매인 비중이 전체의 25.1%로 가장 많았음

<표 3-24> 최근 10년간 도매시장의 거래금액 규모별 중도매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2년				2021년			
	전체 도매시장	비중	수산	비중	전체 도매시장	비중	수산	비중
1억 원 미만	491	5.9	174	12.1	402	5.1	210	14.4
1~3억 원	976	11.7	263	18.2	696	8.9	281	19.3
3~5억 원	1,275	15.3	294	20.4	1,076	13.7	265	18.2
5~10억 원	2,132	25.6	372	25.8	2,136	27.2	365	25.1
10~20억 원	1,862	22.4	213	14.8	1,750	22.3	226	15.5
20~30억 원	788	9.5	73	5.1	583	7.4	50	3.4
30억 원 이상	794	9.5	53	3.7	1,200	15.3	57	3.9
총계	8,318	100.0	1,442	100.0	7,843	100.0	1,454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12년도 및 2021년도

2. 수산물 도소매업 현황

- 통계청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 국내 수산물(식품) 도소매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현황을 파악함
 - 2021년 기준 사업체수는 수산물 도매업의 경우 전년 대비 5.3% 감소한 21,908개소였으며,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도 전년 대비 16.6% 줄어든 2,114개소로 집계됨. 다만 소매업은 전년과 비슷한 25,694개소였음

<표 3-25> 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체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수산물(신선·단순가공)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신선·단순가공) 소매업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2011년	10,126	-	-	619	20,268	-	-
2012년	11,163	-	-	762	20,821	-	-
2013년	12,349	-	-	807	20,731	-	-
2014년	14,355	-	-	943	21,245	-	-
2015년	15,158	-	-	984	21,451	-	-
2016년	13,854	2,938	10,916	1,065	21,604	6,948	14,656
2017년	13,811	2,829	10,982	1,113	21,581	6,916	14,665
2018년	13,909	2,883	11,026	1,086	22,365	7,109	15,256
2019년	14,079	2,914	11,165	1,115	22,108	7,084	15,024
2020년	23,130	5,180	17,950	2,534	25,695	8,576	17,119
2021년	21,908	4,692	17,216	2,114	25,694	8,379	17,315

구분	수산물(신선·단순가공)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신선·단순가공) 소매업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전년대비 증감률	-5.3	-9.4	-4.1	-16.6	0.0	-2.3	1.1
평년대비 증감률	39.0	40.1	38.8	52.9	13.3	14.4	12.8

주: 1)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2)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통계에서는 2016년부터 수산물 도·소매업이 건어물 및 젓갈류(단순가공)/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제공됨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10차 개정

- 2021년 기준 종사자 수는 수산물 도매업의 경우 전년 대비 3.3% 줄어든 50,372명이었으며,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은 28.6% 감소한 7,348명이었음. 반면, 소매업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39,213명으로 집계됨

<표 3-26> 수산물 도소매업 종사자수 현황

단위: 명

구분	수산물(신선·단순가공)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신선·단순가공) 소매업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2011년	30,221	-	-	4,119	33,001	-	-
2012년	31,998	-	-	4,754	34,446	-	-
2013년	35,613	-	-	5,045	34,284	-	-
2014년	41,745	-	-	5,109	35,770	-	-
2015년	44,369	-	-	5,703	35,599	-	-
2016년	40,050	8,571	31,479	5,740	35,399	11,323	24,076
2017년	41,259	8,417	32,842	6,033	37,255	11,457	25,798
2018년	41,644	8,817	32,827	5,638	39,145	11,964	27,181
2019년	42,716	9,095	33,621	6,340	40,438	12,446	27,992
2020년	52,097	11,364	40,733	10,297	38,755	12,673	26,082
2021년	50,372	10,747	39,625	7,348	39,213	12,347	26,866
전년대비 증감률	-3.3	-5.4	-2.7	-28.6	1.2	-2.6	3.0
평년대비 증감률	15.7	16.1	15.5	7.9	2.7	3.1	2.4

주: 1)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2)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통계에서는 2016년부터 수산물 도·소매업이 건어물 및 젓갈류(단순가공)/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제공됨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10차 개정

- 2021년 매출액은 수산물 도매업의 경우 전년과 비슷한 32조 2,864억 원,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3조 5,822억 원, 소매업은 5조 7,713억 원으로 집계됨

<표 3-27> 수산물 도소매업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수산물(신선·단순가공)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신선·단순가공) 소매업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2011년	146,854	-	-	12,659	20,705	-	-
2012년	154,241	-	-	13,736	18,963	-	-
2013년	151,931	-	-	14,210	19,161	-	-
2014년	165,311	-	-	15,291	20,010	-	-
2015년	212,301	-	-	20,067	31,897	-	-
2016년	224,617	28,653	195,964	22,161	34,419	9,221	25,198
2017년	243,418	30,612	212,806	24,760	37,907	9,593	28,314
2018년	246,319	31,821	214,498	24,805	41,312	10,652	30,660
2019년	274,389	30,924	215,834	27,631	41,892	10,852	31,040
2020년	322,108	49,107	273,001	36,165	58,762	15,296	43,466
2021년	322,864	42,639	280,225	35,822	57,713	13,946	43,767
전년대비 증감률	0.2	-13.2	2.6	-0.9	-1.8	-8.8	0.7
평년대비 증감률	23.2	24.6	26.0	32.2	34.7	25.4	37.9

주: 1)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2)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통계에서는 2016년부터 수산물 도·소매업이 건어물 및 젓갈류(단순가공)/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제공됨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10차 개정

- 수산물 도소매업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수산물 도매업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억 원 미만인 사업체 비중은 59.6%를 차지했으며, 수산물 소매업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사업체 비중은 49.8%를 차지함

<표 3-28> 수산물 도소매업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수산물(신선·단순가공)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신선·단순가공) 소매업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 냉동 및 기타
50백만 원 미만	1,934 (8.8)	437	1,497	148 (7.3)	8,124 (31.6)	3,196	4,928
50~100	1,560 (7.1)	314	1,246	110 (5.5)	4,670 (18.2)	1,493	3,177
100~500	6,531 (29.8)	1,853	4,678	662 (32.9)	8,954 (34.8)	2,860	6,094
500~1,000	3,026 (13.8)	803	2,223	247 (12.3)	2,049 (8.0)	401	1,648
1,000~5,000	5,636 (25.7)	1,009	4,627	650 (32.3)	1,641 (6.4)	391	1,250
5,000~10,000	2,846 (13.0)	241	2,605	160 (7.9)	248 (1.0)	36	212
10,000~20,000	231 (1.1)	30	201	18 (0.9)	6 (0.0)	1	5
20,000~30,000	63 (0.3)	2	61	4 (0.2)	1 (0.0)		1
30,000백만 원 이상	80 (0.4)	3	77	16 (0.8)	0 (-)		
계	21,907 (100.0)	4,692	17,215	2,015 (100.0)	25,693 (100.0)	8,378	17,315

주: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통계에서는 2016년부터 수산물 도·소매업이 건어물 및 젓갈류(단순가공)/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제공됨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10차 개정

- 수산물 도매업에서 4인 이하의 사업체 비중은 91.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87.5%, 수산물 소매업에서는 98.6%로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여전히 높았음

<표 3-29> 수산물 도소매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수산물(신선·단순가공)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신선·단순가공) 소매업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냉동 및 기타		계	건어물 및 젓갈류	신선냉동 및 기타
1 - 4명	19,985 (91.2)	4,303	15,682	1849 (87.5)	25,335 (98.6)	8,296	17,039
5 - 9명	1,414 (6.5)	265	1,149	158 (7.5)	316 (1.2)	69	247
10 - 19명	354 (1.6)	82	272	65 (3.1)	35 (0.1)	13	22
20 - 49명	133 (0.6)	37	96	28 (1.3)	8 (0.0)	1	7
50 - 99명	19 (0.1)	5	14	7 (0.3)	0 (0.0)		
100 - 299명	3 (0.0)		3	6 (0.3)	- (-)	-	-
300명 이상	- (-)	-	-	1 (0.0)	- (-)	-	-
계	21,908 (100.0)	4,692	17,216	2,114 (100.0)	25,694 (100.0)	8,379	17,315

주: 전국사업체조사 10차 개정 통계에서는 2016년부터 수산물 도·소매업이 건어물 및 젓갈류(단순가공)/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제공됨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10차 개정

- 주요 식품군별 도소매업 규모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신선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평균과 수산 부문을 비교해 보면 사업체당 매출액 77.4%, 종사자당 매출액은 98.0%로 나타남
 - 가공식품 도매업 평균에서 수산부문을 사업체당 매출액 108.3%, 종사자당 매출액은 105.9% 수준으로 나타남
 - 식료품 소매업 평균과 수산부문을 비교해보면 사업체당 매출액 84.2%, 종사자당 매출액은 79.3% 수준으로 나타남

<표 3-30> 주요 식품군별 도소매업 규모 비교(2021년 기준)

단위: 개소, 명, 백만 원, %

구분	사업 체수	종사 자수	매출액	사업체당 매출액	평균 대비	종사자당 매출액	평균 대비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평균	15,511	42,806	28,891,255	1,904	100	100	
	과실 및 채소	23,422	63,737	38,754,311	1,655	86.9	608	93.0
	육류	14,166	49,554	40,352,961	2,849	149.6	814	124.6
	수산물	21,908	50,372	32,286,501	1,474	77.4	641	98.0
	기타 비가공식품	2,547	7,559	4,171,245	1,638	86.0	552	84.4

구분		사업 체수	종사 자수	매출액	사업체당 매출액	평균 대비	종사자당 매출액	평균 대비
가공식품 도매업	평균	7,231	24,444	11,271,924	1,565	100	460	100
	육류	2,766	10,127	5,456,955	1,973	126.1	539	117.0
	수산물	2,114	7,348	3,582,170	1,694	108.3	488	105.9
	빵 및 과자	4,299	14,405	5,788,162	1,346	86.0	402	87.3
	낙농품	6,197	17,375	7,181,422	1,159	74.0	413	89.8
식료품 소매업	기타 가공식품	20,781	72,966	34,350,909	1,653	105.6	471	102.3
	평균	17,633	29,161	4,964,553	267	100	186	100
	곡물	5,147	7,733	1,348,260	262	98.2	174	94.0
	육류	25,797	46,897	13,599,579	527	197.6	290	156.3
	수산물	25,694	39,213	5,771,354	225	84.2	147	79.3
	과실 및 채소	27,122	44,019	5,748,419	212	79.4	131	70.4
	빵 및 과자류	9,677	12,873	982,348	102	38.0	76	41.1
	건강보조식품	10,880	19,049	4,001,825	368	137.9	210	113.2
	기타 식료품	19,116	34,345	3,300,088	173	64.7	96	51.8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10차 및 연구진 재가공

3. 수산물 유통종사자 현황²⁶⁾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에서 수산물 유통업은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과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으로 구분됨²⁷⁾
 -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은 ‘수산물 중개업’, ‘수산물 도소매업’, ‘관상용 수산 동식물 도소매업’으로 분류함
 -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은 ‘수산물 운송업’, ‘수산물 냉장 및 냉동창고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수산물 유통업과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서 수산분야로 한정된 분야는 ‘건어물 및 젓갈류 도소매업’,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으로 볼 수 있음
 - 이 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별 범위는 타 산업 분야를 포괄함

26)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업통계조사」의 경우 2020년 자료가 최신으로 작년 보고서와 동일하여 본문에서 제외하였음

27) 수산물 유통업 분류체계는 2020년과 동일하여 2021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을 준용함

<표 3-31>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상의 수산물 유통업 분류체계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수산물 유통업 (6)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61)	수산물 중개업 (611)	수산물 국내 중개업(6111)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수산물 해외 중개업(6112)	
			수산물 전자상거래 중개업(611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수산물 도소매업 (612)	수산 신선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6121)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46314)
				수산물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46315)
			수산 신선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6122)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47213)
				수산물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47214)
			수산물 가공식품 도소매업(6123)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46322)
				기타 식료품 소매업(47219)
			기타 수산물 가공품 도소매업(6129)	장난감 및 취미, 오락 용품 도매업(46463)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46492)
				비료 및 농약 도매업(46732)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47830)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47842)			
	관상용 수산 동식물 도소매업 (613)	관상용 수산 동식물 도소매업(6130)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47852)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62)	수산물 운송업 (621)	수산물 육상 운송업(62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49301)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49302)
			수산물 해상 운송업(6212)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49303)
		수산물 냉장 및 냉동창고업(622)	수산물 냉장 및 냉동창고업(6220)	외항 화물 운송업(50112)
내항 화물 운송업(50122)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자료: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및 산업분류 연계표

- 통계청 경제총조사 10차 개정 자료를 통해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 소매업의 종사자 수를 집계해 보면, 2021년 3개 업종 전체 종사자 수는 9만 6,933명으로 집계됨(2020년 10만 1,149명)

<표 3-32> 수산물 도소매업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 현황(전국사업체조사)

단위: 명

구분	종사자 지위	종사자수		구분	종사자 지위	종사자수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수산물 (신선, 단순가공) 도매업	자영업주, 무급가족	21,495	20,571	수산물 (신선, 단순가공) 소매업	자영업주, 무급가족	31,910	31,828
	상용종사자	23,981	26,037		상용종사자	4,098	5,010
	임시 및 일용근로자	6,392	3,516		임시 및 일용근로자	2,667	2,256
	기타종사자	229	248		기타종사자	80	119
	합계	52,097	50,372		합계	38,755	39,213
수산물 가공식 품 도매업	자영업주, 무급가족	2,133	1,794	3개 업종 전체 합계	자영업주, 무급가족	55,538	54,193
	상용종사자	6,731	4,909		상용종사자	34,810	35,956
	임시 및 일용근로자	1,380	605		임시 및 일용근로자	10,439	6,377
	기타종사자	53	40		기타종사자	362	407
	합계	10,297	7,348		합계	101,149	96,933

자료: 통계청, 해양수산업통계조사, 산업세세분류별/종사상지위별 현황

- 수산물 산지 및 도매시장의 수산종사자도 수산물 유통업 종사자로 볼 수 있음
 - 수협이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에서 산지 유통종사자는 중도매인, 매참인, 경매사로 구분하고 있음. 2022년 기준 부산공동어시장 유통종사자를 포함한 산지유통종사자 수는 4,239명으로 추정됨(2021년 4,197명, 2020년 4,865명)

<표 3-33> 산지 수산물시장의 유통종사자 현황(2022년 기준)

단위: 명

구분	매수인			경매사
	합계	중도매인	매참인	
중앙회	303	278	25	28
회원조합	3,843	3,658	185	358
부산공동어시장	93	86	7	7
합계	4,239	4,022	217	397

주: 중앙회'는 중앙회 공판장 집계자료임, 부산공동어시장은 '22년 자료를 사용함

자료: 수협중앙회 내부자료(2023년 8월 제공), 부산공동어시장 내부자료(2023년 8월 제공)

- 산지 수산물 유통에서 중도매인, 매참인, 경매사 외에도 위판장이나 시장에서 양륙, 배열, 하역,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 노무인력 또한 상당수임

- 단순 노무인력의 수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아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을 통해 지역별 단순노무인력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청·제공 받음
 -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에서 파악하고 있는 2022년 전국 수산물 유통 관련 단순 노무인력은 1,473명으로 파악됨(2021년 1,596, 2020년 1,660명)

<표 3-34> 수산물 유통업 단순 노무인력 현황(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단위: 명

조합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부산	808	799	779	778	753	725	659	636	614	548
인천	159	159	159	159	159	145	191	190	188	184
경북	56	58	52	46	46	46	47	43	26	28
울산	25	23	24	23	23	20	19	17	17	13
서울경기	29	29	28	28	28	26	31	30	30	30
경남	106	134	123	120	117	161	153	150	152	147
전남서부	88	87	82	75	69	91	89	86	83	66
전북서부	67	54	48	46	48	46	49	36	34	31
충남서부	92	92	104	81	76	87	84	82	77	78
종합수산	158	158	158	155	155	154	154	154	119	96
농수산	135	127	125	125	125	125	124	125	125	125
속초	18	19	18	16	15	11	17	16	17	18
고성	21	18	19	16	11	12	24	18	16	14
여수수산물	91	89	87	80	70	67	77	77	98	95
합계	1,853	1,845	1,806	1,748	1,695	1,716	1,718	1,660	1,596	1,473

주: 수치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비조합원 수치는 제외됨
 자료: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내부자료(2023년 5월 제공)

- 「2021년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계연보」에는 전국의 도매시장에서 종사하는 수산물 유통 종사자수는 2,919명으로 집계됨
 - 이 중 중도매인은 1,454명으로 전체의 49.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하역인 656명(22.5%), 도매법인 임직원 457명(15.7%) 순이었음

<표 3-35> 도매시장 수산부류 유통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도매법인 임직원	581	454	477	459	526	495	495	489	471	457	457(15.7)
중도매인	1,447	1,442	1,455	1,462	1,474	1,507	1,458	1,450	1,451	1,464	1,454(49.8)
매매참가인	169	161	190	182	198	199	290	295	330	299	314(10.8)
하역인	615	566	680	533	820	768	1,083	581	945	760	656(22.5)
관리사무소 (공사) 직원	23	24	31	35	34	46	32	33	39	39	38(1.3)
관련상인	1,329	1,332	1,131	462	438	340	38	-	-	-	-
합계	4,164	3,979	3,964	3,133	3,490	3,355	3,396	2,848	3,236	3,019	2,919(100.0)

주: 1) 2018년도부터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현황에 관련상인이 제외됨
 2) 수산부류 유통종사자 수는 공영도매시장과 일반법정도매시장의 합계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22. 10

○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수산물 도소매업 통계(전국사업체조사)로 식별되는 종사자 수는 9만 6,933명, 산지 및 도매시장에 종사하는 유통인(단순 노무인력 포함) 종사자 수는 8,754명으로 파악됨

<표 3-36> 수산물 유통종사자수 추정결과 비교(2021년 기준)

구분	종사자수	비고
전국사업체조사	96,933명	· 통계자료로 식별되는 수산물(신선, 단순가공)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수산물(신선, 단순가공) 소매업 3개 업종의 종사자수만을 집계한 결과
산지 및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산지: 5,835명 도매: 2,919명 합계: 8,754명	· 산지: 수협 위공판장 현황에서 집계하고 있는 중도매인, 매참인, 경매사+ 전국항운노조연맹의 단순노무인력 · 도매: 도매시장 통계연보에서 집계하는 수산물 유통종사자수

Ⅰ 제4장 Ⅰ

품목별 유통실태 조사

제1절 수산물 유통실태의 조사개요

제2절 고등어 유통실태 조사

제3절 명태 유통실태 조사

제4절 오징어 유통실태 조사

제5절 갈치 유통실태 조사

제6절 참조기 유통실태 조사

제7절 마른멸치 유통실태 조사

제8절 양식전복 유통실태 조사

제9절 양식넙치 유통실태 조사

제10절 양식굴 유통실태 조사

제11절 양식김 유통실태 조사

제4장 품목별 유통실태 조사

제1절 수산물 유통실태 조사개요

1. 필요성 및 목적

-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 제정·시행되었음
 -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해서는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전반의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 필요함
 - 현재 유통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가 파편적이거나 일부 유통업종 조사 자료에 한정되어 정책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수산물 유통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는 수산물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적 근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수산물 유통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통계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 수산물의 유통실태 및 비용을 조사·분석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한 수산물 유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유통개선사업 등 다양한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하기 위함임

2. 수산물 품목별 유통 실태 조사 체계(안)

가. 대상 품목의 선정

- 전체 수산물 공급(생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국민들의 소비가 많은 대중성 품종, 정부의 수급 관리 대상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나. 유통 실태 조사 설계를 위한 기본 방향

- 유통 실태 기본 조사 설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6단계를 통해 실시하며, 단계별 주요 내용은 <표 4-1>에 정리하였음
 - 1단계: 품목별 기초 자료 수집 - 생산(월별, 업종별), 수출입, 재고, 가격 등
 - 2단계: 기초 자료 분석 - 핵심 유통 경로 분석 및 성어기를 반영한 조사 시기 결정
 - 3단계: 품목 유통 경로 특징을 반영한 조사표 초안 작성 및 자문
 - 4단계: 조사 대상 선정 및 현장 조사
 - 5단계: 조사 결과 정리
 - 6단계: 전문가 위원회 자료 검증 및 최종보고서 작성

<표 4-1> 수산물 유통실태 조사의 단계별 내용

구분	내용
<1단계> 기초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생산(연도별, 월별, 어업별, 업종별, 지역별) • 주요 생산 크기별 기준, 위판 형태 • 계통 및 비계통 출하량, 수협별 위판 실적(5년, 월별) • 수출입량(연도별, 국가별, HS코드별) • 연도별 수급(이입재고, 생산, 수입 / 국내소비, 수출, 이월재고) • 월별 산지·도매·소비자가격(신선, 냉동, 필요시 활어)
<2단계> 기초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경로 분석 • 품목별·제품별 주된 유통경로 분석 • 유통 실태 현장 조사 시기 결정을 위한 성어기 분석
<3단계> 조사표 초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파악된 주 유통 경로를 토대로 한 유통 실태 조사표 초안 작성 • 작성된 초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수행 • 조사표 최종 확정
<4단계> 조사대상 선정 및 현장조사	<p><산지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어: 부산공동어시장 • 갈치: 부산(부산공동어시장), 제주(서귀포, 성산포) • 오징어: 활신선냉장(후포, 구룡포, 속초), 냉동(국제수산물도매시장) • 명태: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부산공동어시장) • 참조기: 제주(한림수협), 목포(목포수협) • 마른멸치: 기선권현망 수협(통영) • 넙치: 제주 • 전복: 완도 • 굴: 통영 • 김: 고흥 <p><도매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참조기/마른멸치/굴: 노량진수산물시장, 가락시장 • 넙치, 전복: 인천활어시장, 하남활어시장 <p><소매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소매점 3사, 백화점(롯데, AK, 신세계), 전통시장 등 <p><현장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어/오징어/참조기/마른멸치: 9월~익년 2월 • 갈치/명태: 7월~익년 2월 • 넙치, 전복, 굴, 김: 9월~익년 2월
<5단계> 결과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결과의 집계 및 분석
<6단계> 결과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검증: 12월~익년 4~5월 수행 • 산지, 도매, 소매단계의 취급물량이 많은 업체 관계자, 수산물 유통 전문가 대상

제2절 고등어 유통실태조사

1. 고등어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및 계통출하 동향

- 2022년 고등어류 총생산량은 연근해 망치고등어 어획량이 늘면서 전년 대비 1.1%, 5개년 평균에 비해서도 5.4% 많은 15만 859톤이었음
- 망치고등어는 전년 대비 44.4% 증가한 4만 1,678톤이었으며, 고등어는 전년 대비 9.2% 감소한 11만 1,181톤이었음

<표 4-2> 연도별 어업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총생산량	일반해면	비중	천해양식	비중	원양	비중
		(-)		(-)		(-)	
1990년	96,297	96,297 (-)	100.0	-	0.0	-	-
1995년	200,481	200,481 (-)	100.0	-	0.0	-	-
2000년	145,945	145,908 (-)	100.0	-	0.0	37	0.0
2005년	135,806	135,596 (-)	99.8	80	0.1	130	0.1
2010년	99,890	99,534 (5,203)	99.6	285	0.3	71	0.1
2015년	140,979	140,624 (8,889)	99.7	113	0.1	242	0.2
2017년	115,913	115,261 (11,390)	99.4	203	0.2	450	0.4
2018년	216,608	215,933 (74,403)	99.7	280	0.1	395	0.2
2019년	121,624	121,373 (20,252)	99.8	230	0.2	21	0.0
2020년	83,086	82,838 (5,236)	99.7	247	0.3	-	0.0
2021년	151,260	151,029 (28,859)	99.8	231	0.2	-	0
2022년	152,859	152,473 (41,678)	99.7	386	0.3	-	0
5개년 평균	145,087	144,729 (34,086)	99.8	275	0.2	208	0.0

주: 1) 고등어류는 고등어뿐만 아니라 망치고등어도 포함됨
 2) 일반해면어업의 ()는 망치고등어이며, 천해양식어업은 고등어, 원양어업은 고등어류로 집계하였음
 3) 2021년은 잠정치이며,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 어업별로는 일반해면어업의 생산 비중이 95.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년(98.4%)보다 감소했음
 - 그 외 천해양식어업 생산 비중이 전년(1.6%) 대비 증가한 4.2%이었으며, 원양어업은 거의 없었음
- 2022년 국내 고등어류 평균 생산금액은 1,9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낮았음
 - 전체 생산량(망치고등어, 고등어)은 증가했으나, 고등어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주로 소비되는 중·대형어(마리당 300g이상) 비중이 적었기 때문임
 - 망치고등어 생산금액은 3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2% 증가했음

<표 4-3> 연도별 어업별 고등어류 생산금액 동향

단위: 백만 원, %

구분	총생산금액	일반해면		천해양식		원양	
			비중		비중		비중
1990년	54,715	54,715 (-)	100.0	-	-	-	-
1995년	130,150	130,150 (-)	100.0	-	-	-	-
2000년	148,785	148,771 (-)	100.0	-	-	13	-
2005년	168,128	167,382 (-)	99.6	724	0.4	22	0.0
2010년	178,587	175,328 (7,452)	98.2	3,232	1.8	27	0.0
2015년	219,695	217,748 (12,943)	99.1	1,808	0.8	140	0.1
2017년	146,409	142,732 (12,590)	97.5	3,433	2.3	244	0.2
2018년	216,366	212,013 (55,597)	98.0	4,165	1.9	189	0.1
2019년	152,068	148,817 (19,209)	97.9	3,243	2.1	8	0.0
2020년	176,890	173,030 (9,237)	97.8	3,860	2.2	-	0.0
2021년	220,078	216,650 (22,273)	98.4	3428	1.6	-	0.0
2022년	195,119	186,977 (30,785)	95.8	8145	4.2	-	0.0
5개년 평균	192,104	187,497 (27,420)	97.6	4,568	2.4	99	0.0

주: 1) 고등어류는 고등어뿐만 아니라 망치고등어도 포함됨
 2) 일반해면어업의 ()는 망치고등어이며, 천해양식어업은 고등어, 원양어업은 고등어류로 집계하였음
 3) 2021년은 잠정치이며,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 2022년 월별 고등어류 생산량은 성어기에는 작년보다 적었으나, 금어기 이후 생산 증가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4~5월 고등어 금어기 이후 어획량이 전년 대비 많았으며, 특히 11월 생산량이 전년 대비 84.4%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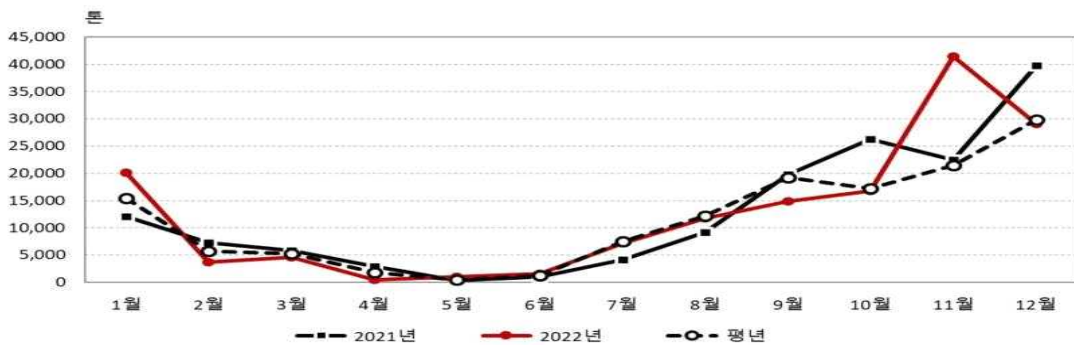
<표 4-4> 연도별·월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0,834	18,319	30,165	6,004	12,051	20,107	17,329	66.8	29.9
2월	3,213	4,438	3,657	10,178	7,308	3,741	5,864	-48.8	-35.0
3월	1,766	11,958	3,152	3,817	5,886	4,649	5,892	-21.0	-12.5
4월	238	3,518	1,644	599	2,930	527	1,844	-82.0	-70.5
5월	863	304	585	536	338	1,018	556	201.2	93.8
6월	2,185	908	732	1,449	1,088	1,637	1,163	50.5	28.7
7월	8,006	15,284	2,565	7,516	4,141	7,168	7,335	73.1	-4.5
8월	14,977	22,995	8,188	5,950	9,151	11,744	11,606	28.3	-4.1
9월	15,125	44,424	8,414	8,194	19,784	14,919	19,147	-24.6	-22.2
10월	8,128	30,801	9,766	11,281	26,257	16,793	18,980	-36.0	-2.6
11월	13,624	44,111	12,588	14,627	22,507	41,498	27,066	84.4	93.1
12월	36,957	19,545	40,167	12,934	39,816	29,054	28,303	-27.0	-2.8
합계	115,913	216,608	121,624	83,086	151,257	152,855	145,085	1.1	11.0

주: 1)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고등어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월별 생산량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였음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그림 4-1> 월별 고등어류 생산량 추이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부산공동어시장에 위판된 중·대형어(마리당 300g이상) 비중은 17.6%로 전년(19.1%) 대비 낮았음

- 1월을 제외한 상반기에는 중·대형어 비중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었으나, 고등어 성어기인 9월 이후 중·대형어 비중이 전년 대비 낮았음
- 2022년 고등어 부류별 비중은 선어로 양륙·위판되는 비중이 97.0%로 중·대형어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전년(98.4%)보다 줄었음
 - 전년에 비해 신선냉장 물량이 감소하면서 냉동 고등어 비중은 2.6%로 전년(1.3%) 대비 높았음

<표 4-5> 연도별 부류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5개년 평균
활어	246	401	328	440	367	548	0.4	417
선어	114,771	215,574	119,595	81,046	148,884	148,345	97.0	142,689
냉동	896	633	1701	1,600	2,008	3,965	2.6	1,981
합계	115,913	216,608	121,624	83,086	151,259	152,858	100.0	145,087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 국내 고등어류의 계통출하 비중은 94.4%로 전년(98.4%) 대비 감소했음
 - 부류별로 보면, 선어의 계통출하 비중이 94.6%로 전년(98.5%) 대비 감소했으며, 활어도 계통출하 비중이 23.0%로 전년(36.2%) 대비 낮았음

<표 4-6> 연도별 부류별 고등어류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5개년 평균
활어	계통	35	114	97	86	133	126	23.0	111
	비계통	211	287	231	354	234	422	77.0	306
	소계	246	401	328	440	367	548	100.0	417
선어	계통	114,298	212,505	116,818	80,132	146,626	140,278	94.6	139,272
	비계통	473	3,069	2,777	915	2,259	8,067	5.4	3,417
	소계	114,771	215,574	119,595	81,046	148,885	148,345	100.0	142,689
냉동	계통	444	238	1,680	1,600	2,008	3,965	100.0	1,898
	비계통	451	395	21	0	0	0	0.0	83
	소계	896	633	1,701	1,600	2,008	3,965	100.0	1,981
합계	계통	114,777	212,857	118,595	81,818	148,767	144,369	94.4	141,281
	비계통	1,135	3,751	3,029	1,269	2,493	8,489	5.6	3,806
	합계	115,913	216,608	121,624	83,086	151,260	152,858	100.0	145,087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 2022년 지역별 고등어류 생산량은 부산광역시가 총생산량의 74.9%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80.1%)보다는 비중이 다소 감소했음
 - 강원도의 생산 비중이 5.3%로 전년(0.5%)보다 높았으며, 그 외 지역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표 4-7> 연도별 지역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5개년 평균
부산광역시	93,906	176,489	100,356	69,092	121,693	114,461	74.9	116,418
인천광역시	2	3	8	45	40	55	0.0	30
울산광역시	211	134	102	59	103	96	0.1	99
경기도	2	0	0	0	0	0	0.0	0
강원도	168	5,193	3,352	1,120	803	8,124	5.3	3,718
충청남도	11	19	265	391	93	187	0.1	191
전라북도	456	398	844	800	979	45	0.0	613
전라남도	1,051	940	2,072	2,485	4,901	2,957	1.9	2,671
경상북도	1,072	8,282	2,347	541	422	4,815	3.1	3,281
경상남도	14,312	17,513	8,872	5,210	17,818	16,178	10.6	13,118
제주도	4,272	7,242	3,385	3,340	4,407	5,941	3.9	4,863
원양산	450	395	21	0	0	0	0.0	83
합계	115,913	216,608	121,624	83,086	151,260	152,859	100.0	145,087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 어법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대형선망어업 생산량이 총생산량의 82.3%로 전년(91.9%) 대비 감소했으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4-8> 연도별 어법별 고등어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5개년 평균
대형선망	102,874	194,366	108,087	71,499	139,024	125,743	82.3	127,744
정 치 망	2,978	12,406	6,325	1,689	1,484	13,395	1.0	7,060
대형트롤	380	226	1938	467	285	2119	0.2	1,007
소형선망	1,272	2,332	1,357	2,234	4,360	4,658	2.9	2,988
근해자망	717	849	1195	2,645	1,683	1,591	1.1	1,593
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	2840	1,241	675	345	127	203	0.1	518
기타	4,852	5,188	2,047	4,207	4,297	5,150	2.9	4,178
계	115,913	216,608	121,624	83,086	151,260	152,859	100.0	145,087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연도

나. 수출입 현황

- 2022년 고등어 수출량은 7만 5,745톤으로 전년 대비 112.4% 증가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87.4% 많았음. 수출금액도 6,8567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5% 많았음
 - 소형어 생산이 많아 아프리카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임
- 2022년 고등어 수입량은 전년 대비 5.0% 감소한 5만 1,240톤이며, 물량 증감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수입량은 감소했지만 함께 수입금액은 전년 대비 14.7% 상승한 12,136만 달러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금액이었음
 -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는 4만 4,492톤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음.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높아져 수입량이 전년보다 적었음
 - 2022년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의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2.4달러로 2021년(2.0달러/kg) 대비 상승했음

<표 4-9> 연도별 고등어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7년	16,654	19,776	1.2	44,952	75,748	1.7
2018년	70,207	68,469	1.0	41,748	73,572	1.8
2019년	44,778	49,521	1.1	42,581	83,493	2.0
2020년	36,352	35,541	1.0	46,119	88,031	1.9
2021년	34,057	36,958	1.1	53,945	105,772	2.0
2022년	75,745	68,567	1.1	51,240	121,359	2.4
5개년 평균	52,228	51,811	1.1	47,127	94,445	2.0
전년 대비	122.4	85.5	0.0	-5.0	14.7	18.4
평년 대비	87.4	63.0	0.0	11.7	42.2	115.3

주: 1) 수출입 증량은 수율을 적용하지 않은 원물기준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2022년 제품형태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냉동품의 수출량이 전체의 99.2%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98.2%) 대비 증가했음

- 수입의 경우에도 냉동품이 전체 수입량의 99.2%로 전년과 비슷했으며, 이 외 신선냉장, 염장·염수장, 조제·밀폐용기 등은 미미한 수준이었음

<표 4-10> 제품형태별 고등어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단위: 톤,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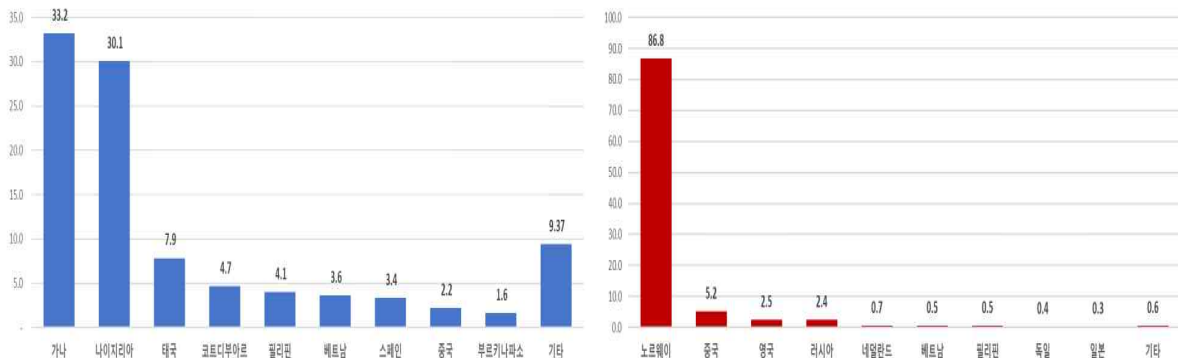
명칭	HS CODE	수출				수입			
		종량	비중	금액	비중	종량	비중	금액	비중
신선냉장	0302440000	176	0.2	973	1.4	32	0.1	73	0.1
냉동	0303540000	75,109	99.2	65,353	95.3	50,811	99.2	119,446	98.4
염장·염수장	0305695000	191	0.3	1,577	2.3	0	0.0	0	0.0
조제·밀폐용기	1604151000	108	0.1	418	0.6	377	0.7	1,682	1.4
기타	1604159000	161	0.2	246	0.4	20	0.0	158	0.1
합계		75,745	100.0	68,567	100.0	51,240	100.0	121,359	100.0

주: 수출입 종량은 수율을 적용하지 않은 원물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2022년 주요 수출국으로는 가나(33.2%)로의 수출량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나이지리아(30.1%), 태국(7.9%), 코트디부아르(4.7%), 필리핀(4.1%), 베트남(3.6%) 등이었음
 - 망치고등어 및 소형어 어획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프리카 국가로의 수출량이 전체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음
- 수입량은 노르웨이산이 전체 수입량의 86.8%로 전년(83.8%)보다 높았으며, 이외에는 중국(5.2%), 영국(2.5%), 러시아(2.4%) 등이었음

<그림 4-2> 국가별 고등어 수출입 비중(2022년 기준)

단위: %



<국가별 수출>

<국가별 수입>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다. 수급 구조

- 2022년 고등어 총 공급량은 23만 2,634톤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음
 - 어획량은 감소했지만, 수입이 증가하였고 2021년 어획된 고등어 이입 재고량이 큰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 총 공급량에서 국내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7.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전년(57.4%)과 평년(51.6%)보다 낮았음. 수입도 22.4%로 전년(25.7%)에 비해 낮았음
- 2022년 국내 고등어 소비량은 9만 4,336톤으로 전년 대비 13.4% 감소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18.8% 적었음
 - 국내 소비가 줄었지만, 중·대형어 생산이 적었으며 수출이 증가해 재고량은 전년 대비 10.9% 감소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12.8% 많았음
 - 총 공급량에서 국내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6%로 전년(51.2%)보다 적었으며, 수출은 32.7%, 이월 재고량은 26.7%였음

<표 4-11> 연도별 고등어 수급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2017년	104,523	45,268	75,814	225,605	158,370	16,926	50,309	66.0
2018년	142,205	42,188	50,309	234,702	94,099	71,881	68,722	151.1
2019년	101,372	43,092	68,722	213,186	118,350	45,180	49,656	85.7
2020년	77,602	47,095	49,656	174,353	101,246	37,004	36,103	76.6
2021년	122,169	54,700	36,100	212,969	108,933	34,592	69,444	112.2
2022년	110,792	51,962	69,880	232,634	94,771	76,020	61,842	116.9
전년 대비	-9.3	-5.0	93.6	9.2	-13.0	119.8	-10.9	-
평년 대비	1.1	11.8	24.5	9.6	-18.4	84.9	12.8	-

주: 1) 국내생산은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은 고등어, 원양어업은 고등어류로 집계한 생산량의 합이며, 망치고 등어는 제외하였음

2)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이입, 이월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 입출하동향 조사

4)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고등어 산지가격은 대형선망수협이 고등어 중품²⁸⁾ 크기의 가격으로 추정하였음
- 2022년 고등어 산지가격은 연평균 kg당 4,026원으로 전년 대비 10.4% 상승했음
 - 어획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중·대형어 물량이 감소하여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높게 형성되었음

<표 4-12> 연도별·월별 고등어(선어) 산지가격 동향(대형선망수협)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4,249	4,196	1,981	4,675	4,626	3,473	3,790	-24.9	-12.0
2월	4,562	4,161	3,486	4,077	4,193	4,409	4,065	5.2	7.6
3월	4,013	4,294	3,697	5,577	4,348	5,561	4,695	27.9	26.8
4월	-	4,227	4,222	6,243	3,735	6,093	4,904	63.1	32.3
5월	4,512	-	-	-	-	-	-	-	-
6월	4,239	-	-	-	5282	2,752	4,017	-47.9	-42.2
7월	3,346	1,545	2,164	2,279	3,713	3,274	2,595	-11.8	25.5
8월	1,803	1,579	2,046	3,139	2,961	3,153	2,576	6.5	36.7
9월	1,984	1,499	2,391	3,151	2,557	2,889	2,497	13.0	24.7
10월	2,318	2,039	2,880	3,519	2,410	4,280	3,026	77.6	62.5
11월	4,869	2,354	3,054	3,467	3,337	4,145	3,271	24.2	21.3
12월	3,635	2,068	3,689	3,412	3,104	4,259	3,306	37.2	33.9
연평균	3,594	2,796	2,961	3,954	3,661	4,026	3,480	10.0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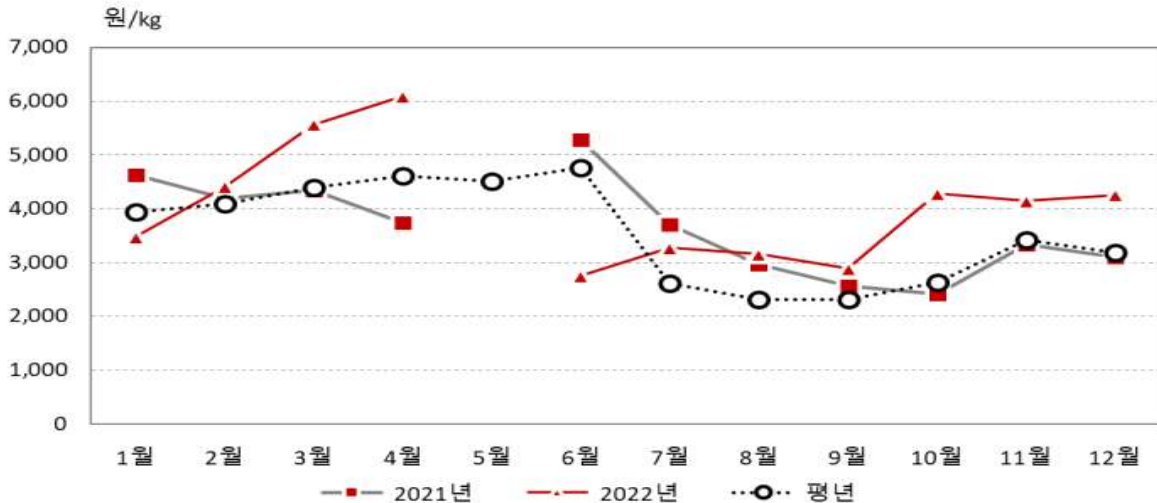
주: 1) 산지가격은 갈고(300~350g), 갈소고(350~450g)의 위판량에 덤비율 39%를 적용한 대형선망수협 위판가격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대형선망수협 내부자료

- 월별로는 대체로 전년 대비 낮게 형성되었으며, 특히 겨울철 어황 호조로 하반기 산지가격은 하락세였음

28) 대형선망수협의 고등어 중품가격은 갈고(마리당 300~350g), 갈소고(마리당 350~450g) 크기의 위판량에 덤비율 39%를 적용한 위판가격임

- 재고량과 생산량이 1월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낮게 형성 되었으나, 2~4월까지 생산량 감소와 중·대형어 부족으로 산지가격이 전년 보다 높게 형성되었음
- 금어기 및 자율휴어기('22.4.15~5.15) 기간은 전년('21.4.26~6.28)보다 짧은 약 1개월간 실시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위판이 진행되지 않아 산지가격은 형성되지 않았음
- 자율휴어기 직후인 5~6월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낮게 형성되었다가 7월 이후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그림 4-3> 월별 고등어(선어) 산지가격 추이(대형선망수협)



주: 1) 산지가격은 갈고(300~350g), 갈소고(350~450g)의 위판량에 대비율 39%를 적용한 대형선망수협 위판가격임
 2)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대형선망수협 내부자료

- 통계청의 2022년 고등어 생산단가는 전년 대비 7.8% 하락한 kg당 1,944원이었으며, 대형선망수협 위판단가(4,026원/kg)보다 51.7% 낮은 수준이었음
- 이는 통계청의 생산단가에는 크기와 상관없이 연평균 생산을 대상으로 추정하였고, 대형선망수협의 위판단가는 중품(마리당 300~450g) 크기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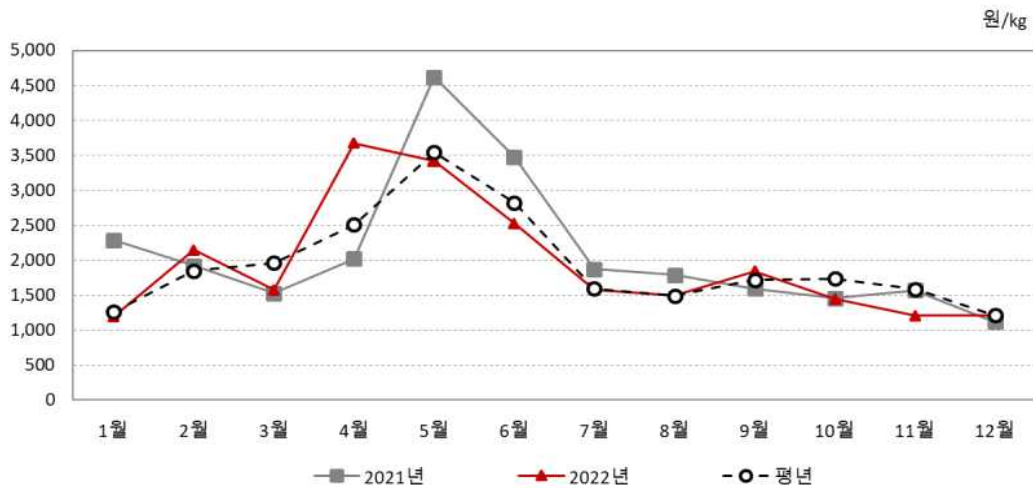
<표 4-13> 연도별·월별 고등어 생산단가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067	636	1,030	1,274	2,293	1,189	1,284	-48.2	-5.7
2월	1,981	1,658	1,864	1,830	1,920	2,147	1,884	11.8	16.0
3월	3,112	815	2,158	2,214	1,529	1,579	1,659	3.3	-19.7
4월	3,683	1,314	2,420	3,109	2,023	3,676	2,508	81.7	46.5
5월	2,665	4,143	2,864	3,441	4,617	3,418	3,697	-26.0	-3.6
6월	2,693	2,648	2,822	2,495	3,478	2,529	2,794	-27.3	-10.5
7월	1,437	1,086	1,888	1,696	1,877	1,584	1,626	-15.6	-0.8
8월	1,139	1,018	1,378	2,132	1,794	1,491	1,563	-16.9	-0.1
9월	1,490	1,018	1,467	3,014	1,598	1,843	1,788	15.4	7.3
10월	1,851	1,383	1,783	2,215	1,461	1,444	1,657	-1.1	-16.9
11월	994	1,253	1,704	2,410	1,572	1,207	1,629	-23.3	-24.0
12월	930	1,301	903	1,814	1,120	1,216	1,271	8.6	0.2
연평균	1,920	1,523	1,857	2,304	2,108	1,944	1,947	-7.8	0.1

주: 1) 일반해면어업을 통해 어획된 고등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산지가격은 가중평균(생산금액/연간 생산량) 값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그림 4-4> 월별 고등어 생산단가 추이



주: 1) 일반해면어업 고등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산지가격은 가중평균(생산금액/연간 생산량) 값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 도매가격

- 2022년 고등어(선어) 도매가격은 연평균 kg당 5,707원으로 전년 대비 5.1% 상승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7.0% 높았음
- 어획 부진으로 신선냉장 물량이 적었던 전년도의 영향과 더불어 주로 소비되는 중·대형어 비중이 줄면서 중도매인들의 매수세가 높아져 2022년 도매가격은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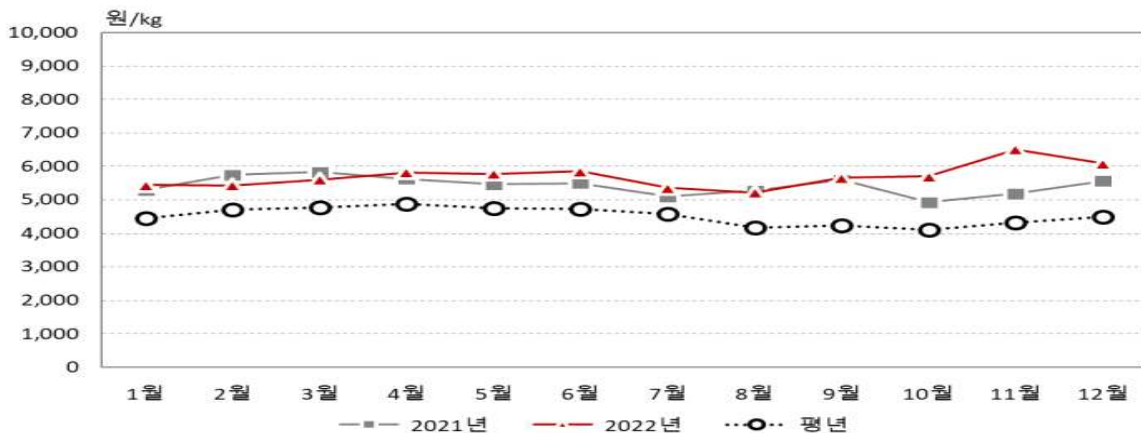
<표 4-14> 연도별·월별 고등어(선어)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4,298	4,465	3,394	4,811	5,291	5,446	4,681	2.9	22.3
2월	4,580	4,460	3,452	5,307	5,748	5,434	4,880	-5.5	15.4
3월	4,767	4,420	3,524	5,372	5,830	5,608	4,951	-3.8	17.3
4월	5,040	4,450	3,775	5,560	5,628	5,821	5,047	3.4	19.0
5월	4,960	-	3,853	-	5,473	5,781	5,036	5.6	21.4
6월	4,739	-	3,968	-	5,501	5,851	5,107	6.4	23.5
7월	4,342	-	4,010	4,860	5,107	5,360	4,834	5.0	17.0
8월	3,758	3,560	3,568	4,751	5,275	5,222	4,475	-1.0	24.9
9월	3,807	3,461	3,583	4,704	5,597	5,657	4,600	1.1	33.7
10월	3,893	3,351	3,595	4,821	4,932	5,700	4,480	15.6	38.4
11월	4,186	3,482	3,819	4,969	5,190	6,514	4,795	25.5	50.5
12월	4,441	3,486	4,058	4,957	5,560	6,090	4,830	9.5	35.3
연평균	4,401	3,904	3,717	5,011	5,428	5,707	4,492	8.3	27.2

주: 1) 고등어(선어)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0kg이며, 마리당 30cm(350~5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5> 월별 고등어(선어) 도매가격 추이



주: 1) 고등어(선어)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0kg이며, 마리당 30cm(350~5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2) 평년은 2017~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2022년 고등어(냉동) 도매가격은 연평균 kg당 5,219원으로 전년 대비 17.4% 상승했음
 - 신선냉장 물량이 전년에 비해 적었으며, 중·대형어 물량도 적어 도매가격은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
 - 또한, 인건비 등 간접비 상승으로 평년에 비해서도 45.3%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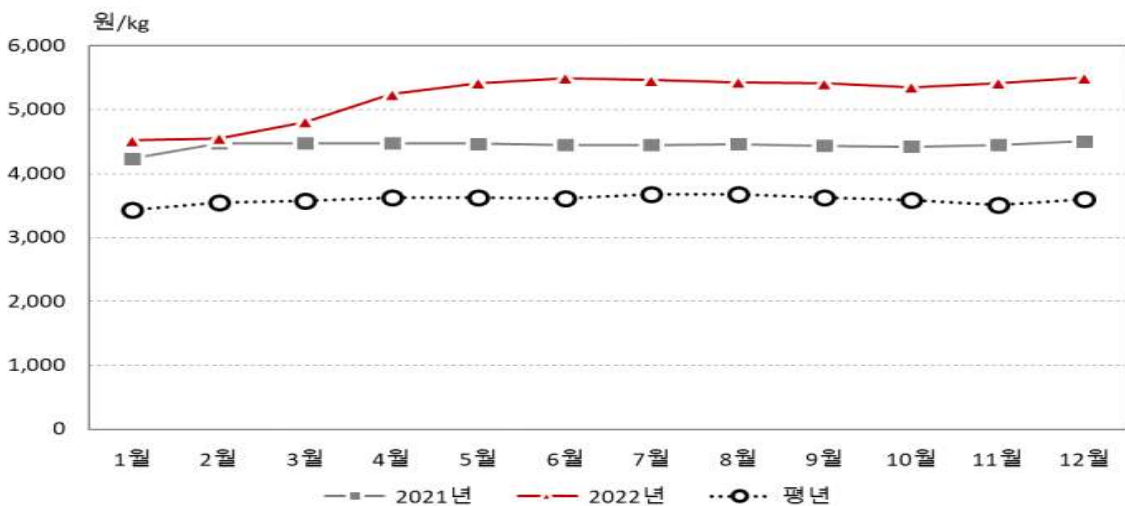
<표 4-15> 연도별·월별 고등어(냉동)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197	3,459	3,111	3,138	4,237	4,519	3,693	6.7	31.8
2월	3,219	3,617	3,033	3,395	4,474	4,552	3,814	1.7	28.3
3월	3,280	3,617	3,040	3,455	4,474	4,811	3,879	7.5	34.6
4월	3,467	3,620	3,040	3,511	4,479	5,243	3,979	17.1	44.7
5월	3,506	3,620	3,011	3,523	4,471	5,418	4,009	21.2	49.4
6월	3,391	3,510	2,980	3,742	4,452	5,499	4,037	23.5	52.1
7월	3,365	3,553	2,992	4,009	4,452	5,465	4,094	22.8	48.7
8월	3,380	3,580	2,948	3,999	4,464	5,431	4,084	21.7	47.8
9월	3,374	3,488	2,830	4,027	4,440	5,411	4,039	21.9	49.0
10월	3,360	3,297	2,822	4,013	4,426	5,354	3,982	21.0	49.4
11월	3,220	3,151	2,847	3,916	4,448	5,421	3,957	21.9	54.2
12월	3,310	3,410	2,922	3,839	4,506	5,503	4,036	22.1	53.0
연평균	3,339	3,494	2,965	3,714	4,444	5,219	3,967	17.4	45.3

주: 1) 도매가격은 마리당 350g 크기의 중품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6> 월별 고등어(냉동) 도매가격 추이



주: 1) 도매가격은 마리당 350g 크기의 중품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3) 소비자가격

- 2022년 고등어(선어) 소비자가격은 연평균 kg당 12,208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0.9%, 40.0% 상승했음
- 2018년까지 보합세를 유지했던 신선냉장 소비자가격은 최근 생산량 감소로 2019년에 한 차례 하락한 이후 상승세를 보였음

<표 4-16> 연도별·월별 고등어(선어)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7,900	8,726	6,806	9,226	8,900	9,983	8,728	12.2	20.1
2월	8,374	8,786	6,743	10,251	9,434	10,683	9,179	13.2	22.5
3월	8,654	8,946	7,074	10,417	10,231	11,023	9,538	7.7	21.6
4월	8,434	9,434	7,069	9,651	9,931	-	9,021	-	-
5월	9,480	9,054	7,103	-	11,820	14,871	10,712	25.8	58.8
6월	8,840	9,554	-	-	11,266	13,651	11,490	21.2	38.1
7월	8,177	8,503	8,594	9,351	10,743	11,683	9,775	8.8	28.8
8월	7,869	7,906	7,466	8,303	9,803	11,931	9,082	21.7	44.3
9월	7,803	7,506	7,543	8,877	10,054	11,711	9,138	16.5	40.1
10월	8,069	7,523	7,726	8,620	9,149	12,140	9,031	32.7	47.7
11월	8,163	7,463	8,114	8,854	9,951	13,243	9,525	33.1	55.6
12월	8,503	6,997	8,663	8,786	9,880	13,371	9,539	35.3	56.1
연평균	8,355	8,366	7,536	9,234	10,097	12,208	9,488	20.9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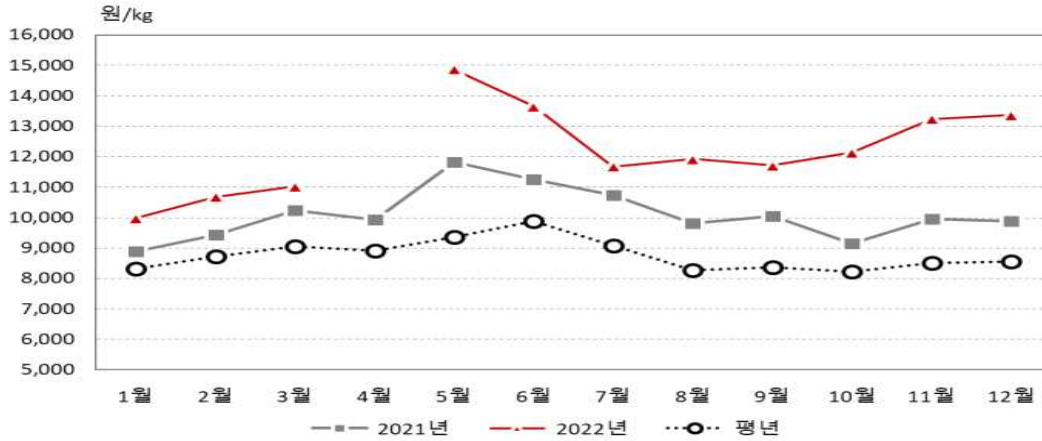
주: 1)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350g 크기의 중품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월별 고등어(선어) 소비자가격으로는 상반기 평균 가격이 kg당 12,04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상승했음
- 금어기 및 자율휴어기 동안 소비자가격이 생산 감소로 1만 원 넘게 거래되면서 상반기 가격이 평년에 비해서도 33.2% 높았음
- 하반기에도 생산량 감소가 지속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반기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4.3% 상승한 kg당 12,347원이었음

<그림 4-7> 월별 고등어(선어) 소비자가격 추이



주: 1)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350g 크기의 중품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2022년 고등어(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10,402원으로 전년 대비 25.3% 상승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49.1% 높았음
- 2019년 이후 냉동품 소비자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표 4-17> 연도별·월별 고등어(냉동) 소비자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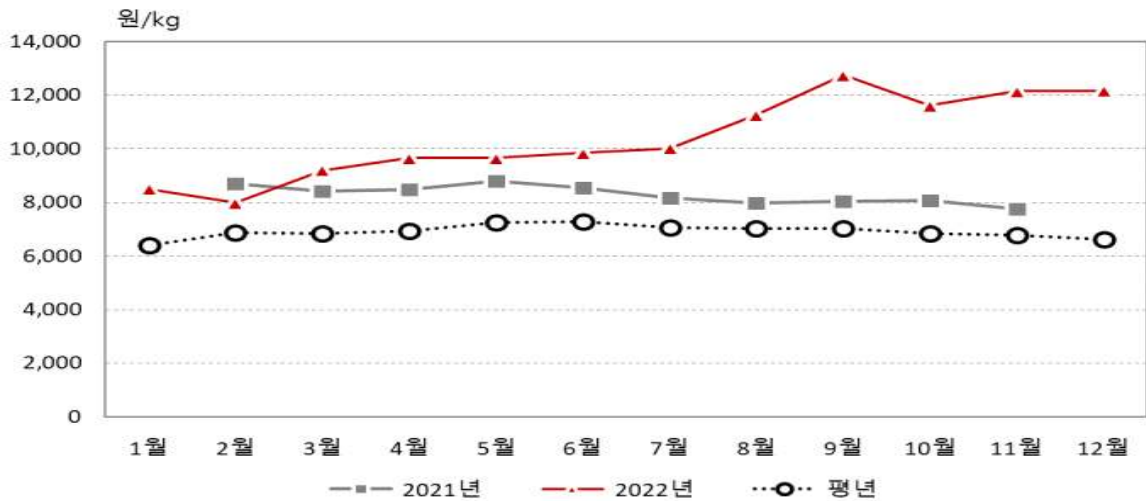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6,306	6,629	5,660	6,977	-	8,511	6,944	-	33.1
2월	6,403	6,394	5,617	7,217	8,703	7,983	7,183	-8.3	16.3
3월	6,466	6,397	5,623	7,331	8,426	9,200	7,395	9.2	34.3
4월	6,489	6,366	5,614	7,746	8,497	9,660	7,577	13.7	39.1
5월	6,743	6,326	6,354	7,969	8,814	9,663	7,825	9.6	33.4
6월	6,677	6,494	6,437	8,300	8,563	9,846	7,928	15.0	35.0
7월	6,423	6,609	6,429	7,757	8,154	10,020	7,794	22.9	41.6
8월	6,469	6,829	5,923	7,980	7,969	11,260	7,992	41.3	60.1
9월	6,406	6,471	6,171	7,997	8,049	12,751	8,288	58.4	81.7
10월	6,523	6,054	6,120	7,523	8,080	11,617	7,879	43.8	69.3
11월	6,571	5,923	6,009	7,600	7,763	12,146	7,888	56.5	79.3
12월	6,474	5,854	6,720	7,486	-	12,169	8,057	-	83.4
연평균	6,496	6,362	6,056	7,657	8,302	10,402	7,756	25.3	49.1

주: 1)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350g 크기의 중품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손질이 쉬운 필렛(순살) 또는 자반 등의 원료인 냉동 고등어 수요가 꾸준히 높았음
- 월별로 고등어(냉동) 소비자가격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평균 kg당 9,144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6.3% 높았음
 - 2021년도 이입 재고량이 많아 생산량 감소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적었음
 - 하반기에는 신선냉장 물량이 감소하면서 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11,660원으로 상반기 대비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도 45.7% 상승하였음

<그림 4-8> 월별 고등어(냉동) 소비자가격 추이



주: 1)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350g 크기의 중품을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2. 고등어 유통구조

가. 유통경로

- 2022년 국내에서 어획된 고등어는 전체 물량의 97.0%가 선어 형태로 산지 위판장에 하역됨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선어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 또한, 고등어(선어) 생산량의 94.6%가 계통 출하되므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제도권 내 시장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고등어(선어)의 계통출하 물량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 산지의 어선 입항에서 경매까지의 과정은 장기간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음
- 산지단계에서의 고등어 양륙 및 유통과정은 전년과 유사한 모습이었음
 - 양륙 및 배열반이 운반선의 어창에서 물과 얼음이 적재된 어항을 이동하여 양륙하고, 배열장으로 이동함
 - 배열장에서는 야간부녀반이 고등어를 크기별·품질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함. 이 작업은 부산공동어시장 위판장의 경우에는 보통 22시 이후부터 진행되며, 분류된 고등어는 경매장으로 이동 및 진열됨
- 산지 위판장에서 위판된 고등어는 산지 중도매인이 서울 가락 및 노량진 시장 등 수도권 및 타 지역의 도매시장, 대형소매업체 등으로 출하함
 - 주간부녀반이 각 유통경로에 맞게 고등어를 재선별 및 재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작업이 완료된 고등어는 하조반 등에 의해 배송차량에 상차되어 출하됨
- 도매단계에서는 산지 위판 이후 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고등어를 산지 위판장과는 별개로 2차 경매가 이루어짐
 - 서울 가락 및 노량진시장은 부류별로 경매시간을 지정하고 있으며, 선어류는 밤 11시부터 경매²⁹⁾가 진행됨
 - 도매시장에서 2차로 위판된 고등어는 소매상, 지역 전통시장, 가공 및 식자재 등으로 유통되며, 각 유통경로에 알맞은 재선별 및 재포장을 거치게 됨
- 정리하면, 고등어(선어)의 제도권 시장 유통경로는 생산자 → [<산지 위판장> → <산지 중도매인>] → [<소비지 도매시장> → <소비지 중도매인>]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단계를 거침

나.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앞서 설명한 바, 고등어(선어)가 전체 고등어류 생산량의 9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물량의 계통출하율은 94.6%로 본 조사에서는 제도권 내 유통경로를 살펴보고자 함
 - 이에 고등어(선어)의 계통출하 물량인 14만 4,601톤을 기준으로 유통경로를 추정하였으며, 유통경로별 물량비중은 다음 표와 같음

29)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시간은 패류 01:00~, 고급선어 01:30~, 대중부류 00:00~, 고급활어 03:00~, 냉동부류 03:00~ 이며, 가락시장(강동수산)은 대중선어 23:00~, 패류 00:30~, 활어 03:00~ 임

<표 4-18> 고등어(선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

단위: 톤,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통 출하(산지위판장)		212,505	116,818	80,122	146,770	144,601
		(100.0)	(100.0)	(100.0)	(100.0)	(100.0)
냉동 냉장 창고	수출	71,881	45,469	35,734	55,773	57,640
		(33.8)	(38.9)	(44.6)	(38.0)	(40.0)
	가공(통조림, 자반 등), 식자재 등	24,015	9,030	13,621	31,009	24,290
		(11.3)	(7.7)	(17.0)	(21.0)	(17.0)
	사료용, 미끼용	57,718	36,187	7,531	17,612	24,290
	(27.2)	(31.0)	(9.4)	(12.0)	(17.0)	
소비지 도매시장 및 대형소매업체	8,695	4,012	2,404	5,871	4,227	
	(4.1)	(3.4)	(3.0)	(4.0)	(3.0)	
소비지 도매시장	14,816	6,934	2,404	11,742	11,018	
	(7.0)	(5.9)	(3.0)	(8.0)	(8.0)	
대형 소매업체(할인마트, 백화점)	14,870	6,984	6,687	10,274	10,122	
	(7.0)	(6.0)	(8.3)	(7.0)	(7.0)	
소매상(지역 전통시장 포함)	16,950	6,632	6,250	13,209	11,568	
	(8.0)	(5.7)	(7.8)	(9.0)	(8.0)	
정부비축	3,560	1,570	1,485	1,280	1,446	
	(1.7)	(1.3)	(1.9)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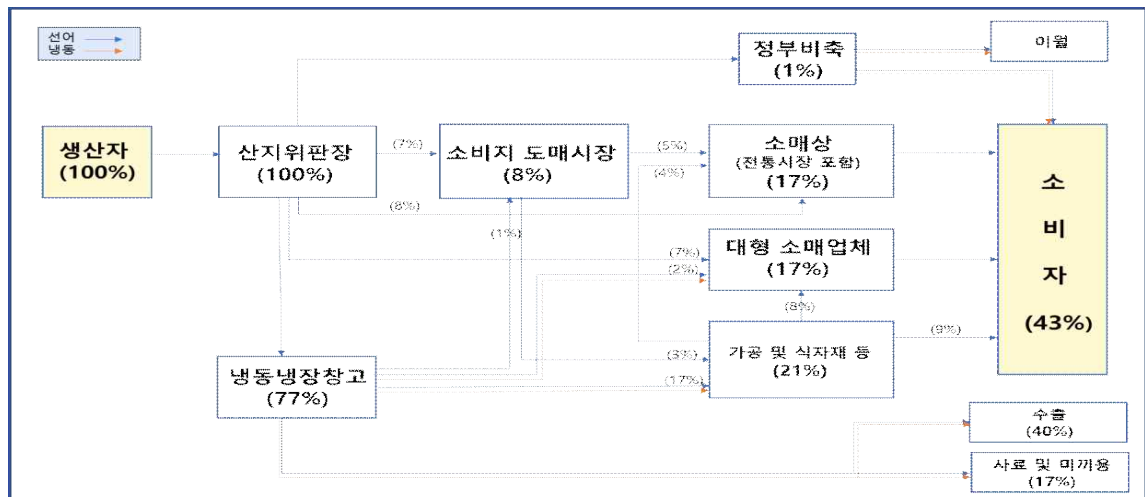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임.

-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를 거친 후 고등어의 약 77%가 냉동·냉장창고에 보관되며, 저장된 후 가공용(통조림, 식자재), 양식장 사료용, 어업 미끼용 및 수출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됨
 - 냉동·냉장창고에 보관되는 고등어 물량비중은 전년(75%)보다 소폭 증가했음. 이는 고등어 어획량이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가공 및 수출용 소형어 물량이 증해 소비지 도매시장 등으로 유통하기 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물량이 늘었기 때문임
 - 냉동·냉장창고에 보관 및 저장된 고등어 중에는 수출용(40%)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었으며, 전년(38%) 대비 늘었음. 다음으로는 사료 및 미끼용 등(17%)이었으며 소형어 및 망치고등어 어획량이 많아 전년(12%)보다 늘었음
- 산지 위판장에서 냉동·냉장창고를 거치지 않고 소비지도매시장(7%), 지역전통시장을 포함한 소매상(8%), 대형소매업체(7%)로 유통되는 비중은 23%로 추정되며 전년과 유사했음

- 소비지 도매시장에 위판된 고등어는 가공 및 식자재 등(3%)으로 유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소매상(5%)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었음
- 소매상(지역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위판받은 물량과 위판장에서 가공용으로 위판받은 물량이 함께 판매되었음
- 대형소매업체는 산지 위판장의 중도매인들을 통해 받는 물량이 대부분이었으며, 최근에는 가공된 고등어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가공용(8%)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한편, 2022년도 정부비축사업 수매한 고등어량은 771톤으로 어획량 감소로 전년(1,280톤) 대비 소폭 줄었음
- 결과적으로 고등어(선어)는 산지 위판장을 거쳐 냉동·냉장창고, 소비지 도매시장, 소매상(지역 전통시장), 대형소매업체, 정부비축 등으로 유통되는 구조로 전년도와 유사했음
- 그러나 소비자 선호가 높고 소비가 많은 중·대형어 생산이 감소했으며, 수출 및 가공, 사료용으로 소비되는 소형 고등어와 망치고등어 생산이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가 소비한 비중은 43%로 전년(49%)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됨

<그림 4-9> 고등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비중



주: 오차범위는 5% 내외이며, 고등어의 비계통출하 비율이 1.1%로 유통경로 산정 시 제외하였음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임

3. 고등어 유통비용

가. 고등어(선어)의 유통비용(부산 공동어시장 → 소비지 도매시장)

1) 산지 단계

- 2022년 어가 수취가격은 고등어 어획량 감소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어 감소로 전년 대비 30.9% 상승한 4,432원/kg이었음. 또한, 최근 고등어 생산량 감소로 2018년부터 연평균 13.2% 상승하였음
- 산지 위판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양륙 및 배열비, 야간부녀반 노임, 위판 수수료 등이며, 이는 생산자(선사)가 부담함
 - 양륙 및 배열반에 의해 고등어는 어선에서 육지로 옮겨지고, 야간부녀반이 고등어를 4호 목상자에 크기별·품질별 분류하여 적재하면, 배열반이 경매장으로 운송함
- 양륙 및 배열비(양배반) 노임은 부산공동어시장과 부산항운노동조합, 야간부녀반 노임은 대형선망수협과 부산항운노조 사이의 노임협약(매년 4~5월경)을 통해 결정되며, 연평균 5.6% 상승하였음
 - 2022년 양륙 및 배열비 노임은 고등어 적재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4호 목상자(18kg) 기준으로 전년(525원) 대비 상승한 540원임
 - 또한, 건강보험료, 복지기금, 국민연금, 산재기금, 퇴직충당금 등이 기본 노임에 추가 적용되어 양륙 및 배열반 노임은 상자당 약 715원으로 조사되었음
- 부산공동어시장의 위판수수료는 위판금액의 3.4%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음
 - 부산공동어시장 위판가격 및 대형선망수협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2022년 12월 평균 고등어(중품) 위판가격은 kg당 4,432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판수수료는 약 160원으로 추정되었음
 - 2022년 고등어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중·대형어 비중도 줄면서 중품 위판가격이 전년 대비 높게 형성되었음
- 경매 이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선별비, 상차비, 운반비 등을 포함한 노임과 어상자, 얼음, 물류비 등)은 산지 중도매인이 부담함
 - 경매 이후 목상자에 적재된 고등어를 크기별·품질별로 선별하여 덮개가 없

는 스티로폼 상자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주간부너반 노임은 스티로폼 10kg 상자 기준으로 약 71원으로 조사되었음

- 선별을 위한 비움 및 포장작업을 포함한 하조반과 운반을 위한 상차반의 노임은 약 94원이었음
-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서울 가락시장으로의 물류비용은 10kg 상자 기준으로 약 170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최근 5개년 연평균 2.9% 상승했음

○ 산지 중도매인이 이윤은 판매가격의 5%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산지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2년 12월 평균 산지 출하가격(판매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kg당 5,519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이에 산지 중도매인의 수수료(이윤)는 약 270원으로 전년(191원/10kg) 대비 높았음
- 그러나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최종 판매가격에서 산지 중도매인의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전년(1.9%)보다 소폭 높았으나 산지 판매가격 상승률보다 낮았음

2) 소비지 도매 단계

○ 소비지 중도매인은 고등어(선어)가 산지 위판장에서 소비지 도매시장(가락시장 등)을 경유할 때 발생하는 비용(상·하차비, 물류비, 경매 수수료, 간접비 등)을 부담함

- 소비지도매시장에 도착한 고등어를 내리는 하차비는 10kg 상자당 17원이었으며, 경매한 이후 소매상(전통시장 포함) 등으로 운송하기 위해 트럭에 싣는 비용(상차비)도 하차비와 동일한 10kg 상자당 17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음
- 운송할 때마다 고등어를 덮개가 없는 스티로폼 어상자에 얼음을 충분히 넣어 선어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어상자 및 얼음가격은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경매 이후 소비지도매시장(가락시장)에서 서울 소매시장으로 운송할 때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상자당 150원으로 전년(130원/10kg)보다 높았음

○ 가락시장 내 강동수산의 고등어 위탁 판매수수료³⁰⁾는 선어의 경우는 경락단가

30) 가락시장 내 강동수산의 고등어 위탁 판매수수료는 경락단가의 2~4% 내외(냉동 2~3%, 선어 4%)로 전년과 동일함

의 4%, 냉동은 2%로 전년과 동일했음

- 소비지도매시장의 위판가격은 2022년 12월 평균 kg당 5,766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소비지도매시장의 경매 수수료는 약 230.7원이었음
- 소비지 중도매인의 수수료(이윤)는 판매하기 전까지 발생한 비용을 제외하고 판매가격의 5%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aT KAMIS 소매가격 및 소비지 중도매인 조사가격을 바탕으로 2022년 12월 평균 소비지 중도매인의 판매가격은 kg당 7,010원이었음
 - 이에 소비지 중도매인의 수수료(이윤)는 약 308.6원으로 전년(285.8원/10kg)보다 높았음.

3) 소매 단계

- 소비지 소매상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얼음, 판매봉투, 집기 등을 포함한 직접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을 포함한 간접비로 구분하며, 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음
 - 직접비는 약 348원으로 전년(330원)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간접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5.7% 상승했으며, 전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9%였음
 - aT KAMIS 소매가격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2022년 고등어(선어) 소비자가격이 12월 평균 kg당 11,553원이었음. 이는 전년 대비 16.1% 상승했으며, 최근 5개년 연평균 15.1% 상승했음
 - 소비지 소매상의 이윤은 판매가격의 5% 이상으로 나타나 약 2,126원으로 추정되며, 최종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4%로 전년(19.6%)보다 낮았음

<표 4-19> 고등어(선어)의 유통비용(부산 공동어시장 → 소비지 도매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률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2,385	2,589	2,764	3,387	4,432	13.2	
산지 위판장	양륙·배열비	30	36	38	39	40	5.6	
	야간부녀반 노임	28	32	69	72	72	21.1	
	위판수수료	86	94	101	123	160	13.2	
	위판가격	2,529	2,751	2,972	3,621	4,704	13.2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스티로폼)	130	120	130	140	150	2.9	
	얼음대	45	49	60	60	60	5.9	
	노임	선별비(주간부녀반)	63	63	64	69	71	2.2
		비움작업, 포장, 상차반, 하조반, 운반비, 기타	41	51	92	92	94	2.2
	물류비	150	150	150	165	170	2.5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156	160	179	191	270	11.6	
	산지출하(판매) 가격	3,125	3,344	3,647	4,338	5,519	12.0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17	17	17	17	17	0.4	
	경매수수료	131	139	154	181	231	12.0	
	경매 낙찰가격	3,273	3,500	3,818	4,536	5,767	12.0	
소비지 중도매인	상차비	17	17	17	17	17	0.4	
	물류비	20	10	12	13	15	-5.6	
	간접비	348	639	845	864	903	21.0	
	이윤	193	234	248	286	309	9.9	
	중도매인 판매가격	3,850	4,400	4,939	5,716	7,010	12.7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159	258	329	330	348	17.0	
	간접비	688	1,475	1,696	1,957	2,069	24.6	
	이윤	1,017	1,696	1,804	1,949	2,126	15.9	
	판매가격	5,714	7,829	8,768	9,951	11,553	15.1	

주: 마리당 300~450g의 중품 기준으로, 조사시기는 각 연도별 12월 기준임

나. 고등어(선어)의 유통비용(부산 공동어시장 → 서울 대형소매업체)

1) 산지 단계

- 산지 위판장에서 대형소매업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의 유통비중은 전체 경로별 유통비중의 17%로 전년과 비슷했음
 - 가공된 고등어 수요가 꾸준히 높아 대형소매업체는 손질된 가공용 고등어의 구입이 비중이 증가 추세임
- 산지단계에서의 유통비용은 선어 상태로 위판 및 낙찰되어 유통되고, 경로별 유통비용은 대부분 동일했음
 - 그러나 대형소매업체에 판매되는 고등어의 경우에는 덮개가 있는 스티로폼 어상자(1,900~2,000원/10kg)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지도매시장에 판매할 때 보다 어상자대 비용이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고등어는 주간부녀반의 선별작업 시, 소비지도매시장과 달리 비닐을 깔고, 스티로폼 박스에 테이핑 작업을 하는 등 작업 공정이 많이 소요되어, 상자당 2,454원이었음
 - 이는 인건비가 전년(2,357원/10kg)보다 5.4% 상승했음. 또한, 최근 5개년 평균 4.3%씩 상승했음
- 산지중도매인은 낙찰받은 고등어를 대형소매업체의 물류센터로 운송하고, 대부분 물류비·물류대행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산지 위판장→대형소매업체의 물류센터]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물류비용 상자당 201원이었으며, [대형소매업체의 물류센터→각 지점(점포)]로 이동 시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납품가격의 6.5%~8.5%로 업체별로 상이하여 평균적으로 약 358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산지중도매인 판매가격이 kg당 6,326원이었으며, 판매수수료(이윤)은 약 532원으로 조사되어 최종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였음

2) 대형소매점 단계

- 대형소매업체는 점포 유지관리비(각종 세금 등), 인건비, 마케팅 비용, 택배비 등을 포함한 간접비를 부담함

- 간접비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이 상승하며 전년(3,389원/kg) 대비 상승한 약 4,085원이었음
- 고등어의 최종 소비자가격이 비용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상승한 kg당 12,338 원에 거래되었으나, 인건비 등 간접비가 상승하면서, 대형소매업체의 이윤은 작년보다 적었음
-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대형소매업체의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로 전년 (19.2%) 대비 감소했음

<표 4-20> 고등어(선어)의 유통비용(부산 공동어시장 → 서울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률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2,385	2,589	2,764	3,387	4,432	13.2	
산지 위판장	양륙·배열비	30	36	38	39	40	5.6	
	야간부녀반 노임	28	32	69	72	72	21.1	
	위판수수료	86	94	101	123	160	13.2	
	위판가격	2,529	2,751	2,972	3,621	4,704	13.2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스티로폼)	175	180	190	190	195	2.2	
	노임	선별비(주간부녀반)	87	87	91	102	108	4.3
		비움작업, 포장, 상차비 등(하조반)	84	84	87	93	96	2.8
		운반비	29	29	29	30	31	1.1
		기타(빙운반비 등)	10	10	10	10	11	0.9
	얼음	45	49	60	60	60	5.9	
	비닐	15	15	15	15	15	0.0	
	테이프	8	9	9	9	9	1.4	
	물류비	150	150	175	180	208	6.7	
	물류 대행비	249	308	311	350	358	7.5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178	331	493	514	532	24.5	
	산지출하(판매) 가격	3,560	4,004	4,443	5,175	6,326	12.2	
대형소매업 체	간접비	1,340	1,899	2,829	3,389	4,085	25.0	
	이윤	2,124	2,261	1,886	2,036	1,927	-1.9	
	판매가격	7,000	8,164	9,158	10,600	12,338	12.0	

주: 마리당 300~450g의 중품 기준으로 조사시기는 각 연도별 12월 기준임

다. 고등어(선어→동결)의 유통비(부산 공동어시장→소비지 도매시장)

1) 산지 단계

- 냉동·냉장창고에 동결·저장한 후 소비지 도매시장, 대형소매업체 그리고 수출 및 사료용 등으로 유통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산지위판장에서 고등어를 위판하고, 산지중도매인이 냉동·냉장창고에 동결하기 전까지의 산지단계 유통비용은 선어와 유사했음

2) 소비지 단계

- 산지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어시장에서 발생하는 노임, 상·하차비, 창고비용, 각종 부대비용(비닐, 파레트), 물류비 등이며,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최근 5개년 연평균 5~10%씩 상승하는 추세임
 - 선별된 고등어는 어상자에 담겨 동결처리를 위한 비닐을 깔아 포장되며, 파레트를 사용하여 창고로 이동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상·하차비는 20kg당 185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음
 - 냉동·냉장창고에 고등어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에 따른 동결비(850원/20kg)는 전년과 동일했으며, 입출고비 및 발취비는 각각 20kg당 284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음
- 소비지도매시장에서 서울 소매시장으로 이동 시 20kg당 740원으로 전년(700원/20kg) 대비 상승했음
 - 소비지 중도매인의 수수료(이윤)는 판매가격이 전년보다 높았으나, 인건비 등의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kg당 327원으로 전년 대비 낮았으며, 최종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로 전년(3.2%)보다 낮았음

3) 소매 단계

- 소비지소매시장의 유통비용은 얼음, 판매용 봉투, 집기 등을 포함한 직접비(3.7%) 및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 간접비(17.0%)로 전년 대비 상승했음
 - 소비지 소매상의 이윤은 kg당 1,583원이었으며, 비용 상승으로 최종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9%로 전년(15.3%)보다 낮았음

<표 4-21> 고등어(선어→동결)의 유통비(부산 공동어시장 → 소비자 도매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률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2,385	2,589	2,764	3,387	4,432	13.2	
산지 위판장	양륙배열비	30	36	38	39	40	5.6	
	야간부녀반 노임	28	32	69	72	72	21.1	
	위판수수료	86	94	101	123	160	13.2	
	위판가격	2,529	2,751	2,972	3,621	4,704	13.2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종이상자)	130	120	130	140	150	2.9	
	노임 (어시장)	주간부녀반 (선별비 등)	45	49	60	60	60	5.9
		하조반(남자노임)	18	18	28	31	32	11.8
		상차비	12	12	19	24	25	15.9
		상차시 추가노임 (파렛트 사용시)	10	10	10	10	10	0.0
		기타	15	15	15	15	15	0.0
	비닐	8	8	8	8	8	1.8	
	파렛트 비용	55	60	60	60	60	1.8	
	물류비	17	23	32	40	46	22.1	
	노임 (창고)	상차비	118	9	8	9	9	2.5
		하차비		9	8	9	9	2.5
	창고 (비용)	동결비		43	43	45	45	1.4
		입고비		11	11	13	14	6.6
		출고비		11	11	13	14	6.6
		발체비		11	11	13	14	6.6
	창고 보관료	40		45	45	45	50	4.6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121		166	217	207	214	12.2
판매가격	3,117	3,369		3,687	4,362	5,480	11.9	
소비자 도매시장	하차비	16		15	18	18	19	3.6
	경매수수료	62		50	74	85	101	10.5
	경매 낙찰가격	3,194		3,434	3,778	4,465	5,600	11.9
소비자 중도매인	상차비	16		15	18	18	18	3.3
	운반비	20		25	30	35	37	13.3
	간접비	68		782	800	819	837	65.5
	이윤	115		325	391	269	328	23.2
	중도매인 판매가격	3,412		4,582	5,017	5,605	6,820	14.9
소비자 소매상	직접비	160	253	311	320	393	19.7	
	간접비	619	1,202	1,384	1,411	1,799	23.8	
	이윤	1,151	1,374	1,353	1,290	1,583	6.6	
	판매가격	5,342	7,410	8,064	8,627	10,594	14.7	

주: 마리당 300~450g의 중품 기준으로 조사시기는 각 연도별 12월 기준임

라. 수입고등어(노르웨이산 냉동)의 유통비용(감천항 → 소비지 도매시장)

-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는 마리당 400~600g 크기가 주로 소비됨에 따라 전년에 이어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400~600g)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수입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국내 연안 고등어와 비교했을 때 맛, 가격 등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않아 노르웨이산 수요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되었음³¹⁾
 - 수입 냉동고등어는 대부분 피레트(순살)나 자반용으로 가공되며,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식당 등 외식업체보다 가정식 반찬용으로서의 소비가 많았음
- 전년과 유사하게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주 유통경로는 [수입업체 → 중간 유통업체 → 가공업체]를 거쳐 대형소매업체, 인터넷 및 홈쇼핑, 소비지 소매상 등으로 판매되었음
- 본 조사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강동수산)을 경유하는 경로인 수입업체 → 중간 유통업체 → [<소비지도매시장> → <소비지 중도매인>] → 소비지 소매상으로서의 유통실태를 살펴보았음

1) 수입 단계

- 노르웨이 냉동고등어의 수입관세는 10%이나, 국내 생산이 많은 고등어는 수입산 고등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 ; TRQ)³²⁾을 연간 500톤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해당 물량은 대형선망수협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TRQ 물량의 대부분은 2022년 12월 중 수입이 완료되었음
 - 그러나 고등어 TRQ 물량은 총 고등어 수입량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며, 수입산 고등어의 대부분은 노르웨이산이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본 조사에서는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관세율인 10%가 적용된 물량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31) 대형소매업체의 수산파트 바이어와의 인터뷰를 기초로 작성하였음

32) 국가별로 수입 민감 품목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배정, 관세 부분 감축, 양허 제외 등으로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고 있음

- 노르웨이 고등어의 주 어기는 10월 ~ 익년 1월까지로 2021년에 어획된 고등어는 해상으로 운송되며, 약 45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내에는 일반적으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함
 - 그러나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운송이 지연되면서 노르웨이산의 본격적인 반입이 예년보다 보름가량 늦어졌으며, 운송비 상승 및 환율 상승으로 수입량이 감소했음
 -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는 상자당 20kg으로 포장되어 수입되며, 40FT 컨테이너³³⁾당 약 24톤(1,195 상자³⁴⁾)이 적재되어 전년과 유사했음
- 수입업체는 CFR 가격(운임 포함 인도조건)에 관세 및 통관 비용을 추가하여, 이를 수입원가로 취급함
 - 2022년 노르웨이 냉동고등어의 CFR 가격은 전년 대비 약 28% 상승했음. 운임 포함 인도조건으로 톤당 가격은 전년과 유사했으나 환율 등으로 전년에 비해 높았음. 또한 최근 5개년 평균 8.7%씩 상승하는 추세임
 - 수입산 고등어를 통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서류작성비(Document Fee), 부두처리비(Terminal Handling Charges), 부두사용료(Wharfage), 컨테이너 청소비용(Container Cleaning Charges), 내륙운송비용(Trucking Charge), 통관수수료(Customs Clearance Fee), 검역수수료(Inspection Fee) 등으로 총 비용은 전년과 비슷한 kg당 38.6원이었음
 - 수입된 고등어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물류창고에 도착한 후, 물품내역이 기록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냉동 창고에 적재되며, 본 과정에서 LABEL 비용은 전년과 유사하나, 상·하차 노임(160원/20kg) 및 입·출고비(200원/20kg), 창고보관료³⁵⁾ 등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해 합하면 kg당 85.5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음
 - 노르웨이 고등어의 창고 비용은 10원(1일/20kg)으로 창고 보관일수가 동일할 경우 연근해 고등어(냉동)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33) 40피트 컨테이너의 사이즈는 12m(가로) X 2.35m(세로) X 2.39m(높이)임

34) 2021년 조사에서는 2020년과 동일한 1,195개(약 24톤)를 적재한 업체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35) 창고보관료는 상자당 1일 10~20원 수준으로 보관물량 및 수입업체의 신용도에 의해 차이를 보임

- 수입업체는 중간 유통업체에게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를 판매할 경우 20kg 상자 당 500~5,000원의 수수료(이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년과 유사한 판매가격의 5% 내외로 추정됨
 - 수입업체의 수수료(이윤) 비중은 CFR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데다 노임을 포함한 비용이 상승하면서 최종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전년(1.9%)보다 소폭 상승했음

2) 소비지 도·소매 단계

- 2022년 12월 기준으로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경락단가는 박스 당 74,000원 내외로 형성되었으며,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의 경락단가도 이와 유사했음
 - 소비지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하차비는 kg당 370원이었으며, 도매시장에서 서울 소매시장으로 유통할 때 발생하는 운송비는 kg당 740원으로 전년(650원/20kg)보다 높았음. 한편, 이 비용은 국산 연근해 고등어(냉동) 비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소비지 중도매인의 수수료(이윤) 비중은 운송비 및 간접비 상승 등으로 최종 판매가격의 2.5%를 차지하며 전년(2.8%)보다 다소 낮았음
- 수입고등어 소비지 소매상의 이윤 비중은 최종 판매가격의 12.1%로 전년(13.8%) 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전년보다 국내 연안 고등어 생산이 감소했으며, 수입가격(CFR 가격)도 전년에 비해 높게 형성되었음. 또한,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이 상승하면서 소비지 소매상의 유통마진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

<표 4-22> 수입고등어(노르웨이산 냉동)의 유통비용(감천항 → 소비지 도매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률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수입업체	수입원가	CFR 가격	2,041	2,547	2,215	2,426	3,101	8.7	
		수입관세	204	255	222	243	310	8.7	
		운송서류(BL) 발급비용	2	2	2	2	2	2.5	
		부두사용 및 처리비용	15	15	15	15	15	-0.5	
		컨테이너 청소비용	2	2	2	2	2	0.9	
		내륙운송비용	11	16	15	15	15	5.6	
		관세사 비용	5	4	5	5	5	1.2	
		통관수수료							
		검역수수료							
		소계	2,280	2,841	2,475	2,707	3,450	8.6	
		LABEL 비용	1	2	2	2	2	13.4	
	참고비용	노임	LABEL부착비		3	3	3	3	1.9
			상차비	17	9	8	8	8	
			하차비		9	8	8	8	
		입고비	9	9	10	10	10	1.7	
		출고비	9	9	10	10	10	1.7	
		참고보관료(90일기준)	45	45	45	45	48	1.3	
	수입업자 수수료(이윤)	124	45	134	147	187	8.6		
	판매가격	2,493	2,970	2,692	2,940	3,726	8.4		
도매업자	운송비	150	150	150	165	168	2.3		
	중도매인 수수료	138	50	150	163	207	8.4		
	판매가격	2,781	3,170	2,992	3,268	4,100	8.1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16	15	18	18	19	3.6		
	경매수수료	57	65	61	67	84	8.0		
	경매 낙찰가격	2,854	3,250	3,071	3,353	4,203	8.0		
소비지 중도매인	상차비	15	15	18	18	18	3.7		
	운송비(물류비)	25	25	30	33	37	8.2		
	간접비	371	361	800	1,056	1,056	23.3		
	소비지 중도매인 이윤	177	187	206	210	260	8.0		
	판매가격	3,441	3,838	4,125	4,670	5,574	10.1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148	215	275	357	364	19.7		
	간접비	808	1,027	1,180	1,362	1,565	14.1		
	이윤	1,042	821	1,652	1,025	1,029	-0.2		
	판매가격	5,439	5,901	7,231	7,414	8,532	9.4		

주: 조사대상은 마리당 400~600g 크기이며, 조사시기는 각 연도별 12월 기준임

제3절 명태 유통실태조사

1. 명태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및 계통출하 동향

- 명태는 2019년부터 연근해에서 포획을 연중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수급은 러시아 해역에서 쿼터를 확보하여 조업하는 원양산과 미국 및 러시아 등 수입하는 수입산으로 이루어져있음

<그림 4-10> 연도별 명태 생산량 추이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생산량은 전량 원양산이었으며 전년 대비 22.3% 감소한 21,591톤이었음
- 원양산은 한-러 어업위원회를 통해 매년 명태 조업할당량(쿼터)을 배정받아 조업하며, 2022년에는 전년과 같이 원양트롤어선 3척이 베링해에서 조업했음
 - 2022년 우리나라에 배정된 명태 조업쿼터는 28,500톤으로 전년(28,400톤)보다 소폭 증가했음
- 한-러 어업위원회의 원양명태 입어 협상은 조기에 타결되었으나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전년(6월) 및 평년(5월)보다 늦은 7월부터 조업을 시작했음
- 이에 어획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6~7월에 조업을 하지 못한 영향으로 누적 어획량이 감소했음

- 2022년 쿼터 소진률은 전년(97.8%)보다 크게 감소한 97.8% 였음
- 2022년 명태 생산금액은 작년 대비 22.3% 감소한 310억 원으로, 거의 대부분 원양어업 생산이였음

<표 4-23> 연도별 어업별 명태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총생산량	일반해면		원양	
			비중		비중
1990년	331,974	9,798	3.0	322,176	97.0
1995년	343,713	6,903	2.0	336,810	98.0
2000년	86,832	766	0.9	86,066	99.1
2005년	26,029	25	0.1	26,004	99.9
2010년	46,795	1	0.0	46,794	100.0
2017년	23,498	1	0.0	23,497	100.0
2018년	24,002	9	0.0	23,993	100.0
2019년	23,916	0	0.0	23,915	100.0
2020년	27,196	0	0.0	27,196	100.0
2021년	27,779	0	0.0	27,779	100.0
2022년	21,591	0	0.0	21,591	100.0
5개년 평균	25,278	2	0.0	25,276	100.0
전년 대비	-22.3	-	-	-22.3	0.0
평년 대비	-14.6	-100.0	-	-14.6	0.0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24> 연도별 어업별 명태 생산금액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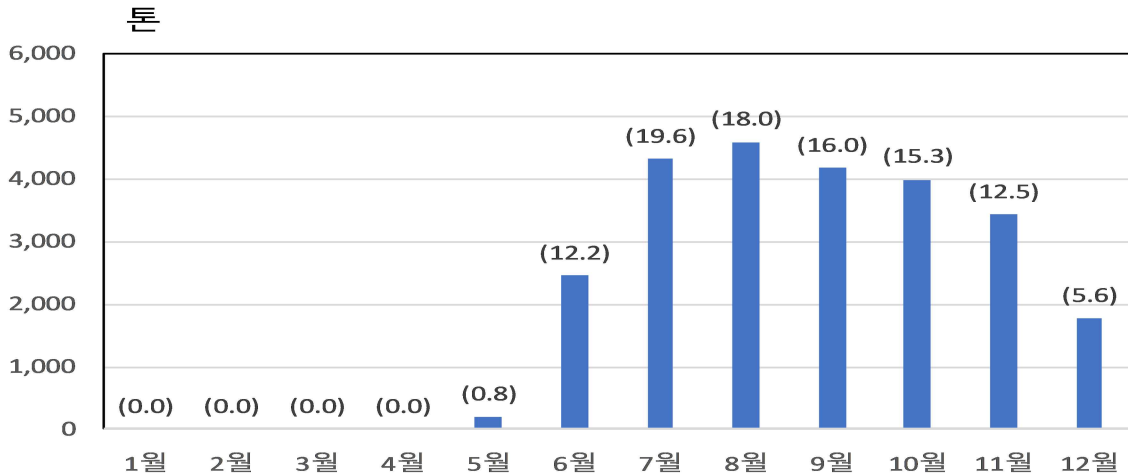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구분	총생산금액	일반해면		원양	
			비중		비중
1990년	70,646	8,812	12.5	61,834	87.5
1995년	112,000	19,626	17.5	92,374	82.5
2000년	75,458	3,585	4.8	71,873	95.2
2005년	26,962	206	0.8	26,756	99.2
2010년	64,378	19	0.0	64,359	100.0
2017년	25,062	38	0.2	25,024	99.8
2018년	25,665	112	0.4	25,553	99.6
2019년	27,336	2	0.0	27,335	100.0
2020년	39,018	0	0.0	39,018	100.0
2021년	39,919	0	0.0	39,919	100.0
2022년	31,026	0	0.0	31,026	100.0
5개년 평균	31,400	30	0.1	31,382	99.9
전년 대비	-22.3	-	-	-22.3	0.0
평년 대비	-1.2	-100.0	-100.0	-1.1	0.1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명태의 월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5월에 생산을 시작하여 12월에 종료되었으며, 주 어기는 6월~12월로 연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함

<그림 4-11> 월별 명태 생산량 추이(최근 5년 평균)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월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최근 5년 평균 추세와 많이 달라졌음. ‘러-우’사태로 인한 입어 지연으로 2달이나 늦은 7월부터 조업을 시작했으며, 9월 생산량이 가장 많았으나 12월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였음. 혹한으로 조업환경이 좋지 못하여 조업을 꺼리는 12월 생산량은 평년 및 전년보다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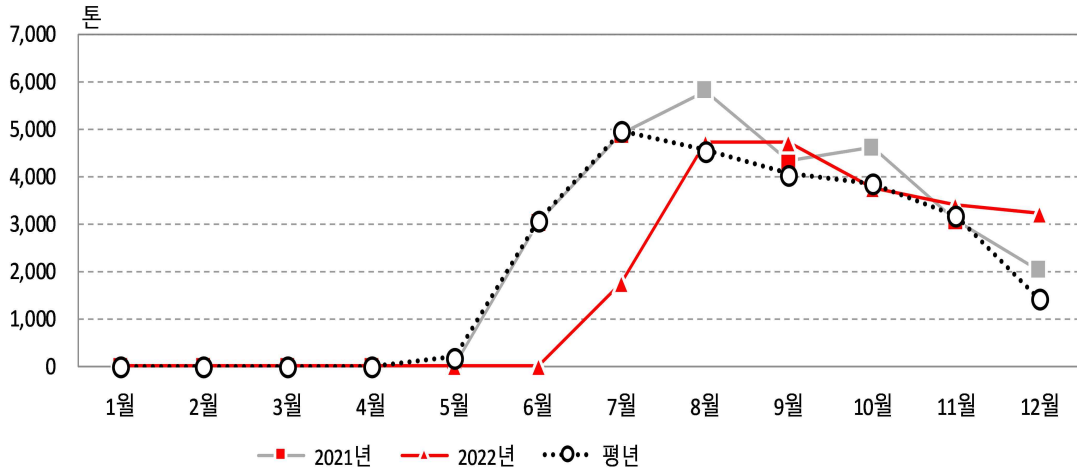
<표 4-25> 연도별·월별 명태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0	0	0	0	0	0	0	-	-
2월	0	0	0	0	0	0	0	-	-
3월	0	0	0	0	0	0	0	-	-
4월	0	0	0	0	0	0	0	-	-
5월	0	323	182	499	0	0	201	-	-100.0
6월	3,136	1,754	4,112	3,328	3,039	0	2,447	-100.0	-100.0
7월	4,951	3,622	5,789	5,503	4,887	1,756	4,311	-64.1	-64.5
8월	4,492	4,847	2,981	4,600	5,799	4,707	4,587	-18.8	3.6
9월	4,160	4,442	3,280	4,034	4,340	4,726	4,164	8.9	16.7
10월	3,120	5,181	3,368	3,028	4,606	3,770	3,991	-18.2	-2.3
11월	2,146	3,654	2,882	4,072	3,091	3,413	3,422	10.4	7.7
12월	1491	170	1322	2,133	2,017	3,218	1,772	59.5	125.6
합계	23,496	23,993	23,916	27,197	27,779	21,590	24,895	-22.3	-14.6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그림 4-12> 월별 명태 생산량 추이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부류별 명태 생산량은 연근해 포획 금지로 선어 명태 생산량은 없었으며, 전량 원양생산으로 반입된 냉동명태였음

<표 4-26> 연도별 부류별 명태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비중	평균
활어	0	0	0	0	0	0	0	0
선어	1	9	0	0	0	0	0	2
냉동	23,497	23,993	23,915	27,196	27,779	21,591	100	25,276
합계	23,498	24,002	23,915	27,196	27,779	21,591	100	25,278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어법별로는 원양산 명태 전량이 원양트롤어업으로 어획되었으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소재한 부산지역으로 반입되어 비계통으로 출하되었음

나. 수출입 현황

- 2016~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명태 수출량은 2만 톤 이하에 불과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 감소로 중국의 명태 가공품 수요도 줄어들어 1만 톤이 채 되지 않았음

- 그러나 2021년에 들어 명태 수출량은 14만 톤 이상을 기록하였음
 - 이는 2021년부터 중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검역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이 제한되었고, 중국으로 양륙하지 못한 러시아산 명태가 한국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재수출되었기 때문임
- 전년부터 이어진 동향이 2022년에도 지속되며 연간 수출량은 20만 9,127톤으로 최근 10년 내에 가장 많았음
 - 이러한 상황은 2021년 7월부터 이어져 2022년 말까지 계속되었으나 연말에는 차츰 감소세를 보였음
- 2022년에는 명태 수입량 역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양인 379,785톤이었음
 - 이는 국내 소비를 위한 명태 수입뿐 아니라 對중국 재수출용 러시아산 냉동 명태의 수입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임
 - 또한 공급 우려를 해소하고자 추가 쿼터를 구매하여 어획한 러시아 합작 선사로부터 수입량이 늘었기 때문임
 - 그러나 수입량 중 재수출용 물량을 제외하면 국내 소비를 위한 수입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음
- 수입단가는 kg당 1.49달러로 전년보다 18.1% 하락했으며, 이는 단가가 낮은 가공용 원료인 중국 재수출용 명태 물량이 많았기 때문임

<표 4-27> 연도별 명태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7년	8,309	12,568	1.51	252,084	349,885	1.39
2018년	11,479	17,939	1.56	248,026	362,059	1.46
2019년	13,947	22,234	1.59	174,018	295,808	1.70
2020년	5,693	11,040	1.94	203,585	336,578	1.65
2021년	140,669	148,892	1.06	315,886	433,771	1.37
2022년	209,127	261,843	1.25	379,785	616,041	1.62
5개년 평균	36,019	42,534	1.18	238,720	355,620	1.49
전년 대비	48.7	75.9	18.3	20.2	42.0	18.1
평년 대비	480.6	515.6	6.0	59.1	73.2	8.9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제품유형별 수출 비중은 냉동명태가 9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냉동필렛(1.8%) 등 다른 유형의 수출량은 미미했음
 - 수출금액은 냉동(93.4%), 냉동필렛(4.1%), 냉동연육(1.4%) 등의 순이었음
- 수입 역시 냉동이 8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증가했고, 냉동연육(6.1%), 냉동필렛(5.7%) 등은 전년 대비 감소했음
 - 수입금액은 냉동(57.5%), 냉동연육(16.3%), 냉동필렛(11.6%), 건조(11.4%) 등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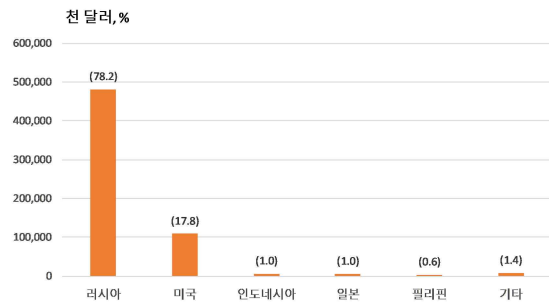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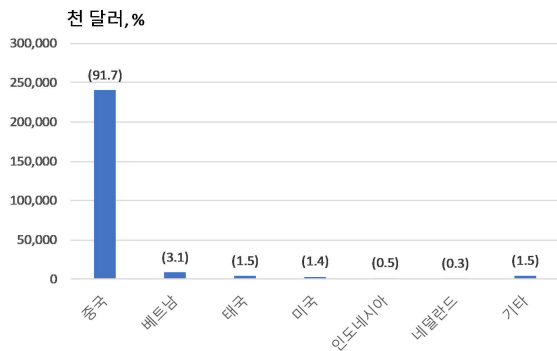
<표 4-28> 제품유형별 명태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단위: 톤, 천 불, %

명칭	HS CODE	수출				수입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신선·냉장	0302550000	1	0.0	0.8	0.0	1,628	0.4	5,430	0.9
냉동	0303670000	202,196	97.5	241,793	93.4	323,758	85.7	352,662	57.5
냉동연육	0304941000	1,060	0.5	3,539	1.4	23,084	6.1	100,241	16.3
냉동필렛	0304750000	3,769	1.8	10,677	4.1	21,406	5.7	71,060	11.6
훈제	0305492000	8	0.0	120.9	0.0	7.2	0.0	70.6	0.0
건조	0305531000	255	0.1	2,483	1.0	6,586	1.7	70,230	11.4
기타	0304949000	7	0.0	138.3	0.1	1,528.90	0.4	13,712.60	2.2
합계		207,297	100.0	258,752	100.0	377,998	100.0	613,406	100.0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그림 4-13> 국가별 명태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국가별 수출>

<국가별 수입>

주: ()는 수출입 금액 비중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2021년 명태 수출대상국은 57개국으로 전년(48개국)에 비해 증가했으며, 수출금액 기준 주요 대상국은 중국(91.7%), 베트남(3.1%), 태국(1.5%), 미국(1.4%) 등의 순이었음
- 한편 명태 수입은 23개국으로 전년(6개국)보다 늘었으며, 수입국별 수입금액 비중은 러시아(78.2%), 미국(17.8%), 인도네시아(1.0%) 및 일본(1.0%) 등의 순이었음

다. 수급 구조

- 연간 명태 소비량은 국내 수산물 소비량 중 가장 많은 품목 중 하나인 30~40만 톤 규모이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급률은 10% 미만임
- 2022년 명태 공급량은 654,412톤으로 러시아산 중국 재수출용 냉동명태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7.9%, 평년에 비해서는 26.3% 많았음

<표 4-29> 연도별 명태 수급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2017년	23,498	417,550	102,962	544,010	432,032	12,579	99,399	5.4
2018년	24,002	414,650	99,399	538,051	420,073	13,635	104,343	5.7
2019년	23,915	326,173	104,343	454,431	371,336	15,149	67,946	6.4
2020년	27,196	353,487	67,946	448,629	353,675	7,711	87,243	7.7
2021년	28,314	491,045	87,243	606,602	343,500	156,350	106,217	8.2
2022년	20,821	527,374	106,217	654,412	340,926	224,085	89,401	6.1
5년 평균	25,385	400,581	92,379	518,345	384,123	41,085	93,030	6.6
전년 대비	-26.5	7.4	21.7	7.9	-0.7	43.3	-15.8	-26.5
평년 대비	-18.0	31.7	15.0	26.3	-10.6	445.4	-3.9	-8.3

주: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이입, 이월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 입출하동향 조사
 4)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 명태 소비량은 2019년 이후 40만 톤 이하로 감소했으며, 2022년 국내 소비량은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340,926톤으로 전년과는 비슷했으나 평년 대비 10.6% 적었음
- 이월재고는 전년보다 15.8% 감소한 89,401톤이었으며, 이는 2022년 말에 들어 중국이 리오프닝됨에 따라 러시아산 재수출용 물량이 줄었기 때문임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명태 산지가격은 부산지역에서 형성되는 원양산 비계통 출하 가격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가격은 kg당 1,304원이었음
 - 산지가격은 주로 원양산 반입이 시작되는 5월부터 시작되지만, ‘코로나19’ 검역 절차로 인해 감독관 승선이 늦어진 전년에는 6월에 형성되었으며, ‘러-우’사태로 입어가 지연된 2022년에는 7월부터 형성되었음
- 2022년 산지가격은 전년과 같은 1,437원이었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16.9% 높았음

<표 4-30> 연도별·월별 명태 산지가격 동향(냉동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	-	-	-	-	-	-	-	-
2월	-	-	-	-	-	-	-	-	-
3월	-	-	-	-	-	-	-	-	-
4월	-	-	-	-	-	-	-	-	-
5월	-	1,065	1,140	1,436	-	-	1,214	-	-
6월	1,065	1,065	1,143	1,437	1,437	-	1,271	-	-
7월	1,065	1,065	1,143	1,437	1,437	1,437	1,304	0.0	16.9
8월	1,065	1,065	1,143	1,437	1,437	1,437	1,304	0.0	16.9
9월	1,065	1,065	1,143	1,437	1,437	1,437	1,304	0.0	16.9
10월	1,065	1,065	1,143	1,437	1,437	1,437	1,304	0.0	16.9
11월	1,065	1,065	1,143	1,437	1,437	1,437	1,304	0.0	16.9
12월	1,065	1,064	1,143	1,437	1,437	1,437	1,304	0.0	16.9
연평균	1,065	1,065	1,143	1,437	1,437	1,437	1,304	0.0	16.9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 도매가격

- 2022년 냉동명태 도매가격은 kg당 2,525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6.4%, 18.3% 높았음
 - 이는 이월 재고가 적어 가격이 상승했던 2020년(kg당 2,592원)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산 명태 수입과 원양어업 입어 등이 불투명해지면서 국내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도매가격은 3월부터 6월까지 급등했으나 원양어선이 입어를 시작한 7월~11월까지 하락세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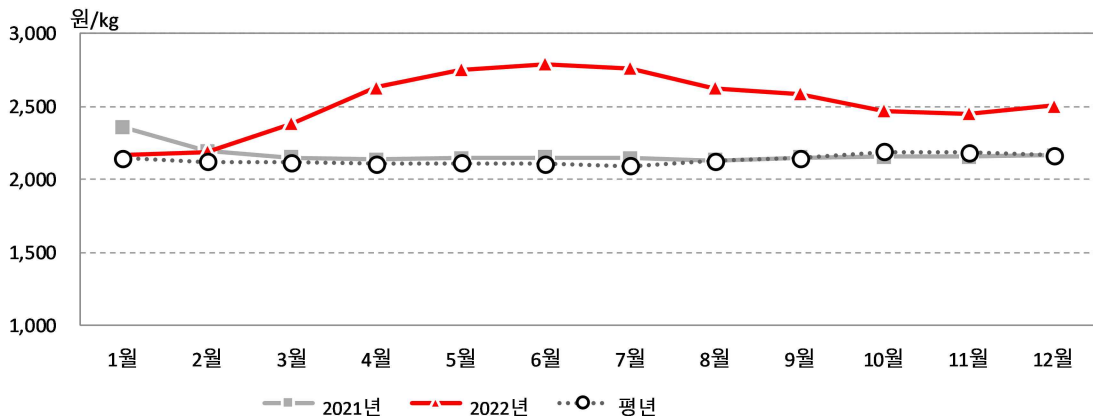
<표 4-31> 연도별·월별 명태 도매가격 동향(냉동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2,021	1,948	1,853	2,537	2,357	2,165	2,172	-8.1	1.0
2월	2,031	1,930	1,830	2,614	2,194	2,188	2,151	-0.3	3.2
3월	2,025	1,947	1,830	2,636	2,150	2,384	2,189	10.9	12.6
4월	2,027	1,980	1,747	2,650	2,136	2,628	2,228	23.0	24.7
5월	2,040	1,980	1,724	2,678	2,145	2,750	2,255	28.2	30.1
6월	2,051	1,979	1,690	2,660	2,152	2,790	2,254	29.6	32.5
7월	2,068	1,960	1,720	2,559	2,143	2,761	2,229	28.8	32.1
8월	2,070	1,960	1,878	2,595	2,129	2,627	2,238	23.4	23.5
9월	2,047	1,942	1,950	2,645	2,150	2,585	2,254	20.2	20.4
10월	2,038	1,960	2,214	2,587	2,156	2,471	2,278	14.6	12.8
11월	2,010	1,905	2,360	2,499	2,156	2,452	2,274	13.7	12.2
12월	1,961	1,830	2,425	2,447	2,166	2,502	2,274	15.5	15.5
연평균	2,032	1,943	1,935	2,592	2,170	2,525	2,233	16.4	18.3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3) 냉동명태 중품(20kg) 도매가격을 1kg 단위로 환산하였음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14> 월별 명태 도매가격 추이(냉동 기준)



주: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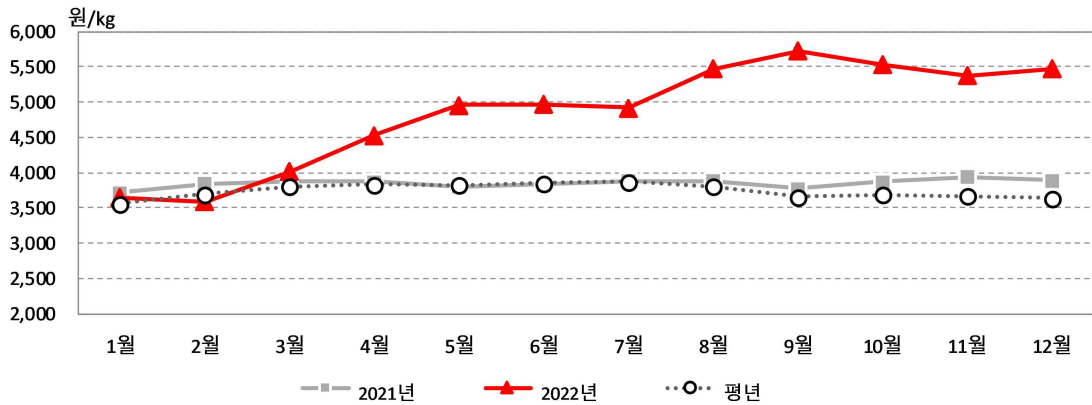
3) 소비자가격

- 2022년 냉동명태 소비자가격은 kg당 4,851원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26.0%,

29.6% 상승했음

- 공급 우려로 3월부터 도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가격 또한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정부비축물량 방출이 어한기, 추석뿐만 아니라 상시방출 되었고, 7월부터의 도매가격 하락 영향이 점차 반영되며 9월부터 하락세를 보였음
- 그러나 연말까지도 여전히 전년 및 평년에 비해 40%가량 높은 수준이었음

<그림 4-15> 월별 명태 소비자가격 추이(냉동)



주: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표 4-32> 연도별·월별 명태 소비자가격 동향(냉동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533	3,836	3,222	3,496	3,718	3,645	3,583	-2.0	2.4
2월	3,610	3,825	3,393	3,797	3,842	3,588	3,689	-6.6	-2.9
3월	3,707	3,870	3,788	3,801	3,872	4,018	3,870	3.8	5.5
4월	3,699	3,879	3,843	3,851	3,876	4,530	3,996	16.9	18.3
5월	3,730	3,921	3,775	3,887	3,800	4,960	4,069	30.5	29.7
6월	3,754	4,127	3,622	3,901	3,837	4,969	4,091	29.5	29.1
7월	3,797	4,097	3,699	3,893	3,887	4,919	4,099	26.6	27.0
8월	3,806	4,046	3,478	3,819	3,887	5,472	4,140	40.8	43.7
9월	3,737	3,764	3,175	3,863	3,776	5,727	4,061	51.7	56.3
10월	3,660	3,701	3,361	3,857	3,870	5,530	4,064	42.9	49.9
11월	3,558	3,557	3,472	3,813	3,940	5,381	4,033	36.6	46.7
12월	3,679	3,575	3,422	3,636	3,888	5,478	4,000	40.9	50.5
연평균	3,689	3,850	3,521	3,801	3,849	4,851	3,974	26.0	29.6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3) 냉동명태(중품) 소비자가격은 1마리(580g) 가격으로 제공되며, 이를 1kg 단위로 환산하였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2. 명태 유통구조

가. 유통경로

- 국내에서 유통되는 냉동명태는 크게 원양산과 수입산으로 구분됨. 특히 냉동명태는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어획되고 있으며, 수입 물량 중 일부가 미국에서 어획됨. 그리고 미국산 가운데는 필렛, 연육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국내 냉동명태 공급은 합작선사에 의한 러시아산 수입 물량이 대부분임
 - 2021년을 제외한 평년의 경우 국내에 공급되는 냉동명태는 20만 톤 정도였으나 2021년의 경우 중국 채수출용 수입량이 크게 증가해 30만 톤가량이 수입되었음
- 냉동명태는 전량 트롤어업으로 어획되며, 어획 후 선상에서 냉동되어 감천항으로 양륙되는데, 여기중에는 운반선, 어기 종료 후에는 본선을 이용하여 부산항으로 운반됨
- 수입을 제외한 원양산은 국내 원양선사가 입어료를 지급하고 러시아수역에서 조업한 물량이며, 어획 이후 부산항으로 반입되며 그 물량은 조업할당량(쿼터)과 어획 동향에 따라 다르나 대략 2만 톤임
 - 3~4월경 러시아 어업위원회를 통해 조업할당량(쿼터)이 정해지면 5월말~6월초 베링 해에서 조업이 시작되며, 해상 여건과 쿼터 소진에 따라 12월까지 조업함
 - 2021년 배정된 쿼터는 28,400톤이었으며, 전년의 경우 선원들의 코로나19 검역 문제로 조업 시작이 늦어졌으나, '21년에는 평년과 비슷한 5월부터 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
- 수입산은 러시아와의 합작(선사) 등을 통해 국내로 수입되고 있음
 - 합작선은 매년 1월 1일~4월 9일까지 러시아 오토츠크 해에서 명태 A시즌 조업을 함
 - 이후 부산항으로 돌아와 어선 수리, 정비, 선용품 등을 공급받은 후 5월말~6월초부터 명태 B시즌 베링 해 조업이 시작됨
 - 2021년에는 극동수산, 동남수산 등 7개사 소속에서 11척의 트롤어선이 합작조업을 했음
- 한편 미국산 명태 수입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수입 쿼터 물량(TRQ)³⁶⁾이 적용되어 선착순 방식을 통해 무관세로 수입됨

36) HS코드 0303-67-0000, 0303-69-9000, 0303-99-0000을 대상으로 적용됨

- 원양산 및 수입산 냉동명태의 경우 국내 반입 후 두 가지 경로를 통해 1차 도매업자에게 유통됨. 2021년에도 선사 자체 경매(시장 외 경로)와 법인도매시장 경매 비율이 각각 27%, 73% 정도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국내로 반입된 명태는 보세창고에 보관되며, 사내 입찰 또는 경매를 통해 1차 도매업자로 소유권이 이전됨
- 경매는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며, 합작수산물³⁷⁾의 경우는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별로 관세감면 추천 물량을 배정하여 관세가 면제됨
- 1차 도매업자(선사)는 2차 도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소비지시장, 식자재 업체, 명태 가공공장 등으로 판매함
 - 소비지시장은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등이며, 식자재 업체로는 명태포, 절단명태 등이 유통되며, 가공공장용은 강원도 동해안 일원에서 북어, 황태, 코다리 등을 가공하는 용도임
 - 최근에는 1차 도매업자가 2차 도매업자의 역할을 겸하는 추세인데, 선사로부터 직접 구매 후 용도(공장, 급식, 소비지 등)에 따라 도매업자별로 용도가 더욱 세분화하여 판매함. 그리고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선사가 직접 판매하기도 함
 - 1차 도매업자가 냉동명태를 판매한 이후에도 물건 자체는 냉동냉장창고에서 보관되는 경우가 많음. 소규모 가공업체는 1차 중매인을 통해 부산에서 명태 매입 후 부산 냉동냉장창고에서 가공(할복) 전까지 보관을 함
- 러시아산 명태는 팬으로 냉동시켜 BAG에 포장되어 국내로 반입됨. 팬의 규격은 큰 팬(21.5kg), 작은 팬(11.5kg)으로 나누어짐
 - 작은 팬(11.5kg)을 이용하는 이유는 급속동결을 통해 더 좋은 선도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함인데, 비용적인 면에서 용이한 것은 아님
 - 그러나 작은 팬으로 동결된 제품의 경우 해동 후 상품을 진열할 때 손실(LOSS)이 적기 때문에 대형소매업체에서 선호함
 - 작은 팬으로 동결된 명태는 생산량의 10%~20%정도로, 선사가 대형소매업체와 계약하여 이용하고 있음
- 원양산과 수입산(합작생산) 명태의 가격은 비슷한 수준임. 그러나 조업시기 및 조업해역에 따라 용도와 가격에 차이가 발생함

37)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50호,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 원양산 및 수입산 명태 모두 동일 어장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어획 및 선상 동결되기 되며, 수입산의 경우도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없음
- 그러나 A시즌 오호츠크해에서 어획된 명태(포란태)는 체장이 베링해 명태보다 길며, 대부분 황태로 가공되어 판매됨. 또한 명란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비쌈
- 반면 B시즌 베링해에서 조업된 명태는 가공용보다 시판용으로 선호됨
- 명태 규격은 3통~16통으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표준규격은 8통(34마리~36마리)~9통(42마리~45마리) 크기임
- 품질은 팬 단위로 급냉 시 명태의 배열 형태(휩 정도), 글레이징, 선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통수(크기)별 사용 용도는 <표 4-36>과 같음
- 특히 원양 및 합작선사에서 작업하는 명태는 크기별로 구분되어 냉동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해외선사의 명태보다 국내 유통업자들이 더 선호함

<표 4-33> 북양 명태 통수별 사용 용도

구분(마리수)	오호츠크해 명태	베링해 명태	비고
3통 (12)	포	포	베링 제품 선호
4통 (16)	포, 시장판매 (토막 판매)	포, 시장판매(토막), 묵호태(묵호지역 황태 생산)	베링 제품 선호
5통 (20)	황태(채란작업, 제사포)	묵호태	오호츠크 제품 선호
6통 (24)	황태(채란작업, 제사포) 일부 시판	묵호태	오호츠크 제품 선호
7통 (29~30)	황태(통말이 판매) 일부 시판(식당)	먹태(할복, 기계건조, 뼈제거), 일부 시판(식당)	황태: 오호츠크 제품 선호 먹태: 베링 제품 선호
8통 (34~36)	황태(채, 통말이 묶음판매), 일부 시판(식당), 갈끔코다리(할복 후 건조)	먹태(할복, 기계건조, 뼈제거), 일부 시판(식당)	베링 제품 선호
9통 (42~45)	갈끔코다리(할복 후 건조), 일부 시판	갈끔코다리(할복 후 건조), 일부 시판	베링 제품 선호
10통 (52~54)	냉코다리(할복 후 동결) 일부 시판	냉코다리(할복 후 동결) 일부 시판	베링 제품 선호
11통 (59~62)	냉코다리(할복 후 동결)	냉코다리(할복 후 동결)	베링 제품 선호
12통 (70~75)	냉코다리(할복 후 동결)	냉코다리(할복 후 동결)	베링 제품 선호
13통 (80~90)	-	엿걸이(자연풍 건조, 영덕)	-

구분(마리수)	오호츠크해 명태	베링해 명태	비고
14~16통 (100 이상)	-	노가리 (삼척, 묵태로 대체중)	-

자료: 원양선사 A사 내부자료., 2019

나.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2021년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된 냉동명태는 러시아 해역에서 어획되어 반입된 원양산 2만 821톤과 수입산 냉동명태 30만 8,934톤으로 총 32만 9,755톤이었음
 - 그러나 이 물량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을 추정할 경우 전년 및 평년과 동등 비교가 불가능한 실정임
 - 따라서 수입량 중 對중국 재수출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수입된 명태 물량 200,853*톤을 제외하면, 국내 유통 물량은 전년(136,506톤)보다 감소한 12만 6,902톤으로 추정됨
 - * 자료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외화획득용 원료 및 제품
- 2022년 원양산 명태 어획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조업할당량(쿼터) 소진율도 크게 줄었음
 - 러시아 어업위원회로부터 배정받은 2022년산 조업할당량(쿼터)은 전년(28,400톤)보다 소폭 증가한 2만 8,500톤이었음
 - 그러나 ‘러-우’사태로 인해 조업 시작 시점이 전년 및 평년보다 2달 가까이 늦어져 12월 말까지 조업이 이어졌으나 최종 쿼터 소진율은 전년(97.8%)보다 크게 감소한 75.9%에 불과했음

<표 4-34> 냉동명태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17-2021년)

단위: 톤,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내 반입 및 수입		220,305 (100.0)	153,061 (100.0)	187,076 (100.0)	157,992 (100.0)	126,902 (100.0)
정부비축 수매 물량		15,995 (7.3)	12,442 (8.1)	7,514 (4.0)	14,590 (9.2)	17,901 (14.1)
군납 수매 물량		2,400 (1.1)	2,000 (1.3)	1,946 (1.0)	1,900 (1.2)	1,699 (1.3)
1차 도매업자 유통	2차 도매업자유통	79,310 (36.0)	15,124 (9.9)	14,779 (7.9)	7,565 (4.8)	3,658 (2.9)
	소비지도매시장 및 전통시장	-	19,638 (12.8)	19,269 (10.3)	8,893 (5.6)	5,487 (4.3)
	대형소매업체(대형마트, 백화점 등)	6,609 (3.0)	6,609 (4.3)	9,466 (5.1)	8,340 (5.3)	4,573 (3.6)
	가공업체	104,976 (47.7)	76,530 (50.0)	116,174 (62.1)	101,946 (64.5)	77,739 (61.3)
	대량수요처 (급식, 식자재, 수출 등)	11,015 (5.0)	20,718 (13.5)	17,928 (9.6)	14,758 (9.4)	15,844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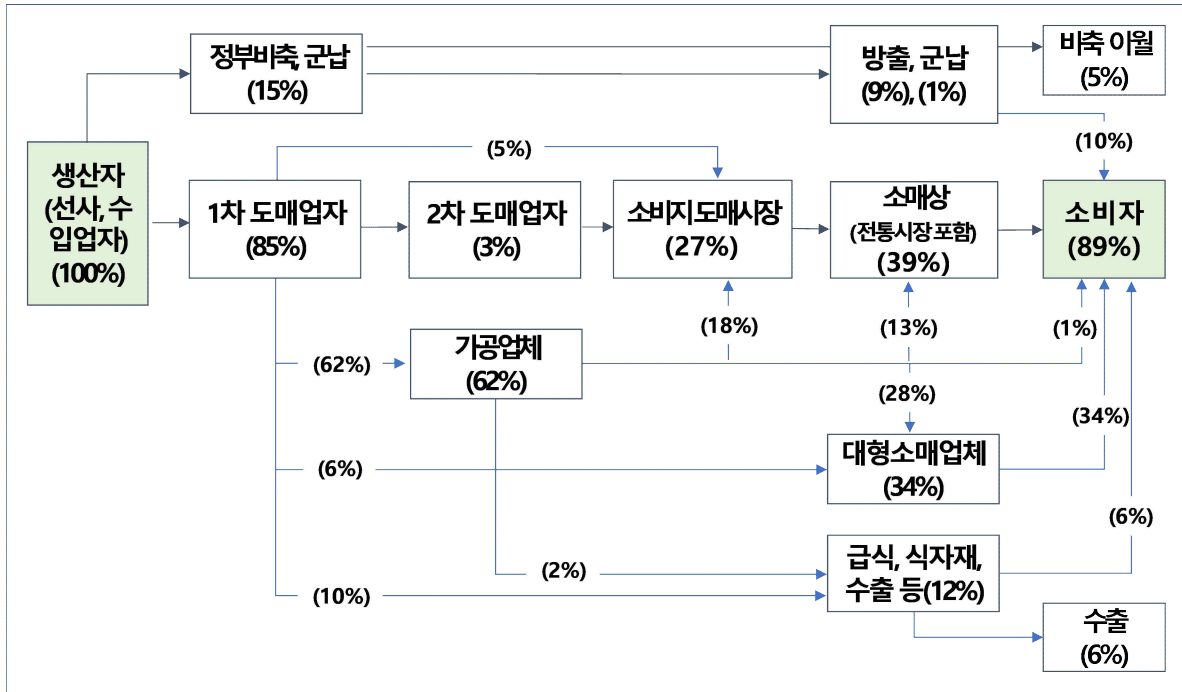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원양선사, 1차·2차 도매업자,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 2022년 냉동명태 유통경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비축 수매물량 비중이 늘고, 급식 등 대량수요처의 비중도 늘었으나, 소매상 및 대형소매업으로 유통된 비중은 감소했다는 것임
 - 2022년 공급 우려로 인한 도소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는 정부비축 물량 방출 할인행사를 이용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따라서 전년에도 2020년 대비 증가했던 정부비축 수매물량은 2022년에 17,901톤으로 작년(12,559톤)보다 증가했으며 유통비중 또한 전년(9.2%)보다 늘은 14.1% 였음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완화됨에 따라 급식 및 식자재 등 대량수요처로 유통된 비중이 전년(10.4%) 대비 증가한 12.5%였음
 - 반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 수요 감소로 소비지도매시장 및 대형소매점, 가공업체로 유통물량이 전년 대비 줄었음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냉동명태의 유통경로별 물량 및 비중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정부비축물량 구매: 2022년 정부비축으로 구매된 물량은 17,901톤으로 2018년 15,995톤에 비해 감소했음
 - 군납 구매: 2022년 군납용으로 구매된 물량은 1,699톤으로 2018년 2,400톤보다 적었으며 연마다 감소세를 보였음
 - 1차 도매업자→2차 도매업자 및 소비지도매시장: 2022년 1차 도매업자로부터 2차 도매업자로 유통되어지는 물량은 3,658톤으로 점차 2차 도매업이 축소되는 경향에 따라 2018년 7만 9,310톤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음
 - 대형소매업체: 2022년 1차 도매업자로부터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으로 유통된 물량은 4,573톤으로 2018년 6,609톤 대비 감소했음
 - 가공업체: 코다리, 황태 등으로 가공하는 업체로 유통된 명태 물량은 2022년 77,739톤으로 전체적으로 명태 소비가 감소한 영향으로 2018년 101,946톤보다 감소했음. 그러나 유통 비중으로 보면 47.7%에서 61.3%로 증가했음
 - 대량수요처: 2022년 급식, 식자재 및 수출 등 대량수요처로 유통된 물량은 15,844톤으로 2018년 11,015톤에 비해 증가했음

<그림 4-16> 냉동명태의 유통경로 및 배분 비중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명태는 수입 및 반입을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원양선사, 1차·2차 도매업자,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3. 명태 유통비용

가. 명태(냉동)의 유통비용(부산 → 노량진수산물시장)³⁸⁾

1) 수입 단계

- 2022년에는 인건비 및 유류세의 급격한 상승과 ‘러-우’ 사태로 인해 업계의 명태 수급 우려의 영향으로 유통비용뿐만 아니라 명태 가격이 급등했음
 - 2022년 냉동명태 원가는 kg당 1,619원으로 유류비, 인건비, 운반선 이용료 등 모든 생산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작년보다 38.3% 상승했음
 - 이 외 부두하역비, 육상운반비, 하차비, 입고비 등은 항운노조의 인건비 상승률(‘냉동품’ 상승률 4.6%)에 따라 전년비 상승했음
 - 또한 2022년 2월부터 발발한 ‘러-우’ 사태로 국내 명태 수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원양선사의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하였음
 - 그러나 원양선사의 kg당 이윤은 작년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명태 거래 물량도 줄어 전체적인 이윤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8년 대비 냉동명태 원가가 상승했으며 판매가격과 이윤도 비슷한 폭으로 상승하였음
 - 하차비는 2018년보다 줄었으나 2019년에 크게 하락한 뒤 상승세였음
 - 위관수수료는 2018년 대비 늘었으나 2019년부터 조사된 위관 금액의 0.7%는 동일했음

2) 도·소매 단계

- 2022년의 경우 명태 판매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대부분의 유통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작년 대비 이윤이 크게 증가했음
 - 2021년까지 큰 변화 없었던 소비지도매시장의 하차비를 비롯하여 소비지 중도매인 단계의 운반비, 상차비 또한 작년 대비 4.6%씩 증가했음

38) 자료 : 『2022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p.194

- 또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및 유지관리비 증가로 간접비는 작년 대비 15% 가량 증가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 판매가격이 작년 대비 5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각 단계별 kg당 이윤은 모두 증가했으나 1차 도매업자와 같이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로 명태 총 거래 물량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이윤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음
- 쿼터 축소 등 러시아 정부정책 방향으로 명태 공급 및 재고가 감소하여 명태 도매가격이 상승했던 2018년에 비해서도 2022년 명태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음. 이에 2018년에 비해 상하차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접비 비용이 증가세였으며, 간접비와 이윤도 증가세였음

<표 4-35> 명태(냉동)의 유통비용(부산 → 노량진수산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21년		2022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원양 선사 (수입 업자)	냉동명태 원가	1170.7	1,619.0	30	1kg 기준(간접비 포함)
	부두 하역비	32.6	34.1	1	1팬(21.5kg)당 633원
	육상운반비	10.2	12.2	0	1팬당 263원
	검수비	10.0	10.0	0	1팬당 214원
	하차비	9.1	9.5	0	1팬당 205원
	창고 입고비	9.5	9.9	0	1팬당 214원
	냉장료	83.7	83.7	2	1팬당 1일 27원(부가세 포함), 2개월(60일) 보관 기준
	위판수수료	10.1	13.3	0	위판금액의 0.7%
	이윤	100.5	103.2	2	판매가격의 3% 이하 수준
	선사 판매가격	1436.4	1,895.0	35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참조
1차 도매 업체	냉장료	16.7	16.7	0	1팬당 1일 10원(부가세 포함), 1개월(30일) 보관 기준
	창고 출고비	10.3	10.8	0	1팬당 232원
	상차비	8.4	8.8	0	1팬당 189원
	운송비	74.4	89.3	2	(부산-서울) 1팬당 1,920원
	간접비	68.4	78.7	1	인건비,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23.4	362.8	7	-
	1차 도매업자 판매가격	1638.0	2,462.0	46	AT 도매가격 및 1차 도매업체 조사가격
소비자 도매 시장	하차비	14.4	15.1	0	1팬당 324원
	경매수수료	74.2	111.3	2	경매 낙찰가의 4.3%
	경락가격	1726.6	2,588.1	48	노량진수산시장 경락가격
소비자 중도 매인	운반비	19.3	20.2	0	1팬당 434원
	상차비	14.4	15.1	0	1팬당 324원
	간접비	213.3	256.0	5	인건비,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88.6	740.5	14	-
	소비자 중도매인 판매가격	2062.2	3,619.8	67	소비자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자 소매상	직접비	220.0	253.0	5	소매상 조사결과
	간접비	750.0	862.5	16	인건비,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432.3	645.7	12	-
	판매가격	3464.5	5,381.0	100	AT 소비자가격 및 전통시장 소매상 조사가격 참조

주: 8통(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2022년 11월 하순임

<표 4-36> 명태(냉동)의 유통비용 변화(부산 → 노량진수산물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률
원양선 사 (수입 업자)	냉동명태 원가	1,127.0	1,660.9	1,259.5	1,170.7	1,619.0	9.5
	부두 하역비	29.9	32.0	30.5	32.6	34.1	3.3
	육상운반비	7.7	9.8	10.0	10.2	12.2	12.3
	검수비	0.7	1.6	10.0	10.0	10.0	94.4
	하차비	10.0	6.7	8.8	9.1	9.5	-1.2
	창고 입고비	8.8	9.5	9.3	9.5	9.9	3.1
	냉장료	39.1	78.0	78.0	83.7	83.7	21.0
	위판수수료	0.5	15.8	10.7	10.1	13.3	127.0
	이윤	61.0	157.8	106.6	100.5	103.2	14.1
	선사 판매가격	1,284.7	1,972.1	1,523.3	1,436.4	1,895.0	10.2
1차 도매업 체	냉장료	19.5	7.1	14.0	16.7	16.7	-3.8
	창고 출고비	8.9	9.5	10.3	10.3	10.8	4.9
	상차비	10.0	6.7	7.8	8.4	8.8	-3.2
	운송비	55.8	69.8	69.8	74.4	89.3	12.5
	간접비	28.1	94.9	64.5	68.4	78.7	29.3
	이윤	56.5	83.7	47.6	23.4	362.8	59.2
	1차 도매업자 판매가격	1,463.5	2,243.8	1,737.1	1,638.0	2,462.0	13.9
소비자 도매시 장	하차비	14.4	14.4	14.4	14.4	15.1	1.2
	경매수수료	59.0	101.5	78.7	74.2	111.3	17.2
	경락가격	1,536.9	2,360.0	1,830.2	1,726.6	2,588.1	13.9
소비자 중도매 인	운반비	14.6	17.5	19.3	19.3	22.2	11.0
	상차비	14.4	14.4	14.4	14.4	15.1	1.2
	간접비	194.6	201.4	203.1	213.3	256.0	7.1
	이윤	322.0	120.7	120.0	88.6	708.4	21.8
	소비자 중도매인 판매가격	2,082.5	2,714.0	2,187.0	2,062.2	3,589.8	14.6
소비자 소매상	직접비	90.0	97.7	180.5	220.0	253.0	29.5
	간접비	723.0	744.0	662.3	750.0	892.5	5.4
	이윤	1,065.0	323.3	361.2	432.3	645.7	-11.8
	판매가격	3,960.5	3,879.0	3,391.0	3,464.5	5,381.0	8.0

주: 8통(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각 연도 11월 하순임

자료: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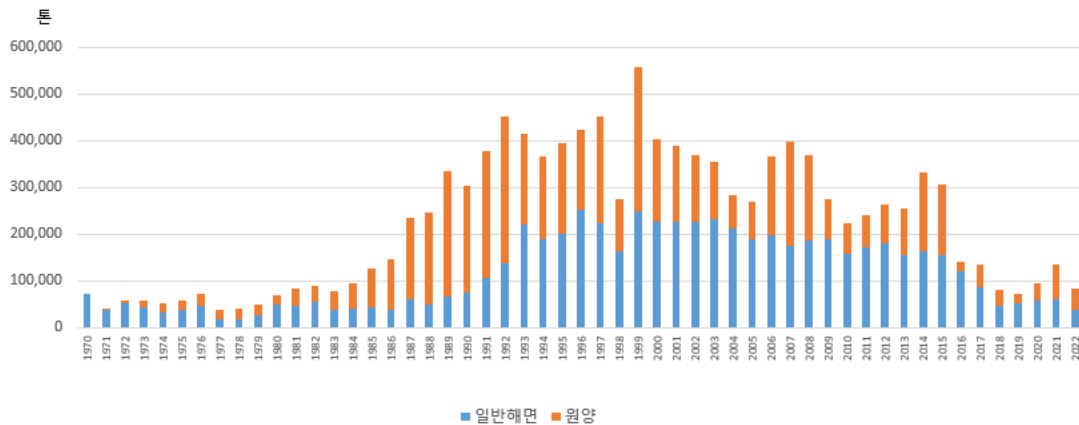
제4절 오징어 유통실태조사

1. 오징어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및 계통출하 동향

- 우리나라 오징어는 크게 일반해면어업과 원양어업으로 생산되는데, 이 중 원양산은 남서대서양 해역에서 주로 어획되어 국내로 반입됨
- 2022년 우리나라 오징어 총 생산량은 8만 4,706톤으로, 일반해면어업 생산 비중은 43.1%, 원양어업은 56.9%를 차지했음
 - 우리나라 연간 오징어 생산량은 원양산 생산량 증감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연근해산 생산은 2000년 이후 꾸준한 감소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10만 톤 이하로 급격히 줄었음
 - 원양산 생산량은 매년 큰 폭의 변동을 보였으며, 2016년에 크게 감소하였음

<그림 4-17> 연도별 오징어 생산량 추이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오징어 생산량은 전년 대비 37.1% 감소했으며, 평년보다도 17.9% 적었음
 - 연근해산과 원양산 생산량 모두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원양산은 평년에 비해서는 많았음
 - 특히, 연근해산 생산량은 3만 6,549톤으로 전년보다 40.0% 감소하였으며, 평

년에 비해서도 39.7% 적었음

- 원양산 생산량은 4만 8,157톤으로 평년보다는 13.0% 많았으나, 전년보다는 34.8% 감소했음
- 원양산의 경우 2015년에 15만 톤이 생산된 이후로 2020년까지 생산량이 5만 톤에도 미치지 못했음. 2021년 들어 어황이 다소 개선되며 약 7만 톤이 생산되었으나, 세계적인 오징어 어획 부진이 이어지며 2022년 다시 5만 톤 이하로 감소하였음

<표 4-37> 연도별 어업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총생산량	일반해면	비중		
			원양	비중	
1990년	303,320	74,172	24.5	229,148	75.5
1995년	394,021	200,897	51.0	193,124	49.0
2000년	404,152	226,309	56.0	177,843	44.0
2005년	270,298	189,126	70.0	81,172	30.0
2010년	224,546	159,130	70.9	65,416	29.1
2015년	306,578	155,743	50.8	150,835	49.2
2017년	134,052	87,024	64.9	47,028	35.1
2018년	81,348	46,274	56.9	35,074	43.1
2019년	72,357	51,817	71.6	20,540	28.4
2020년	93,529	56,989	60.9	36,540	39.1
2021년	129,152	60,851	47.1	68,301	52.9
2022년	84,706	36,549	43.1	48,157	56.9
5개년 평균	93,338	50,502	54.1	42,836	45.9
전년 대비	-37.1	-40.0	-	-34.8	-
평년 대비	-17.9	-39.7	-	13	-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 평균 오징어 총생산금액 중 일반해면어업 생산금액은 총생산금액의 50.3%를, 원양어업 생산금액은 49.7%를 차지했음
 - 원양산 생산량이 적었던 2019년과 달리 2022년에는 원양어업 생산금액 비중이 30.2%p 증가했으나, 원양산 반입이 활발했던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했음
- 2022년 오징어 총생산금액은 6,083억 원으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35.1%, 9.2% 감소했음

<표 4-38> 연도별 어업별 오징어 생산금액 동향

단위: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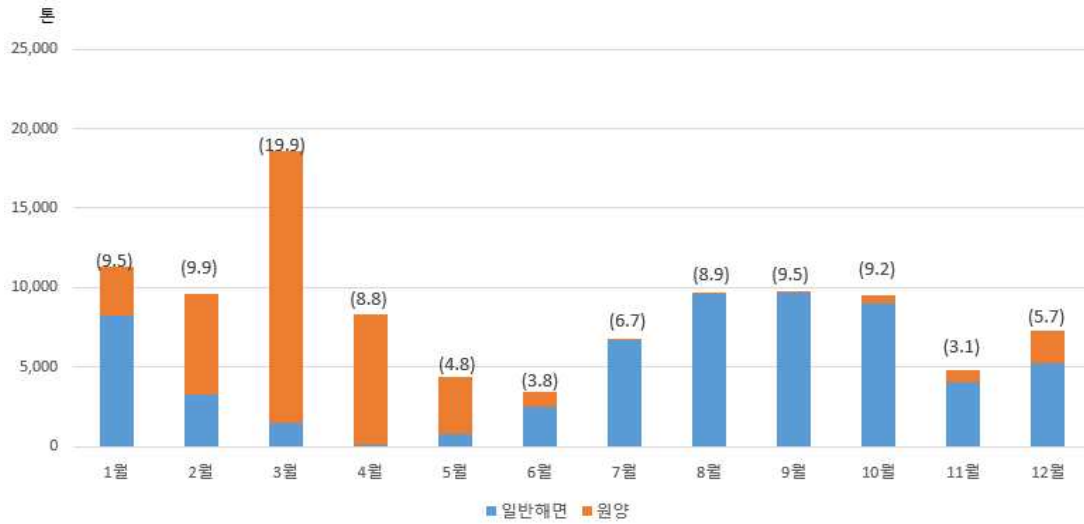
구분	총생산금액	일반해면	원양		
			비중	원양	비중
1990년	286,934	146,372	51.0	140,562	49.0
1995년	383,198	311,038	81.2	72,160	18.8
2000년	490,034	279,595	57.1	210,439	42.9
2005년	523,700	405,949	77.5	117,751	22.5
2010년	712,940	567,828	79.6	145,113	20.4
2015년	596,521	413,217	69.3	183,304	30.7
2016년	532,888	483,122	90.7	49,766	9.3
2017년	680,072	492,658	72.4	187,414	27.6
2018년	521,905	382,055	73.2	139,849	26.8
2019년	477,168	384,354	80.5	92,814	19.5
2020년	731,872	506,153	69.2	225,719	30.8
2021년	938,042	461,690	49.2	476,351	50.8
2022년	608,328	305,919	50.3	302,408	49.7
5개년 평균	655,462	408,034	62.3	247,428	37.7
전년 대비	-35.1	-33.7	-	-36.5	-
평년 대비	-9.2	-31.3	-	34.7	-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월별 오징어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2~5월까지는 주로 원양어업을 통해 오징어 조업이 이루어지며, 6월부터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이 이루어짐
 - 연근해산 오징어 어한기에 원양산이 반입되면서 부족한 공급량을 채워줌
- 일반해면어업 오징어 생산의 주어기는 8월부터 이듬해 1월로, 동해에서 성장 및 회유하며 북상했던 오징어 어군은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남하하면서 국내 어장에서 조업됨. 2월부터는 산란을 위해 오징어 어군이 일본해역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여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며, 4~5월은 금어기³⁹⁾로 조업이 원활하지 않음
 - 서해에 난류가 유입되며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에서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고 있어, 서해안 오징어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수온 상승으로 살오징어 어군의 북상회유 시기가 빨라지면서, 2020년 이후 어한기인 6월에도 동해안의 오징어 어장이 이르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2022년 5~6월에는 강원도 연안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 강원도가 아닌 포항~부산 측 수역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동해안 오징어 생산량이 줄었음

39)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오징어 포획 금지기간(금어기)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에 한해 실시함. 다만, 정치망어업으로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함

<그림 4-18> 월별 오징어 생산량 추이(최근 5년 평균)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월별 연근해 생산량을 살펴보면, 연초에 생산이 감소했으나, 8월 서해안 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며 전년 및 평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후 9~10월까지 동해안에서의 생산이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평년 대비 부진했음

<표 4-39> 연도별·월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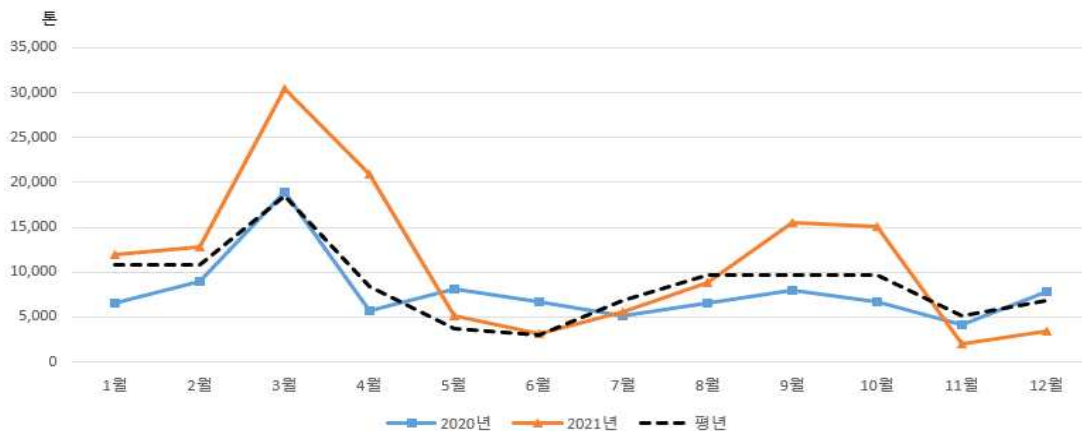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3,596	6,248	9,852	5,455	6,137	1,258	5,790	-79.5	-84.8
2월	3,607	774	4,823	4,794	2,164	1,639	2,839	-24.3	-49.3
3월	701	217	1,264	4,512	748	535	1,455	-28.5	-64
4월	198	52	96	302	14	19	97	35.7	-85.6
5월	586	736	884	1,012	793	1,079	901	36.1	34.5
6월	1,278	1,572	2,212	4,389	2,979	2,298	2,690	-22.9	-7.6
7월	6,488	5,325	10,738	5,161	5,517	4,063	6,161	-26.4	-38.9
8월	16,834	5,182	10,794	6,528	8,503	10,175	8,236	19.7	6.3
9월	11,380	7,053	6,627	8,032	15,421	6,971	8,821	-54.8	-28.2
10월	9,760	11,309	1,987	6,719	15,114	4,920	8,010	-67.4	-45.2
11월	10,888	2,708	456	4,187	1,978	1,687	2,203	-14.7	-58.3
12월	11,709	5,099	2,085	5,897	1,511	1,906	3,300	26.1	-63.8
합계	87,024	46,274	51,817	56,989	60,880	36,549	50,502	-40	-39.7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1~3월에는 2021년 말부터 이어진 동해안의 어황 부진이 계속되면서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
- 4~5월은 금어기로 생산이 거의 없었으며, 2021년부터는 정치망어업 또한 금어기 대상 업종에 포함되며 4월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크게 줄었음
- 금어기 이후 6월 초 동해안의 수온 상승에 따라 오징어 어군이 북상하며 평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8월에는 서해안에서의 조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전년보다 많은 양이 생산되었음
- 그러나 9~10월까지 동해안에서의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평년 대비 부진한 어황을 보였음

<그림 4-19> 월별 오징어 생산량 추이(전체)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부류별 오징어 생산량을 살펴보면, 냉동 비중이 7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냉동 20.8%, 활어 5.3% 순이었음
 - 2022년에는 원양산 생산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전체 오징어 생산량 중 냉동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73.2%)과 비슷하였음
 - 한편 연근해에서 생산된 물량의 경우 선어가 48.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냉동 39.5%, 활어 12.3% 순이었음

<표 4-40> 연도별 부류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비중	평균
활어	6,353	4,936	6,353	8,091	5,292	4,501	12.3	5,835
선어	50,790	18,003	23,749	33,816	30,764	17,607	48.2	24,788
냉동	29,882	23,336	21,715	15,083	24,825	14,442	39.5	19,880
합계	87,024	46,274	51,817	56,989	60,880	36,549	100	50,502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부류별 계통출하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전체 생산량에서 계통출하 비중은 약 53.6% 수준임
 - 일반해면어업은 활어, 선어, 냉동 모두 99% 이상 계통출하되고 있으나, 원양산 오징어는 냉동으로 100% 비계통출하되고 있음

<표 4-41> 연도별 부류별 오징어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비중	평균
일반 해 면	활어	계통	6,282	4,891	6,301	8,037	5,265	4,482	99.6	5,795
		비계통	71	45	53	54	26	19	0.4	39
		소계	6,353	4,936	6,353	8,091	5,292	4,501	100.0	5,835
	선어	계통	50,298	17,888	23,492	33,147	30,472	17,414	98.9	24,483
		비계통	493	115	258	669	292	193	1.1	305
		소계	50,790	18,003	23,749	33,816	30,764	17,607	100.0	24,788
	냉동	계통	29,395	23,336	21,639	15,042	24,425	14,323	99.2	19,753
		비계통	486	0	75	40	400	119	0.8	159
		소계	29,882	23,336	21,715	15,083	24,825	14,442	100.0	19,880
	계	계통	85,975	46,115	51,432	56,226	60,162	36,219	99.1	50,031
		비계통	1,050	160	386	763	718	331	0.9	472
		소계	87,024	46,274	51,817	56,989	60,880	36,549	100.0	50,502
원 양	냉동	계통	0	0	0	0	0	0	0.0	0
		비계통	47,028	35,074	20,540	36,540	73,867	48,157	100.0	42,836
		소계	47,028	35,074	20,540	36,540	73,867	48,157	100.0	42,836
합계	계통	85,975	46,115	51,432	56,226	60,162	36,219	42.8	50,031	
	비계통	48,078	35,234	20,926	37,303	74,585	48,488	57.2	43,307	
	합계	134,052	81,348	72,357	93,529	134,747	84,706	100.0	93,337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지역별 생산량⁴⁰⁾을 살펴보면, 오징어의 주 생산지는 부산 및 경북지역이었음
 - 원양산을 제외하고 부산지역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11.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북지역 11.6%, 강원 및 경남지역 4.3% 등의 순이었음
- 2022년 지역별 생산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울산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생산이 증가했음
 - 특히, 인천 및 경북지역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48.6%, 48.1%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한편, 울산지역의 생산량은 2,184톤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음
 - 남해안 지역의 생산량이 1만 6,639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해안 지역 1만 5,658톤, 서해안 지역 4,253톤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전년 대비 생산 감소폭은 남해안 지역 43.7%, 동해안 지역 39.4%, 서해안 지역 22.7% 등 순으로 컸음

<표 4-42> 연도별 지역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비중	평균
부산광역시	31,376	14,343	15,350	11,659	17,891	9,963	11.8	13,841
인천광역시	23	62	46	11	74	38	0.0	46
울산광역시	428	566	222	717	696	2,184	2.6	877
강원도	5,073	4,146	4,022	8,691	6,232	3,657	4.3	5,350
충청남도	2,018	834	2,334	2,903	3,855	2,895	3.4	2,564
전라북도	609	239	806	1,161	1,570	1,320	1.6	1,019
전라남도	10,307	2,434	6,906	5,208	5,059	2,642	3.1	4,450
경상북도	27,427	15,903	13,858	21,768	18,922	9,817	11.6	16,054
경상남도	8,928	7,229	7,321	4,293	5,995	3,607	4.3	5,689
제주도	835	519	952	578	586	427	0.5	612
원양산	47,028	35,074	20,540	36,540	73,867	48,157	56.9	42,836
합계	134,052	81,348	72,357	93,529	134,747	84,706	100.1	93,337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어벌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근해채낚기어업이 전체 생산의 29.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16.8%, 대형트롤어업 16.9% 등의 순이었음

40) 지역별 생산량은 통계청 기준으로, 이는 해당 지역에서 오징어가 실제로 어획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위판 혹은 소매로 판매된 것을 의미함

<표 4-43> 연도별 어법별 오징어 생산량 동향(일반해면어업)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근해채낚기	22,617	14,007	14,996	18,562	16,541	9,907	14,803	-40.1	-42.9
대형트롤	26,596	10,813	11,496	6,669	9,715	3,768	8,492	-61.2	-71.1
동해구중형트롤	14,561	5,744	3,755	6,194	7,069	2,349	5,022	-66.8	-68.5
정 치 망	2,347	1,782	3,487	5,558	3,011	3,700	3,508	22.9	14.3
쌍끌이대형저인망	16,997	8,122	9,688	5,290	12,043	7,581	8,545	-37.1	-27.3
근해자망	340	484	2496	5,136	5,478	4,035	3,526	-26.3	44.8
연안자망	345	614	470	2,833	2,358	1,101	1,475	-53.3	-16.8
외끌이대형저인망	373	120	1,540	2,662	142	211	935	48.6	-78.2
연안복합	838	486	1,084	1,750	1,188	589	1,019	-50.4	-44.9
기타	2,010	4,102	2,805	2,335	3,335	3,308	3,177	-0.8	13.4
합계	87,024	46,274	51,817	56,989	60,880	36,549	50,502	-40.0	-39.7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에는 근해채낚기어업으로 조업한 오징어 생산량이 9,90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형트롤어업 8,492톤,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7,581톤, 근해자망어업 4,035톤 등의 순이었음
 - 근해채낚기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40.1%,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생산량은 37.1% 감소했으며, 특히 대형트롤어업의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감소하며 감소폭이 가장 컸음
 - 정치망어업 또한 금어기 대상 업종에 포함되면서 생산량이 2020년 대비 33.4% 적었음

나. 수출입 현황

- 우리나라 오징어 수출량은 중국의 오징어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연간 7만 톤 정도 수출되었으나 2016년부터 국내 오징어 생산 부진이 이어지면서 수출량이 급감했음
 - 그러나 수출단가는 2016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생산이 부진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음
 - 이러한 기조와 달리 2021년 오징어 수출량은 2만 1,821톤으로 전년 대비 세

- 배 가량 증가했음. 이는 전년과 달리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2022년 수출량은 오징어 생산 감소로 전년 대비 27.2% 감소하였으나, 평년 대비 17.7% 많았음
 - 수출금액은 5,562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6% 적었으나, 평년보다는 8.5% 증가했음
 - 한편, 2022년 수출단가는 kg당 3.50달러로 전년과 비슷했으나, 평년보다는 7.9% 낮았음
 - 오징어 수입량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8년 이후 매년 10만 톤 이상이 수입되었음
 - 2017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오징어 생산 부진의 영향으로 국내 오징어 수급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살오징어 및 일렉스 오징어의 대체재로 칠레 및 페루산 대왕오징어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 2022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3만 7,597톤으로 평년에 비해서도 10.5% 많았음
 - 수입 금액은 3억 9,952만 달러로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9%, 12.6% 많았음
 - 수입단가는 kg당 2.90달러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10.4%, 1.9% 했음

<표 4-44> 연도별 오징어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7년	22,680	78,516	3.46	81,906	180,886	2.21
2018년	7,547	30,922	4.10	116,892	347,260	2.97
2019년	8,206	34,223	4.17	133,515	425,701	3.19
2020년	7,239	35,854	4.95	155,868	467,046	3.00
2021년	21,821	76,861	3.52	134,471	353,867	2.63
2022년	15,884	55,618	3.5	137,597	399,522	2.90
5개년 평균	12,139	46,696	3.85	135,669	398,679	2.94
전년 대비	-27.2	-27.6	-0.5	2.3	12.9	10.4
평년 대비	17.7	8.5	-7.9	10.5	12.6	1.9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2022년 오징어 수출량을 제품유형별로 살펴보면, 냉동(기타) 수출량이 1만 4,039톤으로 전체 물량의 88.5%를 차지했음
 - 다음으로 냉동 657톤(4.1%), 기타 532톤(3.3%), 조미오징어 526톤(3.3%) 등이 수출되었음
- 2022년 수입량 또한 수출과 마찬가지로 냉동(기타)의 수입량이 9만 9,171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수입 물량의 72.1%를 차지했음
 - 다음으로 기타 2만 5,737톤(18.7%), 조미오징어 1만 168톤(7.4%), 냉동 1,909톤(1.4%) 등의 순이었음

<표 4-45> 제품유형별 오징어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단위: 톤, 천 불, %

명칭	HS CODE	수출				수입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신선냉장	0307422010	1	0.0	5	0.0	0	0.0	0	0.0
냉동 ⁴¹⁾	0307432010	657	4.1	2,581	4.6	1,909	1.4	13,783	3.4
기타(훈제)	0307494090	1	0.0	13	0.0	0	0.0	1	0.0
기타(건조)	0307493090	87	0.6	1,809	3.3	604	0.4	8,072	2.0
조제·저장처리	1605542010	35	0.2	355	0.6	8	0.0	171	0.0
조미	1605542091	526	3.3	8,703	15.7	10,168	7.4	45,429	11.4
냉동(기타)	0307432090	14,039	88.5	36,772	66.1	99,171	72.1	222,016	55.6
신선·냉장(기타)	0307422090	6	0.0	70	0.1	0	0.0	0	0.0
기타	1605542099	532	3.3	5,311	9.6	25,737	18.7	110,050	27.6
합계		15,884	100.0	55,618	100.0	137,597	100.0	399,522	100.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국가별 오징어 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은 수출 및 수입 모든 방면에서 활발한 교역이 진행되고 있음
- 수출된 오징어 중 대중국 수출 비중이 37.4%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미국(30.1%), 스페인(9.2%), 태국(6.6%), 일본(3.6%) 등으로 수출되었음
- 오징어 수입의 경우 중국산 오징어 수입 비중이 전년(41.6%)과 비슷한 42.4%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페루(31.8%), 칠레(7.0%), 베트남(5.0%) 등의 순이었음

41) 냉동 오징어(움마스트레페스종·로리고종·노토포다루스종·세피오투디스종)

<그림 4-20> 국가별 오징어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단위: 천 달러,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다. 수급 구조

- 2019년까지 오징어 총공급량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는 국내 연근 해산 생산 외에도 남서대서양에서 어획되는 원양산 오징어 생산도 저조했으며, 세계적인 오징어 생산 부진의 영향으로 수입으로 공급 부족분을 채우기 어려웠기 때문임

<표 4-46> 연도별 오징어 수급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2017년	134,052	181,277	41,173	356,502	295,532	23,705	37,265	45.4
2018년	81,348	245,274	37,265	363,887	310,737	9,369	43,781	26.2
2019년	72,357	239,981	43,781	356,119	305,519	10,295	40,305	23.7
2020년	93,529	275,836	40,305	409,670	323,759	9,721	76,190	28.9
2021년	134,747	251,909	76,190	462,846	362,264	25,416	75,166	37.2
2022년	84,706	253,054	75,166	412,926	333,704	19,030	60,192	25.4
전년 대비	-37.1	0.5	-1.3	-10.8	-7.9	-25.1	-19.9	-
평년 대비	-17.9	5.9	57.4	5.9	4.4	21.2	10.4	-

주: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통계이며, 원어환산량이므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 정보와 다를 수 있음

3) 이입, 이월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 입출하동향 조사

4)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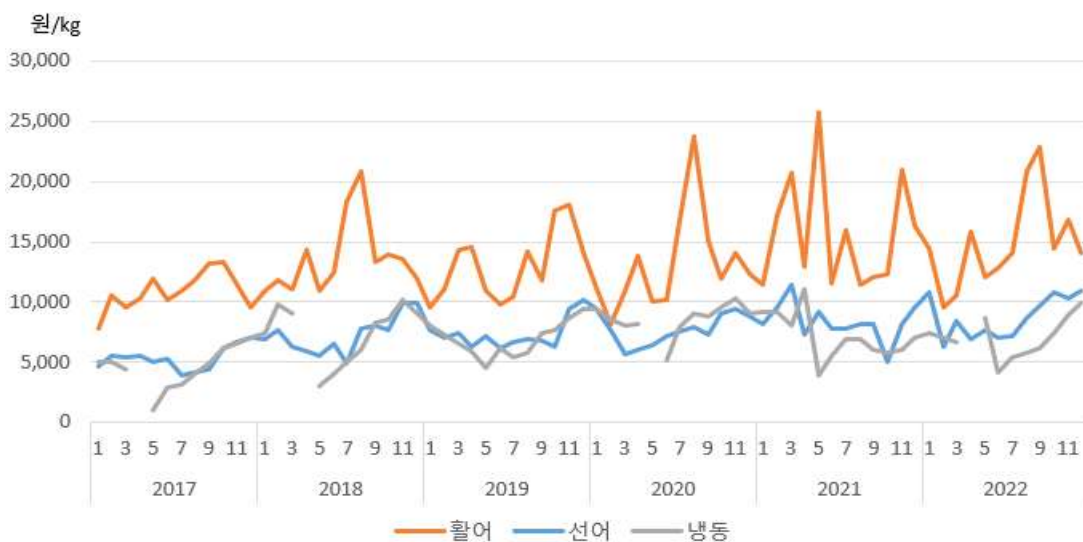
- 연근해 생산 및 원양산 반입 감소로 2022년 전체 공급량은 41만 2,926톤으로 전년 대비 10.8% 감소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5.9% 많았음
- 수출량은 전년 대비 25.1% 감소했으나, 총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소비는 전년 대비 10.2% 감소하였음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통계청 기준 오징어 생산단가(생산금액/생산량)를 살펴보면, 연근해산 오징어의 생산단가는 활어, 선어, 냉동으로 구분됨
 - 생산단가가 가장 높은 활어의 경우 가격 변동이 매우 컸으며, 3~5월 어한기 및 금어기 시기와 여름철 8월에 매우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선어는 활어에 비해 가격 변동이 크지는 않으나, 9월 주어기 초에는 가격이 상승하다가 주어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 하락세로 돌아서는 추세를 보임
 - 냉동도 선어와 마찬가지로 주어기에 따라 가격이 변동했음
 - 한편, 오징어 생산단가는 2016년 하반기부터 활어, 선어, 냉동 모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4-21> 연도별 부류별 오징어 생산단가 추이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에는 생산량이 크게 늘었던 8월에 생산단가가 7,214원으로 크게 하락했다가, 10~12월에 동해안의 어황 부진 심화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생산단가가 급격히 상승했음
- 오징어(선어) 생산단가는 2017년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2022년 연평균 가격은 kg당 8,742원으로 전년 대비 4.7% 상승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21.6% 높았음
 - 이는 1월에 이례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으며, 10월부터 급격한 어획 부진으로 생산량이 전년 및 평년 대비 크게 줄면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임

<표 4-47> 연도별·월별 오징어 생산단가 동향(선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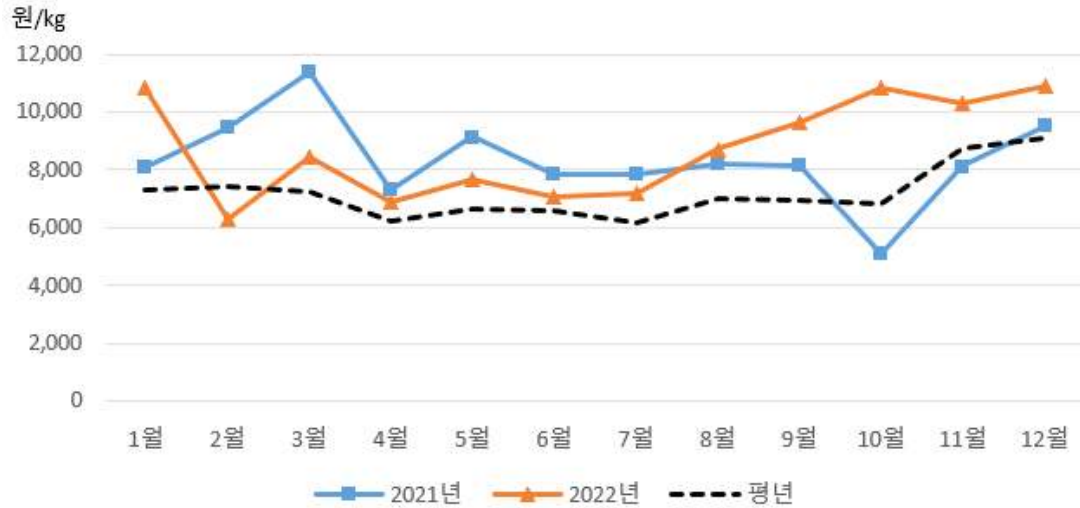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4,593	6,901	7,717	9,371	8,118	10,850	8,591	33.7	47.8
2월	5,480	7,619	7,037	7,627	9,488	6,304	7,615	-33.6	-15.4
3월	5,446	6,342	7,405	5,629	11,407	8,459	7,848	-25.8	16.7
4월	5,586	5,902	6,276	6,011	7,319	6,920	6,486	-5.5	11.3
5월	4,994	5,540	7,201	6,408	9,140	7,689	7,196	-15.9	15.5
6월	5,290	6,598	6,125	7,103	7,834	7,080	6,948	-9.6	7.4
7월	3,889	4,893	6,613	7,602	7,827	7,186	6,824	-8.2	16.6
8월	4,162	7,829	6,948	7,873	8,228	8,720	7,920	6.0	24.4
9월	4,434	7,982	6,779	7,332	8,155	9,620	7,974	18.0	38.7
10월	6,203	7,641	6,245	9,013	5,085	10,850	7,767	113.4	58.7
11월	6,715	9,970	9,438	9,369	8,121	10,315	9,443	27.0	18.3
12월	7,101	9,904	10,149	8,745	9,505	10,912	9,843	14.8	20.2
연평균	5,324	7,260	7,328	7,674	8,352	8,742	7,871	4.7	21.6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3) 일반해면어업을 통해 어획된 오징어 중 선어의 단가를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월별 생산단가 추이를 살펴보면, 월별로는 등락을 달리했으나, 대체로 연중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
 - 1월에는 어황 부진이 심화되며 전년 대비 생산량이 줄면서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음. 이후 연근해산 어기 종료와 금어기로 생산 감소세는 지속되었으나, 품질이 좋지 않아 전년 대비 낮게 형성되었음
 - 그러나, 성어기인 9~10월에도 연근해산 생산 부진이 이어지면서 동해안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10월에는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3.4%, 58.7% 높은 kg당 10,85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12월까지 상승세를 보였음

<그림 4-22> 월별 오징어 생산단가 추이(선어 기준)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 도매가격

- 선어 오징어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2017년부터 큰 폭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으나, 2020년에 하락세를 보이다 2021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선어 오징어 도매가격은 통상적으로 생산이 적은 2~9월까지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생산이 증가하는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의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이러한 기조과 달리, 2022년 선어 오징어 도매가격은 kg당 12,018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6%, 10.2% 상승하며 연중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했음
 - 7~8월에는 서해안 해역을 중심으로 여름철 오징어 생산이 늘면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 또한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는 높았음
 - 어황 부진 심화로 10월부터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11월에는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6.8%, 8.5% 높게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12월까지 지속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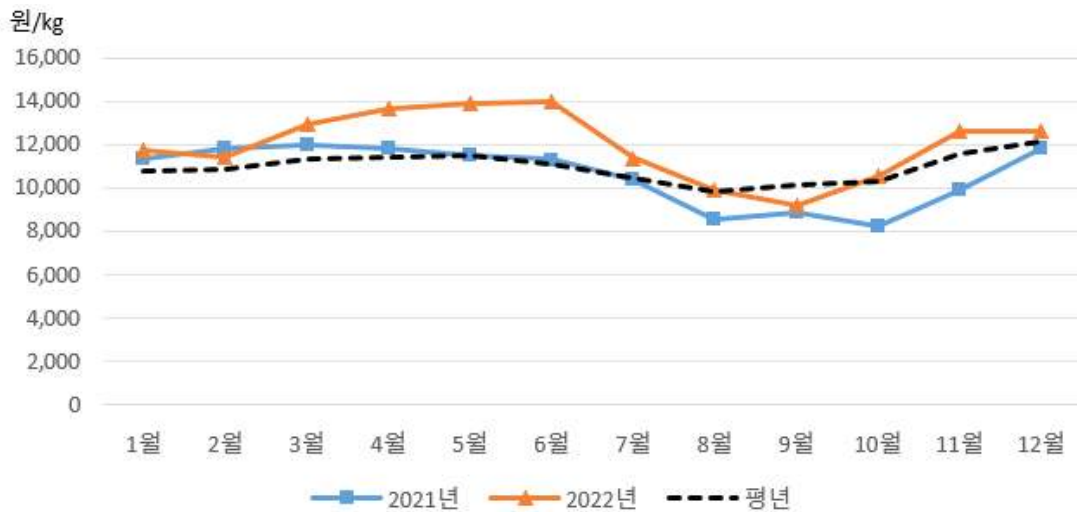
<표 4-48> 연도별·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동향(선어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6,975	9,456	10,718	-	11,335	11,724	10,808	3.4	21.9
2월	7,335	9,556	10,571	-	11,840	11,421	10,847	-3.5	16.2
3월	7,629	9,700	10,890	-	11,973	12,956	11,380	8.2	28.9
4월	8,101	9,700	10,500	-	11,850	13,680	11,433	15.4	36.3
5월	8,214	9,955	10,500	-	11,547	13,900	11,476	20.4	38.3
6월	9,182	10,431	10,711	9,070	11,313	13,979	11,101	23.6	37.8
7월	9,503	10,738	10,796	9,198	10,384	11,395	10,502	9.7	12.6
8월	8,963	10,620	10,676	9,345	8,565	9,906	9,822	15.7	2.8
9월	9,669	10,973	10,532	11,263	8,902	9,213	10,177	3.5	-10.3
10월	9,834	10,649	11,190	10,832	8,259	10,585	10,303	28.2	4.3
11월	9,699	10,954	12,719	11,857	9,943	12,607	11,616	26.8	14.3
12월	9,486	10,932	13,190	12,006	11,855	12,642	12,125	6.6	10
연평균	8,707	10,301	10,967	10,578	10,670	12,018	10,907	12.6	17.3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3) 오징어(선어)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8kg)당 20~30마리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4) '-'는 공급물량이 적어 시장 내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23> 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추이(선어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냉동 오징어의 연평균 도매가격의 경우 2017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2020년까지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일반적으로 냉동 오징어 도매가격은 원양산이 주로 반입되는 2~5월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연근해산이 생산되는 6월 이후로는 선어 위주로 유통되면서 냉동 도매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2020년부터는 1~8월까지 kg당 10,000원 이상의 높은 가격대를 유지했으며, 2021년 9월에 kg당 9,720원으로 하락하며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음
- 2022년 냉동 오징어 도매가격은 9,521원으로 전년 대비 9.0% 낮았으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8,000원 수준을 유지하였던 것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4-49> 연도별·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동향(냉동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6,126	8,600	8,609	12,250	10,795	9,216	9,894	-14.6	-0.6
2월	6,274	8,600	8,400	12,645	11,026	9,057	9,946	-17.9	-3.5
3월	6,435	8,600	8,400	12,675	11,403	9,306	10,077	-18.4	-2.1
4월	6,985	8,600	8,400	12,200	11,242	9,635	10,015	-14.3	1.6
5월	7,244	8,600	8,495	12,200	11,015	9,646	9,991	-12.4	1.4
6월	8,216	8,663	8,705	12,556	10,924	9,757	10,121	-10.7	-0.6
7월	8,707	8,800	9,104	12,168	10,559	9,369	10,000	-11.3	-5.1
8월	8,700	8,800	9,038	11,888	10,310	9,475	9,902	-8.1	-2.8
9월	8,671	8,800	8,926	11,265	9,720	9,325	9,607	-4.1	-1.6
10월	8,580	8,838	9,100	10,805	9,646	9,187	9,515	-4.8	-2.2
11월	8,518	8,664	9,590	10,867	9,620	9,939	9,736	3.3	5.2
12월	8,537	9,000	10,736	10,859	9,283	10,210	10,018	10.0	5.4
연평균	7,748	8,712	8,963	11,873	10,463	9,521	9,906	-9.0	-0.3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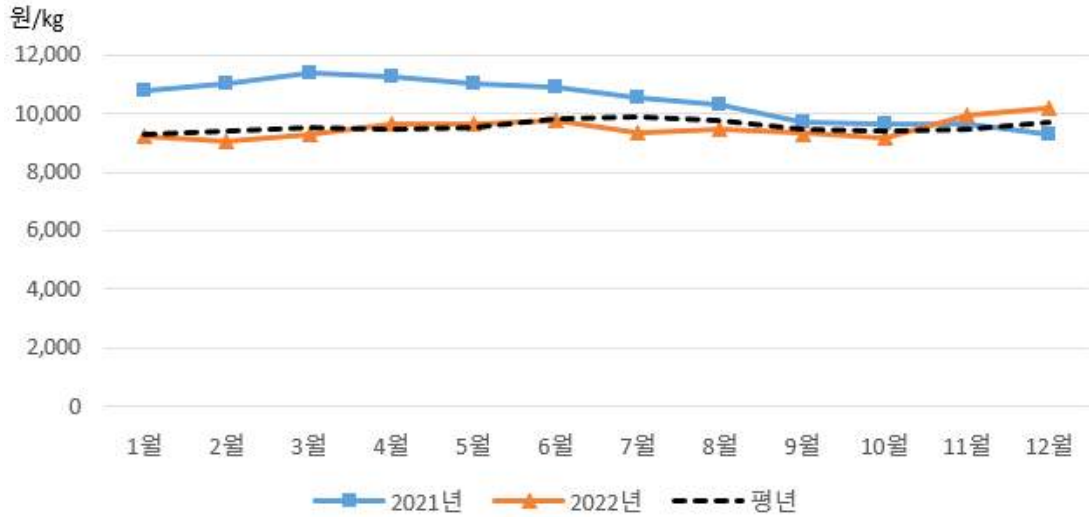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3) 오징어(냉동)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8kg)당 20~30마리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냉동 오징어 도매가격은 냉동품의 특성상 가격 변동이 크지 않으며, 원양산 반입과 겨울철 연근해 생산량에 일부 영향을 받음
 - 2022년에도 2021년과 유사한 가격 변동을 보였으며, 연중 비슷한 가격 수준을 유지했음

<그림 4-24> 월별 오징어 도매가격 추이(냉동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3) 소비자가격

- 선어 오징어 소비자가격은 2012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부터 연근 해산 및 원양산 오징어 생산이 부진함에 따라 상승세로 반전했음
- 2022년 선어 오징어 연평균 소비자가격은 kg당 18,863원으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12.1%, 21.1% 높았음

<표 4-50> 연도별·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동향(선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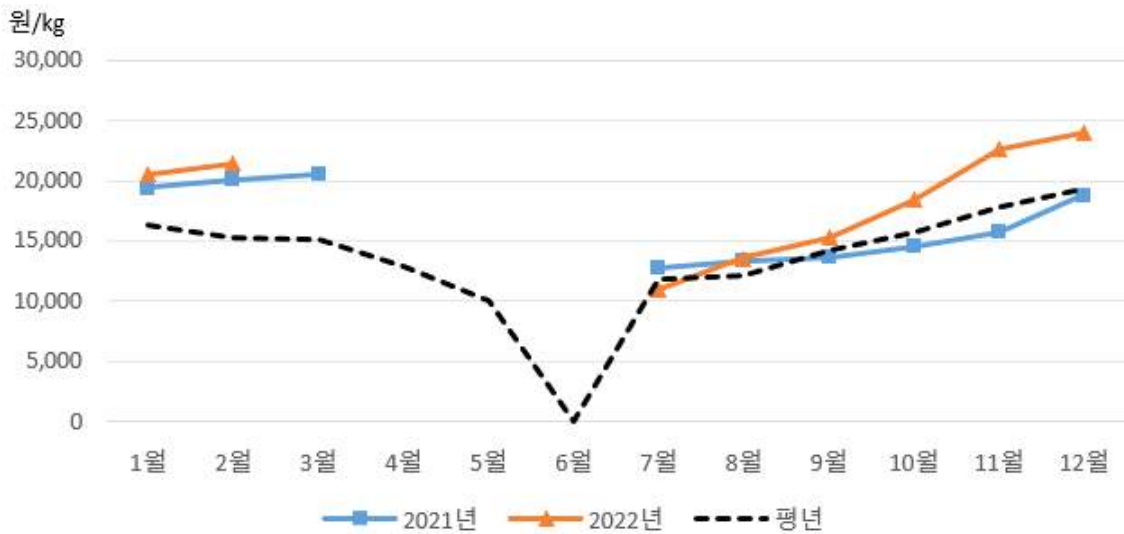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0,440	14,417	18,427	18,937	19,430	20,547	18,352	5.7	25.8
2월	11,003	14,570	15,403	15,337	20,097	21,493	17,380	6.9	40.6
3월	11,177	14,200	15,303	14,583	20,520	-	16,152	-100.0	-100.0
4월	10,043	-	-	15,903	-	-	15,903	-	-100.0
5월	10,117	-	-	-	-	-	-	-	-100.0
6월	-	-	-	-	-	-	-	-	-
7월	10,340	-	-	12,310	12,803	10,923	12,012	-14.7	-7.6
8월	10,010	-	11,487	13,517	13,390	13,577	12,993	1.4	12.2
9월	12,527	-	13,237	17,590	13,653	15,250	14,933	11.7	7.0
10월	14,820	16,620	13,793	18,733	14,580	18,420	16,429	26.3	17.3
11월	15,893	20,067	-	19,493	15,743	22,617	19,480	43.7	27.1
12월	15,190	21,203	20,683	20,580	18,833	24,063	21,072	27.8	24.7
연평균	12,033	17,313	14,780	16,920	16,827	18,863	16,941	12.1	21.1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3) 오징어(선어) 소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8kg)당 20~30마리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4) '-'는 공급 물량이 적어 시장 내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1~2월까지의 생산 부진 영향으로 평년 대비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으나, 3~5월에는 생산 부진과 금어기의 영향으로 공급물량이 줄면서 가격 형성이 원활하지 않았음
- 6월에는 금어기가 종료되고 조업이 재개되었으나 300g 미만의 소형오징어가 주로 유통되면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음
- 9월 이후에는 성어기임에도 어황 저조하여 전년 대비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으며, 12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졌음

<그림 4-25> 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추이(선어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13,790원으로 전년과 비슷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18.7% 높았음
 - 2022년 냉동 오징어 소비자가격은 kg당 15,00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했으며, 대체로 전년과 비슷했으나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었음
 - 특히 전년과 같이 6월에 연중 가장 높은 가격대를 보였음. 반면, 9월에는 명절 물가안정용 비축물량 방출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며 가장 낮은 가격대를 보였으나, 10월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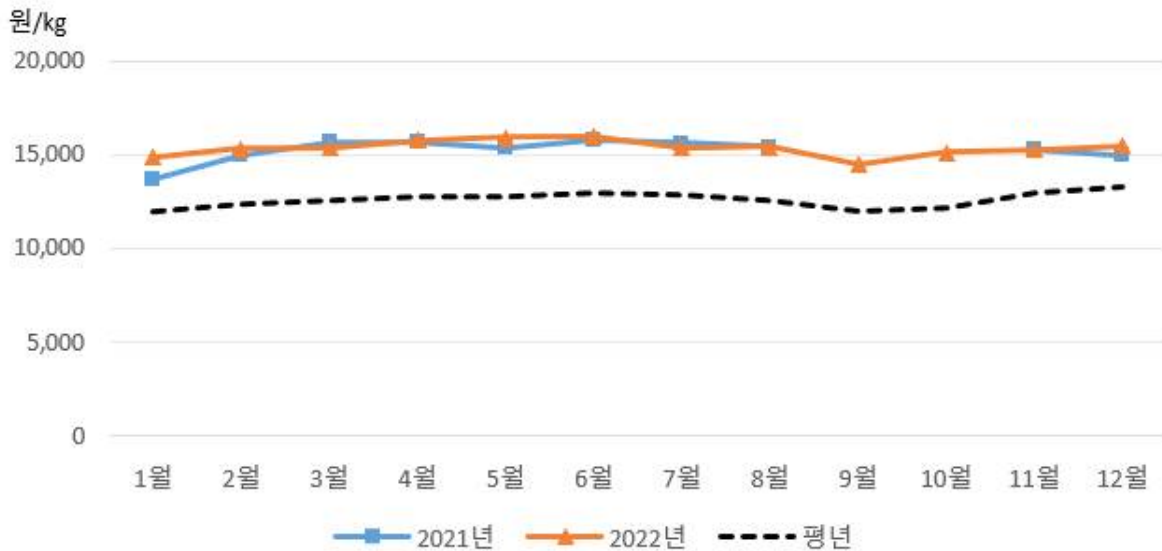
<표 4-51> 연도별·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동향(냉동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8,200	11,520	12,997	13,617	13,657	14,897	13,338	9.1	24.2
2월	8,907	11,940	12,763	13,523	15,007	15,337	13,714	2.2	23.4
3월	9,483	11,940	12,557	13,217	15,710	15,380	13,761	-2.1	22.2
4월	9,947	12,507	12,737	13,163	15,700	15,803	13,982	0.7	23.4
5월	9,837	12,220	12,883	13,660	15,417	15,933	14,023	3.3	24.4
6월	10,713	12,197	13,073	13,093	15,810	15,980	14,031	1.1	23.1
7월	10,730	11,940	13,383	12,973	15,623	15,407	13,865	-1.4	19.2
8월	10,143	12,030	12,557	12,707	15,437	15,437	13,634	0.0	22.8
9월	9,990	12,407	12,393	13,160	-	14,470	13,108	-	20.7
10월	10,507	12,700	12,447	12,933	-	15,137	13,304	-	24.6
11월	10,910	12,823	12,513	13,343	15,290	15,293	13,852	0.0	17.9
12월	11,833	12,937	13,270	13,573	14,953	15,467	14,040	3.4	16.2
연평균	10,093	12,257	12,803	13,237	15,490	15,163	13,790	-2.1	18.7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3) 오징어(냉동) 소매가격 조사단위는 1마리이며, 상자(8kg)당 20~30마리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이를 1kg 단위로 환산했음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26> 월별 오징어 소매가격 추이(냉동 기준)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2. 오징어 유통구조

가. 유통경로

- 오징어의 유통경로는 어획 방법(업종별) 및 부류별로 차이를 보임
- 오징어(활어)의 경우 대부분 근해채낚기어업을 통해서 어획되며, 일부 정치망어업 또는 동해구중형트롤어업으로 어획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오징어(활어)의 경우, 생산자 → [<산지위판장> → <산지 중도매인>] → 중간유통업자(활어차) → 소매상(횃집) → 소비자로 유통되고 있음
 - 활어는 선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선 내 어창(어획물 보관 공간)에 보관된 상태로 산지위판장에서 바로 경매가 이루어짐
 - 경매 후에는 배에서 10마리씩 별도로 나누어 활어차에 실려 각 지역의 소비지로 운송됨
 - 속초 및 주문진 등 관광지가 많은 강원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활오징어가 현지에서 소비되며, 활오징어 생산량이 많은 경북 지역의 후포와 구룡포 등에서는 지역 내 소비보다는 전국 각지의 소매점(횃집)으로 주로 유통됨
 - 일부 활어로 위판된 물량은 선어화 작업 후 스티로폼 박스에 담겨 시중에 유통되기도 했으나, 오징어 생산량이 급감한 이후로는 선어화되어 유통된 비중은 거의 없었음

<그림 4-27> 활어 오징어의 유통 현황



자료: 현지 출장 자료

- 오징어(선어)의 경우 동해구중형트롤, 대형트롤, 근해채낚기어업 등을 통해 어획되며, 조업 방식에 따라 유통 경로에 차이가 있음
- 근해채낚기어업으로 어획된 오징어는 선상에서 스티로폼 상자에 포장된 후 위판되며, 활오징어가 경매 후 팔리지 않을 경우 선어로 가공하여 스티로폼 상자에 포장되어 위판되기도 함
 - 스티로폼 상자당 약 20마리가 포장되며 무게는 약 6~8kg이며, 채낚기어업 방식으로 어획된 오징어는 신선도가 뛰어나
- 채낚기어업으로 어획된 오징어는 생산자 → [<산지위판장> → <산지 중도매인>] → [<소비지 도매시장> → <소비지 중도매인>]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로 유통됨
 - 이 유통경로는 가장 전통적인 오징어 유통형태로, 산지위판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진 뒤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운반된 후 재경매를 통해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됨
 - 산지 중도매인 및 소비지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역의 도·소매상으로 직접 유통되는 경로도 있음
- 또 다른 유통경로로는, 생산자 → [<산지위판장> → <산지 중도매인>] → 대형소매업체 → 소비자로 이어짐
 - 이 유통경로에서는 산지 중도매인을 거친 후 대형소매업체를 통해 오징어가 소비자에게 유통됨. 2000년대 이전에는 거의 모든 오징어가 소비지 도매시장과 전통시장을 통해 유통되었으나, 대형소매업체의 등장으로 이 유통 방식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대형 자본과 높은 소비자 접근성으로 인해 산지 중도매인들은 대형소매업체와의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통시장을 통한 유통은 길어진 유통 과정을 거치는 반면, 대형소매업체로 직접 유통되는 경로는 유통 과정이 짧아 오징어의 신선도 유지에 유리함
-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및 대형트롤어업으로 어획된 오징어는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선어로 위판됨
 - 플라스틱 상자 당 무게는 약 50~60kg로, 채낚기어업을 통해 어획된 오징어보다 신선도가 낮아 주로 조미 또는 건조된 형태로 가공되어 소비됨

- 플라스틱 상자에 위판된 오징어의 경우, 생산자 → [<산지위판장> → <산지 중도매인>] → 가공업체(냉동 창고 및 건조장) → 대형소매업체 → 소비자로 유통됨
 - 이 경로에서는 산지위판장에서 경매 후 산지 중도매인을 통해 가공업체로 직거래되거나 중간 유통업자와 벤더를 거쳐 가공업체에 전달됨
 - 이후 가공업체에서는 할복 및 채포장(20kg) 작업을 거쳐 냉동 창고에 보관되거나 조미, 훈제상품 등으로 가공되어 각 지역 도매시장이나 대형소매업체에 유통됨
 - 그 외 일부는 산지위판장에서 경매 후 군납이나 급식 등 식자재로도 유통됨

<그림 4-28>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및 대형트롤에서 조업된 선어 오징어 유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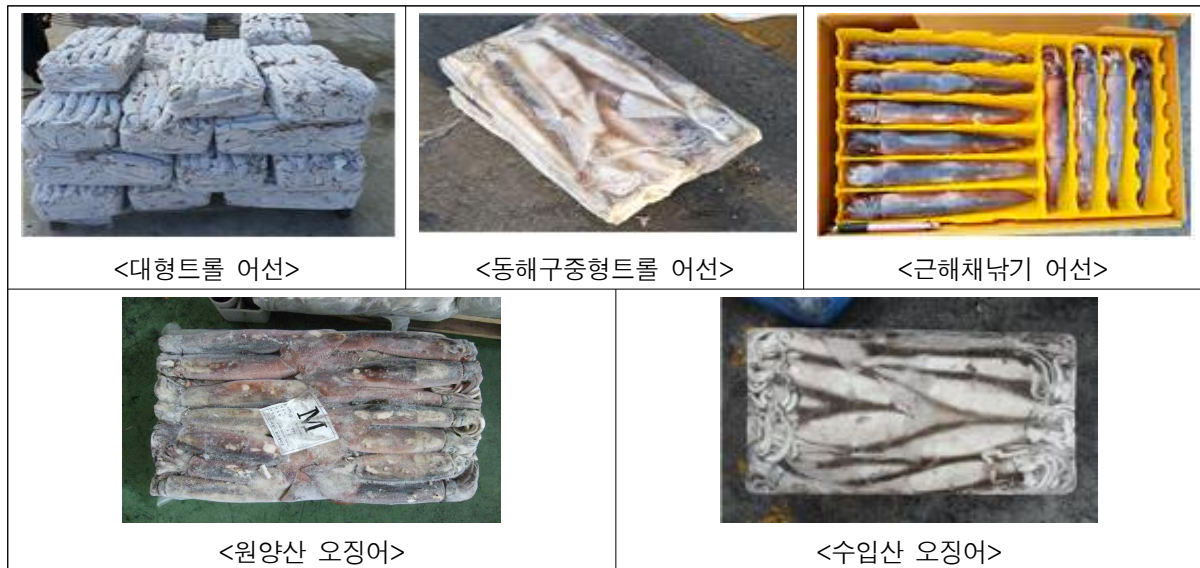


자료: 현지 출장 자료

- 오징어(냉동)는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대형트롤어업, 근해채낚기어업뿐만 아니라 원양어업을 통해서도 생산됨
- 대형트롤어업과 동해구중형트롤어업으로 어획된 냉동 오징어는 주로 생산자 → [산지위판장 → 산지 중도매인] → 가공업체(냉동 창고 및 건조장) → 대형소매업체 → 소비자로 이어지는 경로로 유통됨
 - 산지위판장에서 경매된 후 산지 중도매인을 통해 가공업체로 직접 유통되거나, 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가공업체로 전달됨. 이와 마찬가지로 선어 오징어도 소비지도매시장 및 대형소매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됨
- 한편, 포클랜드 해역에서 조업된 원양산 냉동 오징어는 어획 후 20kg/FAN으로 급속 냉동되어 운반선을 통해 국내로 반입됨
- 연근해산 오징어와는 달리 산지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배에서 하역 후 냉동 창고에 보관되며, 주로 1차 도매업체를 통해 유통됨

- 첫째, 생산자(원양선사) → 1차 도매업체 → 2차 도매업체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 둘째, 생산자(원양선사) → 1차 도매업체 → 대형소매업체 → 소비자
- 셋째, 생산자(원양선사) → 1차 도매업체 → 가공업체 → 소매상 → 소비자

<그림 4-29> 냉동오징어 유통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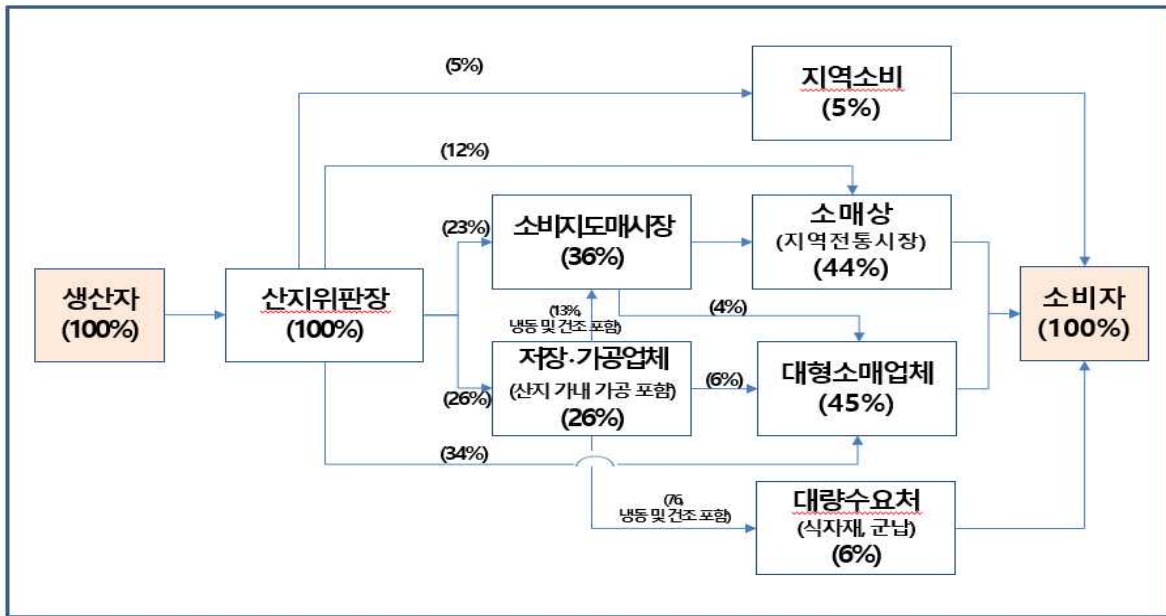


나.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2022년 기준 오징어 총 생산량은 8만 4,706톤으로, 연근해산은 3만 6,549톤, 원양산은 4만 8,157톤이 생산되었음
 - 이를 활오징어, 선어오징어, 냉동오징어로 나누어 유통경로별로 취급물량 비중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활오징어는 대부분 전국의 횃집 및 지역 내에서 소비되며, 선어오징어는 소비지 도매시장, 저장·가공업체(가내 소규모 가공 포함), 대형소매점으로 주로 유통됨
 - 2022년 활오징어의 97%는 물차를 통해 전국 횃집과 지역 횃집으로 유통되었으며, 일부는 대형소매업체로도 유통되었음
 - 활오징어의 유통 비중은 2019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활오징어 위판량이 줄면서 전체 취급량은 전년보다 감소했음

- 선어 오징어의 유통은 조업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신선도가 좋은 오징어의 경우 산지 중도매인이 대형소매업체와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유통하는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았음
 - 대형소매업체로의 유통 비중은 내식 소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소비지도매시장 및 지역 전통시장으로의 유통 비중은 2022년에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시판되지 않은 오징어는 냉동 창고 및 가공업체(단체급식, 식자재 유통 포함) 등으로 25.9%가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음
 - 저장·가공업체로의 선어 유통 비중은 원양산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했음

<그림 4-30> 오징어(선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비중



주: 1) 선어로 위판된 물량에 대한 유통경로임
 2) 오징어(선어)의 경우 비계통출하 비율이 0.5%에 그쳐 전체를 계통출하로 선정
 3)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 냉동오징어는 주로 냉동 창고 및 가공업체로 유통되었으며, 다음으로 소비지 도매시장과 소매상(지역 전통시장)으로 많이 유통되었음
 - 대형소매업체로의 냉동 오징어 유통 비중은 2022년에도 24.1%에서 8.0%로 크게 감소했음. 이는 손질된 식재료에 대한 선호 증가와 점포 내 수산물 손질 인력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대형소매업체에서 가공된 오징어를 취급하는 비중이 늘었기 때문임
 - 반면, 소비지 도매시장과 소매상(지역 전통시장)으로의 유통 비중은 24.7%로, 전년(15.8%) 대비 크게 증가했음
 - 정부 비축물량은 4,157톤으로 원양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냉동 유통 물량 중 6.6%를 차지했음

<표 4-52> 오징어(활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

단위: 톤,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산지위판장 / 원양선사	4,935	6,353	8,090	5,288	4,501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횡집(소매), 지역 소비	4,837	6,162	7,846	5,129	4,366
	(98.0)	(97.0)	(97.0)	(97.0)	(97.0)
대형소매업체(대형소매점, 백화점)	99	191	243	159	135
	(2.0)	(3.0)	(3.0)	(3.0)	(3.0)

주: 산지위판장에서 위판 이후 중도매인이 분산한 물량 기준임, 오차범위는 5% 내외임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표 4-53> 오징어(선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

단위: 톤,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산지위판장 / 원양선사	18,003 (100.0)	23,749 (100.0)	33,807 (100.0)	33,140 (100.0)	17,607 (100.0)
전국 횡집(소매), 지역 소비	900 (5.0)	1,187 (5.0)	1,352 (4.0)	1,226 (4.0)	828 (4.7)
냉동 창고 및 가공업체 (단체급식, 식자재 유통 포함)	7,201 (40.0)	8,312 (35.0)	10,142 (30.0)	8,948 (27.0)	4,560 (25.9)
소비지 도매시장	7,201 (40.0)	8,312 (35.0)	10,142 (30.0)	10,903 (33.0)	4,014 (22.8)
소매점포(지역 전통시장 포함)	1,800 (10.0)	2,375 (10.0)	3,043 (9.0)	3,314 (10.0)	2,148 (12.2)
대형소매업체(대형소매점, 백화점)	900 (5.0)	3,562 (15.0)	9,128 (27.0)	8,749 (26.0)	6,057 (34.4)

주: 산지위판장에서 위판 이후 중도매인이 분산한 물량 기준임, 오차범위는 5% 내외임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표 4-54> 오징어(냉동)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

단위: 톤,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산지위판장 / 원양선사	57,989 (100.0)	41,655 (100.0)	52,784 (100.0)	90,724 (100.0)	62,599 (100.0)
냉동 창고 및 가공업체 (단체급식, 식자재 유통 포함)	17,730 (30.0)	12,497 (30.0)	11,091 (21.0)	50,323 (55.5)	28,670 (45.8)
소비지 도매시장 및 소매점포(지역 전통시장 포함)	8,695 (15.0)	5,123 (12.3)	6,050 (11.5)	14,396 (15.8)	24,777 (39.6)
대형소매업체(대형소매점, 백화점)	28,994 (50.0)	22,910 (55.0)	33,947 (64.3)	21,848 (24.1)	4,996 (8.0)
정부비축 구매 물량	2,570 (5.0)	1,134 (2.7)	1,696 (3.2)	4,157 (4.6)	4,157 (6.6)

주: 산지위판장에서 위판 이후 중도매인이 분산한 물량 기준임, 오차범위는 5% 내외임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3. 오징어 유통비용

가. 활오징어의 유통비용(경북 울진 후포 → 소매상(횃집))

- 활오징어는 근해채낚기어선에서 선상 경매가 이루어지며, 경매 후 어창에서 바구니를 통해 활어차로 옮겨짐
 - 타 어종과 달리 선원들이 어선에서 오징어를 운반하기 때문에 양륙비, 배열비 등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수협 위판수수료로 경매금액의 4%만이 부과됨
 - 중간유통업자(활어차)는 산지 중도매인에게 마리당 수수료를 부과함. 기본적으로 2,000원 이하는 마리당 15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마리당 경매가격이 1,000원 단위로 상승할 때마다 수수료도 50원씩 올라가게 됨. 다만, 수급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음
 - 활어차에 옮겨진 오징어는 전국의 횃집으로 운반되며, 마리당 가격은 시세에 따라 중간 유통업자(활어차)의 의지에 따라 책정됨. 일반적으로 출하가격에 마리당 1,000~2,000원을 더하여 판매함
- 활오징어 유통비용은 소비지 소매상의 이윤을 제외하고 2018년 이후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산지위판장의 위판수수료 상승률이 가장 높았음
- 2022년에는 오징어 어획 부진이 심화되며, 활오징어는 전년 동기 대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음
 - 활오징어는 2021년 대비 어획량이 14.9% 감소했으며, 10월 말부터 급격한 어획 부진이 이어지며 전년 동기 대비 높은 가격에 위판되었음. 그 외 산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변동이 없었음
 - 중간유통업자의 유류비 등 직접비는 소폭 상승했으나, 이윤은 전년보다 증가했음
 - 소비지 소매상(횃집)의 경우 간접비는 인건비 및 점포세 등의 상승으로 인해 전년보다 상승했으나, '코로나 19'로 부진한 외식 수요가 이어지며 이윤은 하락했음

<표 4-55> 활오징어의 유통비용 변화(경북 울진 후포 → 소매상(횃집))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률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8,332	9,894	8,928	13,920	16,946	19.4
산지 위판장	위판수수료	328	306	372	580	706	21.1
	위판가격	8,660	10,200	9,300	14,500	17,652	19.5
산지 중도매인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700	700	700	700	850	5.0
	판매가격	9,360	10,900	10,000	15,200	18,502	18.6
중간유통업자 (활어차)	유류비	300	300	300	350	450	10.7
	물·가스비	150	150	150	200	200	7.5
	이윤	900	1,150	1,150	1,050	1,200	7.5
	중간유통업자 판매가격	10,710	12,500	11,600	16,800	20,352	17.4
소비지 소매상 (횃집)	간접비	2,000	2,300	2,500	2,700	3,000	10.7
	이윤	2,000	2,000	1,800	1,700	1,500	-6.9
	판매가격	14,710	16,800	15,900	21,200	24,852	14.0

주: 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각 연도 11월 중순임

나.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경북 구룡포 → 가락시장)

- 가락시장으로의 선어 오징어 유통비용은 2018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소비지 소매상의 이윤은 직접비 상승으로 인해 연평균 20.1% 하락했음
- 선어 오징어는 2021년 11월 중순 이후 어획 부진이 심화되며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산지에서 전년보다 높은 가격 수준을 보였음
 - 산지위판장에서의 비용은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산지중도매인의 비용도 전년 대비 상승했음. 특히 산지에서 운반비는 상자당 200원에서 330원으로 상승하여 전년 대비 65.2% 증가했음
- 산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지 시장에서도 전년 대비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으며, 상승폭은 17.9%로 컸음
 - 한편, 운송비 등 직접비와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의 간접비가 증가하면서 소비지 소매상의 이윤은 상대적으로 감소했음

1) 산지 단계

- 선어 오징어(s/p, 20미)의 소비지 도매시장 경유 경로의 가격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음
 - 근해채낚기어업으로 어획된 오징어는 선상에서 스티로폼 상자에 담겨 양륙됨. 이 과정은 모두 어선 선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선별비는 발생하지 않음. 위판수수료로 생산자비용은 위판가격의 4%만 발생함
 - 참고로, 구룡포수협에 등록된 조합 어선은 4%, 그 외 비조합 어선은 4.5%의 위판수수료가 부과됨
- 2022년 산지위판장에서 발생하는 운반비, 박스 작업비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 경매가 끝난 후에는, 중도매인 비용으로 근해채낚기어선에서 스티로폼 박스에 20마리씩 포장되어 위판되는 경우 항운노조에 의해 운반비, 상차비 등의 비용이 발생함
 - 운반비는 330원으로 전년(200원) 대비 상승했으며, 상차비도 330원으로 전년(300원/6kg 상자)보다 상승했음
 - 산지 단계에서의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생산으로 인해 위판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며, 중도매인 이윤은 전년 대비 증가했음
 - 어선에서 활오징어 상태로 위판되어 선어로 가공되는 경우에는 스티로폼 박스 1,500원, 얼음 300원, 작업 노임비 440원이 발생하며, 이는 중도매인이 부담함. 그러나 2022년에도 어획량이 적어 활어 상태로 위판되어 선어화된 경우는 없었음

2) 소비지 도매 단계

- 산지에서 소비지 도매시장으로 선어 오징어를 운반할 경우 상자당 가격으로 비용이 부과되며, 2022년 운송비는 유류비 상승으로 상자당 1,6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했음
 - 이와 함께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하차비, 경매수수료는 산지 중도매인이 부담함
 - 2022년 소비지 도매 단계에서의 상·하차비는 상자당 180원으로 전년 대비 소

폭 상승했음

- 경매수수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도매시장에 직접 상장 시 위탁수수료인 4%만 부과되나, 수의계약 시에는 위탁수수료 외에 상외수수료(4~5%)가 추가로 발생함

3) 소매 단계

- 소비지 중도매인은 경매로 오징어를 낙찰받은 후 상차비와 간접비, 이윤을 고려하여 소매상에 판매함
 - 소비지 중도매인은 낙찰 받은 가격에 소매상으로 5%가량 이윤을 붙여 판매함
 - 노량진수산시장에서는 도매시장에서 소매상으로 운반 시 운반비가 발생하지만, 가락시장에서는 운반비가 부과되지 않음
- 소비지 소매상의 비용은 운송비 등의 직접비와 점포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의 간접비 상승으로 인해 이윤이 감소했음

<표 4-56>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 변화(경북 구룡포 → 가락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률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3,370	13,396	12,808	13,696	17,870	7.5	
산지 위판장	양륙비	-	-	-	-	-	-	
	배열비	-	-	-	-	-	-	
	위판수수료	534	414	534	571	745	8.7	
	위판가격	13,904	13,810	13,342	14,267	18,615	7.6	
산지 중도매인	선별비	-	-	-	-	-	-	
	운반비	33	33	33	33	55	13.6	
	박스작업 (선어화)	스티로폼박스	-	-	-	-	-	-
		얼음	-	-	-	-	-	-
		작업 노임	-	-	-	-	-	-
	상차비	47	47	47	50	55	4.0	
	운송비(산지→소비지)	217	233	233	267	333	11.3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411	617	589	570	794	17.9	
산지출하(판매)가격	14,612	14,740	14,244	15,187	19,852	8.0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27	27	28	29	30	2.7	
	경매수수료	643	615	592	646	828	6.5	
	경락가격	15,282	15,382	14,864	15,862	20,711	7.9	
소비지 중도매인	운반비	65	-	-	-	-	-	
	상차비	27	27	28	29	30	2.7	
	간접비	900	922	891	931	980	2.2	
	이윤	813	860	828	831	875	1.9	
	판매가격	17,086	17,190	16,611	17,652	22,596	7.2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87	167	175	184	193	22.0	
	간접비	2,024	2,010	2,111	2,216	2,327	3.5	
	이윤	2,911	2,233	2,103	1,448	1,187	-20.1	
	판매가격	22,108	21,600	21,000	21,500	26,303	4.4	

주: 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각 연도 11월 중순임

다.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경북 구룡포 → 대형소매업체)

1) 산지 단계

- 선어 오징어(s/p, 20미)가 산지에서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되는 경로의 가격 형성 과정은 산지 단계까지는 동일함
 - 산지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동일하며, 이후 산지에서 유통센터로 이동하는 운송비와 중도매인 수수료는 대형소매업체에서 정해진 비용이 청구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지중도매인 단계에서의 상차비는 상자당 330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납품가격의 3.3~3.5% 수준이었던 중도매인 수수료는 3~4% 내외로 책정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
 - 한편, 운송비는 전년 납품가격의 4~5% 내외로 책정되며 상승했던 것과 달리, 2022년에는 이전 수준인 3~4%대로 하락했음

2) 대형소매점 단계

- 대형소매업체에서는 유통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운송 시 발생하는 비용, 인건비, 홍보비, 운영관리비, 소모품비 등 간접비가 발생함
 - 대형소매업체는 다른 유통경로에 비해 이윤 비중을 높게 책정함
 - 이는 판매단계에서 할인, 폐기, 시식 등의 감모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임
- 2022년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되는 경로에서는 간접비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이윤은 큰 폭으로 증가했음

<표 4-57> 오징어(선어)의 유통비용 변화(경북 구룡포 →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률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3,370	13,396	12,808	13,696	17,870	7.5	
산지 위판장	양륙비	-	-	-	-	-	-	
	배열비	-	-	-	-	-	-	
	위판수수료	534	414	534	571	745	8.7	
	위판가격	13,904	13,810	13,342	14,267	18,615	7.6	
산지 중도매인	운반비	33	33	33	33	55	13.6	
	박스작업 (선어화 시 추가 비용)	스티로폼박스	-	-	-	-	-	-
		얼음	-	-	-	-	-	-
		작업 노임	-	-	-	-	-	-
	상차비	47	47	47	50	55	4.0	
	운송비(산지→유동센터)	217	250	242	255	336	11.5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511	520	503	493	691	7.8	
	산지출하(판매)가격	14,712	14,660	14,167	14,950	19,752	7.6	
대형 소매업체	간접비	1,742	1,749	2,296	2,307	2,422	8.6	
	이윤	3,022	3,391	4,450	1,832	5,098	14.0	
	판매가격	19,476	19,800	20,913	19,089	27,272	8.8	

주: 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각 연도 11월 중순임

라. 수입오징어(냉동)의 유통비용(부산 → 가락시장)

1) 수입 단계

- 수입산 오징어는 20kg씩 팬(PAN)으로 냉동되어 BAG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됨. 수산물은 일반적으로 CFR⁴²⁾조건이 적용되며, 오징어도 동일함
 - 컨테이너 1대당 약 24톤의 물량(20kg BAG 1,100~1,200개)이 선적되며,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1대당 24톤 전량을 채워서 수입함
 - 오징어 수입원가는 현지 조업량 감소로 수입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2021년 3,371원/kg에서 2022년 4,229원/kg으로 25.4% 상승했음
 - 수입 관세율은 22%(조정관세 ; 기본관세 20%)로 전년과 동일했음
 - 인건비, 유류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수입업자 비용은 전반적으로 전년 및 평

42) CFR(Cost and Freight)이란 운임포함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급

년 대비 상승했음

- 부두 하역비는 426원/1BAG으로 '21년(367원/1BAG)에 비해 16.2% 상승했으나, 2018년 이후 연평균 4.1%의 하락세를 보였음
- 통관 후 부두에서 냉동 창고까지의 육상운반비는 311원/1BAG으로 전년(268원/1BAG) 대비 상승했음
- 상·하차비는 153원/1BAG으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창고입·출고비는 전년(202원/1BAG) 대비 높은 215원/1BAG이었음
- 창고보관비(냉장료)는 1일당 12원으로 전년(11원)보다 소폭 상승했는데, 수입업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존재함
- 일반적으로 수입업자는 수입가격의 3% 정도(1BAG당 2,700~3,000원)를 유통수수료로 부과함
- 부산 냉동·냉장창고에서 소비지 도매시장까지 운송비는 1BAG당 1,600~1,800원으로 전년과 동일했음

2) 소비지 도매 단계

- 2022년 11월 기준 소비지 도매시장(가락시장)에서 경락된 수입산 오징어 1BAG의 경락가격은 100,000원대로 전년(90,000~95,000원) 대비 상승했으며, 2018년 이후 연평균 9.1% 증가했음
 -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는 1BAG당 326원으로 전년과 같았으며, 경매수수료는 4%가 발생했음. 경락된 수입산 오징어는 소비지 중도매인에 의해 약 5% 이윤이 부과되어 각 소매상으로 판매됨
- 오징어 자원 및 어획량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수입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지에서 판매되는 금액도 전년 대비 12.3% 높았음
- 소비지 중도매인의 이윤은 판매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직접비와 점포 유지관리비 등의 간접비의 상승폭이 커 전년 대비 하락했음. 한편 소비지 소매상의 이윤은 전년과 비슷했음

<표 4-58> 수입오징어(냉동)의 유통비용 변화(부산 → 가락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률
수입업자	수입원가	3,000	3,304	3,607	3,371	4,229	9.0
	수입관세	770	1,018	1,020	953	1,193	11.6
	수입가격	3,770	4,322	4,627	4,324	5,421	9.5
	부두하역비	25	16	16	18	21	-4.1
	육상운반비(부두→창고)	7	11	12	13	16	21.3
	하차비	7	7	7	8	8	2.4
	창고 입고비	10	10	10	10	11	3.3
	창고 출고비	10	10	10	10	11	3.3
	냉장료	15	15	15	17	18	5.0
	상차비	7	7	7	8	8	2.4
	운송비(부산→서울)	75	80	84	88	88	4.1
	수입업자 이윤	150	148	160	150	168	2.9
	수입업자 판매가격	4,075	4,625	4,947	4,646	5,769	9.1
소비자 도매시장	하차비	16	16	16	16	16	1.3
	경매수수료	157	209	223	210	241	11.3
	경락가격	4,248	4,849	5,186	4,871	6,027	9.1
소비자 중도매인	운반비	26	-	-	-	-	-
	상차비	16	16	16	16	16	1.3
	간접비	870	978	1,027	972	1,023	4.1
	이윤	813	658	670	631	372	-17.8
	소비자 중도매인 판매가격	5,972	6,500	6,899	6,491	7,438	5.6
소비자 소매상	직접비	103	125	131	130	130	6.0
	간접비	1,641	1,711	1,800	1,900	2,000	5.1
	이윤	3,059	2,954	3,102	2,759	3,098	0.3
	소매상 판매가격	10,775	11,290	11,932	11,280	12,666	4.1

주: 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각 연도 11월 중순임

제5절 갈치 유통실태조사

1. 갈치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및 계통출하 동향

- 2022년 갈치 총 생산량은 54,000톤이며, 전량 일반해면어업 생산으로 원양생산은 없었음
- 최근 10년간 갈치 생산량은 3년에 한 번 정도 호어황을 보이며 증감을 반복해 왔으며, 2022년에는 풍어였던 작년(63,056톤)보다 14.4% 감소했음
 - 8월까지 누적 생산량은 전년보다 많았으나, 성어기에 들어서는 9월부터 전년에 비해 기상 및 어황 여건 부진하여 생산 감소했음

<표 4-59> 연도별 어업별 갈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총생산량	일반해면		원양	
			비중		비중
1990년	112,166	103,736	92.5	8,430	7.5
1995년	102,019	94,596	92.7	7,423	7.3
2000년	93,185	81,050	87.0	12,135	13.0
2005년	62,151	60,086	96.7	2,065	3.3
2010년	59,822	59,242	99.0	580	1.0
2017년	54,521	54,481	99.9	40	0.1
2018년	49,514	49,450	99.9	64	0.1
2019년	43,516	43,479	99.9	37	0.1
2020년	65,724	65,719	100.0	5	0.0
2021년	63,056	63,056	100.0	0	0.0
2022년	54,000	54,000	100.0	0	0.0
5개년 평균	55,266	55,237	99.9	29	0.1
전년 대비	-14.4	-14.4	0.0	-	-
평년 대비	-2.3	-2.2	0.1	-100.0	-100.0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갈치 생산금액은 전년보다 0.9% 감소한 4,498억 원으로 생산량 감소에 비해 생산금액 감소폭이 작았음

- 갈치 생산금액은 모두 일반해면어업이었음
- 평년에 비해 생산량은 2.3% 감소한 반면 생산금액은 11.7%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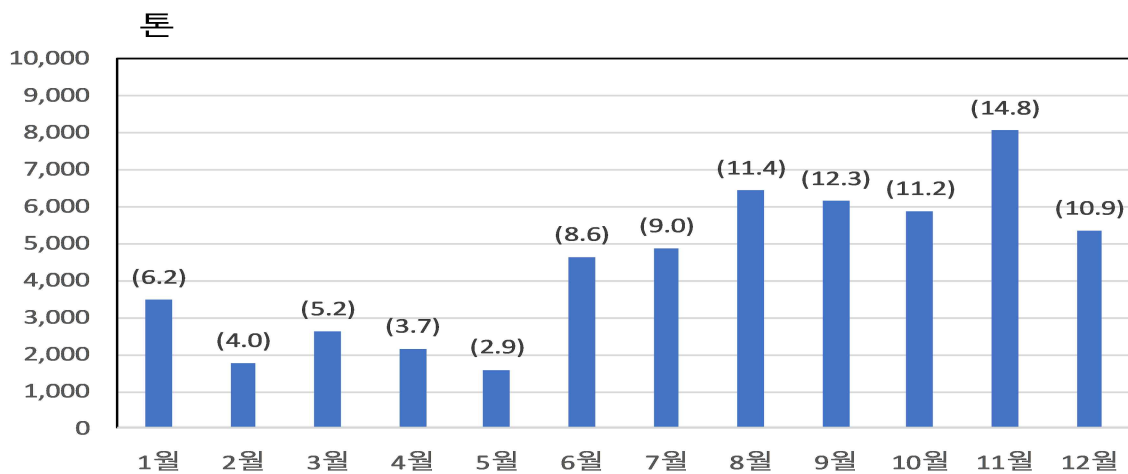
<표 4-60> 연도별 어업별 갈치 생산금액 동향

단위: 백만 원, %

구분	총생산금액	일반해면	원양		
			비중	원양	비중
1990년	126,755	123,689	97.6	3,066	2.4
1995년	223,500	220,684	98.7	2,816	1.3
2000년	217,077	203,707	93.8	13,370	6.2
2005년	226,950	225,004	99.1	1,946	0.9
2010년	301,922	300,903	99.7	1,019	0.3
2017년	438,835	438,739	100.0	96	0.0
2018년	352,148	351,995	100.0	153	0.0
2019년	302,689	302,600	100.0	89	0.0
2020년	466,037	466,031	100.0	6	0.0
2021년	453,686	453,686	100.0	0	0.0
2022년	449,826	449,826	100.0	0	0.0
5개년 평균	402,679	402,610	100.0	69	0.0
전년 대비	-0.9	-0.9	0.0	-	-
평년 대비	11.7	11.7	0.0	-100.0	-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그림 4-31> 최근 5년간 월별 갈치 생산량 추이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는 월별 비중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61> 연도별·월별 갈치 생산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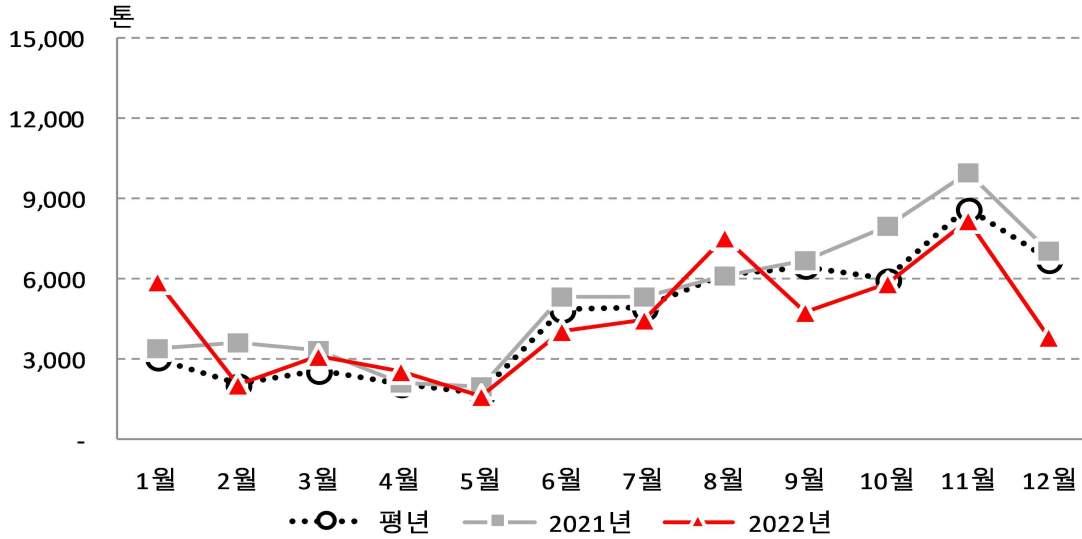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576	2,017	2,920	3,111	3,431	5900	3,476	72.0	95.9
2월	2,872	915	1,725	499	3,642	2056	1,767	-43.5	6.5
3월	2,575	1,931	3,173	1,562	3,319	3098	2,617	-6.7	23.3
4월	694	2,578	2,288	1,180	2,160	2558	2,153	18.4	43.7
5월	653	2,099	1,438	808	1,994	1626	1,593	-18.5	16.3
6월	1,691	5,623	5,108	3,057	5,341	4,047	4,635	-24.2	-2.8
7월	1,991	5,983	4,762	3,765	5,352	4,473	4,867	-16.4	2.3
8월	3,224	9,505	4,336	4,605	6,105	7,552	6,421	23.7	35.9
9월	4,009	8,368	6,649	4,197	6,674	4,803	6,138	-28.0	-19.7
10월	3,716	3,786	5,879	5,855	7,988	5,847	5,871	-26.8	7.4
11월	3,800	7,274	6,096	8,695	9,986	8,168	8,044	-18.2	13.9
12월	3,558	4,442	5,140	6,182	7,063	3,871	5,340	-45.2	-26.6
합계	32,359	54,521	49,514	43,516	63,055	53,999	52,921	-14.4	11.1

주: 1) 생산량은 일반해면어업과 원양어업의 합계이고,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을 의미함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갈치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연간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월별 생산량을 보정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갈치는 연중 어획되는 품목이지만,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수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는 6월부터 12월까지가 주 어획 시기임
 - 최근 5년 평균 월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11월이 전체 물량의 14.8%로 어획량이 가장 많았음
 - 과거에는 여름철 생산이 많았으나, 최근에 들어 11~12월 비중이 높아졌음
- 2022년 월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1월과 8월에는 전년 및 평년보다 생산이 늘었으나 그 외에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적었음
 - 특히 성어기에 접어드는 9월부터 어황 부진 및 기상악화로 작년 및 평년보다 감소했으며 이러한 동향은 연말까지 이어졌음

<그림 4-32> 2022년 월별 갈치 생산량 추이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선어 갈치 어획량은 전체 생산량의 73.5%, 냉동은 26.5% 였음
 - 전년에 비해 냉장 생산량과 비중이 감소하고 냉동 생산은 증가했음. 이는 올해 초부터 냉동갈치 재고 적체가 해소되어 냉동갈치 생산을 제한하는 여건이 완화되었으며, 선어갈치 생산이 상대적으로 기상 여건에 취약하여 해어황 여건 부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임

<표 4-62> 연도별 부류별 갈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비중	평균
활어	0	0	0	1	0	0	0	0
선어	47,373	41,607	35,445	51,057	50,529	39,711	73.5	43,670
냉동	7,148	7,907	8,071	14,666	12,527	14,289	26.5	11,492
합계	54,521	49,514	43,516	65,724	63,056	54,000	100.0	55,162

주: 1) 생산량은 일반해면어업과 원양어업의 합계이고,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갈치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연간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보정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계통출하 동향은 연근해산의 경우 94.2%가 계통으로 출하되었고, 원양산은 생산이 없었음

<표 4-63> 연도별 부류별 갈치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비중	비중		
일반 해면	활어	계통	0	0	0	0	0	0	0.0	0	
		비계통	0	0	0	1	0	0	0	0.0	0
		소계	0	0	0	1	0	0	0	0.0	0
	선어	계통	47,108	40,771	34,248	49,678	48,846	36,600	67.8	42,029	
		비계통	265	835	1,197	1,379	1,683	3,111	5.8	1,641	
		소계	47,373	41,606	35,445	51,057	50,529	39,711	73.5	43,670	
	냉동	계통	6,750	7,843	8,034	14,661	12,527	14,289	26.5	11,471	
		비계통	358	0	0	0	0	0	0.0	0	
		소계	7,108	7,843	8,034	14,661	12,527	14,289	26.5	11,471	
	계	계통	53,858	48,614	42,282	64,339	61,373	50,889	94.2	53,499	
		비계통	623	835	1,197	1,380	1,683	3,111	5.8	1,641	
		소계	54,481	49,449	43,479	65,719	63,056	54,000	100.0	55,141	
원양	냉동	계통	0	0	0	0	0	0	0.0	0	
		비계통	40	64	37	5	0	0	0.0	21	
		소계	40	64	37	5	0	0	0.0	21	
합계	계통	53,858	48,614	42,282	64,339	61,373	50,889	94.2	53,499		
	비계통	663	899	1,234	1,385	1,683	3,111	5.8	1,662		
	합계	54,521	49,513	43,516	65,724	63,056	54,000	100.0	55,162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갈치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연간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보정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지역별 양륙량⁴³⁾을 살펴보면, 제주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순이었음
 - 제주도가 25,748톤으로 지역별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10,421톤, 전라남도 9,722톤, 경상남도 6,941톤 등의 순이었음
- 그러나 2022년에는 최근 5년 평균과는 달리 제주도에 이어 다음으로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리고 부산광역시였음
 - 제주도 양륙량은 25,739톤으로 전체 양륙량의 40.8%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 10,793톤(17.1%),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7,820톤(12.4%), 7,605톤(12.1%)으로 비슷했음

43) 지역별 생산량은 통계청 기준인데, 실제 갈치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위판 혹은 비계통으로 판매된 것임

- 연간 생산량이 전년대비 감소한 동향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양륙량이 줄었으며 특히 부산지역 양륙량이 크게 줄었으나, 경상남도 지역의 양륙량은 오히려 증가했음

<표 4-64> 연도별 지역별 갈치 산지판매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비중	5개년 평균
부산광역시	11,840	7,940	8,958	15,035	12,566	7,605	12.1	10,421
인천광역시	260	612	360	626	878	544	0.9	604
울산광역시	103	9	22	3	24	7	0.0	13
강원도	1	0	0	0	1	0	0.0	0
충청남도	265	763	442	455	746	614	1.0	604
전라북도	1,569	1,333	759	925	1242	721	1.1	996
전라남도	5,493	8,378	7,366	9,398	12,674	10,793	17.1	9,722
경상북도	50	4	110	24	164	156	0.2	92
경상남도	8,639	5,536	4,182	10,264	6,904	7,820	12.4	6,941
제주도	26,261	24,875	21,280	28,989	27,858	25,739	40.8	25,748
원양산	40	64	37	5	0	0	0.0	21
합계	54,521	49,514	43,516	65,724	63,056	54,000	100.0	56,973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갈치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연간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보정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 평균 어법별 갈치 생산량을 살펴보면 근해연승어업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근해안강망, 연안복합 등의 순이었음
- 2022년에도 근해연승어업의 생산량이 15,565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24.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근해안강망 6,536톤(10.4%), 연안복합 6,303톤(10.0%) 등의 순이었음
 - 한편 대형트롤어업 어획량은 전년에 이어 또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대형 선망 어획량도 전년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했음
 - 반면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과 일반해면어업기타 어획량 비중은 늘었음

<표 4-65> 연도별 어법별 갈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비중	평균
근해연승	13,193	13,892	11,447	15,736	16,041	15,565	24.7	14,536
대형트롤	1,033	1,438	5,312	8,454	4,142	2,715	4.3	4,412
연안복합	9,684	7,025	6,116	7,632	7,638	6,303	10.0	6,943
근해안강망	6,199	7,739	5,581	7,522	9,967	6,536	10.4	7,469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2,504	2,153	1,944	6,547	3,098	4,597	7.3	3,668
근해채낚기	4,931	3,830	3,235	4,557	4,018	3,852	6.1	3,898
쌍끌이대형저인망	4,343	3,008	1,897	4,070	4,407	2,258	3.6	3,128
대형선망	8,373	4,969	2,426	3,603	6,252	3,294	5.2	4,109
근해자망	1,575	2,130	1,299	2,888	3,522	3,968	6.3	2,761
일반해면어업기타	2,646	3,265	4,222	4,710	3,971	4,912	7.8	4,216
원양어업(트롤)	40	64	37	5	0	0	0.0	21
합계	54,521	49,514	43,516	65,724	63,056	54,000	100.0	56,973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나. 수출입 현황

- 2022년 갈치 수출량과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음
 - 갈치 수출량은 5,425톤으로 전년 대비 82.1% 증가했으며, 수출금액도 60.3% 증가한 1,354만 달러였음
 - 냉동갈치 산지가격이 전년 및 평년보다 낮은 수준에 형성되었으며 이에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수출 단가도 전년 대비 12.0% 하락한 kg당 2.50달러였음
- 2022년 갈치 수입량과 수입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6%, 27.7% 감소했음
 - 2022년 갈치 수입량은 13,096톤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5.6%, 28.5% 감소했음
 - 수입금액도 4,3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7% 감소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43.0% 적었음. 수입단가도 전년 대비 14.3% 하락한 kg당 3.33달러였음
 - 2022년 중반까지도 냉동갈치 재고가 충분하여 수입산 수요가 적었음

<표 4-66> 연도별 갈치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7년	871	3,215	3.69	23,432	114,014	4.87
2018년	1,755	5,438	3.10	17,722	75,155	4.24
2019년	3,739	10,649	2.85	15,659	59,505	3.80
2020년	2,793	7,265	2.60	19,303	73,858	3.83
2021년	2,979	8,442	2.83	15,522	60,287	3.88
2022년	5,425	13,536	2.50	13,096	43,603	3.33
5개년 평균	2,427	7,002	2.88	18,327	76,564	4.18
전년 대비	82.1	60.3	-12.0	-15.6	-27.7	-14.3
평년 대비	123.5	93.3	-13.5	-28.5	-43.0	-20.3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제품유형별로 갈치 수출입을 살펴보면, 대부분 냉동품이었으나 올해는 신선냉장도 소폭 수입되었음
 - 2022년 갈치 수출에서 냉동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량 기준으로 99.2%, 금액은 95.9%였음
 - 수입의 경우는 중량 기준 98.2%, 금액으로는 94.7%를 냉동품이 차지했음

<표 4-67> 제품유형별 갈치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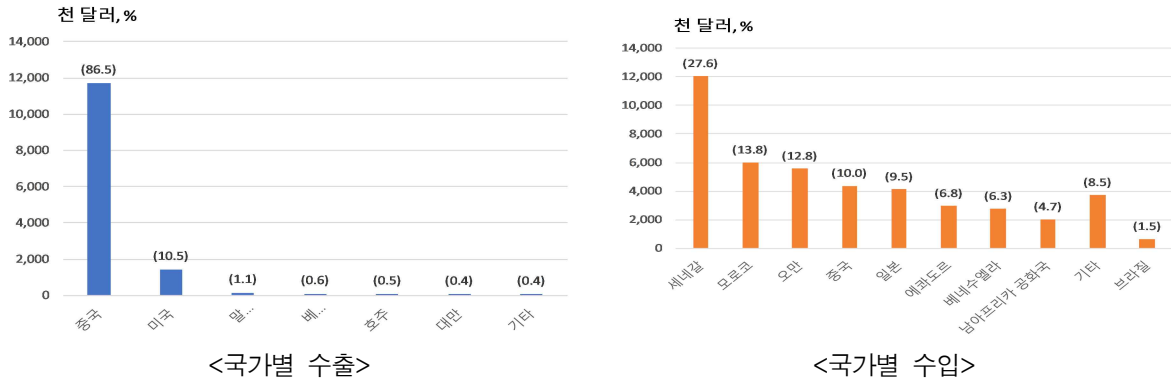
단위: 톤, 천 불, %

명칭	HS CODE	수출				수입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신선냉장	0302892000	26	0.5	0	3.0	238	1.8	2	5.3
냉동	0303892000	5384	99.2	13	95.9	12858	98.2	41	94.7
염장·염수장	0305693000	15	0.3	0	1.1	0	0.0	0	0.0
합계		5425	100.0	14	100.0	13096	100.0	44	100.0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갈치는 중국(86.5%)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었고, 다음으로 미국(10.5%), 말레이시아(1.1%) 등으로 수출되었음
- 갈치 수입국을 살펴보면, 세네갈산이 2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모로코(13.8%), 오만(12.8%), 중국(10.0%) 등의 순이었음

<그림 4-33> 국가별 갈치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다. 수급 구조

- 2022년 공급량은 전년에 비해 9.8% 감소한 83,629톤이었음
 - 2022년에는 전년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이입재고는 전년 대비 16.8% 늘었으나, 국내 생산 및 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14.4%, 15.6% 감소하여 총공급은 전년 대비 9.8% 감소했음
 - 수요의 경우 이월재고는 비슷했으나 수출이 전년 대비 85.3%로 크게 늘었고, 국내소비는 전년 대비 16.2% 감소했음
- 국내 생산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소비 역시 감소함에 따라 갈치 연간 자급률은 88.0%로 전년보다 증가했음

<표 4-68> 연도별 갈치 수급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2017년	54,521	23,432	19,152	97,105	76,540	873	19,692	71.2
2018년	49,514	17,722	19,692	86,928	67,841	1,758	17,329	73.0
2019년	43,516	15,659	17,329	76,504	62,283	3,743	10,478	69.9
2020년	65,724	19,302	10,478	95,504	78,545	2,798	14,161	83.7
2021년	63,055	15,523	14,161	92,739	73,226	3,007	16,534	86.1
2022년	53,999	13,096	16,534	83,629	61,379	5,573	16,677	88.0
5년 평균	55,266	18,328	16,162	89,756	71,687	2,436	15,639	77.1
전년대비	-14.4	-15.6	16.8	-9.8	-16.2	85.3	0.9	88.8
평년대비	-2.3	-28.5	2.3	-6.8	-14.4	128.8	6.6	15.9

주: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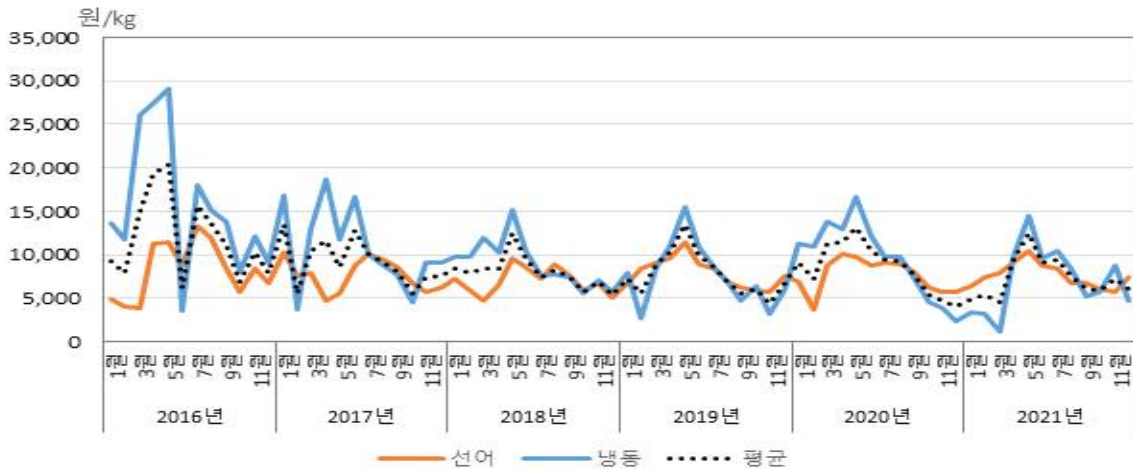
-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3) 이입, 이월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재고량 동향
 4)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갈치 생산단가는 2016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연근해 어획 갈치는 선어와 냉동으로 구분되어 위판되며, kg당 생산단가⁴⁴⁾는 냉동갈치가 선어에 비해 대체로 높게⁴⁵⁾ 형성되는 경향을 보였음
 - 이는 선어의 경우, 자망어업과 같은 망어업 및 저인망어업, 트롤어업과 같은 인망어업에서 생산되는 갈치를 비롯해 어린 갈치인 풀치의 가격이 근해연승어업으로 주로 생산되는 냉동갈치보다 낮게 형성되기 때문임

<그림 4-34> 연도별 부류별 갈치 생산단가 추이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를 통해 도출한 갈치 선어의 2022년 연평균 갈치 생산단가는 kg당 8,337원 이었으며,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2%, 10.3% 높았음
 - 1~2월 근해연승어업 등으로 어획된 상품성 높은 냉동갈치 생산이 원활하여 연초부터 높게 형성되었음

44) 생산단가는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구함

45) 동일 어법에서 생산되는 같은 크기의 가격을 비교하면 냉장갈치가 냉동갈치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됨

<표 4-69> 연도별·월별 선어 갈치 생산단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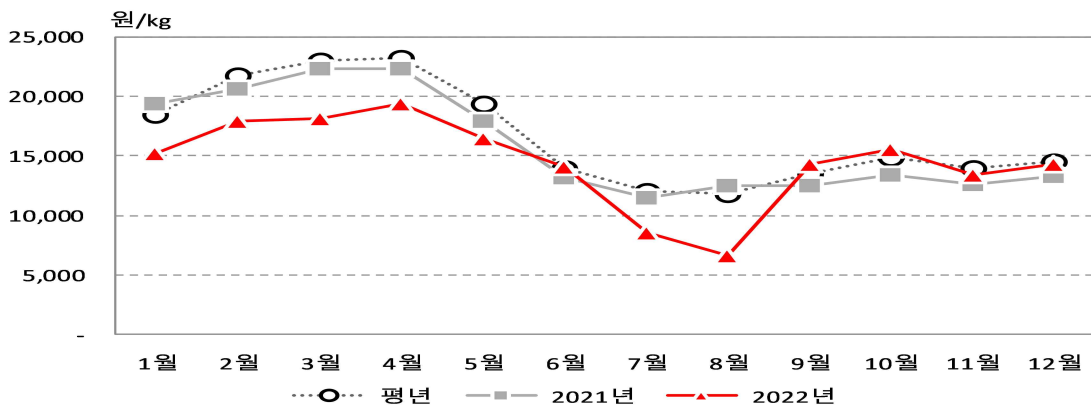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0,323	7,179	6,771	6,861	5,925	10,123	7,372	70.9	36.6
2월	7,571	5,948	8,476	3,706	6,873	8,503	6,701	23.7	30.5
3월	7,926	4,751	9,118	8,826	6,750	9,198	7,729	36.3	23.1
4월	4,659	6,585	9,576	10,043	9,126	6,500	8,366	-28.8	-18.7
5월	5,612	9,619	11,535	9,777	11,197	9,955	10,417	-11.1	4.3
6월	8,776	8,604	8,946	8,768	8,803	6,821	8,388	-22.5	-22.3
7월	10,036	7,254	8,500	9,094	9,114	7,908	8,374	-13.2	-10.1
8월	9,417	8,871	6,894	8,918	7,215	8,307	8,041	15.1	0.5
9월	8,520	7,529	6,300	8,150	6,523	8,127	7,326	24.6	9.8
10월	6,760	5,897	5,937	6,249	6,092	7,524	6,340	23.5	21.6
11월	5,683	6,685	5,731	5,701	6,385	8,482	6,597	32.8	40.5
12월	6,300	5,110	7,647	5,761	6,806	8,598	6,784	26.3	35.9
연평균	7,632	7,003	7,953	7,654	7,567	8,337	7,703	10.2	10.3

주: 1) 일반해면어업을 통해 어획된 갈치 중 선어의 단가를 기준으로 함. 2021년 수치는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제주 서귀포수협이 선어 갈치 연평균 산지가격은 kg당 14,462원으로 앞서 살펴본 갈치(선어) 생산단가 동향과 달리 전년 대비 9.2% 하락했음
 - 연초부터 대부분 전년 대비 낮게 형성되었으며, 특히 생산이 크게 늘었던 8월에는 전년 대비 46.8% 하락했음
 - 그러나 9월들어 전년 대비 생산이 감소하면서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

<그림 4-35> 월별 선어 갈치 산지가격 추이



주: 신선·냉장갈치 30마리~33마리 기준 가격이며,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서귀포수협

<표 4-70> 연도별·월별 선어 갈치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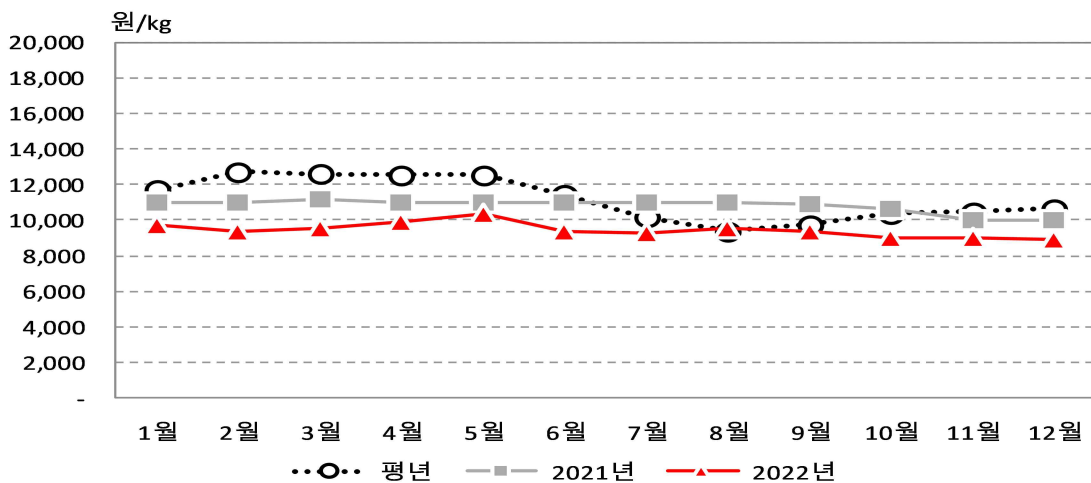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23,864	17,382	13,784	17,881	19,323	15,148	16,704	-21.6	-17.9
2월	27,324	19,465		19,603	20,554	17,850	19,368	-13.2	-17.9
3월	31,054	22,292	19,067	20,201	22,273	18,090	20,385	-18.8	-21.3
4월	32,965	19,758	20,266	20,709	22,306	19,393	20,486	-13.1	-16.4
5월	23,365	17,917	19,213	18,392	17,951	16,417	17,978	-8.5	-15.2
6월	15,132	13,173	13,145	15,294	13,153	14,102	13,773	7.2	0.9
7월	10,283	14,933	11,995	11,809	11,440	8,536	11,743	-25.4	-29.4
8월	13,245	10,329	11,483	11,814	12,444	6,620	10,538	-46.8	-44.2
9월	16,271	10,248	12,669	15,654	12,513	14,242	13,065	13.8	5.7
10월	18,802	14,075	13,354	14,703	13,362	15,479	14,195	15.8	4.2
11월	15,934	12,751	14,579	14,045	12,581	13,421	13,475	6.7	-4.0
12월	16,498	12,140	14,685	16,246	13,247	14,248	14,113	7.6	-2.2
연평균	20,395	15,372	14,931	16,363	15,929	14,462	15,411	-9.2	-12.9

주: 1) 신선·냉장갈치 30마리~33마리 기준 가격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서귀포수협

- 2022년 서귀포수협 냉동 갈치의 연평균 산지가격은 kg당 9,442원으로 작년 대비 12.6% 하락했
- 연초부터 높은 냉동 갈치 재고 수준으로 낮게 형성된 산지가격이 연중 유지되었음

<그림 4-36> 월별 냉동 갈치 산지가격 추이



주: 1) 냉동갈치 30마리~33마리 기준 가격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서귀포수협

<표 4-71> 연도별·월별 냉동 갈치 산지가격 동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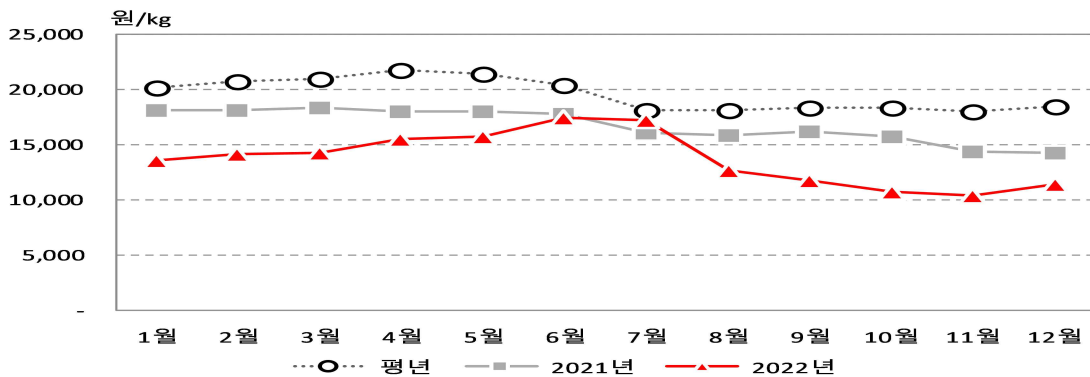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6,830	8,689	8,234	13,704	11,009	9,682	10,264	-12.1	-17.2
2월	16,654	9,325	-	13,920	11,013	9,355	10,903	-15.1	-26.5
3월	17,436	9,679	9,775	14,820	11,122	9,569	10,993	-14.0	-23.9
4월	17,444	9,633	9,604	15,000	11,018	9,941	11,039	-9.8	-20.7
5월	16,457	9,865	10,347	14,994	10,939	10,360	11,301	-5.3	-17.3
6월	16,784	8,221	8,123	13,002	11,000	9,318	9,933	-15.3	-18.4
7월	12,696	7,762	8,489	10,699	11,000	9,259	9,442	-15.8	-8.6
8월	9,641	7,632	8,474	10,067	10,996	9,500	9,334	-13.6	1.5
9월	9,316	8,045	9,306	11,086	10,913	9,380	9,746	-14.0	-3.6
10월	10,040	8,362	10,427	12,350	10,616	9,010	10,153	-15.1	-13.0
11월	9,726	8,528	12,954	11,150	10,000	8,997	10,326	-10.0	-14.1
12월	9,340	8,552	14,264	11,100	10,006	8,936	10,572	-10.7	-16.1
연평균	13,530	8,691	10,000	12,658	10,802	9,442	10,319	-12.6	-15.2

주: 1) 냉동갈치 30마리~33마리 기준 가격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서귀포수협

2) 도매가격

- 2022년 냉장 갈치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3,684원으로 전년 대비 18.0% 하락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9.9% 낮았음
 - 자망어업에서 생산된 갈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냉장 갈치의 도매가격은 2017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22년에는 7월을 제외하고 작년 및 평년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 지속되었음

<그림 4-37> 월별 냉장 갈치 도매가격 추이



주: 1) 갈치(선어)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g~300g 정도)의 중품 기준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표 4-72> 연도별·월별 냉장 갈치 도매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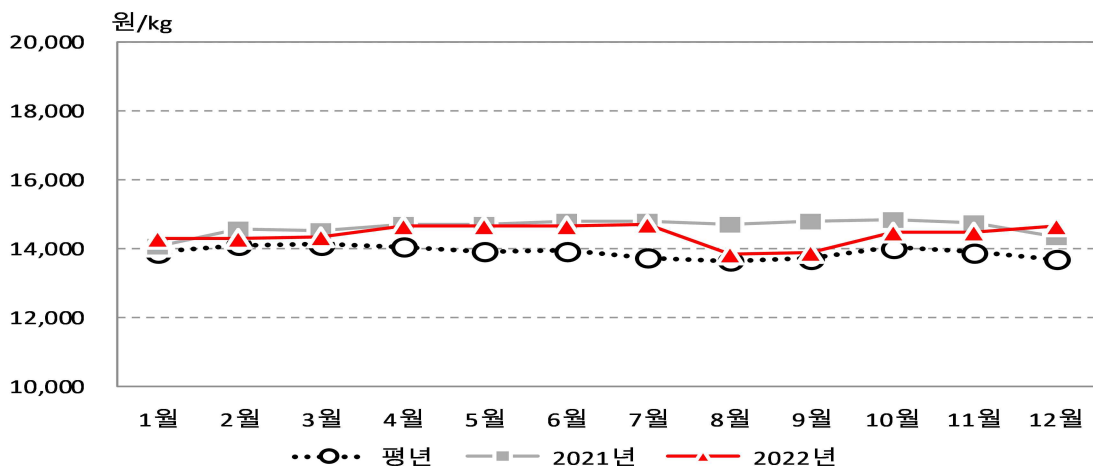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21,020	22,182	19,991	19,570	18,019	13,476	18,648	-25.2	-33.1
2월	22,280	22,767	20,847	19,500	18,091	14,147	19,070	-21.8	-31.6
3월	22,882	22,600	21,000	19,709	18,285	14,174	19,154	-22.5	-32.2
4월	25,850	22,600	21,636	20,781	17,915	15,510	19,688	-13.4	-28.7
5월	25,126	22,400	21,800	19,645	17,920	15,665	19,486	-12.6	-26.7
6월	22,733	21,737	21,800	17,809	17,738	17,363	19,289	-2.1	-14.7
7월	17,510	21,400	21,470	13,978	16,065	17,160	18,015	6.8	-5.1
8월	19,550	20,418	20,333	14,338	15,828	12,612	16,706	-20.3	-30.3
9월	20,238	19,882	20,295	15,024	16,195	11,711	16,621	-27.7	-36.1
10월	20,750	19,343	19,448	16,454	15,738	10,650	16,327	-32.3	-42.0
11월	20,309	19,200	18,781	17,067	14,295	10,333	15,935	-27.7	-42.4
12월	20,968	19,579	19,100	18,067	14,160	11,401	16,461	-19.5	-38.0
연평균	21,601	21,176	20,542	17,662	16,687	13,684	17,950	-18.0	-29.9

주: 1) 갈치(선어)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당 40마리(마리당 250g~3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2022년 냉동 갈치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4,386으로 전년 대비 1.6% 낮았으나 평년보다 3.6% 높았음
- 냉장 갈치와 달리 냉동 갈치의 경우는 2020년에 들어 상승세를 보였으나 올해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그림 4-38> 월별 냉동 갈치 도매가격 추이



주: 1) 갈치(냉동)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g~300g 정도)의 중품 기준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표 4-73> 연도별·월별 냉동 갈치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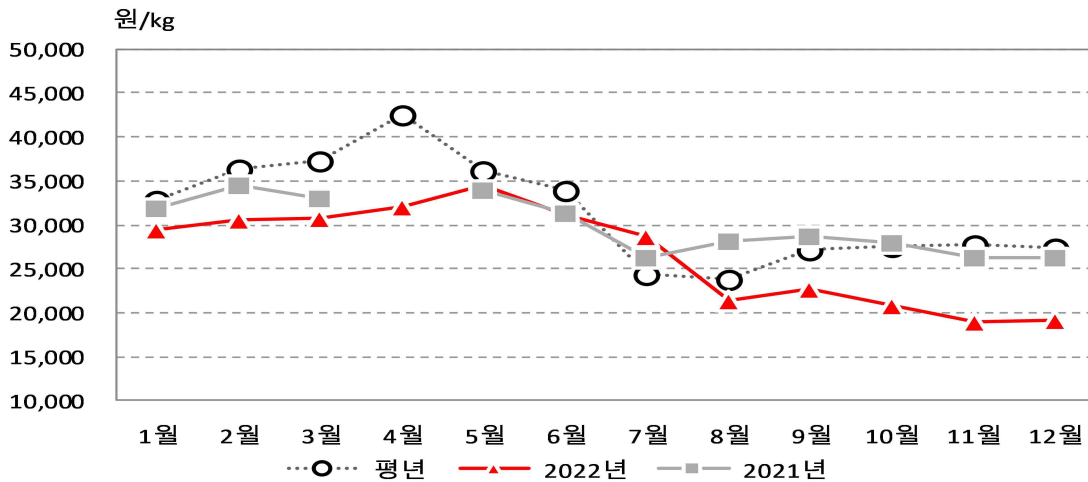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4,720	14,909	13,000	12,710	14,070	14,260	13,790	1.4	2.7
2월	14,800	15,200	13,000	12,885	14,548	14,260	13,979	-2.0	1.2
3월	14,800	15,200	13,000	13,057	14,490	14,329	14,015	-1.1	1.6
4월	14,800	15,200	12,627	12,880	14,680	14,620	14,001	-0.4	4.2
5월	14,800	14,920	12,524	12,568	14,680	14,620	13,862	-0.4	5.2
6월	14,800	14,500	12,600	12,947	14,762	14,620	13,886	-1.0	5.0
7월	13,905	14,500	12,600	12,838	14,789	14,673	13,880	-0.8	6.9
8월	14,000	14,064	12,276	13,160	14,680	13,803	13,597	-6.0	1.2
9월	14,286	13,406	12,242	13,794	14,791	13,888	13,624	-6.1	1.3
10월	14,600	13,200	12,781	14,697	14,820	14,439	13,987	-2.6	3.0
11월	14,445	12,818	12,362	15,040	14,725	14,460	13,881	-1.8	4.2
12월	14,400	12,832	12,487	14,321	14,325	14,660	13,725	2.3	7.2
연평균	14,530	14,229	12,625	13,408	14,613	14,386	13,852	-1.6	3.6

주: 1) 갈치(냉동) 도매가격 조사단위는 1kg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g~300g 정도)의 중품 기준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3) 소비자가격

- 2022년 냉장 갈치의 kg당 연평균 소비자가격은 26,686원으로 전년 대비 10.5% 하락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11.3% 낮았음

<그림 4-39> 월별 냉장 갈치 소비자가격 추이



주: 1) 갈치(선어) 소비자가격 조사단위는 1마리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g~3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이며, 이를 1kg 단위 가격으로 환산하였음
 2) 평년은 2016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표 4-74> 연도별·월별 냉장 갈치 소비자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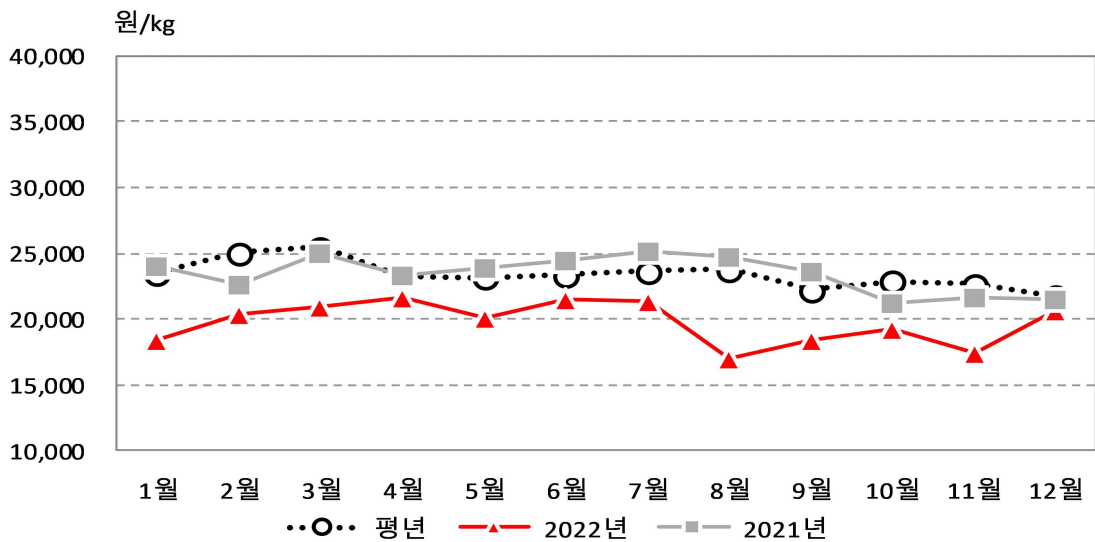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41,216	33,272	29,156	28,300	31,792	29,348	30,374	-7.7	-10.4
2월	45,748	35,128	30,032	-	34,512	30,520	32,548	-11.6	-16.1
3월	46,548	36,276	-	33244	32,904	30,824	33,312	-6.3	-17.2
4월	47,464	37,484	-	-	-	32,108	34,796	-	-24.4
5월	45,396	34,204	35,960	31324	33,884	34,528	33,980	1.9	-4.5
6월	43,188	27,120	-	-	31,376	31,108	29,868	-0.9	-8.2
7월	27,132	22,676	20,508	25,728	26,332	28,656	24,780	8.8	17.1
8월	25,324	22,104	18,988	24,940	28,136	21,464	23,126	-23.7	-10.2
9월	28,992	28,872	21,904	27,324	28,600	22,632	25,866	-20.9	-16.6
10월	30,852	28,432	22,316	28,188	27,856	20,858	25,530	-25.1	-24.2
11월	33,376	27,624	23,496	27,856	26,256	18,968	24,840	-27.8	-31.6
12월	32,544	28,876	23,088	26,512	26,208	19,216	24,780	-26.7	-30.0
연평균	37,315	30,172	25,050	28,157	29,805	26,686	27,974	-10.5	-11.3

주: 1) 갈치(선어) 소비자가격 조사단위는 1마리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g~3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이며, 이를 1kg 단위 가격으로 환산하였음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2022년 냉동 갈치의 kg당 연평균 소비자가격은 19,751원으로 전년 및 평년대비 각각 15.6%, 15.5% 낮았음

<그림 4-40> 월별 냉동 갈치 소비자가격 추이



주: 1) 갈치(냉동) 소비자가격 조사단위는 1마리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g~3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이를 1kg 단위 가격으로 환산하였음
 2) 평년은 2015년~2019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표 4-75> 연도별·월별 냉동 갈치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0,072	22,624	17,920	22,804	24,016	18,428	21,158	-23.3	-21.5
2월	35,608	21,828	19,420	25,700	22,556	20,408	21,982	-9.5	-18.4
3월	36,252	19,872	19,932	26,188	24,948	20,996	22,387	-15.8	-17.5
4월	29,624	18,732	18,036	26,608	23,252	21,632	21,652	-7.0	-7.0
5월	28,820	18,684	17,764	26,592	23,808	20,036	21,377	-15.8	-13.4
6월	30,368	19,008	19,224	23,788	24,444	21,428	21,578	-12.3	-8.3
7월	30,480	18,480	18,980	25,136	25,208	21,400	21,841	-15.1	-9.5
8월	31,440	18,468	18,896	25,168	24,720	16,992	20,849	-31.3	-28.4
9월	31,960	15,916	16,424	23,096	23,584	18,420	19,488	-21.9	-17.0
10월	29,808	20,416	18,884	24,052	21,172	19,196	20,744	-9.3	-16.1
11월	26,756	20,968	19,172	24,800	21,660	17,396	20,799	-19.7	-23.3
12월	22,520	19,796	19,780	24,956	21,508	20,676	21,343	-3.9	-4.8
연평균	30,309	19,566	18,703	24,907	23,406	19,751	21,267	-15.6	-15.5

주: 1) 갈치(냉동) 소비자가격 조사단위는 1마리이며, 상자당 40마리(1마리당 250g~300g 정도)의 중품 기준 가격임.
이를 1kg 단위 가격으로 환산하였음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2. 갈치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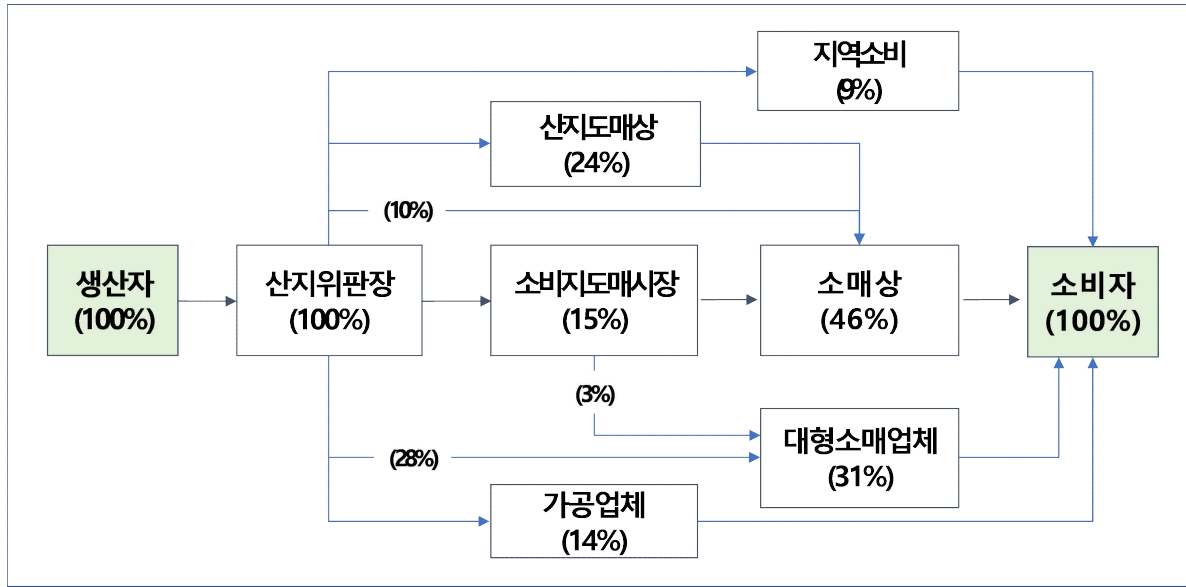
가. 유통경로

- 갈치는 어획 단계부터 선어와 냉동품으로 구분되어져 유통단계에서도 신선냉장과 냉동품 유통경로를 각각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선어는 여름 어기(6~9월)에 1~2일 동안 연안에서 조업하는 채낚기어업으로 주로 조업되며, 겨울 어기(10월~익년1월)에는 근해연승어업으로 주로 어획됨
 - 냉동갈치는 주로 15일 이상 근해에서 조업하는 근해연승어업을 통해 생산됨
 - 선어와 냉동품의 유통과정 상의 가장 큰 차이는 저장성으로, 선어는 저장성이 낮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판매해야 하지만, 냉동갈치는 수출 및 재고로 활용할 수 있음⁴⁶⁾

46) 단 냉동 갈치의 유통실태 분석에서 재고는 제외함

- 2022년 갈치 선어의 유통경로는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을 기준으로 분석함
 - 제주지역에서 위판되는 갈치 선어는 주로 채낚기어업 및 근해연승어업을 통해 어획됨. 어법 특성상 어획 과정에서 손상이 적어 통상 ‘은갈치’로 불리어지며 품질이 우수하여 대형소매업체 판매 비중이 높음
 - 이에 반해 목포, 여수 등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위판되는 갈치 선어는 주로 근해안강망어업이나 대형트롤어업에서 어획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낮은 제품의 비중이 크며 통상 ‘떡갈치’로 명명되어져 있음. 이에 전통시장 등의 소매점을 통한 판매 비중이 높음
- 먼저 갈치 선어의 유통경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2022년 일반해면어업의 갈치 선어 어획량 중 계통판매량인 36,600톤 기준임
 - 대형소매업체→소비자: 대형소매업체를 거치는 경로를 통한 거래물량은 대금 결제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중도매인들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어 점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양호해 대형소매업체로 주로 판매되는 제주지역 갈치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소매업체를 통한 거래 비중은 28%가량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 산지도매상→소매상→소비자: 전통시장 등 소비지 소매점들이 취급하는 물량은 전년에 이어 여전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경로의 물량 비중은 약 24%로 추정됨
 - 소비지도매시장→소매상→소비자: 소비지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물량 역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산지 중도매인들의 대형소매업체 선호 증가에 따라 이 경로를 통한 거래물량 비중은 15%로 전년에 이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외에 산지 지역 내 소비 및 택배로 소비자에게 판매된 물량의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9%, 가공업체 등에 판매된 물량도 전년 대비 증감한 14%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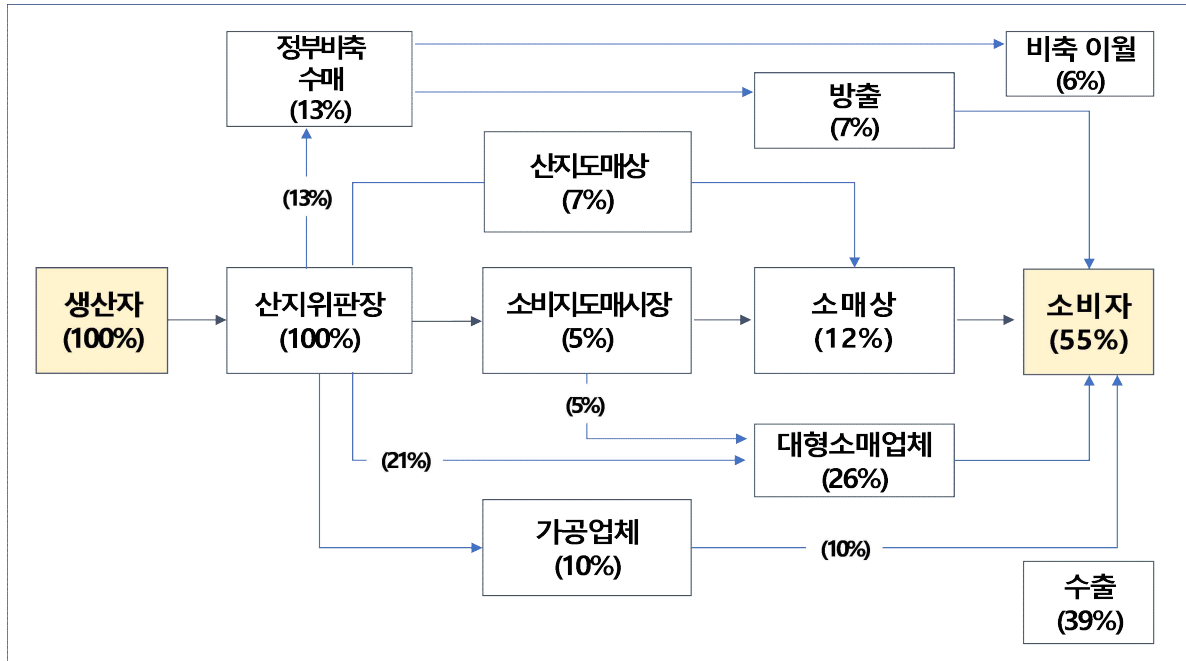
<그림 4-41> 갈치 선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일반해면어업의 갈치 선어 기준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 냉동 갈치 유통경로는 선어 갈치 유통경로에 정부비축수매 및 방출사업으로 인한 물량의 이동이 추가됨
 - 2022년 일반해면어업의 냉동 갈치 생산량인 14,289톤 기준임
 - 정부비축물량 수매 및 방출: 2022년 수매한 냉동 갈치의 비중은 13%였으며, 2022년 방출된 물량 비중은 7%, 2023년으로 이월된 비축 물량은 6%였음
 - 2022년 수출량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5,573톤으로 냉동갈치 생산량의 39%에 달하였으며, 전년에 비해 15%p 증가했음
 - 따라서 2022년 국내에서 최종 소비된 냉동 갈치 비중은 55%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형소매업체: 대형소매업체를 거치는 경로는 선어와 마찬가지로 중도매인들의 거래 의향은 증가했으나, 수출 및 비축 이월 증가와 전반적인 냉동갈치 소비부진으로 인해 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한 21%로 추정됨
 - 산지도매상→소매상: 전통시장 등의 수산물을 취급하는 소비지의 소매점들이 취급하는 물량의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7% 수준이었음
 - 소비지도매시장→소매상: 산지도매상을 거치는 경로의 비중은 5% 정도로 추정되어 전년과 비슷했음

<그림 4-42> 냉동 갈치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2018년 기준 냉동갈치는 전량 계통출하 되었음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나.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2022년에도 갈치 선어의 경우 전반적인 소비부진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상품성이 좋은 중·대형어는 대형소매업체로 유통 비중이 소폭 증가했음
 - 대형소매업체의 경우 소비지 도매시장 및 전통시장 등에 판매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가 요구되나, 대금 결제가 원활하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대형소매업체 거래를 선호하고 있음
 - 반면 소비지 소매상의 경우, 결제가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 비중을 줄이려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음
- 여수, 목포 등 제주 외 지역에서 위판되는 갈치는 안강망어업, 트롤어업 등으로 어획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제주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형소매업체 거래 비중이 적고, 소비지도매시장을 경유하거나 전통시장 등에 판매하는 비중이 컸음
- 그러나 갈치 선어의 경우 생산량 측면에서 제주지역보다 이외 지역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형소매업체보다, 전통시장 등 소매상을 통해 판매되는 물량이 많았음

- 2022년 계통 출하된 36,600톤의 갈치 선어 중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된 물량이 10,248톤으로 28.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었음
- 다음으로 산지도매상→소매상을 통해 유통된 갈치 선어가 8,674톤(23.7%)이었음
- 소비지도매시장→소매상의 경로로 유통된 물량은 5,453톤으로 14.9%였음
- 한편, 가공업체 등에 판매된 선어는 5,234톤으로 취급량은 전년과 비슷했으나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한 14.3%였고, 지역 내 소비 혹은 택배 등으로 유통된 물량은 3,440톤으로 취급량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비중은 증가한 약 9.4%로 추정되었음
- 2022년에는 가공 및 택배 거래 물량의 증가세가 멈추고 보합이었으나, 전체적인 유통물량이 줄어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4-76> 갈치 선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18-2022년)

단위: 톤,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생산자 → 산지위판장(계통출하 물량)		41,606 (100.0)	35,445 (100.0)	49,678 (100.0)	48,846 (100.0)	36,600 (100.0)
1차 도매업자 유통	지역소비, 택배 등	3,285 (7.9)	1,418 (4.0)	2,881 (5.8)	3,663 (7.5)	3,440 (9.4)
	가공업체(홈쇼핑 등)	1,232 (3.0)	2,481 (7.0)	4,670 (9.4)	5,471 (11.2)	5,234 (14.3)
	대형소매업체	13,960 (33.6)	8,507 (24.0)	13,363 (26.9)	13,677 (28.0)	10,248 (28.0)
	산지도매상→소매상	15,192 (36.5)	10,633 (30.0)	14,605 (29.4)	13,335 (27.3)	8,674 (23.7)
	소비지도매시장→소매상			9,216 (26.0)	10,532 (21.2)	5,453 (14.9)
	소매상	7,391 (17.8)	3,190 (9.0)	3,626 (7.3)	4,494 (9.2)	3,550 (9.7)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선어갈치의 유통경로별 물량 및 비중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지역소비, 택배 등: 2022년 지역에서 소비되고 택배 등으로 판매된 물량은

2018년 3,285톤보다 증가했음

- 가공업체(홈쇼핑 등): 2022년 가공업체로 유통된 물량은 2018년 1,232톤에 비해 물량과 비중이 크게 늘었음
 - 대형소매업체: 2022년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된 선어갈치는 2018년에 비해 감소했음
 - 산지도매상→소매상 & 소비지도매시장→소매상: 2022년 산지도매 및 소비지도매시장에서 소매상으로 유통된 선어갈치는 2018년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큰 변화는 없었음
 - 소매상: 2022년 소매상으로 유통된 물량은 2018년 7,391에 비해 반 이상 감소했음
- 한편 2022년 일반해면어업의 냉동갈치 생산량은 14,289톤으로 전량 계통으로 출하되었음. 그리고 원양어업 생산된은 없었음
- 2022년 냉동갈치 유통량 중 수출량은 5,573톤으로 가장 많은 39.0%를 차지했음. 이는 2021년부터 이어진 냉동갈치 재고 적체로 산지가격이 하락하며 지역 수협 등에서 중국으로 대량 수출했기 때문임
 - 2022년 국내에서 유통된 냉동갈치는 대형소매업체를 통한 물량이 2,986톤으로 21%를 차지했으며 전년(5,136톤)보다 감소했음
 - 산지의 중도매인들의 대형소매업체 선호 경향 증가추세는 선어와 마찬가지로, 냉동갈치 소비부진으로 거래 물량 및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비축용으로 구매된 냉동갈치는 1,886톤으로 13.2%를 차지했으며, 891톤(6.2%)이 2023년으로 이월되었음
 - 산지도매상→소매상을 통한 냉동 갈치의 유통량은 6.7%인 957톤이었고, 소비지도매시장→소매상의 유통경로를 거치 냉동 갈치는 643톤으로 비중은 4.5%로 추정됨
 - 이외에 가공업체 등으로 유통된 물량은 20.0%인 2,505톤으로 추정되었음

<표 4-77> 갈치 냉동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18-2022년)

단위: 톤,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생산자 → 산지위판장 (계통출하 물량)		7,843 (100.0)	8,071 (100.0)	14,661 (100.0)	12,527 (100.0)	14,289 (100.0)
1차 도매업자 유통	수출	-	3,739 (46.3)	2,793 (19.1)	1,879 (15.0)	5,573 (39.0)
	정부비축물량 구매	1,020 (13.0)	938 (11.6)	1,138 (7.8)	1,477 (11.8)	1,886 (13.2)
	가공업체(홈쇼핑, 택배 등)	1,333 (17.0)	247 (3.1)	1,448 (9.9)	2,505 (20.0)	1,357 (9.5)
	대형소매업체	2,431 (31.0)	2,260 (28.0)	7,258 (49.5)	5,136 (41.0)	2,986 (20.9)
	산지도매상→소매상	1,490 (19.0)	605 (7.5)	1,086 (7.4)	852 (6.8)	957 (6.7)
	소비지도매시장→소매상	1,569 (20.0)	410 (5.1)	938 (6.4)	678 (5.4)	643 (4.5)
	정부비축물량 이월	-	-	-	-	891 (6.2)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각 연도.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냉동갈치의 유통경로별 물량 및 비중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수출: 2022년 수출된 냉동갈치 비중은 39.0%로 2019년 수출 비중 46.3%보다 적었으나, 물량은 오히려 2019년보다 많았음(2018년 자료가 없어 2019년으로 대체하여 비교함)
 - 정부비축물량 구매: 2022년 정부비축물량으로 구매된 물량은 2018년보다 많았음
 - 가공업체(홈쇼핑 등): 2022년 가공업체로 유통된 냉동갈치 물량은 2018년과 비슷했으나, 비중은 2018년보다 감소했음
 - 대형소매업체: 2022년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된 냉동갈치는 2018년에 비해 증가했음
 - 산지도매상→소매상 & 소비지도매시장→소매상: 2022년 산지도매 및 소비지도매시장에서 소매상으로 유통된 냉동갈치는 2018년에 비해 감소했음

3. 갈치 유통비용

가. 갈치(선어)의 유통비용(제주 서귀포 → 서울 대형소매업체)

1) 산지 단계

- 먼저 제주 서귀포수협에서 위판된 10kg당 30마리~33마리의 갈치 선어가 서울의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비용을 살펴보고자 함
 - 2022년 12월 중순 기준으로 생산자의 수취가격은 12,819원으로 최종 판매가격의 48.4%였는데, 산지 위판가격 및 소비자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했으나 수취가격의 비율은 오히려 소폭(0.5%p) 증가했음
 - 갈치 선어 양륙비용은 전년과 동일했으며, 위판수수료는 위판가격의 4.3%가 적용되기 때문에 위판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kg당 수수료는 전년보다 상승했음
 - 위판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중도매인들이 대형소매업체에 판매하기 위해 포장 및 운반 등의 소요되는 비용은 전년 대비 증가했음
 - 2022년에는 어상자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kg당 370원이었으며, 박스 작업 비용은 kg당 102원으로 전년에 비해 상승했음. 항공운임은 전년과 같은 kg당 840원이었음
 - 그리고 인건비 역시 전년 대비 상승한 kg당 1,553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 이와 같이 산지 중도매인들의 비용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판매가격은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중도매인 이윤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윤율은 출하가격의 4~5% 수준으로 전년과 동일함)
- 2018년에 비해서는 어가수취가격과 산지 위판가격 및 산지 판매가격이 모두 상승했음
 - 유류비 상승으로 물류비 상승했으며, 인건비 상승과 함께 박스작업·어상자대 비용도 모두 상승했음
 - 반면 중도매인 수수료는 2018년보다 하락했음

2) 대형소매점 단계

- 대형소매점 역시 인건비 등 간접비 증가로 이윤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간접비에는 인건비, 점포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며, 2022년에는 kg당 7,305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대부분 인건비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이윤은 전년보다 감소한 kg당 2,219원이었음
- 2018년에 비해서는 대형소매업체 간접비는 크게 상승했으며, 이윤은 하락세를 보였음

<표 4-78> 갈치(선어)의 유통비용(제주 서귀포 → 서울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

구분		2021년		2022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2,652	12,819	48.4	-	
산지 위판장	양륙비	25	25	0.1	250원/10kg 상자(서귀포수협 기준) ※ 성산포수협 300원/상자(10kg)	
	위판수수료	570	577	2.2	위판금액의 4.3%(서귀포수협 기준) ※ 성산포수협 4.3%	
	위판가격	13,247	13,421	50.7	서귀포수협 30마리~33마리 기준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	346	370	1.4	<7-2호> 규격의 스티로폼 박스 기준 (3,700원/상자(10kg))	
	물류비(운반·운송비)	840	840	3.2	항공운임 8,400원/10kg 박스 (도내 운송비용 포함, 해상은 kg당 4,000원)	
	박스 작업	86	102	0.4	1,020원/상자(10kg)	
	인건비	1,500	1,553	5.9	중도매인당 3명 내외 고용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845	679	2.6	산지 출하가격의 2%~3% 수준	
	산지 출하(판매)가격	16,864	16,940	64.0	산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대형 소매점	간접비	6,938	7,305	27.6	인건비, 점포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2,614	2,219	8.4	대형소매업체 수산바이어 면담결과	
	판매가격	26,416	26,464	100.0	AT KAMIS 소비자가격 참조	

주: 상자(10kg)당 30마리~33마리의 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2022년 11월 하순임

<표 4-79> 갈치(선어)의 유통비용 변화(제주 서귀포 → 서울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율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0,702	14,799	13,416	12,652	12,819	4.6
산지 위판장	양륙비	25	25	25	25	25	0.0
	위판수수료	482	666	604	570	577	4.6
	위판가격	11,209	15,490	14,045	13,247	13,421	4.6
산지 중도 매인	어상자대	303	303	303	346	370	5.1
	물류비(운반·운송비)	600	600	600	840	840	8.8
	박스 작업	50	50	50	86	102	19.5
	얼음, 끈, 테이프, 내피						
	인건비	900	900	1,200	1,500	1,553	14.6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1,296	542	2,036	845	679	-14.9
	산지 출하(판매)가격	14,358	17,885	18,233	16,864	16,940	4.2
대형 소매 점	간접비	1,757	5,550	6,736	6,938	7,305	42.8
	이윤	4,300	2,365	2,887	2,614	2,219	-15.2
	판매가격	20,415	25,800	27,856	26,416	26,464	6.7

주: 상자(10kg)당 30마리~33마리의 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각 연도 11월 하순임
 자료: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각 연도.

나. 갈치(선어)의 유통비용(제주 서귀포 → 노량진수산물시장)⁴⁷⁾

1) 산지 단계

- 2022년의 경우, 어상자대 및 박스작업 등 비용은 상승했으나 갈치 선어 산지 가격이 상승하여 산지중도매인 이윤은 소폭 감소에 그쳤음
 - 2022년 어가수취가격 및 서귀포수협 위판가격은 작년 대비 1.3% 증가했음. 성산포수협의 양륙비는 400원/10kg으로 작년보다 상승했으나 서귀포수협 양륙비는 작년과 동일했으며, 갈치 선어 생산이 작년에 비해 저조하여 산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임
 - 산지중도매인 단계에서 어상자대 가격은 작년에 비해 상승한 3,700원/10kg이었으며 박스작업과 소분을 위한 기타 경비 비용도 약 5~15% 증가했음
 - 그러나 갈치 선어의 산지 출하(판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산지중도매인 이윤은 작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8년에 비해서는 서울대형소매업체 유통동향과 유사하게 어가수취가격과 산지 위판가격 및 산지 판매가격이 모두 상승했음
 - 유류비 상승으로 물류비 상승했으며, 인건비 상승과 함께 박스작업·기타경비 비용도 모두 상승했음
 - 반면 중도매인 수수료는 2018년보다 하락했음

2) 소비자 도매 단계

- 2022년의 경우,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에 따라 유통비용이 상승하여 소비자중도매인 이윤은 감소했음
 -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하차비, 운반비, 상차비 등 유통비용이 작년 대비 약 5~10% 상승했음
 - 또한 금리 상승으로 점포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간접비 또한 작년 대비 5.1% 상승했음
 - 그러나 소비자중도매인의 갈치 선어 판매가격은 약보합세에 그쳐, 이윤은 작

47) 자료 : 『2022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p.196

년 대비 줄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 2018년과 비교하면 소비지중도매인이 지불하는 하차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갈치 판매가격이 상승하여 경매수수료도 상승하였음. 그러나 경락가격의 4.3%인 비율은 변동 없었음

3) 소매 단계

- 이윤을 제외한 대부분 비용 항목 상승
 - 직접비 및 인건비 등이 포함된 간접비 모두 작년 대비 상승했음
- 2018년부터 살펴보면, 소비지 도매 단계와 소매 단계 모두 직접비와 간접비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이윤은 하락세였음

<표 4-80> 갈치(선어)의 유통비용(제주 서귀포 → 노량진수산물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21년	2022년		비고	
	금액	금액	비중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2,652	12,819	47.3	10kg 상자, 30마리~33마리 기준
산지위판장	양륙비	25	25	0.1	250원/10kg 상자(서귀포수협 기준) ※ 성산포수협 400원/상자(10kg)
	위판수수료	570	577	2.1	위판금액의 4.3%
	위판가격	13,247	13,421	49.5	서귀포수협 30마리~33마리 위판가격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	346	370	1.4	<7-2호> 규격의 스티로폼 박스 기준 (3,700원/상자(10kg))
	물류비 (운송비)	840	840	3.1	항공운임 8,400원/1박스 (도내 운송비용 포함)
	박스작업	120	140	0.5	약 700원/상자(5kg) (얼음, 끈, 테이프, 내피)
	기타 경비	350	370	1.4	소분작업 및 포장비
	중도매인 수수료 (이윤)	461	452	1.7	산지 출하가격의 3%~4% 수준
	산지 출하(판매)가격	15,394	15,593	57.5	산지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37	38	0.1	400원/상자(10kg)
	경매수수료	693	704	2.6	경락가격의 4.3%
	경락가격	16,124	17,479	64.5	노량진수산물시장 경락가격
소비지 중도매인	운반비	70	75	0.3	750원/상자(10kg)
	상차비	62	65	0.2	680원/상자(10kg)
	간접비	730	767	2.8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이윤	1,029	739	2.7	노량진수산물시장 중도매인 면담결과
	판매가격	18,015	19,125	70.5	중도매인 조사가격 및 AT KAMIS 도매가격 참조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372	379	1.4	운반비 등
	간접비	5,410	5,680	20.9	인건비, 점포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1,003	1,930	7.1	서울 전통시장 소매상 면담결과
	판매가격	24,800	27,114	100.0	소매상 조사가격 및 AT KAMIS 소비자가격 참조

주: 상자(10kg)당 30마리~33마리의 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2022년 11월 하순임
 자료: 『2022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p.197

<표 4-81> 갈치(선어)의 유통비용 변화(제주 서귀포 → 노량진수산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률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0,702	14,799	13,416	12,652	12,819	4.6
산지 위판장	양륙비	25	25	25	25	25	0.0
	위판수수료	482	666	604	570	577	4.6
	위판가격	11,209	15,490	14,045	13,247	13,421	4.6
산지 중도매인	어상자대	600	269	302	346	370	-11.4
	물류비 (운송비)	600	600	600	840	840	8.8
	박스작업	100	100	125	150	140	8.8
	기타 경비	330	330	330	350	370	2.9
	중도매인 수수료 (이윤)	992	609	885	461	452	-17.8
	산지 출하(판매)가격	13,831	17,398	16,287	15,394	15,593	3.0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33	35	35	37	38	3.6
	경매수수료	636	783	733	693	704	2.6
	경락가격	14,500	18,216	17,055	16,124	17,479	4.8
소비지 중도매인	운반비	40	58	64	70	75	17.0
	상차비	33	58	58	62	65	18.5
	간접비	709	720	678	730	767	2.0
	이윤	1,318	1,216	1,200	1,029	739	-13.5
	판매가격	16,600	20,268	19,055	18,015	19,125	3.6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168	250	358	372	379	22.6
	간접비	695	3,500	5,374	5,410	5,680	69.1
	이윤	3,347	2,482	1,433	1,003	1,930	-12.9
	판매가격	20,810	26,500	26,220	24,800	27,114	6.8

주: 상자(10kg)당 30마리~33마리의 중품 기준으로 조사 시기는 각 연도 11월 하순임
 자료: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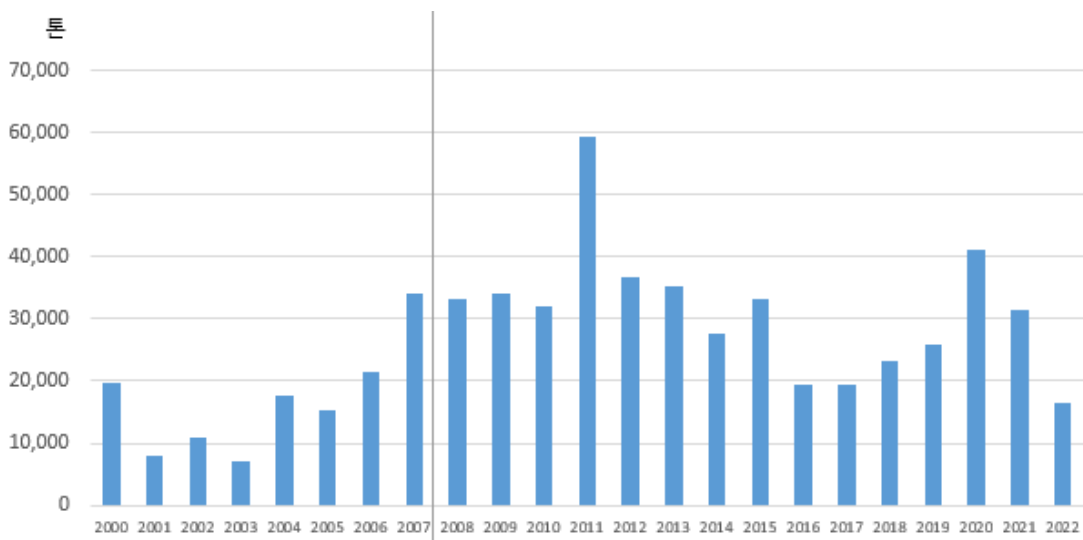
제6절 참조기 유통실태조사

1. 참조기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및 계통출하 동향

- 우리나라 참조기 생산량⁴⁸⁾은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1970년 이후 최고치인 약 6만 톤이 생산되었음
- 그러나 2012년에는 다시 3만 톤대로 줄었고, 2016년과 2017년에는 2만 톤에도 미치지 못했음
- 2018년에 참조기 생산량은 다시 2만 톤을 넘기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호황이 이어지며 2011년 이후 최대인 약 4만 톤이 생산되었음
- 그러나 2020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반전되며, 2022년 참조기 생산량은 1만 톤으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음

<그림 4-43> 연도별 참조기 생산량 추이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48) 참조기 생산량은 일반해면어업 및 양식어업 생산량으로 구분되는데, 양식어업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해면어업 생산량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 2022년 참조기 생산량은 1만 6,400톤으로 어황 호조를 이어갔던 전년과 달리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8.0%, 41.9% 감소했음
 - 태풍 및 풍랑주의보 등의 영향으로 해·어황이 좋지 않았고,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도 떨어졌음
- 2022년 참조기 생산금액은 1,2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6% 감소했으며, 평년보다도 43.7% 적었음

<표 4-82> 연도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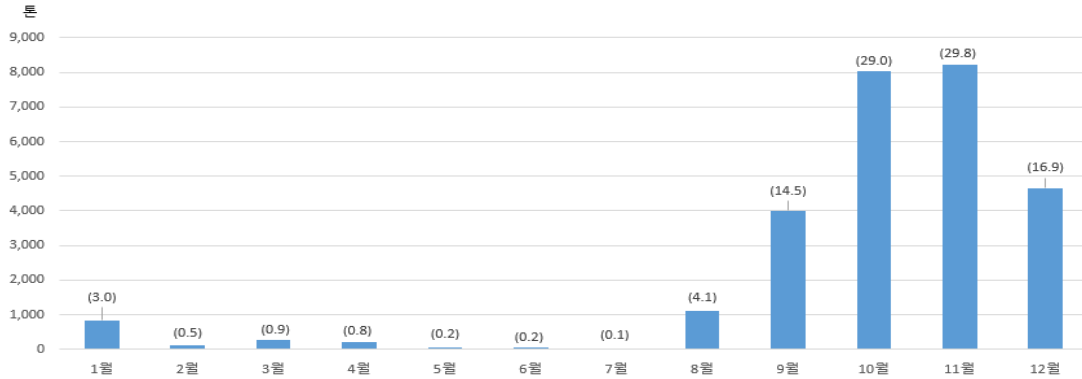
단위: 톤, 백만원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1990년	27,890	85,651
1995년	25,173	164,640
2000년	19,630	119,055
2005년	15,272	77,093
2010년	31,931	160,686
2015년	33,254	256,948
2017년	19,398	196,350
2018년	23,274	215,070
2019년	25,741	186,059
2020년	41,039	289,879
2021년	31,562	207,441
2022년	16,400	123,228
5개년 평균	27,603	204,335
전년 대비	-48.0	-40.6
평년 대비	-41.9	-43.7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7년 이후 참조기 월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어한기로 1월부터 어획량이 급감하기 시작하여 참조기 근해유자망어업 금어기(4월 22일~8월 10일)까지 생산이 거의 없으며, 금어기가 끝난 8월부터 12월까지 주로 생산됨
 - 성어기인 9~12월에 참조기 연간 생산량의 90% 이상이 어획됨

<그림 4-44> 최근 5년간 월별 참조기 생산량 추이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월별 참조기 생산량의 경우, 1월부터 7월까지의 경우, 평년과 비슷했으나, 금어기가 끝난 8월 이후 생산량은 평년보다 저조했음
- 어기 초반에 해·어황이 악화되었고, 성어기(9~12월)에도 자원밀도가 전년 및 최근 5년 평균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참조기 어획량이 평년보다 감소했음
 - 9월 생산량은 652톤으로, 태풍(힌남노, 난마돌) 및 잦은 풍랑주의보로 인해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9.0%, 85.9% 감소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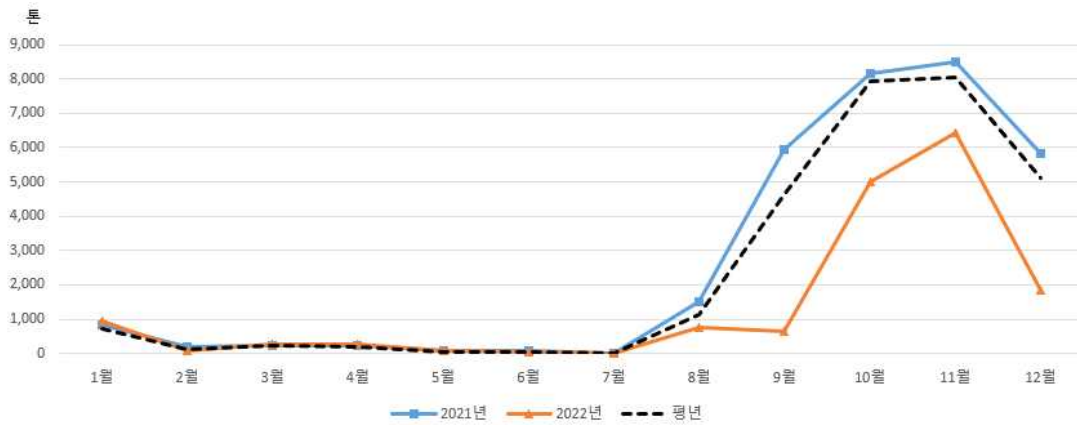
<표 4-83> 연도별·월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95	891	559	964	816	936	833	14.7	29.1
2월	36	98	78	180	186	95	127	-48.9	-18.1
3월	43	347	331	101	239	276	259	15.5	30.2
4월	31	239	317	63	221	250	218	13.1	43.7
5월	46	34	72	24	71	88	58	23.9	79.6
6월	22	29	40	32	79	41	44	-48.1	2.5
7월	17	12	16	20	22	17	17	-22.7	0
8월	755	1,404	1,002	952	1,526	747	1,126	-51.0	-33.8
9월	3,823	4,758	2,193	6,476	5,940	652	4,004	-89.0	-85.9
10월	4,499	6,779	9,601	10,610	8,158	5,013	8,032	-38.6	-36.8
11월	5,595	5,750	6,765	13,696	8,482	6,447	8,228	-24.0	-20
12월	4,135	2,933	4,767	7,921	5,822	1,837	4,656	-68.5	-64.1
합계	19,398	23,274	25,741	41,039	31,562	16,400	27,602	-48.0	-41.9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참조기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그림 4-45> 2021년 월별 참조기 생산량 추이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7년~2021년의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참조기의 부류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선어 생산량이 15,193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으로 냉동이 1,207톤(7.4%) 생산되었으며, 활어는 생산되지 않았음

<표 4-84> 연도별 부류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비중	평균
활어	0	0	1	0	0	0	0.0	0
선어	18,912	22,676	25,359	40,418	30,315	15,193	92.6	27,536
냉동	486	598	381	621	1,247	1,207	7.4	667
합계	19,398	23,274	25,741	41,039	31,562	16,400	100.0	28,203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참조기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참조기의 계통출하 동향을 살펴보면, 어획된 참조기의 대부분이 계통출하된 것으로 나타났음
 - 참조기는 타 대중성 어종에 비해 계통출하 비중이 높으며, 이는 참조기가 다른 어종들에 비해 크기별 가격 차이가 커 비계통출하 방식의 대량 거래가 어렵기 때문임
 - 또한 참조기는 타 어종과 달리 크기별로 세분화되어 판매됨으로, 위판단계에서의 선별 작업이 필수적임

- 비계통출하 방식으로는 위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선별 작업을 대체하기 어려움

<표 4-85> 연도별 참조기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5개년 평균
		활어	계통	0	0	0	0		
	비계통	0	0	1	0	0	0	-	0
	소계	0	0	1	0	0	0	-	0
선어	계통	18,903	22,612	25,289	40,371	30,035	15182	99.9	26,698
	비계통	10	64	70	47	280	11	0.1	94
	소계	18,912	22,676	25,359	40,418	30,315	15193	100.0	26,792
냉동	계통	486	598	381	621	1,247	1207	100.0	811
	비계통	-	-	-	-	-	0	0.0	0
	소계	486	598	381	621	1,247	1207	100.0	811
계	계통	19,389	23,211	25,670	40,992	31,282	16389	99.9	27,509
	비계통	10	64	71	47	280	11	0.1	95
	소계	19,398	23,274	25,741	41,039	31,562	16400	100.0	28,203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참조기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참조기의 지역별 생산량⁴⁹⁾을 살펴보면, 전남지역의 생산 비중이 58.1%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제주지역 32.7%, 부산지역 4.5%, 전북지역 2.0% 등의 순이었음
 - 전남지역과 제주지역의 생산이 전체의 90.8%를 차지하여 참조기는 대부분 전남 및 제주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남지역에서는 주로 목포수협·영광수협, 제주지역에서는 한림수협·모슬포수협·추자도수협·성산포수협 등을 통해 위판됨
 - 제주지역의 참조기 위판 비중이 전년 대비 2.6%p 감소했음. 한편, 부산지역의 경우 위판량은 감소한 반면, 위판 비중은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 평균 어법별 참조기 생산량의 경우, 근해자망어업의 생산 비중이 68.7%로

49) 지역별 생산량은 통계청 기준으로, 이는 해당 지역에서 참조기가 실제로 어획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위판 혹은 소매로 판매된 것을 의미함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근해안강망어업 15.3%, 연안자망어업 3.2%,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4.2%, 연안개량안강망어업 2.0% 등의 순이었음

<표 4-86> 연도별 지역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비중	5개년 평균
전라남도	11,165	13,707	13,537	24,127	18,769	9,852	60.1	15,998
제주도	6,552	7,744	9,327	12,973	10,233	4,880	29.8	9,031
부산광역시	474	567	1,510	1,634	1,494	1,060	6.5	1,253
전라북도	699	512	679	1,003	351	253	1.5	560
인천광역시	134	313	337	563	314	248	1.5	355
충청남도	243	245	266	551	269	46	0.3	275
경상남도	129	186	83	189	132	61	0.4	130
울산광역시	1	0	0	0	0	0	0.0	0
경기도	0	2	1	0	0	0	0.0	1
경상북도	0	0	0	0	0	0	0.0	0
계	19,398	23,274	25,741	41,039	31,562	16,400	100.0	27,603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참조기 연간 생산량과 지역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대부분의 어법이 전년과 비슷한 생산 비중을 유지한 한편, 연안자망어업의 생산비중은 전년 대비 6.8% 감소하였으며, 근해안강망과 외끌이대형저인망은 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87> 연도별 어법별 참조기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비중	5개년 평균
근해자망	12,356	14,036	18,642	24,135	21,624	11,261	68.7	17,940
근해안강망	4,072	3,372	3,053	6,562	3,604	2,507	15.3	3,820
연안자망	1,093	1,329	1,747	4,502	3,147	528	3.2	2,251
외끌이대형저인망	483	2,973	946	2,613	1,338	1,183	7.2	1,811
연안개량안강망	474	718	326	1,225	621	284	1.7	635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172	275	293	733	428	254	1.5	310
쌍끌이대형저인망	116	28	174	684	207	82	0.5	318
대형트롤	236	205	359	303	377	244	1.5	301
근해채낚기	317	57	150	160	87	0	0.0	91
연안복합	7	212	24	78	10	6	0.0	66
기 타	72	69	27	44	119	51	0.3	62
계	19,398	23,274	25,741	41,039	31,562	16,400	100.0	27,603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나. 수출입 현황

- 2022년 참조기 수출량은 전년 대비 3.6배 증가한 725톤이었으며, 수출금액도 3,264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음
 - 참조기 수출단가는 kg당 4.50달러로 전년 대비 43.0% 하락했음
- 2022년 참조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17.5% 감소한 1만 9,125톤으로, 평년에 비해서도 22.1% 적었음
 - 참조기 수입금액은 84만 달러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5.1%, 23.4% 적었음
 - 참조기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3.1% 높은 kg당 4.38달러로 평년에 비해서도 9.5% 높았음

<표 4-88> 연도별 참조기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7년	184	1,358	7.40	23,198	109,430	4.70
2018년	75	855	11.40	27,798	128,291	4.60
2019년	114	955	8.38	27,450	122,677	4.47
2020년	153	1,816	11.87	21,173	87,699	4.14
2021년	202	1,595	7.90	23,168	98,540	4.25
2022년	725	3,264	4.50	19,125	83,702	4.38
5개년 평균	254	1,697	9	23,743	104,182	4
전년 대비	258.9	104.6	-43.0	-17.5	-15.1	3.1
평년 대비	396.6	148.0	-50.0	-22.1	-23.4	9.5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제품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조(굴비)와 냉동 참조기가 전체 수출량의 각각 57.9%, 38.1%를 차지했던 전년과 달리, 2022년에는 냉동 참조기가 가장 많이 수출되었으며, 다음으로 건조(굴비), 염장·염수장 순으로 나타났음
 - 2022년 수출량 비중은 냉동 참조기가 전체 수출량의 8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조(굴비) 10.9%, 염장·염수장 0.7% 순이었음
 - 수출금액 비중 또한 냉동 참조기가 총 수출금액의 62.3%를 차지하며 가장 컸

으나, 건조(굴비)가 35.7%로 물량 대비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음. 이는 건조(굴비)가 타 제품에 비해 수출단가가 높기 때문임

- 2022년 참조기 수입량은 전량 냉동 형태로 수입되었음

<표 4-89> 제품유형별 참조기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단위: 톤, 천 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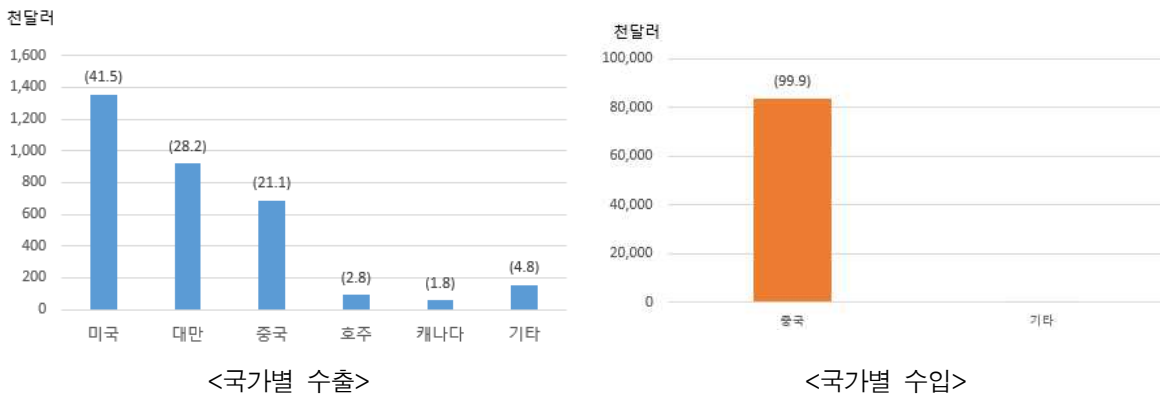
명칭	HS CODE	수출				수입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중량	비중	금액	비중
냉동	0303895000	641	88.4	2032	62.3	19,125	100.0	83,702	100.0
건조(굴비)	0305594000	79	10.9	1166	35.7	0	0.0	0	0.0
염장·염수장	0305696000	5	0.7	61	1.9	0	0.0	0	0.0
내장	0305204020	0	0.0	5	0.2	0	0.0	0	0.0
합계		725	100.0	3264	100.1	19125	100.0	83702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국가별로 살펴보면, 2022년 참조기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만 28.2%, 중국 21.1%, 호주 2.8%, 캐나다 1.8% 등의 순이었음
 - 전년에 건조(굴비)의 75.1%가 미국으로 수출되었던 것과 달리, 중국과 대만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참조기 수출국이 다변화되었음
- 한편, 2022년 참조기 수입량 중 중국산은 1만 9,056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타 국가에서는 68톤이 수입되었음

<그림 4-46> 국가별 참조기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단위: 천 달러,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다. 수급 구조

- 참조기 수급 구조를 살펴보면, 국내 공급량은 2015년 이후로 6만 톤 수준에 머물며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음
- 2020년에는 크게 증가하여 8만 톤이 공급되었으나, 이후 생산 부진이 심화되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음
 - 2022년 총 공급량은 5만 1,020톤으로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9.8%, 27.7% 감소했음
 - 이는 생산, 수입 및 이입재고가 전년 대비 각각 48.0%, 17.7%, 13.3% 감소했기 때문임
 - 자급률은 2017년 이후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2020년 65.3%에 달했음. 그러나, 수입 및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 부진이 장기화되며, 2020년 이후 연평균 16.7%의 감소했음
- 수출이 전년 대비 약 세 배 늘었고 총 공급량 또한 줄면서 2022년 참조기 소비량은 전년 대비 36.4% 감소했음

<표 4-90> 연도별 참조기 수급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2017년	19,398	23,196	22,962	65,556	51,023	211	14,322	38.0
2018년	23,274	27,798	14,322	65,394	50,290	90	15,014	46.3
2019년	25,741	27,461	15,014	68,216	49,290	128	18,798	52.2
2020년	41,039	21,171	18,798	81,008	62,884	199	17,925	65.3
2021년	31,562	23,167	17,925	72,654	56,874	238	15,542	55.5
2022년	16,400	19,078	15,542	51,020	36,194	693	14,133	45.3
전년 대비	-48.0	-17.7	-13.3	-29.8	-36.4	191.2	-9.1	-18.4
평년 대비	-41.8	-22.3	-12.7	-27.7	-33.1	300.1	-13.4	-12.0

주 :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이입, 이월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 입출하동향 조사

4)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참조기 부류별 생산단가(생산금액/생산량)를 살펴보면, 선어가 냉동에 비해 가격 변동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 냉동 참조기는 물량이 적고 상품성도 떨어져 선어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며, 연중 가격 변동도 크지 않음
 - 참조기 선어의 생산단가는 어획량이 급감하는 어한기에 크게 상승하나, 어획이 집중되는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어획량이 늘며 생산단가가 비교적 낮게 형성됨
- 2022년 참조기 선어 생산단가는 kg당 7,807원으로 생산 부진이 장기화되며 전년 대비 16.2% 상승했음
 - 월별로 살펴보면, 1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되는 4월까지의 평년과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였음
 - 그러나 9월 이후 전년 대비 저조한 생산이 이어지며, 성어기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단가가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되었음

<그림 4-47> 연도별 부류별 참조기 생산단가 추이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91> 연도별·월별 참조기 선어 생산단가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2,221	16,234	12,838	10,823	8,833	12,189	12,183	38.0	0.0
2월	22,803	20,709	16,345	19,097	9,305	13,316	15,754	43.1	-24.6
3월	19,099	20,635	22,456	16,678	18,358	15,153	18,656	-17.5	-22.1
4월	7,392	17,267	13,525	22,195	13,880	13,429	16,059	-3.2	-9.6
5월	10,765	10,665	8,410	10,581	7,211	4,909	8,355	-31.9	-48.5
6월	7,570	7,314	9,061	5,477	4,109	3,149	5,822	-23.4	-53.0
7월	5,879	7,383	6,294	6,736	4,559	4,904	5,975	7.6	-20.5
8월	8,871	9,652	6,677	7,328	6,192	6,187	7,207	-0.1	-20.1
9월	8,527	8,579	7,437	8,052	5,866	6,913	7,369	17.8	-10.1
10월	9,436	8,767	6,123	7,147	5,256	7,135	6,886	35.7	-2.9
11월	11,642	8,362	6,940	6,375	7,269	6,995	7,188	-3.8	-13.8
12월	10,523	9,362	7,915	6,617	7,808	9,331	8,207	19.5	10.5
연평균	10,204	9,359	7,279	7,121	6,720	7,807	7,657	16.2	-4.1

주: 1) 일반해면어업을 통해 어획된 참조기 중 선어의 단가를 기준으로 함

2) 2022년은 잠정치임

3)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참조기 선어 위판량이 많은 제주지역 한림수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2년 참조기 선어의 연평균 산지가격은 kg당 12,138원으로 전년 대비 2.7% 하락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6.6% 낮았음
 - 이는 해·어황이 나빠 생산이 부진하였으나, 어획된 참조기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임
- 월별로 살펴보면 참조기 산지가격은 8월까지의 전년 및 평년 대비 낮게 형성되었으나, 성어기에 들어서며 전년 대비 상승했음
 - 2021년 11월부터 이어진 산지가격 하락세의 영향으로 어한기(1~4월)와 금어기가 종료되는 8월까지의 전년 및 평년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었음
 - 성어기에 전년 대비 저조한 생산이 이어지면서, 산지가격은 12월까지 상승세를 보였음. 12월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31.7% 상승한 14,000원대로, 2020년 성어기의 가격 수준으로 상승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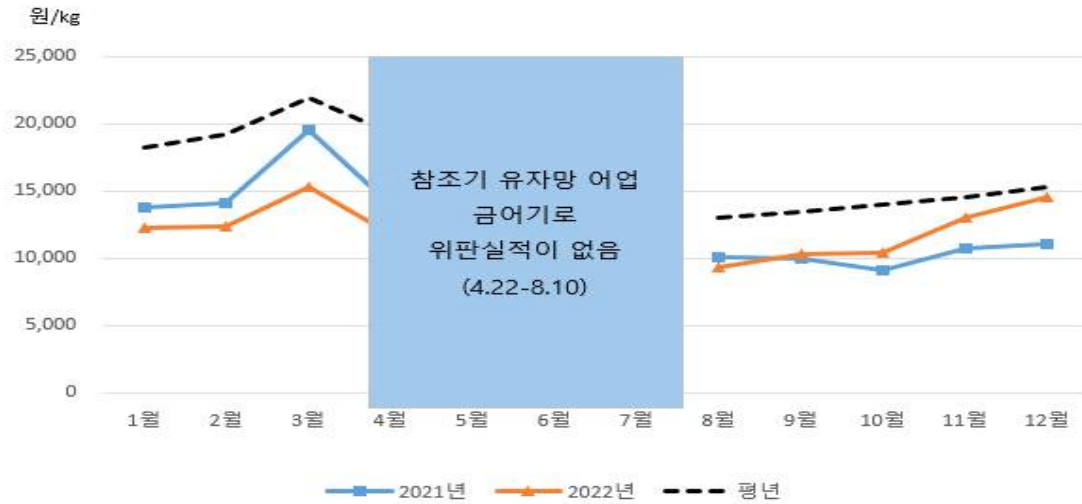
<표 4-92> 연도별·월별 참조기 선어 산지가격 동향(한림수협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7,925	21,279	20,141	18,152	13,817	12,243	17,126	-11.4	-33.0
2월	19,487	22,608	21,268	18,561	14,075	12,399	17,782	-11.9	-35.4
3월	24,526	22,554	21,678	21,288	19,487	15,246	20,051	-21.8	-30.4
4월	-	24,502	18,337	20,328	14,021	11,788	17,795	-15.9	-38.9
5월	-	-	-	-	-	-	-	-	-
6월	-	-	-	-	-	-	-	-	-
7월	-	-	-	-	-	-	-	-	-
8월	14,391	14,299	12,951	13,582	10,050	9,367	12,050	-6.8	-28.2
9월	14,552	14,519	14,047	14,370	9,999	10,243	12,635	2.4	-24.1
10월	16,783	15,803	13,571	14,505	9,077	10,453	12,682	15.2	-25.1
11월	20,463	15,202	15,140	10,944	10,730	12,958	12,995	20.8	-10.6
12월	18,858	17,244	17,661	11,862	11,052	14,552	14,474	31.7	-5.1
연평균	18,373	18,668	17,199	15,954	12,478	12,138	15,287	-2.7	-26.6

주: 1) 2020년 7월까지의 상자당 130미와 155미 평균가격이며, 2020년 8월부터는 입상 규격 변경으로 상자당 135미와 165미 평균가격임
 2) 5~7월은 참조기 금어기로 생산량이 없어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음
 3)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그림 4-48> 참조기 산지가격 추이(선어 기준)



주: 1) 2020년 7월까지의 상자당 130미와 155미 평균가격이며, 2020년 8월부터는 입상 규격 변경으로 상자당 135미와 165미 평균가격임
 2) 평년은 2017년~2021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2) 도매가격⁵⁰⁾

- 2022년 참조기 선어의 도매가격은 kg당 12,745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으며, 평년보다도 26.6%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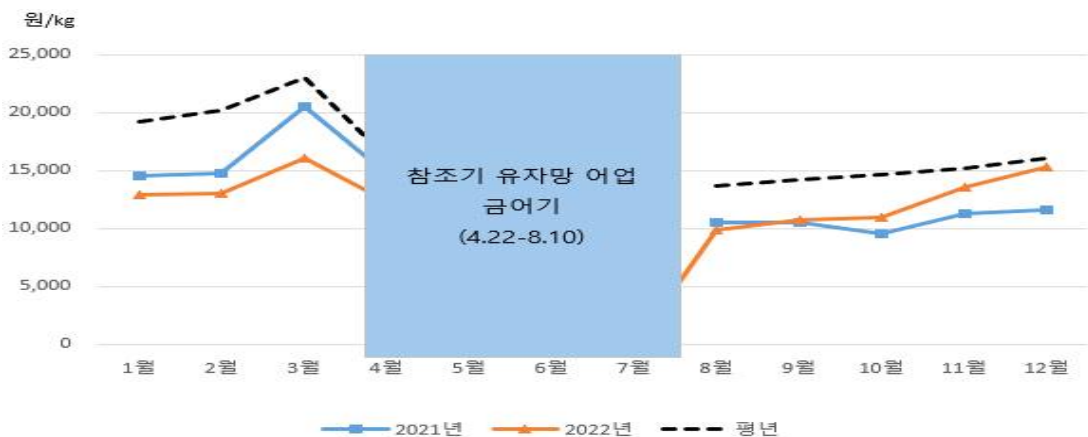
<표 4-93> 연도별·월별 참조기 선어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8,821	22,342	21,148	19,060	14,507	12,855	17,982	-11.4	-33.0
2월	20,461	23,738	22,331	19,489	14,779	13,018	18,671	-11.9	-35.4
3월	25,752	23,681	22,762	22,352	20,461	16,008	21,053	-21.8	-30.4
4월	-	25,727	19,254	21,344	14,722	12,377	18,685	-15.9	-23.6
5월	-	-	-	-	-	-	-	-	-
6월	-	-	-	-	-	-	-	-	-
7월	-	-	-	-	-	-	-	-	-
8월	15,111	15,014	13,599	14,261	10,553	9,835	12,652	-6.8	-28.3
9월	15,280	15,244	14,749	15,088	10,498	10,755	13,267	2.4	-24.1
10월	17,622	16,593	14,249	15,230	9,530	10,975	13,315	15.2	-25.1
11월	21,486	15,962	15,897	11,491	11,267	13,605	13,644	20.8	-10.6
12월	19,801	18,106	18,544	12,455	11,604	15,279	15,198	31.7	-5.1
연평균	19,292	19,601	18,059	16,752	13,102	12,745	16,052	-2.7	-26.6

주: 1) 2020년 7월까지의 상자당 130미와 155미 평균가격이며, 2020년 8월부터는 입상 규격 변경으로 상자당 135미와 165미 평균가격임
 2) 5~7월은 참조기 금어기로 생산량이 없어 가격이 형성되지 않음
 3)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그림 4-49> 월별 참조기(선어)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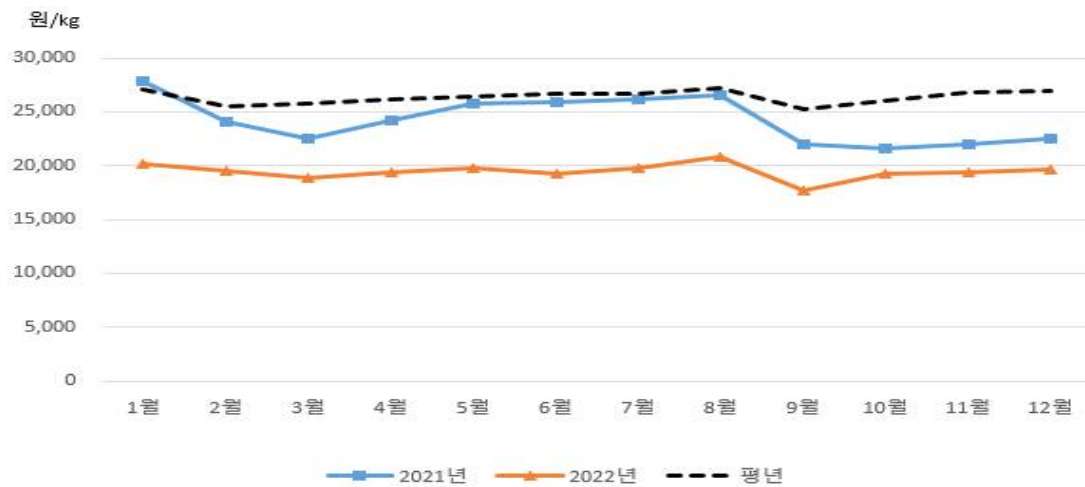
주: 1) 2020년 7월까지의 상자당 130미와 155미 평균가격이며, 2020년 8월부터는 입상 규격 변경으로 상자당 135미와 165미 평균가격임
 2) 평년은 2017년~2021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50) 참조기 도매가격은 고등어·갈치 등과 달리 aT KAMIS에서 조사되고 있지 않아, 수산업관측센터의 참조기 선어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추정된 값을 활용하였음(한림수협에서 가공업체로 주로 판매되는 가격 추정치)

3) 소비자가격⁵¹⁾

- 2022년 참조기 연평균 소비자가격은 kg당 19,466원으로 전년 대비 19.8% 하락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6.2% 낮았음
 - 참조기 소비자가격은 연중 전년 및 평년 대비 낮게 형성되며 비교적 평이한 흐름을 보였으나, 9월 성어기에 들어서며 전년 및 17,000원대로 하락하였음
 - 이는 9월 이후 생산 부진이 지속되며 굴비 가공용 수요로 인해 산지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정부 비축물량 방출 및 대형소매점 할인행사가 이루어진 결과임

<그림 4-50> 월별 참조기(냉동) 소비자가격 추이 기준



주: 1)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80~100g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평년은 2017년~2021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51) 참조기 소비자가격은 수산업관측센터 조사가격으로, 대형소매업체에서 해동하여 판매하는 참조기 소비자가격을 의미함

<표 4-94> 월별 냉동 참조기 소비자가격 추이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24,861	27,332	28,877	26,124	27,913	20,219	26,093	-27.6	-25.2
2월	24,900	28,094	24,900	25,550	24,061	19,539	24,429	-18.8	-23.4
3월	24,900	29,400	24,900	27,400	22,570	18,923	24,639	-16.2	-26.8
4월	24,900	29,400	24,900	27,400	24,155	19,344	25,040	-19.9	-26.0
5월	24,713	29,400	24,957	27,400	25,825	19,787	25,474	-23.4	-25.2
6월	24,847	29,400	25,500	27,400	25,961	19,223	25,497	-26.0	-27.8
7월	24,800	29,400	25,500	27,400	26,170	19,795	25,653	-24.4	-25.7
8월	27,300	29,400	25,500	27,400	26,602	20,864	25,953	-21.6	-23.4
9월	23,760	28,800	25,089	26,592	21,974	17,645	24,020	-19.7	-30.1
10월	21,613	29,400	25,429	32,084	21,541	19,208	25,532	-10.8	-26.2
11월	24,800	29,400	26,000	31,929	21,954	19,341	25,725	-11.9	-27.9
12월	26,884	29,400	26,386	29,590	22,449	19,703	25,506	-12.2	-26.9
연평균	24,857	29,069	25,662	28,022	24,265	19,466	25,297	-19.8	-26.2

주: 1)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80~100g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kg당 가격으로 환산한 것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2. 참조기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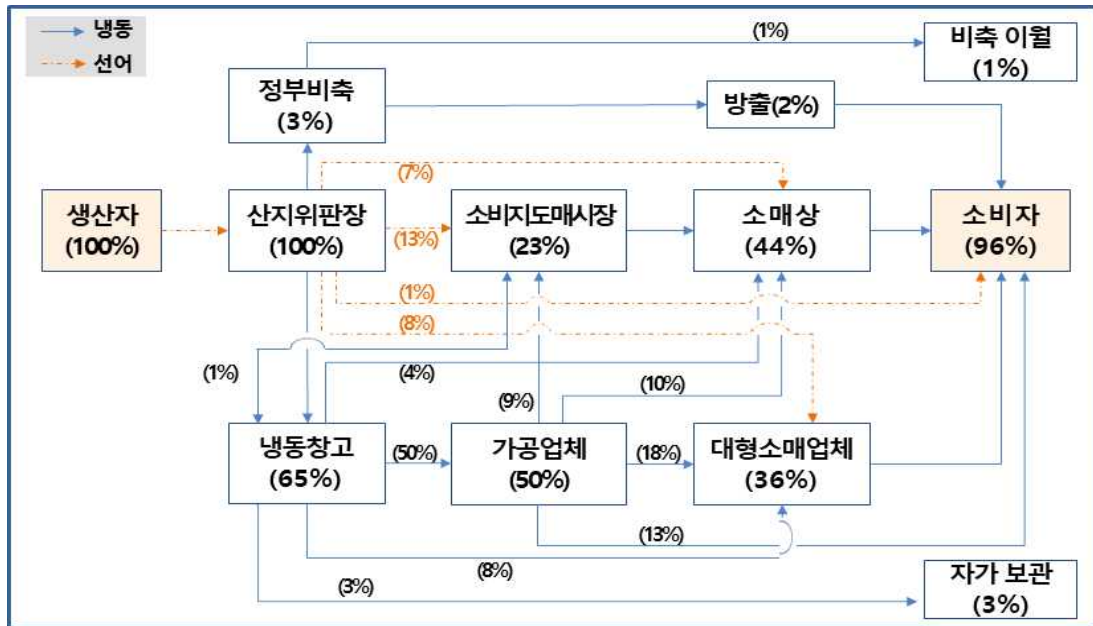
가. 유통경로

- 2022년 참조기 비계통 출하 비중은 0.1%에 불과했으며, 수출량 또한 전체 생산량에서 4.4%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음
 - 2022년 전체 참조기 생산량 중 7.6% 정도가 냉동품으로 위판되었음
 - 이에 참조기 생산량을 계통-비계통, 국내유통-수출, 선어-냉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생산량인 1만 6,440톤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함
- 참조기 위판량이 많은 수협은 제주도의 한림수협과 전라남도의 목포수협, 영광수협임
 - 한림수협에서 위판되는 참조기는 대부분 근해자망어업, 연안자망어업 등을 통해 어획되며, 대체로 상품성이 높음
 - 목포수협에서 위판되는 참조기는 근해자망어업과 연안자망어업 외에도 근

해안강망어업에서 어획된 물량도 많음

- 영광수협에서 위판되는 참조기는 대부분 제주도와 목포 등 타 지역에서 양륙된 후 영광까지 운반되어 위판되며, 주로 굴비 가공용으로 유통됨
- 어획된 참조기는 대부분 선어 상태로 위판되지만, 위판 물량 중 70~80%는 즉시 냉동 참고에 입고됨
- 참조기는 굴비 가공용 수요가 많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어획되지만 영세한 굴비 가공업체들이 많아 짧은 기간에 어획된 참조기를 냉동 보관할 필요가 있음

<그림 4-51> 참조기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주 :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 수협중앙회의 정부비축물량
 수매 및 방출 실적을 토대로 산출한 추정치

- 굴비로 가공된 참조기는 대형소매업체와 도매시장 등을 통해 유통되거나, 소비지 소매상에 직접 유통되기도 함
- 2022년 정부비축 참조기 수매량은 519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3.2%였으며, 1,322톤이 방출되었음

나.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2022년 참조기 생산량 1만 6,440톤 중 선어 유통물량은 35.5%인 5,829톤으로 전년 6,119톤보다 감소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8.7% 감소했음
- 냉동 유통물량은 64.5%인 1만 611톤으로 전년(80.6%, 2만 5,443톤)에 비해 감소했으며, 비중 또한 2020년 이후 연평균 4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목포 지역의 경우,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어 수요가 줄며 냉동 물량 위주의 유통이 늘었으나, 2022년에는 선어 유통 비중이 이전 수준인 60%대로 증가했음
- 선어로 유통되거나 냉동처리된 참조기 중 가공업체로의 유통물량은 약 49.6%인 8,154톤으로, 전년(52.6%, 1만 6,604톤) 대비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굴비로 가공된 참조기 중 18.0%인 2,951톤은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되었고, 12.6%인 2,069톤은 인터넷 구매 등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었음. 10.6%인 1,735톤은 소비지 소매상에 판매된 것으로 추정됨
- 대형소매업체에서 판매되는 참조기는 굴비, 냉동품, 선어 등으로, 전체 생산량의 35.8%인 5,878톤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년(30.6%인 9,671톤)보다 유통 비중이 증가했음
 - 이 중 굴비의 유통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18.0%인 2,951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냉동된 참조기를 해동하여 판매하는 물량이 7.5%인 1,233톤, 산지에서 선어 상태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물량은 10.3%인 1,693톤으로 추정됨
- 한편,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고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물량이 전체의 3.6%를 차지했음
 - 전년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자가보관(동결) 참조기 물량은 전체 물량의 4.0%인 662톤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음

<표 4-95> 참조기(선어)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

단위: 톤, %

구분	선어			냉동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산지위판장	40,418 (98.0)	30,315 (96.0)	15,193 (92.4)	621 (2.0)	1,247 (4.0)	1,247 (7.6)
냉동창고(선어→동결)	8,389 (20.4)	6,119 (19.4)	5,829 (35.5)	32,650 (79.6)	25,443 (80.6)	10,611 (64.5)
소비지 도매시장	2,713 (7.0)	3,146 (10.0)	2,124 (12.9)	-	541 (1.7)	78 (0.5)
소매점포(지역 전통시장 포함)	2,420 (6.2)	1,530 (4.8)	1,110 (6.8)	1,127 (3.0)	1,708 (5.4)	709 (4.3)
대형소매업체(대형소매점, 백화점)	1,219 (3.0)	1,443 (4.6)	1,694 (10.3)	4,208 (10.0)	2,223 (7.0)	1,232 (7.5)
가공업체	92 (0.2)	-	665 (4.0)	25,692 (62.6)	26,604 (82.6)	7,489 (45.6)
자가보관(동결)	-	-	78 (0.5)	395 (1.0)	2,236 (7.1)	584 (3.6)
정부비축 구매 물량	1,944 (4.0)	-	-	-	2,131 (6.8)	519 (3.2)

주: 산지위판장에서 위판 이후 중도매인이 분산한 물량 기준임, 오차범위는 5% 내외임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3. 참조기 유통비용

가. 참조기 선어의 유통비용(목포 → 노량진수산물시장)

1) 산지 단계

- 2022년 참조기 선어 유통비용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목포수협의 산지 단계 유통비용은 참조기 생산 부진으로 위판가격이 상승하면서 양륙비, 위판수수료는 전년보다 상승한 반면, 선별작업 관련 비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
 - 위판수수료와 중도매인 수수료는 정률적으로 적용됨으로 산지가격이 상승하면 함께 상승함
 - 어상자대는 상자당 1,017원으로 어상자의 원료가 목재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되면서 전년(907원/상자) 대비 상승했음
- 한편, 산지중도매단계의 비용은 보호틀, 비닐, 스티로폼 박스 등의 포장작업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상승했음

- 2022년 새롭게 체결된 협상에 따라 포장작업 중 얼음비는 상자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상승했으며, 작업노임은 상자당 1,600원에서 1,700원으로 상승했음
- 운송비 또한 유류비 증가로 인해 상자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승했음
-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 부진으로 산지 출하 가격이 높게 형성되며 중도매인 이윤도 478원으로 53.7% 상승했음

2) 소비지 도매 단계

- 소비지 도매 단계의 유통비용은 경매수수료 및 상·하차비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음
 - 도매시장의 경매 수수료는 산지가격과 소비지 도매가격의 상승으로 정률적으로 높게 책정되었음
 - 2022년 소비지 도매시장 및 소비지 중도매단계에서의 상·하차비는 운임이 상승하면서 350원/kg에서 354원/kg으로 상승했으며, 운반비 또한 37원/kg에서 40원/kg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소비지 중도매인 단계에서의 간접비는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이윤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
 - 한편, 2018년 이후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간접비는 비슷했으나 이윤은 16.5% 감소했음

3) 소매 단계

- 소매 단계에서는 이윤은 직접비 및 간접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마진율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운반비 등이 포함된 직접비는 196원/kg으로, 인건비, 점포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의 간접비는 1,960원/kg에서 2,058원/kg으로 상승했음
 - 이러한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며 이윤은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마진율은 17.4%로 전년(21.1%) 대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표 4-96> 참조기 선어의 유통비용 변화(목포 → 노량진수산물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률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1,074	12,099	9,166	8,511	13,532	5.1	
산지 위판장	양륙비	206	228	172	160	251	5.1	
	선별 작업	입상	98	98	105	105	105	1.7
		선별	80	80	86	86	86	1.8
		보조	86	86	98	98	98	3.3
	어상자대	58	62	59	60	68	4.1	
	위판수수료	547	596	456	425	666	5.0	
	위판가격	12,148	13,249	10,142	9,445	14,806	5.1	
산지 중도매인	포장 작업	보호틀	87	93	93	100	100	3.5
		비닐	10	10	10	11	11	2.4
		얼음	27	27	27	33	40	10.3
		작업노임	87	93	96	107	113	6.8
		스티로폼박스	200	200	200	200	200	0.0
	운송비	100	100	100	133	200	18.9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393	426	330	311	478	5.0	
	산지 출하(판매)가격	13,052	14,198	10,998	10,340	15,948	5.1	
소비지 도매시장	하차비	21	21	23	23	24	3.4	
	경매수수료	600	639	496	466	720	4.7	
	경락가격	13,673	14,858	11,517	10,829	16,692	5.1	
소비지 중도매인	운반비	33	33	37	37	40	4.9	
	상차비	21	21	23	23	24	3.4	
	간접비	900	1,000	780	819	861	-1.1	
	이윤	843	577	440	410	410	-16.5	
	판매가격	15,470	16,489	12,797	12,118	18,026	3.9	
소비지 소매상	직접비	173	200	192	192	196	3.2	
	간접비	1,364	1,950	1,867	1,960	2,058	10.8	
	이윤	2,693	1,361	1,143	1,080	1,535	-13.1	
	판매가격	19,700	20,000	16,000	15,350	21,815	2.6	

주: 상자(14.5kg)당 160마리 기준으로 조사시기는 12월 상순임

나. 참조기(선어→동결)의 유통비용(제주 → 대형소매업체)

1) 산지 단계

- (산지위판장) 한림수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지단계에서의 유통비용 및 이윤은 양륙비를 제외하고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위판수수료와 어상자대 비용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으나, 그 외 비용은 전년과 비슷했음
 - 위판수수료는 정률적으로 적용됨으 참조기 생산량 감소로 산지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높게 형성되며 위판수수료도 전년보다 높게 산정되었음
 - 어상자대는 원재료가 목재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되면서 전년 133원/kg에서 152원/kg로 14.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한편, 그 외 양륙비, 선별작업 관련 비용, 상자포장비 등은 전년과 동일했음
- (산지 중도매인) 산지중도매인 단계 유통비용 및 이윤은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전년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
 - 산지 중도매인 단계에서의 비용인 포장작업비, 냉동창고 보관료, 운송비 등은 모두 전년과 동일했음
 - 다만, 중도매인 이윤의 경우, 유통비용이 동결되며 상승했음

2) 대형소매점 단계

- 대형소매점 단계의 인건비, 점포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의 간접비 및 이윤은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며, 전년에 비해서도 크게 하락했음
 - 대형소매점의 간접비는 전년 2,149원/kg에서 771원/kg으로, 이윤은 1,432원/kg에서 514원/kg으로 하락했음
 - 이는 참조기 생산량 감소로 위판가격 및 산지 출하(판매)가격이 상승했으나, 물가안정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상생할인행사 등으로 할인율이 적용되면서 대형소매업체 판매가격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임

<표 4-97> 참조기(선어→동결)의 유통비용 변화(제주 →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률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0,397	7,305	7,393	9,620	-2.6	
산지 위판장	양륙비	50	60	60	60	6.3	
	선별 작업	215	211	211	211	-0.6	
	어상자대	154	133	133	152	-0.4	
	상자포장비	31	31	31	31	-2.4	
	위판수수료	476	339	343	442	-2.4	
	위판가격	11,323	8,079	8,171	10,516	0.0	
산지 중도매 인	포장 작업	내피	8	8	8	8	10.5
		덧개	23	31	31	31	0.0
		끈	38	38	38	38	12.4
		노임	38	54	54	54	0.0
	냉동 창고	대차	15	15	15	15	0.0
		입출고비	31	31	31	31	0.0
		동결비	38	38	38	38	0.0
		냉동보관 입출고비	31	31	31	31	0.0
		냉동보관료	12	23	23	23	24.2
	운송비(동결 후)	154	154	154	154	0.0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425	320	325	576	10.7	
	산지 출하(판매)가격	12,136	8,822	8,919	11,515	-1.7	
	대형소 매업체	간접비	3,500	3,617	2,149	771	-39.6
이윤		2,364	2,411	1,432	514	-39.9	
판매가격		18,000	14,850	12,500	12,800	-10.7	

주: 1) 한림수협에서 위판된 참조기의 유통비용은 2019년부터 조사됨
 2) 상자(14.2kg)당 165마리의 평균가격 기준으로 조사시기는 12월 상순임

제7절 마른멸치 유통실태조사

1. 마른멸치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및 계통출하 동향

- 2022년 마른멸치 생산량은 2만 6,251톤으로 전년 대비 18.0% 감소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35.1% 적었음
 - 상반기는 마른멸치 위판량이 많아 전년과 비슷했으나, 하반기 들어서며 어획량이 급감해 7~12월 위판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21.6% 감소했음
- 통계청의 멸치 생산량 추정은 ‘멸치’로 검색되어, 마른멸치 생산량은 각 수협의 위판자료를 바탕으로 별도 추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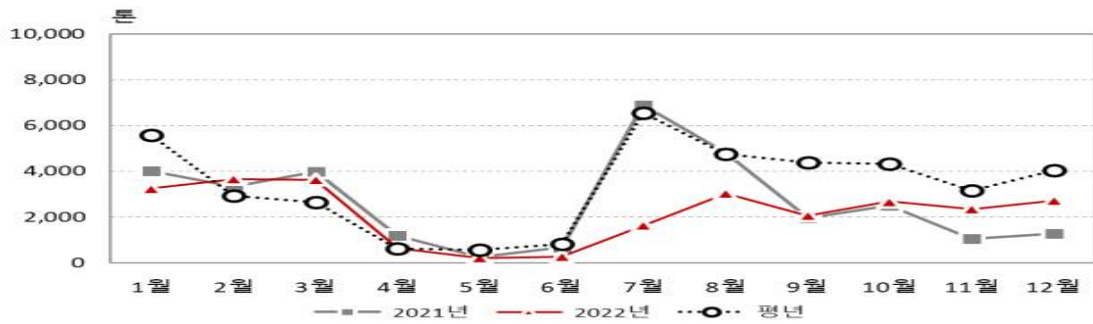
<표 4-98> 연도별·월별 마른멸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5,341	5,769	8,054	4,751	4,011	3,256	5,168	-18.8	-37.0
2월	2,164	1,646	3,809	3,787	3,338	3,674	3,251	10.1	13.0
3월	2,661	2,006	1,631	2,999	3,985	3,635	2,851	-8.8	27.5
4월	573	537	400	455	1,195	645	646	-46.0	-0.2
5월	620	829	554	629	248	219	496	-11.7	-55.8
6월	861	1,155	552	840	682	278	701	-59.2	-60.4
7월	6,588	6,914	4,896	7,436	6,908	1,642	5,559	-76.2	-70.5
8월	6,445	4,811	3,462	4,270	4,823	3,043	4,082	-36.9	-25.4
9월	7,000	5,917	3,037	3,986	1,981	2,080	3,400	5.0	-38.8
10월	4,397	7,063	2,388	5,249	2,511	2,692	3,981	7.2	-32.4
11월	3,353	4,429	2,231	4,778	1,052	2,356	2,969	124.0	-20.7
12월	4,674	7,513	3,368	3,439	1,272	2,731	3,665	114.7	-25.5
합계	44,677	48,589	34,382	42,619	32,006	26,251	36,769	-18.0	-28.6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각 수협 위판자료, KMI 수산업관측센터

<그림 4-52> 월별 마른멸치 생산량 추이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6년~2020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각 수협 위판자료, KMI 수산업관측센터

- 통계청의 2022년 멸치 총생산량은 13만 2,151톤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9.1% 적었음
 - 어획량이 많았던 전년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진 멸치 어선들이 조업일수를 줄였기 때문임
- 2022년 멸치 총생산금액은 약 2,541억 원으로 어획량이 줄었으나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각각 28.4% 높았음

<표 4-99> 연도별 어업별 멸치 생산량·생산금액 동향

단위: 톤, 백만 원

구분	총생산량	총생산금액		총생산금액		
		일반해면	천해양식	일반해면	천해양식	
1990년	130,195	130,192	3	86,777	86,775	2
1995년	230,679	230,679	-	199,075	199,075	-
2000년	201,192	201,192	-	203,278	203,278	-
2005년	249,001	249,001	-	286,773	286,773	-
2010년	249,636	249,636	-	390,405	390,405	-
2015년	211,574	211,574	-	264,506	264,506	-
2017년	210,943	210,943	-	351,741	351,741	-
2018년	188,684	188,684	-	323,603	323,603	-
2019년	171,677	171,677	-	283,204	283,204	-
2020년	216,748	216,748	-	337,970	337,970	-
2021년	143,413	143,413	-	197,878	197,878	-
2022년	132,151	132,151	-	254,089	254,089	-
5개년 평균	170,535	170,535	-	279,349	279,349	-

주: 1)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의 멸치로 집계하였음
 2) 2021년은 잠정치이며,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월별 멸치 생산량을 살펴보면, 3월부터 어획량이 급감하였음
 - 3월부터 어획이 좋지 않아 멸치 어획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멸치 포획 금지기간(금어기) 이후에도 어획이 회복되지 않아 생산량이 전년보다 적었음
 - 금어기 이후 7~8월에는 연안 수온이 높게 형성되면서 멸치 산란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평년보다 어획량이 많았음
 - 그러나 9월부터 어획이 전반적으로 회복되며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했음

<표 4-100> 연도별·월별 멸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20,542	20,270	24,551	19,771	11,655	13,621	17,974	16.9	-29.6
2월	7,971	6,063	11,536	14,329	10,684	13,902	11,303	30.1	37.4
3월	13,445	7,678	6,793	11,238	14,687	14,468	10,973	-1.5	34.4
4월	4,286	3,208	4,763	6,285	7,218	5,360	5,367	-25.7	4.0
5월	8,940	7,387	9,446	11,808	8,065	6,216	8,584	-22.9	-31.9
6월	6,236	5,133	7,225	8,513	7,110	3,672	6,331	-48.4	-46.3
7월	30,300	25,029	15,706	28,368	26,917	7,316	20,667	-72.8	-71.0
8월	28,114	21,319	24,943	24,236	25,293	17,256	22,609	-31.8	-30.4
9월	37,399	30,418	21,556	27,623	11,373	15,121	21,218	33.0	-41.1
10월	16,686	26,090	16,974	27,904	11,113	15,272	19,471	37.4	-22.7
11월	14,038	17,543	11,684	19,784	3,974	9,216	12,440	131.9	-31.2
12월	22,986	18,547	16,498	16,889	5,324	10,731	13,598	101.6	-33.1
합계	210,943	188,684	171,677	216,748	143,413	132,151	170,535	-7.9	-29.1

주: 1)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멸치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월별 생산량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였음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그림 4-53> 월별 멸치 생산량 추이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통계청의 멸치 부류별 생산동향은 활어, 선어, 냉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선어 (100.0%) 형태로만 생산되었음

<표 4-101> 연도별 부류별 멸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5개년 평균
활어	21	-	-	-	6	-	-	6
선어	210,634	188,682	171,650	215,772	143,408	132,151	100.0	170,333
냉동	289	2	27	976	-	-	-	335
합계	210,943	188,684	171,677	216,748	143,413	132,151	100.0	170,535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통계청의 2022년 멸치 계통출하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멸치의 계통출하율이 95.3%로 전년(94.5%) 대비 소폭 상승했음

<표 4-102> 연도별 부류별 멸치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5개년 평균
		활어	계통	-	-	-	-		
	비계통	21	-	-	-	6	-	-	6
	소계	21	-	-	-	6	-	-	6
선어	계통	199,364	176,852	163,173	203,505	135,587	125,971	95.3	161,018
	비계통	11,270	11,830	8,478	12,267	7,820	6,180	4.7	9,315
	소계	210,634	188,682	171,651	215,772	143,408	132,151	100.0	170,333
냉동	계통	-	2	27	976	-	-	-	335
	비계통	289	-	-	-	-	-	-	-
	소계	289	2	27	976	-	-	-	335
합계	계통	199,364	176,855	163,200	204,481	135,587	125,971	95.3	161,219
	비계통	11,579	11,830	8,478	12,267	7,826	6,180	4.7	9,316
	합계	210,943	188,685	171,678	216,748	143,413	132,151	100.0	170,535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지역별 멸치 생산량을 살펴보면, 경상남도가 전체 생산량의 53.5%로 전년(60.7%)보다 적었음
- 그 다음으로 충청남도(17.0%), 전라남도(16.0%), 부산광역시(10.8%) 등 순이었음

<표 4-103> 연도별 지역별 멸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5개년 평균
		부산광역시	계통	14,851	14,787	15,758	18,857		
인천광역시	계통	64	100	40	71	223	55	0.0	98
울산광역시	계통	570	1,754	948	2,576	448	100	0.1	1,165
경기도	계통	9	26	30	1	0	0	0.0	14
강원도	계통	54	106	35	6	42	56	0.0	49
충청남도	계통	45,916	35,325	29,150	31,402	11,332	22,494	17.0	25,941
전라북도	계통	1,884	1,332	750	835	775	575	0.4	853
전라남도	계통	37,138	30,448	28,000	27,461	18,614	21,143	16.0	25,133
경상북도	계통	2,509	2,248	4,077	4,165	2,501	1,811	1.4	2,960
경상남도	계통	102,355	100,297	89,070	124,249	87,093	70,701	53.5	94,282
제주도	계통	5,593	2,260	3,820	7,124	5,940	940	0.7	4,017
합계	계통	210,943	188,684	171,677	216,748	143,413	132,151	100.0	170,535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멸치의 어법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기선권현망어업 생산량이 7만 7,544톤으로 가장 많았음. 이는 총생산량의 58.7%를 차지했으며 전년(63.6%) 대비 줄었음
 - 이 외에는 어법별 생산량 비중은 근해안강망 15.0%, 정치망 5.0%, 연안선망 4.2% 순이었음

<표 4-104> 연도별 어법별 멸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비중	평균
기선권현망	114,347	108,563	92,052	127,168	91,162	77,544	58.7	99,298
근해안강망	28,383	22,057	13,392	16,789	6,328	19,805	15.0	15,674
정 치 망	10,858	15,648	17,445	13,768	7,874	6,557	5.0	12,258
연안선망	16,336	8,209	8,935	14,060	7,941	5,533	4.2	8,936
연안들망	9,056	3,775	2,111	4,969	7,118	1,227	0.9	3,840
기타	31,963	30,432	37,742	39,994	22,990	21,485	16.3	30,529
계	210,943	188,684	171,677	216,748	143,413	132,151	100.0	170,535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나. 수출입 현황

- 2022년 멸치 수출량은 917톤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3.6% 많았음
 - 마른멸치 수출량은 2018년에 크게 증가한 이후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수출금액은 1,1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1% 상승했으나, 평년에 비해서 9.3% 적었음. 수출단가는 kg당 13.8달러로 전년(13.9\$/kg)보다 소폭 낮았음
- 2022년 기준 국가별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미국(478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258톤), 인도네시아(96톤), 캐나다(28톤), 홍콩(5톤) 등의 순이었음
- 2022년 멸치 수입량은 16톤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1.0%, 88.7% 적었음

- 국내 멸치 어획량이 적었음에도 수입량이 평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으며,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임

<표 4-105> 연도별 멸치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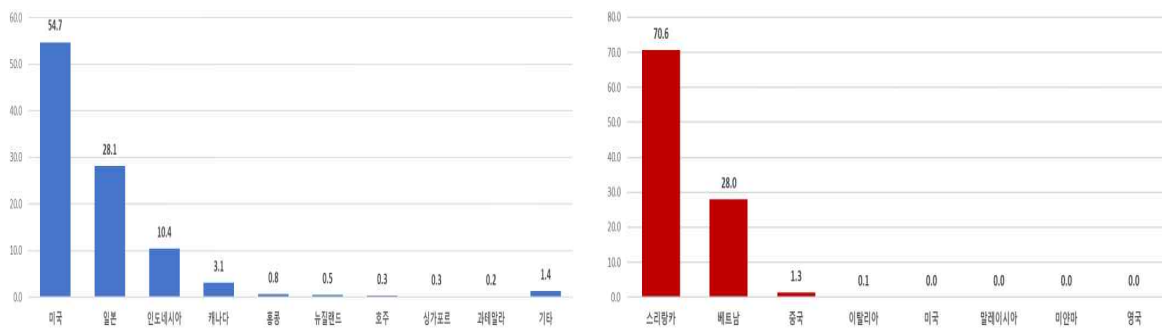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7년	674	8,295	12.3	281	1,139	4.1
2018년	1,342	20,270	15.1	178	868	4.9
2019년	881	11,981	13.6	157	785	5.0
2020년	788	10,682	13.6	51	269	5.3
2021년	742	10,331	13.9	41	266	6.5
2022년	917	11,170	13.9	16	102	6.5
5개년 평균	934	12,887	13.8	89	458	5.2
전년 대비	23.6	8.1	0.0	-61.0	-61.7	0.0
평년 대비	3.6	-9.3	0.0	-88.7	-84.7	38.3

주: 1) 수출입 증량은 수율을 적용하지 않은 원물기준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을 의미함
 3) 2016년 HS코드: 305592000, 2017~2021년 HS코드: 305541000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수입금액은 10.2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7% 하락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84.7% 낮았음. 수입단가는 kg당 6.5달러로 전년(6.5\$/kg)과 비슷했음
- 2022년 기준 주요 수입국으로는 스리랑카(70.6%), 베트남산(39.7%)이었으며, 이외에는 소량 수입되었음

<그림 4-54> 국가별 멸치 수출입 비중(2022년 기준)

단위: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다. 수급 구조

- 2022년 마른멸치 총 공급량은 2만 7,707톤으로 전년 대비 19.9% 감소했음
 - 전년의 멸치 어획 감소로 이입 재고량이 감소했으며, 2022년 멸치 생산 및 수입량이 전년 대비 각각 18.0%, 61.0% 감소했기 때문임
 - 총 공급량에서 국내 생산 비중은 94.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입 재고는 5.2%, 수입량은 0.1%이었음
- 2022년 국내 마른멸치 소비량은 2만 4,798톤으로 전년 대비 23.5% 감소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37.8% 적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수요는 늘었으나, 급식·식당 등 대형 식자재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임
 - 총 공급량에서 국내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9.5%이었으며, 이월 재고량은 7.2%, 수출량은 3.3%이었음
 - 2022년 마른멸치 자급률은 105.9%로 생산량이 줄었지만, 소비량도 줄어 전년(98.7%)보다 높았으며,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었음

<표 4-106> 연도별 마른멸치 수급구조

단위: 톤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이입		국내소비	수출	이월	
2017년	44,677	281	2,077	47,035	44,933	674	1,428	99.4
2018년	48,589	179	1,428	50,196	46,534	1,342	2,320	104.4
2019년	34,382	160	2,320	36,862	33,958	881	2,023	101.2
2020년	42,619	51	2,023	44,693	41,358	788	2,547	103.0
2021년	32,006	41	2,547	34,594	32,412	742	1,440	98.7
2022년	26,251	16	1,440	27,707	24,798	927	1,982	105.9
전년 대비	-18.0	-61.0	-43.5	-19.9	-23.5	24.9	37.6	-
평년 대비	-35.1	-88.8	-30.7	-35.1	-37.8	4.7	1.6	-

주: 수출입은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각 수협 위판자료 및 KMI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2) 수출입은 관세청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이입, 이월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 입출하동향 조사
 4)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KMI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2022년 마른멸치(중멸) 산지가격은 연평균 kg당 9,496원으로 어획량 감소로 전년 대비 61.7% 상승했으며, 평년보다 13.7% 높았음
- 2022년에는 어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급감한 하반기에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음
 - 상반기 가격은 전년 대비 21.1% 높았으나, 하반기에는 전년보다 106.7% 상승했음
 - 특히 어획량이 급감한 7월 이후 멸치 산지가격은 kg 당 1만 원대에 거래되며 높은 가격은 유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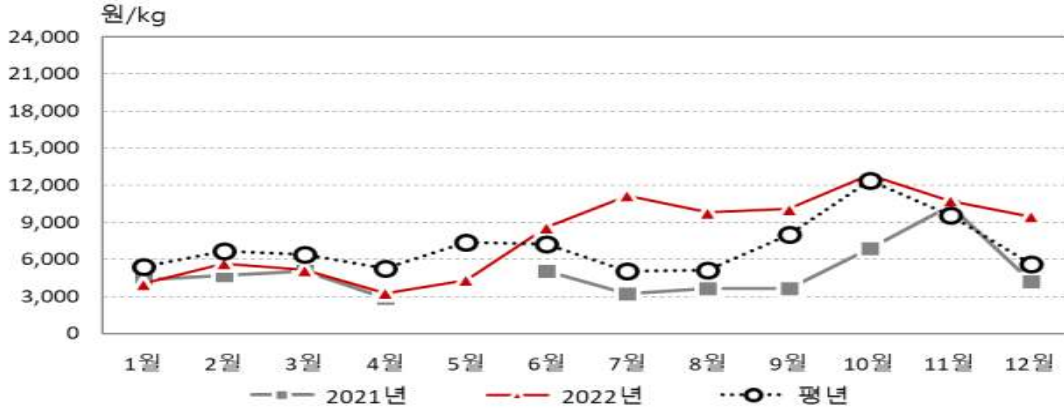
<표 4-107> 연도별·월별 마른멸치(중멸) 산지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6,618	5,705	4,759	5,637	4,324	4,016	4,888	-7.1	34.7
2월	8,669	9,911	4,508	5,723	4,684	5,661	6,097	20.9	18.3
3월	8,301	9,852	4,465	4,468	5,070	5,147	5,800	1.5	25.0
4월	6,786	7,562	3,814	5,294	2,889	3,269	4,565	13.1	61.2
5월	9,353	9,150	3,938	7,019	-	4,328	6,109	-	70.2
6월	9,901	7,347	6,076	7,743	5,025	8,609	6,960	71.3	-16.1
7월	5,555	6,438	4,366	5,734	3,204	11,181	6,184	249.0	-54.8
8월	5,813	4,973	7,136	4,140	3,674	9,812	5,947	167.1	-47.5
9월	8,442	9,471	12,572	5,842	3,666	10,067	8,323	174.6	-20.5
10월	13,091	11,698	21,258	8,982	6,865	12,827	12,326	86.8	-3.5
11월	9,433	7,247	13,880	7,099	10,309	10,761	9,859	4.4	-10.9
12월	7,763	4,776	7,029	4,171	4,245	9,496	5,943	123.7	-41.1
연평균	8,310	7,844	7,817	5,988	4,905	7,931	6,897	61.7	-12.1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멸치권현망수협 위판자료

<그림 4-55> 월별 마른멸치(중멸) 산지가격 추이



주: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멸치권현망수협 위판자료

2) 도매가격

- 2022년 마른멸치(중멸) 도매가격은 산지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8.9% 상승한 연평균 kg당 11,834원이었음
- 생산량이 전년과 비슷했던 상반기에는 도매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어획량이 급감한 7월 이후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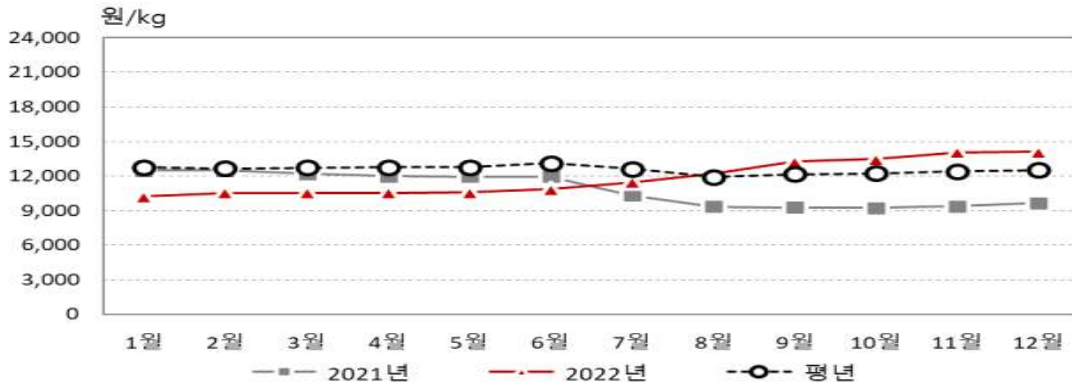
<표 4-108> 연도별·월별 마른멸치(중멸)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2,125	13,151	11,779	14,307	12,480	10,235	12,390	-18.0	24.8
2월	11,832	13,319	11,769	14,007	12,480	10,567	12,428	-15.3	20.0
3월	12,183	13,591	11,766	13,915	12,217	10,543	12,406	-13.7	20.8
4월	12,436	13,667	11,963	13,807	11,981	10,567	12,397	-11.8	20.9
5월	12,508	13,733	11,911	13,825	11,960	10,573	12,400	-11.6	20.9
6월	12,793	14,011	12,000	14,788	11,960	10,885	12,729	-9.0	20.4
7월	12,902	13,250	11,693	15,025	10,357	11,467	12,358	10.7	10.3
8월	12,638	12,217	11,499	13,900	9,344	12,257	11,843	31.2	-2.8
9월	13,242	12,359	11,979	13,922	9,271	13,248	12,156	42.9	-8.3
10월	13,321	12,314	12,629	13,718	9,259	13,483	12,281	45.6	-9.2
11월	13,388	12,121	14,521	12,620	9,371	14,061	12,539	50.0	-11.8
12월	13,621	12,107	14,787	12,500	9,680	14,117	12,638	45.8	-11.2
연평균	12,749	12,987	12,358	13,861	10,863	11,834	12,381	8.9	6.2

주: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56> 월별 마른멸치(중멸) 도매가격 추이



주: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3) 소비자가격

- 2022년 마른멸치(중멸) 소비자가격은 연평균 kg당 27,459원으로 전년 대비 3.9%, 평년에 비해서는 1.5% 하락했음
- 산지 및 도매가격 상승 영향에도 소비자가격은 대형소매점 할인행사 및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표 4-109> 연도별·월별 마른멸치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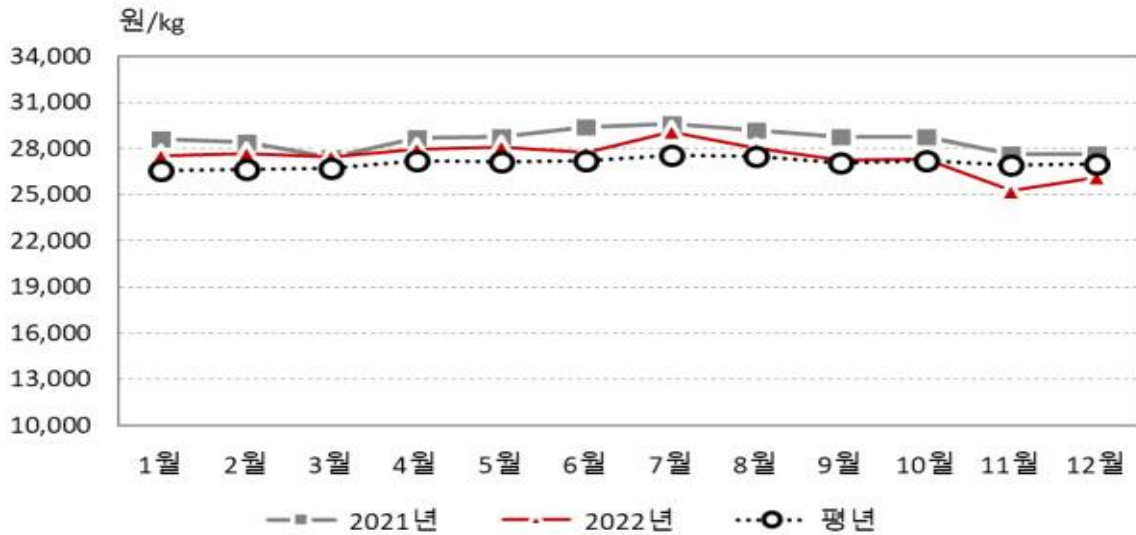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25,200	26,650	25,430	27,070	28,600	27,530	27,056	-3.7	-3.4
2월	25,580	26,760	25,300	27,230	28,440	27,670	27,080	-2.7	-3.6
3월	26,280	26,740	25,710	27,350	27,400	27,480	26,936	0.3	-2.9
4월	27,350	26,630	25,990	27,340	28,690	27,980	27,326	-2.5	-2.8
5월	26,600	26,470	26,380	27,450	28,780	28,100	27,436	-2.4	-3.4
6월	25,350	26,910	26,860	27,500	29,420	27,750	27,688	-5.7	-2.0
7월	25,930	27,480	26,970	27,710	29,620	29,100	28,176	-1.8	-5.4
8월	26,430	27,060	26,950	27,777	29,200	27,990	27,795	-4.1	-1.8
9월	25,570	26,010	27,030	27,900	28,730	27,240	27,382	-5.2	-0.7
10월	25,620	26,180	27,320	28,080	28,780	27,290	27,530	-5.2	-0.3
11월	25,660	25,990	27,270	28,040	27,600	25,260	26,832	-8.5	6.5
12월	26,120	25,790	27,230	28,110	27,620	26,120	26,974	-5.4	3.3
연평균	25,974	26,556	26,537	27,630	28,573	27,459	27,351	-3.9	-1.5

주: 1) 100g 단위로 소포장해서 거래되는 마른멸치 소비자가격을 kg으로 환산한 것임

2) 5개년 평균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57> 월별 마른멸치 소비자가격 추이



주: 1) 100g 단위로 소포장해서 거래되는 마른멸치 소비자가격을 kg으로 환산한 것임
 2)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2. 마른멸치 유통구조

가. 유통경로

- 마른멸치는 어선에서 자숙 이후 양륙되며, 가공업체에서 선별 및 분류를 통해 1.5kg 크기의 종이상자에 포장됨
 - 종이상자를 6개씩 묶는 밴딩작업을 한 후, 경매장으로 운송된 마른멸치는 항운노조원이 운반차량에서 포장된 마른멸치를 내리고 위판장까지 이동하며, 이때 하륙 및 하차비용(노임 포함)이 발생함
- 산지 위판장에서 위판된 마른멸치는 산지 유통인의 냉동창고, 소비지도매시장, 소매상(지역 전통시장 포함), 대형 소매업체 등으로 유통됨
 - 산지 위판장을 통해 계통출하되는 유통비중은 전체 생산량의 94.0%로 전년과 비슷했으며, 산지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가 직접 소비지도매시장(가락, 중부시장 등)에 출하하는 비중은 6%로 조사되었음
 - 위 유통비중은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된 추정치이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조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소비지도매시장 등에 직접 출하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번 조사에서도 제외하였음

- 소비지도매시장에서 경매장 내 하역작업을 통해 산지에 이어 2차 경매가 이뤄짐
 - 가락시장(서울건해산물) 등 소비지도매시장에서 경매 이후 낙찰된 마른멸치는 각 소매단계별 유통을 위한 재선별 및 재포장 과정을 거침
 - 한편, 최근 소비지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
- 산지유통인의 냉동창고에 보관된 마른멸치는 소비지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코로나19’이후 온라인 주문이 늘어나면서 개인 유통채널별 택배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정리하면, 마른멸치의 제도권 내 시장 유통경로는 생산자 → [<산지 위판장> → <산지 중도매인>] → [<소비지도매시장> → <소비지 중도매인>]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단계로 전년과 유사했음
 - 산지 위판장을 거치지 않는 비계통 유통경로는 생산자 → [소비지도매시장 → 소비지 중도매인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단계를 거쳐 유통됨

나.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2022년 마른멸치 생산량은 2만 6,251톤⁵²⁾으로 하반기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전년 대비 18.0% 감소했음
 -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지역이 전체 생산량의 64.3%로 전년(72.2%)보다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계통출하율도 95.3%로 전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서해안에서 조업이 이뤄지는 경우 소비지도매시장(서울건해산물, 광주건어물유통시장 등)에 직접 출하하는 비계통출하율이 남해안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본 조사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마른멸치 계통 출하비중이 높은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 마른멸치의 개별 유통경로별 물량비중은 아래 표와 같이 추정하였음

52) 각 수협 위판자료 및 KMI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임

<표 4-110> 마른멸치의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2년 기준)

단위: 톤,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생산자			42,619 (100.0)	32,006 (100.0)	26,251 (100.0)	
산지 위판장 (계통 출하)	산지유통인 및 냉동냉장창고	소비지도매시장		4,480 (14.0)	3,150 (12.0)	
		소매상(전통시장 등)	12,786 (30.0)	2,240 (7.0)	1,838 (7.0)	
		대형 소매업체		2,240 (7.0)	2,100 (8.0)	
		온라인, 택배	6,393 (15.0)	5,981 (18.7)	5,250 (20.0)	
		가공식품 등	1,220 (3.0)	320 (1.0)	263 (1.0)	
		수출	910 (2.0)	742 (2.3)	525 (2.0)	
	소비지도매시장		5,159 (12.0)	3,259 (10.2)	2,625 (10.0)	
	소매상(전통시장 등)		4,300 (10.0)	4,889 (15.3)	3,938 (15.0)	
	대형 소매업체		9,458 (22.0)	6,194 (19.3)	4,725 (18.0)	
	정부비축		262 (1.0)	61 (0.2)	263 (1.0)	
	소비지 도매시장(비계통 출하)			2,131 (5.0)	1,600 (5.0)	1,574 (6.0)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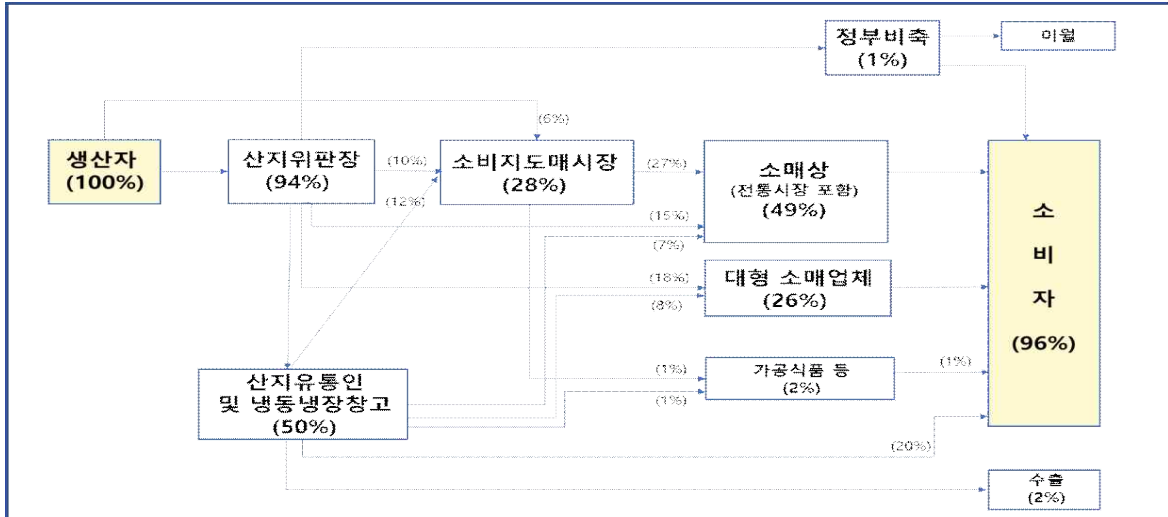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임

- 산지 위판장을 거쳐 산지 유통인의 냉동·냉장창고에 보관되는 비중은 전체 유통비중의 50%로 전년과 비슷했음
 - 이 물량은 소비지도매시장, 소매상(지역 전통시장 포함), 대형 소매업체, 수출용, 가공식품용 등으로 유통되었음
 - 2022년에는 물량이 적었음에도 산지 및 도매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냉동·냉장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장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았음
- 소비지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비중은 전체 유통비중의 28%로 전년(29%) 대비

낮았음

- 산지 및 소비지도매시장에서 각각 위판을 거치면서 위판수수료가 발생하면서 중도매인들의 이윤이 낮아져 소비지도매시장의 2차 위판이 감소하고 있음
- 산지 생산자가 직접 소비지도매시장에 출하한 비율이 6%, 산지 위판장을 거쳐 산지 중도매인들이 소비지도매시장에 2차 위판을 하는 비율이 10%, 산지 유통인을 통해 위판되는 경우가 12%이었음
- 소비지도매시장에서 위판한 물량은 지역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매상(27%), 가공식품 등(1%)으로 유통되었음
- 지역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매상을 통해 유통되는 비중은 전체 생산량의 49%로 전년(50%)과 유사했으며, 이는 산지 위판장(15%), 산지 유통인(7%) 그리고 소비지도매시장(27%)을 통해 유입되었음
- 대형 소매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비중은 전체 생산량의 26%로 전년과 비슷했음
 - 유입경로는 산지 위판장이 18%로 전년(19%) 대비 낮았음. 반면, 산지 유통인으로부터 구입하는 비중은 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소비자들의 마른멸치 소비패턴 변화로 크기별로 소포장되는 마른멸치에서 국물용 패키지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산지유통인을 통한 구입이 늘어나는 추세임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빈도가 높아지면서 산지 유통인이 보관하고 있는 마른멸치를 개별 유통채널을 통해 택배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비중(20%)이 늘었음
- 한편, 정부비축사업으로 2022년에 수매한 마른멸치 물량은 181톤으로 작년보다 많았음
- 결과적으로 마른멸치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생산자가 산지 위판장을 거쳐 산지 유통인 혹은 소비지도매시장을 통해 소매단계로 유통되었음
 - 국내 소비자가 소비한 마른멸치의 비중은 수출 등을 제외하면, 전체 마른멸치 유통비중의 96%로 전년(96%)과 유사했음

<그림 4-58> 마른멸치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비중



주: 오차범위는 5% 내외임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임

3. 마른멸치 유통비용

가. 마른멸치의 유통비용(산지 위판장→소비지 도매시장)

1) 산지 단계

- 산지 위판장에서는 생산자가 하륙 및 하차 비용, 경매장까지 운반하는 등의 노임 등의 비용을 부담함
 - 생산자 어가수취가격은 2020년 이후 생산량 감소추세로 연평균 2.0% 상승했으며, 2022년은 전년 대비 15.6% 상승한 kg당 10,275원이었음
 - 어선에서 양륙된 마른멸치를 경매장으로 운반하고, 샘플을 진열하는 등의 노임이 상자당 100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99.5원/1.5kg)보다 높았음
 - 위판을 거친 후에 발생하는 위판수수료는 위판금액의 3.4%로 전년과 동일했음
- 산지 중도매인은 마른멸치를 냉동·냉장창고에 보관하거나 소비지도매시장 등에 유통하기 위한 상·하차비, 창고 보관료, 입·출고비 등을 부담함
 - 상·하차비는 1.5kg 상자당 110원, 냉동·냉장창고의 입고비(46원/1.5kg) 및 출고비(55원/1.5kg)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음
 - 이적료는 위판장 인근 실온에 단기간 보관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1일당 39원이며, 냉동·냉장창고 보관료는 1일당 6원으로 전년과 비슷했음
 - 산지 위판장에서 소비지도매시장에 유통하기 위해 발생하는 운송비는 지역

별로 상이하나 1.5kg 상자당 170원으로 전년(160원/1.5kg) 대비 상승했음

- 산지 중도매인의 수수료(이윤)는 판매가격의 5% 내외로 추정되며, 판매가격 대비 산지 중도매인의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전년(2.0%)보다 소폭 감소했음

2) 소비지 도매 단계

- 마른멸치가 소비지도매시장(가락시장 등)을 경유하여 소비지 시장으로 유통되는 경우에 상·하차비, 경매 수수료 등이 발생함
 - 소비지도매시장의 상·하차비는 1.5kg 상자당 112원으로 전년(110원/1.5kg)보다 높았으며, 경매 수수료는 경매 낙찰가의 3% 내외로 전년과 동일했음
- 소비지 중도매인은 유통비용으로 발생하는 상차비, 물류비, 간접비 등을 부담함
 - 상차비는 1.5kg 상자당 55원이며, 가락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1.5kg 상자당 120원으로 조사되었음
 - 간접비를 제외한 소비지 중도매인의 수수료(이윤)는 판매가격의 5% 내외로 추정되며,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전년(1.4%)과 비슷했음

3) 소매 단계

- 최종단계인 소비지 소매상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용 봉투, 집기 등 직접비와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간접비가 발생함
 - 직접비 및 간접비는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이에 소비지 소매상의 이윤이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전년(7.0%)보다 낮았음

<표 4-111> 마른멸치의 유통비용(산지 위판장 → 소비자 도매시장)

단위: 원/kg,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률	
	금액	금액	금액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9,687	8,890	10,275	2.0
산지 위판장	하륙 및 하차입고비 (노임 및 밴딩재료비 등)	98	100	100	0.8
	위판수수료	344	316	364	1.9
	위판가격	10,129	9,306	10,740	2.0
산지 중도매인	상차비	53	54	55	1.2
	하차비	53	54	55	1.2
	입고비	44	45	46	1.5
	출고비	54	55	55	0.6
	이적료	38	39	39	0.9
	냉동창고 보관료	5	5	6	3.2
	운송비	155	160	170	3.1
	중도매인 수수료(이윤)	625	447	456	-10.0
	산지출하(판매) 가격	11,156	10,165	11,621	1.4
소비자 도매시장	하차비	54	55	56	1.2
	상차비	54	55	56	1.2
	경매수수료	348	318	367	1.8
	경매 낙찰가격	11,613	10,593	12,100	1.4
소비자 중도매인	상차비	54	55	55	0.6
	물류비	80	100	120	14.5
	간접비	3,744	3,856	4,016	2.4
	이윤	1,406	932	985	-11.2
	중도매인 판매가격	16,896	15,536	17,276	0.7
소비자 소매상	직접비	498	518	544	3.0
	간접비	3,838	4,606	4,868	8.2
	이윤	2,469	1,555	1,309	-19.1
	판매가격	23,701	22,215	23,997	0.4

주: 마른멸치 중멸 기준이며, 조사 시기는 각 연도별 12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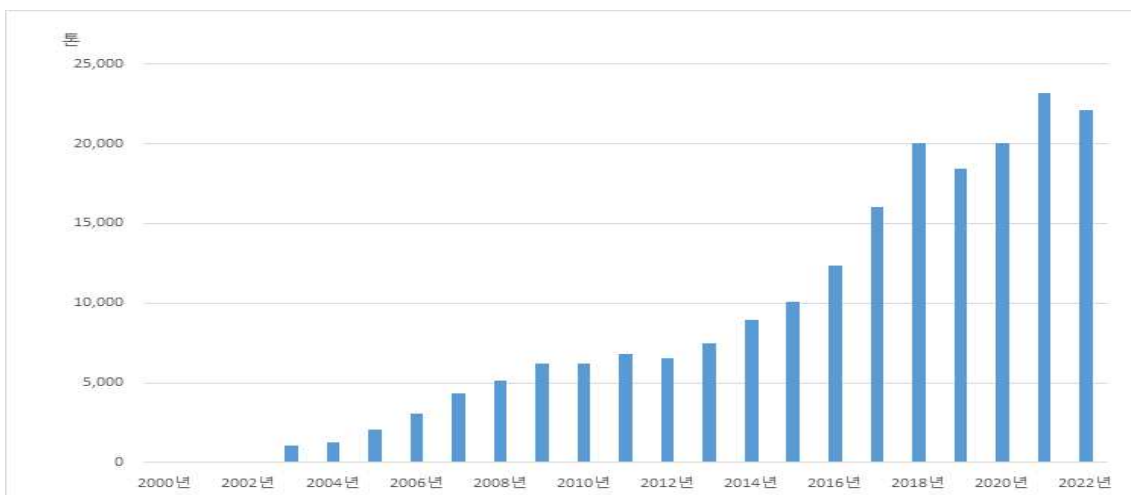
제8절 양식전복 유통실태조사⁵³⁾

1. 양식전복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동향

- 전복 양식이 시작된 1990년대 이래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던 전복 생산량은 2018년 2만 톤에 도달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2019년 칸 당 입식량을 줄이면서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해상가두리 시설량이 늘어남에 따라 2020년 전복 생산량은 다시 2만 톤을 기록했음
 - 2021년 전복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7% 증가한 2만 3,199톤이었는데, 이는 먹이 공급이 원활했고 수온도 생장에 적정하게 형성됨에 따라, 마리당 중량이 전년에 비해 높았기 때문임
 - 다만 2022년 생산량은 2만 2,078톤으로 2021년보다 4.8% 적었음. 이는 하반기부터 경기 위축 등으로 전복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임
 - 최근 5개년 평균 생산량은 2만 765톤이었으며, 2022년 생산량은 평년에 비해서 12.9% 많았음

<그림 4-59> 연도별 양식전복 생산량 추이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53) 일반해면어업으로 분류되는 '자연산' 전복이 생산되고 있으나, 그 양이 미미한 수준이므로 유통실태 조사는 양식 전복을 대상으로 함

<표 4-112> 연도별 양식전복 생산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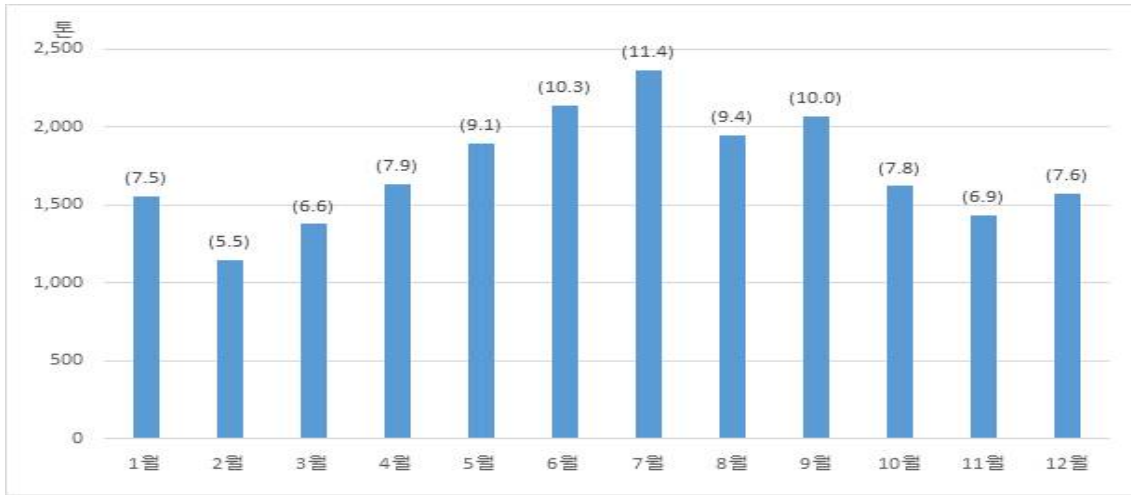
단위: 톤, 백만 원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1990년	2	59
1995년	61	2,884
2000년	20	1,941
2005년	2,062	92,813
2010년	6,228	233,145
2015년	10,090	324,670
2016년	12,342	347,395
2017년	16,027	577,368
2018년	20,053	607,142
2019년	18,436	591,855
2020년	20,059	610,340
2021년	23,199	694,339
2022년	22,078	678,606
5개년 평균	20,765	636,437
전년 대비	-4.8	-2.3
평년 대비	12.9	10.1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전복 생산금액은 생산량과 마찬가지로 2018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2018년 생산금액 6천억 원을 기록한 후 2019년 소폭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6,103억 원을 나타냈음
 - 2021년 전복 생산금액은 전년보다 13.8% 증가한 6,943억 원이었음
 - 2022년 생산금액은 전복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2.3% 적은 6,364억이었음. 다만, 전복 가격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생산금액의 감소율이 생산량 감소율보다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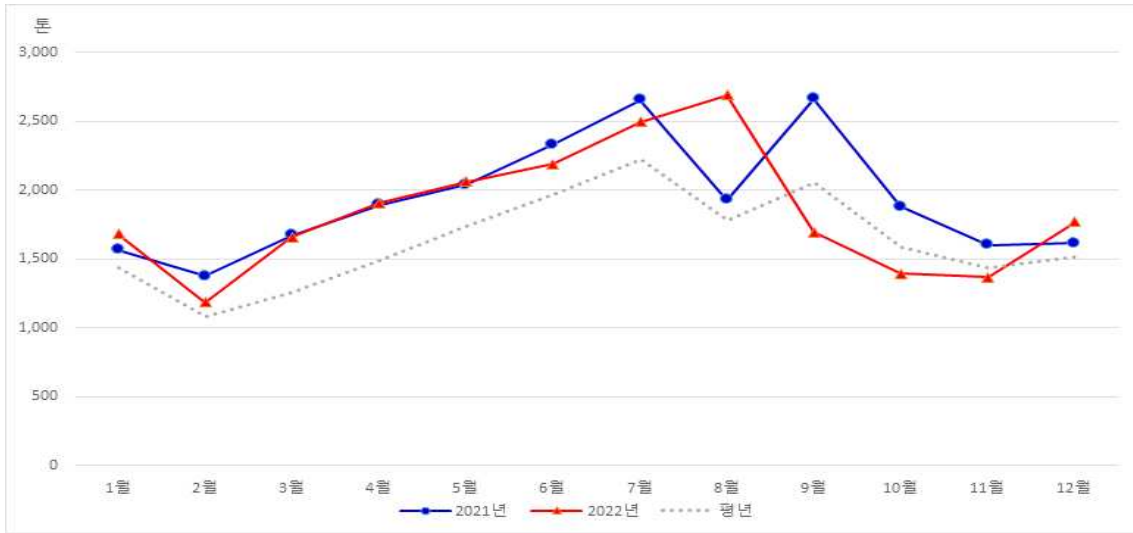
<그림 4-60> 최근 5년간 월별 양식전복 생산량 추이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월별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생산량은 상반기 동안 증가했으며, 하반기에 들어서며 감소 추세를 나타냈음
 - 상반기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연초와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1월에 비해 2월 생산량은 큰 폭으로 감소함. 이는 2월에는 설 명절 이후 수요 감소와 함께 생산자들 또한 전복 양성에 집중하는 시기이기 때문임
 - 3월에는 봄철 출하가 시작됨에 따라 출하량은 한동안 증가세가 이어짐
 - 하반기의 시작인 7월에는 복날 전복 수요의 영향과 고수온기 이전 출하를 계획하는 생산자들로 인해 생산량은 1년 중 가장 많음
 - 8월 들어 전복 생산량은 다소 감소하지만, 9월 추석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생산량은 증가함
 - 10월, 11월은 출하 가능한 전복 물량이 크게 줄면서 생산 비수기를 보냄
 - 12월에는 연말연시 수요 및 해외 수요 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2022년 전복의 월별 출하량을 살펴보면, 대체로 최근 5년 동안의 추세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음
 - 다만, 추석(9월 10일)이 평년보다 빨라 8월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고 9월 생산량은 이와 반대로 크게 감소했음

<그림 4-61> 2022년 월별 양식전복 생산량 추이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7년~2021년의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113>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098	1,241	1,751	1,540	1,563	1,679	1,555	7.4	16.7
2월	871	962	992	1,222	1,375	1,183	1,147	-14.0	9.1
3월	1,071	1,244	1,179	1,139	1,673	1,656	1,378	-1.0	31.3
4월	1,157	1,406	1,351	1,616	1,892	1,906	1,634	0.7	28.4
5월	1,246	1,807	1,724	1,845	2,036	2,062	1,895	1.3	19.1
6월	1,322	2,236	1,959	1,980	2,328	2,189	2,138	-6.0	11.4
7월	1,767	2,521	2,055	2,120	2,651	2,493	2,368	-6.0	12.2
8월	1,842	1,895	1,557	1,665	1,929	2,688	1,947	39.3	51.2
9월	1,621	2,141	1,836	2,015	2,663	1,695	2,070	-36.3	-17.5
10월	1,180	1,603	1,431	1,811	1,877	1,393	1,623	-25.8	-11.9
11월	1,379	1,446	1,232	1,529	1,599	1,365	1,434	-14.6	-5.0
12월	1,471	1,553	1,369	1,576	1,613	1,769	1,576	9.7	16.7
합계	16,027	20,053	18,436	20,059	23,199	22,078	20,765	-4.8	12.9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전복의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114> 연도별 양식전복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비중	평균	
계	계통	190	91	152	145	109	149	0.7	129
	비계통	15,836	19,962	18,284	19,914	23,091	21,929	99.3	20,636
	소계	16,027	20,053	18,436	20,059	23,199	22,078	100.0	20,765

주: 1) 2021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전복의 연간 생산량과 계통·비계통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에도 과거와 동일하게 전복 출하는 모두 활어 상태로 실시되었고, 산지 생산자들은 대부분 비계통으로 전복을 판매했음
 - 2022년 계통 출하의 비중은 0.7%였으며, 비계통 출하비율은 99.3%에 달하는 2만 2,078톤이었음

<표 4-115> 연도별 지역별 양식전복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비중	평균
전라남도	15,904	19,905	18,237	19,726	23,099	21,947	99.4	20,583
경상남도	22	48	114	48	35	65	0.3	62
충청남도	24	30	36	24	31	38	0.2	32
제주도	27	23	22	252	24	17	0.1	68
울산광역시	34	40	21	6	7	7	0.0	16
경상북도	12	5	4	2	2	3	0.0	3
강원도	0	0	2	0	0	1	0.0	1
부산광역시	2	2	0	1	1	1	0.0	1
합계	16,027	20,053	18,436	20,059	23,199	22,078	100.0	20,765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전복의 연간 생산량과 지역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지역별 전복 생산량을 살펴보면, 전라남도의 생산량은 국내 99.4%를 차지하며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음

- 전라남도 이외 지역의 생산량 비중은 0.6%로, 경남 0.3%, 충청남도 0.2%, 제주도 0.1% 순이었음

나. 수출입 현황

- 2022년 전복 수출량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2,580톤⁵⁴⁾이었음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21년 수출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출량은 증가했음
 - 또한 2022년은 ‘코로나19’의 영향 완화로 해외 전복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년에 비해 20.8% 증가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4.7% 많은 2,580톤이 수출되었음
 - 특히 4월부터 9월까지 일본과 타국가의 전복 수요가 늘어나면서 연간 수출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

<표 4-116> 연도별 양식전복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7년	1,738	52,181	30.0	523	9,191	17.6
2018년	2,379	62,936	26.5	585	9,349	16.0
2019년	2,174	61,529	28.3	797	13,887	17.4
2020년	1,917	51,946	27.1	931	19,354	20.8
2021년	2,136	54,440	25.5	735	12,134	16.5
2022년	2,580	65,195	25.3	909	17,366	19.1
5개년 평균	2,237	59,209	26.5	791	14,418	18.0
전년 대비	20.8	19.8	-0.9	-21.1	-37.3	-20.6
평년 대비	24.7	15.2	-8.0	27.3	35.9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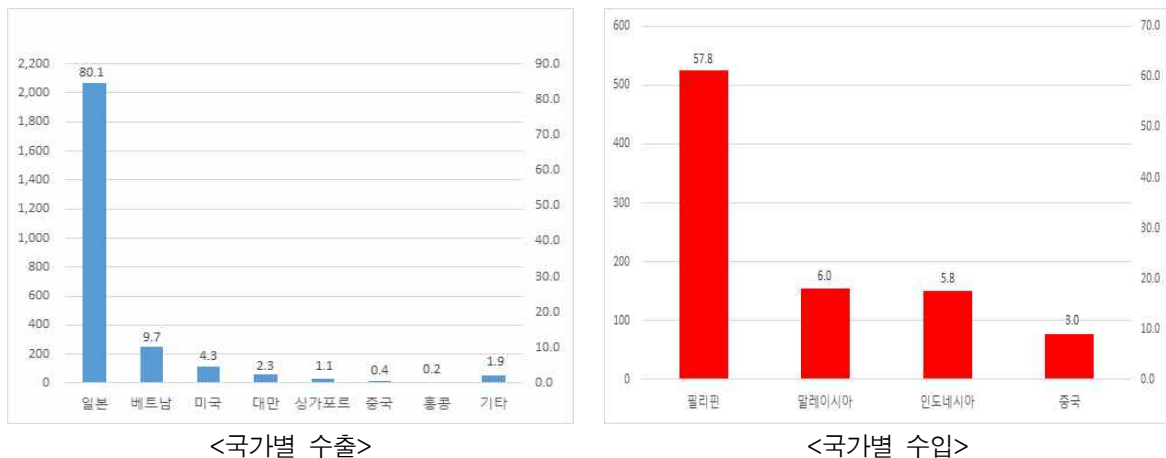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54) HS-Code로 분류된 수출량이며, 수출이 적용되지 않았음

- 2022년 국가별 수출량을 살펴보면, 일본으로의 수출이 2,066톤(8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미국, 대만 등의 순이었음
 - 일본으로 수출된 물량은 2020년‘코로나19’로 크게 줄었으나, 2021년 들어 회복세를 나타내 2022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졌음
 - 베트남은 2018년부터 한국산 전복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임. 베트남으로 2020년 135톤을 수출했으나 2021년에는 전년보다 14.7% 감소한 119톤이었음. 그러나 2022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250톤이 수출되면서 명실상부한 전복 수출대상국이 되었음
 -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복은 2021년 120톤을 기록했으나 2022년에는 전년보다 8% 감소한 110톤이었음
 - 2022년 싱가포르로 수출된 물량은 29톤, 중국 11톤, 홍콩 5톤으로 나타났음
- 2022년 전복 수입은 여느 때와 동일하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중국에서 수입되었음
 - 필리핀에서 수입된 전복은 전년보다 37.1% 증가한 525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말레이시아 155톤, 인도네시아 151톤의 순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3%, 24.8% 증가했음
 - 수입되는 전복은 자숙 냉동 전복이 대부분으로, 이를 수출을 고려한 원물 상태로 환산하면 2022년의 수입량은 2,267톤으로 추정됨

<그림 4-62> 국가별 전복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단위: 톤, %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4-117> 제품유형별 전복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단위: 톤, 천 달러, %

명칭	HS CODE	수출				수입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중량	비중	금액	비중
활어	0307810000	2,383.7	92.4	60,485.8	92.8	0.6	0.1	20.3	0.1
냉동	0307830000	133.2	5.2	2,962.3	4.5	2.5	0.3	47.6	0.3
건조	0307871000	0.0	0.0	0.1	0.0	0.0	0.0	0.0	0.0
염장	0307872000	0.0	0.0	0.0	0.0	0.0	0.0	0.0	0.0
훈제	0307873000	0.0	0.0	0.0	0.0	0.01	0.0	0.1	0.0
밀폐용기	1605571000	36.4	1.4	1,021.1	1.6	0.0	0.0	0.2	0.0
기타	1605579000	26.8	1.0	726.0	1.1	905.5	99.6	17,298.0	99.6
합계		2580.2	100.0	65195.3	100.0	908.7	100.0	17,366.2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다. 수급 구조

- 전복 수급 구조⁵⁵⁾의 경우 국내 소비의 대부분을 자국 생산이 차지하며,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음
 - 따라서 국내 전복의 자급률은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임
- 다만 2020년 자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하는, 98.7%로 나타났음
 -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국내 비대면 소비 증가로 배달 및 간편식 등에 사용되는 수입산 전복 수요 증가했기 때문임
- 2022년 자급률은 2021년과 동일한 101.9%로 나타났음

55) 전복의 재고는 없다고 가정하였음. 이는 전복은 출하가 된 이후에도 대부분 활전복 상태로 유통되어 저장성이 없기 때문임. 산지 및 도매 유통단계에서 활전복이 재고 상태로 있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짧음. 또한 냉동 처리되거나 자숙으로 가공되기도 하지만, 국내 전복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임

<표 4-118> 연도별 전복 수급 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국내소비	수출	
2017년	16,027	1,303	17,330	15,522	1,808	103.3
2018년	20,053	1,462	21,515	18,916	2,599	106.0
2019년	18,436	1,976	20,412	18,034	2,378	102.2
2020년	20,059	2,304	22,363	20,331	2,032	98.7
2021년	23,199	1,793	24,992	22,761	2,231	101.9
2022년	22,078	2,267	24,345	21,670	2,675	101.9
전년 대비	-4.8	26.4	-2.6	-4.8	19.9	-
평년 대비	6.3	15.6	7.1	6.5	12.3	-

주: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 이입, 이월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냉동선어류 입출하동향 조사

4)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⁵⁶⁾

-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전복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눈 2022년의 생산단가는 30,737원/kg으로 2021년보다 2.7% 상승했고, 평년보다는 3.2% 낮았음
 - 전복의 생산단가는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2008년까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그 이후로 kg당 30,000~40,000원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점진적으로 우하향하는 형태였음
 -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2021년에는 29,926원/kg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 ‘코로나19’가 마무리돼감에 따라 생산단가는 전년에 비해 2.7% 상승한 30,737원/kg이었음.

56) 전복 생산자들이 산지 유통인들에게 판매할 때, 덩이 포함됨. 대체로 15% 내외의 덩이 포함되기 때문에 산지가격은 약 1.15kg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4-63> 연도별 양식전복 생산단가 추이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119>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생산단가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44,681	32,777	34,551	32,463	31,067	33,906	32,953	9.1	-3.4
2월	40,319	31,947	33,044	31,881	29,640	34,120	32,126	15.1	2.3
3월	37,947	30,283	31,312	30,374	29,001	34,272	31,048	18.2	7.8
4월	35,418	27,549	31,370	29,046	28,758	30,903	29,525	7.5	1.6
5월	33,397	25,132	31,003	28,418	28,132	29,327	28,402	4.2	0.4
6월	33,722	26,569	30,183	28,300	27,491	29,153	28,339	6.0	-0.3
7월	33,651	27,491	30,819	28,491	27,121	29,139	28,612	7.4	-1.3
8월	33,156	28,667	31,975	27,768	26,513	30,221	29,029	14.0	2.0
9월	34,660	33,694	32,039	29,512	29,787	31,367	31,280	5.3	-1.8
10월	36,377	34,657	33,571	32,882	31,620	30,191	32,604	-4.5	-10.8
11월	37,639	34,502	33,601	34,198	35,528	29,190	33,404	-17.8	-16.8
12월	36,593	34,316	33,022	33,914	38,621	29,635	33,886	-23.1	-16.0
연평균	36,025	30,277	32,103	30,427	29,926	30,737	30,694	2.7	-3.2%

주: 1) 천해양식어업의 전복 생산단가를 기준으로 함
 2) 2022년은 잠정치임
 3)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전복 산지가격의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 매월 조사하는 kg당 15마리 크기를 대상으로 함
 - 전복 산지가격은 kg당 마릿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kg당 5마리에서 20마리까지는 각 단계별로 가격이 구분되어 형성되며, 25마리, 30마리, 40마리 등의 작은 크기들도 각각 가격이 구분됨
 - 그러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복 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은 kg당 15마리 내외 크기이기 때문에 산지가격 또한 이를 기준으로 삼았음

<표 4-120>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산지가격 동향(kg당 15마리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6,900	27,567	28,800	28,233	23,833	26,433	26,973	10.9	-9.1
2월	32,900	26,667	27,233	27,200	22,933	27,433	26,293	19.6	0.2
3월	30,667	26,000	26,000	26,433	22,800	27,667	25,780	21.3	4.9
4월	29,233	23,933	26,000	25,667	23,000	25,567	24,833	11.2	0.0
5월	28,000	22,333	26,000	25,000	22,700	25,000	24,207	10.1	0.8
6월	28,767	24,433	26,000	25,000	22,233	24,333	24,400	9.4	-3.8
7월	28,900	24,100	26,000	24,767	22,000	24,000	24,173	9.1	-4.6
8월	28,233	24,500	26,000	24,000	21,467	24,233	24,040	12.9	-2.4
9월	28,667	28,233	26,533	23,700	21,200	24,867	24,907	17.3	-3.1
10월	29,500	29,000	28,867	24,433	23,567	26,100	26,393	10.7	-3.6
11월	32,200	28,700	29,000	25,000	24,800	27,200	26,940	9.7	-2.6
12월	30,833	28,500	28,000	24,600	25,900	28,000	27,000	8.1	1.6
연평균	30,400	26,164	27,036	25,336	23,036	25,903	25,495	12.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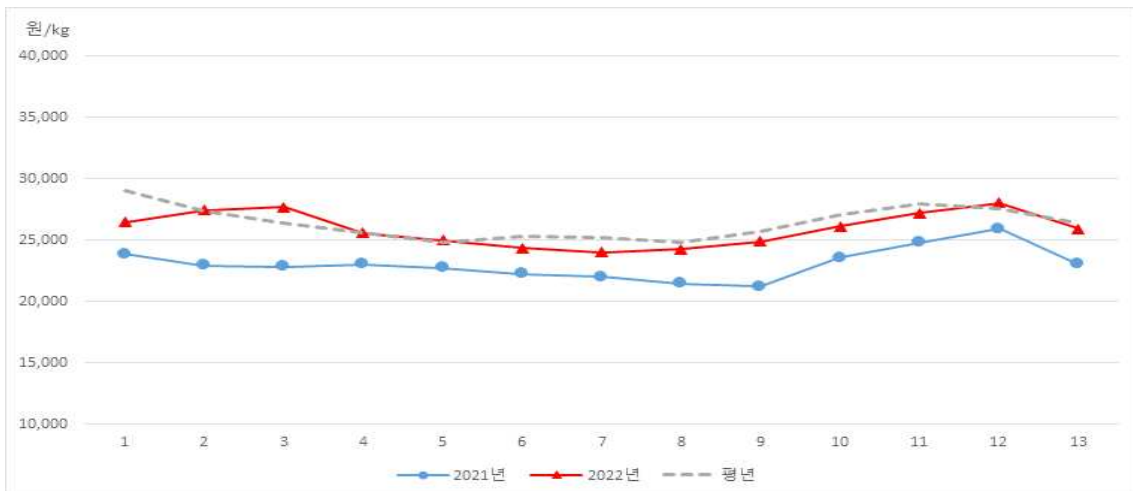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 kg당 15마리 전복 산지가격을 살펴보면, 2022년의 연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12.4% 상승한 kg당 25,903원으로 평년에 비해서는 1.9% 낮게 형성되었음
- 큰 크기의 전복 가격은 추석 전까지 2021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작은 크기는 전년보다 높은 가격이 이어졌음

- 큰 크기의 산지가격은 전년까지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소비가 회복되면서 상반기까지 높은 가격 수준을 보였음.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의 영향으로 추석 이후로는 전년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음
- 반면 대중음식점 등에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작은 크기의 전복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해제됨에 따라 수요가 전년에 비해 많아 가격은 2022년 한 해동안 전년보다 높게 유지되었음
- kg당 15마리의 산지가격 또한 전년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4-64> 월별 양식전복 산지가격 추이(kg당 15마리 기준)



주: 평년은 2017년~2021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2) 도매가격

- 전복 도매가격의 경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2016년 11월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조사 대상은 중품⁵⁷⁾ 1kg 기준⁵⁸⁾임
- 2022년 kg당 14~15마리의 도매가격은 전년보다는 2.0% 높았으나 평년에 비해 3.8% 낮은 연평균 36,437원이었음

57) kg당 14~15마리 내외이고 개당 60~70g 크기

58) 2019년까지 도매가격은 수산업관측센터의 조사가격을 활용했으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모두 조사하고 있어, 2020년부터 이를 기준으로 전복의 도매가격 동향을 살펴봄

<표 4-121> 연도별·월별 양식전복 도매가격 동향(kg당 14~15마리 기준)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50,430	39,682	36,418	37,540	36,970	36,130	37,348	-2.3	-10.1
2월	49,960	39,618	36,388	36,878	36,793	36,589	37,253	-0.6	-8.4
3월	48,418	39,400	36,200	36,677	36,560	37,138	37,195	1.6	-5.9
4월	46,130	39,152	36,200	36,525	35,624	37,047	36,910	4.0	-4.3
5월	46,002	39,080	36,200	35,537	35,118	36,759	36,539	4.7	-4.2
6월	42,400	36,979	35,611	35,365	35,546	36,670	36,034	3.2	-1.4
7월	41,023	35,600	35,261	35,798	34,769	37,099	35,705	6.7	1.7
8월	40,821	35,764	35,114	35,797	34,660	35,419	35,351	2.2	-2.8
9월	40,981	37,094	34,800	35,047	35,313	35,484	35,548	0.5	-3.2
10월	41,090	37,400	35,124	36,753	35,660	36,045	36,196	1.1	-3.1
11월	40,742	36,636	35,705	37,520	36,001	36,684	36,509	1.9	-1.7
12월	40,032	36,600	36,860	37,205	36,233	36,762	36,732	1.5	-1.7
연평균	44,010	37,735	35,818	36,378	35,764	36,489	36,437	2.0	-3.8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65> 월별 양식전복 도매가격 추이(kg당 14~15마리 기준)



주: 평년은 2017년~2021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3) 소비자가격

- 전복 소비자가격은 2016년 11월부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조사를 시작했음. 조사 대상의 전복은 중품 5마리 기준으로, 이를 kg으로 계산하였음⁵⁹⁾
- 2022년 kg당 14~15마리의 연평균 소비자가격은 47,725원으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해 각각 12.9%, 1.1% 높게 형성되었음

<표 4-122> 월별 양식전복 소비자가격 동향(kg당 14~15마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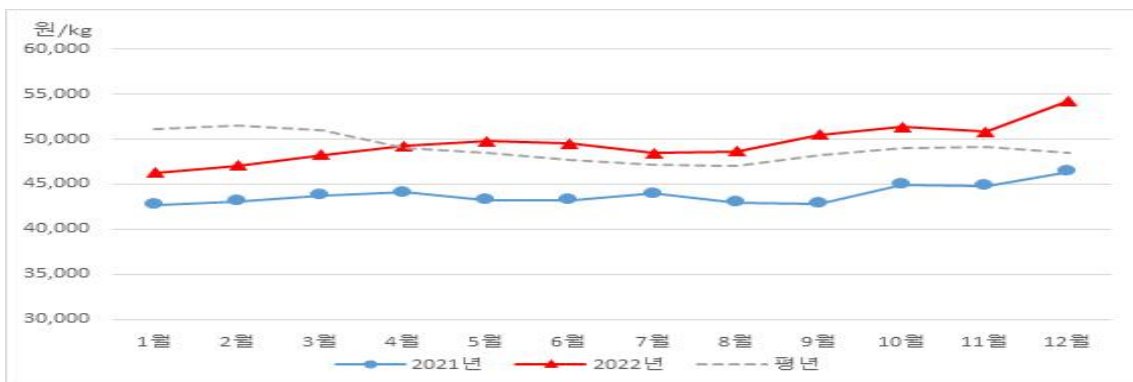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62,083	52,086	50,948	47,609	42,738	46,268	47,930	8.3	-9.4
2월	62,575	52,058	51,326	48,385	43,092	47,065	48,385	9.2	-8.6
3월	61,089	50,714	51,068	48,575	43,754	48,231	48,468	10.2	-5.5
4월	56,222	48,889	47,446	48,255	44,071	49,209	47,574	11.7	0.5
5월	55,428	48,375	46,431	48,828	43,271	49,754	47,332	15.0	2.7
6월	52,889	47,182	47,335	47,966	43,243	49,498	47,045	14.5	3.7
7월	52,778	46,871	46,378	45,754	43,945	48,440	46,278	10.2	2.7
8월	52,471	48,357	45,948	45,074	43,009	48,674	46,212	13.2	3.6
9월	51,705	52,403	47,412	46,791	42,865	50,486	47,991	17.8	4.7
10월	54,215	52,065	46,674	47,311	44,954	51,332	48,467	14.2	4.7
11월	54,409	54,772	45,058	46,911	44,815	50,794	48,470	13.3	3.3
12월	53,197	53,422	45,468	43,852	46,415	54,271	48,686	16.9	12.0
연평균	55,757	50,566	47,566	47,089	43,877	49,529	47,725	12.9	1.1

주: 1) 소비자가격은 kg당 14~15마리, 개당 60~70g 크기의 가격을 kg 단위로 환산함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66> 월별 양식전복 소비자가격 추이(kg당 14~15마리 기준)



주: 1) 소비자가격은 kg당 14~15마리, 개당 60~70g 크기의 가격을 kg 단위로 환산함
 2)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59) kg당 15마리 내외, 개당 65g이라고 가정하고 1kg 기준으로 환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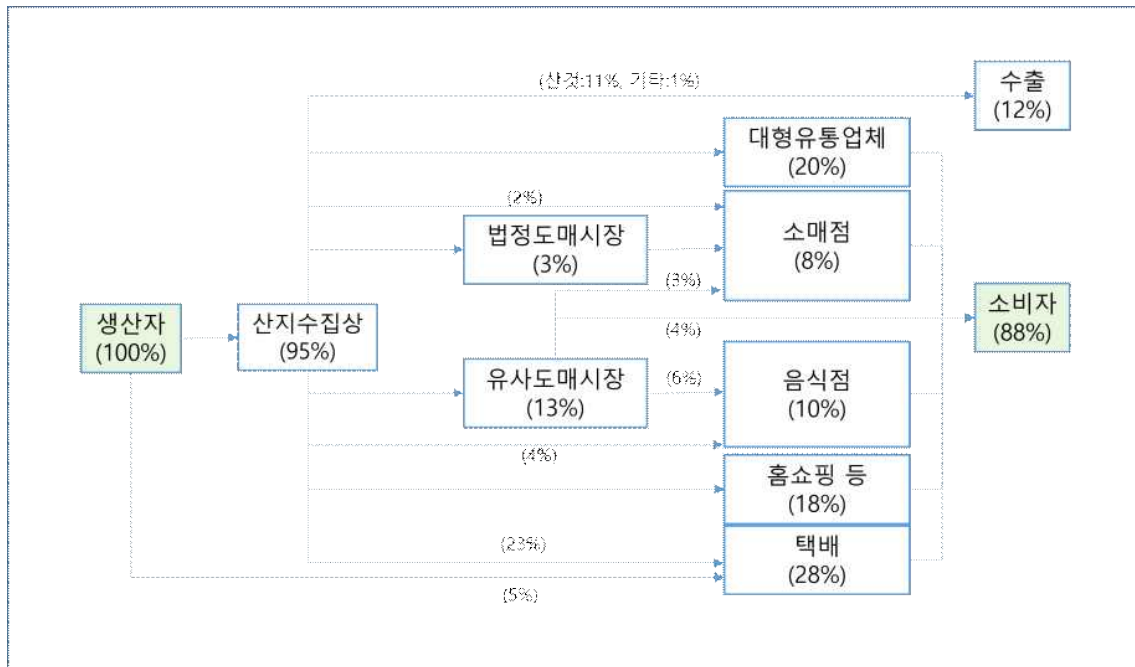
2. 양식전복 유통구조

가. 유통경로

- 전복 유통경로는 대부분의 출하가 비계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계통 출하를 기준으로 2022년 유통 경로 및 비중을 추정했음
 - 비계통 출하로 유통된 양식전복의 95%가 산지수집상에게 판매되었으며, 5%는 생산자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택배로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2022년 전복 유통경로는 일반적인 상황과 비슷했지만, 경로별 비중은 ‘코로나19’가 영향력이 강했던 작년에 비해 다소 변화를 보였음
 -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택배와 홈쇼핑 등을 통한 유통이 증가했으나, 2022년 하반기 이후로는 다소 감소했음
 - 반면 대면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소매점과 음식점 등을 통한 전복 유통량은 전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말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이 완화되면서 증가했음
- 산지수집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생산자로부터 구매한 전복을 대형유통업체, 법정 도매시장, 유사 도매시장으로 판매하고, 해외로 수출하였으며, 소매점과 음식점 등의 소비지에 직접 유통하였음. 또한 홈쇼핑⁶⁰⁾ 및 택배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 전복 수출 물량은 대부분 산지수입상이 취득한 전복으로 이루어짐
 - 전문적인 수출업자가 생산자 또는 산지수집상에게 구입한 전복을 수출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비중은 낮은 편임
 - 산지수집상이 직접 수출할 경우 수출업자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임
 -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복은 산지수집상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 법정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 소매점과 음식점으로 판매됨

60) 인터넷 판매 및 대행업체 포함

<그림 4-67> 양식전복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산지수집상, 도매상인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나. 주요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2022년에 전북 주요 유통단계별 물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유통 비중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으나 하반기부터 대면 판매도 일부 증가함
 - 총 양식전복 생산량 2만 2,078톤 중, 계통 출하 물량 149톤을 제외한 비계통 물량 2만 1,929톤을 기준으로 2022년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을 추정함
-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택배 등을 통하여 직접 유통한 물량은 2021년보다 소폭 감소한 1,031톤이나 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4.7%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물용 소비 증가로 예년에 비해 비중 상승
- 생산자가 산지수집상에게 출하한 물량은 2021년보다 감소한 2만 898톤으로, 2022년 생산량이 전년보다 줄었기 때문임
 - 인터넷 판매 등을 포함한 홈쇼핑 등을 통해 유통된 전북 물량은 전년보다 감소한 4,013톤으로 18.3%를 차지했음
 - 택배 및 지역 내에서 소비된 물량은 전년보다 감소한 5,131톤이었고, 대형소매업체로의 판매도 4,430톤으로 감소했음. 유사도매시장 및 법정도매시장으

로의 판매도 전년보다 줄어든 각각 2,741톤, 680톤이었음

- 해외로 수출된 물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한 2,675톤이었고, 비중은 전년보다 2.5%p 증가한 12.2%였음
- 그러나 산지수집상에서 소매점 및 음식점으로 판매된 물량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1,228톤으로 그 비중도 1.7%p 상승했음
-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면서 음식점과 소매점의 영업이 원활해지면서 해당 소비처로 판매되는 물량이 증가했음

<표 4-123> 양식전복 주요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결과(2022년 기준)

단위: 톤,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8,436 (100.0)	19,766 (100.0)	23,091 (100.0)	21,929 (100.0)
생산자 → 소비자(택배)		363 (2.0)	635 (3.2)	1,080 (4.7)	1,031 (4.7)
산지 수집상	수출	2,378 (12.9)	2,032 (10.2)	2,231 (9.7)	2,675 (12.2)
	지역소비, 택배 등	2,600 (14.1)	4,029 (20.4)	5,984 (25.9)	5,131 (23.4)
	대형소매업체	3,860 (20.9)	4,576 (23.2)	4,750 (20.6)	4,430 (20.2)
	유사도매시장	4,960 (26.9)	3,293 (16.7)	3,064 (13.3)	2,741 (12.5)
	법정도매시장	1,470 (8.0)	810 (4.1)	741 (3.2)	680 (3.1)
	홈쇼핑	930 (5.0)	3,115 (15.8)	4,338 (18.8)	4,013 (18.3)
	기타(소매점, 음식점)	1,875 (10.2)	1,276 (6.5)	903 (3.9)	1,228 (5.6)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산지수집상, 도매상인, 수산바이어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 ‘코로나 19’로 비대면 거래 활발
 - 전복 유통경로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택배 및 홈쇼핑 경로의 물량 비중이 증가했음
 - 2019년 14.1%에 불과했던 유통 비중은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 20%를 넘

졌으며 2022년 23.4% 증가했음. 홈쇼핑의 비중도 2019년 5%에서 2022년 18.3%까지 상승했음

- 반면, 유사 및 법정 도매시장의 비중은 2022년 각각 12.5%, 3.1%로 2019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음

○ 생산자에서 소비자 직접 판매 비중 증가

- 택배를 이용한 소비자 직접 유통 물량이 증가하면서 생산자→소비자 유통 비중은 2019년 2.0%에서 2022년 4.7%로 증가했음

3. 양식전복 유통비용

○ 2022년 조사는 이전 조사와 동일하게 양식전복이 출하된 이후 소비자에게 판매 되기까지 유통단계별 발생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생산자→산지수집상→대형소매업체→소비자 유통경로를 조사했음

- 전복 생산량이 가장 많고, 산지수집상이 몰려있는 완도의 출하 경로를 파악했음

- 소비자가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kg당 14~15마리, 산지가격은 kg당 15마리의 가격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했음

1) 산지 단계

○ 2022년 조사결과, 소비자 판매가격 대비 생산자 수취가격의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54.9%로 나타났음

- 이는 kg당 15마리의 산지가격에 비해 마트와 같은 대형소매업체의 판매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임

- 한편 2022년 크기별 전복 산지가격 양상이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크기별 생산자 수취가격 비율은 다를 것으로 보임

○ 산지수집상에서 대형소매업체로 판매할 때까지 투입되는 비용은 2021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했음

- 산지수집상 단계에서는 업체 운영을 위한 간접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에 비해 9.6% 상승한 2,780원이었음

- 다음으로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 10.4% 상승한 1,610원 투입되었음. 이는 산지수집상에서 전복을 구매 후, 운반·보관·저장·판매 등의 과정과 함께 패각 세척 작업 등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임
- 운반비와 전력비 각각 355원, 335원으로 모두 전년에 비해 상승했음
- 산지수집상의 이윤은 kg당 630원으로 2021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2) 대형소매 단계

- 대형소매업체의 비용 항목은 간접비와 이윤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추정했음
 - 대형소매업체의 전복 판매를 위한 제반 비용은 kg당 10,520원, 이윤은 kg당 6,095원으로 소비자 판매가격 중 21.2%, 12.3%를 차지했음
- 산지와 대형소매 유통단계의 비용 대부분이 전년보다 상승했음
 - 산지 유통단계에서 간접비, 인건비, 전력비, 운반비와 더불어 대형소매업체의 간접비 등이 전년 대비 상승했음.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투입되는 비용 대부분이 증가했기 때문임

<표 4-124> 양식전복(활어)의 유통비용(완도 → 서울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

구분		2021년		2022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24,700	27,200	54.9		kg당 15마리
산지수집상	인건비	1,387	1,610	3.3		산지수집상 조사결과
	전력비	285	335	0.7		
	운반비	316	355	0.7		
	간접비	2,430	2,780	5.6		
	이윤	582	630	1.3		
	산지 판매가격	29,700	32,910	66.5		kg당 15마리
대형소매업체	간접비	8,514	10,520	21.2		인건비, 점포 유지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이윤	5,676	6,095	12.3		대형소매업체 수산바이어 면담결과
	소비자 판매가격	43,890	49,525	100.0		대형소매업체 현지 조사

주: 1) 산지판매가격은 kg당 15마리 활전복 기준이고, 대형소매업체 판매가격은 kg당 14~15마리 기준임
 2) 조사 시기는 2022년 11월 초순임

<표 4-125> 양식전복(활어)의 유통비용 변화(완도 → 서울 대형소매업체)

단위: 원/kg,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률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29,000	25,000	24,700	27,200	-2.1
산지수집상	인건비	1,270	1,321	1,387	1,610	8.2
	전력비	246	271	285	335	10.8
	운반비	284	301	316	355	7.7
	간접비	2,048	2,314	2,430	2,780	10.7
	이윤	502	543	582	630	7.9
	산지 판매가격	33,350	29,750	29,700	32,910	-0.4
대형소매업체	간접비	7,572	8,329	8,514	10,520	11.6
	이윤	4,078	7,269	5,676	6,095	14.3
	소비자 판매가격	45,000	45,348	43,890	49,525	3.2

주: 1) 산지판매가격은 kg당 15마리 활전복 기준이고, 대형소매업체 판매가격은 kg당 14~15마리 기준임
2) 조사 시기는 2022년 11월 초순임

- 생산자 수취가격, 2019년 대비 하락했으나 작년 대비 상승
 - 2019년 생산자 수취가격은 29,000원이었으나 ‘코로나 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25,000원으로 하락했음.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22년 27,200원을 기록했음
- 산지유통단계 투입 비용 상승
 - 2019년에 비해 인건비, 전력비, 운반비, 간접비와 같은 투입 비용은 연평균 7~10% 증가했음. 반면 산지 판매가격은 2019년과 비슷하였음
- 소비자가격 3% 상승
 - 대형소매업체의 간접비는 2019년 기준 연평균 11.6%, 이윤도 14.3% 상승했음. 소비자 판매가격은 2019년 45,000원에서 2022년 49,525원으로 연평균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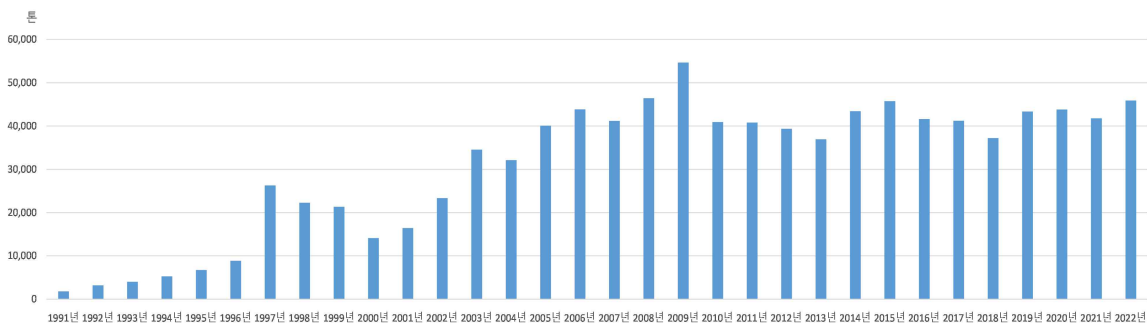
제9절 양식넙치 유통실태조사

1. 양식넙치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동향

- 넙치는 ‘국민 횡감용’으로 소비자에게 매우 친숙한 수산물이자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먹거리를 제공해 왔음. 여기에는 1980년대 광어 양식 기술개발과 보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음
- 국내 양식넙치 생산량은 기술개발이 시작된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1만 톤 미만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1만 톤을 넘었음. 특히, 넙치 분야의 R&D 추진과 민간 기술 이전 등이 본격화되면서 육상양식 기술 보급 결과임
- 2000년대 후반은 연간 5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09년 이후 생산량은 감소세를 보여 최근 5년 평균 넙치 생산량은 4만 1,500 톤을 기록함

<그림 4-68> 연도별 넙치 생산량 추이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13년 경우 최근 10년 내 가장 적은 3만 6,944톤의 생산량을 기록했는데, 이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보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슈 등으로 수요가 줄면서 출하 또한 크게 줄었기 때문임
- 이후 점차 수요 회복 등으로 연간 4만 톤 이상 넙치가 생산되었으나, 2018년 식품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출하가 급격히 줄어 생산량은 3만 7,241톤에 그쳤음

- 2021년 양식넙치 생산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4만 1,791톤이었으나, 2022년에는 전년보다 약 10% 증가한 4만 5,884톤이었음
 - 이는 2021년과 달리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지역 축제 개최 등으로 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늘었기 때문임
- 2022년 양식넙치 총 생산금액은 7,0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2.1% 많았음
 - 2022년에는 출하량 증가에도 생산금액이 증가한 것은 이례적으로 높게 형성된 가격 덕분임. 산지가격이 2021년보다 낮았지만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2.0kg 큰 크기 대형어 출하가 많았음
 - 1995년 784억 원에 불과했던 넙치 생산금액은 2021년 6,622억 원에 이어 2022년에 7,03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음. 최근 연간 넙치 생산량은 큰 변화 없이 4만 톤 내외를 보이고 있지만, 양성물량 증감, 수급 상황에 따라 산지가격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생산금액이 증감을 반복하는 사례가 있음

<표 4-126> 연도별 양식넙치 생산량 및 생산금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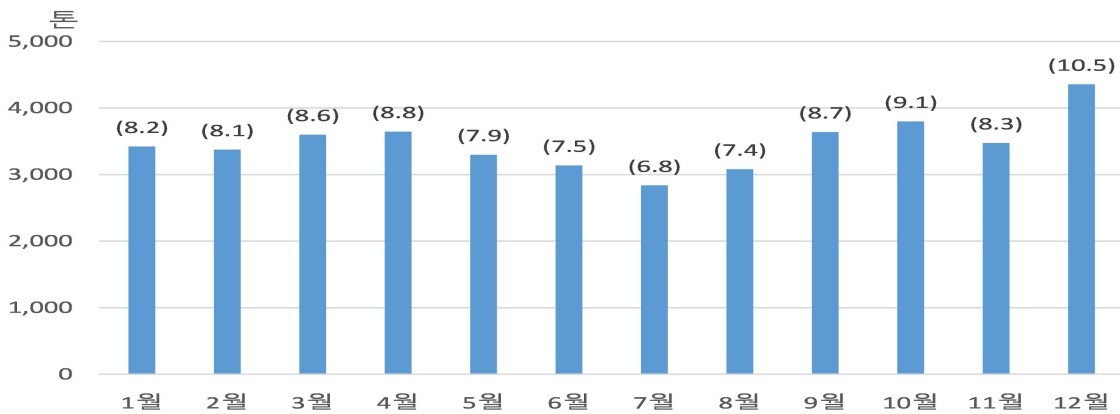
단위 : 톤, 백만 원, %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1990년	1,037	19,998
1995년	6,733	78,390
2000년	14,127	190,091
2005년	40,075	353,585
2010년	40,925	489,793
2015년	45,759	504,182
2016년	41,620	534,130
2017년	41,207	584,138
2018년	37,241	495,391
2019년	43,360	430,809
2020년	43,813	539,218
2021년	41,776	661,958
2022년	45,884	703,438
5개년 평균	42,415	566,163
전년 대비	9.8	6.3
평년 대비	10.6	22.1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3) 양식넙치 생산량은 터벗을 포함한 넙치류 생산 통계로 발표되고 있음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김과 미역, 다시마, 굴, 홍합 등과 같이 뚜렷한 양식 순기를 갖는 품목과 달리
 넙치는 연중 일정한 생산 비중을 보임. 이는 최근 5년 평균 양식넙치의 월별
 생산량 추이에서도 알 수 있음
 - 활어 수요가 줄어드는 여름 장마철과 무더위 등으로 출하가 감소하는 시기
 이며, 봄철 입식 이후에는 양식어가들이 양성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기타 활수산물과 같이 연말 성수기인 연말 12월에는 외식 수요가 늘고 이에
 맞춰 출하도 많이 이루어지며, 수출 수요가 많은 것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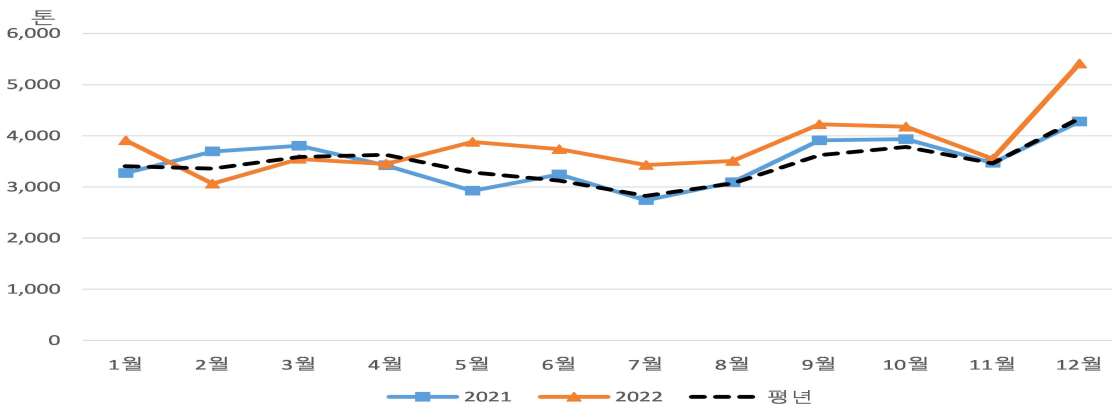
<그림 4-69> 최근 5년 평균 양식넙치 월별 생산량 추이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넙치 월별 출하량을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 전년보다 많았음. 2021년의 경우
 산지가격이 높아 어가들의 출하의향은 높았으나 출하 가능한 물량이 부족했음. 그
 러나 2022년에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양성물량이 많아 대형어 위주로 출하되었음

<그림 4-70> 월별 양식넙치 출하량 추이



주 : 1) 2022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7년~2021년의 평균치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그러나 2월~3월에는 전년보다 적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명절 이후 수요 감소와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발생자가 급속히 확산세를 보였기 때문임
- 하지만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생산자들의 출하 의향이 높아지면서 전년보다 출하가 많이 이루어졌음
- 12월에는 경기 둔화를 등으로 수요가 줄 것을 우려한 생산어가들 연말 성수기를 맞아 출하를 크게 늘렸음. 이에 따라 평년보다도 훨씬 많은 출하량을 기록했음

<표 4-127> 연도별·월별 양식넙치 생산량 동향

단위 :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3,544	2,932	3,390	3,891	3,272	3,910	3,479	3,406	19.5
2월	3,642	3,224	3,263	2,975	3,692	3,064	3,244	3,359	-17.0
3월	3,781	3,112	3,647	3,577	3,804	3,547	3,537	3,584	-6.8
4월	3,713	3,217	3,848	3,952	3,421	3,450	3,578	3,630	0.8
5월	3,354	2,970	3,324	3,845	2,924	3,879	3,388	3,283	32.7
6월	3,226	2,776	3,044	3,333	3,244	3,738	3,227	3,125	15.2
7월	2,784	2,265	3,066	3,268	2,740	3,428	2,953	2,825	25.1
8월	3,113	2,618	3,341	3,173	3,090	3,507	3,146	3,067	13.5
9월	3,351	3,391	3,368	4,090	3,910	4,224	3,797	3,622	8.0
10월	3,402	3,531	3,906	4,128	3,933	4,176	3,935	3,780	6.2
11월	3,211	3,275	4,078	3,269	3,469	3,551	3,528	3,460	2.4
12월	4,085	3,931	5,085	4,313	4,276	5,410	4,603	4,338	26.5
합계	41,207	37,241	43,360	43,813	41,776	45,884	42,415	41,479	9.8

주 :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3)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넙치의 연간 생산량과 월별 생산량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합계의 경우 별도의 보정 없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연간 생산량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연도별·부류별 양식넙치 생산량 동향을 보면, 양식넙치는 대부분 활어로만 출하된다고 할 수 있음
 - 넙치의 경우 생선회 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함. 넙치가 일부 선어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도 선도 유지를 위해 활어 상태로 유통된 후 가공되어 판매됨

- 또한 생산자의 경우 양식넙치 생산비를 고려하면, 활어 판매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선호하는 편임. 이에 양식넙치는 일반해면어업을 통해 어획된 넙치와는 달리 대부분 활어로 유통·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28> 연도별 부류별 양식넙치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비중	평균
활어	41,207	37,241	43,360	43,813	41,776	45,884	100.0	42,415
선어	0	0	0	0	0		0.0	0
냉동	0	0	0	0	0		0.0	0
합계	41,207	37,241	43,360	43,813	41,776	45,884	100.0	42,415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계통출하 동향을 살펴보면, 활어의 경우 계통출하 비중은 42.6%, 비계통 출하는 57.4%였음
- 양식넙치 계통판매는 비계통판매보다 많은 제약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5개년 평균 계통판매량은 일부를 제외하고 2만 4,000톤 내외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함
 - 상대적으로 계통판매가 많은 제주지역의 경우 여러 가지 검사 이후 안전성이 확보되어야만 계통판매를 할 수 있음

<표 4-129> 연도별 부류별 양식넙치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비중	평균
활어	계통	18,804	17,482	16,253	17,655	18,111	19,553	42.6	17,811
	비계통	22,403	19,759	27,107	26,158	23,680	26,331	57.4	24,604
	소계	41,207	37,241	43,360	43,813	41,791	45,884	109.8	42,415
냉동	계통	0	0	0	0	0		0.0	0
	비계통	0	0	0	0	0		0.0	0
	소계	0	0	0	0	0		0.0	0
합계	계통	18,804	17,482	16,253	17,655	18,111	19,553	42.6	17,811
	비계통	22,403	19,759	27,107	26,158	23,680	26,331	57.4	24,604
	합계	41,207	37,241	43,360	43,813	41,791	45,884	100.0	42,415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활어 위판을 위해서는 위판장에 수조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하며, 시설 유지를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됨. 또한, 활어를 위판장에 하역하고 상차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품질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음
- 2022년 지역별 양식넙치 생산량을 보면, 제주도가 총생산량의 4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45.6%), 경상남도(3.4%), 경상북도(1.3%) 순이었음
 - 양식넙치의 경우 제주도와 전라남도의 생산량은 전국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지역별로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잦은 폐사 등으로 인한 경영비 가중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일부 생산어가들이 강도다리로 품종을 전환하는 사례들이 늘면서 2만 2,000 내외를 유지함
 - 하지만 전라남도의 경우 양식기술 개발(히트펌프 도입, 중간육성어 입식 등)과 2.0kg 이상 대형어 출하가 늘면서 넙치 생산량도 증가세에 있음. 이 중 완도지역 생산량이 가장 많은 편임

<표 4-130> 연도별 지역별 양식넙치 생산량 동향

단위 :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비중	5개년 평균
제주도	25,092	22,171	22,431	23,423	21,463	22,550	49.1	22,408
전라남도	13,867	12,900	18,108	17,882	18,327	20,938	45.6	17,631
경상남도	892	925	1,252	1,255	1,369	1,580	3.4	1,276
경상북도	840	914	1,094	895	453	588	1.3	789
부산광역시	219	136	229	143	90	94	0.2	138
울산광역시	225	128	225	216	75	134	0.3	156
강원도	72	68	21	-	-	-	0.0	45
합계	41,207	37,241	43,360	43,813	41,776	45,884	100.0	42,415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계통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제주어류양식수협이 전체의 89.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완도에 위치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10.3%였음
 - 제주지역은 넙치 생산 감소와 유통채널 다변화로 인해 계통판매 비중이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남지역은 다소 높아지고 있음
 - 양식넙치의 경우 제주지역에 위치한 제주어류양식수협을 통해서 대부분 계통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남 완도군에 위치한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을

통해서도 일부 계통출하되고 있음

<표 4-131> 연도별 수협별 양식넙치 계통출하 동향

단위 :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비중	평균
제주어류양식수협	18,263	17,268	16,158	16,947	16,709	17,529	89.7	16,922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541	215	94	708	1,402	2,023	10.3	888
합계	18,804	17,483	16,252	17,655	18,111	19,552	100.0	17,811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나. 수출입 현황

- 최근 넙치 수출량은 수출단가가 낮았던 2019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평균 수준보다 적은 양이 수출되고 있음
 - 최근 5년 내 수출량이 가장 적었던 2021년에는 1,857톤으로 전년보다 16.8%, 평년에 비해서도 28.8% 적었음. 그러나 2022년에는 2,239톤으로 전년보다 20.6% 증가했으나, 평년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임
 - 수출금액은 수출량 증가와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4,12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으며, 평년 대비 7.8% 많았음

<표 4-132> 연도별 양식넙치 수출입 동향

단위 : 톤, 천 달러, 달러/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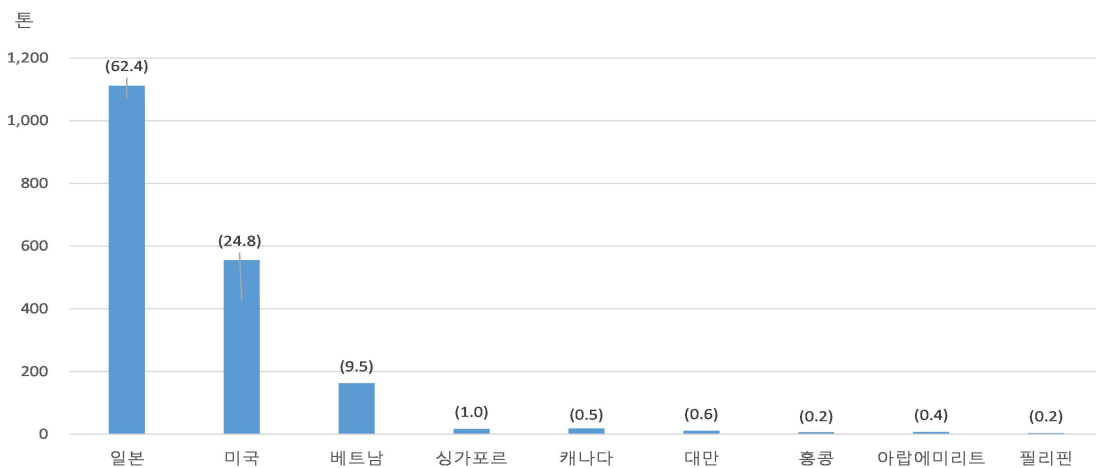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7년	2,696	43,962	16.3	312	3,226	10.3
2018년	2,475	40,199	16.2	362	4,081	11.3
2019년	2,701	34,867	12.9	554	5,268	9.5
2020년	2,233	33,559	15.0	529	4,545	8.6
2021년	1,857	38,629	20.8	614	6,292	10.2
2022년	2,239	41,208	18.4	448	5,147	11.5
5개년 평균	2,301	37,692	17	501	5,067	10.0
전년 대비	20.6	6.7	-11.5	-27.0	-18.2	12.1
평년 대비	-6.4	7.8	13.2	-5.5	9.9	15.0

주 : 1) 수출의 경우 활넙치(HS코드:0301998000), 수입의 경우 넙치류 기준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최근 5년간 넙치류 수입량을 보면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22년에는 448톤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7.0%, 5.5% 감소했음. 넙치류 수입 물량은 대부분은 돌가자미, 강도다리 등으로 국내에서 양식되는 넙치와 동일 품종의 수입은 거의 없음
- 2022년 기준 세계 14개국에 양식 활넙치를 수출하였으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62.4%), 미국(24.8%), 베트남(9.5%), 싱가포르(1.0%), 캐나다(0.5%) 등이었음
 - 일본으로 수출 비중은 2015년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지만 이후 점차 2021년 59.9%로 줄었으나, 2022년에는 62.4%로 다소 증가했음. 일본으로 넙치 수출량이 늘면서 양식 넙치 전체 수출량이 늘었고, 일본으로 수출 비중도 다소 증가했음
 - 한편,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2015년 전체의 17.4%에서 2021년 29.9%로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24.8%로 다소 감소했음. 또한, 베트남으로 수출 비중은 2015년 0.2%에 불과했으나 2021년 6.3%에서 2022년에는 9.5%까지 늘었음
 - 월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이루어졌던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서 200톤 미만의 저조한 수출실적을 기록했음. 그러나 하반기 접어들면서 수출대상국에서의 넙치 수요가 늘면서 9월부터 200톤 이상의 실적을 보였음

<그림 4-71> 국가별 양식넙치 수출 실적(2022년 기준)

단위 : 톤,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 2022년 넙치류 수입량은 약 449톤으로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돌가자미, 강도다리 등임

다. 수급 구조

- 국내 양식넙치 총공급량은 국내 생산 증가로 2019년 이후 4만 톤 이상을 보이고 있음
 - 양식넙치 총공급량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내 생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수출량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따라서 국내 생산량 증감에 따라 총공급량이 변화하는 구조임
 - 2022년 양식넙치 총공급량은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했음에도 국내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전년 대비 9.3% 증가한 4만 6,332톤이었음
 - 국내 소비도 국내 생산 증가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12.4% 많은 4만 4,474톤이었음

<표 4-133> 연도별 양식넙치 수급구조

단위 :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국내소비	수출	
2017년	41,207	312	41,519	38,823	2,696	107.1
2018년	37,241	362	37,603	35,128	2,475	106.1
2019년	43,360	554	43,914	41,213	2,701	106.0
2020년	43,813	529	44,342	42,109	2,233	104.0
2021년	41,776	614	42,390	40,533	1,857	103.1
2022년	45,884	448	46,332	44,474	1,858	103.2
5개년 평균	42,415	501	42,916	40,691	2,225	104.2
전년 대비	9.8	-27.0	9.3	9.7	0.1	
평년 대비	10.6	-5.5	10.4	12.4	-22.3	

주 : 1) 국내생산은 천해양식 생산량임
 2) 수출입은 활넙치 및 활넙치류 기준임
 3)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 생산은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활광어 산지가격은 2014년 하반기 이후 일본 방사능 유출 보도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소비가 회복되고, 출하 가능한 물량 또한 적어 최근 몇 년간 상승세가 이어졌음
 - 2017년은 수요보다 출하 가능한 물량이 적어 가격은 kg당 13,545원(제주산 1kg 기준)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
- 그러나 출하 가능한 물량이 늘었고, 위생 관련 부정적 이슈 영향 등으로 소비 또한 부진하면서 2018년 하반기 이후 산지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음
- 이후 2020년 4월까지 kg당 1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 지속되었음. 그러나 5월 들어 적체물량이 해소되고 소비촉진 행사, 긴급재난 지원금 등으로 인해 수요도 늘면서 광어 산지가격은 회복세를 보여 평년 수준까지 상승했음
 - 2021년 광어 산지가격(제주산 1kg기준)은 kg당 14,747원으로 2020년 5월 이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전년 대비 27.6%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에 형성되었음
- 2022년 광어 산지가격(제주산 1kg기준)은 kg당 13,995원으로 전년 대비 5.1% 하락했으나, 평년보다는 20.8% 높았음. 연초부터 하락한 산지가격은 6월까지 kg당 13,000원 내외에서 등락을 보였음
 - 그러나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인 산지가격은 7월에 kg당 14,000원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이후 여름 휴가철 및 추석 명절, 지역 축제와 행사철 수요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음
 - 11월에는 2022년 내 가장 높은 kg당 14,988원이 형성되었으며, 12월에는 연말연시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kg당 14,595원이었음
- 넙치 산지가격은 일반적으로 제주산이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물류비가 추가되어 완도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
 - 2021년 제주산과 완도산(1kg 크기 기준) 가격 격차는 모든 달에서 완도산이 제주산보다 다소 높았음. 5월에 두 지역의 가격 격차가 2,526원으로 가장 컸던 반면 1월에는 150원으로 가장 적었음

-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달에서 완도산이 제주산보다 높게 형성되었음.
하지만 가격 격차가 크게 발생한 달은 전년과 달리 2022년에는 9월과 10월이었으며, 가장 적은 달은 1월이었음
- 한편, 9월과 10월 두 지역 가격 격차는 2,500원 내외로 컸던 반면, 1월에는 399원으로 가장 적었음

<표 4-134> 연도별·월별 양식넙치 산지가격 동향

단위: 원/kg,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1,816	12,369	8,650	8,808	12,850	14,004	11,336	9.0	32.5
2월	11,421	11,687	8,869	8,376	12,590	13,501	11,005	7.2	32.0
3월	14,047	13,809	9,240	7,729	13,489	13,045	11,462	-3.3	16.1
4월	12,958	13,327	9,958	9,020	14,071	13,131	11,901	-6.7	13.4
5월	12,751	13,355	8,640	12,650	14,377	13,692	12,543	-4.8	13.7
6월	13,000	13,150	8,465	12,529	15,514	13,981	12,728	-9.9	17.2
7월	12,957	12,449	9,350	12,601	15,981	14,000	12,876	-12.4	16.0
8월	12,997	10,537	9,767	13,000	15,650	14,000	12,591	-10.5	18.0
9월	14,955	11,155	9,156	12,856	15,064	14,049	12,456	-6.7	15.1
10월	16,358	11,494	8,497	13,948	16,143	14,958	13,008	-7.3	20.4
11월	15,724	10,580	8,134	14,102	16,265	14,988	12,814	-7.8	26.6
12월	13,550	9,074	7,923	13,098	14,975	14,595	11,933	-2.5	32.0
연평균	13,545	11,915	8,887	11,560	14,747	13,995	12,221	-5.1	20.8

주 : 1) 제주산 활넙치 1.0kg 크기의 kg당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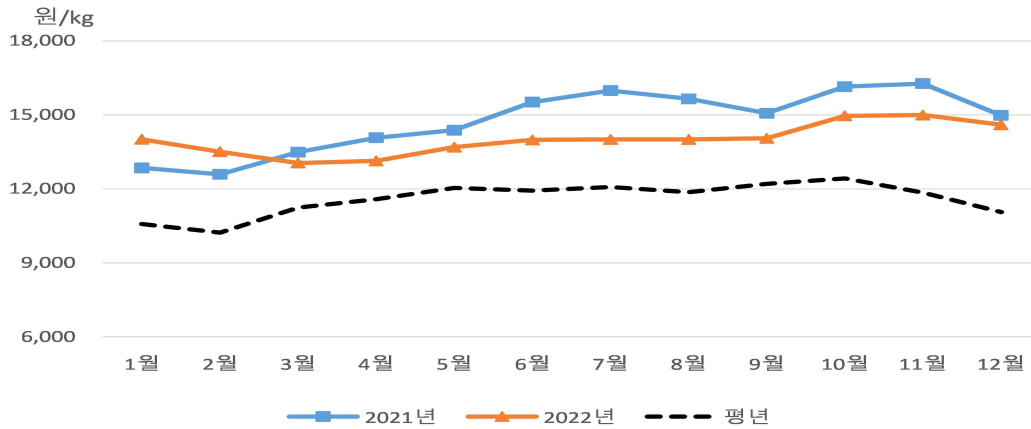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 제주어류양식수협

- 양식넙치 산지가격은 연말과 연초에는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3~5월에는 봄 행락철 및 가정의 달 등의 외식 수요 증가로, 9월에는 명절 추석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갖고 있음
- 최근 5년간 산지가격 추세를 보면, 가격 등락폭이 크게 나타났음
 - 2019년 산지가격은 출하 증가 등으로 kg당 8,887원으로 1만 원 이하 가격대를 형성했으나, 2020년 점차 상승세를 보여 kg당 11,560원을 형성했음
 - 2021년에는 kg당 14,747원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출하 가능한 물량 부족과 재난 지원금 및 소비 촉진 행사 등으로 수요가 늘었기 때문임

- 2022년 산지가격 변화 추이를 보면, 지난해 연말 하락한 산지가격이 연초까지 이어졌고, 설 명절 이후에는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다소 하락했음
-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넙치 소비가 늘었고, 이후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11월에는 kg당 14,988원을 보였음

<그림 4-72> 월별 양식넙치 산지가격 추이



주 : 제주산 활넙치 1.0kg 크기의 kg당 가격,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 제주어류양식수협

2) 도매가격

- 넙치는 대부분 활어로 소비되는 만큼 도매가격 역시 산지가격 영향을 크게 받고 가격 추이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특징이 있음. 2022년 양식넙치 도매가격은 산지가격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음

<표 4-135> 연도별·월별 양식넙치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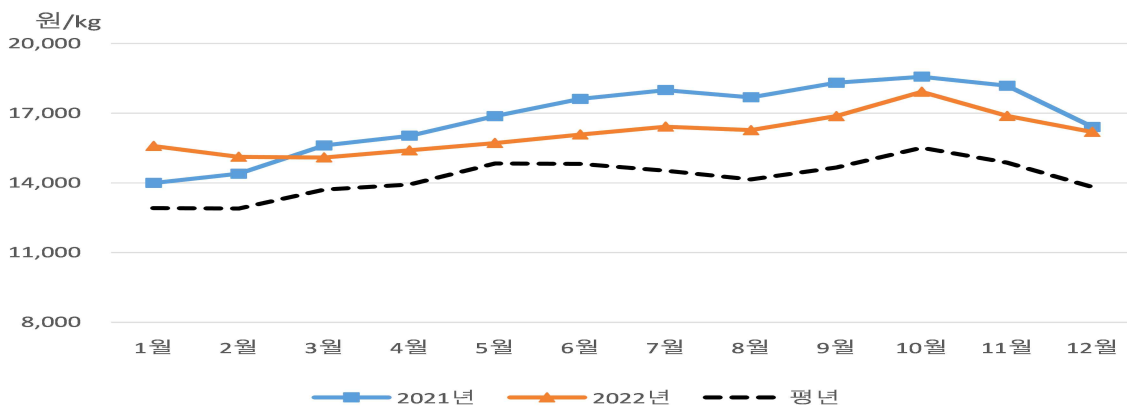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3,582	15,338	10,992	10,675	14,000	15,594	13,320	11.4	20.7
2월	13,900	14,542	11,125	10,519	14,396	15,125	13,141	5.1	17.3
3월	15,625	15,729	11,167	10,448	15,617	15,100	13,612	-3.3	10.1
4월	15,558	15,792	11,500	10,767	16,031	15,406	13,899	-3.9	10.6
5월	15,443	16,108	10,842	14,917	16,875	15,719	14,892	-6.9	5.9
6월	15,175	15,646	10,906	14,750	17,617	16,085	15,001	-8.7	8.5
7월	14,892	14,167	10,969	14,600	18,000	16,425	14,832	-8.8	13.1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8월	15,030	12,458	11,025	14,563	17,688	16,275	14,402	-8.0	15.0
9월	16,792	12,469	11,115	14,650	18,313	16,875	14,684	-7.9	15.0
10월	18,174	13,808	11,192	15,854	18,575	17,925	15,471	-3.5	15.5
11월	16,817	12,490	10,969	15,906	18,188	16,885	14,888	-7.2	13.5
12월	15,885	11,604	10,604	14,617	16,413	16,194	13,886	-1.3	17.1
연평균	15,573	14,179	11,034	13,522	16,809	16,134	14,336	-4.0	13.4

주 : 1) 인천 활어도매시장 900g~1.0kg 크기의 kg당 가격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 인천 활어도매시장

- 2022년 양식넙치 도매가격은 연초부터 하락한 이후 3월부터 10월까지 상승세를 보였음. 일반적으로 12월 들어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나, 2022년에는 한 달 빠른 11월부터 하락했음
- 이는 통상적으로 횡감용 수요가 적은 시기이지만, 경기 둔화 등으로 광어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임

<그림 4-73> 월별 양식넙치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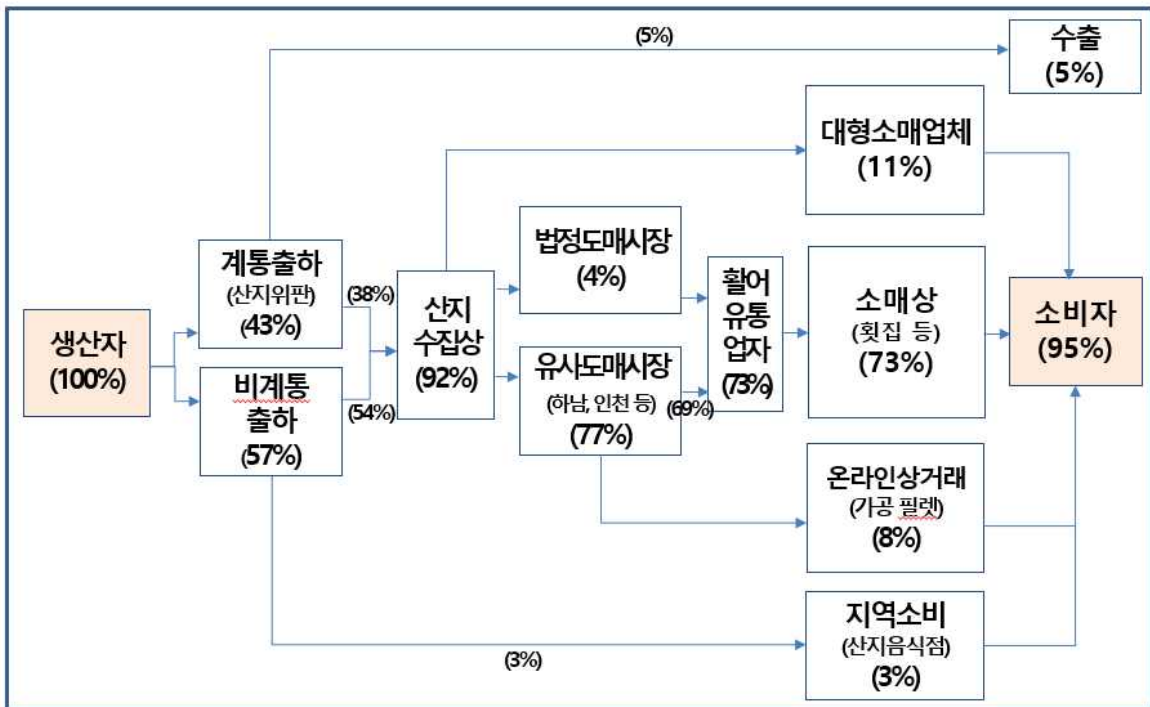
주 : 인천 활어도매시장 900g~1.0kg 크기의 kg당 가격,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 인천 활어도매시장

2. 양식넙치 유통경로

- 선어 상태로 위판되거나 유통과정에서 선어화되는 다른 수산물과 달리 양식넙치 대부분은 활어로만 유통됨. 이에 최종소비자에게 회로 소비되기 직전까지 활어 상태를 유지한 특징이 있음. 양식넙치의 일반적인 유통경로는 생산자 → 유사도매시장 → 소매상(횡집 등) → 소비자로 구성됨

- 양식장에서 출하된 양식넙치는 산지수집상에 의해 수집된 후 소비지에 위치한 유사도매시장까지 운송됨
- 이후 양식넙치는 유사도매시장(계류장·보관장)에서 흔히 ‘나까마’로 불리는 활어유통업자를 통해 소매상(횃집 등)으로 배송됨
- 활어유통업자는 소매상들의 요구에 맞춰 넙치뿐만 아니라 어종별로 물량을 확보하고 운영에 필요한 부재료 등을 입수해 공급하고 운송비를 받음
- 활어를 취급하는 유사도매시장 중 큰 규모를 갖추고 있는 곳은 인천, 하남, 부산임. 인천과 부산시장은 주로 제주산이 유통되지만, 하남시장은 완도산 넙치의 유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4-74> 활양식넙치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배분 비중



- 양식넙치는 산지의 양식장에서 활어차에 바로 옮겨져 소비지시장으로 운송됨
- 일반적으로 산지에서 수집상에 의해 운영되는 활어차는 4.5~5톤임. 1차당 운송할 수 있는 넙치는 보통 2.5톤이며, 산지수집상은 한 곳의 양식장에서 2.5톤 물량을 한 번에 확보하기 어려워 보통은 주 거래 양식장 여러 곳의 물량을 합산하여 1차(2.5톤)분의 물량을 확보하여 육지로 운송함

- 운송은 보통 제주항에서 카페리를 통해 활어차 자체를 육지로 이동시킴. 2022년 기준 대략적인 물량 비중은 목포항 60%, 녹동·여수항 30%, 부산항 10%였음. 목포항으로 운반된 물량은 대부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유통되며, 나머지는 지방으로 공급됨
- 익일 새벽 소비지 (유사)도매시장에 배송된 넙치는 빠르면 당일 오전 중에도 횃집이나 일식집으로 배송이 가능함. 하지만 도매시장에서는 2~3일 정도의 순차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편임
- 수출의 경우에는 일본으로 활어차를 배에 실어 해상 운송하는 경우와 그 외 지역은 항공운송 혹은 활어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로 구분함
 - 일본은 넙치 수출량의 절반 이상 점유하는데, 대부분 활어차를 이용하여 부산으로 운송한 후 카페리 편으로 일본으로 수출됨
 - 그 외 지역은 활어차를 이용하여 인천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이송되어 항공을 이용하거나, 거제와 부산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활어차를 이용하여 배송된 넙치를 활어컨테이너에 담아 화물선을 이용하여 해상 운송함
- 넙치 유통이 일반 수산물 유통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양식 활어의 일반적인 특징과 마찬가지로 계통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제주지역의 경우는 계통판매 비중이 77.7%로 높지만,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계통판매 비중은 10% 이하로 낮은 편임
 - 둘째, 일반적인 수산물의 경우와 달리 법정도매시장 경유율은 5% 이하로 매우 낮음

3. 양식넙치 유통비용(제주 기준)

- 국내 소비를 기준으로 한 양식넙치의 유통경로는 크게 산지-유사도매시장-횃집-소비자의 구조와 산지-대형소매점-소비자의 경로로 구분할 수 있음. 이러한 두 가지 유통경로에 따른 유통비용을 제주산 양식넙치를 기준으로 조사함

가. 제주 → 횃집

- 먼저 산지수집상과 양식장과의 거래를 위한 구두 계약 이후, 양식업체에서는

제주어류양식수협에 위탁판매를 요청함

- 이후 양식어가에서는 항생제에 대한 잔류검사를 통과하면 중도매인은 양식 업체와 가격을 결정한 후 활어차로 운송하게 됨. 이 과정에서는 수협에서 파견한 직원이 이를 다시 확인하고, 수협 위판수수료 1%를 지불함
- 2020년까지는 위판수수료 형태로 위판가격의 1%를 수협이 수취한 후 0.5%는 수수료로 취득, 0.5%는 유통지원자금으로 적립했음. 그러나 계통출하 시에만 징수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상시 상존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1년부터는 모든 조합원에게 수면적 평당 750원 기준으로 계통출하 시 1.5%를 취득함. 위판금액 기준 금액이 충족된 이후에는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위판금액 전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 이러한 방법은 2022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산지수집상에 의해 활어차(톤수는 4.5~5톤)에 상차된 넙치(물량 2.5톤)는 소비지로 운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류비는 kg당 1,200원이 발생함
 - 산지수집상은 소비지도매상(계류장·보관장)의 요구에 맞추어 필요한 물량을 다수의 주거래 양식장의 물량을 취합해 2.5톤의 물량을 확보함
 - 넙치가격을 제외한 운반비용은 활어차 1대(넙치물량 2.5톤)당 300만 원으로 kg당 1,200원 정도임. 산지수집상 자체로 활어차를 운반하며 운반인에게 수당을 월급 형태로 지급했으나, 대부분 운반인이 직접 활어차를 운송하며 비용을 받는 형태임
 - 산지수집상이 운반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인건비, 차량유류비, 카페리 선적비, 물, 액화산소비용, 차량수리비 등 운반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이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음. 2021년까지 활어차 1대 기준 18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으나, 2022년 물가 및 유류비 상승 등으로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상승함
 - 2022년 산지수집상의 간접비와 이윤을 1kg 기준으로 환산하면, 간접비는 792원, 이윤은 408원으로 환산됨

<표 4-136> 양식넙치의 유통비용(제주 → 횡집 기준)

단위 : 원/kg,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률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8,801	12,967	14,825	14,449	5.6
산지 위판장	위판수수료	89	131	150	146	5.6
	산지가격	8,890	13,098	14,975	14,595	5.6
도매유통 단계	산지수집상 간접비	100	748	761	792	2.9
	산지수집상 이윤		252	245	408	27.2
	도매상 간접비	650	602	617	602	0.0
	도매상 이윤	500	500	500	600	9.5
	도매가격	11,040	15,200	17,098	16,997	5.7
횡집	운송비(중간상인)	-	1,500	1,500	1,600	3.3
	영업비용	19,270	18,300	19,079	20,052	4.7
	이윤	4,690	5,000	4,323	4,351	-6.7
	판매가격	35,000	40,000	42,000	43,000	3.7

주: 1) 조사시기는 12월 하순이며, 1마리 1kg 기준

2) 영업비용에는 자가인건비 및 가족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

3) 연평균 증감률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함

자료: 외식업 경영실태조사 일식집 비용구조 기준

- 소비지에 위치한 도매상(계류장·보관장)은 일반소매점(횡집, 일식집)에 도매상 운영을 위한 간접비, 도매마진을 더해 횡집에 양식넙치를 납품하게 됨
 - 도매상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의 간접비가 kg당 602원 정도가 소요되며, 도매마진(이윤)이 kg당 600원이 발생함
 - 소비지 도매상 역시 일반소매점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가 있으나, 흔히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상인을 통해 납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중간상인은 일반소매점(횡집, 일식집)의 요구에 맞춰 넙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어를 다수 소매상을 통해 확보함. 이들은 상시 양질의 품질을 납품하기 위해 노력 중임
 - 또한 활어 외의 영업에 필요한 부가적인 식재료를 구입하여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편임. 이 과정에서 수고비를 포함해 운송비 형태로 kg당 1,500~2,000원 정도를 지급함
 - 판매량이 적은 일반소매점에서는 직접 활어차를 운영하여 양질의 활어 확보에서부터 시간, 비용 측면에서 많은 노력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상인을

- 이용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 후 물건을 공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 2022년 연평균 증감률은 생산자와 산지위판장이 동일한 5.6%씩 증가율을 보였으며, 도매유통단계에서는 산지수집상 이윤이 27.2%로 다른 항목에 비해 증감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횃집의 비용으로는 운송비와 영업비용이 각각 3.3%, 4.7% 증가했지만, 이윤은 6.7% 감소했음
- 횃집에 납품된 넙치는 인건비, 자가 및 가족 인건비, 결들이 안주 등 기타 식재료비, 임차료, 세금공과 및 기타비용이 더해져 소비자에게 판매함. 이러한 일련의 비용과 마진 구조는 다음의 표와 같음

나. 제주 → 대형소매점

- 먼저 산지수집상과 양식장과의 거래를 위한 구두 계약 이후, 양식업체에서는 제주어류양식수협에 위탁판매를 요청함
 - 대형소매점 역시 도매단계의 유통과 마찬가지로 제주산의 경우 항생제 잔류검사를 통과하면 중도매인은 넙치양식업체와 가격을 결정함. 이후 활어차에 운송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협 직원이 확인하고, 1%의 수협위판 수수료를 지불함
 - 대형소매점으로 유통 경로 또한 횃집 유통경로와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 위판수수료로 위판가격의 1%를 수협이 수취함. 이 중 0.5%는 수수료, 0.5%는 유통지원 자금으로 적립함. 그러나 이는 계통출하 시에만 위판수수료가 징수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 등이 발생함
 -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모든 조합원에게 수면적 평당 750원 기준으로 계통출하 시 1.5%를 취득하며, 기준 금액 충족 이후에는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위판금액 전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됨. 이러한 방법은 2022년에도 똑같이 적용됨
- 산지수집상에 의해 활어차에 상차된 넙치(4.5~5톤 활어차에 2.5톤)는 소비지로 운송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류비는 kg당 1,200원이 발생함
 - 산지수집상은 소비지도매상(계류장·보관장)의 요구에 맞추어 필요한 물량을

다수의 주거래 양식장의 물량을 취합해 2.5톤의 물량을 확보함

- 넘치가격을 제외한 운반 비용은 활어차 1대(넘치물량 2.5톤) 당 300만 원이며 kg당 1,200원에 해당됨. 산지수집상 자체가 활어차로 직접 운반하며 수당을 운반인에게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운반인이 직접 활어차를 운용하며 비용을 받는 형태임
- 산지수집상이 운반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인건비, 차량유류비, 카페리 선적비, 물, 액화산소비용, 차량수리비 등 운반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은 활어차 1대 기준 22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으로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음
- 산지수집상 간접비와 이윤을 1kg 기준으로 환산하면, 간접비는 792원, 이윤은 408원으로 환산됨. 이들 연평균 증감률은 각각 1.6%와 0.8%로 나타났음
- 소비지에 위치한 도매상(계류장·보관장)은 대형소매점에 도매상 운영을 위한 간접비, 도매마진을 더해 횡집에 양식넘치를 납품하게 됨
 - 도매상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의 간접비가 kg당 602원 정도가 소요되며, 도매마진(이윤)이 kg당 600원이 발생함. 이들 연평균 증감률은 동일한 1.2%였음
 - 소비지 도매상은 대형소매점에 직접 납품하는 사례도 있으나, 흔히 ‘나카마’로 불리는 중간상인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납품됨. 중간상인은 대형소매점 요구에 맞추어 넘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종의 활어를 소매상을 통해 구입함
- 대형소매점에 납품된 넘치는 인건비, 간접비와 입점 수수료 등에 이윤을 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비용과 마진구조는 다음의 표와 같음
 - 최근 대형마트에서 도매유통단계를 축소해 비용을 줄이고자 직접 도매상의 역할을 하는 활어계류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이지 않아 일반적인 유통경로에 따른 비용을 산정함
- <표 4-13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매와 대형소매 유통단계에서 대부분 비용은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어가수취가격 하락 등으로 유통 비용률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도매유통 단계에서는 간접비, 이윤 등을 비롯해 대형소매업체유통 단계에서의 간접비, 입점수수료 등 유통단계에서 비용 대부분이 전년 대비 상승함

- 한편, 넙치의 경우 어가수취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했으나, 소비자가격 인상률은 산지가격보다 컸음. 이에 유통단계에서 개별 유통비용 상승으로, 전체 유통비용률 또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각 단계별 연평균 유통비용 증감률을 보면, 2022년 대형소매점 증가폭은 7.4%로 컸으며, 다음으로 도매단계 5.7%, 산지단계 5.6%였음

<표 4-137> 양식넙치의 유통비용(제주 → 대형소매점 기준)

단위 : 원/kg,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률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8,801	12,967	14,825	14,449	5.6
산지 위판장	위판수수료	89	131	150	146	5.6
	산지가격	8,890	13,098	14,975	14,595	5.6
도매유통 단계	산지수집상 간접비	1,000	748	761	792	2.9
	산지수집상 이윤	-	252	245	408	
	도매상 간접비	650	602	617	602	27.2
	도매상 이윤	500	500	500	600	0.0
	도매가격	11,040	15,200	17,098	16,997	9.5
대형소매점	운송비(중간상인)	-	1,000	1,000	1,600	5.7
	간접비	11,000	16,267	16,400	18,536	26.5
	입점수수료	4,500	6,400	6,400	7,700	6.7
	이윤	3050	4,300	4,544	5,000	9.7
	판매가격	29,590	43,167	45,442	49,833	7.8

주: 1) 조사시기는 12월 하순이며, 1마리 1kg 기준임
 2) 연평균 증감률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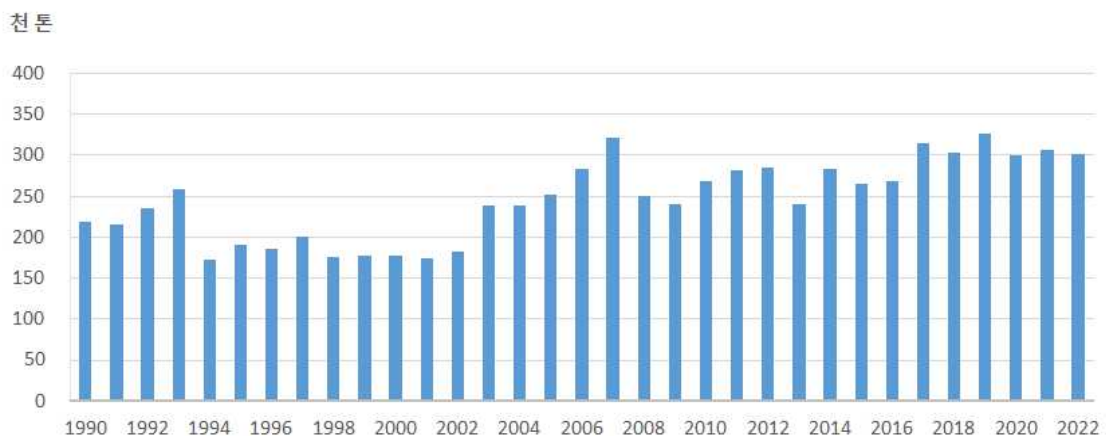
제10절 양식굴 유통실태조사

1. 양식굴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동향

- 우리나라 굴 양식은 1960년대 말 수하식 양식 방법이 도입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생산량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 3만 6천 톤에서 2022년에는 30만 톤 이상을 기록하는 등 크게 증가했음
- 국내 양식굴 생산량은 1976년에 15만 톤, 1983년에 20만 톤, 1986년에 25만 톤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20만 톤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2007년 들어서야 30만 톤 이상인 32만 톤이 생산되었음
- 이후 생산량은 한동안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2017년 31만 톤이 생산된 이후 최근 2022년까지 6년 연속으로 30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음
-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인 시기는 2019년으로 총 32만 6천 톤이 생산되었음. 2019년은 시설량도 증가했으며, 폐사가 적고 양성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임

<그림 4-75> 연도별 양식산 굴 생산량 추이



주: 2022년은 잠정치이며, 각굴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양식굴 생산량은 각굴 기준 30만 692톤이었으며, 전년보다 1.7% 적었으며, 최근 생산량이 많았던 탓에 평년(30만 125톤)보다도 3.0% 적었음

- 양식굴 생산금액은 2000년에는 1천억 원에 못 미치는 규모였으나,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생산단가가 상승하면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음
 - 2022년 굴 생산금액은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6.2% 늘어났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3.2% 많은 2,945억 원이었음

<표 4-138> 연도별 양식산 굴 생산량 및 생산금액 동향

단위: 톤, 백만 원, %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1990년	219,124	59,174
1995년	191,156	108,320
2000년	177,079	83,814
2005년	251,706	130,894
2010년	267,776	169,827
2015년	265,146	182,753
2016년	268,841	172,700
2017년	315,255	214,515
2018년	303,183	211,230
2019년	326,190	228,788
2020년	300,084	263,487
2021년	305,914	277,347
2022년	300,692	294,597
5개년 평균	307,213	255,090
전년 대비	-1.7	6.2
평년 대비	-3.0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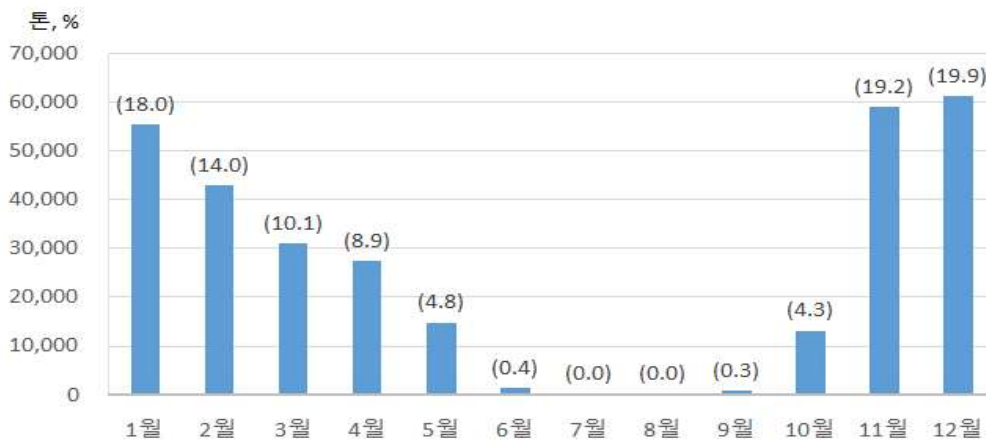
주: 1) 2022년은 잠정치이며, 각굴을 기준으로 함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최근 5년간 월별 양식굴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양식굴의 생산어기는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로 구분되며, 생산 특성상 ‘연산’ 개념으로 구분되고 있음. 예를 들어 ‘2022년산’의 경우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를 기준으로 함
 - 6~9월에는 한 어기가 종료되고 다음 어기가 시작되기 전으로 양식굴 생산량이 거의 없는 시기임
 - 어기가 시작되는 2022년 10월의 경우 연간생산량의 4.3%가 생산되었음
 - 11~12월은 김장 재료 및 기온 하강에 따라 생굴의 수요가 집중되며,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임. 2022년 11월에는 전체 생산량의 19.2%, 12월에는

19.9%를 차지했음

- 1~2월에도 설 연휴 및 겨울철 수요가 많은 시기로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각각 18.0%, 14.0%를 차지했음
- 11~2월 기간이 굴 수요가 가장 많고 생산이 집중되는 주 생산시기로 볼 수 있으며, 이 기간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71.1%를 차지했음
- 3월 이후에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국내 생굴 수요는 다소 줄어들지만, 비만도가 증가하면서 수출을 목적으로 한 가공용 수요가 많은 시기임. 2022년 3~5월 양식굴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10.1%, 8.9%, 4.8%를 차지했음

<그림 4-76> 최근 5년간 월별 양식 굴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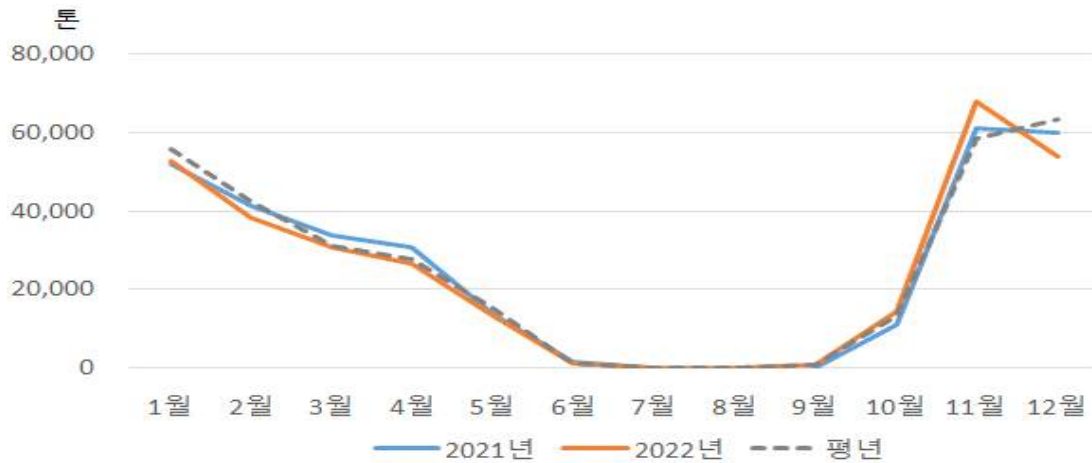


주: 1) 2022년은 잠정치이며, 각굴을 기준으로 함
 2) ()는 연간 생산량 비중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굴 월별 생산동향은 어기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용이함. 이에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굴을 연산별로 구분해보면, 1~5월에 생산된 굴은 2022년산이며, 10월 이후 생산된 굴은 2023년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22년 1~5월 굴 생산량은(2022년산) 16만 2,341톤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5% 적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5.9% 적었음. 이는 2022년산의 경우 어기 초인 2021년 10~11월 경 주요 생산지인 경남지역에서 폐사가 발생했고, 비만도도 좋지 못했기 때문임
 - 1월 굴 생산량은 평년보다 5.2% 적었으나, 전년보다는 1.8% 많아 예상보다 많은 양이 생산되었음. 이는 어기 초에 비해 비만도가 다소 회복되었고, 설

- 연휴 이전에 판매하려는 생산어가들의 출하의향이 높았기 때문임
- 2~3월에는 전년 대비 각각 7.1%, 9.0% 적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잔여시설량이 적은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 또한 많지 않았기 때문임
- 특히 경남지역의 감소폭이 컸는데 이는 어기 초 폐사 발생으로 잔여시설량이 적고 비만도가 다소 부진했기 때문임
- 4월 생산량도 전년보다 13.0% 적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3.8% 적었음. 이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어기 초 발생한 폐사 영향으로 잔여시설량이 적었기 때문임
- 5월 생산량은 어기 말로 가공용 수요 또한 줄어드는 시기임. 2022년 5월 굴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2%, 12.4% 적었음
- 2022년 9~12월까지 굴 생산량(2023년산)은 평년보다는 2.1% 적었으나, 전년 동기 간보다 3.5% 많은 13만 7,047톤이었음
- 2023년산 초기시설량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기 초 주요 생산지역인 경남에서 폐사가 많았던 작년에 비해 폐사도 적고, 성장 및 비만도도 양호했기 때문임

<그림 4-77> 월별 양식 굴 생산량 추이



주: 1) 2022년은 잠정치이며, 각굴을 기준으로 함
 2)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139> 연도별·월별 양식굴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54,760	56,942	58,258	57,022	51,931	52,865	55,404	1.8	-5.2
2월	37,009	47,839	43,147	43,979	41,441	38,505	42,982	-7.1	-9.8
3월	30,649	37,853	34,708	17,851	33,932	30,894	31,048	-9.0	-0.3
4월	28,753	24,273	26,700	28,421	30,713	26,727	27,367	-13.0	-3.8
5월	15,449	20,673	11,680	14,580	13,791	13,350	14,815	-3.2	-12.4
6월	1,200	1,825	868	1,375	1,659	1,135	1,372	-31.6	-18.1
7월	-	-	-	-	82	50	66	-39.0	-39.0
8월	16	-	-	-	-	118	118	-	-
9월	1,322	1,760	670	742	88	780	808	786.4	-14.9
10월	16,027	13,610	14,536	12,137	11,144	14,546	13,195	30.5	7.8
11월	66,006	36,174	68,812	60,726	61,250	67,928	58,978	10.9	15.9
12월	64,064	62,233	66,809	63,250	59,885	53,793	61,194	-10.2	-14.9
합계	315,255	303,182	326,188	300,083	305,916	300,691	307,212	-1.7	-3.0

주: 1) 2022년은 잠정치이며, 각굴을 기준으로 함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양식굴을 계통 및 비계통 출하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계통 출하 된 물량은 12만 9,558톤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음. 비계통 출하 된 물량은 17만 1,134톤으로 전체의 56.9% 수준임
 - 최근 5개년 평균 양식굴의 계통 출하 비율은 47.7%였으며, 비계통 출하 비율은 52.3%였음
 - 최근 계통 출하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이 55.5%로 가장 높았으나, 2022년은 43.1%로 가장 낮았음. 한편, 2022년 계통 출하 비율은 최근 5개년 평균(47.7%)보다 4.6%p 낮았음

<표 4-140> 연도별 양식 굴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계통	비계통
계통	150,363	168,317	153,815	145,620	135,912	129,558	43.1	146,644
비계통	164,892	134,867	172,375	154,464	170,002	171,134	56.9	160,568
합계	315,255	303,183	326,190	300,084	305,914	300,692	100.0	307,213

주: 1) 2022년은 잠정치이며, 각굴을 기준으로 함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양식굴 생산 동향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경상남도가 전체 생산량의 83.3%를 차지하여 가장 생산량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13.0%), 충청남도(3.0%), 부산광역시(0.6%) 순이었음
 - 2022년 경상남도의 양식굴 생산량은 25만 593톤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으나, 전라남도는 전년 대비 15.7% 줄어든 3만 9,110톤이었음. 충청남도는 전년 대비 20.9% 늘어난 9,149톤이었으며, 부산광역시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1,840톤이었음
 - 계통 및 비계통 출하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남도는 계통 출하가 50.4%, 비계통 출하가 49.6%였음. 반면, 전라남도는 계통 출하 비중이 3.7%로 매우 낮았으며, 비계통 출하 비중이 96.3%로 대부분을 차지했음. 부산광역시는 출하된 물량 전체가 계통 출하였으며, 충청남도는 전체 물량이 비계통으로 출하되었음

<표 4-141> 연도별 지역별 양식 굴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비중	평균
부산광역시	2,692	2,631	2,849	2,168	2,140	1,840	0.6	2,326
충청남도	5,969	8,715	7,713	7,839	7,565	9,149	3.0	8,196
전라남도	54,538	47,496	42,840	32,847	46,400	39,110	13.0	41,739
경상남도	252,056	244,342	272,788	257,230	249,809	250,593	83.3	254,952
합계	315,255	303,183	326,190	300,084	305,914	300,692	100.0	307,213

주: 1) 2022년은 잠정치이며, 각굴을 기준으로 함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나. 수출입 현황

- 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소비 또한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소비되고 있음
 - 전 세계에서 양식굴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이며, 우리나라는 그 다음으로 많은 양식굴 생산량을 보이고 있음. 그 외 양식굴을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이 있음
 - 또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양식굴은 국내소비량 보다 공급량이 많아 매년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양식굴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 미국 등으로 냉동, 통조림 등의 다양한 제품 형태로 수출되고 있음

- 우리나라 굴 수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양을 수출하는 일본의 자국산 양식굴 작황에 따라 영향을 받아 변동을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일본 내 히로시마 등 주요 산지에서 생산되는 양식굴의 성장 및 비만도가 부진할 경우 우리나라 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수출량이 증가함
- 굴 수입량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가공된 기타제품(굴소스, 엑기스 등)이며, 2022년에는 전년보다 74.0% 많은 64톤이 수입되었는데 평년(133톤)보다는 51.8% 적었음
- 2022년 굴 수출량은 9,853톤으로 전년 대비 2.7% 줄었으며, 평년(1만 19톤)에 비해서도 1.7% 적었음
 -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여건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미국 등으로 수출되는 통조림 제품은 수출이 오히려 늘었으나, 일본 등으로의 냉동굴 수출이 줄면서 전년 및 평년보다 적었음

<표 4-142> 연도별 굴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7년	9,071	59,472	6.6	207	602	2.9
2018년	10,423	68,779	6.6	145	537	3.7
2019년	11,018	76,664	7.0	155	543	3.5
2020년	9,457	71,484	7.6	120	484	4.0
2021년	10,127	80,074	7.9	37	228	6.2
2022년	9,853	79,592	8.1	64	392	6.1
5개년 평균	9,992	72,677	7.3	121	464	4.4
전년 대비	-2.7	-0.6	2.2	74.0	71.9	-1.2
평년 대비	-1.7	11.6	13.5	-51.8	-18.2	50.6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

- 한편, 2022년 굴 수출금액은 7,959만 달러로 전년 대비 0.6% 적었으나, 단가 상승의 영향 등으로 평년(7,129만 달러)보다는 11.6% 많았음
 - 수출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 제품의 단가가 전년 대비 2.2% 상승한 7.1달러였으며, 통조림 제품 또한 전년 대비 8.1% 상승한 8.2달러였음

<표 4-143> 제품유형별 굴 수출 실적

단위: 톤,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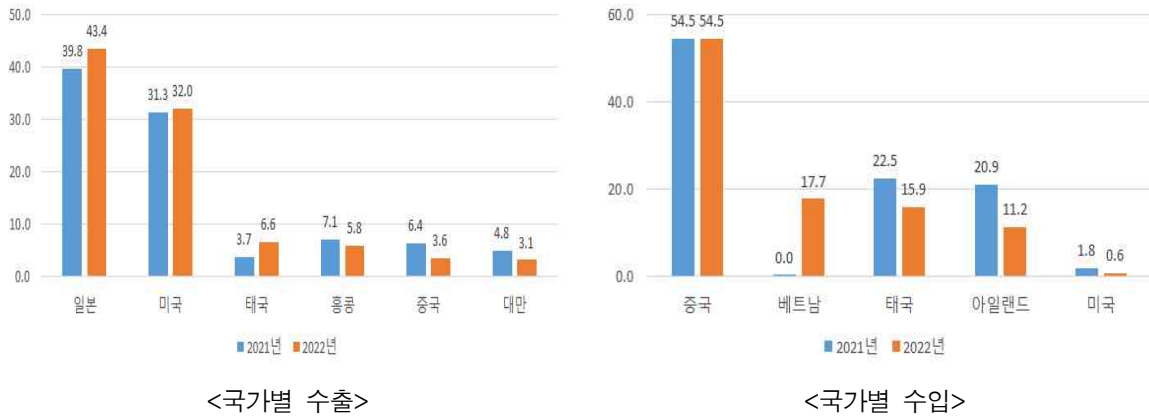
분류	명칭	HS CODE	2022년					
			중량	비중	전년대비	금액	비중	전년대비
신선	치패	0307111090	13.6	0.1	22.5	146.0	0.2	-11.3
냉장	생굴	0307119000	353.4	3.6	-13.9	1,402.5	1.8	-4.2
냉동	냉동	0307120000	6,214.5	63.1	-8.7	44,188.1	55.5	-6.7
통조림	훈제	0307194000	0.0	0.0	-	0.0	0.0	-
	통조림	1605511000	0.0	0.0	-	8.7	0.0	-
기타	건조	0307192000	129.9	1.3	59.2	1,233.5	1.5	66.4
	염장	0307193000	2,131.2	21.6	14.1	17,511.0	22.0	23.4
	조제저장	1605519000	1,010.8	10.3	7.7	15,102.1	19.0	-4.8
합계			9,853	100.0	-2.7	79,592	100.0	-0.6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

- 제품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제품의 수출이 늘었으나, 전체 물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냉동 제품과 신선·냉장 제품의 수출이 전년보다 줄었음
 - 냉동굴은 전년 대비 8.7% 감소한 6,214톤이 수출되었으며, 수출된 굴의 전체 물량에서 가장 많은 63.1%를 차지했음
 - 통조림(염장) 수출량은 2,131톤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했으며, 전체 물량 중 차지하는 비중은 21.6%였음
 - 기타제품(건조굴 및 엑기스 등이 포함)은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1,140톤이 수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물량 중 11.6%의 비중을 차지했음
 - 신선·냉장 제품 수출량은 전체 물량의 3.7%인 367톤이었음. 2022년 상반기 생산 부진의 영향으로 생굴 수출이 원활하지 못했음
- 다음으로 국가별 수출 비중 변화를 통해 동향을 살펴보면, 주요 수출대상국 일본으로 수출된 물량 비중은 전년 대비 3.6%p 증가한 43.4%였으며, 미국으로의 수출된 물량 비중은 32.0%로 전년 대비 0.7%p 늘었음
 - 그 밖에 태국으로의 비중도 6.6%로 전년 대비 2.9%p 늘었으나, 홍콩, 중국, 대만으로의 수출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했음
- 수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물량은 전체의 54.5%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다음으로 베트남(17.7%), 태국(15.9%), 아일랜드(11.2%), 미국(0.6%) 등의 순이었음

<그림 4-78> 국가별 굴 수출입 비중

단위: 톤, %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

다. 수급 구조

- 30만 톤 이하의 수준이 지속되었던 굴 총 공급량은 2017년 이후 30만 톤 이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 굴 총 공급량도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30만 톤이 넘는 30만 1,207톤이었음
- 2022년의 경우 국내 생산은 1.7% 줄었으나, 수입량이 4배 이상 늘었음. 그러나 수입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총 공급량은 전년보다 다소 줄었음

<표 4-144> 연도별 굴 수급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국내소비	수출	
2017년	315,255	908	316,163	203,253	112,910	155.1
2018년	303,183	719	303,902	178,274	125,629	170.1
2019년	326,190	754	326,944	193,434	133,510	168.6
2020년	300,084	494	300,578	183,061	117,517	163.9
2021년	305,914	115	306,029	178,144	127,885	171.7
2022년	300,692	515	301,207	175,376	125,831	171.5
전년 대비	-1.7	347.8	-1.6	-1.6	-1.6	-
평년 대비	-3.0	-13.9	-3.1	-6.3	1.9	-

주: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통계이며, 원어환산량이므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와 다를 수 있음
 3) 국내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 2022년 국내 굴 소비량은 17만 5,376톤으로 전년 대비 1.6% 줄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6.3% 적었음
 - 평년 대비 총 공급량이 3.1% 감소한 가운데, 평년보다 수출량이 1.9% 많아 국내 소비량은 6.3% 적었음
- 2022년 굴 자급률은 전년보다 0.2%p 줄어든 171.5%였으나, 평년(165.9%)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음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양식굴 산지가격을 살펴보기에 앞서 통계청 생산량, 생산금액 기준으로 양식굴의 생산단가를 살펴보았음. 양식굴 생산단가는 1990년 초반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양식굴 연평균 생산단가는 1990년 kg당 270원이었으나, 2000년 473원, 2010년에 634원, 2020년에는 878원으로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음
- 2022년 양식굴 연평균 생산단가는 kg당 980원으로 전년 대비 8.1% 상승했으며, 평년(kg당 773원)에 비해서도 26.8% 높았음

<그림 4-79> 연도별 각굴 생산단가 추이



주: 1) 통계청 천해양식어업의 굴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눈 생산단가이며 각굴 기준임
 2)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145> 연도별 월별 각굴 생산단가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781	591	650	734	721	822	704	14.0	18.3
2월	490	603	550	627	678	703	632	3.7	19.2
3월	389	467	558	664	592	707	598	19.5	32.4
4월	353	485	554	565	500	689	559	37.8	40.2
5월	387	398	588	547	453	733	544	61.7	54.4
6월	406	403	755	541	535	741	595	38.5	40.3
7월	-	-	-	-	1,276	1,198	1,237	-6.1	-6.1
8월	1,227	-	-	-	-	1,502	1,502	-	22.4
9월	414	686	848	580	581	1,500	839	158.2	141.3
10월	614	760	684	1,057	1,227	1,056	957	-14.0	21.5
11월	937	1,150	854	1,323	1,445	1,317	1,218	-8.9	15.3
12월	824	919	843	1,009	1,117	1,245	1,026	11.5	32.2
연평균	642	680	697	701	907	980	833	8.1	26.8

주: 1) 생산단가는 통계청 천해양식어업의 굴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며, 각굴 기준임

2) 2022년은 잠정치임

3)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굴 산지가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를 통해 공표되고 있으며, 굴수하식수협, 경남고성군수협, 여수수협의 알굴 위판가격 평균 가격임
- 2022년 알굴 연평균 산지가격은 kg당 9,005원으로 생산단가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5.4% 상승했으며, 평년(kg당 6,946원)에 비해서도 28.5% 높았음
 - 여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2년산 여기인 1~5월에는 여기 초 폐사 및 양성상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 지속되었음
 - 2022년 1~2월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9.3%, 4.0% 높은 kg당 7,968원, 7,004원에 형성되었음. 이는 2022년산 여기 초인 2021년 10~11월 폐사 영향으로 잔여시설량이 적고 양성상태가 부진함에 따라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임
 - 여기 말에 가까워지며 알굴의 크기와 비만도가 높아지는 3~5월에는 보통 수출 가공용 수요가 많은 시기임.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여전히 수출 가공용 수요가 많아 산지가격은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음
 - 특히 4~5월 산지가격은 각각 kg당 6,885원, 7,220원에 형성되면서 전년 및 평년 대비 4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음

- 2022년산 굴 산지가격은 어기 초 주요 생산지역 폐사 영향으로 어기 내내 전년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되었음
- 다음으로 2023년산 어기인 2022년 10월 이후 알굴 산지가격을 살펴보았음. 2023년산의 경우 2022년산에 비해 폐사가 거의 없고 양성상태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산지가격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음
- 최근 들어 9월은 산지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10월 산지가격은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전년 대비 15.9% 낮은 kg당 10,532원이었음
- 11월 산지가격도 kg당 13,351원으로 전년 대비 9.9% 낮게 형성되었음. 어기 초인 10월과 11월 모두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산지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음
- 그러나 12월 산지가격은 kg당 12,079원으로 전년보다 7.9% 높게 형성되었는데, 이는 생산비용 증가 영향과 더불어 2022년의 경우 전년보다 김장이 다소 늦게까지 이어지며 김장 재료용 수요가 지속되었기 때문임
- 또한 12월 들어 비만도가 다소 좋지 못하면서 위판 된 물량 중 가격이 비싼 작은 크기의 굴 비중이 전년보다 높게 나타났음

<표 4-146> 연도별 월별 알굴 산지가격 동향

단위: 원/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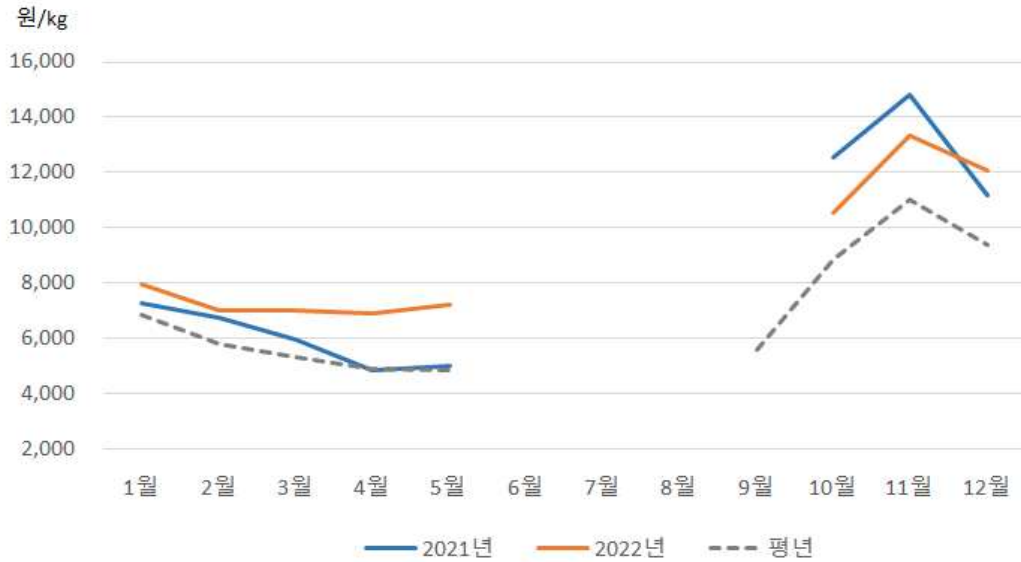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7,556	5,774	6,380	7,158	7,288	7,968	6,914	9.3	16.6
2월	4,645	5,923	5,454	6,196	6,732	7,004	6,262	4.0	21.0
3월	3,860	4,658	5,559	6,535	5,939	7,001	5,938	17.9	31.8
4월	3,565	4,848	5,541	5,584	4,868	6,885	5,545	41.4	41.1
5월	3,875	3,980	5,895	5,455	5,004	7,220	5,511	44.3	49.1
6월	-	-	-	-	-	-	-	-	-
7월	-	-	-	-	-	-	-	-	-
8월	-	-	-	-	-	-	-	-	-
9월	4,312	6,856	-	-	-	-	-	-	-
10월	6,304	7,571	6,858	11,090	12,520	10,532	9,714	-15.9	18.8
11월	9,486	9,251	8,428	13,164	14,810	13,351	11,801	-9.9	21.1
12월	8,225	9,381	8,245	9,860	11,190	12,079	10,151	7.9	28.8
연평균	5,759	6,471	6,545	8,130	8,544	9,005	7,730	5.4	28.5

주: 1) 알굴 기준이며, 각굴의 수율은 10% 정도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그림 4-80> 월별 알굴 산지가격 추이



주: 평년은 2017년~2021년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2) 도매가격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2022년 굴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0,863원으로 전년 대비 7.0% 상승했으며, 평년(kg당 8,667원)에 비해서도 25.3% 높았음
 - 산지가격과 마찬가지로 굴 도매가격도 2월을 제외하고 2022년산 어기인 2022년 9월까지 전년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되었으며, 평년보다도 높았음
 - 2023년산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부터 11월까지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도매가격이 형성되었으나, 산지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12월에는 전년보다 10.4% 높은 kg당 14,110원에 형성되었음
 - 2022년 굴 도매가격 중 전년보다 가장 높은 가격이 형성된 시기는 6월 kg당 11,463원으로 전년 대비 27.1% 높았으며, 10월에는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도매시장 내 공급이 늘면서 전년보다 7.0% 낮은 kg당 11,957원이었음
 - 2022년 굴 도매가격은 전년에 비해서는 시기마다 차이를 보이며 더 높거나 낮게 형성되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연중 최소 15%에서 최대 43%까지 높게 형성되며 높은 수준이 지속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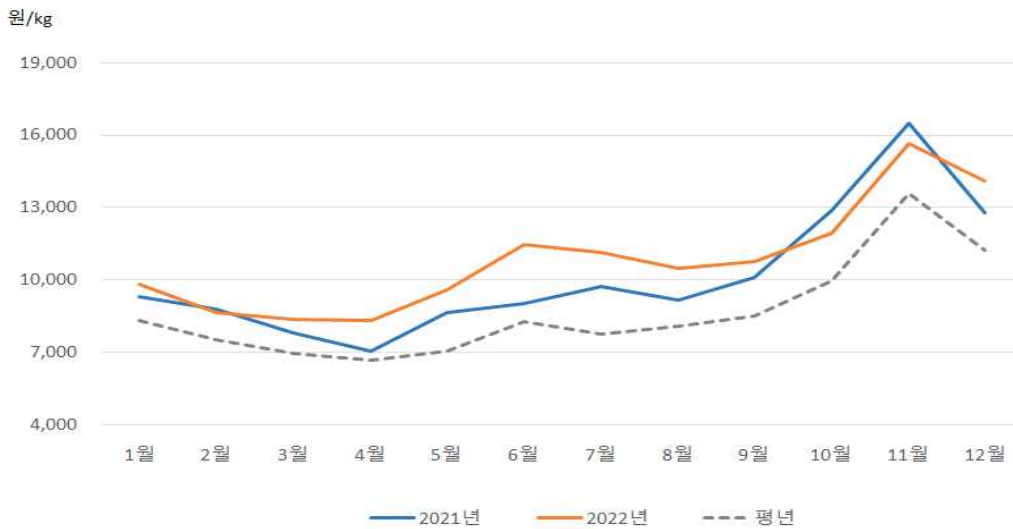
<표 4-147> 연도별 월별 알골 도매가격 동향

단위: 원/kg,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8,308	6,865	7,561	9,502	9,329	9,811	8,614	5.2	18.0
2월	6,004	7,747	7,169	7,945	8,784	8,673	8,064	-1.3	15.2
3월	5,108	6,110	7,226	8,560	7,834	8,359	7,618	6.7	20.0
4월	5,197	6,219	7,190	7,760	7,076	8,308	7,311	17.4	24.2
5월	5,401	6,608	7,937	6,663	8,675	9,586	7,894	10.5	35.8
6월	6,530	6,982	10,007	8,835	9,019	11,463	9,261	27.1	38.5
7월	4,596	6,833	9,244	8,448	9,725	11,162	9,082	14.8	43.7
8월	7,096	7,225	9,100	7,820	9,176	10,484	8,761	14.3	29.7
9월	6,551	7,195	8,477	10,184	10,093	10,781	9,346	6.8	26.8
10월	8,003	8,937	8,605	11,404	12,858	11,957	10,752	-7.0	20.0
11월	11,730	11,862	11,879	16,035	16,503	15,660	14,388	-5.1	15.1
12월	10,026	10,699	10,786	11,971	12,785	14,110	12,070	10.4	25.4
연평균	7,046	7,774	8,765	9,594	10,155	10,863	9,430	7.0	25.3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그림 4-81> 월별 양식 굴 도매가격 추이



주: 평년은 2017년~2021년의 평균치임
 자료: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3) 소비자가격

- 2022년 알골 연평균 소비자가격은 kg당 24,565원이었으며,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9%, 35.4% 높았음

- 산지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연중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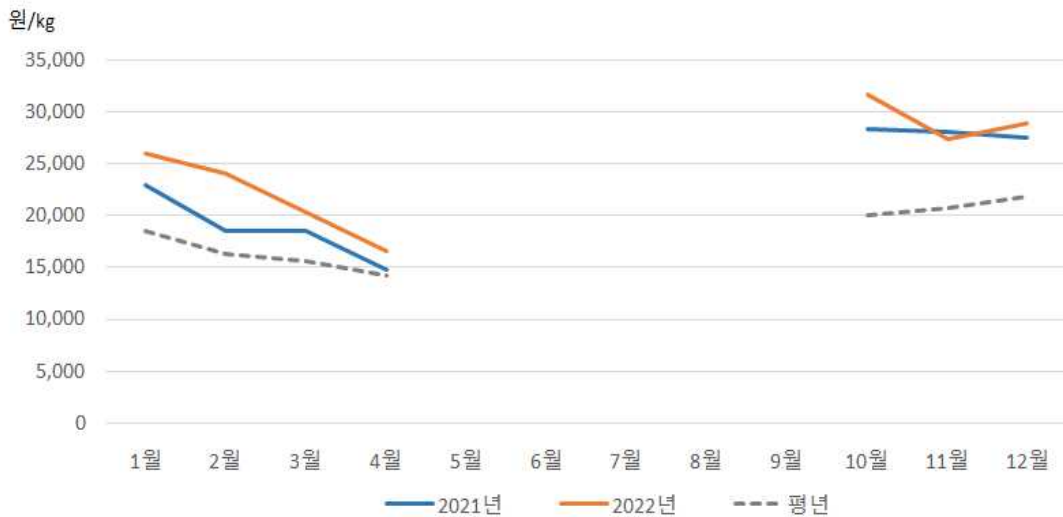
<표 4-148> 연도별 월별 알골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원/kg,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8,017	17,868	16,796	17,510	22,881	25,979	20,159	13.5	40.1
2월	17,698	15,153	15,947	15,489	18,478	24,003	18,107	29.9	46.9
3월	16,193	14,280	14,488	15,074	18,495	20,302	16,887	9.8	29.5
4월	14,827	14,309	12,414	14,571	14,726	16,626	14,759	12.9	16.3
5월	-	-	-	-	-	-	-	-	-
6월	-	-	-	-	-	-	-	-	-
7월	-	-	-	-	-	-	-	-	-
8월	-	-	-	-	-	-	-	-	-
9월	-	-	-	-	-	-	-	-	-
10월	16,595	18,063	18,295	18,723	28,386	31,618	23,017	11.4	58.0
11월	17,214	18,234	17,985	22,436	28,105	27,417	22,835	-2.4	31.8
12월	18,504	19,348	18,237	25,784	27,455	28,840	23,933	5.0	31.9
연평균	16,385	16,361	16,623	19,197	22,148	24,565	19,779	10.9	35.4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그림 4-82> 월별 알골 소비자가격 추이



주: 평년은 2017년~2021년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2. 양식굴 유통구조

가. 유통경로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식굴은 주로 경상남도의 통영, 거제, 고성 등에서 전체 생산량의 83% 정도가 생산되며, 전라남도의 여수, 고흥 등에서도 13% 정도가 생산됨. 충청남도의 서산, 태안 등에서도 3% 정도 생산되고 있음
 - 경남의 경우 주로 채취한 양식굴을 박신작업을 거쳐 알굴의 상태로 만든 후 유통함. 또한 경남지역의 경우 계통 출하 비중이 높고 통영 굴수하식수협, 통영수협 견유위판장, 경남고성군수협 등 지역 내 수협에서 위판되고 있음
 - 전남과 충남은 박신작업을 거치지 않은 껍질이 붙어있는 각굴의 형태로 주로 유통되고, 경남과 달리 대부분 비계통 출하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
- 본 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고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알굴을 대상으로 굴의 주 소비 시기인 12월을 기준하여 유통경로를 조사하였음
 - 굴은 출하시기에 따라 소비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생산이 시작되는 어기 초(10월 경)부터 이듬해 1~2월 정도까지 김장철 김장재료용 수요와 겨울철 생굴 수요가 집중되어 생산 및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짐
 - 2월 이후에는 통조림, 냉동굴 등을 생산, 수출하기 위한 수출 가공용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로 이 수요는 어기 말까지 이어짐. 보통 어기 초 높게 형성되었던 산지가격이 어기 말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그림 4-83> 경남지역 양식굴 박신작업 및 알굴 생산과정



<양식굴 박신과정>



<비닐에 담긴 알굴>

자료: 연구진 현지 출장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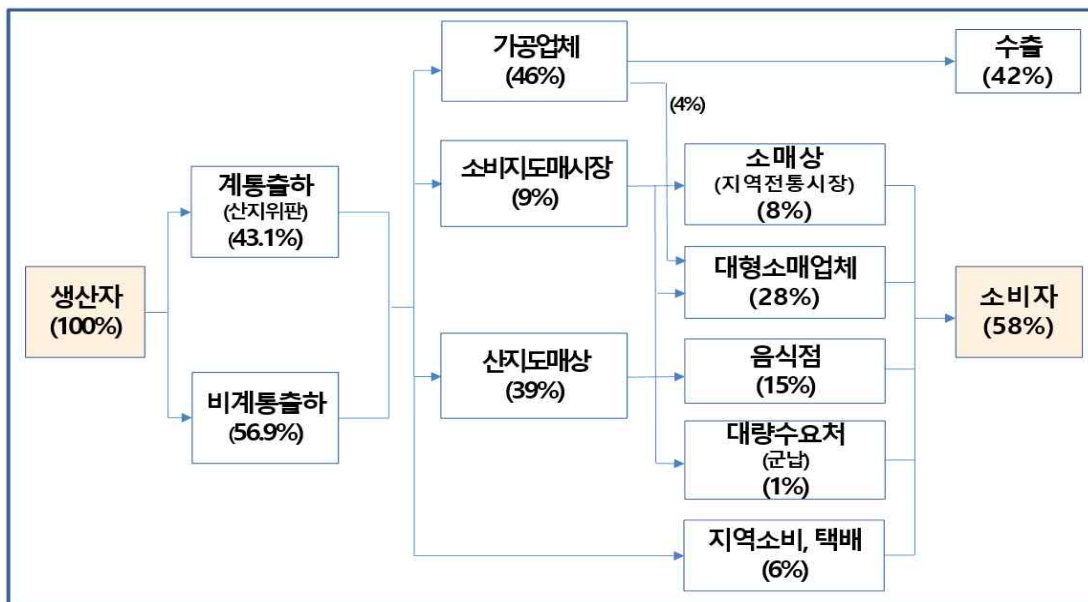
<표 4-149> 양식굴 주요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 결과

단위: 톤, %

구분	취급량	비율(%)
합계	300,692	100.0
수출(가공포함)	125,810	41.8
대형소매업체	84,674	28.2
음식점	45,104	15.0
소매상	24,055	8.0
지역소비 및 택배	18,042	6.0
대량수요처	3,007	1.0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산지수집상, 도매상인, 수산바이어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그림 4-84> 양식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자료: 산지 관계자(수협)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 2022년 양식굴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을 살펴보면, 계통 출하 비중은 전년(44.4%) 대비 1.3%p 감소한 43.1%였음. 나머지 56.9%는 비계통 출하로 유통되었음
- 총 생산량 중 58%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서 소비되었으며, 나머지 42%는 일본, 미국 등으로 수출되었음
 - 총 생산량 30만 692톤 중 17만 4,882톤이 국내에서 소비되었고, 나머지 12만 5,810톤이 신선·냉장, 냉동, 통조림 등의 형태로 수출되었음

- 계통 및 비계통 출하를 통해 가공된 물량 비중은 전체의 약 46%로 전년 (45%) 대비 1%p 늘었으며, 소비지도매시장으로의 물량 비중도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음. 그러나 산지도매상을 통해 유통된 물량 비중은 전년(42%)보다 3%p 감소한 39% 였음
- 이후 단계에서 대형소매업체로 유통되는 물량 비중은 전년 대비 1%p 증가한 28%로 가장 많았으며, 봉지굴 등으로 소분·가공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됨
- 음식점으로 유통되는 물량 비중은 전체의 1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p 줄었음.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음식점을 통한 굴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지역 전통시장 등 소매상으로의 물량 비중도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든 8%였음
- ‘코로나 19’이후 온라인 거래가 강세를 보였으며, 그 결과 지역소비 및 택배의 물량 비중은 전년 대비 1%p 상승한 6%였음
- 군납 등의 대량수요처 물량 비중은 1%로 전년과 비슷했음

3. 양식굴 유통비용(통영 기준)

- 양식굴의 유통비용 실태조사는 2020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22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수행되었음
- 국내에서 소비되는 양식산 알굴의 주요 유통경로는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되나, 가장 대표적인 경로인 봉지굴로 소포장되어 거래되는 형태의 유통비용을 살펴 보았음
 - 소포장되어 대형소매업체를 통해 거래되는 유통경로의 경우, 생산자→ [<산지위판장>→ <산지중도매인>]→ 대형소매업체→ 소비자 경로를 조사하였음
 - 3~5kg 단위로 소분하여 벌크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의 유통 경로는 다음과 같음. 생산자→ [<산지위판장>→ <산지중도매인>]→ 소비지도매시장→ 소비자
- 가장 대표적인 소포장 이후 대형소매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유통경로의 비용 조사 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통영에서 연승수하식 방법으로 생산되어 굴수하식 수협을 통해 계통 출하된 양식굴을 기준으로 조사했음

가. 통영 → 대형소매업체

- 수하식 양식장에서 채취된 굴은 박신장으로 옮겨져 알굴 형태로 박신작업을 거친 후 수협을 통해 위탁판매가 이루어짐
 - 알굴은 비닐봉투에 담겨 10kg씩 포장되고 중도매인이 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투명한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음. 위탁장에 도착한 알굴은 트럭에 실린 채로 pH 간이 검사를 실시해 위판 가능 여부를 검사하고 있음
 - 평상시 위판은 월, 화, 목, 금요일 주 4회,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지만, 생산 및 수요가 많은 김장철에는 수, 토요일에 추가로 위판이 실시되기도 하며,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는 목요일 위판을 쉬고 토요일 오전만 위판을 실시하는 등 산지 상황에 맞게 위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위탁장 내에 위판물량이 배열되고 위판 이전에 중도매인이 상품성 등을 확인 후 경매를 실시하며, 생산자는 위판금액의 3.5%를 위판수수료로 지불함
- 2022년의 경우 상반기 출하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8%정도 상승함에 따라, 어가 수취가격은 전년보다 늘어난 kg당 11,656원이었음
 - 그러나 소비자가격도 상승하면서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 대비 산지가격의 비중은 전년(43.3%)에서 41.9%로 감소하였음

<그림 4-85> 통영 굴 수하식 수협의 알굴 위판 현황



<위판을 위해 대기 중인 알굴 박스>

자료: 연구진 현지 출장자료



<알굴 위판 현장>

- 수협 위탁장에서 알굴을 매입한 산지중도매인은 가공공장으로 운반한 후 소포장 과정을 거쳐 출고함

- 이 과정에서 사용된 직접비를 살펴보면, 물류비, 포장비, 얼음비용으로 구분되며, 이는 총 kg당 3,097원으로 전체 유통비용의 10.7%를 차지했음
 - 물류비는 유류대 상승으로 전년 대비 34% 상승한 kg당 1,122원이었음
 - 소포장 재료비, 박스 비용 등의 포장비의 경우에도 kg당 1,767원으로 직접비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원료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0% 상승했음
 - 얼음비용도 전년 대비 15% 이상 상승한 kg당 208원이었음
- 다음으로 간접비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일반관리비로 구분되며, 이를 모두 합친 간접비는 kg당 4,574원으로, 전체의 15.8%를 차지했음
 - 간접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kg당 3,327원으로 전년 대비 20% 상승했음.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료세척, 선별작업, 포장작업, 상차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인건비의 경우 간접비에서 뿐만 아니라 유통비용 전체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
 - 가공공장 관련 발생 비용을 살펴보면, 자동화포장기기의 감가상각비는 kg당 208원, 수도광열비는 kg당 416원, 일반관리비는 kg당 623원이었음. 대부분 전년 대비 12~13% 정도 상승하였음
- 봉지굴 가공 후 대형소매업체로 납품 시 도매가격은 kg당 20,790원으로 전년 대비 13% 상승했음
 - 이윤을 살펴보면 kg당 1,040원으로 전년 대비 13.2% 상승했으며, 전체 유통비용에서의 비중은 3.6%로 전년과 동일했음
- 대형소매업체에 납품된 양식굴은 점포 유지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간접비와 이윤을 더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며, 소비자 판매가격은 kg당 28,840원으로 전년 대비 11.7% 상승하였음
 - 간접비의 경우 전년 대비 약 14% 상승한 kg당 2,517원이었음. 이윤 또한 전년 대비 약 6% 상승한 kg당 5,533원이었음
 - 대형소매업체 조사 결과, 굴은 연중 판매되는 대중성 수산물과는 다르게 수요와 판매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계절성 품목으로 단기적으로 이윤이 높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대형소매업체는 개별 판매 품종의 이윤보다 수산물 부류 전체 이윤을 고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양식굴 유통비용이 조사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의 유통 비용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의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지가격이 상승하면서 위판수수료, 어가수취가격 모두 연평균 9.9% 상승했음
 - 최근 임금이 상승하고 인력부족이 심화되면서 유통단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포장비, 물류비 등 노동력을 요하는 단계의 비용이 다른 단계보다 더 크게 상승했음
 - 대형소매업체의 이윤은 연평균 53.1% 상승하여 매우 큰 상승폭을 보였으나,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 시기인 12월은 양식굴 가격이 높은 시기이며, 계절성을 가지는 품목의 특성상 특정 시기에 단기적으로 이윤이 높을 수 있음

<표 4-150> 양식굴(봉지굴 150g)의 유통비용(통영 → 서울 대형소매점)

단위: 원/kg, %

구분		2021년		2022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10,798	11,656	40.4		1kg 기준	
산지위판장	위판수수료	392	423	1.5		산지가격의 3.5%	
	산지가격	11,190	12,079	41.9		통영 굴수하식수협 위판가	
산지도매 유통단계	직접비	물류비	835	1,122	3.9		가공공장 및 대형소매점 납품 운반비
		포장비	1,364	1,767	6.1		봉지 굴 소포장 및 박스비 등
		얼음	178	208	0.7		-
	간접비	인건비	2,784	3,327	11.5		원료세척, 선별, 포장, 상차
		감가상각비	184	208	0.7		자동화기기사용
		수광비	367	416	1.4		-
		일반관리비	552	623	2.2		가공공장 운영
	이윤	919	1,040	3.6		-	
도매가격	18,372	20,790	72.1		중도매인 조사가격		
대형 소매업체	간접비	2,214	2,517	8.7		점포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이윤	5,231	5,533	19.2		면담결과	
	소비자 판매가격	25,817	28,840	100.0		대형소매점 조사가격	

주: 소포장 봉지굴 150g 기준으로 조사시기는 각 연도별 12월 기준임

<표 4-151> 양식굴(봉지굴 150g)의 유통비용 변화(통영 → 서울 대형소매점)

단위: 원/kg,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감률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9,650	10,798	11,656	9.9	
산지위판장	위판수수료	350	392	423	9.9	
	산지가격	10,000	11,190	12,079	9.9	
산지도매 유통단계	직접비	물류비	540	835	1,122	44.1
		포장비	1,100	1,364	1,767	26.7
		얼음	160	178	208	14.0
	간접비	인건비	2,200	2,784	3,327	23.0
		감가상각비	160	184	208	14.0
		수광비	310	367	416	15.8
		일반관리비	480	552	623	13.9
	이윤	790	919	1,040	14.7	
	도매가격	15,740	18,372	20,790	14.9	
	대형 소매업체	간접비	1,574	2,214	2,517	26.5
이윤		2,361	5,231	5,533	53.1	
소비자 판매가격		19,675	25,817	28,840	21.1	

주: 소포장 봉지굴 150g 기준으로 조사시기는 각 연도별 12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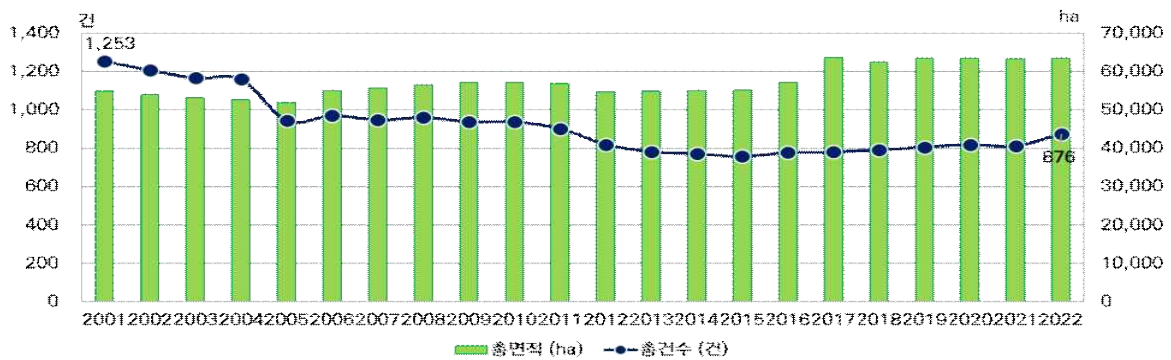
제11절 양식김 유통실태조사⁶¹⁾

1. 양식김 생산 및 유통현황

가. 생산 동향

- 양식 김 면허건수는 2022년 기준 총 876건으로 2001년 대비 약 30% 줄어든 반면 면허면적은 15.8% 늘어난 6만 3,512ha였음
- 면허건수는 2001년부터 감소세로 2015년 가장 적은 758건을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증가세를 보였음
- 반면 면허면적은 2001~2016년 사이 5~6만 ha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7년 6만 3천 ha로 크게 증가한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김 양식시설량은 2010년 73만 책에서 2022년 112만 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림 4-86> 연도별 양식김 어업권 추이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복합양식 및 한정면허는 제외
 자료: 통계청, 천해양식어업권통계

- 2022년 기준 지역별 김 면허 면적을 살펴보면, 주산지인 전남의 면허면적은 5만 9,081ha로 전체 면적의 93.0%였음
- 충남과 전북의 면허면적은 각각 2,041ha, 1,785ha로 전체 면적의 3.2%, 2.8%의 비중을 차지했음. 부산 및 인천은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했음⁶²⁾

61) 김은 어기(2023년산: 2021년 10월~2022년 5월)가 있는 품목이나 연구의 통일성을 위해 연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생산 통계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함

<표 4-152> 연도별 지역별 양식김 어업권 동향

단위: ha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비중	5개년 평균
부산시	517	517	517	517	517	517	0.8	517
인천시	118	118	118	88	88	88	0.1	100
울산시	-	-	-	-	-	-	0.0	-
경기도	819	-	-	-	-	-	0.0	-
강원도	-	-	-	-	-	-	0.0	-
충남도	2,411	2,041	2,041	2,041	2,041	2,041	3.2	2,041
전북도	1,923	1,921	1,840	1,792	1,792	1,785	2.8	1,826
전남도	57,883	57,851	59,010	59,144	58,828	59,081	93.0	58,783
경북도	-	-	-	-	-	-	0.0	-
경남도	-	-	-	-	-	-	0.0	-
제주도	-	-	-	-	-	-	0.0	-
총면적	63,671	62,448	63,526	63,581	63,266	63,512	100.0	63,267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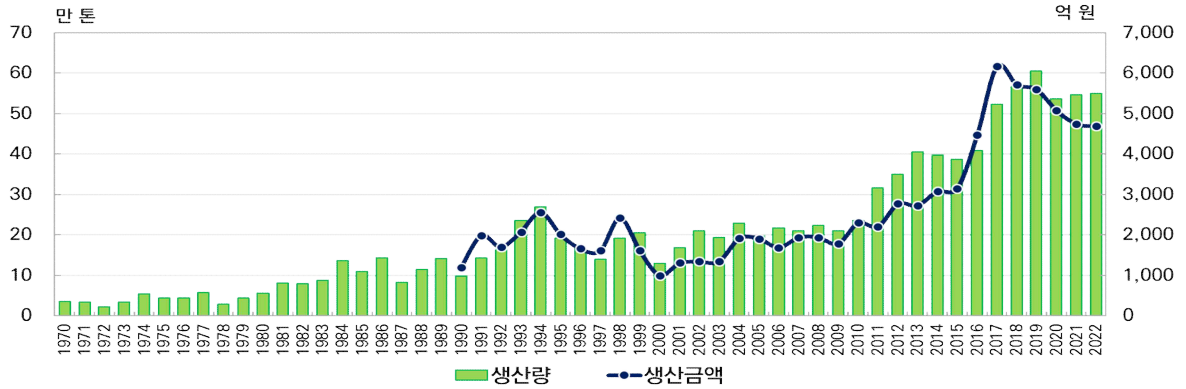
2) 복합양식 및 한정면허는 제외

자료: 통계청, 전해양식어업권통계

- 김은 1970년대부터 양식 기술 발달 및 우량종자가 개발됨에 따라 꾸준한 생산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양식김은 2017년부터 50만 톤 이상 생산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60만 톤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 그러나 이듬해인 2020년 양식김 생산량은 54만 톤으로 크게 감소했음
- 2022년 양식김 생산량은 55만 222톤으로 작년 대비 0.5% 많았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1.0% 적었음
- 한편 양식김 생산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7년 6,175억 원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2022년 양식김 생산금액은 4,695억 원으로 작년 대비 1.1% 적었고 평년보다도 14.1% 줄었음
 - 평년과 비교했을 때 생산량에 비해 생산금액 감소폭이 커 2022년 김 가격이 낮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음

62) 해당 통계는 한정면허 및 복합양식 면허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생산량 비중과는 차이가 있음

<그림 4-87> 연도별 양식김 생산량 추이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153> 연도별 양식김 생산량 동향

단위: 톤,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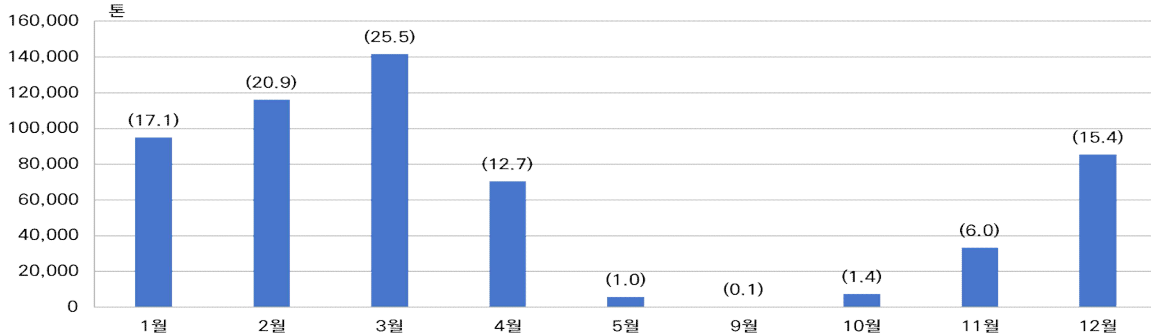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1990년	97,637	120,229
1995년	192,960	201,920
2000년	130,488	100,276
2005년	197,610	191,255
2010년	235,534	230,588
2015년	386,646	314,967
2016년	409,408	446,950
2017년	523,648	617,507
2018년	567,162	572,365
2019년	605,767	560,584
2020년	536,127	508,324
2021년	547,413	474,852
2022년	550,221	469,477
최근 5개년 평균	561,338	517,120
전년 대비	0.5	-1.1
평년 대비	-1.0	-14.1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김 어기는 10월부터 시작되며 3월까지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4월부터는 생산이 감소하여 5월경 대부분 마무리되는 추이를 보임
- 최근 5년간 월별 양식김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3월이 전체 생산량의 25.5%로 가장 높았음

- 2월(20.9%), 1월(17.1%), 12월(15.4%), 4월(12.7%), 10월(1.4%), 5월(1.0%) 순으로 생산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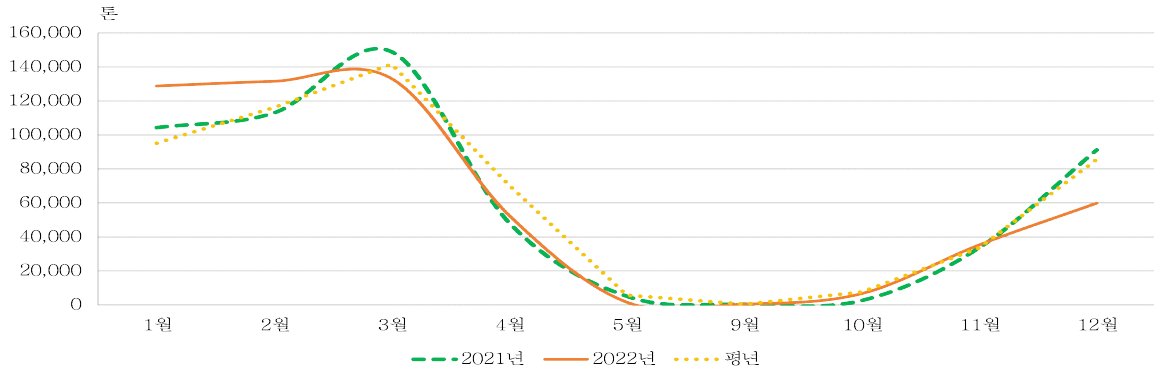
<그림 4-88> 최근 5년간 월별 양식김 출하량 추이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월별 김 생산량을 살펴보면 3, 5, 12월에는 작년 대비 생산이 줄었으나 나머지는 생산이 늘었음
 - 1월 및 2월 생산량은 전남 고흥 및 부산 등에서 생산이 양호해 작년 대비 각각 23.5%, 16.4% 많았음
 - 반면, 3월에는 황백화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생산이 원활하지 못했고, 전년 보다 생산을 조기에 종료한 어가들이 늘어 작년 대비 10.6% 적었음
 - 4월에는 어기 종료 시점이 도래했음에도 월 중순 이후까지 김 채취를 진행한 어가들이 작년에 비해 다소 많아 김 생산량은 작년 동월에 비해 9.0% 많았음
 - 5월에는 평년에 비해 김 어기가 빨리 종료됨에 따라 생산량 또한 작년 대비 크게 감소했음
 - 2023년산 어기가 시작된 2022년 10월 및 11월에는 잇바디돌김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은 작년 대비 160.8%, 5.1% 많았음
 - 그러나 일반김 생산이 본격화된 12월에는 생산량이 작년 및 평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음. 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11월 중순 이후 발생한 황백화 및 갯병 피해 영향과 함께 급격한 수온 변동으로 12월 들어 김 성장 부진 및 업체 탈락 현상이 발생하는 등 작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임

<그림 4-89> 2022년 월별 양식김 출하량 추이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154> 연도별·월별 양식김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2월	115,909	114,837	123,801	113,290	113,035	131,613	23.9	119,315	16.4	13.3
3월	120,312	143,834	163,645	131,806	148,920	133,123	24.2	144,266	-10.6	-6.1
4월	88,200	70,982	78,521	66,191	48,318	52,656	9.6	63,334	9.0	-25.2
5월	5,269	8,923	6,285	3,497	5,075	1,651	0.3	5,086	-67.5	-71.6
9월		-	-	-	396	471	0.1	434	18.9	18.9
10월	9,172	13,771	3,711	8,771	2,558	6,671	1.2	7,096	160.8	-12.2
11월	32,286	42,281	27,608	31,684	33,620	35,329	6.4	34,104	5.1	5.5
12월	73,744	81,131	87,193	94,528	91,190	59,881	10.9	82,785	-34.3	-30.0
합계	523,649	567,161	605,766	536,127	547,413	550,222	100.0	561,598	0.5	-1.1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2022년 양식김 계통출하 비중은 97.7%로 전체 생산량의 대부분이 계통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양식김의 계통 출하 비중은 작년 대비 2.0%p 늘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6.1%p 증가했음

<표 4-155> 연도별 양식김 계통출하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5개년 평균
		계	계통	389,989	503,272	520,081	485,962		
	비계통	133,660	63,890	85,685	50,165	23,105	12,844	2.3	47,138
	소계	523,648	567,162	605,767	536,127	547,413	550,221	100.0	561,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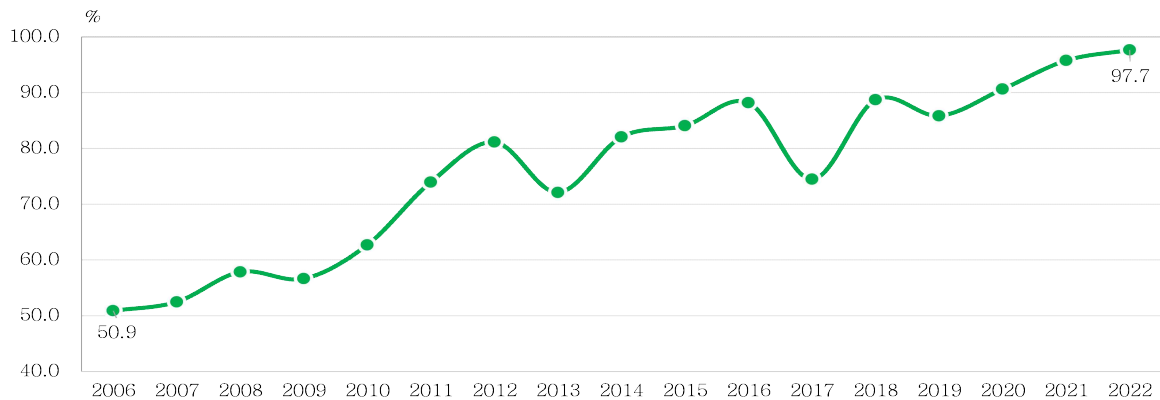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연도별 양식김 계통 출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임
 - 2006년 기준 계통 출하 비중은 50.9%로 비계통 출하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 었음. 그러나 2022년 계통 출하 비중은 2006년 대비 46.8%p 상승하여 대부분 이 계통 출하되었음

<그림 4-90> 2022년 연도별 계통 출하 비중 추이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전남지역은 양식김의 주요 산지로 생산량은 2022년 기준 42만 5,685톤으로 전체 의 77.4%를 차지했음
 - 전북 및 충남지역의 생산량 비중은 각각 6.5%, 6.2%로 비슷했으며, 다음으로 경기 4.2%, 부산은 3.1%을 차지했음
 - 한편, 인천 및 경남지역의 생산량 비중은 전체의 약 1% 내외였음

<표 4-156> 연도별·지역별 양식김 생산량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5개년 평균
부산광역시	17,168	15,320	18,989	16,606	14,440	16,987	3.1	16,468
인천광역시	2,797	2,396	4,455	6,824	6,185	6,937	1.3	5,359
경기도	19,042	18,064	26,195	28,609	25,692	23,023	4.2	24,317
충청남도	50,224	32,472	43,766	41,136	41,465	33,965	6.2	38,561
전라북도	42,787	32,828	32,978	41,458	35,132	35,807	6.5	35,641
전라남도	388,804	459,345	471,347	394,111	416,652	425,685	77.4	433,428
경상남도	2,826	6,739	8,036	7,384	7,846	7,818	1.4	7,565
합계	523,648	567,162	605,767	536,127	547,413	550,221	100.0	561,338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나. 수출입 현황

- 김은 수출액 기준, 2017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6억 달러 달성 이후 2022년에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해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의 자리를 지켰음
- 2022년 김 수출량은 전년 대비 5.8% 늘어난 약 31만 톤이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6.6% 많았음
 - 한편, 수출단가는 전년 및 평년 대비 11.6%, 12.4% 낮은 2.1달러였음
 - 수출금액은 약 6억 5천만 달러로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가 하락하면서 전년에 비해 6.5% 줄었으며, 평년보다는 11.3% 많았음
 - 한편, 수출단가는 전년 및 평년 대비 11.6%, 12.4% 낮은 2.1달러였음
- 김 수입은 수출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 수입량이 크게 늘었음
 - 2022년 김 수입량은 973톤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평년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많았음
 - 수입금액은 수입단가 하락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한 183만 달러였음

<표 4-157> 연도별 양식김 수출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

구분	수출			수입		
	물량	금액	단가	물량	금액	단가
2017년	207,612	512,779	2.5	322	824	2.6
2018년	213,248	525,444	2.5	470	944	2.0
2019년	261,603	579,108	2.2	352	897	2.5
2020년	240,739	600,129	2.5	338	861	2.5
2021년	290,516	692,782	2.4	945	1,893	2.0
2022년	307,275	647,534	2.1	973	1,829	1.9
5개년 평균	262,676	608,999	2.3	616	1,285	2.2
전년 대비	5.8	-6.5	-11.6	3.0	-3.4	-6.2
평년 대비	26.6	11.3	-12.4	100.5	68.8	-19.5

주: 1) 2022년은 잠정치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3) 수출입 중량은 마른김 및 조미김 환산 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양식김의 수출입 형태는 크게 마른김, 조미김, 기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2022년 기준 마른김 수출량은 19만 2천 톤이었으며, 전체의 6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
 - 이어 조미김 수출량은 전체의 37.3%인 11만 5천 톤이었음. 그러나 수출금액으로는 전체의 6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
 - 한편, 기타제품은 수출량 및 수출금액 기준 전체의 각각 0.3%, 0.1%로 미미한 수준이었음
- 제품별 수입량을 살펴보면, 마른김이 59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61.5%를 차지했으며, 조미김은 38.0%에 해당되는 370톤이 수입되었음
 - 수입금액으로는 마른김은 82만 달러, 조미김이 99만 달러로 각각 전체 수입액의 45.0%, 53.9%이었음
- 2022년 김 수출량 기준, 김 수출 상위 5개 국가는 중국, 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순이었으며, 이 외에도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도 수출되었음
 - 상위 5개국으로의 수출량 비중 합계는 전체 수출량 62.1%였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으로의 김 수출량은 5만 8천 톤으로 수출국 중 가장 많았으며 전체 수출량의 18.9%를 차지했음

- 이어 수출량 비중은 태국 12.6%, 미국 12.3%, 일본 10.3%, 러시아 8.0% 순이었으며,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수출 비중의 합은 11.3%였음
- 한편, 2017년 대비 2022년 김 수출량은 태국 및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량 증가폭은 세 배 이상으로 컸음
- o 2022년 김 수입은 일본이 전체의 53.0%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22.5%, 베트남 15.7% 순이었음

<표 4-158> 제품유형별 김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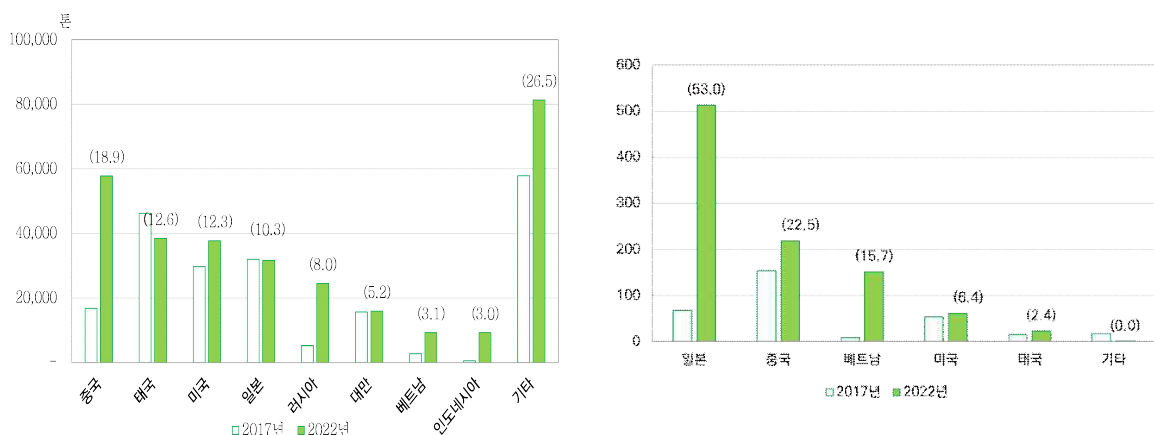
단위: 톤, 천 달러, %

명칭	HS CODE	수출				수입			
		중량	비중	금액	비중	중량	비중	금액	비중
건조	1212211010	191,920	62.5	213,347	32.9	599	61.5	823	45.0
조미	2008995010	114,575	37.3	433,428	66.9	370	38.0	985	53.9
기타	1212211090	781	0.3	759	0.1	5	0.5	21	1.1
합계		307,275	100.0	647,534	100.0	973	100.0	1,829	100.0

주: 수출입 중량은 마른김 및 조미김 환산 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그림 4-91> 국가별 김 수출입 실적(2022년 기준)

단위: 톤, %



<국가별 수출>

<국가별 수입>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다. 수급 구조

- 김 수급 구조를 살펴보면, 2022년 국내 김 공급량은 약 55만 톤으로 전년 대비 0.5% 늘었으며, 평년 대비 1.0% 적었음
 - 전체 공급량은 생산량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었음
- 김 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0년도까지 국내 소비량이 수출량보다 많았으나, 김 수출 확대로 2021~2022년에는 수출량이 국내 소비량을 넘어섰음
 - 2022년 국내 김 소비량은 전체 수요량의 44.3%인 24만 3천 톤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5.4%, 22.3% 감소했음
 - 한편, 김 수출량은 전체 수요량의 55.7%인 30만 7천 톤으로 국내 소비량보다 11.5%p 많았으며, 전년 및 평년 대비 5.8%, 26.6% 증가했음
- 2017년 김 자급률은 166%였으나 김 생산량 증가와 국내 소비 위축으로 2022년 김 자급률은 226%로 추정됨
 - 공급량의 대부분이 국내 생산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김 자급률은 100% 이상 이상 유지되고 있음

<표 4-159> 연도별 김 수급구조

단위: 톤, %

구분	공급		합계	수요		자급률
	국내생산	수입		국내소비	수출	
2017년	523,648	322	523,970	316,358	207,612	165.5
2018년	567,162	470	567,632	354,384	213,248	160.0
2019년	605,767	352	606,119	344,516	261,603	175.8
2020년	536,127	338	536,465	295,725	240,739	181.3
2021년	547,413	945	548,358	257,842	290,516	212.3
2022년	550,221	973	551,194	243,919	307,275	225.6
전년 대비	0.5	3.0	0.5	-5.4	5.8	-
평년 대비	-1.0	100.4	-1.0	-22.3	26.6	-

주: 수출입은 신선·냉장, 냉동과 같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의 경우 환산수율을 적용하여 집계한 것임

자료: 1) 생산은 통계청

2) 수출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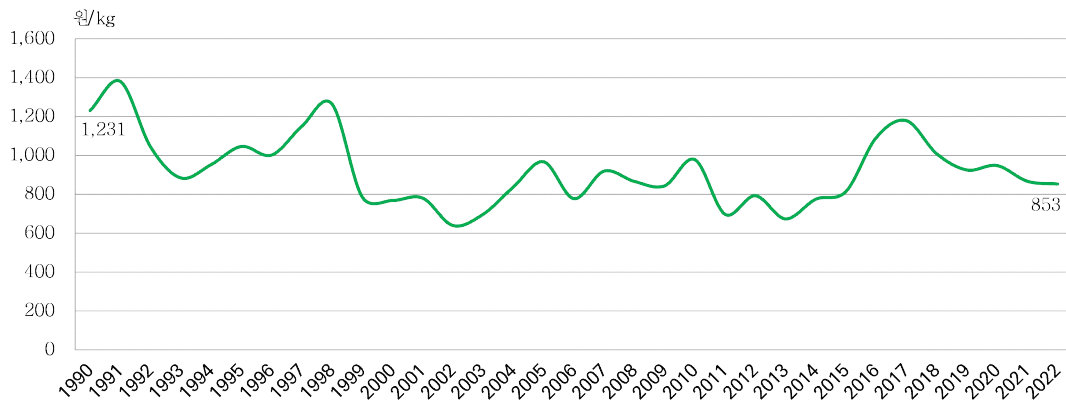
3) 국내 소비 및 자급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추정값

라. 가격 동향

1) 산지가격

- 통계청 생산량 및 생산금액 자료로 계산한 2022년 김 생산단가는 kg당 853원으로 전년 대비 1.6%, 평년보다는 17.2% 낮은 수준이었음
- 김 생산단가는 1990년 이후 연도별로 등락이 반복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1990년 대비 약 30% 낮았음

<그림 4-92> 연도별 양식김 생산단가 추이



주: 2022년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표 4-160> 연도별·월별 양식김 생산단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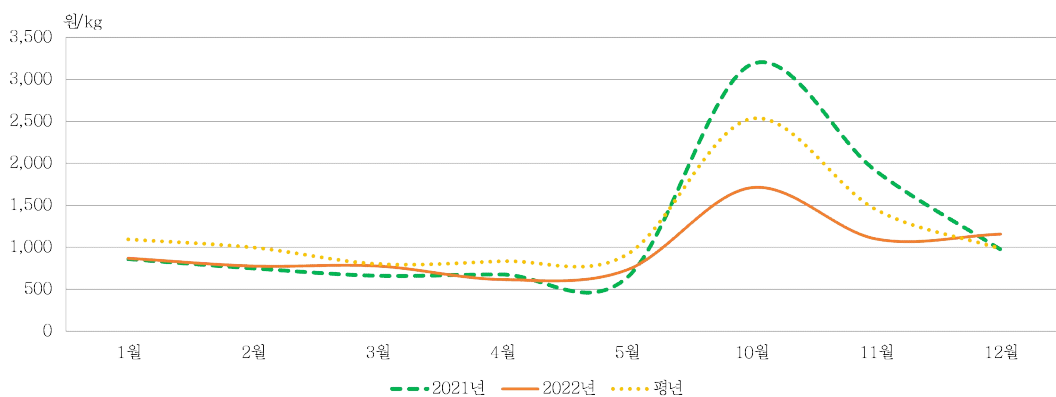
단위: 원/kg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347	1,365	974	988	894	893	1,023	-0.1	-19.8
2월	1,354	980	881	1,006	788	793	889	0.6	-26.4
3월	745	860	832	926	658	750	805	14.0	-14.0
4월	1,124	872	691	692	671	611	708	-9.0	-28.1
5월	1,423	877	833	778	589	737	763	25.1	-26.5
9월	-	-	-	-	1,041	875	958	-15.9	-15.9
10월	1,842	2,132	3,080	2,133	2,681	1,028	2,211	-61.7	-56.2
11월	1,234	907	1,810	1,265	1,856	1,766	1,521	-4.8	32.9
12월	1,375	911	945	843	981	1,494	1,035	52.3	38.6
연평균	1,179	1,009	925	948	867	853	921	-1.6	-17.2

주: 1) 천해양식어업의 김 생산단가를 기준으로 함
 2) 2022년은 잠정치임
 3)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 월별 생산단가를 살펴보면, 어기 초인 10~11월에는 가격이 다른 시기에 비해 높게 형성되나 생산이 본격화되는 12월 이후 생산단가는 계속 하락 추이를 보임
 - 어기 초 가격이 높은 것은 일반김에 비해 단가가 높은 잇바디돌김의 주 생산 시기이기 때문임
- 한편, 지역별 수협 위판실적으로 도출한 김 산지가격은 김 생산단가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며, 월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2월의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소폭 높았으며, 3월에는 김 품질 저하에도 불구하고 작년 동월 대비 생산량 감소폭이 커 전년 대비 17.6% 상승하였음
 - 4월 들어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강세를 유지했던 산지가격은 하락했음. 특히, 김품질도 좋지 못했고 이에 따른 가공업체 매수세도 감소함에 따라 전년보다 8.9% 하락했음
 - 5월에는 위판 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산지가격은 전월 대비 재상승하여 kg당 731원으로 2022년산 어기가 마무리되었음
 - 2023년산 어기가 시작된 2022년 10월 산지가격은 어기초 잇바디돌김의 작황이 호전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7%가량 낮게 형성되었고 11월에도 작년 대비 40%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음
 - 그러나 일반김이 출하되는 12월에는 작황 부진으로 전월 대비 가격이 올라 작년 동월보다 19% 정도 높았음

<그림 4-93> 2022년 월별 양식김 산지가격 추이(물김 기준)



주: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표 4-161> 연도별·월별 양식김 산지가격 동향(물김 기준)

단위: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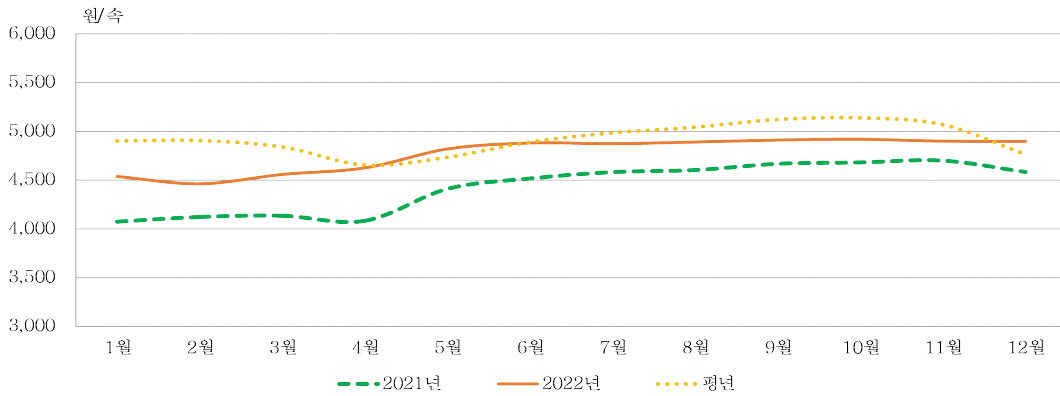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369	1,346	936	966	861	871	996	1.2	-20.5
2월	1,345	980	891	1,031	750	778	886	3.7	-22.1
3월	706	857	841	950	662	778	818	17.6	-3.1
4월	1,167	952	690	692	677	617	726	-8.9	-26.2
5월	1,423	878	853	779	637	731	776	14.8	-20.0
10월	2,378	2,077	2,907	2,121	3,180	1,710	2,399	-46.2	-32.5
11월	1,360	937	1,691	1,350	1,910	1,100	1,398	-42.4	-24.1
12월	1,365	860	906	811	974	1,158	942	18.9	17.8
연평균	1,389	1,111	1,214	1,088	1,206	968	1,117	10.9	0.4

주: 1) 연평균 가격은 월별 가격의 단순평균임
 2)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2) 도매가격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가 조사한 2022년 김 도매가격(반입가격)은 전년보다 7.7% 상승한 속당 4,772원이었으며, 평년에 비해서는 3.0% 낮았음

<그림 4-94> 2022년 월별 양식김 도매가격 추이(마른김-중품 기준)



주: 평년은 2017년~2020년의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 월별로 살펴보면, 연중 도매가격이 작년 동월보다 높게 형성되었음
 - 2022년산 어기가 종료된 5월부터 화입김(얼구운김)⁶³⁾ 반입으로 도매가격이 상승했으며, 이후에도 시장에 반입되는 물량이 전년산보다 많지 않아, 높은 가격 수준이 유지되었음

63) 얼구운김[화입(火入)김] : 마른김(수분함량 5~10%)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수분함량 4% 이하로 건조시킨 김

- 2023년산 생산 이후에도 도매가격은 작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일반김의 작황 부진으로 김 생산량이 감소해 위판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도매시장으로 반입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임

<표 4-162> 연도별·월별 양식김 도매가격 동향(마른김-중품-중도매인 구매 기준)

단위: 원/속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5,766	5,991	4,301	4,379	4,074	4,537	4,656	11.4	-7.4
2월	5,777	5,365	4,583	4,680	4,123	4,462	4,643	8.2	-9.0
3월	5,828	4,858	4,527	4,855	4,135	4,558	4,587	10.2	-5.8
4월	5,591	4,669	4,370	4,555	4,083	4,625	4,460	13.3	-0.6
5월	5,827	4,720	4,138	4,577	4,410	4,819	4,533	9.3	1.8
6월	6,096	4,940	4,258	4,640	4,517	4,880	4,647	8.0	-0.2
7월	6,193	5,015	4,374	4,764	4,582	4,873	4,722	6.4	-2.3
8월	6,358	5,040	4,443	4,773	4,603	4,890	4,750	6.2	-3.0
9월	6,544	5,079	4,524	4,799	4,667	4,910	4,796	5.2	-4.2
10월	6,615	5,030	4,569	4,800	4,681	4,918	4,800	5.1	-4.3
11월	6,362	4,916	4,567	4,801	4,700	4,899	4,777	4.2	-3.4
12월	6,120	4,238	4,455	4,429	4,583	4,897	4,520	6.8	2.8
연평균	6,090	4,988	4,426	4,671	4,430	4,772	4,657	7.7	-3.0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http://www.foc.re.kr/>)

<표 4-163> 연도별·월별 양식김 도매가격 동향(마른김-중품-중도매인 판매 기준)

단위: 원/속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6,047	7,336	6,460	6,240	6,240	5,855	6,426	-6.2	-9.4
2월	6,196	7,321	6,440	6,258	6,240	5,756	6,403	-7.8	-11.3
3월	6,360	7,135	6,431	6,254	6,226	5,712	6,352	-8.3	-11.9
4월	6,448	6,954	6,380	6,240	6,190	5,824	6,318	-5.9	-9.6
5월	6,647	6,760	6,380	6,240	6,190	5,852	6,284	-5.5	-9.2
6월	6,837	6,661	6,380	6,263	6,142	5,852	6,260	-4.7	-9.4
7월	6,880	6,740	6,356	6,360	6,140	5,852	6,290	-4.7	-9.9
8월	6,984	6,740	6,340	6,372	6,140	5,860	6,290	-4.6	-10.1
9월	7,103	6,740	6,340	6,372	6,140	5,985	6,315	-2.5	-8.5
10월	7,100	6,724	6,340	6,372	6,140	5,958	6,307	-3.0	-8.8
11월	7,159	6,764	6,340	6,310	6,140	5,992	6,309	-2.4	-8.4
12월	7,322	6,673	6,325	6,272	5,975	6,093	6,268	2.0	-6.5
연평균	6,754	6,880	6,375	6,296	6,157	5,884	6,318	-4.4	-9.4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도매시장 중도매인이 소상인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2022년 속당 5,884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4%, 9.4% 하락했음
 - 2017년 7천 원대로 상승한 도매상 판매가격은 매년 가격이 하락하여 2022년에는 5천 원 후반을 유지하였음
 - 도매가격은 산지가격과 등락의 차이는 있으나 매년 하락 추세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음

3) 소비자가격

- 김 소비자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대상 조사 가격을 활용하였음
 - 해당 조사에서는 10장을 기준으로 가격이 제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마른 김 100장인 한 속을 기준으로 환산하였음
- 2022년 마른김 소비자가격은 속당 9,280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2%, 2.9% 높았으며, 모든 월에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강세를 보였음

<표 4-164> 연도별·월별 양식김 소매가격 동향(마른김)

단위: 원/속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7,770	9,300	9,610	8,710	9,000	9,160	9,156	1.8	3.2
2월	7,960	9,330	9,610	8,670	8,950	9,160	9,144	2.3	2.9
3월	8,160	9,240	9,580	8,670	8,920	9,160	9,114	2.7	2.8
4월	8,520	9,290	9,330	8,650	8,920	9,200	9,078	3.1	2.9
5월	8,790	9,280	9,550	8,660	8,920	9,210	9,124	3.3	1.9
6월	8,840	9,460	9,370	8,730	8,940	9,280	9,156	3.8	2.3
7월	8,910	9,310	9,190	8,790	8,940	9,290	9,104	3.9	2.9
8월	8,970	9,410	8,910	8,930	8,990	9,230	9,094	2.7	2.1
9월	8,970	9,550	8,860	8,930	9,030	9,270	9,128	2.7	2.2
10월	8,970	9,570	8,870	8,920	9,000	9,270	9,126	3.0	2.3
11월	9,090	9,610	8,880	8,940	9,060	9,370	9,172	3.4	2.8
12월	9,180	9,590	8,930	8,940	9,150	9,690	9,260	5.9	5.8
연평균	8,670	9,410	9,220	8,790	8,990	9,280	9,138	3.2	2.9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얼구운김⁶⁴⁾ 기준 소비자가격은 2022년 기준 속당 16,410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1%, 6.9% 높았음
 - 얼구운김 가격은 화입 및 보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화입 전 마른김 가격보다 높게 형성됨. 화입 전 마른김 소매가격은 9,000원, 얼구운김 소매가격은 16,000원 대로 80% 정도 높았음

<표 4-165> 연도별·월별 양식김 소매가격 동향(얼구운김)

단위: 원/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개년 평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월	15,190	15,170	14,700	15,630	16,420	15,422	5.1	8.2
2월	15,220	15,180	15,110	15,280	16,400	15,438	7.3	7.9
3월	15,220	15,230	16,760	15,510	16,380	15,820	5.6	4.5
4월	15,230	14,980	14,950	16,030	16,430	15,524	2.5	7.4
5월	15,180	14,990	16,500	16,060	16,430	15,832	2.3	4.8
6월	15,030	14,880	15,260	16,130	16,550	15,570	2.6	8.0
7월	15,050	14,860	14,990	16,210	16,520	15,526	1.9	8.1
8월	15,070	14,750	14,990	16,250	16,370	15,486	0.7	7.2
9월	15,080	14,760	14,960	16,290	16,350	15,488	0.4	7.1
10월	15,030	14,760	14,940	16,460	16,310	15,500	-0.9	6.6
11월	15,010	14,690	14,810	16,500	16,370	15,476	-0.8	7.3
12월	15,030	14,750	15,350	16,500	16,370	15,600	-0.8	6.2
연평균	15,110	14,910	15,280	16,080	16,410	15,558	2.1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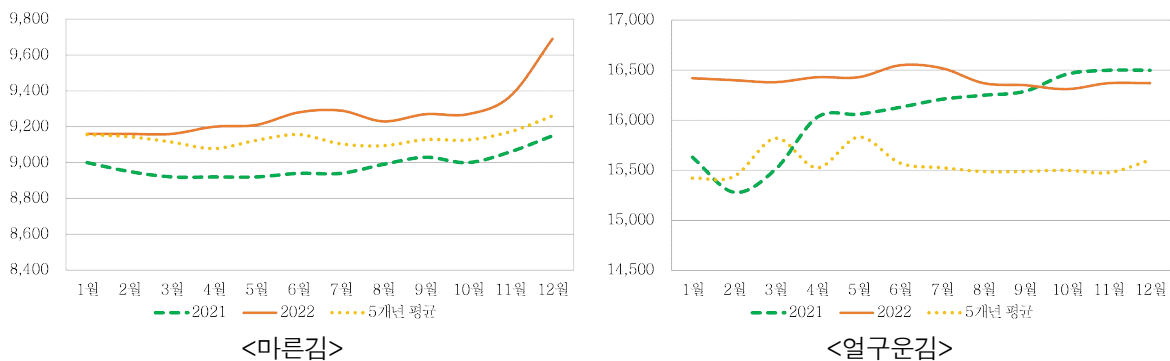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9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 2022년 마른김 소매가격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및 평년과 비슷한 추세로 11~12월에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반면 얼구운김 소매가격은 작년 및 평년과는 달리 연중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았음

<그림 4-95> 월별 양식김 소매가격 추이

단위: 원/속



주: 5개년 평균은 2018년~2022년 평균, 평년은 2017년~2021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https://www.kamis.or.kr/>)

64) 얼구운김은 도매시장 유통단계에서 여름철 마른김(수분함량 5~10%)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수분함량을 4% 이하로 건조시킨 김임

2. 양식김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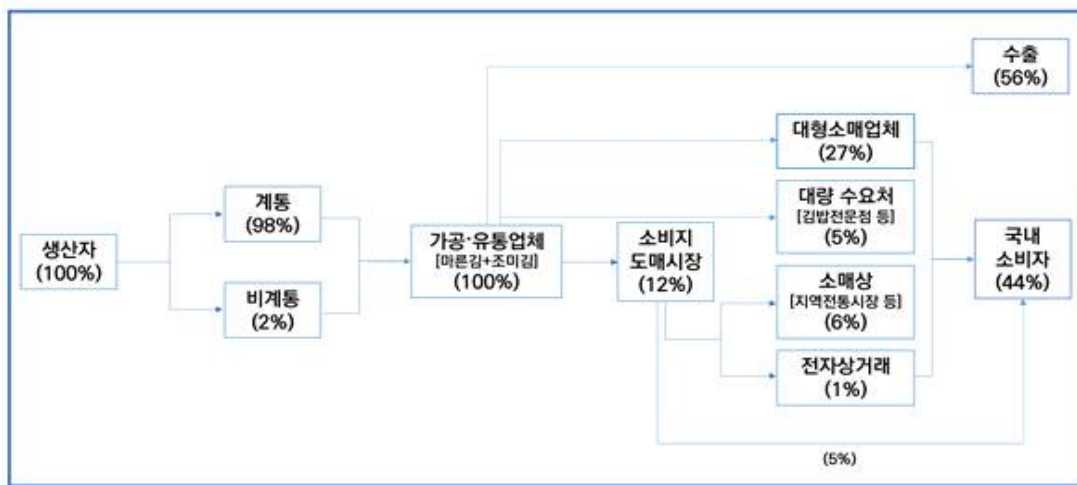
가. 유통경로

- 양식장에서 채취된 김은 채취선을 통해 산지위판장이 있는 항구로 이동하여 물김의 형태로 경매가 이루어짐
 - 2022년 기준 국내 양식 김 계통 출하 비중은 약 98%로 생산량의 대부분이 산지위판을 거쳐 유통됨
 - 지역의 산지위판장 물김 위판은 오전 11시경에 실시되며 120kg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됨
 - 낙찰된 물김은 채취선에서 크레인을 통해 양륙되어 운송차량에 적재됨. 산지 인근 1차 가공공장으로 이동하여 숙성(해수), 세척(담수), 건조 등의 생산과정을 거쳐 마른김으로 만들어짐
 - 마른김의 거래단위는 ‘속’이며, 이는 100장 260g을 기준으로 함. 마른김 1속을 생산하는데 요구되는 물김은 약 3.6kg로 생산 제품에 따라 필요한 물김의 양은 다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물김으로 유통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생산된 물김 전량이 가공업체를 통해 마른김으로 유통된다고 가정하였음
 - 양식김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생산자→산지위판장→1차 가공업체를 통해 마른김 제품 형태로 유통되거나 이후 2차 가공업체를 거쳐 조미김, 김 스낵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두 경로의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하여 이를 합쳐 이후 유통경로 및 물량 비중을 산정했음
- 국내 마른김 생산량 중 수출은 56%를 차지했으며 이를 제외한 44%가 국내 소비인 것으로 추정됨
 - 국내 소비는 대형소매업체, 소비지도매시장, 대량수요처(김밥전문점 등) 순으로 유통됨
 - 과거의 경우 1·2차 가공 단계 이후, 소비지도매시장으로 유통물량이 집중되었다가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국외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량

증가 및 대형소매점을 통한 판매 비중이 크게 늘면서 소비지도매시장으로의 유입물량은 과거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임

- 소비지도매시장으로 유통된 물량은 지역전통시장 등을 포함하는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소비지도매시장에 방문한 소비자와 직접 거래되기도 함
 - 또한 물량 중 일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됨
- 최근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자금력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산지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여 생산, 유통, 수출 전반에 관여하는 수직계열화 움직임이 늘고 있음
 - 수직계열화된 대규모 유통업체의 점유율 증가로 각 유통단계의 영세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음

<그림 4-96> 양식김의 유통경로 및 경로별 물량 비중



주: 오차범위는 5% 내외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가공업체,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나. 주요 유통단계별 물량 비중 추정

- 양식김 유통경로별 비중을 조사한 결과, 2022년 김 생산량 55만 톤 중 56%인 31만 톤이 국외로 수출되며, 44%에 해당하는 24만 톤이 국내에서 유통·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마른김의 경우 냉동창고 내 장기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간 마른김 유통 물량 추정시 재고량을 반영해야 하나 전체 재고량 파악에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재고량은 고려하지 않았음

- 생산된 물량 전체가 시중에 판매 및 수출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유통량이 실제보다 다소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내수 소비는 전년보다 수출량이 늘어 1만 5천 톤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임
- 수출량 중 62.5%에 해당되는 19만 톤가량이 마른김 형태로 수출되며, 조미김은 11만 톤으로 전체의 37.3%를 차지했음
- 국내 소비 중 유통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형소매업체로 전체 물량의 27.0%인 15만 톤 정도가 유통되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서도 2.0%p 늘었음
- 이어 김밥전문점과 같은 대량수요처는 2만 7천 톤의 물량이 유통되어 전체의 5%를 차지했으며, 전년에 비해 1.0%p 줄었음
- 소비지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경로 중 소매상 또는 소비자 직접 구매 비중은 각각 6%, 1% 비중을 차지해 6만 톤 전후의 물량이 유통되었으며,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소비지도매시장을 거쳐 인터넷·모바일 판매 등에 해당되는 전자상거래 유통은 약 1%인 5천 5백 톤 정도로 추정됨

<표 4-166> 양식김 주요 유통경로별 물량 비중 추정 결과(2022년 기준)

단위: 톤, %

구분		취급량	비율(%)
계		550,221	100.0
가공유통 업체	수출	307,116	55.8
	대형소매업체	148,561	27.0
	대량수요처(김밥전문점 등)	27,511	5.0
소비지 도매시장	소매상	34,020	6.2
	소비자 직접 거래	27,511	5.0
	전자상거래	5,502	1.0

주: 취급량 합계는 국내 생산 및 수입량을 포함

자료: 산지-도매-소매단계 관계자(수협, 가공업체, 중도매인, 수산바이어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추정치

3. 양식김 유통비용⁶⁵⁾

- 양식김의 유통경로는 제품의 형태가 비교적 단순하고 대표적인 마른김(김밥용 김)을 기준으로 유통 단계별 비용을 살펴보았음
 - 유통의 주체, 판매목적(내수용, 수출용), 제품의 가공 및 포장 형태에 따라 양식김의 유통경로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료 구매 비용 및 판매가격 또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유통단계별 비용 분석에 사용된 유통경로는 산지위판장(물김)→1차 가공업체→소비지도매시장→소매상→소비자 순임
 - 양식김 유통 비용 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된 2021년에는 추가 유통비용 산정을 위하여 화입 과정을 거친 얼구운김 대상으로만 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러나 2022년부터는 1차 가공 단계 이후 일반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마른김으로 조사 대상을 변경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마른김과 얼구운김 두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비용을 작성하였음
- 지역별 생산량 및 일반김 생산 비중을 고려하여 고흥군수협을 기준 산지로 선정하였으며, 유통비용 조사 시점은 연중 물김 생산량이 가장 많은 3월 산지 위판가격을 이용하였음
- 도매시장으로의 반입가격은 KMI 수산업관측센터 자체 조사자료 중 서울 중부시장 기준 가격, 도매시장 판매가격 및 소매가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자료를 활용했음

1) 산지 및 가공단계

- 산지위판장에서 양식김은 물김 형태로 거래되고 있으며, 산지가격은 kg당 가격으로 제시됨
 - 위판 이후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되어 유통되어 ‘속’ 단위로 거래되기 때문에 유통단계간 단위 일치가 필요함
 - 월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마른김 1속 100장 생산을 위해서는

65) 양식김 유통 비용 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된 2021년에는 추가 유통비용 산정을 위하여 화입 과정을 거친 얼구운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유통량이 가장 많은 마른김으로 조사 대상을 변경하였음

물김 3.6kg이 투입되는 것을 가정하고 비용을 계산하였음

- 또한 타 품목과의 비교를 위해 1속(260g)을 kg당 단위로 변환하였으며, 이는 도매와 소매가격 모두에 적용하였음
- 2022년 3월 고흥군 산지 위판가격은 kg당 787원으로 작년 대비 22.4% 상승했음
 - 마른김 1kg 생산에 소요되는 물김의 양은 13.85kg로 이를 계산하면 산지가격은 10,897원임. 이 중 위판수수료 4.5%를 제외한 어가 수취가격은 10,407원이었음
 - 전년 대비 어가수취가격 상승한 데에는 해당 시기에는 김 양식장 내 황백화 피해가 지속되어 생산이 원활하지 못했고, 작년보다 생산을 조기에 종료한 어가들이 많아 산지가격이 올랐기 때문임
- 마른김 가공업체의 판매가격은 kg당 17,531원으로 작년 대비 상승했으나 이윤은 1,004원으로 작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음
 - 1차 가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인건비는 kg당 1,578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작년에 비해서 110원가량 상승했음. '코로나19' 이후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광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의 경우 1,104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 전기료 상승 등으로 작년 대비 70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 운송비는 719원으로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작년 대비 50원가량 올랐음
 - 도매시장으로 반입 시 발생하는 위판 수수료는 1,052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도매시장 반입가격의 6%를 적용하였으며, 김 건조 시 사용되는 김 발장 비용 또한 작년과 동일한 kg당 577원이었음

2) 마른김⁶⁶⁾의 도매 및 소매 단계(대형소매업체 포함)

- 마른김 도매시장 판매가격은 kg당 21,968원으로 도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kg당 3,422원으로 최종 소매가격의 9.7%를 차지했음
 - 인건비를 포함한 포장비의 경우 kg당 985원이었으며, 운송비 또한 kg당 30원 소요되었음
- 마른김 소매가격은 kg당 35,229원이었는데, 이 중 소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윤

66) 2021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2년 자료로만 작성함

은 kg당 5,240원으로 최종 소매가격의 14.9%로 나타났음

- 인건비 등의 간접비의 비중이 이윤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167> 마른김의 유통비용(물김 산지 위판 → 소매업체)

단위: 원/kg, %

구분		2021년		2022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8,504	10,407	29.5		김 산지 위판 가격 → 속 기준	
물김 산지 위판장	위판수수료	401	490	1.4		산지가격의 4.5%	
	산지가격	8,905	10,897	30.9		김 산지 위판 가격 → 속 기준	
마른김 가공업체	직접비	발장 구입비	577	577	1.6	소모성 재료	
		위판 수수료	1,002	1,052	3.0		
		운송비	668	719	2.0		
	간접비	인건비	1,373	1,578	4.5		
		일반 관리비	969	1,104	3.1	수도 광열비(전기)	
		기타	652	600	1.7		
	이윤		2,546	1,004	2.9		
	판매가격(반입)		16,692	17,531	49.8		중도매인 조사가격
도매시장	직접비	포장비		985	2.8	인건비 포함	
		운송비		30	0.1		
	이윤			3,422	9.7		
	도매가격(판매)			21,968	62.4	aT 조사가격	
소매업체	간접비	인건비		3,450	9.8		
		기타		4,571	13.0		
	이윤			5,240	14.9		
	소매가격			35,229	100.0	aT 조사가격	

주: 1) 가격은 물김 생산량 비중이 높은 3월 기준임
 2) 산지가격은 지역별 생산량 및 일반김(방사무늬김) 비중을 고려해 고흥군 수협 위판 가격을 기준으로 함
 3) 주로 거래되는 김 유통 단위는 '속'이며, 모든 유통단계별 가격은 속 기준 kg당 단위로 변환한 수치임
 자료: 고흥군수협, 서울 중부시장, aT KAMIS

3) 얼구운김의 도매 및 소매 단계(대형소매업체 포함)

- 도매시장 판매가격은 kg당 24,615원으로 도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kg당 4,916원으로 소매가격의 7.8%로 작년 대비 이윤이 소폭 감소되었음
 - 도매단계에서 마른김의 장기간 보관을 위해 재건조하는 화입 과정에서 937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화입 공장 내 보관비용은 346원으로 작년과 동일했음
 - 소포장에서 발생하는 포장비용은 투입되는 방습제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985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인건비 및 부대 비용 등이 올라 작년 대비 215원 상승하였음
 - 운송비의 경우 비중은 작으나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30원이었음
- 얼구운김 기준 최종 소비자가격은 kg당 63,000원으로 작년 대비 5.6% 상승했음
 - 이는 인건비 및 기타비용, 이윤 모두 작년 대비 상승했기 때문임
 - 이윤은 최종 판매가격의 31.5%인 kg당 19,855원으로 추정됨. 산지가격 상승에 따라 가공업체와 도매시장의 이윤은 감소한 반면 소매업체의 이윤은 증가한 것으로 보임

<표 4-168> 얼구운김의 유통비용(물김 산지 위판 → 소매업체)

단위: 원/kg, %

구분		2021년	2022년		비고	
		금액	금액	비율		
생산자	어가수취가격	8,504	10,407	16.5	김 산지 위판 가격 → 속 기준	
산지 위판장	위판수수료	401	490	0.8	산지가격의 4.5%	
	산지가격	8,905	10,897	17.3	김 산지 위판 가격 → 속 기준	
마른김 가공업체	직접비	발장 구입비	577	577	0.9	소모성 재료
		위판 수수료	1,002	1,052	1.7	
		운송비	668	719	1.1	
	간접비	인건비	1,373	1,578	2.5	
		일반 관리비	969	1,104	1.8	수도 광열비(전기)
		기타	652	600	1.0	기타
	이윤		2,546	1,004	1.6	
	도매가격(반입)		16,692	17,531	27.8	중도매인 조사가격
소비지 도매시장	직접비	화입비	808	808	1.3	
		보관비용	346	346	0.5	화입 이후 해당 공장에서 보관
		포장비	769	985	1.6	인건비 포함
		운송비	27	30	0.0	
	이윤		5,304	4,916	7.8	
	도매가격(판매)		23,946	24,615	39.1	aT 조사가격
소매업체	간접비	인건비	4,963	5,300	8.4	
		기타	11,602	13,230	21.0	
	이윤		19,143	19,855	31.5	
	소매가격		59,654	63,000	100.0	aT 조사가격

주: 1) 가격은 물김 생산량 비중이 높은 3월 기준임
 2) 산지가격은 지역별 생산량 및 일반김(방사무늬김) 비중을 고려해 고흥군 수협 위판 가격을 기준으로 함
 3) 주로 거래되는 김 유통 단위는 '속'이며, 모든 유통단계별 가격은 속 기준 kg당 단위로 변환한 수치임
 자료: 고흥군수협, 서울 중부시장, aT KAMIS

Ⅰ 제5장 Ⅰ

수산물 유통지도

제1절 수산물 유통지도의 개념과 구조

제2절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지도

제5장 수산물 유통지도

제1절 수산물 유통지도의 개념과 구조⁶⁷⁾

- 수산물 유통지도와 유사한 유통지도의 형태의 자료가 작성되고는 있으나,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자료는 많지 않음
- 김수현 등(2022)은 명확하지 않은 수산물 유통지도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해석하여 수산물 유통지도를 ‘수산물의 생산(양륙)에서 소비지까지의 여러 유통단계의 정보를 기호로 평년에 나타낸 그림’이라고 조작성 정의를 내린 바 있음
- 이를 쉽게 해석해 보면 수산물을 어획하여 육상에 판매를 위해 양륙하는 시점부터 각각의 유통단계를 이해하기 쉽게 지도에 기호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개념 하에 수산물을 공급단계, 가공 및 유통단계, 소매유통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따른 지역별 유통량을 지도에 도식화하였음
- 그 과정에서 공급단계를 생산된 수산물이 양륙⁶⁸⁾되거나 수입수산물이 양륙되는 시점을 기준, 생산의 경우 지역별 양륙량을 기준으로, 수입의 경우 주요 수입 대상국에서의 물량을 도식화하였음
- 소비단계는 지역별 소비량을 도식화하였는데, 직접적으로 지역별 소비량을 산출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집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지에 위치한 도매시장 거래량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하여 도식화하였음
- 각 단계별 세부자료 중 공급단계는 연근해, 양식, 내수면어업의 지역별 생산 및 원양어업 생산량, 국가별 수입량, 재고량 등으로 구성하였음
- 가공 및 소매유통단계의 세부자료는 수산물 가공통계와 도매시장 거래량자료로 구성하였음

67) 김수현 등(2022), pp.13.-17.와 김수현 등(2023) pp.217-218.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68) 원양어업 생산물의 경우는 통계 처리의 용이함을 위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였음. 김수현 등(2022)에 의하면 수급체계 상 생산량보다는 반입량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더 정확한 수급량을 파악할 수 있음

- 소매유통단계의 경우는 국내소비, 해외수출, 이월재고정보로 구성하였으며, 국내소비는 지역별 소비량 자료를 지역별 도매시장 거래량자료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수출은 수출 대상 국가별 통계로 하위 자료를 구성하였음

<그림 5-1> 수산물 유통지도 자료 구조



자료 : 위의 책(p. 7.)을 참고하여 저자 제작성

제2절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지도

1. 데이터 분석

-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지도를 도식화하기 위한 하위 통계를 정리하여 수급통계 (<표 5-1>~<표 5-3> 참조)를 구축하였다. 작성된 수급 통계는 전년 수행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식품수급표 수급 항등식(공급 = 수요)을 이용하여 국내 소비량을 추정하였음
- 먼저 2022년 수산물 총 공급량은 6,595천 톤이었으며, 각각 생산(국내 및 원양) 3,604천 톤, 수입 2,663톤, 이월재고 328톤이었음
- 수입량의 경우 수산물 식품수급표를 작성하는 동일한 수율을 적용하여 원물의 중량을 추정하였음
- 다음으로 수요 부분은 수출이 1,349천 톤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월재고가 273톤이었음. 식품수급표의 항등식을 활용(국내소비=공급-수출-이월재고)하여 산출된 국내 공급량(소비량)은 4,973톤이었음
- 국내 공급량 4,973천 톤을 지역별 소비량은 2022년 도매시장 거래량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소비지도매시장의 분포가 모든 광역 시도 단위에 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역 구분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크게 4개 권역으로 축소했으며, 추정된 물량은 <표 5-3>과 같음

<표 5-1> 2022년 수산물 수급

(단위 : 천 톤, %)

공급		합계	수요	
이월재고	328		6,595	국내소비
생산	3,604	수출		1,349
수입	2,663	이월재고		273

주: 2022년 기준이며, 수출은 수율을 적용한 원물 환산 물량으로 수출 대상국은 상위 10개 국가만 제시했음

자료: 통계청 원업생산동향조사, aT KATI,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표 5-2> 수산물 공급단계 세부자료

(단위 : 천 톤, %)

구분	물량					
합계(100.0)	6,595					
생산 (54.6)	소계	3,604	(100.0)	광주/전라	1,949	(54.2)
	인천/경기	63	(1.7)	부산/대구/울산/경상	908	(25.2)
	강원	58	(1.6)	제주	81	(2.2)
	대전/세종/충청	145	(4.0)	원양	400	(11.1)
수입 (40.4)	소계	2,663				
	러시아	546.2		미국	63.8	
	중국	377.9		칠레	61.0	
	베트남	179.3		페루	59.7	
	노르웨이	84.0		일본	37.8	
	멕시코	67.6		대만	25.1	
이입재고(3.6)	328					

주: 2022년 기준이며, 연근해 및 원양은 생산량 기준이며, 국가별 수입은 수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임
 자료: 통계청 원업생산동향조사, aT KATI,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표 5-3> 수산물 수요단계 세부자료

(단위 :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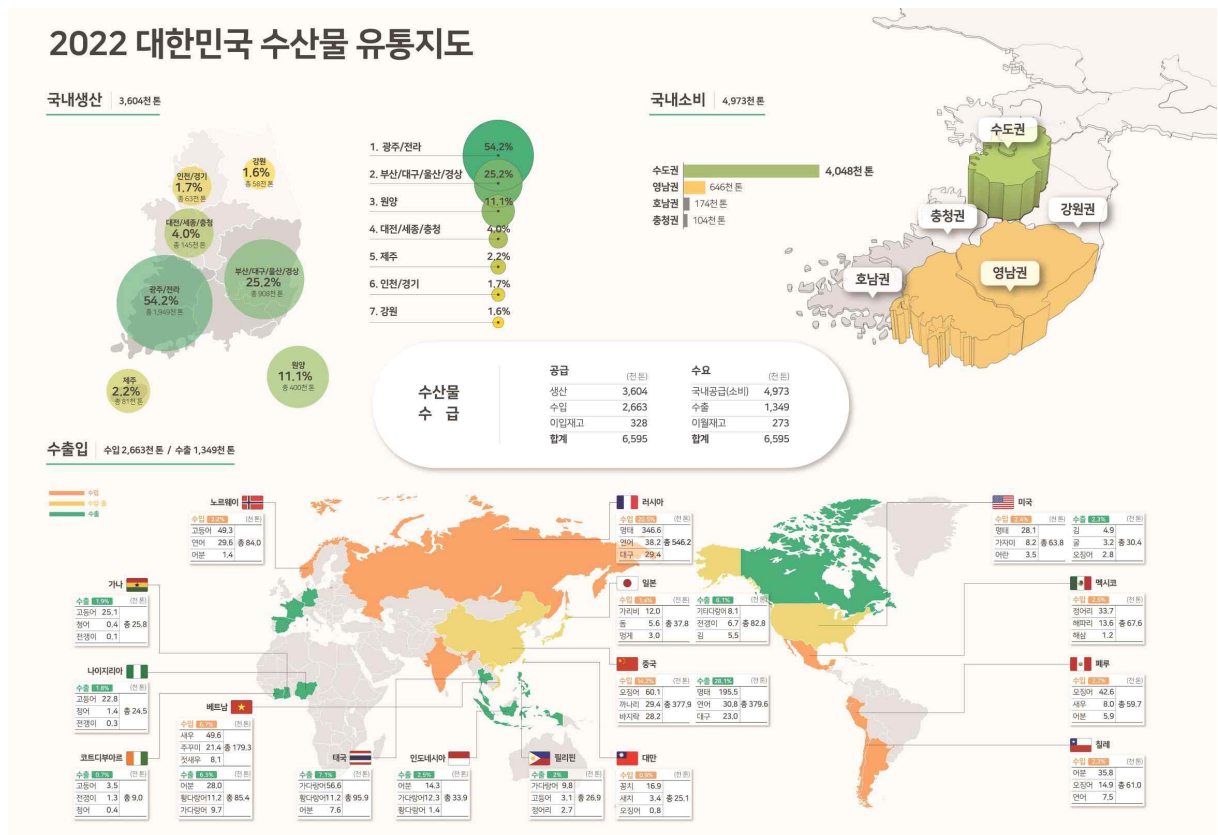
구분	물량					
합계(100.0)	6,595					
국내소비 (75.4)	소계	4,973	(100.0)			
	수도권	4,048	(81.4)	충청권	174	(3.5)
	영남권	646	(13.0)	호남권	104	(2.1)
수출 (20.5)	소계	1,349				
	중국	379.6		미국	30.4	
	태국	95.9		필리핀	26.9	
	베트남	85.4		가나	25.8	
	일본	82.8		나이지리아	24.5	
	인도네시아	33.9		코트디부아르	9.0	
이월재고(4.1)	273					

주: 1) 2022년 기준이며, 연근해 및 원양은 생산량 기준이며, 국가별 수출은 수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임
 2) 국내소비량은 도매시장 거래량을 기준으로 추정된 것임
 자료: 통계청 원업생산동향조사, aT KATI,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유통지도 작성

- <표 5-1>~<표 5-3>과 같이 분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유통지도를 작성했으며, 작성은 전년과 같이 4분면으로 구분(생산(1/4분면), 국내 소비(2/4분면), 수입 및 수출(3~4/4분면))하여 작성하였음
- 1/4분면에는 국내생산을 그 크기에 따라 구분하여 지역별로 시각화하였음
- 2/4분면에는 국내소비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개 권역으로 표현하였는데, 국내 생산과 구분하기 위해 소비량의 차이를 Hight map기법으로 표현하여,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3/4분과 4/4분면에는 세계지도를 활용하여 수출량과 수입량을 국가별로 표시하였음
- 그리고 중앙에는 전체 물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식품수급표를 작성하였음, 이를 통해 작성된 2022년 기준 수산물 유통지도가 <그림 5-2>임

<그림 5-2> 2022년 대한민국 수산물 유통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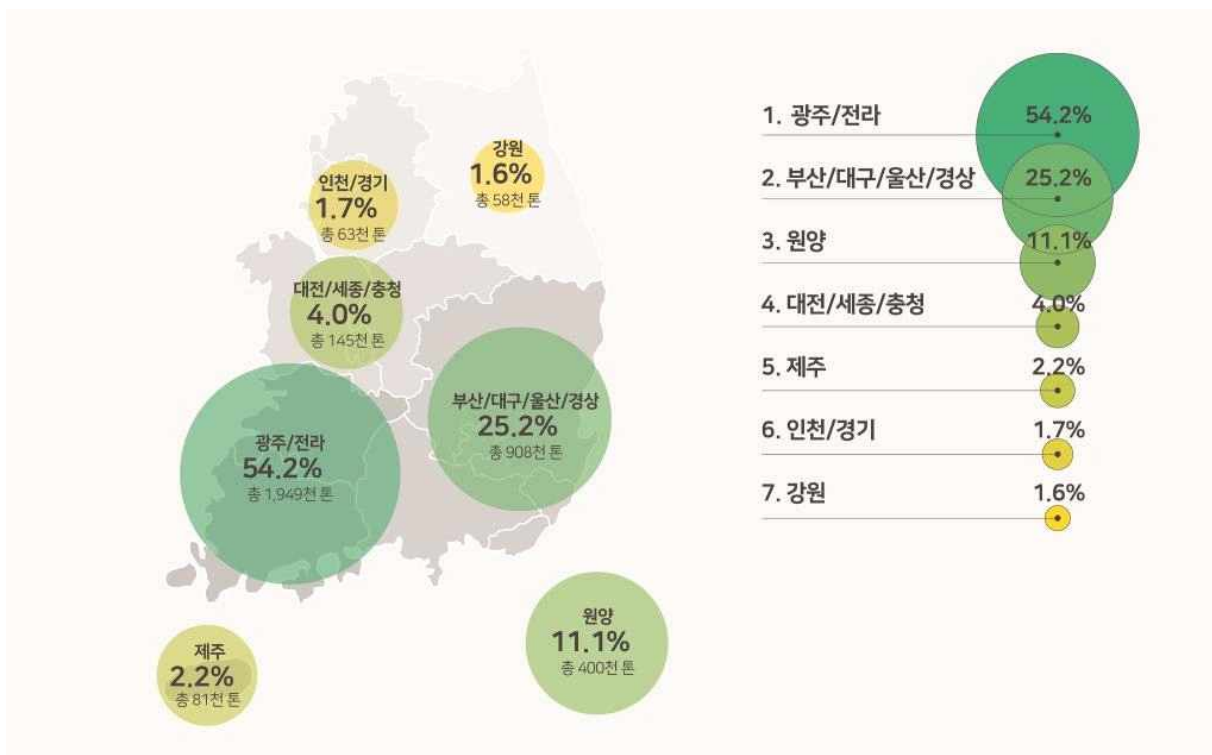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5-3> 2022년 대한민국 수산물 유통지도(수급표)

수산물 수 급	공급		수요	
		(천 톤)		(천 톤)
	생산	3,604	국내공급(소비)	4,973
	수입	2,663	수출	1,349
	이월재고	328	이월재고	273
합계	6,595	합계	6,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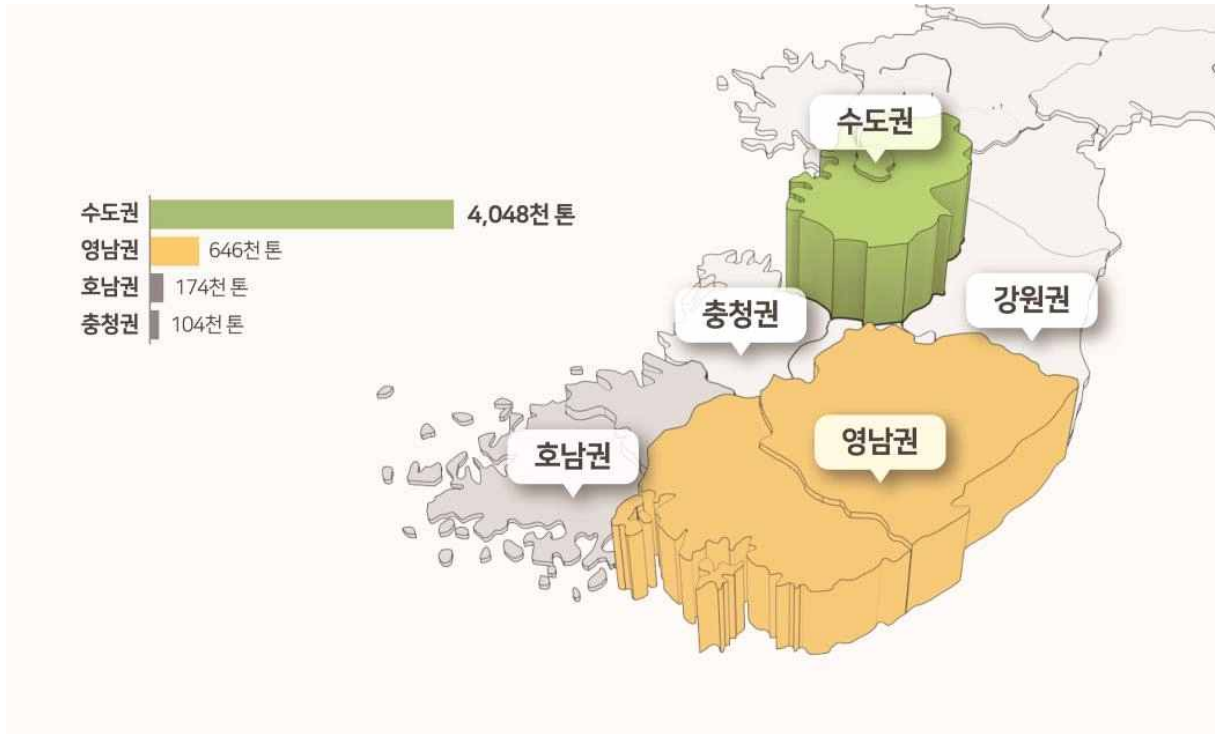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5-4> 2022년 대한민국 수산물 유통지도(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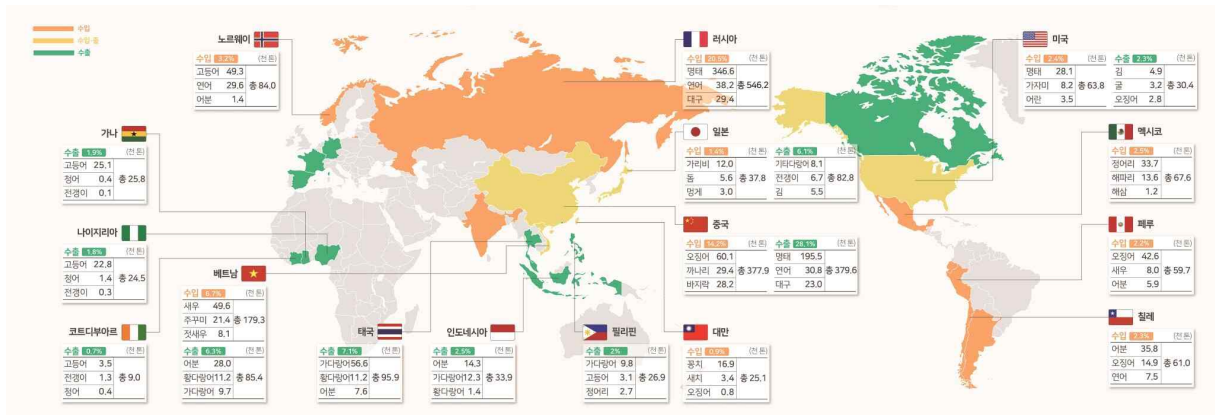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5-5> 2022년 대한민국 수산물 유통지도(소비)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5-6> 2022년 대한민국 수산물 유통지도(수출입)



자료 : 저자 작성

Ⅰ 제6장 Ⅰ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론 및 요약

제2절 실태조사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론 및 요약

1. 품목별 유통비용 조사결과 요약

가. 조사대상 품목의 유통비용

- 2023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는 주요 수산물 10개 품목에 대해 유통구조와 유통비용을 조사하였음
- ‘유통비용’은 업계나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통마진’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유통비용을 비용(직접비와 간접비)과 이윤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의 통일성을 위해 과거의 조사와 같은 기준과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사용하였음
 - 직접비 : 거래물량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양륙·배열비, 선별비, 포장재비, 운송비, 상하차비, 수수료 등
 - 간접비 : 거래량과 관계 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의 비용, 점포 유지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 이윤 : 유통비용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 상업이윤이라고도 함
- 유통비용은 품목별, 유통경로별, 상품판매형태별(선어, 냉동, 활어, 건조)로 차이가 있음
 - 본 조사에서는 각 품목별 비교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는 산지수협위판장~도매시장으로 유통되는 선어로, 명태는 냉동, 그리고 멸치는 건조품인 마른멸치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 양식수산물인 전복, 넙치, 굴은 산지 생산자~대형소매점으로 유통되는 활어로, 김은 마른김을 기준으로 조사했으며, 품목별 생산자 수취율 및 유통비용률 요약 조사 결과⁶⁹⁾는 다음과 같음

69) 생산자 수취율=(생산자수취가격/소비자가격)×100, 유통비용률=(소비자가격-생산자수취가격)/소비자가격×100

<표 6-1> 조사대상 수산물의 유통비용률 비교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생산자 수취	유통 비용	생산자 수취	유통 비용	비용별			단계별		
						직접비	간접비	이윤	산지	도매	소매
고 등 어	선어(부산→가락)	34.0	66.0	38.4	61.6	15.5	27.8	18.3	9.4	12.9	39.3
	선어(부산→서울 대형소매)	32.0	68.0	35.9	64.1	7.2	35.7	21.2	15.3	-	48.8
	냉동(부산→가락)	39.3	60.7	41.8	58.2	8.8	26.9	22.5	9.9	12.6	35.6
명 태	냉동(부산→노량진)	33.8	66.2	30.1	69.9	13.3	22.8	33.8	5.1	10.5	54.3
우 치 어	선어(구룡포→가락)	63.7	36.3	67.9	32.1	8.6	12.6	11.0	7.5	10.4	14.1
	활어(울진후포→횃집)	65.7	34.3	68.2	31.8	5.5	12.1	14.3	6.3	7.4	18.1
	선어(구룡포→서울 대형소매)	71.2	28.8	65.4	34.6	3.9	8.8	21.0	6.3	0.0	27.4
갈 치	선어(제주→노량진)	51.0	49.0	47.3	52.7	17.4	23.8	11.5	10.2	7.0	35.5
	선어(제주→서울 대형소매)	47.9	52.1	48.4	51.6	13.0	27.6	11.0	15.6	-	36.0
참 조 기	선어(목포→노량진)	55.4	44.6	62.0	38.0	13.6	13.4	11.1	11.1	9.5	17.4
	동결(제주→서울 대형소매)	59.1	40.9	75.2	24.8	10.3	6.0	8.5	14.8	0.0	10.1
마 른 멸 치	건어(부산→가락)	40.0	60.0	42.8	57.2	5.3	37.4	14.5	5.6	23.6	28.0
양 식 전 복	활어(완도→서울 대형소매)	56.3	43.7	54.9	45.1	4.6	26.9	13.6	11.5	-	33.5
양 식 넙 치	활어(제주→서울 대형소매)	32.6	67.4	29.0	71.0	19.0	40.0	12.0	0.3	4.8	65.9
	활어(제주→횃집소매)	35.3	64.7	33.6	66.4	53.9		12.5	0.3	5.6	60.5
양 식 굴	신선(통영→서울 대형소매)	41.8	58.2	40.4	59.6	10.7	24.5	22.8	1.5	30.2	27.9
양 식 김	건어(고흥→소매업체)	-	-	29.5	70.5	10.9	32.1	27.4	1.4	31.4	37.7

주: 1) 대형소매점에 입점하는 횃집은 직영과 임대가 있는데, 여기서는 횃집들이 주로 임대를 하므로 임대기준 적용
 2) 횃집의 간접비와 직접비 구분을 할 수 없어 활어 소매횃집 경로는 '직접비+간접비'로 적용

<표 6-2> 조사대상 수입 수산물의 유통비용률 비교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비용별			단계별				
	수입 원가	유통 비용	수입 원가	유통 비용	직접비	간접비	이윤	수입	도매	소매		
고등어	수입냉동 (부산→서울 소매업체)		32.7	67.3	36.3	63.7	12.1	30.9	20.7	7.3	21.7	34.7
오징어	수입냉동 (부산→가락시장)		29.9	70.1	33.4	66.6	14.0	23.8	28.7	12.2	13.1	41.3

나. 조사대상 품목의 평균 유통비용

- 조사 대상 9개⁷⁰⁾ 품목의 평균 유통비용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제) 조사대상 9개 품목의 평균 유통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과 같이 품목별 생산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⁷¹⁾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가중치 부여 기준은 품목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고등어는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의 생산량을, 갈치, 오징어, 참조기는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의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중 계통출하량을 기준으로, 마른멸치는 KMI 수산업 관측센터에서 추산한 생산량(각 수협 위판 자료)을 기준으로 하였음
 - 명태(원양산 냉동)은 명태의 원양어업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였음
 - 양식수산물인 전복, 넙치, 굴은 천해양식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되, 알굴로 대부분 유통되는 굴은 천해양식 생산량의 알굴 수율(각굴의 1/10)로 환산하였음
- (분석 결과) 조사대상에 따른 물량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유통비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생산자 수취율) 평균 생산자 수취율은 41.9%였으며, 2021년(40.7%) 대비 1.2%p 증가했음. 품목별로는 오징어 67.9%, 참조기 62.0%, 전복 54.9%, 갈치 47.3% 등은 평균 이상이었으며, 넙치 29.3%, 명태 30.1%, 고등어 38.4%, 굴 40.4%, 마른멸치 42.8% 등은 평균 이하였음
 - (유통비용률) 평균 유통비용률은 58.2%로 2021년(59.4%)에 비해 1.2%p 낮아졌음. 품목별로는 넙치 70.7%, 명태 69.9%, 고등어 61.6%, 굴 59.6%, 마른멸치 57.2%

70) 기존 결과와 비교를 위해 평균비용 산출에서는 김은 제외하였음

71) 품목별 생산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였는데, 양식김의 경우 타 품목 대비 생산량 규모가 월등히 커 가중치 기준에서 이를 제외하였음

- 등은 평균 이상이었으며, 오징어 32.1%, 참조기 38.0%, 전복 45.1%, 갈치 52.7% 등은 평균 이하였음
- (유통비용별) 2022년 조사대상 품목의 직접비는 13.6%로 2021년(13.9%)에 비해 0.3%p 하락했으며, 간접비는 2021년(28.1%)보다 0.4%p 하락한 27.7%였음. 이윤은 16.8%로 2021년(17.4%)에 비해 0.6%p 하락했음
 - 즉 2022년 조사대상 품목의 수산물 유통비용(직접비와 간접비)과 이윤은 전년 대비 감소했음
 - 이는 산지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생산자 수취율은 다소 높아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비용 상승 요인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이윤을 줄이는 형태로 유통단계에서 흡수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유통단계별) 2022년 조사대상 품목의 산지 유통비용률은 7.0%로 2021년(7.8%)에 비해 0.8%p 줄었음. 그러나 도매단계는 2021년(14.4%)보다 2.3%p 낮은 12.1%였으며, 소매단계는 38.9%로 2021년(37.2%)에 비해 1.7%p 높아졌음
 - 2022년 조사대상 품목의 수산물 유통단계별 유통비용의 경우 산지 및 도매 단계에서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소매단계는 증가했음. 산지 및 도매단계의 비용 감소는 직간접비 하락이 아닌 이윤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추가분석) 본 조사의 대상품목은 가공단계가 다양하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함. 따라서 전년에 이어 선어와 활어로 구분하여 유통비용을 추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생산자수취율 및 유통비용률) 가공단계별로 분석하면, 선어의 생산자 수취율이 45.1%로 활어(37.6%)보다 높고, 유통비용률은 활어(62.4%)가 선어(54.9%)보다 높았음. 즉 활어의 유통비용이 선어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한편, 2021년에 비해서는 선어와 활어 모두 유통비용률이 낮아졌음
 - (유통비용별) 선어의 경우 직접비는 다소 상승했으나 간접비는 비슷했고 이윤이 낮아졌음. 활어는 유통비용 증가(+3.5%p) 대부분이 직접비 증가(3.1%p)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접비도 소폭(0.5%p) 상승했음
 - (유통단계별) 선어의 경우 전년 대비 산지와 도매단계의 유통비용률은 감소했으나 소매단계에서 증가하였으며, 활어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단계의 유통비용률이 증가했음

<표 6-3> 9개 품목 수산물 적용 가중치

구분		고등어 (선어)	명태 (원양)	오징어 (선어)	갈치 (선어)	참조기 (선어)	마른 멸치	전복 (활어)	넙치 (활어)	굴 (신선)	김 (건조)	합계
가중치	22년 생산량	110,795	21,591	17,414	36,600	15,182	26,251	22,078	45,884	30,069	-	325,869
산정기준	적용 가중치	0.340	0.066	0.053	0.112	0.047	0.081	0.068	0.141	0.093	-	1.000

주: 1) 생산자 수취율 및 유통비용률은 산지에서 서울 도매시장 유통경로 기준임. 단, 양식전복, 양식넙치, 양식굴은 산지에서 대형소매점 기준임
2) 가중치는 7개 품목의 생산량(고등어(망치고등어 제외), 오징어, 갈치, 참조기는 계통 출하량, 마른멸치는 KMI 수산업관측센터 생산량, 명태는 원양산 및 냉동명태 반입량, 양식전복, 넙치, 굴은 양식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함. 단, 굴은 알개로 환산하였음

<표 6-4> 조사대상 9개 품목의 유통비용 구조와 가격

단위: %, 원/kg

구분	생산자 수취율	유통비용율							가격		
		비용별			단계별				생산자	소비자	
		직접비	간접비	이윤	산지	도매	소매				
고등어	38.4	61.6	15.5	27.8	18.3	9.4	12.9	39.3	4,432	11,553	
명태	30.1	69.9	13.3	22.8	33.8	5.1	10.5	54.3	1,619	5,381	
오징어	67.9	32.1	8.6	12.6	11.0	7.5	10.4	14.1	17,870	26,303	
갈치	47.3	52.7	17.4	23.8	11.5	10.2	7.0	35.5	12,819	27,114	
참조기	62.0	38.0	13.6	13.4	11.1	11.1	9.5	17.4	13,532	21,815	
마른멸치	42.8	57.2	5.3	37.4	14.5	5.6	23.6	28.0	10,275	23,997	
전복	54.9	45.1	4.6	26.9	13.6	11.5	-	33.5	27,200	49,525	
넙치	29.0	70.7	19.0	40.0	12.0	0.3	4.0	65.9	14,595	49,833	
굴	40.4	59.6	10.7	24.5	22.8	1.5	30.2	27.9	11,656	28,840	
김	29.5	70.5	10.9	32.1	27.4	1.4	31.4	37.7	10,407	35,229	
수산물 평균 (가중치 적용)	41.9	58.2	13.6	27.7	16.8	7.0	12.1	38.9	-	-	
추가 분석	선어	45.1	54.9	15.1	24.3	15.6	9.5	11.2	34.2	-	-
	활어	37.6	62.4	14.3	35.7	12.5	3.9	3.1	55.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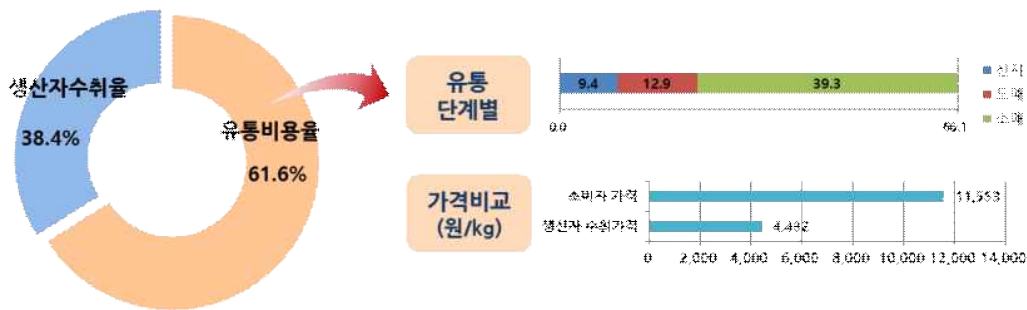
주: 추가분석 중 '선어'는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이며, '활어'는 전복, 넙치이며, 가중치를 적용함

2. 품목별 유통비용 구조

가. 고등어

- 고등어 선어를 대상으로 산지(부산공동어시장)에서 서울 가락시장 및 대형소매점을 경유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유통비용을 조사했으며, 2021년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6-1> 고등어의 유통비용 구조(선어, 부산→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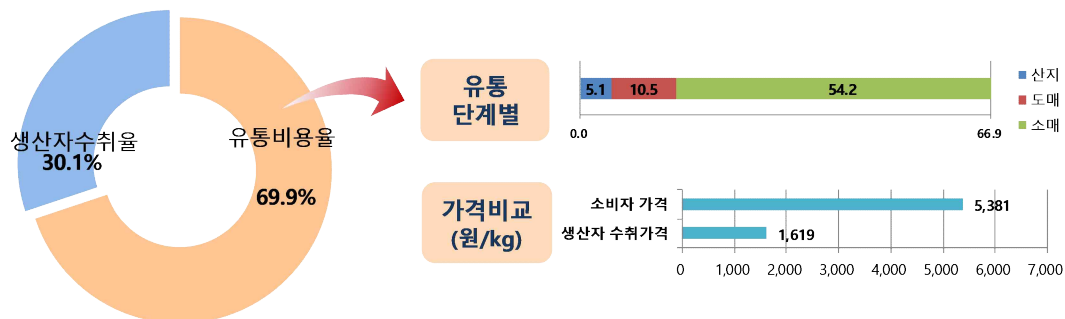
- (생산자 수취율) 생산자 수취율은 21년 대비 각각 4%p 내외 상승했음. 이는 22년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특히 중·대형어 생산감소 커서 산지가격 상승폭이 컸기 때문임
 - 서울 가락도매시장 경로의 생산자 수취율은 38.4%로 2021년(34.0%)에 비해 4.4%p 상승했으며, 대형소매점 경로의 생산자 수취율은 35.9%로 2021년(32.0%)에 비해 3.9%p 상승했음
- (원인분석) 고등어(선어) 산지가격은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주 소비 규격인 중·대형어 생산량 감소가 많아 2021년에 비해 31% 상승했으며, 산지가격 상승 및 유통비용 증가로 소비자가격도 2021년 대비 소매상과 대형소매점에서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기 때문임
 - 각 유통단계의 유통비용은 상승했으나, 중·대형어 생산 감소에 따른 어가수취가격 상승으로 인해 유통비용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산지 위판장→소비지 법정(공영) 도매시장 기준)
 - (산지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양륙 배열비(38.6→39.7원/kg), 위판수수료(위판

- 액에 따른 정률적 변동), 어상자대(140.0→150.0원), 주간부너반(68.6→70.6원), 기타 노임(92.2→94.2원), 산지 중도매인 수수료(낙찰액에 따른 정률적 변동)
- (도매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경매 수수료(경매가격에 따른 정률적 변동), 물류비(13.0→15.0원/kg), 간접비(863.9원→902.8원/kg), 이윤(판매가격에 따른 정률적 변동)
- (소매단계) 직접비(330.0→348.2원), 간접비(1,957.0→2,068.6원), 이윤(판매가격에 따른 정률적 변동)

나. 명태

- 명태는 국내 원양선사 혹은 합작 수입 명태를 대상으로 유통비용을 조사했으며, 2021년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그림 6-2> 명태의 유통비용 구조(냉동, 부산→노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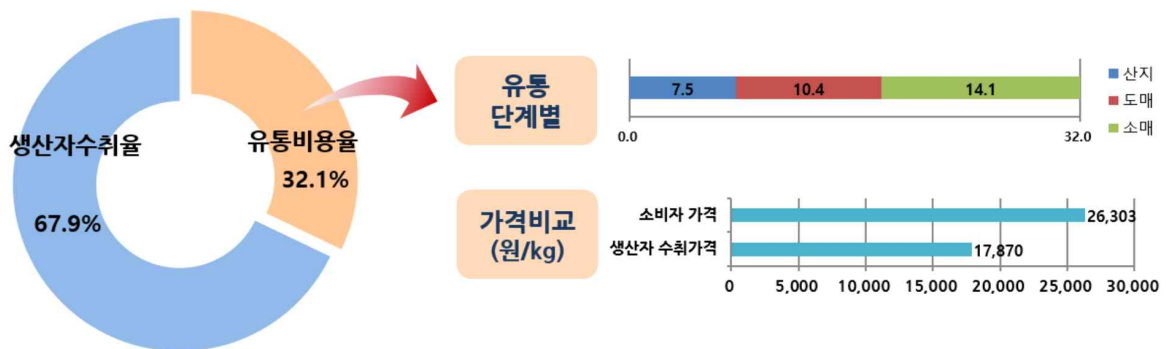
- (생산자 수취율) 생산자 수취율은 2021년 33.8%에서 2022년 30.1%로 3.7%p 하락함
 - 생산자(원양 및 합작수입업자) 가격은 2022년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2021년 1,170.7원/kg에서 2022년 1,619.0원/kg으로 38.3% 상승했으며, 소매가격(소비자 소매상)은 2022년 5,381.0원/kg으로 55.3% 상승함
- (원인분석) 유가 급등으로 생산비용 자체가 전년비 크게 상승하였으며,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우’사태로 명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이 급등했음. 또한 인건비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각 단계의 직·간접비가 상승했음

- (원양선사 유통비용 상승 항목) 육상운반비(10.2→12.2원/kg), 하차비(9.1→9.5원/kg), 창고입고비(9.5→9.9원/kg), 위판수수료(위판액에 따른 정률적 변동)
- (1차 도매업자의 비용 상승 항목) 출고비(10.3→10.8원/kg), 상차비(8.4→8.8원/kg), 운송비(74.4→89.3원/kg), 간접비(68.4→78.7원/kg),
- (소비자 도매) 상·하차비(14.4→15.1원/kg), 운반비(19.3→22.2원/kg), 간접비(213.3→256.0원/kg), 이윤(88.6→708.4원/kg)
- (소비자 소매상) 물류비(220.0→253.0원/kg), 간접비(780.0→892.5원/kg), 이윤(432.3→645.7원/kg)

다. 오징어

- 오징어는 산지(경북 구룡포)에서 서울의 대형소매점과 가락동 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비용을 조사했으며, 그 내용과 원인은 다음과 같음

<그림 6-3> 오징어의 유통비용 구조(선어, 구룡포→가락)



- (생산자 수취율) 생산자 수취율은 구룡포→가락동 수산물 도매시장(선어)의 경우 상승한 반면, 구룡포→대형소매점(선어)은 하락했음
 - (가락동 도매시장 경유) 생산자 수취율은 2021년 63.7%에서 2022년 67.9%로 4.2%p 상승함
 - (대형소매점 경유) 생산자 수취율은 2021년 71.2%에서 2022년 65.4%로 5.8%p 하락함
- (원인분석) 생산량 감소로 산지가격이 상승하였고 소비자 소매상을 제외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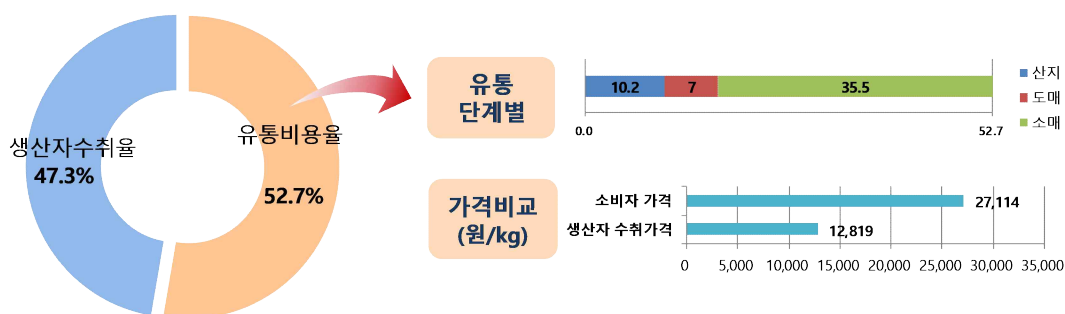
부분 유통 단계의 이윤은 증가했음

- (가락동 도매시장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 위판수수료(위판액에 따른 정률적 변동), 산지 중도매인의 운반비(33.3→55.0원/kg)·상차비(50.0→55.0원/kg)·운송비(266.7→333.3원/kg), 소비지 도매시장의 하차비(28.5→30.0원/kg)·경매수수료(위판액에 따른 정률적 변동), 소비지 중도매인 상하차비(28.5→30.0원/kg)·간접비(931.2→980.2원/kg), 소비지 소매상의 직접비(184.2→193.4원/kg)·간접비(2,216.0→2,326.8원/kg)
- (대형소매점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 위판수수료(위판액에 따른 정률적 변동), 산지 중도매인의 운반비(33.3→55.0원/kg)·상차비(50.0→55.0원/kg)·운송비(255.0→335.8원/kg)·중도매인 수수료(493.0→691.3원/kg), 대형소매점 간접비(2,307.0원/kg→2,422.4원/kg)

라. 갈치

- 갈치는 산지(제주)에서 서울의 노량진 도매시장 및 대형소매점을 경유하는 경로를 대상으로 유통비용을 조사했으며, 2021년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6-4> 갈치의 유통비용 구조(선어, 제주→노량진)



- (생산자 수취율) 생산자 수취율은 서울 대형소매점으로 경유하는 경우 소폭 상승했으나, 노량진 수산시장을 경유하는 경로는 하락했음
 - 서울 대형소매점을 경유하는 경로는 2021년 47.9%에서 2022년 48.4%로 0.5%p 상승함
 - 노량진 수산시장을 경유하는 경로는 2021년 51.0%에서 2022년 47.3%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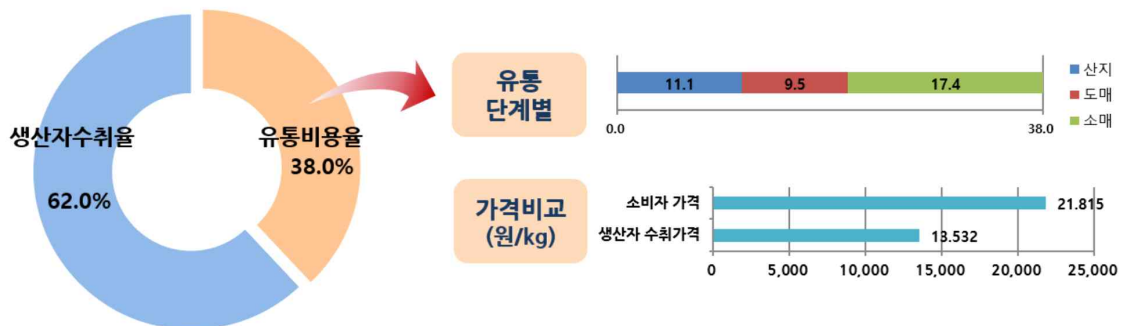
2.7%p 하락함

- (원인분석) 2021년 대비 생산 감소로 산지의 갈치(선어) 가격이 상승했으며, 상대적으로 유통단계가 적은 대형소매점은 유통비 및 인건비 상승 영향을 적게 받았으나, 노량진 수산물시장을 경유하는 경로는 유통단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 및 간접비(인건비, 금리 등) 상승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됨
 - 산지의 가격 상승(위판가격 기준)은 2021년 12,652원/kg에서 2022년 12,819원/kg으로 1.3% 상승함
 - (노량진 도매시장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중도매인의 어상자대(346→370원/kg)·박스작업비(120→140원/kg)·기타 경비(350→370원/kg), 소비자 중도매인의 하차비(37→38원/kg)·운반비(70→75원/kg)·상차비(62→65원/kg)·간접비(730→767원/kg), 소비자 소매상의 직접비(372→379원/kg)·간접비(5,410→5,680원/kg)
 - (대형소매점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 중도매인의 어상자대(346→370원/kg)·박스비(86→102원/kg)·인건비(1,500→1,553원/kg), 대형소매점의 간접비(6,938→7,305원/kg)

마. 참조기

- 참조기는 산지(제주, 목포)에서 서울의 대형소매점과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유통비용을 조사했으며, 그 내용과 원인은 다음과 같음

<그림 6-5> 참조기의 유통비용 구조(선어, 목포→노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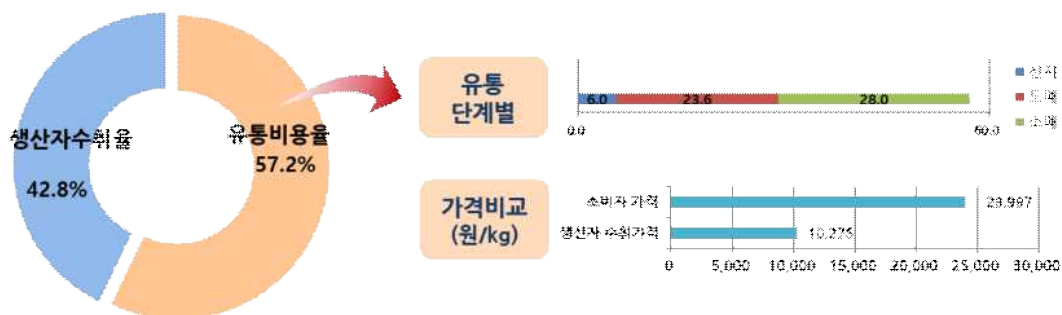


- (생산자 수취율) 생산자 수취율은 두 경로 모두 2021년 대비 상승했음
 - (노량진 수산시장 경유: 선어) 생산자 수취율은 2021년 55.4%에서 2022년 62.0%로 6.6%p 상승함
 - (대형소매점 경유: 선어→동결) 생산자 수취율은 2021년 59.1%에서 2022년 75.2%로 16.1%p 상승함
- (원인분석) 2022년 참조기 산지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상승했으며, 산지 및 소비지 시장에서의 직접비 및 간접비 상승에도 정부비축물량 방출 및 대형소매점 할인행사로 소비자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생산자 수취율이 상승했음
 - (노량진 도매시장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 위판장의 양륙비(160→251원/kg)·어상자대(60→68원/kg)·위판수수료(위판액에 따른 정률적 변동), 산지중도매인의 얼음비(33→40원/kg)·작업노임비(107→113원/kg)·운송비(133→200원/kg), 소비지 중도매인의 운반비(37→40원/kg)·상차비(23→24원/kg)·간접비(819→861원/kg), 소비지 소매상의 직접비(192→196원/kg)·간접비(1,960→2,058원/kg)
 - (대형소매점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 위판장의 어상자대(133→152원/kg)·위판수수료(위판액에 따른 정률적 변동), 산지 중도매인 수수료(위판액에 따른 정률적 변동)

바. 마른멸치

- 마른멸치는 산지(부산·경남지역)에서 서울 가락시장을 경유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유통비용을 조사함

<그림 6-6> 마른멸치의 유통비용 구조 (건어, 부산→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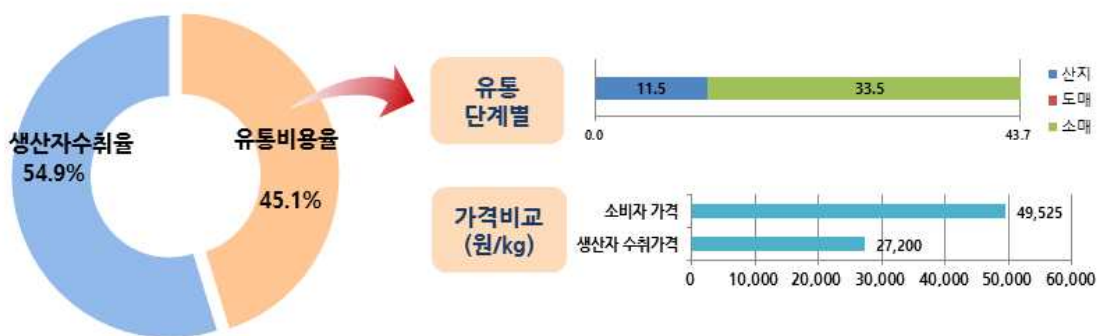


- (생산자 수취율) 생산자 수취율은 '21년 40.0%에서 '22년 42.8%로 2.8%p 상승했음
- (원인분석) 2022년 멸치 산지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2021년보다 상승했으며, 소비자가격은 산지가격 증가폭 보다 상승폭이 적었음
 - (소비자 도매시장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 위판장 하륙 및 하차입고비(99.5→100.3원/kg), 산지 중도매인 상하차비(54→55원/kg)·입출고비(45→46원/kg)·냉동보관료(5→6원/1일)·운송비(160→170원/kg), 소비자 중도매인 물류비(100→120원/kg)·간접비(3,856→4,016원/kg), 소비자 소매상 직접비(518→544원/kg), 소비자 소매상 간접비(4,606→4,868원/kg)

사. 양식전복

- 양식전복은 주산지인 완도에서 서울 대형소매점의 경로를 대상으로 유통비용 조사를 실시했음
- (생산자 수취율) 2022년 양식전복의 생산자 수취율은 전년(56.3%) 대비 1.4%p 하락한 54.9%였음
 - 산지 유통비용율은 2022년 11.5%로 2021년(11.4%)과 비슷했음
 - 대형소매점의 유통비용율은 2022년 33.5%에서 2021년 32.3%보다 1.2%p 상승했음

<그림 6-7> 양식전복의 유통비용 구조(활어, 완도→대형소매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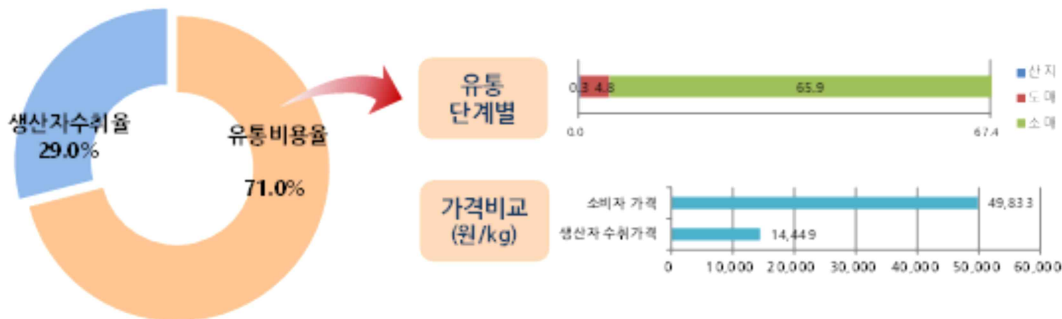
- (원인분석) 2022년 전복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했으나, 산지수집상의 직·간접비용 및 이윤 상승과 더불어 대형소매업체의 간접비와 증가로 소비자 가격이 더욱 크게 상승하면서 생산자 수취율이 하락했음

- (대형소매점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수집상 인건비(1,387→1,610원/kg)·전력비(285→335원/kg)·운반비(316→355원/kg)·간접비(2,430→2,780원/kg)·이윤(582→630원/kg), 대형소매업체 단계의 간접비(8,514→10,520원/kg), 이윤(5,676→6,095원/kg)

아. 양식넙치

- 양식넙치는 산지(제주)에서 서울의 대형소매점 경로를 대상으로 유통비용을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과 원인은 다음과 같음

<그림 6-8> 양식넙치의 유통비용 구조(활어, 제주→대형소매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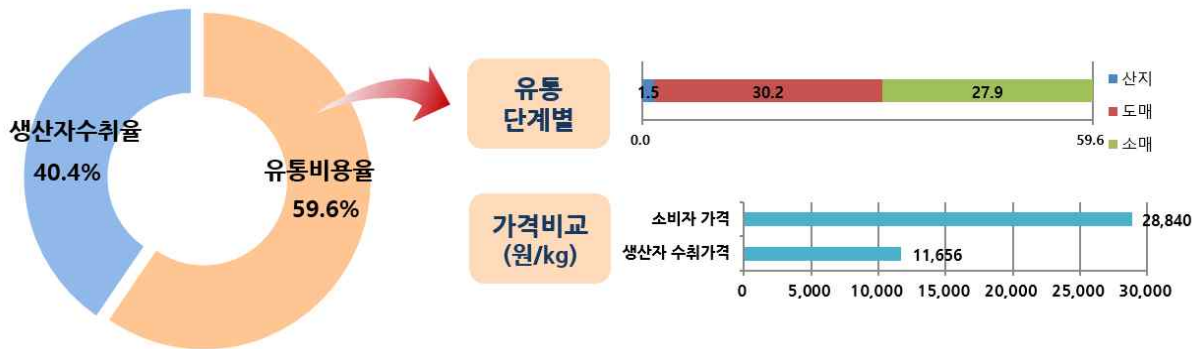


- (생산자 수취율) 생산자 수취율은 2022년 29.0%로 2021년 30.3%보다 1.3%p 하락함
 - 출하 가능한 물량 증가에 따른 산지가격 하락 영향으로 생산자 수취율이 낮아졌음
- (유통단계별 유통비용율) 유통단계별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대형소매점에서의 유통비용율이 가장 높았음
 - 도매단계 유통비용율은 4.0%, 대형소매점 유통비용율은 65.9%
- (원인분석) 2022년 광어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소매유통단계의 직접비, 간접비를 포함한 이윤이 상승함. 고물가 등으로 소비자가격이 동반 상승했지만, 산지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자 수취율은 오히려 소폭 낮아졌음
 - (대형소매점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 위판수수료(위판액에 따른 정률적 변동), 산지수집상 간접비(761→792원/kg), 도매상 간접비(617→602원/kg), 대형소매점 간접비(16,400→18,536원/kg)·이윤(4,544→5,000원/kg)

자. 양식굴

- 양식굴은 산지(통영)에서 서울의 대형소매점 경로를 대상으로 유통비용을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과 원인은 다음과 같음

<그림 6-9> 양식굴의 유통비용 구조(신선, 통영→대형소매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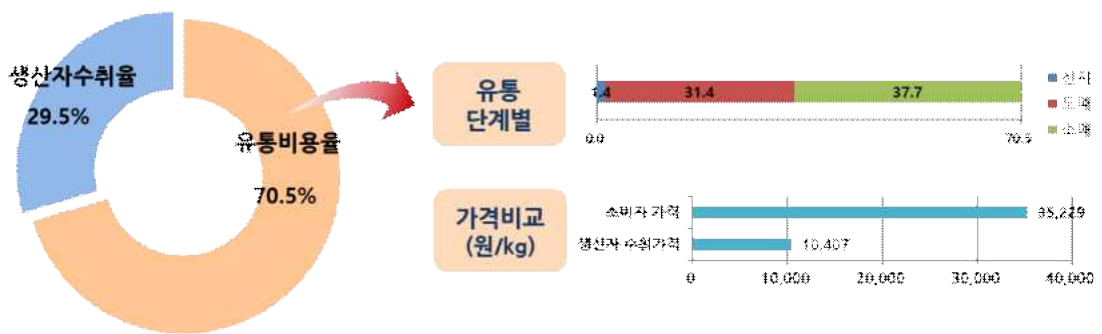


- (생산자 수취율) 생산자 수취율은 2021년 41.8%에서 2022년 40.4%로 1.4%p 하락함
- (유통단계별 유통비용율) 유통단계별로는 도매단계의 유통비용율이 30.2%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대비 도매단계 비용율은 상승했고, 소매단계는 하락함
 - (산지의 유통비용) 산지의 유통비용율은 1.5%
 - (도매의 유통비용) 도매의 유통비용율은 30.2%
 - (소매의 유통비용) 대형소매점의 유통비용율은 27.9%
- (원인분석) 2022년 굴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도·소매 단계의 직접비, 간접비 및 이윤이 상승 등으로 소비자가격이 더욱 크게 상승함에 따라 생산자 수취율이 하락했음
 - (대형소매점 경유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 위판수수료(산지가격 상승에 따른 정률적 변동), 산지 도매단계 물류비(835→1,122원/kg)·포장비(1,364→1,767원/kg)·얼음비(178→208원/kg)·간접비(인건비 포함)(3,887→4,574원/kg)·이윤(919→1,040원/kg), 대형소매점 간접비(2,214→2,517원/kg)·이윤(5,231→5,533원/kg)

차. 양식김

- 양식김은 마른김을 대상으로 산지(고흥)에서 대형소매점을 포함한 소매업체 경로의 유통비용을 조사하였으며, 2022년 조사대상 변경으로 전년도와는 비교는 불가함

<그림 6-10> 양식김의 유통비용 구조(건어, 고흥→소매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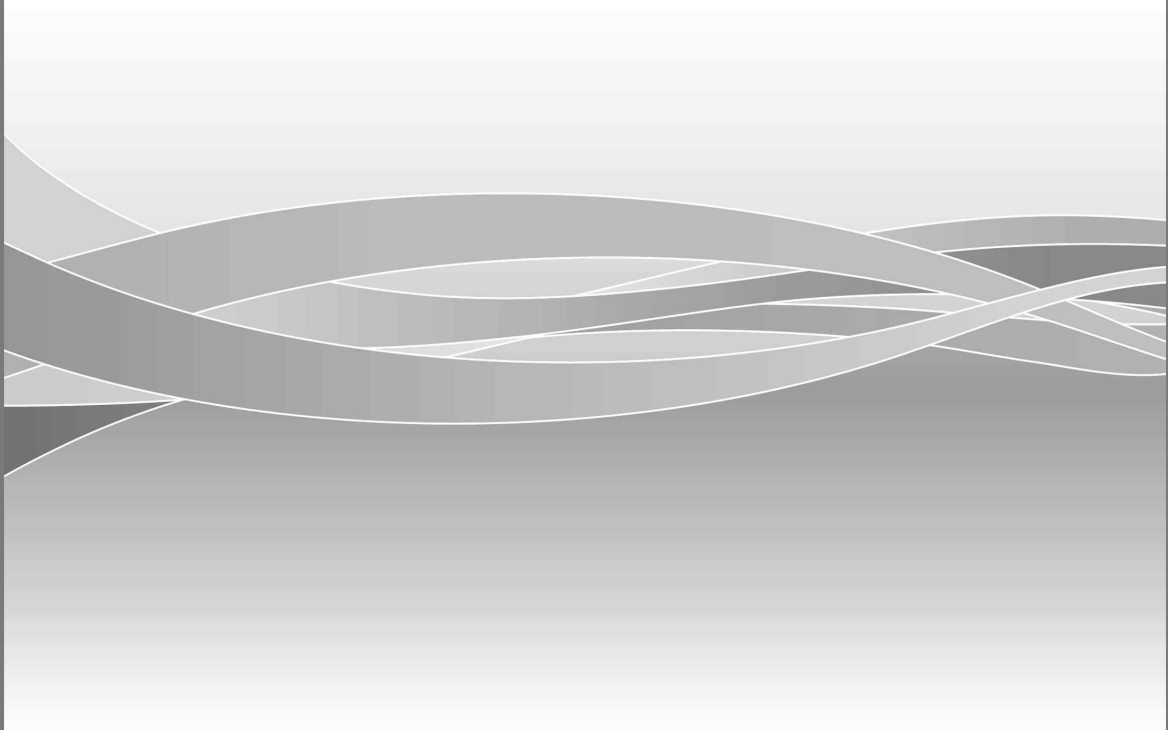
- (생산자 수취율) 생산자 수취율은 29.5%, 유통비용율은 70.5%였음
- (유통단계별 유통비용율) 유통단계별로는 소매단계의 유통비용율이 가장 높았음
 - (산지의 유통비용) 산지의 유통비용율은 1.4%
 - (도매의 유통비용) 도매의 유통비용율은 31.4%
 - (소매의 유통비용) 소매의 유통비용율은 37.7%
- (원인분석) 2022년 물김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했고 소비자가격 또한 크게 상승함에 따라 생산자 수취율은 전년 대비 상승함
 - 그러나 도매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도매 단계의 직·간접비 증가로 이윤 감소가 불가피했음
 - (소매업체 경로의 유통비용 상승 항목) 산지 위판수수료(산지가격 상승에 따른 정률적 변동), 가공 도매단계 운송비(668→719원/kg)·인건비(1,373→1,578원/kg)·일반관리비(969→1,104원/kg), 도매단계 포장비(인건비 포함) (769→985원/kg)·운송비(27→30원/kg), 대형소매점 인건비(4,963→5,300원/kg)·간접비(11,602→13,230원/kg)·이윤(19,143→19,855원/kg)

제2절 실태조사 시사점

- 2022년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는 수산물의 유통환경 변화, 수산물 수급현황 및 유통산업 구조를 파악한 후, 주요 수산물 10개 품목에 대한 유통 경로 및 유통비용 등의 실태를 파악하였음
 -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 품종은 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등 주요 대중성 어종 6개와 전복, 넙치, 굴, 김의 주요 양식품목 4개였음
- 이번 수산물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인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소비행태’, ‘유통현황’ 및 ‘유통비용’ 등 세 분야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소비행태)** 온라인 소비 지속적 증가,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니즈 강화
 - 본 연구의 대상기간인 2022년의 경우 전년에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산물의 온라인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었음. 이러한 추세는 1인 가구 증가 및 유통 물류 여건 개선에 따른 결과이기도 함
 - 또한 온라인을 통한 수산물 소비는 기존의 원물 및 단순 가공품에서 신선(회), 밀키트, 간편식, 조리식품 등으로 다양화되었음
 -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소비할 수 있는 가공품의 개발 및 지원과 신선식품의 온라인 배송시 신선도 유지를 위한 기술 개발 또한 필요함
 - 또한 최근 식품 안전성에 대한 높은 민도가 유지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수산정책의 수립이 생산·가공·유통 단계 전반에 걸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유통현황)** 전통시장 환경 개선 등 오프라인 유통체계 개선 필요
 -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1년의 경우 감염 우려로 인해 오프라인 경로 중 전통시장을 통한 수산물 소비가 크게 감소했음. 그러나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전통시장 등 대면 거래가 전년에 비해 증가했음
 - 그러나 여전히 대형소매점 및 대량 수요처에서의 유통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서 언급된 수산물 소비에 있어서의 식품 안전성과 더불어 접근성 또한 소비처 선택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접근성과 수산물 품질 관리를 위한 진열등과 같은 시설 개선과 같은 오프라인 유통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유통비용) 전반적 비용 상승, 직거래 등 유통체계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수산물 유통발전계획 설계 필요
 - ‘코로나19’는 전통적인 수산물 소비방식으로 알려진 대면 거래가 외에도 다양한 유통경로로의 접근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이러한 가능성은 인건비 및 각종 유통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유통경로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보다는 경쟁 유통경로의 도입으로 인한 유통경로간 경쟁체제의 도입에 의미가 있음
 - 이와 함께 점차 발달하고 있는 물류체계 속에서 산지에서 1차로 판단했던 상품 가치를 소비지에서 다시 판단하고 분산 물류 기능을 담당했던 소비지도매시장의 비중 축소 추세 또한 유통단계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온라인판매, 가공식품 생산 지원을 통한 물류 단순화는 소비 행태의 변화와 함께 유통체계의 변화를 가속화 할 것임
 - 이에 따라 수산물 가치의 재평가 및 소비지 분산 물류의 기능을 담당했던 소비지도매시장의 기능 등과 같은 전통적인 수산물 물류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수산물 유통발전계획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006), 「넙치 양식 표준 지침서」
- 김수현 외(2022), 『빅데이터 활용 수산물 유통지도 구축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각 연도.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2), 「2021 가공식품 소비자태도 조사
심층분석 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각 연도.
- 대형선망수협(2022), 어종별 일일단가 현황, 내부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및 기초분석보고서」, 각 연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 해양수산부(2021),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 해양수산부,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 각 연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1), 「2021년 해양수산전망대회 자료집」.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1), 「FTA 체결국 수산물 수입 동향」, 4분기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2), 「월간 수산관측 & 이슈」, Vol. 58
- FAO, Food Outlook, 각 연도.
- FAO, Food price index.
- FAO(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재고동향, <http://www.nfqs.go.kr/hpmsg/data/actionMarineStockForm.do?menuId=M0000226>(검색일 : 2022. 12. 09)
- 법제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615&lsiSeq=232965#0000>(검색일 : 2022. 12. 08)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http://kosis.kr>(검색일 : 2022. 12. 09)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KATI, www.kati.net(검색일 : 2022. 12. 0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 <https://www.kamis.or.kr/>(검색
일 : 2022. 12. 12)

한국무역협회, <http://www.kati.net>, 검색일 : 2022. 10. 10)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http://www.fips.go.kr/p/Main/>(검색일 : 2022. 12. 3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홈페이지, www.foc.re.kr(검색일 : 2022. 12. 15)